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이상신·현인에·송영훈·정한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이상신·현인애·송영훈·정한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통일 이후 통합방안(4/5년차)) KINU 연구총서 16-22

---

인 쇄 2016년 12월  
발 행 2016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통일정책연구소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7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02-2275-6894)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02-517-5043)

ISBN 978-89-8479-862-5 9334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남북 통일[南北統一]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6032568

가 격 19,000원

---

©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차

요약 .....	xiii
<b>I. 서론 .....</b>	<b>1</b>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3
2. 조사방법 .....	5
<b>II. 남한 주민의 인식조사: 통일국가정체성 및 통일문제 중심 .....</b>	<b>7</b>
1. 통일국가의 정체성 .....	9
2. 통일국가정체성의 사회적 기반 .....	35
3. 북한·통일문제 인식 및 평가 .....	71
<b>III. 남북한 주민의 인식 비교: 통일국가정체성 및 통일문제 중심 .....</b>	<b>95</b>
1.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	97
2. 통일국가 비전 .....	99
3.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	104
4. 다중정체성 .....	105
5. 통일 속도 .....	108
6. 통일의 필요성 .....	109
7. 요약 및 함의 .....	110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b>IV. 심층분석</b> .....	<b>113</b>
1. 통일국가 비전과 북한인식 유형의 상관관계 .....	115
2. 통합인식 유형에 대해 사회적 기반이 미치는 영향 .....	150
3.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과 북한·통일문제 인식의 상관관계 ..	175
<b>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 .....	<b>201</b>
1. 주요 조사 결과 .....	203
2. 정책적 시사점 .....	209
참고문헌 .....	222
부록 1.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	226
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 인식조사 .....	40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433

## 표 목차

표 II-1 통일 이후 체제 선호 (%) .....	10
표 II-2 통일 이후 선호 정치제도 .....	13
표 II-3 통일의 원칙 .....	15
표 II-4 통일국가의 비전 19문항 (%) .....	18
표 II-5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부장적 순응인식(동의한다는 비율) ·	61
표 II-6 남북관계에서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1, 2 순위 합 ·	62
표 IV-1 1차 요인분석 - 요인적재값 .....	117
표 IV-2 2차 요인분석 - 요인적재값 .....	119
표 IV-3 통일국가 비전의 세 가지 요인 .....	120
표 IV-4 통일국가 비전 요인 합산척도 변수 기술통계 .....	123
표 IV-5 지지 정당 분포 .....	132
표 IV-6 4군집 모형 기술통계 .....	141
표 IV-7 2014년과 2015년의 군집분포 .....	141
표 IV-8 남북통합 인식 유형화의 틀 .....	156
표 IV-9 세대별 통합인식 유형 .....	161
표 IV-10 본 연구의 변수, 개념과 지표, 측정문항 .....	167
표 IV-11 다중회귀분석 결과 .....	171
표 IV-12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안보위협 인식 (%) .....	178
표 IV-13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표 .....	180
표 IV-14 중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교차분석표 (%) .....	181
표 IV-15 중국과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교차분석표 (%) .....	182
표 IV-16 북한에 대한 이미지 상관분석 .....	184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표 IV-17 북한이미지와 안보위협 인식 상관관계 .....	184
표 IV-18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안보위협 인식 상관관계 .....	186
표 IV-19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외교관계 인식의 상관표 .....	192
표 IV-20 외교관계 인식의 상관표 .....	192
표 IV-21 북한이미지와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 인식 상관관계 .....	196
표 IV-22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외교관계 인식 상관관계 .....	197

## 그림 목차

그림 II-1 통일국가의 통합과제 .....	27
그림 II-2 북한 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 .....	29
그림 II-3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요건 .....	31
그림 II-4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 .....	33
그림 II-5 국가/한민족 정체성: 소속감 .....	41
그림 II-6 아시아/세계인 정체성: 소속감 .....	42
그림 II-7 세대별 대한민국/한민족/아시아/세계인 소속감 비교 ...	44
그림 II-8 국가 자부심과 혐오감 .....	46
그림 II-9 세대별 국가 자부심과 일체감 .....	47
그림 II-10 한민족에 속하는 집단 .....	49
그림 II-11 국적 미보유 한국인에 대한 공식 개방 금지에 대한 태도 ·	50
그림 II-12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한 동의 비율 .....	52
그림 II-13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	53
그림 II-14 자유/인권의 허용 범위 .....	54
그림 II-15 세대별 자유/인권 허용범위에 대한 인식격차 .....	55
그림 II-16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비율 .....	56
그림 II-17 세대별, 학력별 주택제공/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	57
그림 II-18 가부장제 전통과 수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동의 비율 ·	59
그림 II-19 공공의식과 시민성 .....	64
그림 II-20 사회신뢰의 수준 .....	65
그림 II-21 세대별, 학력별 시민성과 신뢰 수준 .....	66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그림 II-22 1년 전 대비 국가/가정경제 변화 .....	68
그림 II-23 국가/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 변동 .....	69
그림 II-24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여부 (%) .....	74
그림 II-25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 .....	77
그림 II-26 북한에 대한 인지도 (%) .....	78
그림 II-27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	80
그림 II-28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	82
그림 II-29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	84
그림 II-30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인지도 .....	86
그림 II-31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	87
그림 II-32 남북관계에 경제협력이 미치는 영향 (%) .....	88
그림 II-33 대북정책별 지지도 (%) .....	90
그림 III-1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인식	98
그림 III-2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비전 .....	99
그림 III-3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 비전 비교 .....	102
그림 III-4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비교 ·	104
그림 III-5 북한이탈주민의 다중정체성 .....	105
그림 III-6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대외정체성 비교 .....	108
그림 III-7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 속도에 대한 견해 ·	108
그림 III-8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	109
그림 IV-1 1차 평행선 분석 - 아이겐값(Eigenvalue)의 분포 .....	116

그림 IV-2 2차 평행선 분석 - 아이겐값(Eigenvalue)의 분포	118
그림 IV-3 통일국가 비전 세 가지 요인의 성별 교차분석	124
그림 IV-4 자유주의 요인과 세대	126
그림 IV-5 국가주의 요인과 세대	127
그림 IV-6 단일민족 요인과 세대	128
그림 IV-7 자유주의 요인과 이념	129
그림 IV-8 국가주의 요인과 이념	130
그림 IV-9 단일민족 요인과 이념	131
그림 IV-10 자유주의 요인과 지지 정당	132
그림 IV-11 국가주의 요인과 지지 정당	133
그림 IV-12 단일민족 요인과 지지 정당	134
그림 IV-13 북한인식의 분포	138
그림 IV-14 북한인식 산포도 (도수 가중치)	139
그림 IV-15 북한인식 산포도 (4군집 표기)	140
그림 IV-16 북한인식 4군집의 성별 분포 (%)	142
그림 IV-17 북한인식 4군집의 세대별 분포 (%)	143
그림 IV-18 북한인식 4군집의 이념별 분포 (%)	143
그림 IV-19 북한인식 4군집의 지지정당별 분포 (%)	144
그림 IV-20 북한인식 각 군집의 자유주의 요인 평균 비교	146
그림 IV-21 북한인식 각 군집의 국가주의 요인 평균 비교	147
그림 IV-22 북한인식 각 군집의 단일민족 요인 평균 비교	148
그림 IV-23 통일 후 남북 제도 존속 및 북한의 제도규범 존속에 대한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태도 .....	157
그림 IV-24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동의 비율 비교 .....	158
그림 IV-25 북한 주민 한민족 구성원 인정 여부: “중복응답” 비율	158
그림 IV-26 남북통합 인식유형 비중 .....	160
그림 IV-27 통합인식 유형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 .....	162
그림 IV-28 시민성 지수와 사회신뢰지수의 확률밀도 .....	166
그림 IV-29 통일 후 통일국가에 대한 위협 인지도 .....	177
그림 IV-30 통일국가와 주변국가의 협력강화 필요성 인식 .....	189
그림 IV-31 미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	193
그림 IV-32 일본,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	194
그림 IV-33 중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	195



통일국가의 정체성 및 통일문제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국가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통일국가가 한민족만의 단일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통일국가 비전에 관련된 복지 와 재분배, 개인과 국가의 관계, 민족주의와 다문화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 사회에 대한 정체성은 상충요인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국 국민들은 종족적 의미에서의 한민족 정체성과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혼재하여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민족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 세대,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전후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리 국민들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복합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이념적 성향보다 세대 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현실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등과 같은 경제협

력에 있어서는 찬성, 유보, 반대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넷째, 통일국가가 비전 및 정체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 차이가 주목된다.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보다 높은 비율로 남한식 체제를 선호했다.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사용과 통일국가의 역사와 전통유지, 통일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남한 주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의 혈통을 남한 주민보다 더 중시했고 남한 주민은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한 주민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한국 사회의 시민성과 포용성이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문화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70%를 상회하여 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 기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는 있지만, 북한의 제도/규범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통합인식은 전통적인 지역균열, 정당균열 및 언론의 정치적 정보 유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상과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갈등 완화의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긍정적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일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려는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용, 다른 집단 및 다른 개인에 대한 포용의식이 중요하다. 또한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객관적이면서도 갈등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은 남북문제와 통합문제에 대한 이념적, 당파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면서도 문제해결 지향적인 실용적 사고와 다양한 사고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첩경이다.

둘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는 인구 구성면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불가피하다. 통일 이후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대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혈연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를 배합하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이다.

셋째, 통일의 필요성과 편익을 구체화해야 한다. 통일은 더 이상 당위적이지 않으며, 통일 이유와 필요성, 통일비용 분담 방법, 통일편익의 분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미래상의 구체화, 그리고 통일미래상을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넷째, 북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국가정체성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제도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차이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첫째, 통일 이후 국가통합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주민의 수준에 상응하게 정치통합단계를 정하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국가의 통합을 위해 다원성과 민족주의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예행 관점에서 탈북민 정착정책을 펴고 경험을 축적하고 해결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빠른 기간에 적응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을 위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은 우선적으로 지정학의 변화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통일 후 지역 내 상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 과정에서 통일한국이 지역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주변 국가에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도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균형있고 협력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통일과정은 통일한국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통일국가정체성, 통일국가 비전, 통합의 사회적 기반, 대외적 정체성

## Survey on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s Perception of the Identity of a Unified State

*Park, Jong-Chul et al.*

The main results of a survey on the identity of a unified state and unification issue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consensus has not been formed in terms of a vision for a unified state. Second, South Korean people have mixed identities of both a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t a citizenry level. Third, while South Korean people have a strong image of hostility and vigilance towards North Korean regime, their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are more multifaceted. Fourth,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people on the vision and identity of a unified state were notable. Fifth, South Korean society's citizenship and tolerance have an effect on integrat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followings are policy implications in forming the identity of a unified state. First, efforts are needed to expand South Korean society's social capital. Second, cultural diversity beyond nationalism must be embraced. Third, the necessity and benefits of unification must be more specified. Fourth,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people must be considered when forming a unified national identity. Fifth, a balanced foreign diplomacy for the identity of a unified state is needed.

**Keywords:** Identity of a unified state, visions of a unified state, soci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foreign identity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북한체제의 구조적 문제와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한 종합적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준비 과제 가운데서도 통일 이후 북한체제 전환, 남북한의 분야별 제도통합, 남북한 주민의 국민통합 등 통일 이후 남북한의 통합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통합 방안 제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북한 및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통일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통합은 크게 보면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으로 구분된다. 제도통합은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제도적 차원에서 통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며 외형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통합은 통합의 내적 측면으로 남북한 주민이 가치와 의식, 문화면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또한 통합은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구분된다. 국가통합은 국가형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치적·법적 절차의 마련, 국제법적 절차 및 국제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통합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가치관과 규범, 생활양식 등에서 절차와 규칙이 내재화되는 과정이다. 통일 이후 각종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형성을 위해서는 외형적 제도통합과 내적 통합인 가치통합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통일 이후 각종 사회갈등과 균열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일체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바람직한 제도와 가치관을 지향하는 집단적 의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국가정체성은 개인적 차원의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차원의 사회적 정체성을 넘어 국가라는 정치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정체성이다. 그리고 국가정체성은 민족정체성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민족정체성이 혈연적·정서적·문화적 요인에 근거한 민족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국가정체성은 정치적 제도와 규범이 작동하는 정치공동체인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정체성에는 대내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작용하며, 대외적으로 차별의식을 형성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통일은 상이한 제도와 가치를 지닌 남한과 북한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치공동체가 하나의 새로운 정치공동체로 결합되는 통일국가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국가의 비전과 통합과제에 대한 것으로 통일국가의 제도 및 가치에 대한 일체감과 동일화 정도이다. 둘째, 통일국가의 공동체 구성원의 요건으로 혈연, 거주 지역, 언어, 법·제도 준수, 전통·관습 공유 등 가운데 어떤 요인을 중시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국가에서 민족구성원, 아시아공동체의 일원, 세계시민의 일원 등 다중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 국가정체성의 대외적 측면으로 국제적 위협요인, 대외관계 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는 통일국가정체성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심층분석, 그리고 남북한 주민의 인식비교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 국민의 인식조사이다.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국가의 정체성, 국가정체성의 사회적 기반, 북한·통일문제 인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심층분석으로 통일국가정체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 가지 사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통일국가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통일국가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는 통일국가정체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통일국가비전, 통합인식유형, 대외적 정체성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심층분석 1은 통일국가 비전에 대한 북한인식 유형의 영향으로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통일국가의 비전(제도, 가치, 과거청산 등)이며 독립변수는 북한인식 유형(4유형)이다. 심층분석 2는 통합인식 유형에 대한 사회적 기반의 영향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통합인식 유형(민족성 인정 정도, 북한제도의 용인 정도를 변수로 4 유형 설정)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적 기반이다. 그리고 심층분석 3은 통일국가 대외적 정체성에 대한 북한·통일인식의 영향으로 여기에서 종속변수는 통일국가의 대외적 정체성이며, 독립변수는 북한·통일인식이다.

셋째, 제한적 범위에서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남한 주민 1,005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북한이탈주민 30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의 제한으로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통일국가 비전,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대외정체성, 통일 속도, 통일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할 것이다.

## 2. 조사방법

통일국가정체성 형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5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

위 추출방법을 통해 선정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를 2016년 6월 13일 ~ 7월 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한편, 통일국가의 정체성은 남북한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체성이다. 통일국가정체성 연구는 남북한 주민을 다 포괄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설문문항 중 일부를 선택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모집단은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300명이다.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랜덤조사가 어려우므로 눈덩이표집과 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훈련된 조사원들이 종이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II. 남한 주민의 인식조사: 통일국가정체성 및 통일문제 중심





# 1. 통일국가의 정체성

## 가.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 (1)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이제 남한과 북한의 체제 경쟁은 사실상 끝났다. 남한의 체제가 북한보다 우월한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보다 낫다는 것이 남한 국민들이 남한 정치 체제와 사회 구조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한의 압도적인 우위로 끝난 체제 경쟁 결과를,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제도와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기를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남한의 국민들은 실제로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제도와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할 것인가? 물론 북한식 체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헬조선’이란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 유행할 만큼, 남한의 체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에도 남한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다수 국민들이 바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1)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2)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3)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4)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의 네 가지 답지를 제시했다.

I

II

III

IV

V

표 II-1 통일 이후 체제 선호 (%)

Base = 전체	사례수 (명)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계
■ 전체 ■	(1,005)	63.9	26.9	8.4	0.9	100.0
<b>성별</b>						
남자	(499)	61.7	27.3	9.8	1.2	100.0
여자	(506)	66.0	26.5	6.9	0.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66.5	21.0	11.9	0.6	100.0
만30세-만39세	(183)	66.1	23.5	9.3	1.1	100.0
만40세-만49세	(211)	48.8	40.8	10.0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61.8	29.1	7.5	1.5	100.0
만60세 이상	(236)	75.4	19.5	4.2	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73.7	21.0	4.2	1.2	100.0
고졸 이하	(432)	60.4	30.6	8.1	0.9	100.0
대졸 이상	(406)	63.5	25.4	10.3	0.7	100.0
<b>이념</b>						
진보	(236)	60.2	28.0	11.9	0.0	100.0
중도	(418)	60.0	29.4	9.6	1.0	100.0
보수	(351)	70.9	23.1	4.6	1.4	100.0
<b>선호정당</b>						
새누리당	(345)	71.0	23.2	4.3	1.4	100.0
더불어민주당	(201)	62.2	30.3	7.5	0.0	100.0
국민의당	(65)	58.5	32.3	9.2	0.0	100.0
정의당	(12)	41.7	41.7	16.7	0.0	100.0
기타정당	(15)	46.7	33.3	20.0	0.0	100.0
선호정당 없음	(367)	60.5	26.7	11.7	1.1	100.0
<b>통일필요성</b>						
통일필요	(736)	62.9	28.5	7.9	0.7	100.0
통일불필요	(189)	64.0	24.9	10.6	0.5	100.0
통일무관심	(80)	72.5	16.3	7.5	3.8	100.0

전체 1,005명의 응답자 중,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답은 불과 0.9%로, 사실상 북한의 체제를 선호하는 응답자는 없었다고 말해도 좋을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식 체제에 대한 불신이 곧 남한의 정치체제와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고 하기에는 부족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26.9%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그리고 8.4%는 “제3의 체제”를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 과반이 넘는 63.9%의 응답자가 “남한식 체제”로의 통일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설문 자체에서 북한과의 비교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한 체제의 선호를 선택하기 쉬운 구조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의외로 높지 않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 이후 체제를 남한과 북한 체제 사이의 선택이 아닌 일본이나 미국, 혹은 북구의 복지 국가 등과 비교하여 선택하라고 질문했다면 이 문항에서 남한식 체제를 선호한 63.9%가 어떤 답을 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 설문 결과에서 놀라운 것은 26.9%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의 통일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설문에서는 26.9%에 그쳤지만,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에 대한 동의/부동의를 물었을 때는 65.6%의 응답자<sup>1)</sup>들이 이 문장의 내용에 동의하였다. 이를 생각해보면, 통일 이후에도 남북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종의 연방제적 통일 필요성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 이후의 사회상에 대한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15 통일의식조사』

<sup>1)</sup> 매우 그렇다: 12.9%, 대체로 그렇다: 52.6%.

I
II
III
IV
V

에 따르면,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7.4%에 그쳤으며, 반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2.0%에 달했다. 통일 이후에 빈부격차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63.1%였고, 부동산 투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51.8%였다. 마찬가지로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47.7%였고 범죄문제 악화는 62.9%, 지역갈등 악화는 64.4%, 이념갈등 악화는 67.7%에 달했다. 즉, 사회, 경제, 정치 등 거의 전 부문에서 통일 이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 양상이 발견된다. 이런 통일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급작스러운 체제의 통합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남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냉각기간을 거치는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40대 응답자층에서 이 “각각의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20대가 21.0%, 30대가 23.5%, 50대가 29.1%, 그리고 60대 이상이 19.5%였던 반면 40대는 이보다 훨씬 높은 40.8%가 남북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는 40대가 80년대의 정치 투쟁 경험을 공유하면서 가장 진보적 성향이 높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4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남한의 현 체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가장 높은 특징을 지니는데, 이에 따라 통일국가의 시스템에 현 남한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해야 한다는 주장에 선뜻 공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 이후의 정치제도로 남한 국민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고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 (1) 대통령제, (2) 의원집정부제, (3) 의원내각제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선호하는 제도를 고르도록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2 > 통일 이후 선호 정치제도

Base = 전체	사례수 (명)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고 국무총리가 정부행정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	국무총리 (수상)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의원내각제	모름	계
■ 전체 ■	(1,005)	51.7	23.4	15.9	9.0	100.0
<b>성별</b>						
남자	(499)	50.3	24.8	18.6	6.2	100.0
여자	(506)	53.2	21.9	13.2	11.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50.6	21.6	15.3	12.5	100.0
만30세-만39세	(183)	52.5	20.8	18.0	8.7	100.0
만40세-만49세	(211)	48.3	24.6	19.4	7.6	100.0
만50세-만59세	(199)	50.3	28.1	15.6	6.0	100.0
만60세 이상	(236)	56.4	21.6	11.9	10.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2.7	24.0	13.2	10.2	100.0
고졸 이하	(432)	52.8	22.2	15.7	9.3	100.0
대졸 이상	(406)	50.2	24.4	17.2	8.1	100.0
<b>이념</b>						
진보	(236)	48.7	25.8	17.4	8.1	100.0
중도	(418)	52.4	23.2	12.9	11.5	100.0
보수	(351)	53.0	21.9	18.5	6.6	100.0
<b>선호정당</b>						
새누리당	(345)	59.7	21.4	11.9	7.0	100.0
더불어민주당	(201)	51.7	25.4	17.9	5.0	100.0
국민의당	(65)	49.2	23.1	16.9	10.8	100.0
정의당	(12)	25.0	50.0	16.7	8.3	100.0
기타정당	(15)	33.3	26.7	20.0	20.0	100.0
선호정당 없음	(367)	46.3	23.2	18.3	12.3	100.0
<b>통일필요성</b>						
통일필요	(736)	49.7	25.1	17.0	8.2	100.0
통일불필요	(189)	57.7	20.1	12.2	10.1	100.0
통일무관심	(80)	56.3	15.0	15.0	13.8	100.0

I  
II  
III  
IV  
V

전체 응답자의 51.7%가 대통령 중심제를 통일한국에서의 체제로 선호했다. 의원집정부제(23.4%)나 내각제(15.9%)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남한에서는 1960년 4.19 이후 약 1년 동안 내각제를 실시했던 시기를 제외하고 줄곧 대통령제를 실시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개인에게 지나친 권력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제에 대한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이 제도 선호에 대한 학력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내각제 선호에 있어 대졸 이상이 17.2%, 고졸이 15.7%, 중졸 이하가 13.2%로 고학력일수록 내각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했으나 그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앞의 정치체제에 관련된 선호와 이 정치 제도에 대한 선호를 종합해 보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남한의 체제와 제도가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을 선호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는 새로운 체제와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절반을 약간 넘는 51.7%에 그쳤다는 사실은, 2017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많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 (2) 통일의 원칙

정치제도와 체제에 대한 질문은 전문적인 정치학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답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차원으로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단일민족국가 복원”, “평화와 공존의 가치”,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 그리고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이라는 다섯 가지 답지를 주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II-3 ▶ 통일의 원칙

Base = 전체	사례수 (명)	자유민 주주의 이념 수호	단일 민족 국가 복원	평화와 공존의 가치	자본 주의 경제 체제 유지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	기타	계
■ 전체 ■	(1,005)	33.1	22.8	18.9	13.5	11.5	0.1	100.0
<b>성별</b>								
남자	(499)	34.3	22.4	17.2	13.4	12.6	0.0	100.0
여자	(506)	32.0	23.1	20.6	13.6	10.5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7	17.0	20.5	13.1	14.2	0.6	100.0
만30세-만39세	(183)	33.9	18.0	19.1	15.8	13.1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30.3	19.0	23.7	14.2	12.8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35.7	25.1	15.1	15.1	9.0	0.0	100.0
만60세 이상	(236)	31.8	32.2	16.5	10.2	9.3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1.7	30.5	14.4	13.2	10.2	0.0	100.0
고졸 이하	(432)	33.6	22.0	20.1	12.3	11.8	0.2	100.0
대졸 이상	(406)	33.3	20.4	19.5	15.0	11.8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4.7	17.8	22.9	13.1	11.4	0.0	100.0
중도	(418)	31.1	23.7	19.6	11.7	13.6	0.2	100.0
보수	(351)	34.5	25.1	15.4	16.0	9.1	0.0	100.0
<b>선호정당</b>								
새누리당	(345)	28.4	30.4	17.1	15.7	8.4	0.0	100.0
더불어민주당	(201)	38.3	21.4	16.9	10.0	13.4	0.0	100.0
국민의당	(65)	32.3	18.5	18.5	13.8	16.9	0.0	100.0
정의당	(12)	41.7	16.7	8.3	8.3	25.0	0.0	100.0
기타정당	(15)	13.3	26.7	33.3	0.0	26.7	0.0	100.0
선호정당 없음	(367)	35.4	17.2	21.5	14.2	11.4	0.3	100.0
<b>통일필요성</b>								
통일필요	(736)	35.6	22.6	17.3	13.2	11.4	0.0	100.0
통일불필요	(189)	29.6	22.2	21.2	14.8	12.2	0.0	100.0
통일무관심	(80)	18.8	26.3	28.8	13.8	11.3	1.3	100.0

I  
II  
III  
IV  
V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통일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로, 33.1%가 이 원칙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단일민족국가 복원”이 22.8%,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18.9%로 뒤를 이었다. 경제체제와 관련된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와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은 각각 13.5%와 11.5%로, 다른 원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선호가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수호는 북한의 공산주의 및 세습 수령체제의 부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주의의 유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힌 반면, 두 번째 단일민족국가 복원은 민족주의적 가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대별로 선호가 상당히 갈리고 있음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대와 60대가 단일민족국가 복원을 25.1%와 32.2%로 선호하고 있는 반면, 40대 및 그 이하 세대에서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50대 이상 노장년층에서는 평화 및 공존, 자본주의 체제 유지, 그리고 복지와 인권 증진 항목에 대한 선호가 40대 이하 세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 50대 이상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단일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 반면, 40대 이상에서의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보다 풍요한 삶의 실현이라는 점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응답자들의 이념을 중심으로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면 진보 응답자들이 단일민족국가 복원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낮고 평화 및 공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보수에게 통일은 민족주의적인 가치의 문제이며, 진보에게는 평화와 공존의 문제라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 나. 통일국가의 비전

과연 한국인들은 통일된 이후의 국가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조사에서는 정치·경제·북한체제전환·다문화주의·이념·분배 등 다양한 차원의 질문 19개를 선정하여 4점 척도<sup>2)</sup>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먼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으로 통일한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두면서도, 현재보다는 부의 평등한 재분배가 더욱 강조되는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2) 공산주의 체제는 용납될 수 없지만, 현 북한의 규범이나 제도, 역사 인식 등은 통일한국에서 어느 정도 존속될 여지가 있다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 (3) 혈통적 단일성에 천착하는 민족주의를 배격하며, 소수자의 인권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적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동시에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선호도 높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 (4) 통일국가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각론에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공산주의·사회주의 이념의 허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 (5)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방분권 강화와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앙정부 지지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통일국가

<sup>2)</sup>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I
II
III
IV
V

비전의 구체적인 각론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정치적 지식이 충분한 응답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 (6)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답이 많았으며, 이는 아직 개인주의보다는 유교적 공동체주의의 영향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래의 표는 이 19문항에 대한 응답을 긍정과 부정의 답으로 합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소수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가장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던 문항의 순서대로 나열해보았다.

**표 II-4** 통일국가의 비전 19문항 (%)

	긍정	부정
4)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89.7	10.2
6) 통일국가에서는 재벌들의 경제 독점을 막아야 한다	89.1	10.9
16) 통일 후 이전 북한 공산주의의 잔재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87.0	12.8
14) 통일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82.1	17.8
5)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79.7	20.3
1)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74.4	25.6
13)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72.0	28.0
8)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71.8	28.2
10) 통일 이후 지방자치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71.0	29.0
17) 통일 이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70.0	30.0
15)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서는 안 된다	69.9	30.1

	긍정	부정
2)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67.7	32.3
9)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5.6	34.2
19)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60.7	39.3
7) 통일국가 정부는 예산을 아끼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59.8	40.1
12)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59.6	40.3
18)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	55.9	44.1
11)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53.9	46.1
3)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35.6	64.3

### (1) 통일국가의 경제

우선, 가장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던 문항은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90%에 근접하는 응답자들이 이 문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두 번째로 높은 긍정률을 보인 문항도 경제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바로 재벌들의 경제 독점에 관련된 것이었다. 89.1%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두 문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은 통일한국에서는 지금보다 부의 분배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선거 쟁점화시켰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

I
II
III
IV
V

식의 통일을 선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체제와 관련된 문항은 이 밖에도 두 개가 더 있었다. 그중 하나는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통일국가 정부는 예산을 아끼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앞의 문항에 대한 긍정률은 79.7%로 상당히 높았지만, 뒤의 문항에 대한 긍정률은 59.8%로 전체 문항 중 긍정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자유 경쟁의 보장’과 ‘작은 정부’는 사실 보다 공평한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한 앞의 두 문항과는 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들이다. 작은 정부에 대한 긍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분배의 필요성을 인정한 앞의 두 문항의 높은 긍정률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논리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할 경우 정부의 예산은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큰 정부’가 될 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국가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반면 자유 경쟁 문항의 긍정률이 80%에 가까웠다는 것은 응답자들이 분배와 경쟁을 모두 선호하는 양가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약간의 혼선이 생긴다. 사적 행위자들의 자유 경쟁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사회에서는 대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면서도 자유 경쟁의 보장을 동시에 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충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이 자유 경쟁 문항에서 응답자들이 자유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부분보다도 “자본주의 체제”가 언급된 부분에 주목하여 답하였기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자유 경쟁을 보장한다는 자본주의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통일 이후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형태로 자본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문항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높은 긍정률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 (2) 북한의 유산

부의 재분배와 관련된 문항들에 이어 가장 높은 긍정률을 보인 항목은 “통일 후 북한 공산주의의 잔재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87%의 긍정률을 기록했다. 비슷하게 통일 이전 북한의 시스템이 얼마나 통일 이후에도 존속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문항은 세 가지가 더 있었는데,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긍정률 65.6%)”,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긍정률 60.7%)”,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긍정률 55.9%)”라는 문항들이었다.

이 중 공산주의 청산 이외의 세 문항의 긍정률은 전체 19문항과 상대 비교해보면 결코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낮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도의 일부 존속에 대한 긍정률은 55.9%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그러나 이는 긍정률의 상대적인 비교일 뿐, 그 절대적인 비율을 보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 그리고 이념이나 문화를 어느 정도는 통일한국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의 비율은 전체의 과반이 넘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북한의 제도나 이념의 존속에 대한 긍정률은 각각 65.6%, 60.7%, 55.9%로, 모든 문항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현 북한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한국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공산주의 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

I
II
III
IV
V

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의 규범과 제도, 혹은 역사 해석은 통일한국에서 일정 정도 수용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 (3) 단일민족 vs.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및 소수집단 보호에 대한 문항도 복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통일국가에서는 소수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긍정률 82.1%)”,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긍정률 67.7%)”, 그리고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된다(긍정률 35.6%)” 등이었다. 여기서 마지막 문항, 즉 이민 및 외국인 결혼 장려 금지에 대한 긍정률이 35.6%로 매우 낮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국가 비전에 대한 19개 문항 중 가장 낮은 비율이고, 긍정률 50% 이하를 기록한 유일한 문항이기도 하다. 즉, 혈통적 단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통일국가 비전은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반면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긍정률이 있었으며, 다문화사회로서의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도 과반을 훨씬 넘는 67.7%의 긍정률을 기록했다. 이미 농촌 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학생 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 내 거주 중인 외국인의 숫자는 백만 명을 웃돌고, 탈북자만도 최근 3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혈연적 민족주의의 급속한 쇠퇴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다문화주의적 비전에 국민들이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매우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일민족국가’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에 대한 긍정률이 74.4%에 달해 다문화사회 비전에 대한 긍정률 67.7%보다 약 8%p 정도 높았다는 점이다. 즉, 이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선호와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선호가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결과는, 세대교체에 따라 민족주의가 약화되고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선호되는 한국 사회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원칙적으로는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 및 다문화사회로의 발전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실제로는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추구가 남아있는 과도기적 세태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보인다.

#### (4) 정치와 사상의 자유

다음으로는 통일국가에서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문항들을 살펴볼 차례이다. 이와 관련된 문항으로는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긍정률 72%)”,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69.9%)”,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53.9%)”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묻는 첫 번째 문항에 대한 긍정률은 72%로 경제관련 문항들보다는 긍정률이 낮았으나, 4분의 3 가까운 응답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즉, 통일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자유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 확대돼도 좋을

I
II
III
IV
V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 통일국가에서 좌파 사상까지도 허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관용을 주장한 비율은 응답자 절반 정도인 53.9%에 그쳤고, 나머지 절반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정치적 불관용의 또 다른 사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를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통일국가 수립 후에는 그 존립의 근거가 매우 약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70%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통일국가 수립 후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적 관용 정도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태도적 비일관성(attitudinal inconsistency)은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정치적 자유에 대한 원칙 자체는 받아들여 왔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제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한국 사회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 (5) 통일국가의 지방자치

통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문제를 묻기 위해 두 문항을 포함시켰다. 첫 번째는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통일 이후 지방자치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항이다. 이 내용적으로 상충되는 두 개의 문항은 긍정률이 각각 71.8%와 71%로 거의 동일했다. 이 두 문항은 사실상 같은 내용을 표현만 바꾸어 중복해서 물어봤다고 해도 될 정도로 밀접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다. 그런데 두 문제에 대한 긍정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두 문항을 교차분석해보면, 지방자치제 강화에 찬성하는 사람 중

강력한 중앙정부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72.7%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비율로 계산하면, 51.6%의 사람들이 강력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제 강화에 동시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가적 태도의 상당 부분은 결국 응답자들이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이 쟁점이 되는 정책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채 정당일체감 등을 통해 투표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바이기도 하다.<sup>3)</sup>

여론조사의 문항에 응답자들이 답을 했다고 해서 그 응답이 발달된 정치적 이념에 기반을 둔 성숙한 고민과 숙고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 응답은 문항 내의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통일 이후 지방자치의 문제처럼 전문 연구자들조차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면 응답자들이 비논리적이고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 (6) 통일과 개인

마지막으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문항 두 개가 남아 있다. 첫 번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70%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의 긍정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59.6%였다.

<sup>3)</sup> Phi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 D. Apter (New York: Free Press, 1964), pp. 223~227;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Sons, 1960), pp. 216~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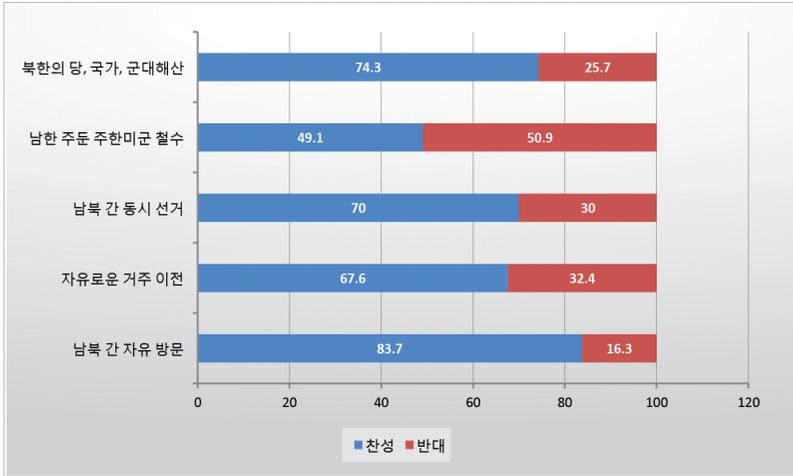
이 두 문항은 모두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첫 번째 문항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반면 두 번째 문항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이익을 서로 길항관계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중 중요한 것을 고르는 것으로 상당히 결이 다르다. 여기서 두 번째 문항이 좀 더 개인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적인 태도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거의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유교적 질서가 한국 사람의 정신 속에 강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첫 번째 문항은 인권 그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사실 통일 이후의 인적 청산에 더욱 가까운 내용이다. 따라서 이 문항에 대한 긍정률이 70% 이상이 되는 것은 사실 크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일국가의 비전은 현재 남한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의 재분배 및 복지 강화를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강력했지만,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는 그대로 통일국가에 계승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북한의 규범과 제도는 제한적으로 통일국가에 이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사상적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것에는 아직까지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여성 및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에 대해서는 분명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적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으나,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민족주의적 염원도 여전히 강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다. 통일국가의 통합과제

해방 이후 70년 이상 분단을 겪으며 남북한의 사회는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었다. 통일 이후에는 이 다른 두 사회를 어떻게 통합해 내는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 통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응답자들에게 이 과제들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4점 척도로 물었다.<sup>4)</sup> 이 4점 척도를 둘씩 묶어, 찬성과 반대로 나눈 후 아래 그래프와 같이 표시하였다.

그림 II-1 >> 통일국가의 통합과제



우선, 통일 이후 통합과제 중 가장 찬성도가 높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꼽힌 것은 “남북 간 자유 방문”이었다. 83.7%의 응답자들이 남북 간 자유 방문을 통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자유 방문을 넘어 자유로운 거주 이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은 이보다 좀 낮은

<sup>4)</sup> 1=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2=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상당기간 유예해야 한다; 4=통일 이후에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67.6%였다.

통일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고 여기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체제전환을 겪은 많은 국가들이 직장과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 국민들이 대거 이탈하는 경험을 겪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 간의 자유 방문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곧 남한의 대도시로 북한 주민들이 대거 유입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로 통일이 현실화되고 남북 간 자유왕래의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된 이후에는 83.7%의 높은 찬성률이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자유 방문에 대한 찬성률과 자유로운 거주 이전의 찬성률이 16.1%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급격한 인구 이동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16.1%는 곧 자유로운 왕래까지는 허용하되, 거주 이전까지는 쉽게 찬성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일 것이다.

“북한의 당, 국가, 군대 해산(찬성률 74.3%)”, 그리고 “남북한 동시 선거(찬성률 70%)”는 모두 비슷한 7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역시 연방제나 연합제 등을 통해 남북 간의 분리된 체제를 어느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남한과 북한 당국이 6.15 공동성명 등에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통일은 북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한 후, 하나의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선거를 통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 통합 과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다섯 가지 통합과제 중, 가장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것은 주한미군 문제였다. 주한미군이 통일 이후에는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49.1%, 이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이 50.5%로 나타났다.

정책적 통합과제 이외에도,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을 남한의

시스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직장을 얻고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자격 인정 문제이다.

통일 이전 북한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자격을 통일 이후에도 인정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의사, 대학교수, 교사, 군인, 공무원, 법률인의 다섯 직종을 골라 물었다. 각 직종에 종사하던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응답의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II-2 >> 북한 주민의 자격 및 경력 인정



모든 직종에서 60% 이상의 비율로 재교육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답변의 비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재교육 이수 대상이 되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전문직들이 지닌 기술과

I  
II  
III  
IV  
V

지식이 통일 이후에도 과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나마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의사(31.9%)였고, 그 다음으로 대학교수, 교사, 군인, 공무원, 법률인 순이었다. 이 순서를 보면 같은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직종과 교육직종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며, 반면 공무원이나 법률인 등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지탱하는 정치적 전문직에 대한 신뢰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대학교수와 교사는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율이 각각 20.5%와 20%로 의사의 31.9%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은 세 직종이 거의 비슷하게 6.4%(의사), 7.3%(대학교수), 6.1%(교사)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세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재교육을 거치면 그 자격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인, 공무원, 법률인의 경우는 재교육 과정을 거치더라도 자격을 아예 인정할 수 없다는 비율이 위의 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군인 19.7%, 공무원 15.9%, 법률인 16.5%).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 이후 통합과제로 북한의 당, 국가,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74.3%로 매우 높았는데, 이 세 직종은 바로 당, 국가, 군대를 운용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잔재를 남길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이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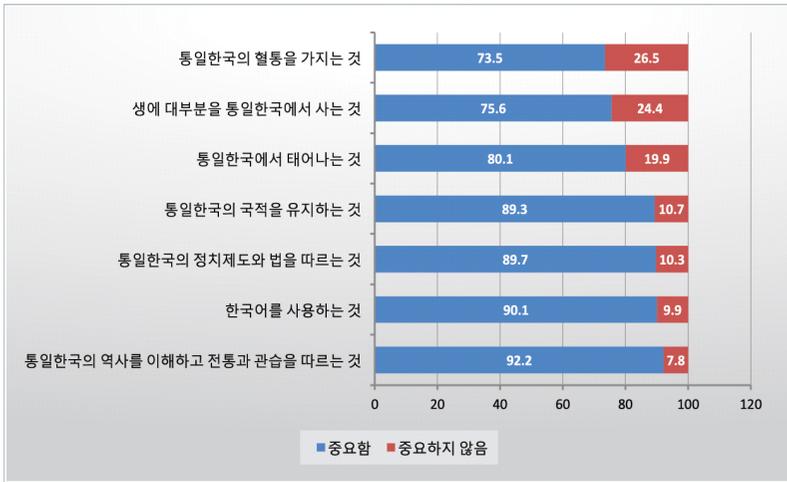
## 라.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국민들의 수용여부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출산율에 힘입어 한국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백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거주 중이며, 서울 시내의 주요 거리는 외국의 관광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따라서 “누가 한국인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비단 통일 이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새로운 통일한국에서, 통일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이를 연구하기 위해 일곱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각 항목의 중요성을 4점 척도<sup>5)</sup>로 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에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림 II-3 >>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요건



혈통, 혹은 거주기간, 그리고 한국에서의 출생여부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격요건에 비해 그 중요성이 낮은 편이었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빠르게 다문화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변화상을

<sup>5)</sup> 1=매우 중요; 2=약간 중요;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한 많은 외국인들은 이러한 혈통중심적 국민개념으로는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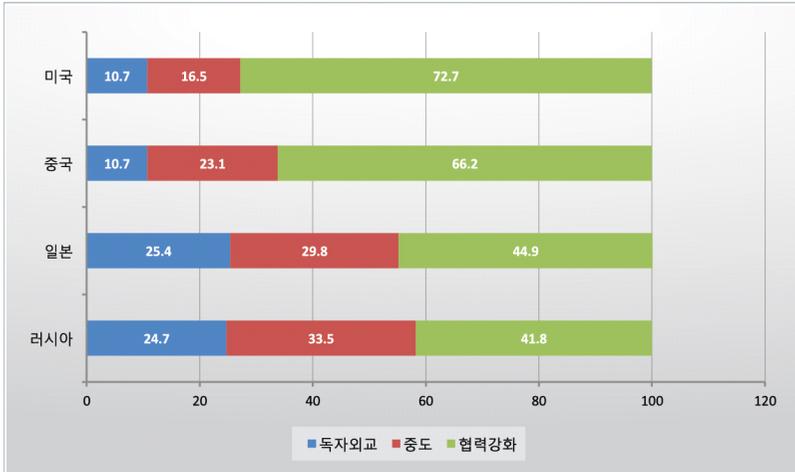
그렇다면 통일한국의 국민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위 그래프에 따르면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92.2%)”, “한국어의 사용(90.1%)”,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89.7%)”,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89.3%)”의 순서로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아직은 혈연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인식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는 이미 혈연보다는 문화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판단하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피할 수 없는 남한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문제를 제대로 합의해 내지 못하면 통일한국에서의 국민 정체성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 마.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 종종 그러나 정체성은 “타인이 누구인가?”를 통해 정의되기도 한다. 특히 외세에 의한 식민지화와 분단을 경험한 트라우마가 내재되어 있는 한국인들에게 정체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림 II-4 >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



그렇다면,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10점 척도<sup>6)</sup>로 물었다. 우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72.7%). 중국과의 협력 강화도 비슷한 수준이었다(66.2%). 반면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도 혹은 독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이었다.

미국 중심의 협력강화를 강조하는 한국 국민들의 대외정체성은 앞에서 살펴본 통일 이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찬성 여론과 함께, 통일한국에서의 외교 방향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의 돈독한 한미 관계가 통일 이후 북한의 위협이 해소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매우 높다는

<sup>6)</sup> 0~4=간섭없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5=중도; 6~10=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차분석을 해보면 전체 응답자의 55%가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가능할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인의 인식 수준에서 이미 중국은 일본과 러시아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미국과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성 인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인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양대 세력으로 국제정치가 양극화 되는 현상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나라 모두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과반을 넘고 있다는 것은 통일한국의 미래가 이 양 강대국 사이에서의 외교적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바. 요약 및 함의

통일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국가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현재 남한의 정치체제와 사회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분의 2 가까운 응답자들이 남한식 체제의 통일을 선호했으며, 통일 이후에도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51.7%에 달했다. 특히 남한에서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에도 대통령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남한의 체제가 변화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짙게 깔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한의 시스템 그대로가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남한의 제도 및 체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되어,

특히 부의 평등한 재분배 기능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재벌들의 경제 독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통일국가가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대해 한국 사회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와 재분배, 개인과 국가의 관계, 민족주의와 다문화 등의 문제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쟁점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이 해결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통일국가 비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 이런 분석 결과는 이번 연구의 목적, 즉 통일 이후의 통합 방안에 대한 모색이라는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또, 그 통합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어찌보면 평범한 사실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 2. 통일국가정체성의 사회적 기반

한국전쟁 이래 냉전과 탈냉전을 넘어 현재까지 오랜 대결과 갈등 관계에 놓였던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룰 경우, 통일국가의 제도적 통합이나 통일한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경제적 역량을 갖추는 것 외에 남북 간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I

II

III

IV

V

이 글은 남북 간 사회적, 문화적 통합은 이질적인 체제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남북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단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통일국가의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구성주의 관점(social constructionism)에서 보면 특정 사회적 집단의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은 사회적, 역사적 환경과 사회적 집단, 개인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동기와 행동을 규제하는 공유된 규범(social norms)과 공통의 인식(perception)이 형성되면서 집단 정체성도 내면화되어 간다.<sup>7)</sup>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분단국가로 오랜 시간 격리되어 사실상 두 개의 국가, 두 개의 격리된 사회가 지속되면서 독립된 별개의 국가정체성도 공고화되어 왔다. 격리되어 살아온 남과 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를 뛰어넘어 통합된 통일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와 체제를 기준으로 보면 오랜 기간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경험해 온 외집단(out-group)의 구성원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은 통일 이후 정치적 리더십, 제도적 통합과정, 경제적 여건, 통합을 위한 시민교육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겠지만, 관건은 결국 통일 이전 한국 사회와 북한 사회가 각각 통일한국의 통합된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 체제와 국가 사이의 통일은 주로 제도적 차원의 통합을

---

<sup>7)</sup> Abdelal Rawi, Yoshiko Herrera, Alastair I. Johnston, and Ross McDermott, *Measuring Identity: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p. 27~31.

의미하지만, 실제 이질적인 두 국가, 두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통합의 두 주체가 상대를 ‘우리’라는 개념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는 상당 부분 통일 이전 공고화된 두 사회의 이질성의 정도와 통합을 이끌 역량의 준비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정체성 통합의 실패는 통일의 정당성(legitimacy)을 약화시키고, 신생 통일체제에 대한 정치 사회적 신뢰와 지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통일 이후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 통일과정에서도 국가가 소멸된 동독 주민뿐 아니라 서독 주민들도 통일독일에 대한 통합국가 정체성 형성에 애를 먹었으며, 구동독과 구서독 지역주민 간의 규범적, 문화적 갈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갈등 요인과 결부되면서 내적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8)</sup> 한국의 경우도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는 통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이를 감당할 역량이 없다면 통일은 대박 이전에 재앙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남한과 북한 사회의 면면을 볼 때 통일한국의 통합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갈등의 요인은 무엇인지, 남북 간 사회 통합을 고려할 때 통일 후 통합에 친화적인 사회적 기반이 무엇이고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중요하다. 즉, 남과 북의 통일한국 이후 사회통합의 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사회적 역량과 기반이 어떠한지에 대한 사전 평가 및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sup>8)</sup>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64~66.

이 장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통일한국의 통합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질적인 상대를 우리라는 테두리 내로 포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한국 사회가 통일 한국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친화적이고 수용적인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점들은 통합의 정체성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의 대한민국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초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정도이다. 한국 사회는 ‘민족정체성’ 개념이 약화되고 분단되어 국내외적으로 실존해온 사실상의 2개의 ‘국가정체성’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sup>9)</sup>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독립적인 별개의 국가로서 국가정체성이 강하다는 것은 통일 후 통일한국의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당 기간 기존의 분단국가 및 분단사회를 경계로 형성되어온 통일 이전 남한과 북한에 대한 국가정체성이 잔존할 수밖에 없다.<sup>10)</sup> 또한 국가의 범위를 넘은 지역정체성(동아시아인), 세계인 정체성의 수용정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이후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가 만났을 때 충돌할 수 있는 가치관 및 규범과 관련한 남한 사회의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남과 북은 이질적 체제하에서 대립, 갈등해왔고 남과 북의 구성원들은 각각 고유의 영토 내에서 상이한 제도와 규범, 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 상이

<sup>9)</sup>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12;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pp. 37~38.

<sup>10)</sup> 송영훈,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 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72~73.

한 가치관과 규범이 내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새롭게 통합된 통일한국의 정체성이 충분히 자리 잡기 전까지 공식적, 제도적으로는 통합(institutional integration)되었지만, 사회 내적으로 양측 구성원들 사이에는 기존 통합 이전에 형성된 정체성과 가치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상이한 가치관과 규범이 각 구성원들 사이에 내면화된 정도가 클수록 통합정체성의 형성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통일은 외형적, 제도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은 어려울 것이다.

셋째, 한국 사회가 통일 이후 통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극복할 역량과 관련하여 시민성(civility)의 성숙도, 사회신뢰 기반(social trust),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적 시민성은 안으로는 성숙한 주권의식,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완화시키고, 국제 사회와 외부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1)</sup> 사회신뢰 기반은 한 사회의 갈등관리 제도의 작동과 사회적 응집을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한 사회의 통합역량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사회적 기반 못지않게 경제적 여력도 한 사회의 통합 역량의 중요한 지표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통합에 대한 냉소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I
II
III
IV
V

<sup>11)</sup> 정한울·정원칠,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한국정치』, pp. 113~118; 정한울·이근수,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p. 155.

## 가. 한국인의 대한민국 정체성

### (1) 대한민국 정체성, 한민족 정체성, 초국가 정체성

남북 간 통일과 통합을 고려할 때 통일의 의미를 분단된 국가 간 통일로 볼 것인지, 민족공동체의 통일로 볼 것인지는 통일국가정체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남북한 관계를 보면 국가 및 체제 차원에서는 대결과 갈등이 협력과 공존의 시기를 압도한다. 즉, 국가 및 체제 차원에서의 북한은 ‘우리’이기보다는 ‘적’이자 ‘대결’의 대상이다. 반면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통일의 공동주체이자 동질성 회복의 대상이다. 북한과 구별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정체성이 통일한국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관계를 가정할 수 있는 반면, 한민족정체성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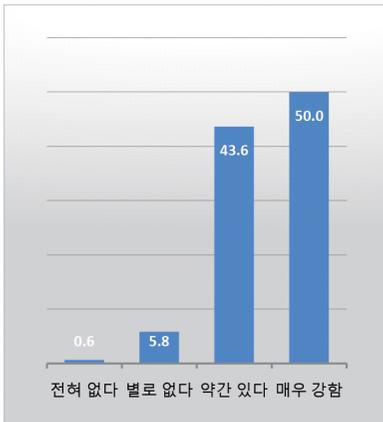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83.6%(매우 동의 50.0%, 약간 동의 43.6%),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85.7%(매우 동의 30.4%, 약간 동의 55.3%)로 공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0.0%에 달한 반면 한민족 소속감에 대해서는 30.4%에 그쳤다. 혈연에 기반을 둔 한민족 공동체 소속감의 강도가 대한민국 소속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통일 문제를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이해했지만, 통일의 의미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민족통일 대신 국가 간 통일의 의미로 변화하고, 통일국가를 우선하는 규범적인 인식 대신 남한만의 국가정체성을 우선하는 소위 ‘대한민국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를 뛰어넘은 동북아 지역공동체(regional identity) 및 글로벌 세계에 대한 초국가 정체성이 통일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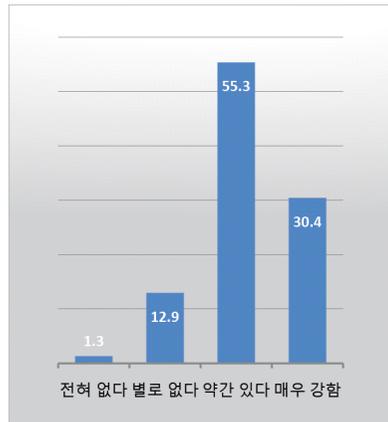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현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를 넘는 더 큰 단위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국수주의나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현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 큰 상위 공동체에 대한 열린 정체성 형성은 통일한국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아시아인 정체성에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은 61.5%(매우 10.6%, 약간 50.9%),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는 응답은 47.3%(매우 8.8%, 약간 38.5%)에 그쳐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유무가 통일한국의 통합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초국가 정체성이 통합지향적인 촉진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통합에 부정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5 >> 국가/한민족 정체성: 소속감

(1) 대한민국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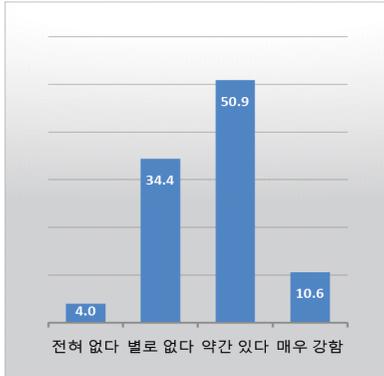
(2) 한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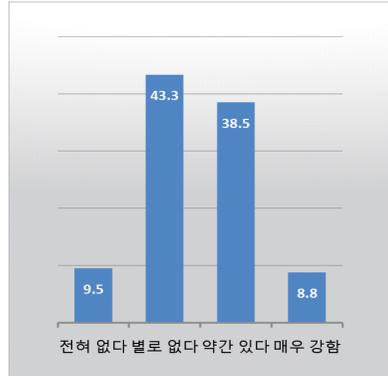
- I
- II
- III
- IV
- V

그림 II-6 > 아시아/세계인 정체성: 소속감

(1) 아시아인



(2) 세계인



사회 내부의 인식 격차를 보면, 이러한 국가 및 민족정체성 및 아시아/세계인 등 국가/민족단위 이상 집단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의 차이는 주로 세대균열로 확인된다.<sup>12)</sup> 세대별로 살펴보면 첫째, 전 세대에서 대한민국 국민 > 한민족 > 아시아인 > 세계인 순으로 해당 집단에 소속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나이드는 세대일수록 대한민국/민족/지역 및 세계인 소속감이 강하고, 젊은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나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은 세대별로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한민족과 아시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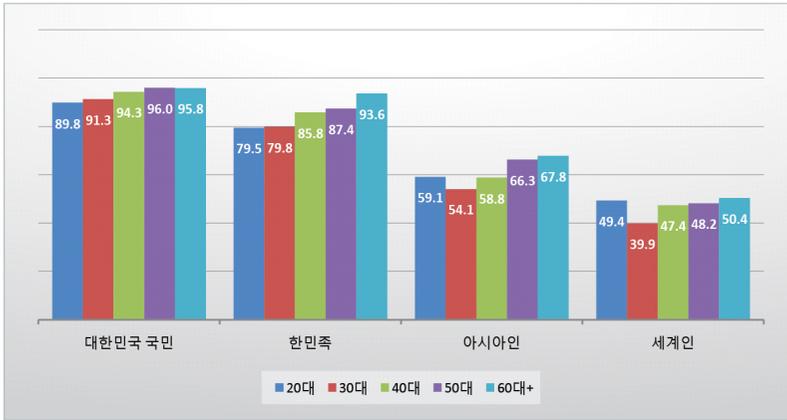
<sup>12)</sup> 황정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체성의 자아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를 범주화하는 과정은 나(하위)-특정 집단 구성원(중위)-인류의 일원(상위) 등의 일련의 다층적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황정미는 이러한 다층적 정체성은 세계가 일상생활의 전 영역으로 파급된 결과로서 국가범위를 뛰어넘는 이동과 접촉, 대중문화와 정보의 전파를 가능케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의 <국가정체성 조사> 2010년과 2015년 비교를 통해 최근 국가/한민족 범위를 넘어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커지고 있음을 밝혔다. 황정미,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과 다문화 국가의 전망,” 이내영·윤인진 공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p. 52~56.

으로서의 소속감을 보면 세대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을 보면 분단 이전 출생자인 60대 이상에서는 둘 다 90% 이상이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지만, 50대 이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에 비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8~12%p가량 낮게 나타났다. 셋째, 국가/민족범위를 넘어선 아시아/세계인 정체성도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특징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정보화, 세계화의 흐름에 노출도가 큰 젊은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초국가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본 조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sup>13)</sup> 이는 세계화 초기에 국제사회와의 접촉은 주로 해외여행, 어학연수, 조기 유학 등을 통해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고령층의 해외 방문이 늘어나고, 기존에 해외 접촉 경험을 갖고 있는 중년층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고령층에서 초국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물론 해외 접촉 빈도와 경험은 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의 경우 접촉 요인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집단정체성 일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된 결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청년 실업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된 탓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자체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sup>13)</sup> 이러한 경향은 동아시아연구원과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실시한 2015년 <국가정체성 조사>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인에 대해 가깝다는 응답은 20대 47.6%, 30대 50.2%, 40대 55.2%, 50대 55.7%, 60대 이상에서 63.9%였다. 세계인에 대해서도 가깝다는 응답이 20대에서 34.0%, 30대 39.0%, 40대 41.5%, 50대 44.6%, 60대 이상에서 45.7%로 나이가 든 세대에서 초국가단위에 대한 일체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I-7 ▶ 세대별 대한민국/한민족/아시아/세계인 소속감 비교<sup>14)</sup>



## (2) 정서적 일체감: 국가 자부심과 일체감

소속 집단에 대한 심리적 애착 수준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국가정체성과 일체감의 강도를 확인해보자. 국가 단위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심리적 애착은 주로 (1) 애국심(patriotism), (2) 국가 자부심(national pride)과 (3)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일체감 차원(identific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5)</sup>

우선 <그림 II-8>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심리적 애착과 국가 자부심을 확인해보자. “한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훌륭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한국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 “누가 한국을 비판하면

<sup>14)</sup> 여기서의 응답은 “매우 소속감이 강하다”, “약간 소속감이 있다”, “별로 소속감이 없다”, “전혀 소속감이 없다” 중 “매우 강하다” 또는 “약간 있다”고 답한 비율을 합한 값이다.

<sup>15)</sup> David M. Rankin, “Identities, Interests, and Imports,” *Political Behaviour*, vol. 23, no 4 (2001), pp. 351~376; 정한울·정원철,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pp. 113~115.

I
II
III
IV
V

모욕감을 느낀다”, “한국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70%~83%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동의를 할 정도로 다수가 대한민국에 대해 강한 국가 자부심과 심리적 일체감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렇게 통일 이전 분단된 상황에서 자기 체제와 자신의 소속 국가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이 통일한국의 통합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추가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듯이 ‘헬조선’ 등 남한 사회에서 국가 혐오가 심각하다는 진단은 조사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진단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가 혐오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인해보자. “한국이 없어지면 좋겠다”, “나는 다른 한국인과 맞지 않는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한국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에 비판적이다” 등 대한민국에 대한 수치심과 냉소적 진술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은 10%대 전후에 불과하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다. 앞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심리적 애착,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긍정적 진술에 대한 동의 비율보다 국가 혐오적 표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한편 이러한 집합적 차원의 국가정체성이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국가정체성이 내외부집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자. “다른 한국 사람들은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8.1%가 동의한 반면, 41.9%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국가정체성이 개인의 생각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편 “외국

<sup>16)</sup> 각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응답을 “긍정” 응답으로 간주하였다. “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을 “부정” 응답으로 간주하였다.

인들이 한국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53.7%가 동의할, 46.2%가 동의하지 않았다. 대체로 내부집단 구성원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정체성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국 이미지에 대한 대외적인 인정 욕구도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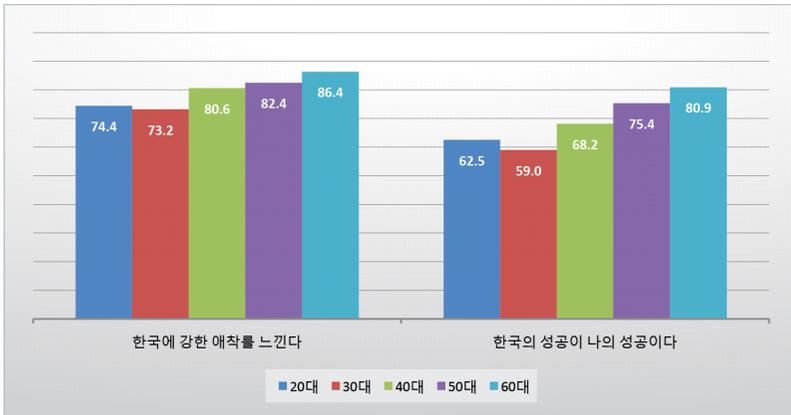
그림 II-8 국가 자부심과 혐오감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에서도 세대별 차이는 확인된다. <그림 II-9>에서 “한국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는 진술에 대해 60대 이상에서는 86.4%, 50대에서는 82.4%, 40대에서는 80.6%가 동의한다고 답했지만, 20대에서는 74.4%, 30대에서는 73.2%로 상대적으로 약했다. 대한민국과 개인의 삶의 일체감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이 확인된다. “한국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라는 진술에 대해 20대에서는 62.5%, 30대에서 59.0%, 40대에서는 68.2%가 동의했지만, 50대에서는 75.4%, 60대 이상에서는 80.9%가 동의함으로써 일체감도 고연령층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서 국가에 대한 냉소적 태도나 혐오감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은 사실이나

전 세대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은 공유하고 있다. 보통 젊은 세대에서 민족과 국가에 대한 일체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이지만, 이들 중 일체감을 느끼는 비율이 이전 젊은 세대들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시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와 소위 ‘헬조선 세대’ 담론의 확산에서 확인되듯이 전반적으로 국가 및 민족 공동체에 대한 냉소와 불만이 작용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9 ▶ 세대별 국가 자부심과 일체감



### (3) 민족 공동체의 범위와 기준

민족 공동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해 한민족 공동체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은 어느 집단까지 허용되는가? 누구를 ‘우리 민족’으로 간주하는가는 통일국가정체성의 경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한민족 구성원 자격으로 귀속적 기준(혈연 등)을 중시하는지, 시민적 차원(국적 등)의 유무로 보는지를 살펴보자. 민족구성의 자격을 보면 귀속적, 종족적 차원(혈연/언어/전통 문화의 공유 등의 자격)과 시

I  
II  
III  
IV  
V

민적 차원(국적 및 권리/의무 차원의 자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갈수록 귀속적 차원보다 시민적/국민적 차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sup>17)</sup>

현재 국적과 혈연을 공유하고 있는 탈북자를 민족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비율이 89.0%로 가장 높았고, 혈연은 이질적이지만 국적을 공유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결혼 이민자를 수용하는 응답이 각각 84.5%, 75.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혈연같은 귀속적 차원에서는 공통성이 있지만 현재 국적을 달리하는 북한 주민은 72.7%, 조선족은 63.1%,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59.1%로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국적, 혈연 모두 이질적인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37.9%만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 자격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보는 비율보다 혈연은 다르지만 한국인 부모를 둔 한국 국적의 자녀를 민족 구성원으로 보는 응답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 동질성을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민족 개념이 혈연 기준의 개념보다 국적 등 시민적 차원의 기준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종족적, 귀속적 차원에 기대어 ‘핏줄’로서의 ‘민족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통일 의지를 제고하고 통합의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적 중시 경향은 혈연을 공유하더라도 국적을 갖지 못한 한국인에 대한 배타성에서도 확인된다. “본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적을 변경한 자녀를 둔 한국인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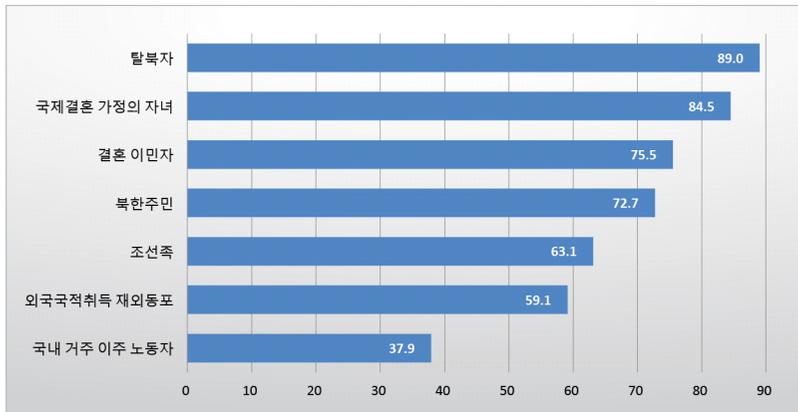
---

<sup>17)</sup>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3), pp. 10~15.

주장에 대해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외국 국적의 한국인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68.0%, 국적을 변경한 자녀를 가진 사람은 공직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5.6%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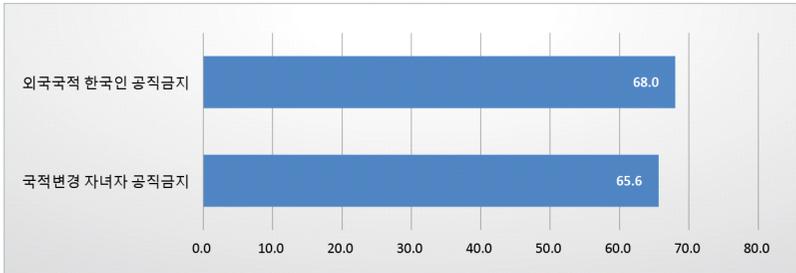
그동안 국가정체성이 주로 공적인 시민성과 제도 차원의 공동체 개념이라면 민족공동체는 혈연, 언어,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귀속적 차원의 공동체로 구분해왔다. 위의 조사 결과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민족 개념조차 혈연, 언어, 문화적 동질성의 의미보다 국적, 출생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같은 국민정체성 개념에 중첩되거나 흡수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혈연에 기초한 민족동질성 차원에서 통일을 정당화하고 통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10 >> 한민족에 속하는 집단<sup>18)</sup>



<sup>18)</sup> 응답 수치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의 보기 중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라고 보거나 볼 수도 있다는 응답을 합한 값이다.

그림 II-11 >> 국적 미보유 한국인에 대한 공직 개방 금지에 대한 태도



## 나.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역사적 기억

### (1) 현재의 가치관과 규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남한과 주체형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과의 통합과정에서 각 제도적 특성과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가치관과 규범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치관과 규범의 갈등은 특히 남한 사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된다. 전근대적, 전통적 가부장 질서와 권위주의를 경험했던 고연령 세대와 민주주의 환경 속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 간에도 이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남북 간의 인식 격차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가치관과 규범의 균열도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남한과 북한 각 사회 내부에서 가치관과 규범에 대한 합의수준이 떨어질수록 통일한국의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통합적 국가정체성 형성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가치관과 규범 사이에 충돌 가능성이 큰 (1)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성향, (2) 자유/인권의 허용범위, (3) 정부의 역할, (4) 가부장제 전통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 수준을 확인해보자.

(가)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헌정질서로 삼는 남한 사회와 집단주의에 기초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 사회는 체제 운영 원리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주의와 사적 소유제에 기반을 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와 집단주의와 국가/사회적 소유에 기반을 둔 북한의 권위주의적/사회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sup>19)</sup>

북한의 통치이념과 체제 동원 논리가 지속적으로 변형하며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일반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과 이탈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화 과정과 계속되는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내면화된 가치관과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기존의 탈북자 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대화 및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집단과 국가를 개인보다 중시하는 가치관이 우선했고, 국가주도의 산업화와 경제 개발 노선이 1980년대 이후에서야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 개인의 자유, 일반대중의 의사와 민의를 우선하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왔다. 따라서 집단 대 개인, 권위 대 자유, 엘리트 대 일반대중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도 남북통합과정에서 중요한 갈등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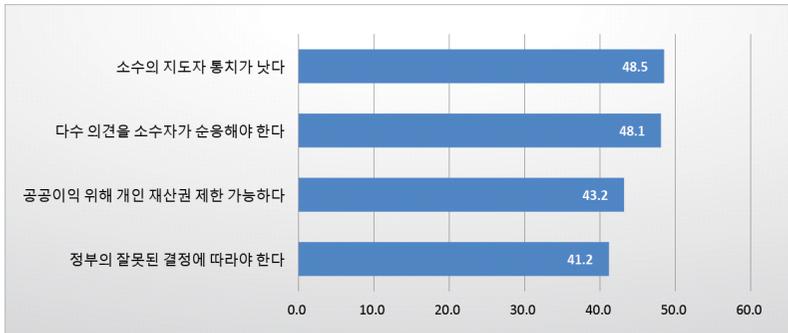
조사 결과를 보면 최소한 한국 사회는 집단/권위/엘리트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집단/권위/엘리트 중시 가치와 개인/자유/일반 대중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공존하는 단계로까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사회가 잘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48.5%가 찬성하고 51.5%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수가 찬성하

<sup>19)</sup> 통일부, “2016 북한에 대한 이해,” <<http://unikorea.go.kr>>. (검색일: 2016.9.15.).

I
II
III
IV
V

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48.1%가 동의, 51.8%가 반대하여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43.2%(반대 56.8%),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에서는 41.2%만이 동의(반대 58.8%)하여 개인소유권에 대한 존중과 정부 순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과반을 넘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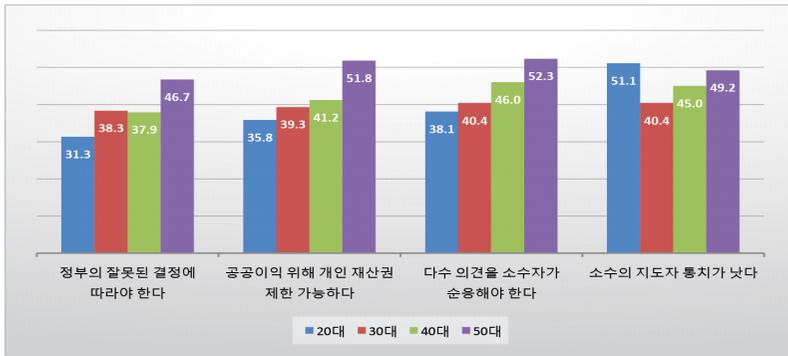
**그림 II-12**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한 동의 비율



특히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과정과 개발독재 시대를 경험한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이라도 따라야 한다”,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에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 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사회가 잘된다”라는 각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고, 젊은층일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것이 낫다는 엘리트주의의 진술에 대해서만 20대에서 동의가 높게 나온 것을 예외로 하면 전체적으로 일관된 차이로 볼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 종식 및 민주화 이후 정치적

사회화를 경험한 젊은 세대에서 개인의 자유와 일반 대중이 주도하는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고연령층 역시 권위와 집단을 우선하는 여론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여론도 40~50% 수준으로 이들 세대 내에서도 권위와 집단 우선의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상당한 규모가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sup>20)</sup>

그림 II-13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결국 국가와 집단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하며 국가와 집단의 운명을 수령-당의 영도력에서 찾는 북한과 달리 남한 사회에서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형성된 지배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개인주의, 시장주의, 민주적 가치관 및 규범과 공존하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세대교체, 교육 수준의 상승 과정 속에서 개인의 이익 및 국가에 의한 소유 제한에

<sup>20)</sup> 여기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만 정리하였지만,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권위주의/집단주의/엘리트주의적 가치관에 대해 '교육 수준' 역시 중요한 변수이다. 즉 학력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일수록 권위/집단/엘리트 주도 가치관에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높은 반면, 학력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일수록 자유/개인/일반 국민 주도 가치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1990~2000년대 전후 급격하게 상승한 대학 진학률로 한국 사회의 '고학력화' 현상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다. 이들 고학력의 젊은 세대가 고령세대로 접어들수록 고연령층에서도 현 시점보다 자유/개인/일반 국민 중시의 가치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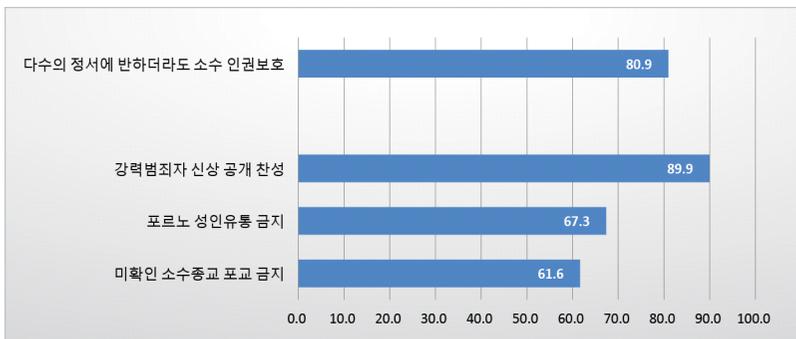
반대하는 개인주의/자유주의적 성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자유/인권의 허용범위

한국 사회에서 자유/개인 인권을 중시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권위/집단을 우선하는 인식도 만만치 않으며, 자유와 인권 허용의 범위에 관한 인식을 보면 강한 양면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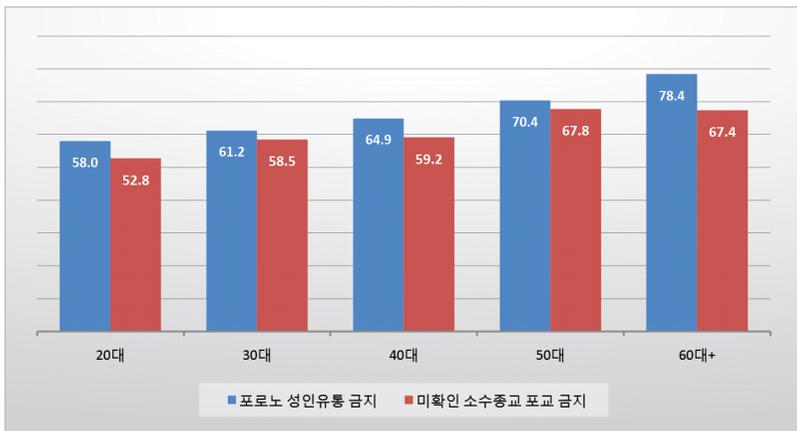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80.9%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우선하는 자유지상주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 다수의 정서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실제 사례들에서는 사실상 인권/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과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찬성 한다”는 주장에 대해 89.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포르노 등 음란물의 판매/유통을 성인들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7.3%가 동의하였고, “확인되지 않은 소수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61.6%가 동의했다.

그림 II-14 자유/인권의 허용 범위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 세대, 전 계층에서 큰 인식 차이가 확인되지 않지만, “포르노 등 음란물 금지” 및 “미확인 소수 종교 포교 금지”에 대해서는 세대별, 학력별로 큰 인식 차이를 보여주었다. 젊은 세대, 고학력층에서 자유에 대한 제약을 거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고연령층, 저학력층일수록 공동체의 규범과 질서에 부합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대상이나 행위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젊은 세대 및 고학력층에서도 전체적으로 무제한적인 자유나 인권의 허용에 찬성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규범,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자유지상주의적 견해에 비해 다수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당위적, 규범적 차원에서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권익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대상이 특정될 경우 사실상 소수의 인권/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 간의 이중성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그림 II-15** 세대별 자유/인권 허용범위에 대한 인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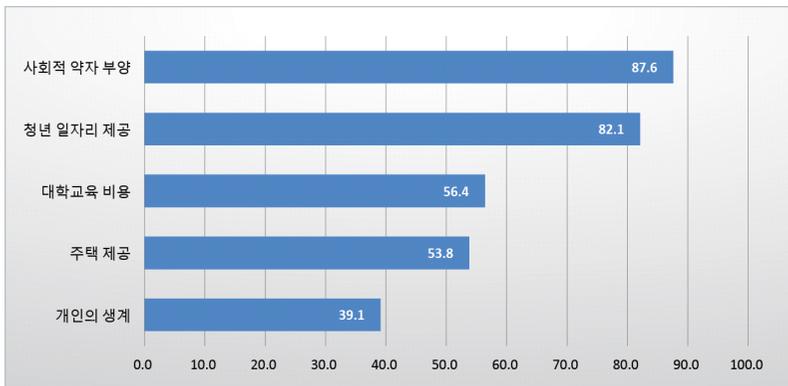


I  
II  
III  
IV  
V

#### (다) 정부의 역할

사회주의 북한은 명목상 배급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과 복지의 기본적인 책임을 당-국가(정부)의 몫으로 내세워온 사회이다. 고난의 행군, 극심한 경제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과 규범 차원에서는 여전히 국가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시장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한국 사회는 의식주 및 복지 제공의 기능을 시장과 정부가 나누어지고 있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그 책임의 범위와 역할은 핵심적인 이념 쟁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인지를 문제가 통일 후 남북갈등, 남남갈등의 소재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16 >> 영역별 정부 책임에 대한 동의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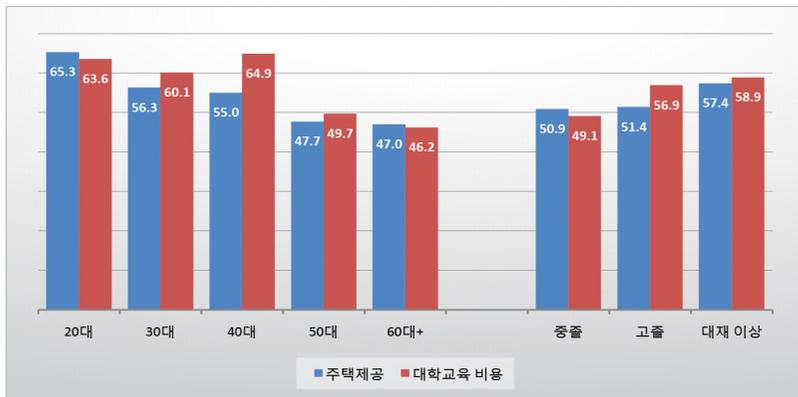


우선,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부양”과 “청년 일자리 제공” 등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각각 87.6%, 82.1%로 만장일치 수준의 합의를 보인 반면, 대학교육 비용, 주택 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56.4%, 53.8%로 동의 수준이 약화된다. 개인의 생계유지까지 정부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에 불과했다.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청년층 대상의 일자리 제공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80%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는 북한 주민과 큰 인식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생계까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식은 39.1%에 불과하고 열 명 중 여섯 명은 이에 반대함으로써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인식이 다수이다.

한편 의무교육을 넘어선 대학교육,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 내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과 북 주민 사이에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들 이슈에 대해서는 세대별, 교육 수준별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 정부의 역할 확대를 바라는 진보적 입장이 강한 반면,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정부의 책임으로 보는 비율이 낮다. 학력별로 봐도 진보성향이 강한 고학력층에서 정부의 책임을 확장해서 보고 있는 반면, 저학력층일수록 정부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17** ▶ 세대별, 학력별 주택제공/대학교육 비용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 I
- II
- III
- IV
- V

## (2) 전통적 가치관과 역사적 기억

현재의 가치관과 규범뿐 아니라 한민족이 공유해온 역사적 전통과 분단 이후 형성된 역사적 기억도 남과 북 사이의 문화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는 한국 사회에서 한민족의 대표적인 전통적 유산인 가부장제의 가치관과 분단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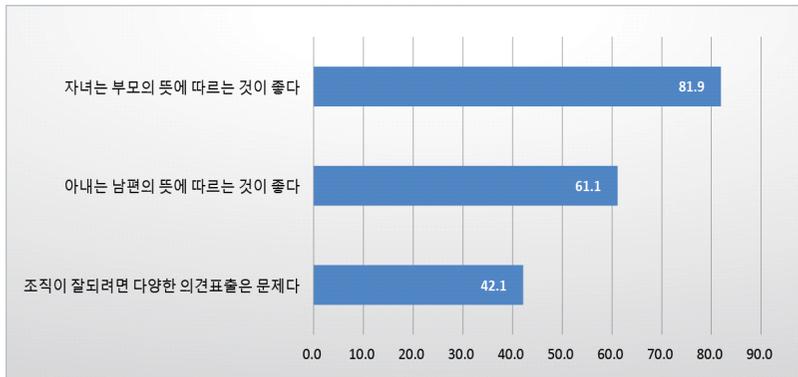
### (가) 가부장제 가치관

북한은 체제 등장 초기 여성평등을 위한 법제정, 가사로부터의 여성 해방, 여성의 사회적 참여 등을 통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근대적 여성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의 세습체제의 정당화,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체제 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수단으로 가부장제를 동원해왔다.<sup>21)</sup>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근거한 아버이 담론과 사회적 모성 담론을 통해 가족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은 아버이 수령의 자식이자 여성은 아버이 수령과 당의 딸이자 가정과 사회의 꽃으로서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가부장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국가동원전략과 연계된 가족질서의 재구축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정당화되고 있지만, 실제 일상 주민의 삶에서도 부모-자식, 부부 관계에서 온정주의와 위계에 대한 순응의 전통이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이 커지면서 가정이 국가통합구조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가부장적 질서도 급격하게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22)</sup>

<sup>21)</sup>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pp. 19~20.

한국에서도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가치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통적 가부장적, 유교적 권위 영역에서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해 81.9%나 동의함으로써 부모-자식 관계에서는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존중이 유지되고는 있다.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61.1%만이 동의하여 부모-자식 관계에 비해서는 상당한 인식변화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동의 비율이 과반을 넘어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여전히 가부장제의 전통적 가치관과 규범이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직이 잘되려면 지나치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2.1%만이 동의하고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규범이 조직사회에서는 상당 부분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18** 가부장제 전통과 수직적 조직문화에 대한 동의 비율



22)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pp. 131~136;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이론』, 통권 제21-1집 (2012), pp. 327~335.

하지만, 세대별, 학력별 태도 차이를 보면 부부 간, 사회관계에서의 가부장적 위계질서는 향후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 부모-자녀 간의 위계적 질서에 대해 순응하는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대별, 교육 수준별 인식격차가 크지 않았고 젊은층과 고학력층에서는 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의 가부장적 순응의식이나 사회조직에서의 위계적 규범에 대해서는 젊은 층과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에 대해 순응해야 한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세대별, 학력별 인식 간극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대에서는 72.0%, 50대에서 68.3%, 40대에서는 58.8%로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고, 30대에서 53.6%, 20대에서는 48.9%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층에서 71.9%, 고졸층에서 58.8%, 대졸 이상층에서 59.1%로 인식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인식 차이는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남성이 62.5%, 여성이 59.7%로 나타났다. 조직에서의 다양한 의견 표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60대 이상에서 55.9%, 50대에서 44.7%로 과반 전후였지만, 40대에서는 38.9%, 30대에서는 34.4%, 20대에서는 32.4%로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30%대에 불과하다. 학력별로도 중졸 이하층에서는 52.7%, 고졸층에서는 44.9%, 대졸 이상층에서는 34.7%에 그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진학률과 젊은 세대의 탈전통 경향이 지속되면서 전통적 가부장제에 대한 순응적 인식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임에 분명하다. 북한은 여전히 가부장제에 기반하여 국가동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부장적인 인식이 강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는 남북 통합과정에서 잠재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도 가정의 국가동원체

제로부터의 이탈경향이 가속화되고 여성의 지위 상승 및 가부장적인 인식 약화 추세가 남한 사회의 변화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사회 갈등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II-5** 성별, 연령별, 학력별 가부장적 순응인식(동의한다는 비율)

	성별		연령					학력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졸	고졸	대졸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43.3	40.9	32.4	34.4	38.9	44.7	55.9	52.7	44.9	34.7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62.5	59.7	48.9	53.6	58.8	68.3	72.0	71.9	58.8	59.1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80.0	83.8	79.0	75.4	83.9	86.4	83.5	85.6	80.6	81.8

(나) 분단 이후 역사적 기억

집단 정체성은 공유된 역사적 기억을 기반으로 공통의 동질감과 결속력을 갖게 된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기억은 한국전쟁으로서 전 세대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두 개 꼽으라는 질문에 대해 74.6%가 한국전쟁을 꼽았다. 다음으로 천안함 사건이 34.4%, 연평도 포격 사건이 26.9%,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꼽은 응답이 25.1%였다. 전체적으로 남과 북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전쟁과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북한 사회에 대한 거부감과 부정적인 태도의 원천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각 기억들의 순위는 전 세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꼽은 응답이 높아 둘을

I  
II  
III  
IV  
V

합하면 2030세대에서 68~74%에 달한다. 반면 나이든 60대 이상 세대에서는 남북이산가족(28.0%)을 꼽은 응답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꼽은 응답보다 근소하게 많았고, KAL기 폭파사건(13.5%), 아웅산 테러(9.3%) 등은 젊은층에 비해 비교적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

전체적으로 역사적 기억에서 부정적인 기억들이 긍정적 기억보다 높게 나오는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특히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에서도 6.25전쟁을 남북관계를 대표하는 기억으로 답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족상잔의 참화라는 점에서 수궁가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은 기억을 우선한다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사회화 및 학습과정이 전쟁과 부정적인 사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II-6 남북관계에서 기억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1, 2 순위 합<sup>23)</sup>

	6.25 전쟁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이산 가족 상봉	1차 남북 정상 회담	KAL기 폭파 사건	아웅산 테러 사건	올림픽 남북 단일팀	올진 삼척 공비 사건	7.4 남북 공동 선언
전체	74.6	34.4	26.9	25.1	8.1	8.0	5.3	4.9	2.6	2.4
20대	74.4	41.5	32.4	21.6	6.3	4.0	1.7	6.8	1.1	2.8
30대	72.7	38.3	30.1	24.0	10.9	3.8	4.4	2.7	3.8	2.7
40대	70.6	34.6	28.0	22.7	10.9	6.6	4.7	6.6	2.4	2.4
50대	73.9	33.7	24.1	28.1	9.0	10.1	5.0	5.5	1.5	2.0
60대+	80.5	26.7	21.6	28.0	3.8	13.6	9.3	3.0	3.8	2.1

<sup>23)</sup> 이 외에 “2007년 노대통령 방북 및 2차 남북정상회담”을 꼽은 응답이 2.4%, “남북한 UN 동시가입”이 2.2%, “1991년 남북합의서 체결”이 1.7%, “강릉 잠수함 사건”이 0.7%, “기타”가 0.6%였다.

## 다. 한국 사회의 통합역량

이 절에서는 통일한국에서 통합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문제해결의 사회적 역량으로 작용할 요인으로서 (1) 시민의식 역량(civility)과 사회신뢰(social trust), (2) 한국 사회의 경제적 안정(economic stability) 등을 검토한다.

### (1) 시민성(civility)과 신뢰(tru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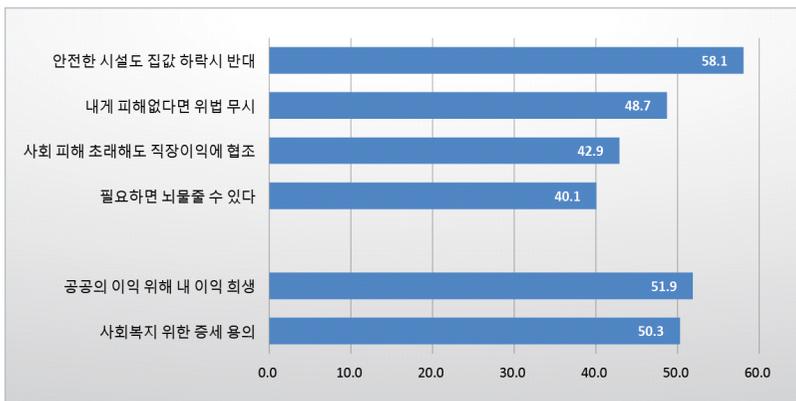
시민성은 “한 사회 내에서 시민의 역할에 대한 공유된 기대”이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덕목(virtue)과 지켜야 할 행동”, “공공영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제도화 수준과 문화적, 심리적 내면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은 개인이 누리는 자유에 비례하는 공공영역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민성은 개인 간의 갈등을 규제하고 사회적 연대와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성은 시민 덕목과 관용, 호혜적 규범과 일반화된 신뢰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성과 일반화된 사회신뢰 기반의 구축은 예측하기 힘든 갈등과 균열이 잠재된 통일한국에서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갈등 관리의 사회적 기반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성과 신뢰 기반의 차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sup>24)</sup>

<sup>24)</sup> Seyla Benhabib,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Membership in a Changing World,” in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ed. Ira Katznels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2), pp. 418~420; Russell J.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1 (2008), pp. 76~98; 임희섭,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제4권 (2001), pp. 5~30; 여기서 시민성(civility) 정의에 대한 논의는 김석호의 논의에 따른다. 김석호,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이내영·윤인진 공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pp. 103~107.

### (가) 시민성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시민성에 대한 인식은 취약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안전한 시설이라도 내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하겠다”는 의견에 과반을 훌쩍 넘는 58.1%가 동의했다. “내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면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넘어갈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48.7%로 찬반이 엇갈렸다. “사회에 피해가 돼도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협조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2.9%, “뇌물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0.1%는 동의 의사를 밝혀 공공 시민성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내 이익을 희생하겠다”거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부담을 늘릴 용의가 있다”는 긍정 방향의 진술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비율은 각각 51.9%, 50.3%로 과반 수준이었으나 그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여론도 팽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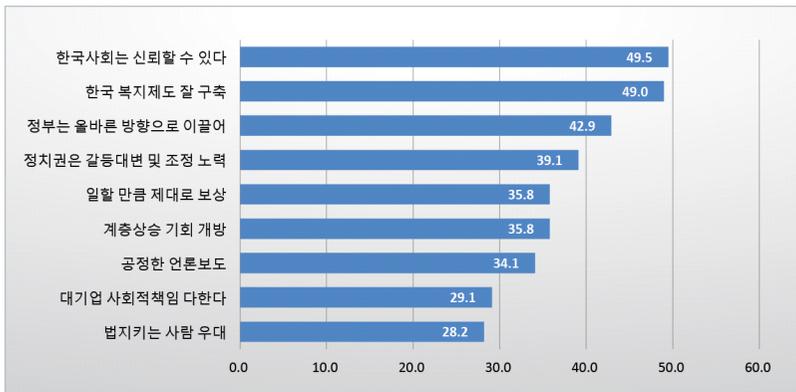
그림 II-19 >> 공공의식과 시민성



## (나) 사회신뢰

사회신뢰(social trust)는 한 사회의 갈등관리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인프라이다.<sup>25)</sup>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신뢰라는 사회적 인프라도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는 신뢰할 수 있다”는 진술에 동의한 비율이 과반인 49.5%, “한국의 복지제도는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0%가 동의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수준과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정치권”의 리더십과 갈등조정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42.9%, 39.1%로 나타났다.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는다”, “한국 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사회다”라는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이동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의견은 공히 35.8%였다. 언론의 공정보도에 대한 신뢰가 34.1%,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대해서는 29.1%였고, “한국 사회는 법 지키는 사람이 대접받는다”라는 법치에 대한 신뢰는 28.2%

그림 II-20 사회신뢰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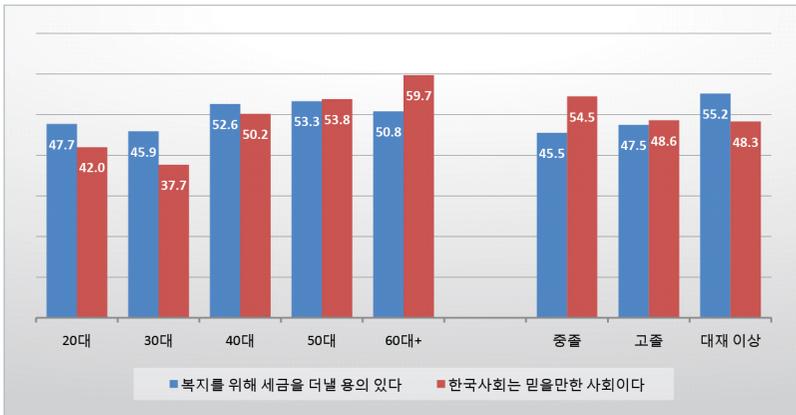


<sup>25)</sup> Dany Rodrik,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4, no 4 (1999), pp. 385~390.

에 불과해 공적 제도 및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저신뢰 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시민성과 신뢰수준은 교육 수준별로 두드러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대체로 시민성에 대해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공공의 책임의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반대로 사회신뢰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낮아질수록 시민성이 약한 대신 사회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별로는 시민성에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사회신뢰의 경우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합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시민성의 제고는 고학력층이 주도하면서 전 세대적으로 강화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 불신을 완화시키고 호혜적 신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II-21 ▶ 세대별, 학력별 시민성과 신뢰 수준



## (2) 체감경제의 불안정

경제적 여유와 안정은 외부 위협요인이나 내부 갈등 요인에 대해 관용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불안정할수록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소한 자기 이익에 매몰되기 쉽고, 외부집단에 배타적 태도로 이어지기 쉽다.

최근 한국의 국가경제 상황과 가정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를 보면 우선 1년 전 대비 국가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0.3%가 매우 좋아졌다고 답했고, 2.2%가 약간 좋아졌다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는 2.5%에 불과하고 현상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37.5%였다. 그러나 약간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44.6%, 매우 악화되었다는 응답은 15.4%로 부정적인 응답을 합하면 60.0%나 된다. 가정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1년 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는 평가는 0.3%, 약간 좋아졌다는 응답은 7.6%로 합하면 7.9%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1년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많았고,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이 24.4%, 매우 나빠졌다는 응답은 5.0%로 부정적인 평가는 29.4%였다. 대체로 좋아졌다는 응답보다 나빠졌다는 평가가 많아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 평가는 어두운 편이다. 다만 가정경제에 대해서는 현상유지 응답이 다수인 반면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정상태에 비해 국가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I

II

III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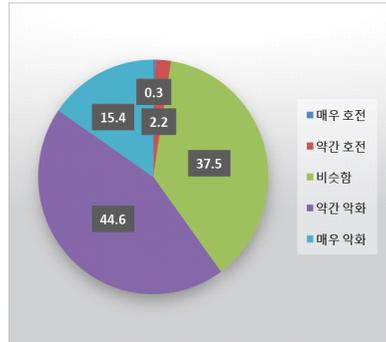
V

그림 II-22 1년 전 대비 국가/가정경제 변화

(1) 국가경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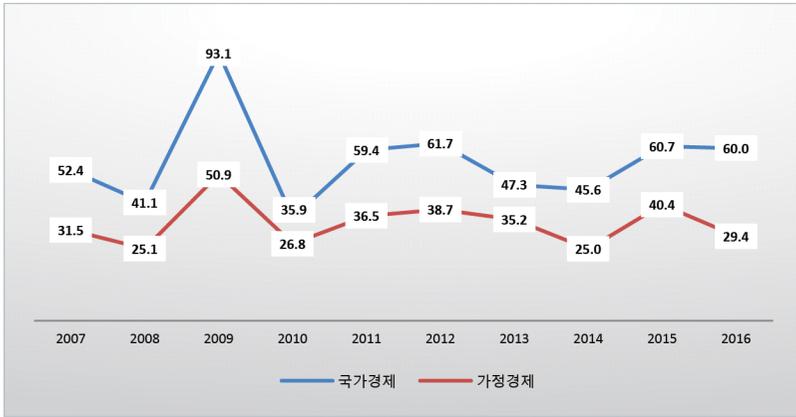


(2) 가정경제 인식



그러나 문제는 부정적인 평가의 절대적인 규모뿐 아니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체감경제 인식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국가경제에 대해서는 2008-2009년 세계 경제위기 시에 국가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93.3%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급격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 이후 다시 체감경제 악화경향이 나타났고, 다소 완화되다 다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정경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인식은 일관되게 국가경제에 대한 평가보다는 양호하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정경제 인식 역시 호전-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 및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개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제적 비관이 장기화되고 체감경제인식의 불안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통합적 정책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II-23 국가/가정경제가 악화되었다는 응답 변동



자료: 동아시아연구원(2007-2015), 통일연구원(2016)

## 라. 요약 및 함의

이상으로 통일연구원의 2016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통일 이전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에 대해 느끼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은 종족적 의미에서의 한민족 정체성과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혼재하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민족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혈연과 같은 귀속적 차원의 기준보다 국적과 같은 시민적 차원의 기준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핏줄과 언어와 같은 귀속적, 종족적 차원의 공통성을 강조해 온 전통적인 통일당위론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I  
II  
III  
IV  
V

북한 사회에 대비되는 가치관과 규범 영역인 권위 대 자유, 집단 대 개인의 가치 차원에서 보면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젊은 세대,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전후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체의 정서와 규범의 제약을 인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복지주의와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지는 북한 사회와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자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의 책임을, 개인 생계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교육 및 주택 공급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계층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향후 남북갈등은 물론 남남갈등이 증첩될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 가치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부장제를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회조직에서는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단 이후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기억은 전쟁과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이 전 사회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한국 정체성 형성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관리와 통합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성과 신뢰, 경제적 안정도를 살펴보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공공영역에 대한 책임과 시민 덕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사적 이익을 우선하며 집단

이기주의나 전근대적인 연고주의가 작동할 여지가 큰 상태이고, 호혜적 규범과 상호신뢰 기반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경제 상황도 체감도를 기준으로 볼 때 낙관적 평가보다 비관적 평가가 앞서고, 시기별로 불안정한 변동이 반복되면서 외부집단과의 통합보다 배타적인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다만, 이러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정체성, 가치와 규범, 사회적 역량 등이 실제 통일한국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험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체성은 과연 통일한국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자유주의의 가치관 중 통합의 정체성 형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은 어떤 것인지, 전통적 가부장제 가치관과 분단의 역사적 기억 역시 통일한국 정체성에 실제로 장애 요인이 될지 실증적인 확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시민성과 사회신뢰, 경제적 안정과 같은 갈등관리 및 통합의 사회적 기반 요인들이 향후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은 필요로 한다. 이 장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는 이후 심층 분석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 3. 북한·통일문제 인식 및 평가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등의 담론을 중심으로 통일의 편익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통일에 대한 대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과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I

II

III

IV

V

한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선언하고 전방위적이고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환경 속에서 국민들은 북한과 통일의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실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교정책이 여론의 추이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책결정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이 선호하는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남북관계에서 지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 판단이 대중의 인식 및 평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관 및 연구자들이 통일 인식 혹은 대북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장기적 성공은 국민적 지지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분단의 역사성을 극복하고 현재 한국이 처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더욱 국민들의 문제 인식 및 평가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의 과정은 남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통합의 완성과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도 상호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절은 국민들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문제 인식 및 평가 관련 조사 결과의 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술통계분석이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둘러싼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경향성을 유추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절은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서 절을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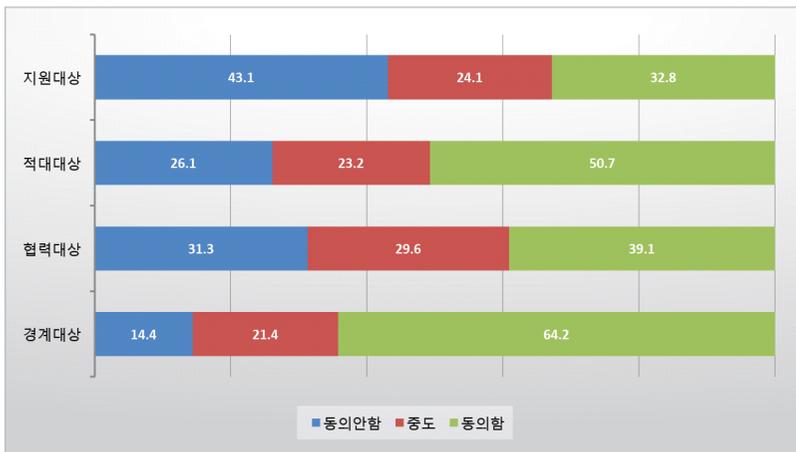
## 가. 북한 및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북한은 한국의 안보위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통일의 대상이자 파트너이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담론에서 중요한 화두를 제공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북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혹은 정보의 왜곡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양방향 가설의 설정은 정부의 정책이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데 유용하며,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방향이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와 다르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의 정도는 예상만큼 높지 않다. 국민 두 명 중의 한 명 정도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 즉, 응답자의 47.2%가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하였으며, 52.8%는 관심이 없다고 하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성별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56.9%가 관심이 있다고 한 반면 여자는 37.5%만이 관심이 있다고 하였다. 대졸 이상 학력의 응답자들의 53.0%가 관심이 있다고 하여 중졸 및 고졸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응답자들이 50%가 넘었고 나머지 지역의 응답은 그렇지 못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관심의 정도 사이에는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조사는 지원대상, 적대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등 4개의 범주로 나누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0점, “중도”를 5점, “매우 동의한다”를 10점으로 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림 II-2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북한의 이미지는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으로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데에 응답자의 64.2%가 동의를 하였고, 적대대상이라는 데에 50.7%가 동의를 하였다. 한편, 지원대상이라는 데에 32.8%, 협력대상이라는 데에 39.1%만이 동의를 하여 응답자들에게 북한은 협력적 파트너가 아니라는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 물론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하면 북한의 이미지도 변화하지만, 남북한의 관계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대응하여 한국이 제재를 강화하는 형국에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II-24** “북한을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동의 여부 (%)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20대와 30대는 지원대상에 동의하는 정도와 협력대상에 동의하는 정도가 각각의 평균 4.4와 5.0보다 낮았다. 적대대상 또는 경계대상에 동의하는 정도는 각각의 평균 5.7과 6.4보다 높았다. 세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젊은층의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해 조금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정치적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세대 간 차이가 인식의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들인 경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의 이미지별 동의 수준은 지원대상 37.1%, 적대대상 47.7%, 협력대상 41.3%, 경계대상 63.0%이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의 이미지별 동의 수준은 지원대상 19.6%, 적대대상 63.0%, 협력대상 29.1%, 경계대상 70.4%이다. 두 그룹 간의 격차가 가장 적은 이미지는 경계대상이며, 가장 격차가 큰 이미지는 지원대상이었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든 북한은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혹은 남북한의 경제 번영을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인지 그 경로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와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에 따라서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동의 수준도 여전히 차이를 보인다. 경계대상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진보가 58.1%, 보수가 72.6%로 나타났으며, 적대대상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진보가 41.5%, 보수가 58.1%로 나타났다. 협력대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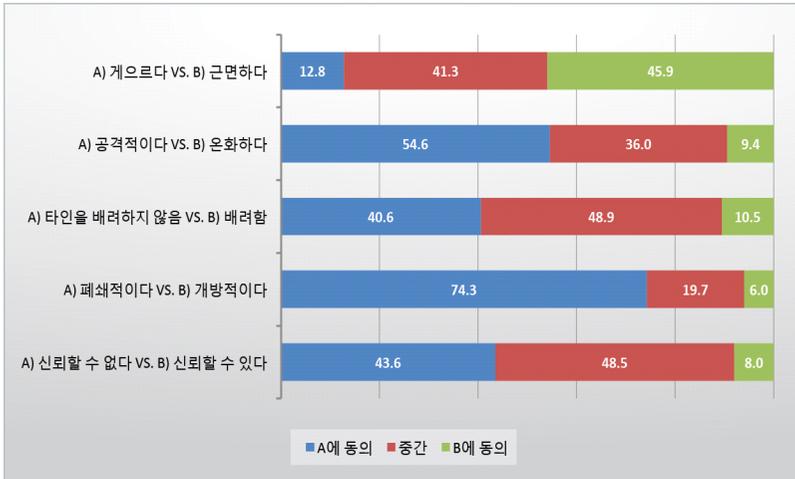
I
II
III
IV
V

대한 동의 수준은 진보가 47.5%, 보수가 39.0%였다. 결국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 혹은 적대 이미지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런데 자신의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보다 선호정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이 북한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의 수준 차이가 크지 않고, 두 정당 지지자들과 다른 정당 지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북한을 집합적 정치체제 혹은 국가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문제를 이해할 때 북한 정권에 대한 문제와 북한 주민의 문제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는데, 이러한 주장에 공감한다면 두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적대 혹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 주민들을 동포 혹은 동반자 등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가지는 감정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가지는 감정은 <그림 II-2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다층적이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근면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45.9%였다.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 낯선 제도와 문화 속에서 새로운 적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북한이탈주민 모두 부지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 단순한 예상과 기대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응답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찰한 결과로부터 형성된 것일 수 있다. 물론 41.3%의 응답자들이 ‘둘 다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북한 주민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였지만, 상대가 근면하다고 보는 감정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상대를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II-25 >> 북한주민에 대한 인식 (%)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우려와 경계의 감정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이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4.6%이고, 온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4%에 불과했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개방적이라는 의견은 각각 10.5%와 6.0%에 그쳤다. 타인을 배려한다는 의견이 40.6%였는데 폐쇄적이라는 의견은 74.3%에 이른다. 북한 주민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 또한 43.6%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고 폐쇄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적 감정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다면 남북한 주민 즉 인적 통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이 국민들 개인 차원에서 형성되는 것인지 지역 혹은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반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 I
- II
- III
- IV
- V

정치적으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두 가지가 구분되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는 정책적 주장만으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려 하기보다 실제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인식의 개선과 긍정적 인식의 축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통일 후 남북한 주민들이 같은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며 생활하기 위해 통일의 과정에서도 상호 교류와 접촉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북한 주민에 대한 감정 못지않게 국민들이 북한을 얼마나 어떻게 알아가는지도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문항에 따라 편차가 있었다. 그리고 연령대별 정답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북한 시장에서 물품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 즉, 장마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0.2%만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북한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때 북한 사회에서 시장 기능의 형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해

그림 II-26 >> 북한에 대한 인지도 (%)



하고 있는 20대와 30대는 23.9%와 35.5%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학력, 이념,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81.3%였으며, 북한의 대표적 신문인 노동신문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65.2%였다. 리설주의 이름을 모든 연령대에서 70%가 넘게 알고 있었다. 반면 노동신문에 대한 인지도는 20대에서 39.2%만이 정답을 맞추어 다른 연령대의 정답률과 대조되었다. 20대의 오답률이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청소년기부터 북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는 점과 대부분의 북한관련 정보는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상대적으로 언론에서 자주 언급 될수록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나. 통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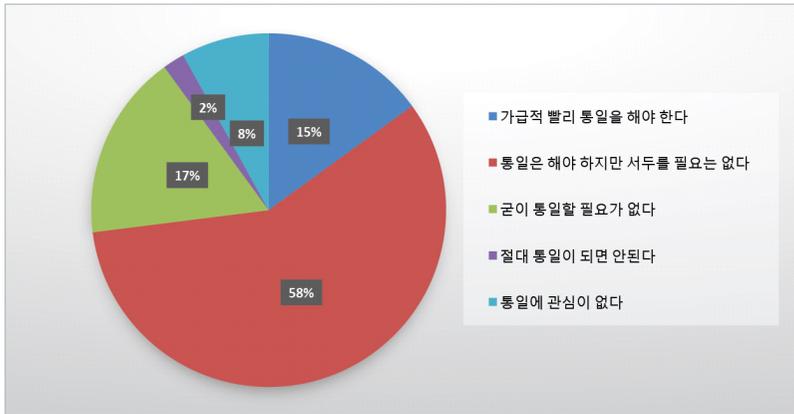
통일 및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은 통일정책의 수립과 집행, 전략적 통일외교의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즉, 통일정책의 결정자들은 국민들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성찰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통일정책이 반드시 국민의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지만, 통일정책이 국민의 인식과 괴리된다면 정책적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달리 말하면 통일대박론, 통일준비, 통일외교 등은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통일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문제 중 하나

I
II
III
IV
V

는 국민들이 통일 추진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다.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일지상주의 접근이 있을 수 있고, 통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진적 통일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굳이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뤄지는 것을 선호하는 남북공존형 접근이 있을 수 있으며, 통일에 무관심할 수 있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은 시대적 상황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II-27 >>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



응답자의 58%는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5%이다.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굳이 통일을 할 필요 없이 남북한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이 17%였고,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통일반대론자들은 2%였다. 다시 말하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의 하고 있으나, 10명 중 6명이 성급한 통일보다는 남북한이 준비를 하고 통일에 의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추진 방식에 대해 20대와 30대의 인식과 나머지 세대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60대를 제외하고 10-15% 사이에서 세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60대 이상은 21.6%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적으로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점진적 통일에 대해서 20대는 47.2%, 30대는 53.0%가 찬성하지만, 40대는 66.8%, 50대는 69.3%, 60대는 53.4%를 기록하였다. 반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 그리고 나머지 세대 사이에 약 10%p의 차이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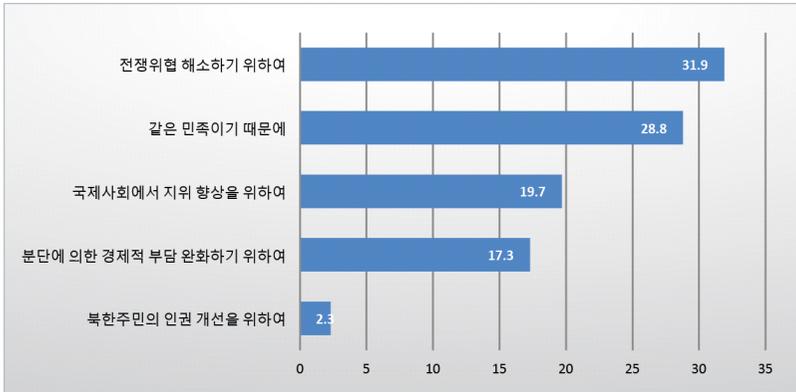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 중에는 약 80%가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였다. 즉, 현재 한국 사회에 부담이 되는 방식의 통일은 국민들이 선호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문제 개선은 물론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통일을 반대하기보다는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이념적 성향에 따른 차이는 전통적인 기대와 달리 크지 않았다.

통일의 추진 방식에 대한 선호는 통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통일을 민족과 역사적 당위의 차원에서 인식하는지 혹은 현실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는지에 따라 통일의 추진 방식도 달라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분단의 역사와 재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으

I
II
III
IV
V

나, 국내적 환경과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대들 간의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28**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



〈그림 II-28〉에 의하면 전쟁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었다. 남북관계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군사적 긴장의 해소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통일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의 분단과 대결로 인해 한국의 사회발전 및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들도 존재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은 2.3%에 해당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매우 중요한 의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사적 대결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하위정치(low politics)는 상위정치(high politics)의 영향을 쉽게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통일의 이유와 관련된 인식의 결과는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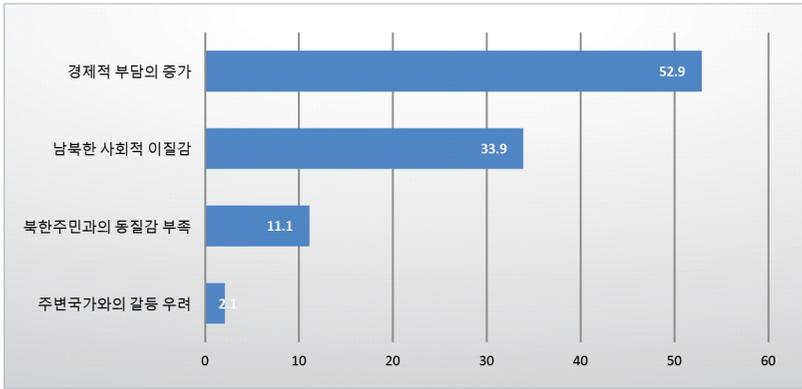
을 이해하고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는 현실적 접근이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접근보다 국민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경우 44.4%가 전쟁위협 해소를 통일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였다.<sup>26)</sup>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정부와 한국 사회가 통일을 경제적 편익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의 결과인지 혹은 이미 국민들이 통일을 경제적 편익과 비용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인과추론은 좀 더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통일이 필요하고 원한다는 인식이 정책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통일정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제한적 효과만 낼 수 있다.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혹은 막연한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sup>26)</sup>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16 통일의식조사’에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6%, 전쟁위협 해소를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이 29.8%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송영훈, “통일에 대한 인식,”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대북정책 방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9.29.), p. 16; 그런데 서울대학교의 통일의식조사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라는 문항이 있고, 통일연구원의 조사는 이와 달리 ‘분단에 의한 경제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를 대신 추가하였다. 문항구성의 차이에 의해 1순위와 2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의 조사 결과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2007년 50.7%에서 2016년 38.6%로 낮아지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2007년 19.2%에서 2016년 29.8%로 꾸준히 증가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을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보다 분단에 의해 고조될 수 있는 긴장의 완화 혹은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통일인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I-29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 189명 중 절반이 넘는 52.9%는 통일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33.9%였다.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그동안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을 너무 부각시켰던 것이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비대칭적으로 단절된 체제의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측에 더 이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46.0%가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라고 하였고,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라는 응답도 42.9%로 나타났다.

여전히 통일로 인해 남한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인식이 더 넓게 퍼져 있지만 통일이 가져올 다양한 형태의 이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불확실한 미래의 통일을 생각할 때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일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조금씩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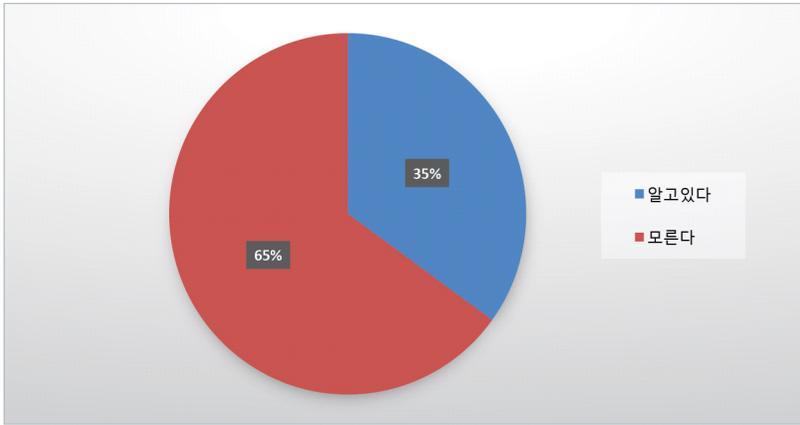
#### 다. 통일정책에 대한 인식

한국의 역대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과 국제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모든 정부가 가장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정책결정 과정의 환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구상’,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통일담론을 확산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런데 <그림 II-30>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5%가 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서울과 대구 지역 응답자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50%를 넘지 못했다.

I
II
III
IV
V

그림 II-30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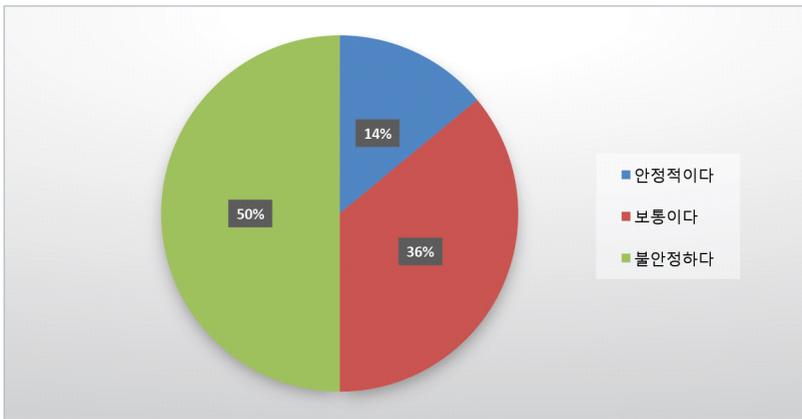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들과 공감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으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일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국내외 정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통일정책이 국민들의 관심을 덜 받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일회적 조사이며 총체적 이미지를 조사한 문항이기 때문에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그동안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진행된 많은 시도들의 효과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계속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그에 대응하는 대북제재, 사드배치 등 한반도에서의 안보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언론과 다양한 단체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반도의 전반적 안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림 II-31>의 결과에 의하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은 한국의 전반적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

이 36%, “안정적이다”라는 응답이 16%였다.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대해 세대별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20대(53.4%)와 30대(57.4%)가 40대(48.3%), 50대(43.7%), 60대(47.5%)보다 더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도 각각 56.4%와 52.1%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림 II-31** ▶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



그런데 이 질문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의 요인을 북한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국제질서와 지역질서가 동시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북한만이 안보의 불안요인이라 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핵실험과 SLBM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력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이 중요한 위협 요인이 됨에 틀림없으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안보의 불안정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국의 안보 문제를 남북관계, 동북아질서, 국제질서 차원에서 이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변국가와의 적극적 외교를 포함하여 대북정책이 전략적

- I
- II
- III
- IV
- V

타당성이 높음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정책 중 한국 사회에서 논란을 야기했던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효과와 관련된다. 경제적으로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고립되어 자급자족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 한국과 북한도 끊임없이 세계와 무역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경제적인 것보다 정치와 역사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다보니 남북경제협력의 영향은 객관적 평가보다 심리적 평가, 정치적인 평가에 의존해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II-32** 남북관계에 경제협력이 미치는 영향 (%)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사회적 의제와 정치적 의제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다. 경제협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2>에 의하면 국민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한 이질성 극복과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 보통, 반대에 각각 약 3분의 1씩 응답하였다. 군사적 긴장이 악화되고 경제 협력이 장기간 단절된 상황에서 경제협력의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대한 회고

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했을 때, 경제협력의 효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즉,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가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인식은 세대별, 정치성향별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20대가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하위 변수에 따른 차이들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국민들의 인지적 평가는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질적 효과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과 대결에 대해 국민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에 직면했던 경험도 있다. 그리고 일부 정책들은 아직도 다양한 층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림 II-33>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는데, 응답자의 38.5%가 사업의 재개에 찬성을 하였고 32.3%가 사업의 재개에 반대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진보성향의 응답자의 49.2%가 개성공단의 재개를 지지한 반면 보수성향의 응답자의 36.8%가 지지하였다. 오히려 중도성향의 응답자들은 34.0%만이 개성공단사업의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지니는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상징성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계속 대결로 치닫는 경우 선뜻 새롭게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재개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될 것이다.

I

II

III

IV

V

그림 II-33 대북정책별 지지도 (%)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과 압박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국민들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하여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국제적 협력을 주도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 인권이 중층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같은 현상을 평가하지 않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현상을 논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의 사회권과 자유권에 대한 접근이 다를 수 있으나 북한 정부가 보편적 인권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대부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63.7%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는 진보(68.2%)와 보수(63.2%)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동의하고 있다.

국민들의 51.0%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나서서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9.7%의 응답자들이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며, 6.5%는 정부의 개입을 반대한다. 아직까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담론들에서 전단의 내용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제재조치의 강화 또는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57.7%이고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8.7%이다.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민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를 참조하면, 대북제재조치 강화에 지지하는 국민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의 찬성율(51.1%)이 가장 낮고 60대의 찬성율(61.1%)보다 낮으며, 진보성향 응답자의 찬성율(49.2%)은 보수성향의 찬성율(67.0)보다 낮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도발과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규정지어지는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대북제재의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한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어느 지점까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외교적 노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 라. 요약 및 함의

설문조사의 기술적 통계분석을 통해 인식의 형성 요인에 대한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은 제한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인식의 지형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이 조사를 통하여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 있으며, 통일의 추진방식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등에서

전통적 인식과는 다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과는 다른 인식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다음과 같이 다섯 특징과 함의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근 계속 이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성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배려와 신뢰라는 차원에서는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 개인에 대한 인식과 북한 주민과 관계 맺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이 겹쳐져 발생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주민과의 실제 관계 맺기를 경험한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과의 관계 맺기 경험이 극도로 제한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교류와 교육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는 이념적 성향보다 세대 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 북한에 대한 판단,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20대와 30대의 인식과 나머지 세대들 간의 북한과 통일,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한다. 그런데 이러

I
II
III
IV
V

한 인식의 성향을 북한과 통일문제에서만 보이는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20대와 30대는 애초 사회화 과정이 기존 세대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통일의식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을 현실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발견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질감의 심화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더 이상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통일정책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정책들과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함을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넷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그간의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의 성찰적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0%가 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통일정책결정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어떤 주장도 확고하게 우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책결정자들의 판단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등과 같은 경제협

력에 있어서는 찬성, 유보,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개성공단사업 중단 이후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의 복원에 대한 비관적 시각과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경제협력사업 재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증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결구도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의 지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하여 통일한국의 정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평가는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남북 간 대결국면의 장기화가 의제 및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국민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민들의 판단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책에 관여되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정보의 소통이 가능해져야 한다. 조사의 결과들은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거나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러 층위에서의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Ⅲ. 남북한 주민의 인식 비교: 통일국가정체성 및 통일문제 중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는 통일국가정체성 문항 중 통일국가 체제, 통일국가 비전,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대외정체성을 조사하고 남한 주민과 비교 분석했으며 통일 속도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남한 주민대상 조사문항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교 분석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모집단인 북한 주민을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주민 평균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이 더 높으며 이탈성이 강하다. 또한 북한 거주지역도 편향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300명의 북한이탈주민 중 80%가 국경지역 출신이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다. 이번 조사대상의 남한 거주연한은 평균 8년으로 그들의 생각은 북한에서 가졌던 의식과 적지 않게 차이 난다. 그러나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과정은 남북한 통합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1.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하자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비율은 33%,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응답은 25%, 북한식 체제로 통일하자는 비율은 0.7%였다.

남한 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하자는 비율이 63.8%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 33%,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응답이 25%로 반수를 넘는 58%를 차지해 통일국가체제에 대한 남북 주민의 의식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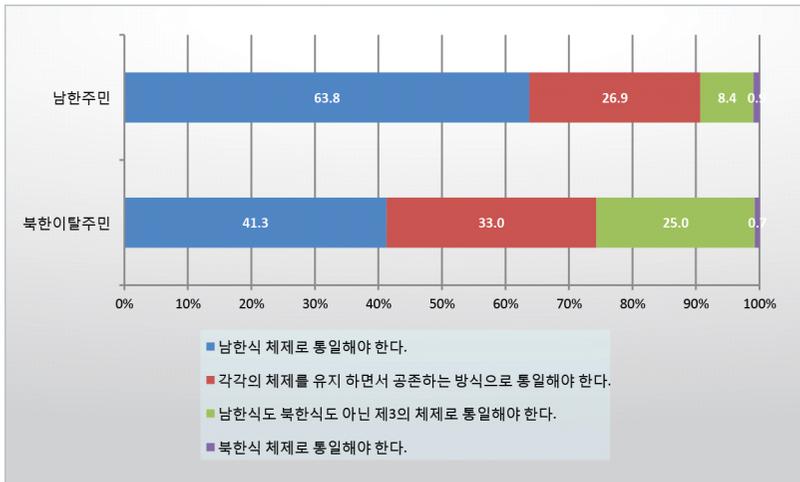
I
II
III
IV
V

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체제에 대한 견해는 남한 체류기간과 남한 교육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년 거주자 군에서는 남한식 체제로 통일하자는 비율이 53.8%였지만 6~10년은 40.2%, 11년 이상은 33.6%로 점차 낮아졌으며 각각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북한식도 남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중이 높아졌다. 남한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율이, 교육을 받은 주민은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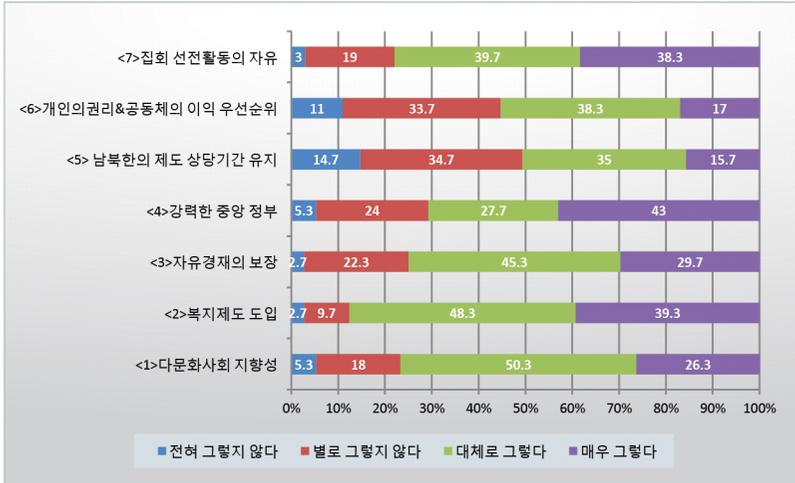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초기에는 남한식 체제의 통일을 지향하지만 정착과정에서 남한체제 적응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며 통일 이후 정치체제는 과도적 단계를 거쳐 완성해나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II-1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인식



## 2. 통일국가 비전

그림 III-2 >>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비전



### 가. 다문화사회 지향성

통일국가의 민족적 특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문항에 대답하도록 했다. “매우 그렇다” 26.3%, “대체로 그렇다” 50.3%로 과반수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국가는 다문화사회로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연령대에 따르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60대 이상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5.6%, “별로 그렇지 않다” 43.8%로 과반수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은 중국과 남한에서 체류하면서 한족, 중국 조선족 등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에서 주장하는 단일민족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그러나 60대 이상에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북한에서 갖고 있던 의식의 연장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다문화사회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나. 복지제도 도입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39.9%, “대체로 그렇다” 48.3%로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이 찬성을 표시했다. 이는 북한체제 실패 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 정치성향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복지정책에 대한 찬성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탈북민도 남한 주민과 유사하게 복지정책에서 진보와 보수의 의견이 차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다. 자유경쟁의 보장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29.4%, “대체로 그렇다” 45.3%로 과반수 주민이 찬성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르는 차이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아 통일국가가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체제로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서 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 라. 강력한 중앙정부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만을 가져야 한다”에 대해 “매우 그렇다” 43%, “대체로 그렇다” 27.7%로 과반수 주민들

이 동의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르면 남한에서 경제적 중상층은 하층에 비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면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지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마. 남북한의 제도 상당 기간 유지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50.7%, 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 49.3%로 찬반 비중이 비슷했다. 탈북민의 남한 거주연한이 오래될수록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앞의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의견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바. 개인의 권리 대 공동체 이익의 우선순위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7%, “대체로 그렇다” 38.3%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55.3%, 반대하는 비율이 44.7%로 찬성이 좀 더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보았을 때 대학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에서 강조하는 집단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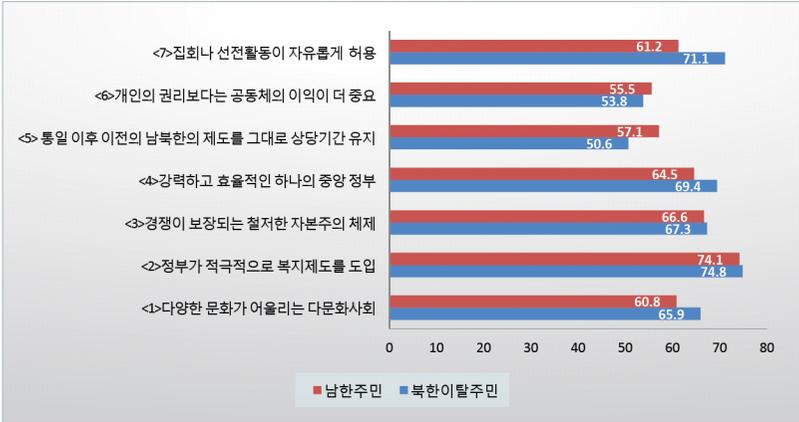
#### 사. 집회 선전활동의 자유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문

I
II
III
IV
V

항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38.3%, “대체로 그렇다” 39.3%로 과반수 주민들이 찬성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II-3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 비전 비교



통일국가 비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인식을 100점 평균으로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은 복지제도 도입(차이 0.7점),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체제(차이 0.7점)에 대한 견해가 유사했다. 그러나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 허용(차이 9.9점), 기존의 남북한 정치 및 사회 제도 상당 기간 유지(차이 6.5점), 다문화 사회로 되어야 함(차이 5.1점),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 필요(차이 4.9점),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취급(차이 1.7점) 순으로 차이가 컸다.

통일국가에서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지도가 남한 주민에 비해 더 높은 것은 북한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실시해온 것에 대한 반감의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남한 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동의도가 낮았다. 이는 설문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인다. 앞의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질문에서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해야 한다는 데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도가 남한 주민보다 더 높았다. 그와 유사한 이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도가 남한 주민보다 크게 낮은 것은 답변자들이 이 질문을 북한의 현 정치제도에 대한 동의를 묻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동의도가 단일문화 사회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이 더 높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가 다문화 환경에 놓여있는 것과 관련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은 남한 주민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동의도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유일정부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점수가 남한 주민보다 더 높은 것은 북한에서 체득한 권위주의, 국가주의의 영향으로 보인다. 북한주민이 가진 권위주의 의식은 환경이 달라져도 잘 바뀌지 않으며 통일이 되어도 북한 주민은 강력한 정부에 대한 지향이 남한 주민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집단주의사회에서 성장한 북한 주민의 평균점수가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아온 남한 주민의 평균점수보다 낮았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기초 원리로 되어 있는 집단주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북한 주민의 집단주의 의식은 민주시민 의식에 기초한 공동체의식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적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I
II
III
IV
V

### 3.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그림 III-4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비교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견해를 100점 평균점수로 비교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사용(85점) > 통일국가 역사 전통 관습 따르는 것(84.5점) > 한민족의 혈통(82.9점) >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80.9점) > 통일한국의 국적 유지(72.9점) >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72.6점) >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61.4점) 순이었다. 남한 주민은 한국어 사용(80.1점) > 통일한국의 국적 유지(77.9점) > 통일국가의 역사 이해 전통과 관습 따르는 것(77점) >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76.4점) >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70.5점) >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보내는 것(67.4점) >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는 것(66.8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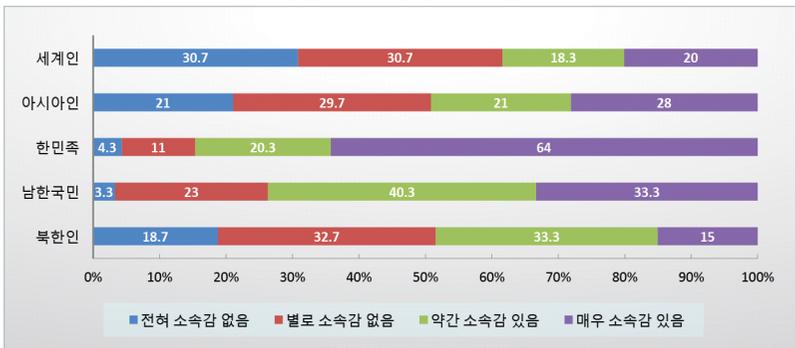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은 다 같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어 통일국민의 자격에서 언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통일국가의 역사 이해 전통 관습을 따르는 것,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통일한국 국민의 자격으로 선천적인 특성보다는 통일

국가 국민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견해 차이가 큰 항목은 한민족의 혈통(차이 0.48)으로 북한 주민은 혈통을 더 중시했으며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차이 0.27)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통일국가의 역사 이해, 전통풍습 따르는 것(차이 0.23)에 대해서는 북한 주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나머지 항목은 0.14~0.16 정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이 혈통과 역사 전통풍습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의 민족통일에 관한 당위론적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에 비해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 역시 북한의 국적법이 속인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속지주의 원칙의 국적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아주 없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중국에서 아이를 가지게 되어 그들의 국적문제로 고심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 4. 다중정체성

그림 III-5 ▶ 북한이탈주민의 다중정체성



- I
- II
- III
- IV
- V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북한인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은 매우 소속감 있음 15%, 약간 소속감 있음 33.3%로 나타나 북한인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이 각각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남한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73.6%(매우 소속감 있음 33.3%, 약간 소속감 있음 40.3%)로 다수가 자신을 남한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전혀 소속감 없음 3.3%, 별로 소속감 없음 2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을 북한인으로 느끼는 비율보다 남한 주민으로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아 남한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 주민으로서의 소속감과 북한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사이에는 반비례관계가 나타나고 있고 북한인으로서의 정체감이 남한 거주연한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어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이 통일한국인으로 소속감을 형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으로서의 소속감은 내륙지방에 거주한 주민이 국경지역 거주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북한 주민 의식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가 매우 소속감 있음 64%, 약간 소속감 있음 20.3%로 나타나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한민족 정체성에서 동질성을 보였다. 한민족 정체성은 남한 국민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나지 않아 남북이 한민족 정체성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아시아인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49%로 나타나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감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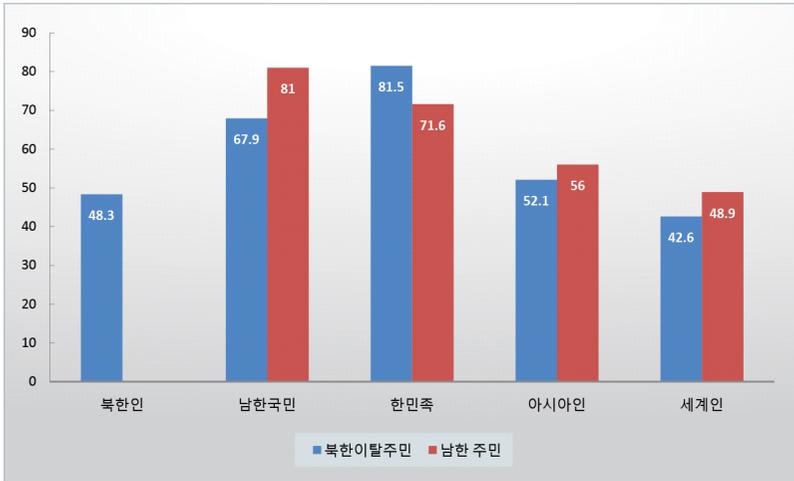
계학적 요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아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약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북한체제로 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응답 가운데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은 38.3%(매우 소속감 있음 20%, 약간 소속감 있음 18.3%)로 대다수가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의 47.3%가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매우 적었다.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인구학적 변수는 남한 거주연한이었으며 거주연한이 길어질수록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아졌다. 또한 학력도 영향을 주었는데 대학 졸업과 인민학교 졸업생 가운데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았다. 이는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약한 것은 폐쇄적인 북한체제에서 성장한 데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은 교육을 통해 강화되며 연령이 어릴수록 세계인으로서 소속감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의 대외정체성을 100점 점수로 환산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이 81.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한 국민 67.9점, 아시아인 52.1점, 북한인 48.3점, 세계인 42.6점 순서로 낮아졌다. 그리고 남한 주민은 남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이 81점으로 제일 높고 한민족 71.6점, 아시아인 56점, 세계인 48.9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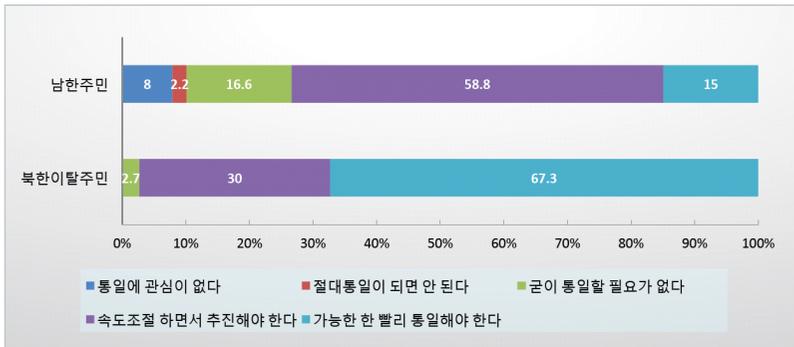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이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이 높은 것은 시종일관하게 민족통일을 주장한 북한 당국의 민족제일주의 노선의 결과로,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에서 민족이 핵심적인 키워드로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한 주민은 93.6%가 남한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국민 소속감은 73.6%로 나타나 남북 주민의 소속감 차이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6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대외정체성 비교



## 5. 통일 속도

그림 III-7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 속도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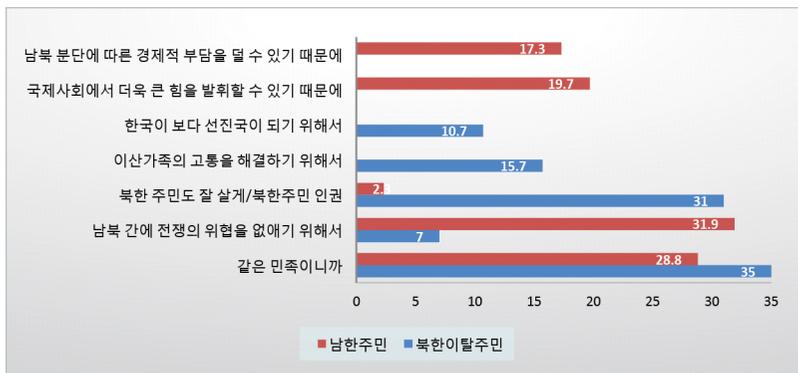
통일 속도에 대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문항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본질상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비교해보았다. 북한이

탈주민은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67.3%,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30%,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2.7%로 통일을 빨리하자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남한 주민은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15%,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58.8%,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16.6%, “절대 통일하면 안 된다” 2.2%로 통일을 점차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관심이 없다는 대답도 8%가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절박하게 생각하지만 남한 주민은 통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6. 통일의 필요성

그림 III-8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 필요성 인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조사문항도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해 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의 이유에 대하여 같은 민족이어서라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가 31%로 두 번째로

I  
II  
III  
IV  
V

높았지만 남한 주민은 남북 간의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가 31.9%로 가장 높았고 같은 민족이어서라는 대답이 31.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한 주민은 안전을 중요시한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쟁위협 방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동의는 7%, 북한 주민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데 대한 남한 주민들의 동의는 2.3%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나 남북한 주민 간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음을 보여 주었다.

## 7. 요약 및 함의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인식을 비교한 데 의하면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율도 33%,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응답도 25%로 나타나 통일이 된 이후 남한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율이 63.8%를 차지한 남한 주민의 의식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통일국가의 비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였으며 다음으로 집회와 선전활동의 자유,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체제, 다문화사회,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 중시, 통일 이전 남북한의 제도 그대로 유지 순이었다. 복지제도 도입,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다 같이 높은 동의를 보였으나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 보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동의도가 적지 않게 높았다.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사용과 통일국가의 역사와 전통유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남한 주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의 혈통을 남한 주민보다 더 중시했고 남한 주민은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북한 주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대외정체성을 비교한 데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 남한 국민, 아시아인, 북한인, 세계인 순이었다. 남한 주민은 남한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이었다. 남한 주민은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았다.

통일 속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67.3%로 높았지만 남한 주민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임으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였지만 남한 주민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같은 민족임으로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은 북한 주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많이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에서 다음의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은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여 통일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하고 그 발전 정도에 상응하게 복지제도가 보장되는 사회가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으로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에 대한

I
II
III
IV
V

요구가 높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시민의식도 약하다. 오랫동안 독재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은 민주주의체제에서 살아온 남한 주민의 정치의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체제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앞으로 남북 통합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족성에 관한 의식이다. 북한이탈주민은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으로 남한 주민에 비해 혈통을 매우 강조했고 통일의 필요성에서도 남한 주민은 전쟁 방지를 첫 번째로 생각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에서 찾았다.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민족정책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혈통을 중시하고 있고 다문화보다는 단일민족문화에 대한 지향이 더 높다. 앞으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국가 정체성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단일민족에 대한 강한 지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탈북민의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정착기간이 길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남한 주민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탈북민들은 남한정착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며 점차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인지하게 된다. 이는 탈북민들로 하여금 남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통일과정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예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IV. 심층분석





# 1. 통일국가 비전과 북한인식 유형의 상관관계

## 가. 통일국가 비전의 유형

이 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통일 이후 국가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여 측정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통일국가의 비전과 북한에 대한 인식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서베이 데이터를 요인 분석한 결과, 통일국가에 대한 비전은 자유주의, 국가주의, 단일민족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우선 통일국가 비전을 측정할 방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성별, 세대, 이념, 지지정당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변수와 각 통일국가 비전 요인을 교차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는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의 이론적 틀과 분석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마지막 절에서는 이 통일국가 비전 유형과 북한인식 4군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그 함의를 정리하는 순서로 글을 구성한다.

### (1) 측정 및 결과

#### (가) 평행선 분석과 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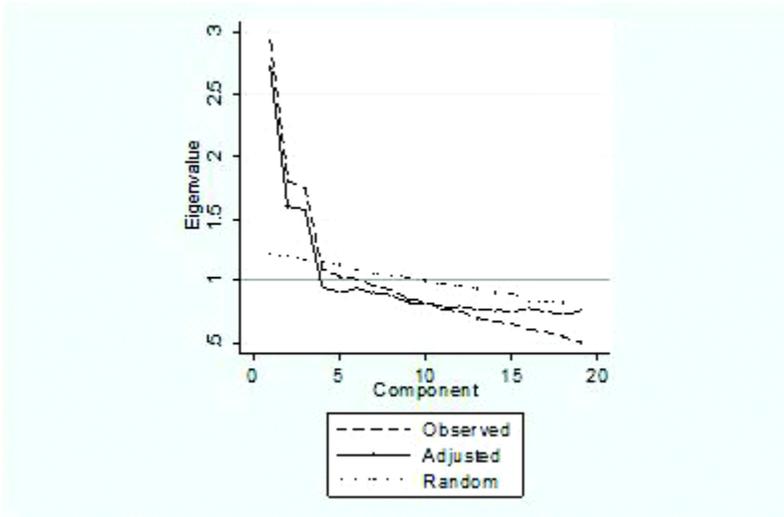
이번 연구의 서베이에는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해 묻는 리커트 척도 문항 19개가 포함되어 있었다(〈표 II-4〉 참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1이 “매우 그렇다”, 2가 “대체로 그렇다”, 3이 “별로 그렇지 않다”, 4가 “전혀 그렇지 않다”로, 값이 클수록 주어진 문항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의미하도록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항은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이었

I
II
III
IV
V

는데, 다문화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이 문장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라면 “별로 그렇지 않다(3점)”,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4점)”를 선택했을 것이다.

이 19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 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하여 통일국가 비전을 구성하는 요인(factor)을 찾아내는 것이 이 분석의 첫 번째 단계였다. 우선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의 수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이겐값(eigenvalue)을 통해 요인의 수를 추측하는 것이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평행선 분석(parallel analysis)을 사용하여 요인의 값을 구했다.<sup>27)</sup>

그림 IV-1 1차 평행선 분석 - 아이겐값(Eigenvalue)의 분포



<sup>27)</sup> 평행선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J. L. Horn,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0, no. 2 (1965), pp. 191~185; Alexis Dinno, “Implementing Horn’s Parallel Analysis f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Stata Journal*, vol. 9, no. 2 (2009), pp. 291~298.

위의 그래프는 평행선 분석을 통해 보정된 아이젠값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요인의 수가 3일 때 아이젠값이 1.57이고, 4일 때 0.95이므로, 여기서는 요인의 숫자를 3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1차 평행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요인 분석의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aximum-likelihood)을 사용했고, 회전방식은 프로맥스 방식을 사용하였다. 19개 변수를 3개의 요인으로 분석해본 결과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0.35 이하의 요인적재값은 표에서 생략하였다.

**표 IV-1** 1차 요인분석 - 요인적재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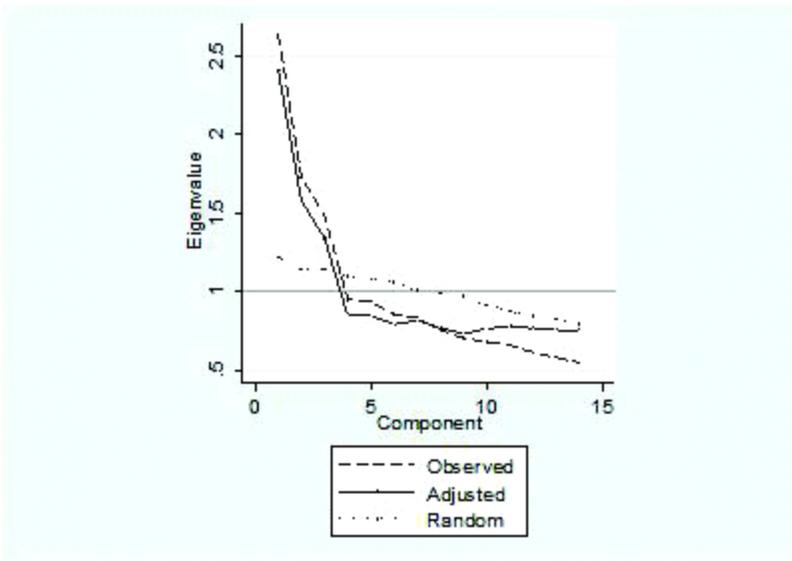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Uniqueness
1			0.4134	0.7799
2				0.8263
3			0.6826	0.5352
4		0.3548		0.8386
5		0.3666		0.854
6				0.8931
7			0.3967	0.7936
8		0.3974		0.7699
9	0.35			0.8163
10				0.8918
11	0.4743			0.7256
12			0.3821	0.7532
13	0.3656			0.7423
14		0.4049		0.7358
15				0.9102
16		0.5525		0.6992
17				0.9134
18	0.6609			0.6026
19	0.6259			0.6344

I
II
III
<b>IV</b>
V

이렇게 1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 6, 10, 15, 17번 변수의 요인 적재값이 0.3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위해 이 다섯 변수를 제외한 14개 변수만을 가지고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절차는 1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우선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 14개의 변수만을 가지고 평행선 분석을 실시했다. 아래의 아이젠값 그래프는 이 2차 평행선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차 분석에서 아이젠값은 요인이 1개일 때 2.41, 2개일 때 1.58, 3개일 때 1.34, 4개일 때 0.85이다. 따라서 1차 분석과 마찬가지로 2차 분석에서도 요인의 숫자는 3개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2 2차 평행선 분석 - 아이젠값(Eigenvalue)의 분포



이어서 요인의 숫자를 3으로 지정하여 2차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1차 요인 분석에서 제외된 다섯 변수를 뺀 14개 변수가 투입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최대우도법으로 추정하였고 회전방식은 프로맥스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IV-2>에 정리되어 있다.

**표 IV-2** 2차 요인분석 - 요인적재값

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Uniqueness
1		0.3878		0.7753
3		0.6635		0.5672
4			0.3528	0.8394
5			0.392	0.8373
7		0.4149		0.7812
8			0.3768	0.7698
9				0.8248
11	0.4602			0.7264
12		0.3784		0.7414
13	0.3627			0.7534
14			0.3758	0.7577
16			0.5274	0.7214
18	0.6594			0.5943
19	0.6234			0.6246

세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에는 네 개의 변수가, 두 번째 요인에도 네 개의 변수가, 세 번째 요인에는 다섯 개의 변수를 할당할 수 있었다.

(나) 통일국가 비전의 세 가지 요인

위의 과정을 거쳐 19개의 변수를 3개의 통일국가 비전 요인으로 축소한 결과는 아래 <표 IV-3>과 같다. 문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각각의 요인을 “자유주의 요인”, “국가주의 요인”, 그리고 “단일민족 요인”으로 이름 붙였다. 각 요인들에 포함된 변수들의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값은 각각 자유주의 요인이 0.60, 국가주의 요인이 0.46, 단일민족 요인이 0.51이었다. 알파값이 비교적 낮은 편이나

I
II
III
IV
V

이것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통일국가 비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없는 관계로 이번의 설문은 탐색적 성격이 강했으며, 이 분석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더 발전된 척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자유주의 요인에는 이념과 사상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북한의 제도와 역사 인식에 대한 관용문제 등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주의 요인 변수들에 일관되게 찬성한 응답자들이라면 통일 이후의 국가는 개인의 자유, 특히 이념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 것이다. 반대로, 이 자유주의 요인의 변수들에 일관되게 반대한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에도 보안법 등으로 대표되는 불온사상에 대한 이념적 제약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V-3 >> 통일국가 비전의 세 가지 요인

요인	변수	알파
자유주의 요인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0.60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주의 요인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0.46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요인	변수	알파
단일민족 요인 <sup>28)</sup>	통일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0.51
	통일 후 이전 북한 공산주의의 잔재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국가주의 요인에 포함된 다섯 변수는 일견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 하나의 요인에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소수 집단에 대한 인권 보장” 등의 내용은 강력한 국가주의 옹호자들의 견해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의 자유주의 혹은 국가주의의 내용은 일관되고 잘 발달된 정치적 이념을 가진 엘리트 집단에서 이해하는 자유주의 및 국가주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정치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나 일반적 시민의 인식 수준에서 이해하는 국가주의란 “국가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과 시장 개입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고 개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정도라고 할 수 있다.<sup>29)</sup> 따라서 위의 다섯 문항들의 논리적 불일치

<sup>28)</sup> 원래 앞 절의 요인분석 결과에는 이 단일민족 요인에 “통일국가 정부는 예산을 아끼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의 논리적 일관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 연구자의 판단으로 삭제하였고, 나머지 세 문항으로 단일민족 요인을 구성하였다.

<sup>29)</sup> 이론으로서의 이념과 개인의 인식 수준에서의 이념 사이의 괴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I
II
III
IV
V

는 이러한 일반적 인식 수준에서 생각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국가주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답을 한 응답자들은,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과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관되게 부정적인 답을 하는 개인이라면 통일 이후에는 국가의 개입이 제한되어야 하며, 정부가 아닌 시장과 개인의 자유가 좀 더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통일국가 비전 요인은 단일민족 요인이다. 세 변수로 구성된 이 요인에는 직접적으로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선호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여기에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한 장려 여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비교 등에 대한 문항도 들어 있다.

이 요인은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내용들이다. 현재는 많은 외국인 인구의 유입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장려하고 있으나, 90년대까지만 해도 ‘하나의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열망은 통일한국에 대한 염원의 중요한 기반이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성의 현실과는 별개로 아직까지도 기성 세대의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강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요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통일 이후 국가가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다양한 문화 및 가치가 공존하는 다문화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통일국가 비전 요인들을 각기 구성하는 변수들을 모두 더해, 세 개의 합산척도를 만들었다. 이하에서는 이 합산척도를 “자유

---

두 문헌을 참조할 것: Angus Campbell,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Sons, 1960); Phi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 D. Apter (New York: Free Press, 1964), pp. 206~261.

주의 요인”, “국가주의 요인”, “단일민족 요인”이라고 호칭할 것이다.

아래의 <표 IV-4>에서는 이 새로운 세 합산척도의 기술통계를 정리하고 있다. 각 개별 변수는 1점에서 4점까지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4개의 변수를 합한 자유주의 요인의 경우 이론적 최솟값은 4, 최댓값은 16이다. 그리고 5개의 변수를 합한 국가주의 요인의 이론적 최솟값은 5, 최댓값은 20이며 단일민족의 경우 이론적 최솟값이 3, 최댓값이 12이다.

**표 IV-4** 통일국가 비전 요인 합산척도 변수 기술통계

통일국가 비전 요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자유주의 요인	1005	9.51	2.20	4	16
국가주의 요인	1001	9.51	2.03	5	17
단일민족 요인	1003	7.13	1.70	3	12

여기서 한 가지 해석상의 주의점이 있다. 원 변수에서 값이 작을수록 긍정, 클수록 부정으로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sup>30)</sup> 합산척도에서 값이 클수록 부정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유주의 요인의 경우 5점을 기록한 응답자는 14점을 기록한 응답자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통일 이후 국가에서 개인의 기본적 시민권과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는 국가주의 요인과 단일민족 요인 모두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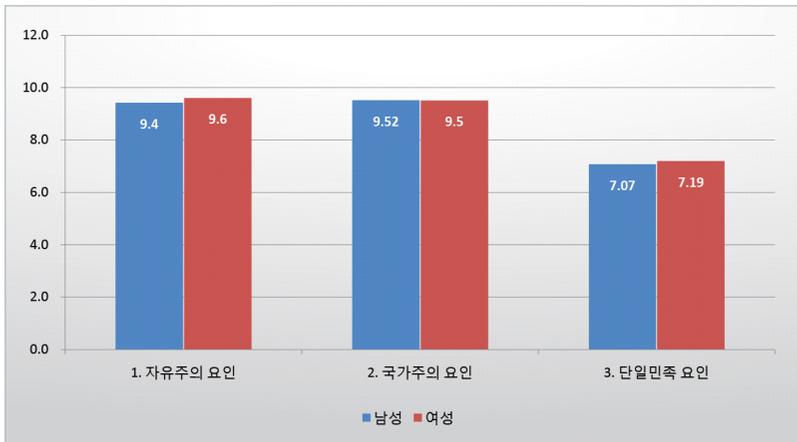
<sup>30)</sup>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 (2) 통일국가 비전의 교차분석

이 절에서는 앞에서 새로 구성한 세 가지 통일국가 비전 변수를 성별, 세대별, 이념별, 지지정당별로 교차분석하여 그 인구학적 차이를 밝혀 볼 것이다.

### (가) 남성과 여성

그림 IV-3 >> 통일국가 비전 세 가지 요인의 성별 교차분석



남성과 여성이 그리는 통일 이후 국가의 모습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인가? 교차분석 결과,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정도여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우선 자유주의 요인에서는 여성의 평균이 9.60, 남성이 9.42로 여성이 약간 높았다. 즉, 남성 쪽이 개인의 자유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는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자유주의 요인은 최솟값이 4, 이론적 최댓값이 16으로 그 중간 값은 10이다. 즉, 10보다 작으면 개인의 자유 보장에

대해 긍정적이며 10보다 크면 부정적인 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모두 통일 이후 국가에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의 폭이 확대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다.

국가주의 요인의 평균값은 남성이 9.52, 여성이 9.50으로 거의 동일했다. 다섯 개의 변수를 합한 국가주의 요인 변수의 경우, 최솟값은 5, 최댓값은 20이며 그 중간 값은 12.5이다. 즉, 12.5를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효율적이고 강력한 국가 권력의 필요성에 긍정적이고, 12.5보다 큰 점수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52와 9.50 모두 중간 값인 12.5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전체 표본의 표준 편차는 2.03), 남성과 여성 모두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개입과 정부의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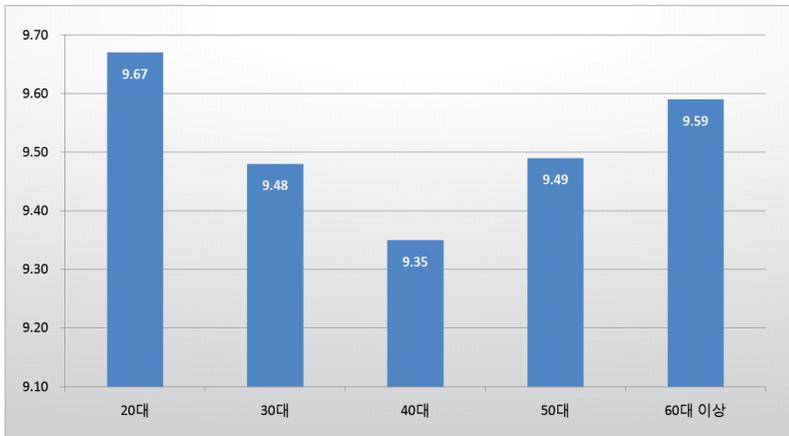
단일민족 요인의 경우 남성이 7.07, 여성이 7.19로 비슷했으며, 약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앞의 두 변수와 같은 논리로 분석해보면, 세 개의 변수를 합산한 단일민족 요인 변수의 최솟값은 3, 최댓값은 12이다. 중간 값 7.5를 기준으로 단일민족 국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7.5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단일민족국가로서의 통일국가 비전에 긍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대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이념보다도 오히려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중요해지고 있다. 통일 이후의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자유주의 요인에 있어서의 세대별 차이를 아래 그래프에서 알아보자.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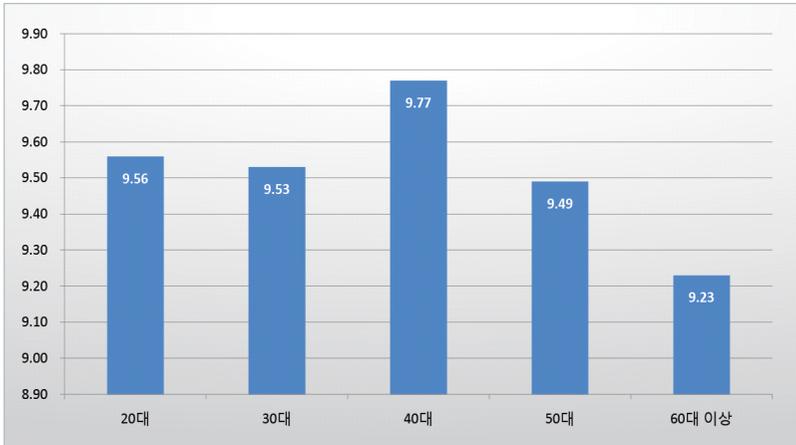
그림 IV-4 >> 자유주의 요인과 세대



이 그래프에서 보듯, 전체적으로 자유주의 요인 평균의 분포는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 모양이다. 통일 이후에 대해 가장 자유주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40대였다.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한 40대가 여러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가장 자유주의적이면서 반국가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40대의 자유주의 요인 평균이 9.35인 것에 비해, 의외로 가장 높은 자유주의 요인 평균을 기록한 세대는 20대로 9.67이었다. 20대는 60대 이상 노령층에 비해서도 자유주의 요인 평균이 높았는데, 이는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자유권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각 세대의 차이를 T검정해보면 이 차이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장 낮은 40대와 가장 높은 20대를 비교해보면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라고는 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차이라고는 하기 힘들 것이다.

그림 IV-5 >> 국가주의 요인과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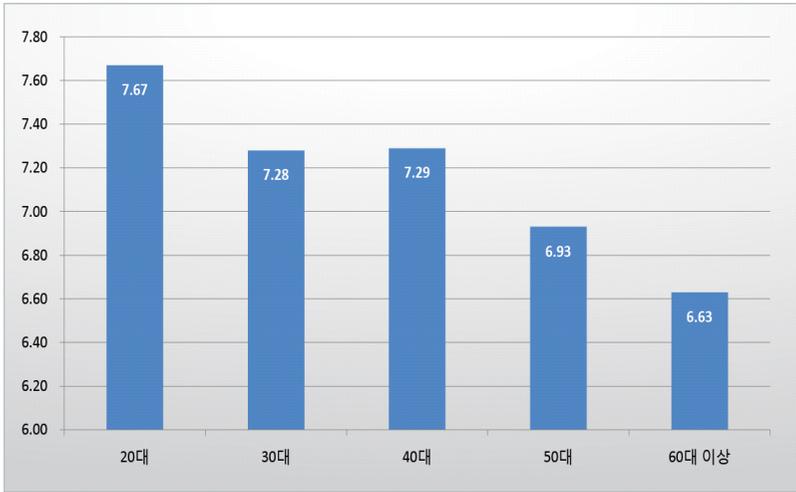
그렇다면 효율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림 IV-5>의 그래프에 정리된 것을 보면 역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60대 이상 노령층이 가장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했고, 40대가 상대적으로 반국가주의적이었다. 이 60대와 40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p < 0.01$ ). 20대와 30대, 50대는 비슷한 수준의 국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과 40대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정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주의 요인과 국가주의 요인에서는 기존의 세대별 정치성향 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패턴이 발견된다. 40대와 30대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경향이 있으며, 50, 60대는 보수적이라는 것이다. 20대는 상당히 보수화되어 노령층과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의 <그림 IV-6>은 단일민족 요인 변수의 세대별 평균을 비교하고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V-6 ▶ 단일민족 요인과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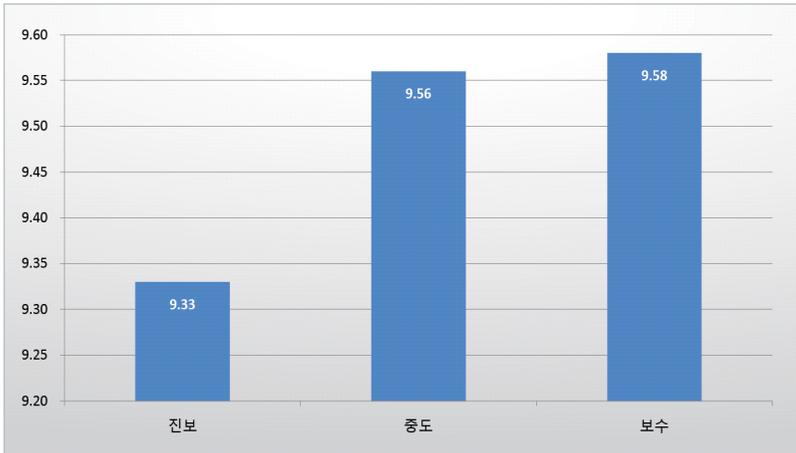


단일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은 역시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가장 강했으며,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약화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주의와 국가주의에서 20대와 60대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이 단일민족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20대의 다문화주의적 경향은 30대 및 40대와 비교했을 때도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는 20대의 이른바 ‘보수화’를 단순히 북한 문제에 대한 보수화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천안함 및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들을 경험한 20대는 30대와 40대보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단일민족 요인의 교차분석에서 볼 수 있듯, 20대가 지향하는 통일한국은 60대의 그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이 20대가 남북관계의 주역으로 등장할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 이념

그림 IV-7 자유주의 요인과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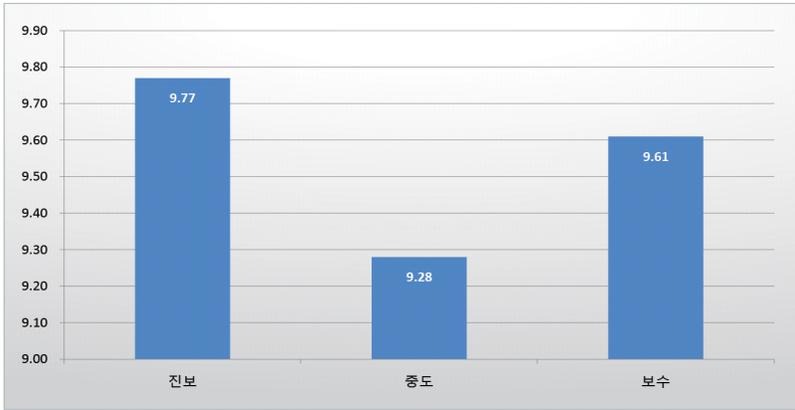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스스로를 진보라고 말하는 응답자의 경우 자유주의 요인 점수가 가장 낮았다. 즉,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국가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반면 중도와 보수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T검정을 해본 결과, 진보와 보수는 자유주의 요인 측면에서 사실상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수준을 10%로 잡을 경우에만 인정할 만한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진보가 좀 더 자유주의 요인을 선호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V-8 >> 국가주의 요인과 이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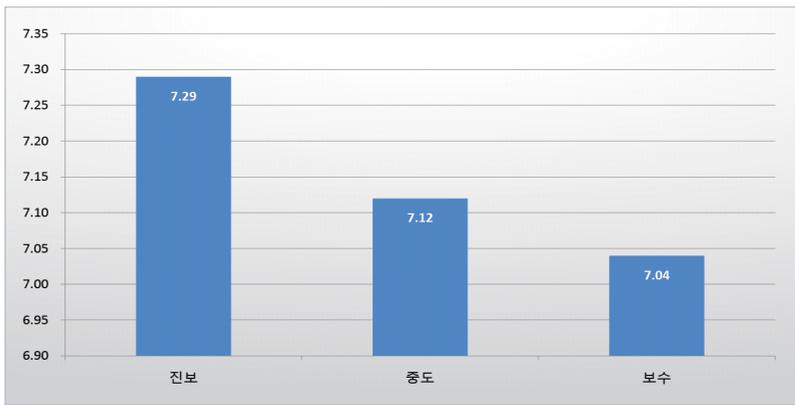


국가주의 요인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가 비슷했으며, 중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즉, 중도는 진보 및 보수보다 국가의 효율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개입을 더 선호하는 특징이 있었다 ( $p < 0.001$ ).

앞 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주의 요인에 포함된 변수들은 국가의 재분배 기능 및 소수자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진보 선호 문항과 중앙 권력의 강화와 자본주의 자유경쟁을 강조하는 보수 선호 문항이 같이 섞여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문항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특정한 이념에 결부된 일관적 방향성이라기보다는 국가의 능력을 신뢰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기대하는 일반적인 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의 교차분석에서 중도의 선호가 높게 나온 것도 이런 문항 구조의 측면에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도 응답자들보다 진보 응답자들이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문항에 적극 반대하면서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보수 선호 문항에도 같이 반대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이념을 진보 혹은 보수라고 명확히

규정지어 답하는 사람들이 중도라고 답하는 사람들보다 논리적 일관성이 떨어지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이념이 사실은 선호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며, 실제 정책이나 정치 이슈에 대한 선호와는 오히려 무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V-9** ▶ 단일민족 요인과 이념



다음으로 단일민족 요인을 이념별로 교차분석해 보았다. 보수가 진보보다 단일민족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이는 9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로 검정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하기에는 힘든 수준이다.

#### (라) 지지정당

이번 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1,005명에 대해 지지하는 정당을 물었다. 새누리당 지지가 34.3%로 가장 높았으며, 더민주당 20%, 국민의당 6.5% 순으로 조사되었다. 선호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파도 36.5%로 조사되어 비율상으로는 무당파가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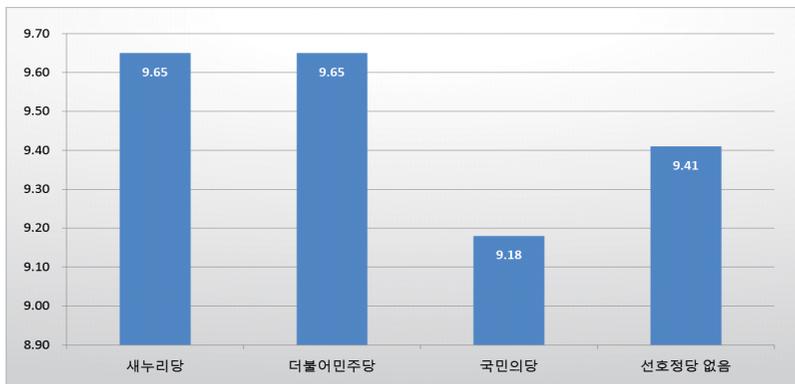
표 IV-5 지지 정당 분포

지지 정당	빈도	%
새누리당	345	34.3
더불어민주당	201	20.0
국민의당	65	6.5
정의당	12	1.2
기타정당	15	1.5
선호정당 없음	367	36.5
합계	1,005	100.0

여기에서는 응답자의 수가 적어 의미 있는 양적 분석을 수행하기 힘든 정의당과 기타정당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무당파 네 집단의 통일국가 비전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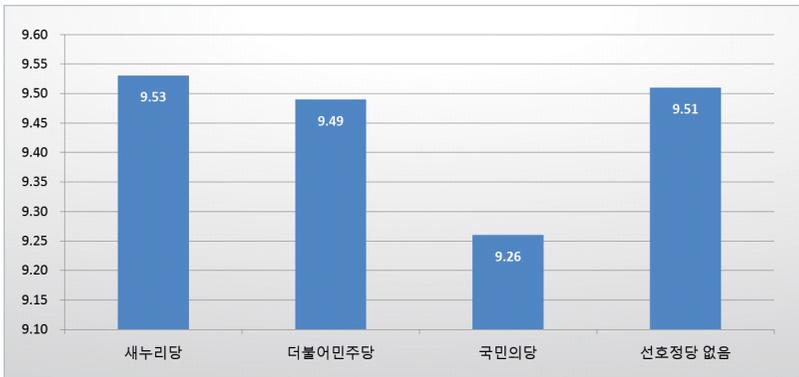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진보 혹은 중도에 가깝다고 조사된다. 전통적으로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한 포용보다는 경제제재와 대결적 정책을 선호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과 차별된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통일 이후의 국가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차이로 나타날 것인가?

그림 IV-10 자유주의 요인과 지지 정당



우선 통일국가 비전의 자유주의 요인부터 비교해보자.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자유주의 요인 평균값이 모두 9.65로 동일한 수준이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9.18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T검정을 해보면 이 정당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통일 이후 국가에서의 시민적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이나, 타 정당 지지자들 그리고 무당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두드러진 차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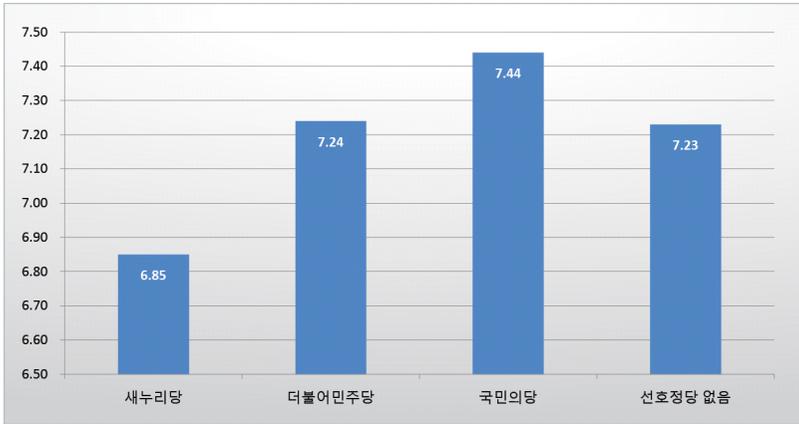
그림 IV-11 >> 국가주의 요인과 지지 정당



같은 패턴이 국가주의 요인의 경우에도 반복되는 것을 위의 <그림 IV-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국가주의 요인 점수가 9.53과 9.4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9.26으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시 T검정으로 이 세 당 지지자들 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국가주의 요인의 경우에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좀 더 국가의 개입과 효율적인 행정을 지지하나 정당 간 차이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V-12 >> 단일민족 요인과 지지 정당



통일국가 비전의 세 요인 중 유일하게 정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 것은 단일민족 요인이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7.24와 7.44를 기록한 반면, 새누리당은 6.85로 현저히 낮았다. 즉,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통일 이후 단일민족 국가를 원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그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1$ ).

이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지 정당 또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주의나 자유주의 요인의 경우, 진보나 보수, 혹은 집권 여당과 야당 지지자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유일하게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요인은 단일민족 요인으로, 보수 이념을 가진 응답자들 혹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경우 혈통적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나. 북한인식 4군집 모형

통일 이후의 한국에 대한 생각은 현재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며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sup>31)</sup>에서 다룬 바 있어 여기서는 그 이론적 논의는 생략한다.

지금까지 북한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선적 인식 모형에 의존해왔다. 즉, 진보와 보수라는 단선적 스펙트럼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협력적 태도로 사람들의 북한인식을 크게 양분화해서 구분해왔다. 이에 따라 친북/반북, 햇볕정책/경제제재, 대화/적대 등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통해 북한인식을 단순화해 이해해 온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보다 복잡하고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 (1) 북한인식 4군집 모형

이 절에서는 크게 네 가지 유형-현실주의, 실용주의, 자유주의, 고립주의-로 나눌 수 있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북한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가) 현실주의

현실주의(realism)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높고, 주로 대결의 대상으로 북한을 판단하는 시각이다. 북한에 대한 협력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설명할 실용주의(pragmatism)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이 현실주의 인식집단은 현 정부의 가장 굳건한 정치적 지지 기반이다. 국가보안법, 주한미군, 사드배치, 대북 제재 및 북한에 대한

<sup>31)</sup>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181~218.

경제협력,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등에 있어 가장 정통적인 '보수'의 시각에서 북한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다.

#### (나) 실용주의

실용주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경계하고 북한의 핵이 실제로 남한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나 경제제재 강화 등의 조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남북 간의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현실주의 집단보다는 남북 간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편이다. 즉, 북한에 대해 그때그때 환경과 상황에 맞춰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집단을 실용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전체 국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이 이 실용주의 북한인식 집단이다.

#### (다) 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전통적인 '진보'에 해당하는 북한인식 집단으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실제로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집단도 실용주의나 현실주의 집단과 크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집단도 사드 배치에는 그 과반수가 찬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나 주한 미군 주둔 등의 사안에서도 상대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자유주의 집단('진보')과 현실주의 집단('보수')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태도의 차이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라) 고립주의

위의 세 집단에 비해 고립주의(isolationism)는 가장 그 비중이 작은 집단이긴 하지만,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북한과의 대결적 정책과 협력적 정책에 반대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주의 집단 못지않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지만, 수동적 방어 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즉, 이들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남한의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용인하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이 고립주의적 태도가 국민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서 20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는 고립주의적 태도의 확산이라고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50대 및 60대 이상과 20대는 공통적으로 북한 문제에 있어 상당히 강경하고 보수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노년층이 현실주의적이라면 젊은 층은 고립주의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 (2) 4군집의 측정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문항에는 “지원대상”, “적대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이라는 네 가지 답지가 주어졌으며, 각 답지는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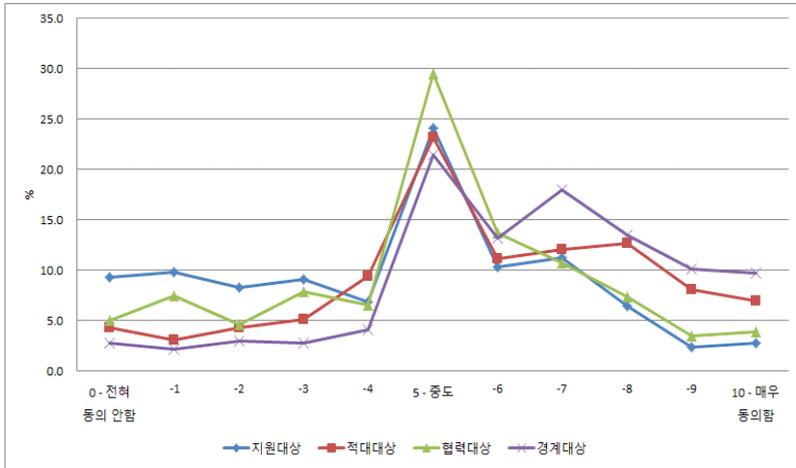
III

IV

V

11점 척도<sup>32)</sup>로 측정하였다. 이 네 답지에 대한 응답의 분포는 아래 그래프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IV-13 >> 북한인식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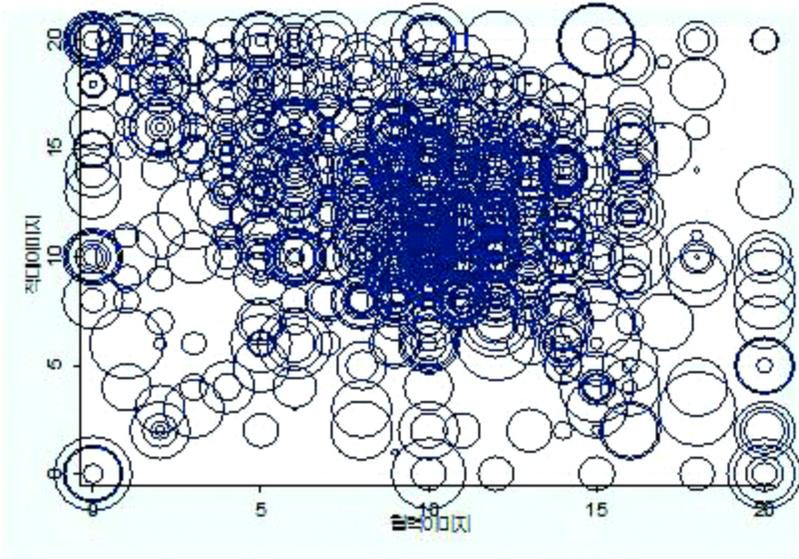
이렇게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의 대상으로 나누어 물어보는 방식은 90년대에 시작되어 지금도 각종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문항이다. 요인분석을 통해 지원대상과 협력대상, 그리고 적대대상과 경계대상을 각각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합산척도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sup>33)</sup> 이 조사에서도 지원대상과 협력대상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69,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의 알파값은 0.73으로 조사되어 합산척도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32) 0=전혀 동의 안함; 5=중도; 10=매우 동의함.

33)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pp. 181~218.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을 묶은 합산척도를 “협력이미지”로,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을 묶은 합산척도는 “적대이미지”로 명명한 후, 이 두 합산척도의 산포도를 그리면 아래와 같다.

그림 IV-14 ▶ 북한인식 산포도 (도수 가중치)



만약,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 상정하는 것처럼 북한인식이 이분법적이라면, 위의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잇는 대각선을 중심으로 산포가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는 네 개의 사분면 모두에 골고루 산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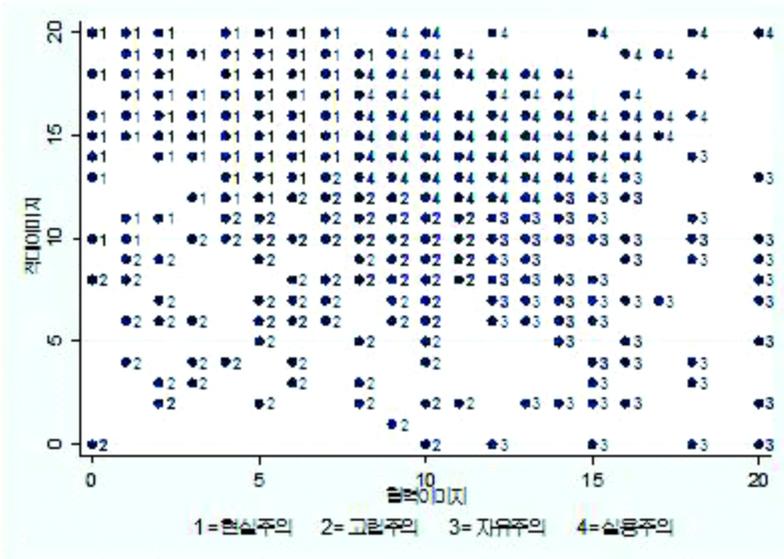
여기에서 북한인식을 나누어 보기 위해 K-means 군집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다.<sup>34)</sup> 그 결과 4가지의 군집을

<sup>34)</sup> 이상신, “Do South Koreans Really Hate North Korea?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한국정당

I
II
III
IV
V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산포도에 군집을 표기해서 데이터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IV-15 ▶ 북한인식 산포도 (4군집 표기)



군집분석은 가까운 값을 갖는 케이스를 보아서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북한인식의 구성에 대한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협력이미지와 적대이미지의 두 축을 중심으로 네 개의 북한인식 군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각 군집을 현실주의, 고립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로 이름 붙였다.

학회 춘계회의 발표논문, 2015), pp. 9~12.

### (3) 4군집의 기술통계와 교차분석

윗 절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북한인식 4군집을 측정하였다. 각 군집에 포함된 응답자의 비율을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IV-6** 4군집 모형 기술통계

군집	횟수	퍼센트(%)
현실주의	213	21.2
고립주의	313	31.1
자유주의	177	17.6
실용주의	302	30.1
합계	1,005	100.0

고립주의로 분류된 응답자가 31.1%로 가장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실용주의가 30.1%로 그 다음 순위였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각각 21.2%와 17.6%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통일연구원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군집 분포는 아래와 같았다.

**표 IV-7** 2014년과 2015년의 군집분포

4군집	조사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현실주의	180 (18%)	223 (22.3%)	403 (20.15%)
실용주의	373 (37.3%)	345 (34.5%)	718 (35.9%)
자유주의	247 (24.7%)	247 (24.7%)	494 (24.7%)
고립주의	200 (20%)	185 (18.5%)	385 (19.25%)
합계	1,000 (100%)	1,000 (100%)	2,0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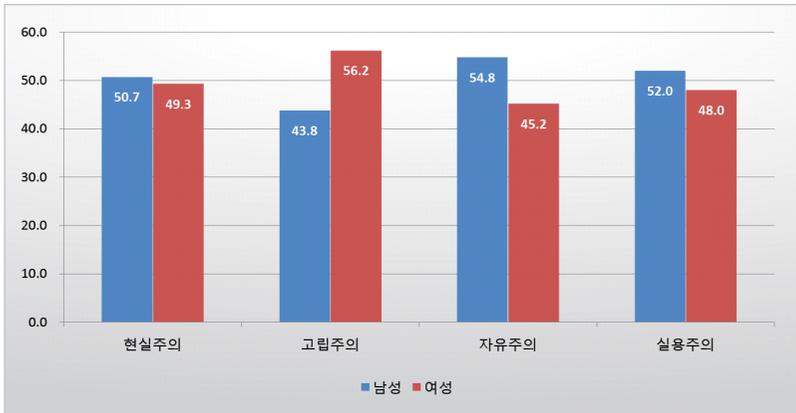
출처: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p. 198.

I  
II  
III  
IV  
V

2014년 및 2015년 조사와 비교해보면, 2016년 조사의 특징은 고립주의 군집의 확장 및 자유주의 군집의 축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마도 연이은 북핵 실험 및 개성공단 폐쇄 등의 남북관계의 급격한 악화가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모든 관계의 단절을 선호하는 고립주의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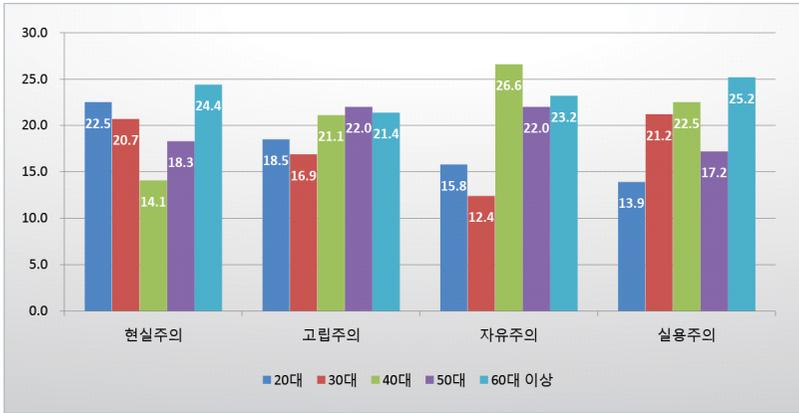
아래에서는 성별, 세대별, 이념별, 지지정당별로 나누어 북한인식 군집의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그림 IV-16** >> 북한인식 4군집의 성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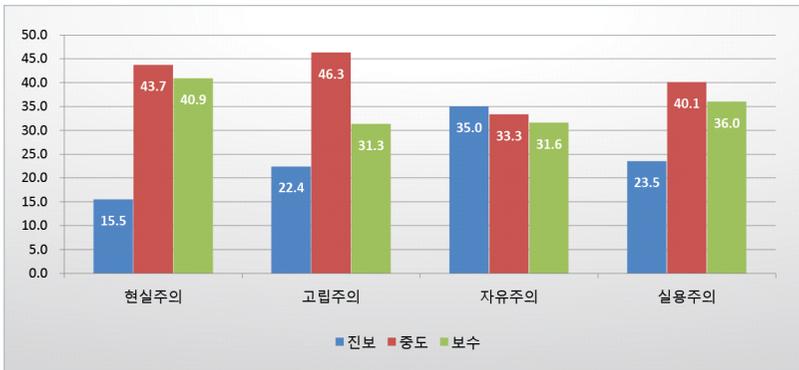
우선, 성별에 따른 북한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IV-16>의 그래프에 정리된 것과 같다. 현실주의 및 실용주의 군집의 남녀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고립주의에서는 여성이, 자유주의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은 북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관계의 단절을 선호하는 반면, 남성들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

그림 IV-17 >> 북한인식 4군집의 세대별 분포 (%)



세대별로 북한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자. 현실주의 군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노령층이었다. 반면 현실주의의 대척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군집에서는 역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실주의 군집 속에서의 비중이 컸으며, 실용주의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50대는 자유주의와 고립주의에서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림 IV-18 >> 북한인식 4군집의 이념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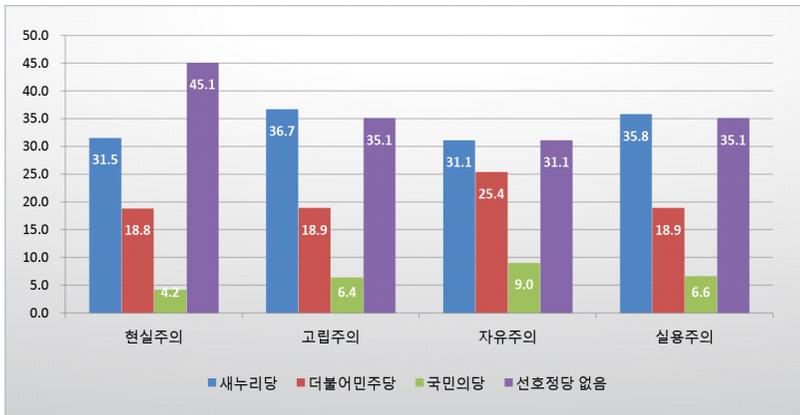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이 북한인식에 차이를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유주의 군집에 포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협력이나 지원을 선호하는 개인이 진보적 이념을 가질 것이라고 추측한다면 틀릴 확률이 3분의 2나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보수 혹은 중도층 응답자들도 거의 같은 비율로 자유주의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주의 군집에서는 보수의 비율(40.9%)이 진보의 비율(15.5%)을 압도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인식을 한다고 해서 꼭 진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현실주의적 인식을 하는 개인이 보수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고립주의와 실용주의에서도 보수의 비율이 진보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림 IV-19 >> 북한인식 4군집의 지지당별 분포 (%)



그렇다면 지지당별로 북한인식 군집과 교차분석을 한 결과를 분석해보자. 우선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비율이 4군집 모두에서 30%에서 35% 사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인식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거의 3분의 1의 확률로 그 개인이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북한과의 협력 혹은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는 개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진보 정당이나 중도 야당 지지자라고 단정 내릴 수 있는 통계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민주당 지지자들 및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경우, 자유주의에 속할 확률이 다른 세 군집에서의 확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군집에 속한 응답자가 더민주당 혹은 국민의당 지지자일 확률이 약간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북한인식을 기준으로 정당 지지를 판단할 근거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남남갈등 이론, 즉 북한인식에 대한 이분법적·단선적 모형에 따르면 진보-더민주 혹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를, 보수-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단선적 모형은 그 경험적 근거가 매우 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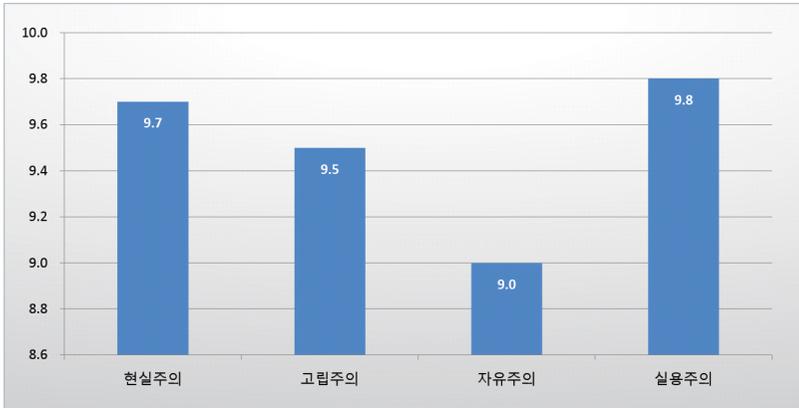
#### 다. 통일국가 비전과 북한인식 모형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두 모형-통일국가 비전 요인과 북한인식 군집 모형-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볼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통일을 생각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올 것인가? 통일이라는 과정은 북한이라는 상대방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은 별개의 것이면서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우선 아래 <그림 IV-20>의 그래프에서 통일국가 자유주의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인식 군집을 비교해 보았다. 자유주의적 북한인식 군집의 통일국가 자유주의 요인 평균 점수가 9.0으로 가장 낮았으며, 실용주의 군집의 경우는 9.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p < 0.001$ ).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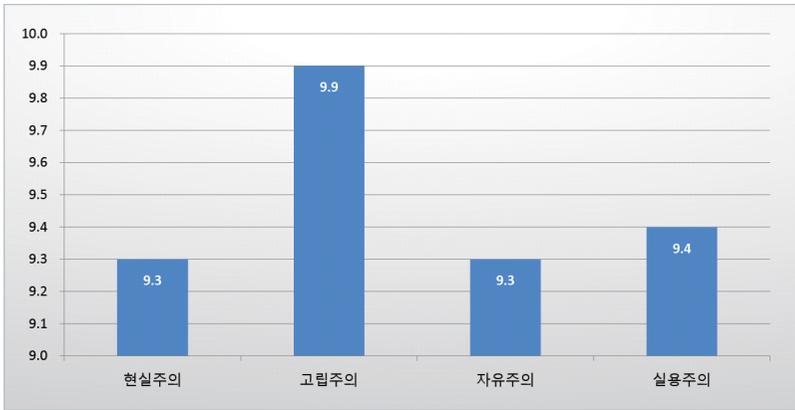
그림 IV-20 ▶ 북한인식 각 군집의 자유주의 요인 평균 비교



T검정결과 실용주의(9.8)와 현실주의(9.7)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실용주의와 고립주의(9.5)는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였다. 즉, 북한과의 대결적 관계를 지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자유주의 군집에서는 통일국가에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역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실용주의 및 현실주의 군집에 속하는 사람들은 통일국가에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었다. 고립주의 군집의 경우는 그 중간 정도였으나 차이가 두드러지는 편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통일국가의 국가주의 요인, 즉, 효율적 국가행정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대한 선호는 북한인식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림 IV-21>을 보면 현실주의, 자유주의, 실용주의 세 군집의 국가주의 요인 평균값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립주의 군집의 국가주의 요인 평균값은 9.9로, 다른 군집과 비교했을 때 도드라지게 높은 편이다( $p < 0.001$ ). 즉, 다른 군집에 속한 사람들보다, 북한과의 협력과 대결을 모두 바라지 않는 고립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통일국가에서도 국가의 개입을 바라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IV-21 >> 북한인식 각 군집의 국가주의 요인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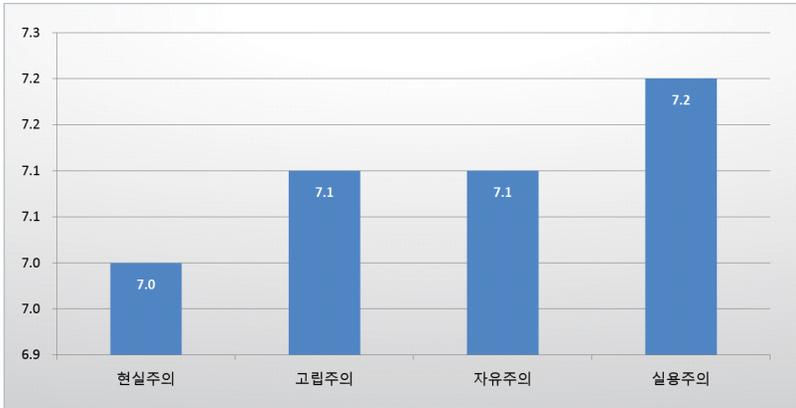


앞에서 고립주의 군집의 특징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고, 남한의 국가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개입을 용인하지만,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런데 위의 교차분석은 고립주의 군집이 단지 북한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국가의 행정력과 시장 개입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감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립주의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현실주의 군집과 유사한 군집으로 환원시켜 해석할 수 없는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과 2015년의 조사보다 2016년의 조사에서 고립주의 군집이 확대된 이유는 북한과의 급속한 관계악화 및 계속된 북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같은 대북환경 속에서 고립주의적 태도가 강화된 사람들은 근본적인 정치적 선호가 다른 군집에 포함된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위의 교차분석에서 나타나는 반국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태도가 바로 고립주의 군집의 개인적 특성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I
- II
- III
- IV
- V

그림 IV-22 >> 북한인식 각 군집의 단일민족 요인 평균 비교



자유주의 요인은 자유주의 군집과, 국가주의 요인은 고립주의 군집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단일민족 요인의 경우, 북한인식 군집 간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러한 태도가 어느 특정한 북한인식 군집과 친화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었다.

앞 절에서, 단일민족 요인을 성별, 세대, 이념, 지지 정당 등의 변수와 교차분석 한 바 있다. 진보 혹은 보수의 이념이 단일민족 요인 선호를 설명하지는 못했으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확실히 무당파 혹은 다른 정당 지지자들과 차별되게 단일민족 통일국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된 바 있다. 여기서 북한인식 군집과 이념, 지지 정당의 차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단선적 북한인식 모형에서는 반복 성향=보수 이념=새누리당 지지라는 암묵적 가설을 깔고 있었다. 그러나 통일국가 비전에서 북한인식과 보수 이념, 새누리당 지지는 모두 다른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인식은 이념이나 정당 지지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차원의 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요약과 함의

이 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을 서베이 데이터 분석하여 크게 세 가지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19개의 리커트 척도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통일국가의 비전을 구성하는 요인은 자유주의 요인, 국가주의 요인, 그리고 단일민족 요인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북한인식의 단선적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북한인식의 양태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은 종전의 진보-보수의 단일 스펙트럼이 아니라, 자유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의 네 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는 아마도 최근 남북관계 경색 때문인지 고립주의 군집이 31.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순서로 군집의 크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탐색적 분석을 통해 통일국가의 비전과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려 했다. 두 변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자유주의 군집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통일국가에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사상의 자유, 집회 및 선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용이 좀 더 잘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고립주의 군집, 즉, 북한을 또 다른 외국으로 보면서 북한과의 협력과 적대적 관계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국가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에 개입한다거나 권력이 단일한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등의 통일국가 비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I  
II  
III  
IV  
V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생각은 단선적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 또한 남한식 체제 혹은 북한식 체제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 2. 통합인식 유형에 대해 사회적 기반이 미치는 영향

‘통일한국 정체성’의 형성은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풀어야 할 최대 숙제이다. 오랜 남북 분단 시기를 거치면서 체제는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사회문화 전반에 이질성이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남북 전체 인구 가운데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생활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세대는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 이질적인 두 사회가 하나의 국가공동체에 편입하여 ‘우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공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로 볼 수 있다.

통합지향적인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을 공고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정체성 딜레마’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중의 정체성 딜레마란 첫째, 국가/제도적 차원에서 분단 후 방향을 달리한 양 체제 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중앙집권적인 단일제도로 통합할 것인가, 남과 북의 기존 제도가 공존하는 분권/연방형 제도로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 각각 중앙집권적 제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볼 때 통일한국에서도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에 대해 선택적 친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체제와 제도가 극단적으로 이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과 북 체제가 상당 기간 공존하는 연합/연방 단계에 대한

현실적 고려를 제외할 수 없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국가정체성은 국가제도의 구조적 특성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한국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통일한국이 단일한 중앙집권적 제도하에서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과 북의 기존 질서가 공존하는 연방형/분권형 통일 체제를 택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혈연, 언어, 문화적 동질성이라는 귀속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민족정체성'과 국적, 출생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법 준수 등과 같이 시민적, 국가 제도 차원에 기반을 둔 '국민/국가 정체성' 간의 괴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단일민족 개념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큼 강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은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현상타파'의 정당성을 부여해왔다. 반면, 남북 간 상이한 체제의 유지와 상호 충돌과정에서 형성된 남과 북을 별개의 완결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분단국가 국민정체성'이 강화되어 왔고, 이는 남북한 국가 간 대결과 갈등의 산물로서 '현상유지(status quo)'와 분단체제의 유지를 뒷받침한 힘이었다. 더구나 남북 체제 간 이질성이 커지고 민족공동체의 경험이 없는 전후 세대가 증가하면서 민족정체성이 약화되고, 대한민국을 완결적인 국가단위로 생각하는 소위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북한과 북한 주민을 '배제(exclusion)'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늘어났다.<sup>35)</sup>

이러한 이중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딜레마와 함께 통일한국은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와 '다문화'의 통

<sup>35)</sup>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12; 엄상윤, 『한국의 안보/통일 딜레마와 파생효과 감소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2), pp. 8~15; 윤인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제8권 1호 (2007), pp. 5~30.

I
II
III
IV
V

합이라는 양면적 과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의 ‘민족정체성’과 ‘국민정체성’ 간의 괴리라는 ‘정체성의 위기’가 ‘과거’의 극복이라면, 민족동질성에 기초한 ‘한민족 공동체의 복원’과 점증하고 있는 ‘다문화 트랜드’ 사이의 충돌은 ‘미래’의 도전인 셈이다. 한국은 어느덧 이민 송출국에서 유입국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주민과 외국인의 유입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통일한국에서도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구심력 차원에서 ‘한민족 공동체’의 복원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증가라는 원심력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중의 압력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북갈등에 남남갈등, 북북갈등에서 나아가 민족/인종갈등의 균열까지 중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천년 단일민족’의 신화와 월드컵 등에서 확인된 폭발적인 ‘민족’ 에너지를 감안하면 통일한국의 준비과정에서 ‘단일민족’ 신화와 ‘다문화주의’ 사이의 충돌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과제이다.

통합의 과정은 결국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이라는 두 분단국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이러한 대비에서 시급한 것은 첫째, 과연 남한과 북한의 통일한국 구성원들이 통합의 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통일한국의 통합정체성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규명하는 작업이다. 둘째, 평화공존에 기여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며 인권과 시민권의 향상, 복지에 기여하는 통합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국 사회의 준비 정도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통일은 현재의 남과 북이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의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겠지만, 통일한국 이후 통합과정의 성공과 실패는 현재의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독일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면 통일 이전에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졌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여부는 결국 통일의 주체였던 서독과 동독,

특히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역량에 달려 있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통일한국에서 불거질 정체성의 딜레마 요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통합'인식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둘째, 통합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서 통합지향적인 국가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1) 시민성, (2) 사회신퇴, (3) 경제적 여력 요인에 주목하여 이들 요인이 통합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 가. 통일한국의 통합인식 유형화

앞 장에서 살펴 본대로 통일한국의 통합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양 사회의 통합인식은 (1) 기존 남한과 북한 제도의 유지 여부(단일체제인가, 연방체제인가), (2) 한민족정체성과 통일 이전 국가정체성 간의 괴리를 중심으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단일민족/단일문화 지향과 다민족/다문화주의 간의 선택을 중심으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정체성의 균열 축은 남한과 북한, 남한 사회 내부 및 북한 사회 내부, 양측의 엘리트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다양한 갈등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통합인식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통합의 정당성과 그 대비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당위적인 차원에서의 논의가 분분할 뿐이다. 정작 각 주체들이 생각하는 통합인식, 즉 이들이 생각하는 통일한국의 '통합'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통합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sup>36)</sup>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중의 정체성

I
II
III
IV
V

갈등' 요인을 한국 사회의 관점에서 단순화하여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합인식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 (1) 남북통합의 인식유형

다문화 정체성 문제는 이주민, 외국인 거주자 등 국내 거주 외부집단에 대한 태도인 반면, (1) 남과 북 사이의 체제/제도적 통합 방향, (2) 한민족 정체성과 통합 이전 분단 상황에서의 남한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분단 국가정체성 간의 괴리현상은 통일한국에서 남과 북의 통합정체성의 직접적인 구성요소이다.

통일한국에서 지향하는 남북통합의 의미와 특성을 유형화하기 위해, 여기서는 기존 사회통합 연구에서 이질적인 집단 간의 통합을 분석하는 틀을 차용하고자 한다. 즉, 소수집단이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유형을 분석하는 틀로서 크게 (1) 제도적 차원에서의 집단 간 관계(수평적/평등인가, 수직적/계층화인가), (2) 문화적 차원에서의 집단 간 관계(동질적인가, 이질적인가)를 교차한 2\*2 통합유형화 틀은 남북통합 인식을 유형화하는 데도 유용하다.<sup>37)</sup> 이를 변형하여 통일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기존 제도 간의 관계,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기존 제도들을 남한의 기존 제도들과 동등하게 수용(평등화)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배제하거나 주변화할 것인지(계층화)의 문제로归结된다. 한편 문화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동질적인 '민족정체성'을 공유하는 집단으

36)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pp. 11~24;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p. 3~5.

37)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p. 9~23;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새 정부 개혁: 과제와 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pp. 14~15; 윤인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pp. 5~30.

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가 통일한국의 통합인식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들 사이에서 혈연,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민족’ 정체성 대신 국적, 출생, 시민의무를 중시하는 ‘남한 국민’ 정체성이 강화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한과 북한 사이의 대결과 격리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서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에 대한 의문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sup>38)</sup>

두 축을 교차하면 (1) 제도적 차원에서는 통일한국의 제도 통합과정에서 북한의 기존 제도들을 (선별적이거나) 존중하고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면 배제할 것인가, (2) 문화적 차원(민족적 동질성)에서 북한을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로 남북통합을 바라보는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다.

I 유형은 제도적으로 통일한국의 제도 통합과정에서 기존 북한 제도를 배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문화적으로도 북한 주민을 민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다. 이러한 틀에서 보면 통일은 철저히 남한 우위의 입장에서 북한 제도의 청산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흡수를 의미하며, 정책적으로는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하되 정치경제적 권한은 정당하게 부여하지 않는 ‘배제 모델(exclusionary model)’과 친화성을 지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II 유형은 제도차원에서는 기존 북한 제도를 존중하여 통일 이후 일정한 공존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북한 주민을 이미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이질적 집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차별에 기초한 ‘차별적 포섭 모델(differential inclusion model)’

I
II
III
IV
V

<sup>38)</sup>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11~12;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pp. 37~38; 윤인진, “한국 민족주의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pp. 5~30.

과 유사하다. 이 경우 북한 주민은 같은 민족구성원이 아닌 다문화 집단 중의 하나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Ⅲ유형은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동질적 집단으로 수용하되 북한의 제도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으로서 정책적으로는 북한의 제도와 규범을 포기하고 남한의 제도와 규범에 동화시키는 ‘동화모델(assimilationist model)’에 가까울 듯하다.

Ⅳ유형은 북한 주민을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북한 제도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유지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공존형 모델(symbiosis)’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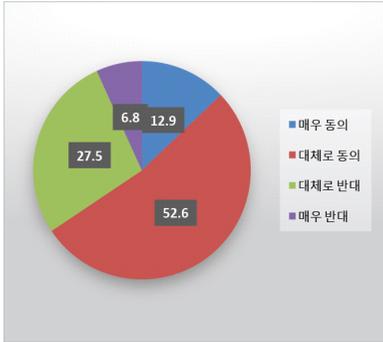
표 IV-8 ▶ 남북통합 인식 유형화의 틀

		(1) 제도차원 : 남북 제도 통합 유형	
		북한 제도 배제 (계층화)	북한 제도 존중 (수평적 포섭)
(2) 문화차원: 한민족 인정	불인정 (이질성)	Ⅰ. 흡수 통합 〈배제 모형〉	Ⅱ. 격리형 통합 〈차별적 포섭 모형〉
	인정 (동질성)	Ⅲ. 동화형 통합 〈동화 모형〉	Ⅳ. 공존형 통합 〈공존형 포섭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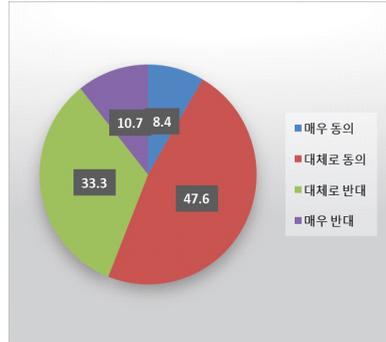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국민들은 어떤 통합유형으로 사고하고 있을까? 이를 위해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통일시 북한의 제도에 대한 인식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정치사회 제도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65.6%가 동의했고,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56.0%가 동의한 반면, 44.0%는 동의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의 제도와 규범을 일거에 청산하기보다는 상당 기간 존중하겠다는 의사가 많았다.

**그림 IV-23** 통일 후 남북 제도 존속 및 북한의 제도규범 존속에 대한 태도

(1) 남북의 제도



(2) 북한 주민 원할 시 북 제도/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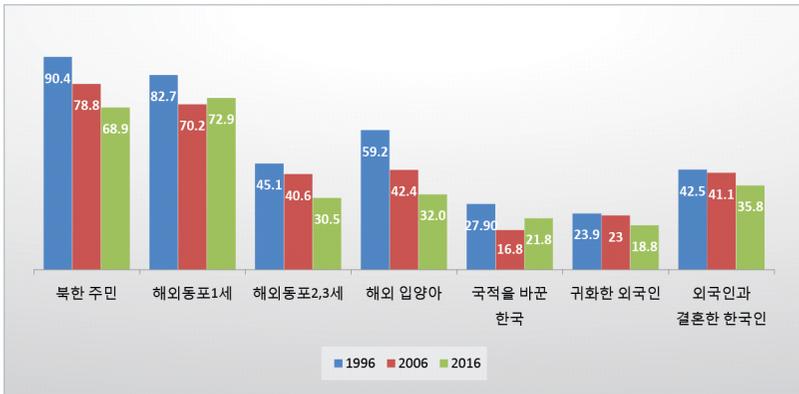
한편 또 다른 한 축인 북한 주민을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북한 주민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72.7%였다. 다수가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에 대한 긍정 응답 89.0%,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자녀 84.5%, 결혼 이민자 75.5%에도 못 미치는 결과이다. 북한 주민의 경우 혈연, 인종, 언어 등 귀속적 요인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언어 등은 다르지만 국제결혼으로 대한민국 국민 범주에 포함된 외국인, 이주민보다도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비율이 약하다. 민족 개념조차 시민적, 국민 개념과 혼재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996년부터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 조사>에서 북한 주민, 해외동포 1세, 해외동포 2,3세, 해외 입양아, 국적을 바꾼 한국이나 귀화한 외국인 등의 보기를 주고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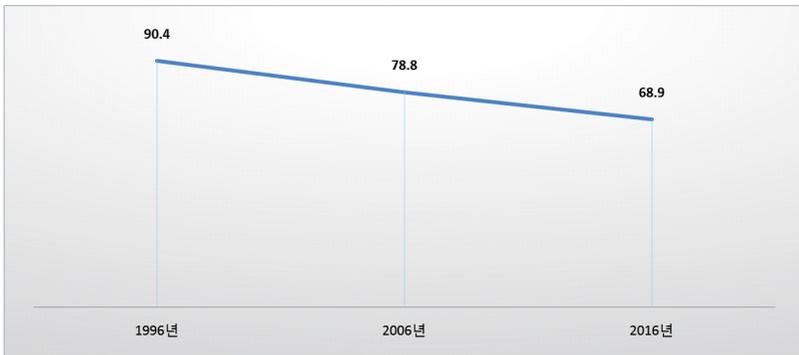
I
II
III
IV
V

중 “한민족에 속하는 집단을 모두 꼽으라”는 응답에 대해 1996년 조사가  
 지만 해도 90.4%가 북한 주민은 한민족의 구성원이라고 답했지만, 2006  
 년 조사에서는 78.8%, 2016년 조사에서는 68.9%까지 하락했다. 이 조  
 사나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 방식의 차이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10명 중 3명은 북한 주민을 한민족이라는 동질적 집단 구성원으  
 로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24** ▶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동의 비율 비교



**그림 IV-25** ▶ 북한 주민 한민족 구성원 인정 여부: “중복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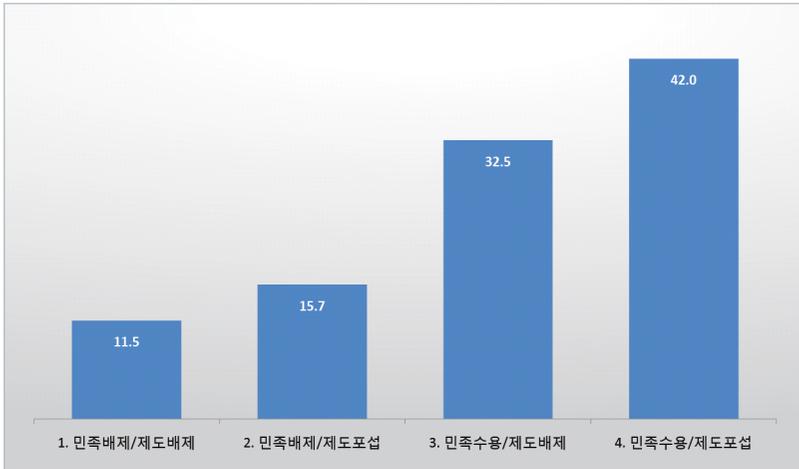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조사> (1996; 2006; 2016)

전체적인 인식유형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위의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북한 주민을 인정하는지 여부, 북한 주민이 원할 경우 북한의 제도와 규범을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교차하여 응답자들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았다. I 유형인 민족/제도 차원 모두에서 북한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한 흡수 유형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1.5%, 민족 으로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제도적으로는 북한 제도의 존속에는 관대한 분리형 공존 인식은 15.7%였다. 반면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동질성을 인정하지만 북한제도의 존속을 인정하지 않는 동화형 통합인식 응답자들이 32.5%로 나타났고,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정하면서 제도차원에서 일정한 공존을 인정하는 IV유형 응답자들이 40.2%로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북한 주민을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제형 모델인 I 유형이나, 차별적 포섭 모델인 II유형의 증가가 예상된다. II유형의 경우 북한의 기존 제도와 규범을 제한적이거나 존중한다는 점에서 통일한국 초기 제도통합의 속도 조절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을 2등 시민으로 간주하거나, 국내 거주 다문화 집단과 큰 차별성을 부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북한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원할 가능성이 크다. 한민족 동질성은 국가 간/체제 통합을 정당화하는 핵심 기제이므로 민족동질성이 약한 집단은 지난한 통합과정에서 통합에 냉소적이거나 이를 거부하는 집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I
II
III
IV
V

그림 IV-26 남북통합 인식유형 비중



통합인식 유형을 세대별로 보면 인식차이가 확인된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2030세대=진보, 5060세대=보수'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세대 균열 패턴은 최소한 통합인식 유형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2030세대의 경우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에서 배제하는 비율(I, II유형의 합)이 평균 이상인 30%를 상회한 반면, 4060세대는 북한을 민족으로 인정하는 비율(III, IV유형의 합)이 72% 수준을 넘고 있다. 반면 통일시 북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20대와 60대가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30대~50대에서 북한 제도 공존에 우호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주목할 세대는 2030세대로서 이들은 문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에서 공히 배제적 태도가 강해 I 유형(14.2%)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민족적으로 동질성을 인정하며 제도적으로도 공존을 포용하는 IV 유형(30.1%)이 역시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다. 북한에 대해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가장 포용적이고 통합지향적인 세대는 40대와 50대로 중간 세대였다. IV 유형 기준으로 보면 40대가

46.0%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43.7%로 뒤를 이었다. 남북관계나 안보 문제에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60대 이상에서는 한민족 구성원으로 북한 주민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I, II유형의 합)이 27.1%로 2030세대 다음으로 높았다. 통일 이후 통합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2030세대의 냉소와 저항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양 차원에 대해 일관되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I, IV유형에 비해 한 차원에서는 포용적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배타적인 II, III유형 간에는 세대별 차이가 뚜렷해 보이지 않는다. 대체로 젊은 세대와 고령층에 비해 중간 세대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II유형이 정책적으로는 차별적 격리공존을 지향한다면, III유형은 흡수통합 정책과 친화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큰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면 현재는 압도적으로 III유형이 우위를 보이지만, 앞으로는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표 IV-9 >> 세대별 통합인식 유형

	민족 배제		민족 수용		전체
	제도 배제	제도 수용	제도 배제	제도 수용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20대	14.2	19.3	36.4	30.1	100
30대	14.8	17.5	27.3	40.4	100
40대	10.4	14.7	28.9	46.0	100
50대	7.5	12.1	36.7	43.7	100
60대+	11.4	15.7	33.5	39.4	100
Total	11.5	15.7	32.5	4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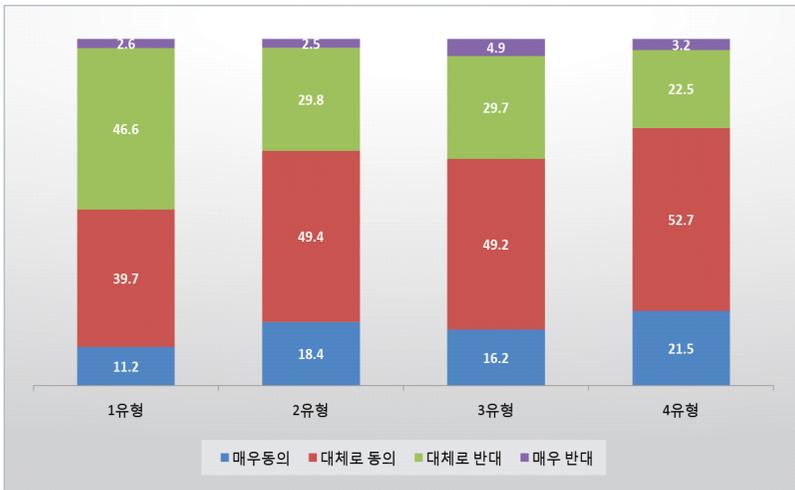
Pearson  $\chi^2(12) = 20.5057$  Pr = 0.058

I  
II  
III  
IV  
V

## (2) 통합인식 유형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

한편 이러한 통합인식 유형은 통일 이후 다문화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본 조사에 포함된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긍정 진술에 대한 유형별 인식 차이를 보자. 우선 통일한국이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제도 공히 남북 통합에 배타적인 I유형은 찬반이 엇갈릴 정도로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반대로 문화/제도차원 공히 포용적인 태도를 보인 IV유형이 동의하는 비율은 74%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반면 차원별로 포용적 태도와 배타적 태도가 공존하는 II, III유형에서도 다문화 사회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IV유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통합에 대한 포용적 인식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27 통합인식 유형별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



Pearson  $\chi^2(9) = 30.35$  Pr = 0.000

## 나. 통합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

### (1) 분석 모델

이 장에서는 통일한국에서 남북 통합 및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이 설명하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앞서 통일한국의 정체성 위기를 유발하며 통합인식의 유형화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변수 즉, (1) 문화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인정 여부), (2) 통일한국 제도통합 차원에서 기존 북한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태도, (3) 통일한국의 다문화 사회 지향에 대한 태도이다.<sup>39)</sup>

각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변수군으로는 (1) 정체성 요인: 한국인의 국가/민족정체성/다중정체성(초국가 정체성), (2) 민주적 시민성, (3) 사회신뢰, (4) 경제적 여력, (5) 정보 취득(인지 요인)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정체성 요인은 현재 분단된 남한 사회에서 형성된 국가정체성(통일국가정체성이 아닌 현 대한민국 국민정체성), 민족정체성과 함께 초국가단위에 대한 정체성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오랜 분단으로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개발, 연평도 및 천안함 사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서 더욱 별개의 국가이자 적대국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현재의 대한민국 정체성의 강화가 두드러졌다.<sup>40)</sup> 또한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sup>39)</sup> 각 변수의 측정 척도인 1. 매우 동의, 2. 대체로 동의, 3. 대체로 반대, 4. 매우 반대를 역순으로 재코딩하여 수치가 높을수록 포용적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배열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한민족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시각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민족 구성의 기준조차 혈연, 언어 등의 귀속적 요인이 아닌 출생과 국적, 법적 의무의 준수와 같은 시민/국민 개념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정체성의 유무가 북한에 대한 태도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세계화와 다문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국가와 민족단위를 초월한 초국가 정체성도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민족단위를 초월한 정체성의 형성은 남북통합 및 통일한국의 다문화 인식에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sup>41)</sup>

둘째, 통일한국 시기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역량은 통일 이전 남한과 북한, 특히 남한 사회의 갈등관리 및 남북통합을 뒷받침할 사회적 역량에 좌우될 것이다. 로드리크는 한 사회의 갈등관리 역량은 복지제도 및 거버넌스, 시민참여와 같은 갈등관리제도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갈등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해당 사회의 ‘민주적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의 수준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관리 제도와 인프라의 활성화는 해당 사회의 갈등수준을 완화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이 성장해온 사회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민족주의 성향을

40)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pp. 11~12; 강원택,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pp. 37~38.

41) 황정미는 동아시아연구원의 〈국가정체성 조사〉 2010년과 2015년 비교를 통해 최근 국가/한민족 범위를 넘어 아시아인, 세계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이 커지고 있음을 밝혔다. 황정미,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과 다문화 국가의 전망,” pp. 52~56.

강화시키는지, 약화시키는지는 오랜 논쟁거리였다.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이 국가/민족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시론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sup>42)</sup> 시민성 개념은 사적 이익 보다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공공이익을 앞세우는 시민윤리와 책임의식을 의미하며, 본 조사에서 (1)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 이익 희생, (2)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사, (3)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직장 이익에 협조, (4) 개인적 피해가 없을 경우 위법을 묵과할지 여부, (5) 필요할 경우 뇌물 의사 등,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 충돌 시 태도 문항들을 합산하여 지수화하였다.<sup>43)</sup>

셋째, 사회신뢰 역시 한 사회의 사회갈등관리 및 통합의 사회적 기반이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알려져 있다.<sup>44)</sup> 여기서는 (1) 정치신뢰: 정부 및 정치권의 갈등조정 노력에 대한 신뢰, (2) 거버넌스 행위자 신뢰: 언론 및 대기업에 대한 신뢰, (3) 사회제도 신뢰(계층상승, 공정한 분배 및 복지제도 신뢰, 법치에 대한 신뢰) 지표들을 합산하여 한국 사회 신뢰평가 지수를 산출하였다.<sup>45)</sup> 위의 각 합성 지수들은 1-4점으로 측정된 응답을 0-3점으로 신뢰도가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역코딩하여 분석모델에 포함했다. 따라서 시민성 지수는

<sup>42)</sup> Albert W. Dzur, "Nationalism, Liberalism and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5, no. 1 (2002), pp. 191~211; 정한울·정원철,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pp. 113~118; 정한울·이근수,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 p. 155.

<sup>43)</sup> 김석호,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pp. 103~107; 한편, 척도신뢰성 검증 방법인 크론바흐 알파계정 결과 단일차원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신뢰할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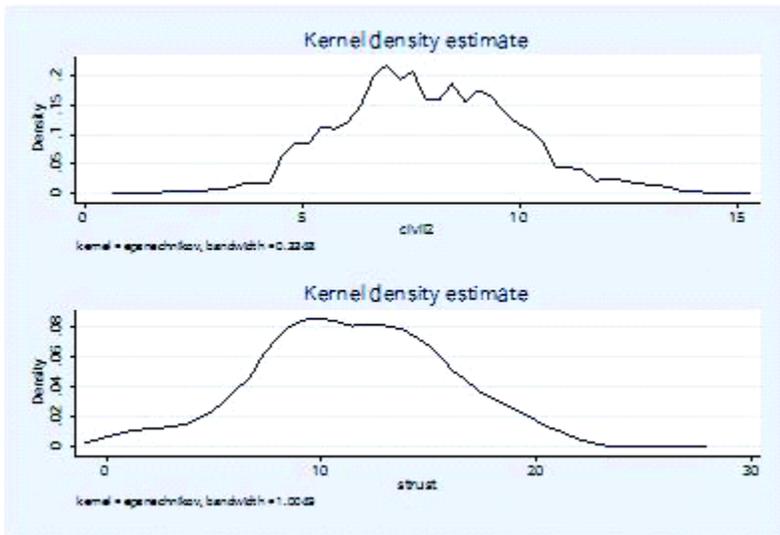
<sup>44)</sup> Dany Rodrik,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pp. 385~390.

<sup>45)</sup> Russell J. Dalton,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p. 76~98; 거버넌스 지표들 역시 크론바흐 알파 계정 결과 척도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I
II
III
IV
V

0-15점 스케일, 사회신뢰 지수는 0-27점 스케일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시민성과 사회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통합적, 포용적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양(+)의 관계를 가정한다. 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민성 지수는 평균 7.8로 커널밀도 함수 분포를 보면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유형을 따르고 있으며, 사회신뢰 평균 점수는 11.8로 중앙값 13에 비해 좌측에 위치하였으나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평균값이 중앙값 왼편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신뢰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8 시민성 지수와 사회신뢰지수의 확률밀도



넷째, 통합의 사회적 역량 중 경제적 역량도 중요한 검증변수이다. 가정경제 혹은 국가경제 상태가 긍정적일수록 외부집단에 대해 관용적 태도(tolerance)가 강화되고, 체감경제가 위축될 경우 외부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강화된다는 가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1년 전 대비

가정경제 상태와 국가경제 상태에 주관적 평가응답을 악화, 현상유지, 개선의 3점 척도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양 지표의 상관관계가 높아 실제 분석에서는 국가경제 상태의 단일변수로 경제여력이 통합인식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외에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변수(성/연령/지역(호남 기준변수)/소득/교육수준), 정치적 성향(주관적 이념성향, 1. 진보~3. 보수 순 코딩/정당지지, 새누리당지지가 기준변수), 개인의 정보노출 매체와 빈도(신문, TV, 종편, 인터넷, 모바일, 각 매체별 주당 이용일)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이상의 분석모델과 측정 지표를 정리한 것이 <표 IV-10>이다.

**표 IV-10** 본 연구의 변수, 개념과 지표, 측정문항

변수	개념	하위 지표
종속 변수	통합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델1. 북한주민의 한민족구성원 인정</li> <li>· 모델2. 통일한국의 북한제도 존속 여부</li> <li>· 모델3. 통일한국의 다문화 정책 지향</li> </ul>
독립 변수	다중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정체성</li> <li>· 한민족 정체성</li> <li>· 아시아인 정체성</li> <li>· 세계인 정체성</li> </ul>
	시민성 지수	·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 충돌 시 태도
	사회신뢰 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신뢰 / 정치권 신뢰</li> <li>· 계층상승 기회 / 보상체계와 복지 / 법치 / 일반 신뢰</li> <li>· 언론 / 대기업 신뢰</li> </ul>
	경제여력	· 가정경제인식 / 국가경제인식
통제 변수	사회경제적배경	· 성 / 연령 / 지역 / 소득 / 교육수준
	정치변수	· 주관적 이념 / 정당 지지
	정보 취득	· 정보 취득 매체별 노출도(신문/TV/종편/인터넷/모바일)

I  
II  
III  
IV  
V

## (2) 분석결과

문화적 차원에서서의 북한 주민에 대한 태도(모델1), 통일한국 제도통합에서 북한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태도(모델2), 통일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태도(모델3)를 위의 분석모델에 근거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가 <표 IV-11>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주목한 사회신뢰와 시민성 요인은 통합인식 유형에 정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각 요인이 미치는 요인은 제도적 차원과 문화적 차원에 분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다. 우선 시민성의 경우 회귀계수 부호가 (+)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시민윤리가 강한 시민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북한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B=+0.049$ ,  $p<0.001$ ). 하지만 제도통합에서의 북한 제도에 대한 포용적 태도나 다문화 수용성에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사회신뢰 요인의 경우 민족/문화적 포용성이나 다문화 수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기존 북한 제도에 대한 포섭적 태도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회귀계수 B의 값은  $+0.027$ 로서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p<0.001$ )으로 분석되어, 역시 사회신뢰가 강할수록 북한 제도의 존속에 포용적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통일한국의 다문화 정책에는 이들 사회적 역량 요인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의 국가/국민정체성과 초국가 정체성은 미약하나마 통일한국의 문화적 통합 차원 및 다문화 사회 지향에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고 있다. 우선 현재 한국 국민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 강할수록 북한을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동질감을 가질 확률이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0.1002$ ,  $p<0.05$ ). 이는 반대로 현재 북한에 대한 민족동질감의 약화 경향은 한국 국민 자신부터 한민족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초국가단위 정체성으로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소속감)을 갖는 사람일수록 통일한국이 다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태도가 강한 경향도 확인된다. 이 역시 95% 신뢰수준에 유의한 결과였다( $B=0.1134$ ,  $p<0.05$ ). 이에 비해 경제적 여력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포함한 국가경제 인식은 제도, 문화, 다문화 통합인식에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신 통제변수 중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동질성 인식에 성별, 지역, 정당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일수록( $B=-0.1034$ ,  $p<0.05$ ), 호남거주자 대비 대구경북 거주자일수록( $B=-0.2650$ ,  $p<0.05$ ) 북한에 민족적 동질감이 약한 반면, 새누리당 지지 대비 제3정당지지(국민의당/정의당 지지자)일수록 북한 주민을 민족구성원으로 포용하는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B=+0.2528$ ,  $p<0.05$ ). 이들은 다문화 태도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에 비해 훨씬 포용적인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B=+0.2791$ ,  $p<0.01$ ). 한편 제도 통합시 북한 제도 존속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호남 대비 서울 거주자들은 북한 제도 존속에 우호적인 반면( $B=+0.2029$ ,  $p<0.05$ ), 호남 대비 대구경북 거주자들은 북한제도에 대한 배제적 태도가 뚜렷했다( $B=-0.3022$ ,  $p<0.01$ ). 반면 다문화 지향성은 다문화 이주민 거주자가 많은 경기, 충청 지역주민이 호남 주민 대비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이 확인되었다(경기  $B=+0.3593$ ,  $p<0.01$ ; 충청  $B=+0.3031$ ,  $p<0.01$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기 햇볕정책의 정치적 기반역할을 했던 호남이 보수성향의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에 비해 통합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본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I
II
III
IV
V

흥미로운 점은 정보취득 매체와 빈도가 민족통합, 제도통합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차원별로 영향을 미치는 매체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종편에 많이 노출되는 응답자일 수록 북한 주민에 대한 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B=-0.0715$ ,  $p<0.05$ ). 그러나 인터넷 매체에 자주 노출되는 응답자들은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 제도 존속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B=+0.0762$ ,  $p<0.01$ ). 물론 이는 역의 인과논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체노출과 태도 성향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당태도, 이념 성향을 통제 한 상황에서도 유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배경,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어떤 매체에 노출되느냐가 어떤 통합인식을 갖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북통일 인식이나 정치이념 성향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세대요인이 통일 이후 통합 인식 유형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2030세대가 민족적 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고 적대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5060세대에 비해 더욱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상대적으로 40대가 가장 일관된 통합지향적 성향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젊은 세대=진보=친북=반미 지향적이고, 고연령 세대=보수=반북=친미 성향이라는 이분법적 분석구도가 통일한국 통합 인식 유형 분석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sup>46)</sup>

<sup>46)</sup> 정한울,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동아시아연구원 EAI 오피니언리

표 IV-11 다중회귀분석 결과

변수	코딩	(1) 한민족 수용 (B/SE)	(2) 북한제도 존속 (B/SE)	(3) 다문화 지향 (B/SE)
성별	1 남 2 여	-0.1034* (0.050)	-0.0327 (0.051)	-0.0258 (0.048)
연령	1-5(10세)	0.0405 (0.027)	0.0159 (0.027)	-0.003 (0.025)
교육	1-3	0.0462 (0.046)	0.0192 (0.046)	-0.0245 (0.044)
지역	서울	-0.1139 (0.101)	0.2029* (0.102)	0.135 (0.097)
(호남=0)	경기	-0.0314 (0.095)	0.1206 (0.095)	0.3593** (0.090)
	충청	-0.109 (0.113)	0.1371 (0.113)	0.3031** (0.108)
	대구경북	-0.2650* (0.116)	-0.3012** (0.117)	0.1565 (0.111)
	부산경남	0.1413 (0.108)	-0.1968 (0.109)	-0.1104 (0.103)
	강원제주	-0.024 (0.148)	0.0704 (0.149)	0.2659 (0.141)
소득	1-5	0.0188 (0.021)	-0.0366 (0.021)	-0.0049 (0.020)
이념	1진보-3보수	-0.0013 (0.038)	0.0526 (0.038)	-0.0087 (0.036)
정당	더민주당	-0.1343 (0.078)	-0.0347 (0.078)	0.1333 (0.074)
(새누리당 제3정당 =0)	무당파	0.2528* (0.100)	-0.036 (0.100)	0.2791** (0.095)
사회신뢰		-0.0025 (0.006)	0.0207*** (0.006)	0.0104 (0.006)
시민성		0.0469*** (0.014)	-0.0111 (0.014)	-0.0182 (0.013)
정체성	대한민국	0.0337 (0.047)	-0.0566 (0.047)	0.025 (0.045)
(1-4)	한민족	0.1002* (0.049)	0.0404 (0.049)	-0.0742 (0.046)
	아시아인	-0.0089 (0.055)	0.0573 (0.055)	0.009 (0.052)
	세계인	-0.008 (0.047)	-0.0161 (0.047)	0.1134* (0.045)
매체노출	신문	0.019 (0.023)	-0.0098 (0.023)	0.0239 (0.022)
(1-4)	공중파	0.0732 (0.040)	-0.0248 (0.040)	-0.0085 (0.038)
	총편	-0.0715* (0.030)	0.0084 (0.030)	-0.0313 (0.029)

류 2013-02호, 2013.4.23), pp. 1~5.

변수	코딩	(1) 한민족 수용 (B/SE)	(2) 북한제도 존속 (B/SE)	(3) 다문화 지향 (B/SE)
	인터넷	-0.0388 (0.029)	0.0762** (0.029)	0.0353 (0.027)
	모바일	0.0242 (0.029)	-0.0194 (0.029)	-0.0009 (0.027)
경제(1-5)	국가경제	0.0767 (0.047)	-0.0177 (0.047)	0.0609 (0.045)
상수		1.9505*** (0.304)	2.2164*** (0.305)	2.4750*** (0.290)
N		1000	1000	1000
adj. R-sq		0.058	0.049	0.06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5, \*\* p<0.01, \*\*\* p<0.001

#### 다. 요약 및 함의

이상으로 통일한국 이후 통합과정에서 한국인들의 통일인식을 유형화해보고, 이러한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통합인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통합 대 갈등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차이가 아닌 통합의 차원별로 상이한 인식 균열이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일 이후 남북 간의 통합은 제도적 차원에서는 분단시기 유지되어온 남한과 북한의 기존 제도들에 대한 수용 여부,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강화되는 대한민국정체성과 이에 연동된 한민족 정체성의 약화 현상, 세계화 및 다문화 추세라는 원심력하에서 한민족 통합의 구심점을 강화해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 예측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을 축으로 (1) 각 차원별로 북한에 대한 포섭적/동질성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흡수통합인식 유형, (2)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되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 제도의 존속에 포용적인 격리형 통합유형, (3) 민족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만 기존의 북한 제도의 유지에 배타

적인 동화형 인식유형, (4) 민족구성원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제도와 규범에 대해서도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공존형 인식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만을 보면 민족/문화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70%를 상회하여 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근 이러한 경향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적 이질성을 강조하는 (1)유형과 (2)유형이 현재로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 기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있는 있지만, 북한의 제도/규범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북한의 핵위협, 군사적 위협 강화에 따라 대북 적대인식이 고조된 결과로 추측된다. 따라서 북한발 군사적 위협이 완화되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다면, 제도적 차원에서도 남북 통합인식에 중대한 장애물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설사 통일이 되더라도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남북통합의 정체성 형성과 동질성 회복이라는 과제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통일과정과 이후 통합과정은 “대박”이나 “축복”이 아닌 감당못할 도전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대비하고 실제 통합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한 사회의 역량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특히 통합의 사회적 기반과 이를 이끌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통합의 사회적 기반과 이를 이끌어갈 사회적 역량은 역시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과 사회신평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통해 한국 사회의 시민성 수준은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 제고, 포용적 민족의식 강화에 유의한

I
II
III
IV
V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포용적 민족주의와 공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공공적 시민윤리와 책임의식 제고가 한국 사회의 성숙은 물론 통일 이후 통합과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는 제도적 차원에서 남북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이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은 북한과의 제도적 통합에도 배타적이고 갈등적 태도를 강화시킨다. 저신뢰 사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 남북 제도통합과정에서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통합인식은 전통적인 지역균열, 정당균열 및 언론의 정치적 정보 유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포용적인 태도가 뚜렷한 반면 보수정당의 기반역할을 해온 대구 경북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특히 언론에 의한 정보노출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였다. 종편에 노출될수록 북한에 대한 민족적 배타성이 강화되고, 인터넷 매체에 노출될수록 제도통합에서 포용적인 태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통일 이후 통합과정은 막연한 평가보다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에 좌우될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으며,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 남북통합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통일에 대한 장밋빛 낙관을 확산시키기 이전에 차분하고 냉정하게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평가하고 준비해가는 통일대비론이 절실한 시점이다.

### 3.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과 북한·통일문제 인식의 상관관계

통일은 분단된 민족의 재통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면서 국제질서와 동북아시아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 사건이다. 민족의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70여 년 동안 계속된 군사적 대결로 인해 남북한은 통일 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군사적 의제들이 많다. 동시에 통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질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지정학적으로 국경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외부적 환경 변화가 국가의 안보 및 사회통합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주변국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통일한국의 국가건설과 발전을 위해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외적 안보위협을 규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재의 지역질서 및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몇 가지 안보위협을 상정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국제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일본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시도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테러리즘은 그 양상을 달리하더라도 계속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남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안보위협 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통일 후 대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지정학적 변화는 한국의 외교에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외교관계도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주변국들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또는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남북한의

I
II
III
IV
V

외교를 통일한국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적 지혜가 요구된다.

이 조사는 통일 후 통일국가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외교의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진단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가 다르고, 그로 인해 통일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대한 인식도 추상성이 매우 높다는 한계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비전을 탐색하기 위한 자료 구축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미래의 비전을 오늘의 현실 문제에 비추어 탐색하는 과정에서 통일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가.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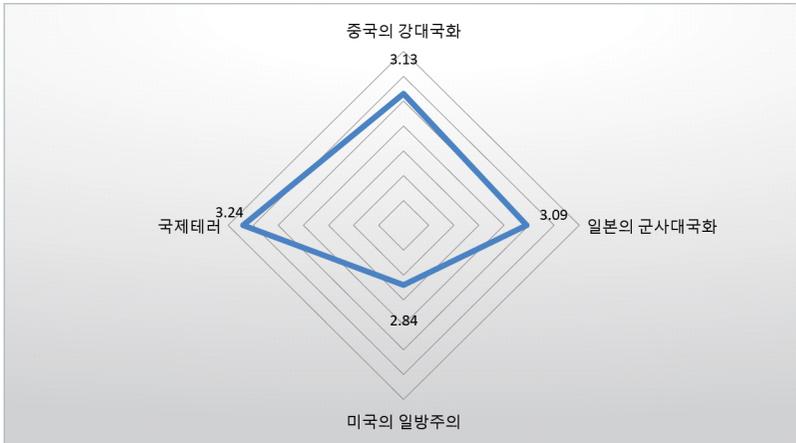
### (1) 안보위협에 대한 일반 인지도

통일 후 통일국가는 내적 위협뿐만 아니라 외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무기통제 및 무기체계 통합, 인민군의 해체, 군엘리트의 정화, 군부조직의 해체 등을 평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내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편 통일국가의 등장은 주변국가와의 국경 변화를 의미하며 주변 국가들도 한반도에서 통일국가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된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외적 위협요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통일한국이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미래의 국제질서를 현재의 국제질서와 전혀 다른 것으로 상정하지 않는다면, 예상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제테러리즘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세계 강대국으로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일본도 평화헌법을 개정함으로써 군사력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을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 알카에다와 IS 등으로 이어지는 국제 테러리즘 또한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통일한국의 안보에도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통일한국의 외적 안보위협 요인을 <그림 IV-29>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IV-29** 통일 후 통일국가에 대한 위협 인지도



통일한국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설문문항은 “매우 위협적이다”를 1, “약간 위협이다”를 2, “별로 위협이 아니다”를 3, “전혀 위협이 아니다”를 4로 코딩하였으나 분석을 위하여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그림 IV-29>에 나타나는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안보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하며, 최소는 1, 최대는 4이다. 각각의 잠재적 위협요인의 평균

I
II
III
<b>IV</b>
V

은 국제테러(3.24), 중국의 강대국화(3.13), 일본의 군사대국화(3.09), 미국의 일방주의(2.84)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 테러리즘은 2000년대 이후 국제 안보의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북한이라는 안보의 최고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즉, 북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통일한국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현상의 흐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하고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은 통일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일방주의가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다른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응답보다 더 낮았다. 이것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통일 후 국경의 재편에 따른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이 크게 느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의 안보이익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상충하는 부문이 적다고 인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IV-12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안보위협 인식 (%)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국제테러리즘		
	매우 위협	약간 위협	계	매우 위협	약간 위협	계	매우 위협	약간 위협	계	매우 위협	약간 위협	계
전체	32.5	49.7	82.2	32.5	45.1	77.6	16.4	53.4	69.9	39.4	46.0	85.4
남자	33.3	49.3	82.6	33.7	43.7	77.4	15.4	53.1	68.5	37.3	47.1	84.4
여자	31.8	50.0	81.8	31.4	46.4	77.9	17.4	53.8	71.1	41.5	44.9	86.4
20대	30.1	52.8	83.0	29.5	42.6	72.2	16.5	55.1	71.6	41.5	44.9	86.4
30대	37.7	46.4	84.2	27.9	47.0	74.9	20.2	49.7	69.9	39.9	41.5	81.4
40대	37.9	49.3	87.2	39.3	44.5	83.9	21.8	53.1	74.9	38.4	50.2	88.6
50대	31.7	51.3	82.9	35.7	42.7	78.4	13.6	60.3	73.9	41.7	47.7	89.4
60대 이상	26.3	48.7	75.0	29.7	47.9	77.5	11.0	49.6	60.6	36.4	44.9	81.4
중졸 이하	25.1	50.9	76.0	31.7	45.5	77.2	12.0	45.5	57.5	35.3	43.7	79.0
고졸 이하	32.4	49.8	82.2	32.2	46.1	78.2	15.7	55.6	71.3	40.5	47.9	88.4
대졸 이상	35.7	49.0	84.7	33.3	43.8	77.1	19.0	54.4	73.4	39.9	44.8	84.7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국제테러리즘		
	매우 위험	약간 위험	계	매우 위험	약간 위험	계	매우 위험	약간 위험	계	매우 위험	약간 위험	계
진보	35.2	54.2	89.4	34.3	46.6	80.9	22.0	52.5	74.6	35.6	51.3	86.9
중도	31.6	46.9	78.5	29.9	46.2	76.1	15.8	55.0	70.8	38.8	45.7	84.4
보수	31.9	49.9	81.8	34.5	42.7	77.2	13.4	52.1	65.5	42.7	42.7	85.5

각 요인들이 통일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아도 국제 테러리즘(85.4%), 중국의 강대국화(82.2%), 일본의 군사대국화(77.6%), 그리고 미국의 일방주의(69.9%)로 나타난다.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과 다른 요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는 약 7.7-15.5%p이다. <표 IV-12>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네 가지 요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인구학적 변수에 의한 교차분석 결과표에 의하면 세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다. 다수의 통일의식 조사들이 세대 간 인식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물론 60대 이상 응답자들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세대 간의 차이라고 할 만큼 크지 않다.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는 중졸 이하 학력자와 그 외 학력자들 사이에서 달리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 학력의 응답자들보다 다른 응답자들이 미국과 중국이 세계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북아질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려는 이념적 성향에 의해서도 달리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좀 더 높은 비율로 중국과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각축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I
II
III
IV
V

## (2)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성 분석

국민들의 안보위협 인식에 미치는 요소들이 서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으나 통일이 지역 내 구조와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사건이라면 안보위협 인식 사이에도 상관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네 가지의 안보위협 인식도 독립적이기보다는 경로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관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한반도에서 대결구도의 형성 및 지속의 중요한 배경변수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역사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위협 인식에도 상관성과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표 IV-13 >>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표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국제테러리즘
중국의 강대국화	1			
일본의 군사대국화	.639**	1		
미국의 일방주의	.467**	.460**	1	
국제테러리즘	.295**	.347**	.372**	1

\*\* Pearson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성은 <표 IV-13>에 나타나듯이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상관계수가 0.639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 중국)과 (미국, 일본) 쌍의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제테러리즘과 다른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동시에 안보위협으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결과는 아니다. 통일이 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계의식이 커질 수도 있으며, 북핵위기 등이 해소되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재에도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이 재조명받고 있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또다시 지정학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IV-14 중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교차분석표 (%)

		일본의 군사대국화				
		전혀 위협이 아니다	별로 위협이 아니다	약간 위협이다	매우 위협이다	계
중국의 강대국화	전혀 위협이 아니다	0.9	0.3	0.0	0.3	1.5
	별로 위협이 아니다	0.2	11.9	3.6	0.6	16.3
	약간 위협이다	0.0	7.5	34.0	8.2	49.7
	매우 위협이다	0.4	1.2	7.5	23.5	32.5
	계	1.5	20.9	45.1	32.5	100.0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모두 통일한국의 안보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23.5%이며, 약간 위협적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34.0%이다.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요인이 통일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응답자는 무려 73.2%에 이른다. 중국의 안보위협이 심각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전체의 9.1%, 군사력을 증강하는 일본이 심각한 안보위협이라고 인식하지만 중국의 부상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아닐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이다. 이러한 결과는 10명 중 7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통일 후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I  
II  
III  
IV  
V

표 IV-15 >> 중국과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 교차분석표 (%)

		미국의 일방주의				계
		전혀 위협이 아니다	별로 위협이 아니다	약간 위협이다	매우 위협이다	
중국의 강대국화	전혀 위협이 아니다	0.9	0.4	0.0	0.2	1.5
	별로 위협이 아니다	0.5	11.8	3.7	0.3	16.3
	약간 위협이다	0.3	11.0	33.6	4.7	49.7
	매우 위협이다	0.5	4.7	16.1	11.2	32.5
	계	2.2	28.0	53.4	16.4	100.0

남북한 통일 후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 및 대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표 <표 IV-15>에 따르면 두 가지 요인 모두가 매우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11.2%이다. 앞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위협 인식 교차분석의 결과와 비교하면 12.3%p 더 낮다. 약간 위협적이라는 응답자들을 포함하여 두 요인이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5.6%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7.6% 낮다.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의 위협에 대해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의 응답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차분석표들은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이 국제질서 차원과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들은 통일한국의 안보전략이 새롭게 형성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변화에 잘 대처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질서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구도 아래서도 안보의 실익을 챙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통일을 상정하

고 추가로 안보위협을 상정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온전히 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이 통일 후 다층적 안보전략을 요구한다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3)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성

북한의 5차 핵실험, 계속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SLBM의 기술 개발 등으로 한국의 안보위협은 주로 북한으로부터 가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남북한의 분단과 대결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한국인의 위협인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미래의 안보위협을 평가하는 데에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 후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을 적대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통일이 되어도 주변국가에 대한 경계의 의혹을 쉽게 누그러뜨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변국가와의 갈등 가능성을 높게 전망할 것이다. 한편, 현재 북한을 협력과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주변국가의 군사주의적 경향을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하지만 관리 또는 해결 가능한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안보위협 인식의 수준의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

I

II

III

IV

V

**표 IV-16** ▶ 북한에 대한 이미지 상관분석

	지원대상	적대대상	협력대상	경계대상
지원대상	1			
적대대상	-.236**	1		
협력대상	.530**	-.267**	1	
경계대상	-.172**	.578**	-.134**	1

-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 각각의 북한이미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매우 동의한다=10으로 하는 등간척도로 구성되었음.

이와 같은 잠정적 기대의 타당성은 북한에 대한 이미지의 상관성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표 IV-16>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지원대상, 협력대상)과 (경계대상, 적대대상) 등의 쌍은 서로 양의 상관성을 보이며, 나머지 쌍들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한 응답자는 북한을 협력대상이라는 데에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지원대상 혹은 협력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다면 북한을 경계대상 혹은 적대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표 IV-17** ▶ 북한이미지와 안보위협 인식 상관관계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국제테러리즘
지원대상	<b>-.094**</b>	<b>-.094**</b>	-0.03	-0.008
적대대상	<b>.102**</b>	0.057	-0.038	-0.028
협력대상	-0.019	0.012	<b>.079*</b>	<b>.077*</b>
경계대상	0.044	0.013	-0.062	-0.014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17>에 있다. 북한이 지원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낮다. 한편 북한이 적대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국의 강대국화를 통일 후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 후 앞마당을 내놓은 격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안보인식이 통일한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대한 우려의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와 국제테러리즘을 통일 후 중요한 안보위협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일이 단순히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적 사고의 산물이 아니라 한반도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을 기반으로 구성되고 추구되어야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분단, 한국전쟁, 남북 간 대결과 긴장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역사적인 문제들, 북한-중국-소련 그리고 한국-미국-일본 중심의 냉전구도가 만들어 낸 국제 정치적 유산들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 후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진단은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들과 국제 정치적 유산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적대적이라고 한다면 주변국가들이 통일 후에도 한국에 안보의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미래의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안보 상황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들도 통일 후 안보위협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을 가급적 빨리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통일이 남북한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현재

I
II
III
IV
V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통일로 인해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된다면 지역적 의제보다 일반적 안보 의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북정책 중 개성공단사업 재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남북한의 경험을 통한 안보위협의 해소를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 후 주변국가로부터의 안보위협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할 것이다. 그리고 대북제재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인접국가와의 다각적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위협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18**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안보위협 인식 상관관계

	중국의 강대국화	일본의 군사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국제테러리즘
통일필요성	-0.016	-0.018	-0.061	.075*
현재 안보상황	-0.003	.065*	0.023	.075*
개성공단사업 재개	.064*	0.049	-.150**	-0.053
대북제재 강화	-0.045	-0.029	.089**	-0.042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통일의 필요성은 “귀하께서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1=“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2=“통일을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3=“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4=“절대 통일이 되면 안된다”, 5=“통일에 관심없다”로 코딩되었다.<sup>47)</sup> 현

<sup>47)</sup>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순위척도로 이용하는 것은 해석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관심층을 가장 소극적인 응답자 그룹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도 1="매우 안정적이다", 5="매우 불안정하다" 등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매우 찬성한다", 5="매우 반대한다"로 역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안보위협 인식의 상관분석 결과 <표 IV-18>에 의하면 통일이 불필요하다거나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자들은 지역의 안보 의제보다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일반적 안보 의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이 남북한이 심각한 무력분쟁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 한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주변국가들의 안보위협에 민감할 수 있겠지만 이 상관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현재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는 응답자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국제테러리즘이 통일 후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의 안보위협이 주로 북한에서 제기되며 미국과 중국도 현재의 불안정 상황이 동북아시아의 패권경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가정한다면 남아 있는 외부적 위협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일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이 해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협력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불리 판단할 수 없다.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보의 위협을 관리하고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의제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반대하는 사람들일수록 중국의 안보위협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안보위협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I
II
III
IV
V

있다. 한편 정부가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후 미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안보위협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소홀히 하거나 어느 한 강대국에 의존적이게 될 경우 통일 후 안보전략을 운영하는 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 나. 통일국가의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

### (1) 외교관계에 대한 일반 인지도

통일과정과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외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분단체제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의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통일된 한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외교에서 ‘북한’이라는 매개변수가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양자관계에서 더 전략적이고 성찰적 판단이 요구된다.

통일한국에서 남북한이 유지해 온 외교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독자적으로 맺은 조약의 승계 등의 문제도 있고, 경제 및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외교협정 등도 있는데 통일된 국가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제들은 기존에 있었던 관계의 재설정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통일로 인해 변화된 지정학적 관계는 과거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외교 의제들을 유발시킬 것이다.

통일한국의 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일한국은 주변국과의 협력보다 독자적 노선을 강화할 수도 있고 협력적 노선을 강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조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변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독자적 외교정책의 추진을 지지하면 0, 주변국가와 좀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면 10, 만약 중도의 입장이라면 5를 기준으로 0과 10 사이에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교 전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림 IV-30** 통일국가와 주변국가의 협력강화 필요성 인식



주변 4개 국가와의 외교 전략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림 IV-30>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국이 가장 높은 6.84, 중국이 6.42를 얻었고 일본과 러시아는 중도에 가까운 5.30과 5.27을 얻었다. 달리 말하면 통일 후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는 통일 전보다 협력적인 관계를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내다보는 국민들이 많고, 일본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중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중시해온 점과 앞 절에서 논의되었듯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함으로써 한국이 중국과의 외교에서 독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

I
II
III
<b>IV</b>
V

국민들의 응답을 0부터 4까지를 독자적 외교를 선호하는 그룹, 5를 중도, 6부터 10까지를 협력적 외교 강화를 선호하는 그룹 등 세 가지로 범주를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범주화에 따라 외교관계 인식을 <표 IV-19>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협력적 외교를 선호하는 전체적인 응답률은 미국 72.7%, 중국 66.2%, 일본 44.9%, 러시아 41.8%이다. 미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독자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인 반면, 일본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독자적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4명 중 1명으로 격차가 크다. 일본의 식민지배 경험으로 인해 일본에 대한 경계의식이 존재하는 점과 러시아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일본과 러시아에 대해 협력 강화 의견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낮고, 독자적 외교 강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표 IV-19**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외교관계 인식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독자적 외교	중도	협력 강화									
<b>전체</b>	<b>10.7</b>	<b>16.5</b>	<b>72.7</b>	<b>10.7</b>	<b>23.1</b>	<b>66.2</b>	<b>25.4</b>	<b>29.8</b>	<b>44.9</b>	<b>24.7</b>	<b>33.5</b>	<b>41.8</b>
남자	13.0	15.4	71.5	11.2	21.4	67.3	28.7	26.5	44.9	25.5	30.9	43.7
여자	8.5	17.6	73.9	10.3	24.7	65.0	22.1	33.0	44.9	23.9	36.2	39.9
20대	8.5	19.3	72.2	11.4	22.7	65.9	27.3	33.5	39.2	26.1	37.5	36.4
30대	9.8	16.9	73.2	10.4	23.5	66.1	25.1	33.9	41.0	26.8	35.0	38.3
40대	14.2	20.4	65.4	9.0	28.4	62.6	27.5	29.4	43.1	26.1	34.6	39.3
50대	11.6	15.1	73.4	13.6	20.1	66.3	25.6	29.1	45.2	24.1	33.2	42.7
60대 이상	9.3	11.9	78.8	9.7	20.8	69.5	22.0	24.6	53.4	21.2	28.8	50.0
중졸 이하	10.2	8.4	81.4	10.8	17.4	71.9	24.0	23.4	52.7	21.6	26.9	51.5
고졸 이하	9.0	18.1	72.9	10.4	21.8	67.8	23.6	30.6	45.8	23.1	32.9	44.0
대졸 이상	12.8	18.2	69.0	11.1	26.8	62.1	27.8	31.5	40.6	27.6	36.9	35.5
진보	15.3	13.1	71.6	12.7	20.3	66.9	26.3	28.4	45.3	28.6	32.3	39.1
중도	7.4	24.2	68.4	8.9	29.2	62.0	23.7	34.2	42.1	23.0	35.3	41.7
보수	11.7	9.7	78.6	11.7	17.7	70.7	26.8	25.4	47.9	18.2	33.0	48.9

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외교관계 인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위협 인식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에 대해 연령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나지만, 일본과 러시아와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20대와 60대 이상 응답자들의 인식 차이가 14.2%p와 14.6%p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일수록 미국과 중국의 통일한국 안보에 대한 영향력과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학력이 낮을수록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다. 넷째, 진보적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3.6%p와 1.0%p로 크지 않다. 통일 후 한국의 미국 및 중국과의 외교관계 설정 방향성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합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외교관계 인식의 상관성 분석

국민들의 외교관계 인식에 미치는 요소들이 독립적일 수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이 서로 정적인 관계에서 협력을 지향하거나 혹은 한 나라와의 협력적 관계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독자노선 추구를 선호할 수도 있다. 이것도 과거부터 형성된 주변국가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안보위협 인식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단체제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대결이 통일 후 외교관계를 예상하고 기대하는 데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상관성은 <표 IV-20>에 나타나는

I
II
III
IV
V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설정과 러시아와 일본의 외교관계 설정이 다른 쌍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협력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에 대해 협력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협력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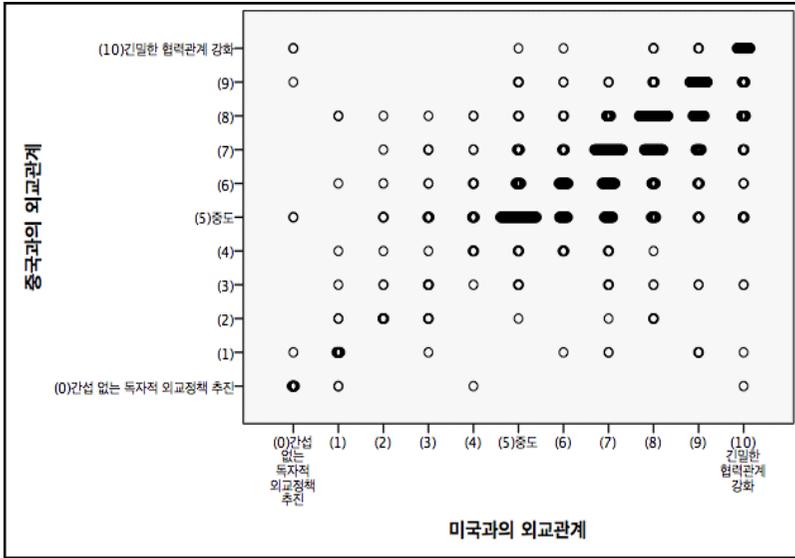
표 IV-20 외교관계 인식의 상관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1			
중국	.660**	1		
일본	.475**	.584**	1	
러시아	.500**	.668**	.674**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통일 후에도 미국과 중국이 G2로서 역할과 기능을 한다면 통일이후 이 국가들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을 때의 외교 전략과 통일 후의 외교 전략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 변수로 인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실용적 외교를 추진할 수 있었으나, 통일이 되면 중국과 미국 모두 통일한국과의 외교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에 대해 외교적 의존도를 높일수록 나머지 국가는 통일한국에 대해 외교적 불만을 표출하거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외교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결국 통일한국은 미국, 중국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 유연하면서도 신중한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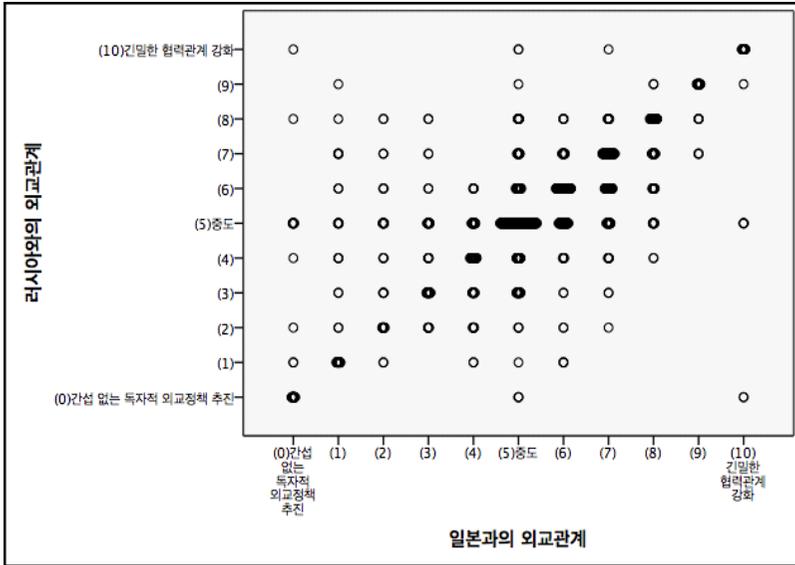
그림 IV-31 미국, 중국과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상관성을 <그림 IV-31>과 같이 산포도로 나타낼 수 있다. 미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 외교정책을 추진 하면서 중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구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없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간섭이 없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의존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소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동시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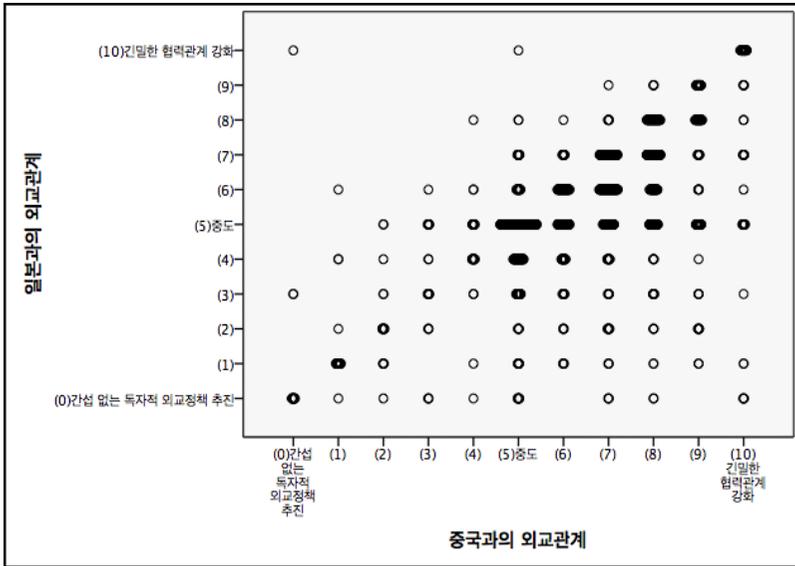
I  
II  
III  
IV  
V

그림 IV-32 일본,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일본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상관성이 높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두 나라와의 관계에서 모두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국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두 나라와의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V-33 중국, 일본과의 외교관계 인식의 산포도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관계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런데 <그림 IV-33>를 보면 2사분면 즉, 일본과 협력적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드물다. 반면 4사분면을 보면, 중국과는 협력적이지만 일본과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1사분면이 보여주듯이 두 나라 모두와 협력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중요한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강대국화가 더 큰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두 나라 모두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다른 쌍들보다 훨씬 많다.

I
II
III
IV
V

### (3) 북한·통일문제 인식과 외교관계 인식의 상관성

국제질서에서 북한이라는 변수가 한국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안보의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현재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통일 후 주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상황을 불안정하게 평가한다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국과 협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혹은 고립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통일로 인해 북한이라는 매개변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안보의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능력이 요구된다. 통일 후 한국의 외교는 이와 같은 관리능력의 제고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IV-21** ▶ 북한이미지와 주변국가와의 외교관계 인식 상관관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지원대상	0.006	.178**	-.126**	.193**
적대대상	0.06	.097**	-0.003	.126**
협력대상	.087**	0.035	0.038	.073*
경계대상	0.059	.084**	0.038	.098**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북한의 이미지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IV-21>에 있다. 북한을 지원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외교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본과는 독자적인 방향으로, 러시아와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적 외교관계를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미국과 러시

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현재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외교 관계 설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적대 혹은 경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의 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의 북중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은 현재에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안보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 후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북한 군조직의 해체와 민영화 과정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일 수 있다.

반면 북한이 협력대상이라고 동의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미국과의 협력적 외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의 문제를 협력적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중국 못지않게 미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 후에도 동아시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가 필요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표 IV-22**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외교관계 인식 상관관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통일필요성	-0.005	-0.047	0.02	-0.045
현재 안보상황	0.056	.094**	-0.035	0.052
개성공단사업 재개	.123**	0.026	0.045	-0.003
대북제재 강화	-.179**	-.121**	-.079*	-.129**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I  
II  
III  
IV  
V

통일 및 대북정책 인식과 외교관계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IV-22>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통일의 필요성은 “귀하께서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1=“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2=“통일을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3=“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4=“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 5=“통일에 관심없다”로 코딩되었다.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도 1=“매우 안정적이다”, 5=“매우 불안정하다” 등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개성공단사업 재개와 대북제재 강화에 대한 동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1=“매우 찬성한다”, 5=“매우 반대한다”로 역시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통일을 서둘러 해야 한다거나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인식과 주변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 구축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현재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불안정하게 볼수록 중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변수는 물론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라 나타나는 위협인식이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 재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외교 협력에 대한 지지 수준이 낮았다. 달리 말하면 현재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협상보다 강경하게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미국과의 전통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서 보다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다. 요약 및 함의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초래한다. 중국에는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에서 버려준 역할을 했던

북한이 사라지고 통일된 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한국인들에게는 분단 이후 상존했던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며, 이것은 통일한국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유연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조사는 통일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안보위협의 요인을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중국의 강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제 테러리즘으로 상정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통일한국의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을 적대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일한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정학적 변화가 초래하는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안보의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반드시 국제질서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화에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중심의 질서 변화에 국민들이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로 인해 그동안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외교정책을 어떻게 통합하고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을 중심으로 대결적 구도를 유지해온 한반도의 외교지형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대상으로 독자적 노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특정 국가와 더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앞서 논의된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안보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국 중심의 독자적 외교관계를 유지하기보다 두 국가 모두와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로 인해 미중관계 혹은 한미관계 어느 하나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강대국 정치에서 통일한국의 외교적 손실이 크다는 내재된 인식의 반영이다.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통일한국이 이 두 국가들과는 협력을 하면서도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현재 북한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통일한국의 외교에 대한 기대감 사이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았다. 북한을 적대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은 중국과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는 외교관계 추진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이들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외교적 관계 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후에도 미국은 여전히 통일한국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파트너임에 틀림없지만, 통일 후 지리적으로 국경을 공유하게 되는 중국과의 관계를 평화적이고 우호적으로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가지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주요 조사 결과

### 가. 통일국가 비전 및 북한에 대한 다차원적 인식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은 종전의 진보-보수의 단일 스펙트럼이 아니라, 자유주의, 현실주의, 실용주의, 고립주의의 네 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 군집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6년 조사에서는 아마도 최근 남북관계 경색 때문인지 고립주의 군집이 31.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 실용주의, 현실주의, 자유주의의 순서로 군집의 크기를 나눌 수 있었다.

통일국가의 비전과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 두 변수를 교차분석한 결과, 자유주의 군집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통일국가에서의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에 사상의 자유, 집회 및 선전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용이 좀 더 잘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고립주의 군집, 즉, 북한을 또 다른 외국으로 보면서 북한과의 협력과 적대적 관계 모두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반국가주의적 성향이 높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 사람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에 개입한다거나 권력이 단일한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등의 통일국가 비전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생각은 단선적이라기보다는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비전 또한 남한식 체제 혹은 북한식 체제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질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I

II

III

IV

V

## 나. 통일국가미래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결여

통일국가 체제에 대한 조사결과, 3분의 2 가까운 응답자들이 남한식 체제의 통일을 선호했으며, 통일 이후에도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51.7%에 달했다. 그러나 남한의 제도 및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통일 이후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90% 가까운 응답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지만, 이와 동시에 통일 국가가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상충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조사 결과는 통일 이후의 미래상에 대해 한국 사회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와 재분배, 개인과 국가의 관계, 민족주의와 다문화 등의 문제들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정치적 쟁점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가진 문제점들이 해결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통일국가 비전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 다. 상충 요인이 공존하는 한국 사회의 정체성

한국 국민들은 종족적 의미에서의 한민족 정체성과 시민적 차원에서의 대한민국 정체성을 혼재하여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민족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결과는 혈연과 같은 귀속적 차원의 기준보다 국적과 같은 시민적 차원의 기준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리고 젊은 세대,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적 성향

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전후 권위주의 시대를 경험한 고연령층, 저학력층에서는 과거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무제한적인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지상주의적인 성향보다는 공동체의 정서와 규범의 제약을 인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복지와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지는 북한 사회에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자 보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책임을, 개인생계에 대해서는 개인책임을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확인되고 있다.

전통적 가치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영역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사회조직에서는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역사적 기억은 전쟁과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부정적인 기억이 전 사회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향후 통일한국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관리와 통합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성과 신뢰, 경제적 안정도를 살펴보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이 드러난다. 공공영역에 대한 책임과 시민 덕목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사적 이익을 우선하며 집단이기주의나 전근대적인 연고주의가 작동할 여지가 큰 상태이며, 호혜적 규범과 상호신뢰 기반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 라.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복합적 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I
II
III
IV
V

다음과 같이 다섯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다층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성실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배려와 신뢰라는 차원에서는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이념적 성향보다 세대 간 차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안보 상황에 대한 판단, 북한에 대한 판단, 통일에 대한 인식 등에서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 성향의 응답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20대와 30대의 인식과 나머지 세대들 간의 북한과 통일,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것으로 진단한다.

셋째, 통일을 현실적이면서도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인식하는 경향이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발견된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자가 많고,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이질감의 심화 등을 우려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더 이상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통일정책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정책들과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함을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넷째,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그간의 통일 준비에 대한 정부의 성찰적 평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통일정책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0%가 넘는 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의 효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유보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어떤 주장도 확고하게 우세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등과 같은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찬성, 유보, 반대가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 마. 통일국가 비전 및 정체성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인식 차이

통일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중이 41.3%로 가장 높은 반면, 남한 주민들은 남한식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비율이 63.8%를 차지했다.

통일국가의 비전으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였으며 다음으로 집회와 선전활동의 자유,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체제, 다문화사회,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 중시, 통일 이전 남북한의 제도 그대로 유지 순이었다. 복지제도 도입,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다 같이 동의하였으나 집회나 선전활동의 자유 보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어 사용과 통일국가의 역사와 전통유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남한 주민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의 혈통을 남한 주민보다 더 중시했고 남한 주민은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을 북한 주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I

II

III

IV

V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대외정체성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 남한 국민, 아시아인, 북한인, 세계인 순이었다. 남한 주민은 남한 국민, 한민족, 아시아인 세계인 순이었다. 남한 주민은 남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북한이탈주민은 한민족정체성이 가장 높았다.

통일 속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은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67.3%로 높았지만 남한 주민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아 큰 차이를 보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임으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서였지만 남한 주민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같은 민족임으로였다.

## 바. 한국 사회의 시민성, 포용성이 통합에 영향

민족/문화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70%를 상회하여 다수를 이루는 것은 사실이지만, 30%에 가까운 국민들이 북한 주민을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최근 이러한 경향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북한 제도의 존속에 대해서는 대체로 상당 기간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고 있는 있지만, 북한의 제도/규범을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 사회의 시민성 수준은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 제고, 포용적 민족의식 강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포용적 민족주의와 공존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적인 의미에서는 시민들의 공공적 시민윤리와 책임의식 제고가 한국 사회의 성숙은

물론 통일 이후 통합과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한국 국민들의 통합인식은 전통적인 지역균열, 정당균열 및 언론의 정치적 정보 유통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포용적인 태도가 뚜렷한 반면 보수정당의 기반역할을 해온 대구 경북지역에서 북한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여전했다. 특히 언론에 의한 정보노출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였다.

## 2. 정책적 시사점

### 가.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증대 노력

통일에 이르는 길도 쉽지 않지만, 통일 이후 통합의 과제는 어쩌면 통일을 이루는 과정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그동안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통일의 정당화, 통일한국의 제도적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남북 간의 대결과 이질성의 심화 과정에서 형성된 남한과 북한 사회 각각의 독립적인 집단정체성의 경계를 넘어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하나의 통합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합과정은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필요로 하며, 통일 이후 심각한 사회내부의 다양한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독일 통일을 통해 목도해왔다. 그 과정에서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통합 역량이 관건적인 역할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 사회는 얼마나 통일 이후 통합과정을 주도하

I

II

III

IV

V

고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을까?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 주민들이 분단시대에 형성된 기존의 국가/사회집단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통합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적 역량과 의지는 통일이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화 과정 및 제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통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대처해나갈 때 통합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의 사회적 조건 중 제도적, 객관적 차원보다는 통합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인식 태도에서 남북한 사이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통합과정을 감당할 의지와 역량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준비 수준을 점검하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남한과 북한 사이의 통합과정에서, 제도적 차원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각각 통합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통합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각이 다원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생각의 공존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렴해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현행 제도에 대해 배타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남한의 제도로 흡수하고, 북한의 제도적 유산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인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제도의 경우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해소해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남한 제도로 흡수하여 동화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단기적으로 민족동질성을 인정하면서도 양 제도를 일거에 동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통합인식 III유형) 기존의 북한 제도에 순응하며

사회화된 북한 주민들은 수동적인 동화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사회문화적으로도 “민족정체성”의 개념을 혈연 및 문화적 귀속 요건보다 제도, 국적,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등 제도적, 공식적 요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통합인식 II 유형). 아직은 그 비중이 적지만,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상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북한의 기존 제도에 대해 포용적 태도를 취하더라도 소위 북한 주민은 “이등 시민”으로서의 차별화된 포섭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에서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은 본인 스스로 한민족 정체성이 뚜렷할 때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사회 내부에서부터 보다 개방적인 민족적 정체성 형성과 공유 과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족동질성 회복 및 통합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남북 간의 이질성은 오랜 기간의 단절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남북 간 군사적 대결과 갈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의 강화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경계의식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민족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사적 대결의 완화와 교류협력의 강화 없이 민족동질성의 회복은 불가능하다.<sup>48)</sup>

<sup>48)</sup> 이내영,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pp. 33~58.

I
II
III
IV
V

시민교육에서 유념할 점은 한국 사회에서 공유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주로 6.25전쟁, 각종 군사적 충돌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하에서 통합의 의지나 관용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 남북한이 교류하고 평화적으로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편익과 통합 지향적인 태도에 기여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조건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갈등 완화의 성과를 축적해감으로써 긍정적인 역사적 기억과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남북한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일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치, 사회,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려는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용, 다른 집단 및 다른 개인에 대한 포용의식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민성의 함양은 통일 이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 우선 남한 사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는 과정은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사회 통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한 사회에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포용과 통합의 과정 역시 통합의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데 귀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시민성의 함양 과정은 개인 차원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신뢰 기반 확대로 이어질 때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신뢰수준은 상호성(reciprocity)의 존중과 제도적 차원에서는 공정한 법치문화의 확립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경제적 자원과 성과가 풍부할수록 공동체 내부집단과 외부집단에 대해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즉, 경제적 성장 동력과 사회신뢰, 협력적인 타협의 문화는

상호 강화 효과를 발휘한다. 즉, 경제가 곧 신뢰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동력과 기반이 없으면 시민성의 제고와 사회신뢰 구축은 사상누각이 된다. 경제정책은 순수 경제적 효과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자양분이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통합정책은 경제 여력에 대한 전략적 고려하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sup>49)</sup>

마지막으로 대중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여론을 환기해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경험적 검증 과정을 통해 특정 매체에 대한 노출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 북한 주민을 수용하는 태도와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북한 제도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방송과 언론에서 소개되는 남북관계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들 중에서 특정 이념적 시각의 편향이 반영되거나, 탈북자 및 남북관계 전반을 희화화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갈등관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의 책임있는 보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통합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은 남북문제와 통합문제에 대한 이념적, 당파적 접근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진보 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로는 남북한 간의 통합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통일한국의 미래가 가능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진단하면서도 문제해결 지향적인 실용적 사고와 다양한 사고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통일한국의 사회적 조건을 성숙시키는 첩경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sup>49)</sup> Robert D. Putnam,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8, no. 4 (1995), pp. 38~68; Dany Rodrik,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pp. 385~412.

I
II
III
IV
V

## 나.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다문화주의의 수용

앞의 분석에서 통일국가의 비전은 크게 세 가지의 요인-자유주의 요인, 국가주의 요인, 단일민족 요인-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풀어서 해석하면, 국민들이 통일국가를 상상할 때는 주로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1) 그 국가에서 시민들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지, (2) 그 정부는 얼마나 효율적인 행정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분배 과정과 시장경제에 개입할 것인지, (3) 그 나라의 구성원들은 단일한 혈통과 동질한 문화로 이루어져 있는지의 세 측면이다.

여기서 자유주의 요인과 국가주의 요인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의 기본적 시민권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사상적 관용 및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국가 권력은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이 아직 가지고 있는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향수는 현재의 다문화주의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혈연적 민족주의에 대한 선호는 북한에서 오히려 더 강렬하다는 것이다. 통일국가는 더군다나 70년이 넘는 분단 기간 동안 이질화된 남북 간의 문화차이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인구 구성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의 수용이 불가피해진 남한의 사정을 생각하면 통일 이후 여러 인종과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뿌리 깊은 민족주의 교육에 기원하는 이 단일민족국가에 대한 비전은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이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 확대와 동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수집단의 견해

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각급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다문화주의 가치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문화주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 다. 통일의 필요성 및 편익의 구체화

북한인식 4군집 모형의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올해 조사에서 고립주의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조사도구의 문제로 자유주의, 현실주의, 고립주의, 실용주의를 매년 같은 척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어떠한 종류의 교류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이다.

고립주의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선호한다는 면에서 현실주의 북한인식과 차이가 난다. 이 고립주의의 확산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분단을 영구 고착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립주의의 확산은 통일이 이제 그 자체로 당위적인 목표라고 강변하기 힘들어진 사회분위기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통일을 염원한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왜 부자연스러우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통일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며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통일에 따른 편익은 무엇이며 그 편익을 정당한 방식으로 국민

I
II
III
IV
V

들에게 돌려줄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라. 북한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국가정체성 형성 노력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의식조사 비교 분석 결과, 남북한 주민의 다수가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통일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한 남북한 주민의 사고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제도에서 다른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에 대한 차이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그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통일 이후 국가통합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정착기간이 길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의 체제가 상당 기간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북체제 공존, 제3의 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남한식 체제로 통일하자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면 통일 이후 남북 정치체제의 통합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주민은 민주주의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제도가 낯설다. 북한 당국은 체제유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국가주의를 주입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개인의 자율권을 억제해왔다. 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처럼 북한에서 주장하는 집단주의는 왜곡된 것으로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체제는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요구하므로 대중의 수준에 상응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수준에 상응하게 정치통합단계를 정하고 점차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로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둘째, 통일국가의 통합을 위해 다원성과 민족주의를 균형되게 고려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민족성에 관한 견해였다.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민족정책으로 북한 주민은 남한 주민에 비해 혈통을 중시하고 있고 다문화보다는 단일민족문화에 대한 지향이 더 높다. 그리고 통일의 필요성에서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답변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주민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한반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여전히 통일의 필요성을 단일민족에서 찾고 있다.

최근 들어 남한에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다문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북민 문제도 다문화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이 통일의 필요성을 민족 문제와 결부시켜보고 있고 다문화에 대한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민 문제는 통일문제와 연관시켜 보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한 주민이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은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해서 견해의 일치를 보여 통일국가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기초하고 그 발전 정도에 상응하게 복지제도가 보장되는 사회가 통일국가의 핵심 비전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통해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조사 결과, 탈북민의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정착 기간이 길수록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겠지만, 남한 정착과 사회통합에 상당히 관련

I
II
III
IV
V

되어 있다. 초기에 남한 주민이 되었다고 자부하던 탈북민들은 남한 정착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들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게 되며 점차 탈북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인지하게 된다. 이는 탈북민들로 하여금 남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화시키고 반대로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통일 이후에 이와 같은 과정이 재현될 것이다. 통일 초기에는 통일의 기쁨에 들떠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했다가 점차 남북한의 차이를 직시하면서 북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극대화되면 남북갈등이 통일국가의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과정에서 남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 이후 남북 사회통합의 예행연습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이탈주민 정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빠른 기간에 적응하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 마. 통일국가의 대외정체성을 위한 균형외교

통일은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통일국가가 탄생하는 것은 중국에는 버퍼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북한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며, 일본에는 지역 내 또 다른 잠재적 경쟁자의 등장을 의미하고, 미국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해소되었지만 중국과의 경쟁 및 갈등의 양상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의미할 수 있다. 각국이 남북한의 통일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통일 후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불확실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통일 후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은 국내외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통일

이 이뤄지는 경우 북한군의 평화적 해체, 군 시설·자산의 민영화, 군수 위주의 산업체계의 민수전환 등은 통일국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과거청산의 문제와 맞물려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위기관리능력이 필요하고, 평화적 통일의 완성을 위해 유연한 사회적 통합정책도 요구된다.

이 연구는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대외적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강대국화, 미국의 일방주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제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국민들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통일한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 요인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인식 혹은 경계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중국의 강대국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장 중요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중갈등이 가져올 안보의 위협도 심각할 수 있지만, 안보위협 측면에서는 지정학적 변화가 더 중요하게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한국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보다 협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외교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과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국가에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국가에도 협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두 국가 사이에서 균형있고 협력적인 외교관계를 구축할 것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와는 달리 두 국가와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I
II
III
IV
V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았다.

북한에 대해 적대와 경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과의 협력적 외교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통일 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롭게 국경을 맞대게 되는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한다면 통일과정과 통일 후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에서 더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은 우선적으로 지정학의 변화에 따른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사고와 정책의 개발이 요구된다.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은 북한과 같은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며, 일본은 통일한국을 또 다른 역내 군사대국의 등장으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두 나라에 통일한국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요인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통일 후 지역내 상호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가에 통일한국이 지역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선언적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평화적 남북관계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지만, 대북제재도 여러 가지 문제해결 수단의 하나임을 고려할 때 상황변화에 따라 협상도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도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균형있고 협력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미국과 중국의 월등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나라에 대한 외교적 의존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다른 나라의 외교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라는 매개변수가 사라진 상황에서 통일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이익은 직접적인 상호교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밀한 외교적 전략이 구사되지 않는다면 국가이익의 직접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이다.

넷째, 통일과정은 통일한국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국제 테러리즘과 같은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 다음으로 통일한국의 안보위협 의 심각한 요인으로 국제테러리즘이 지적된 점을 생각할 때 통일준비 과정에서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배치되는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박명규 외.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종철 외.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박종철 외.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엄상윤. 『한국의 안보/통일 딜레마와 파생효과 감소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2.
- 홍기원 외.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방향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The American Voter*. New York: Wiley & Sons, 1960.
- Rawi, Abdelal, Yoshiko Herrera, Alastair I. Johnston, and Ross McDermott. *Measuring Identity: A Guide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1993.

## 2. 논문, 북채터

강원택. “한국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_\_\_\_\_.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대한민국 국가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 2016.

김석호. “한국인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와 시민성.” 이내영·윤인진 공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박경숙. “북한 사회의 국가, 가부장제, 여성의 관계에 대한 시론.” 『사회와이론』. 통권 제21-1집, 2012.

송영훈. “남북통합의 세 가지 범주: 가치지향성, 갈등관리, 사회적 수용.”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서울: 통일연구원, 2015.

윤인진.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전개와 대안적 민족주의의 모색.” 『한국사회』. 제8집 1호, 2007.

이내영.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이상신. “Do South Koreans Really Hate North Korea? National Image of North Korean a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in South Korea.” 한국정당학회 춘계회의 발표논문. 2015.

임희섭.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제4권, 2001.

- 전우택·유시은·이연우.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정한울·이곤수.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나, 약화시키나?” 강원택·이내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정한울·정원철. “민주적 시민성의 성장과 민족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7.
-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새 정부 개혁: 과제와 방향』.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황정미. “한국인의 다층적 정체성과 다문화 국가의 전망.” 이내영·윤인진 공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Benhabib, Seyla. “Political Theory and Political Membership in a Changing World.” In *Political Science: The State of the Discipline*. edited by Ira Katznelson.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2.

Converse, Philip 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ited by D. Apter. New York: Free Press, 1964.

Dalton, Russell J. “Citizenship Norms and the Expan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Studies*. vol. 56, no. 1. 2008.

Dinno, Alexis. “Implementing Horn’s Parallel Analysis for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Stata Journal*. vol. 9, no. 2. 2009.

Dzur, Albert W. “Nationalism, Liberalism and Democracy.”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5, no. 1. 2002.
- Horn, J. L. “A Rationale and Test for the Number of Factors in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vol. 30, no. 2. 1965.
- Putnam, Robert D. “Turning in, Tur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vol. 28, no. 4. 1995.
- Rankin, David M. “Identities, Interests, and Imports.” *Political Behaviour*. vol. 23, no 4. 2001.
- Rodrik, Dany.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4, no 4. 1999.

### 3. 기타자료

통일부. <<http://unikorea.go.kr>>.

송영훈. “통일에 대한 인식.” 『2016 통일의식조사: 전환기 통일·대북 정책 방향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6.9.29.

정한울. “안보불감증인가? 안보의식의 변화인가?” 동아시아연구원 EAI 오피니언리뷰 2013-02호, 2013.4.23.

# 부록 1. 남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조사

## 1. 조사 개요

### 가. 조사목적

본 조사는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에 대한 남한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여 통일국가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 나. 조사방법

- (1)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 (2) 표본 수 : 1,005명
- (3) 조사 방법 : 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 (4) 조사 시기 : 2016년 6월 13일 ~ 7월 8일
- (5)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조사표 (Structured Questionnaire)
- (6) 표본추출방법  
- 2016년 5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 다. 조사내용

- (1) 통일국가의 정체성
- (2) 국가정체성의 사회적 기반
- (3)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 라. 응답자 특성

(단위 : %)

Base =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1,005)	100.0
성별	남자	(499)	49.7
	여자	(506)	50.3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7.5
	만30세-만39세	(183)	18.2
	만40세-만49세	(211)	21.0
	만50세-만59세	(199)	19.8
	만60세 이상	(236)	23.5
학력	중졸 이하	(167)	16.6
	고졸 이하	(432)	43.0
	대졸 이상	(406)	40.4
지역	서울	(202)	20.1
	인천/경기	(298)	29.7
	대전/충청/세종	(106)	10.5
	광주/전라	(101)	10.0
	대구/경북	(102)	10.1
	부산/울산/경남	(155)	15.4
	강원/제주	(41)	4.1
직업	전문직	(56)	5.6
	관리직	(19)	1.9
	반전문, 기술직	(42)	4.2
	사무직	(84)	8.4
	판매직	(217)	21.6
	서비스직	(254)	25.3
	생산직	(24)	2.4
	농어민	(32)	3.2
	미취업	(277)	27.6

Base = 전체		사례수 (명)	비율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6.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8.1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1.5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8.5
	500만원 이상	(250)	24.9
	모름/무응답	(3)	0.3
<b>이념</b>			
	진보	(236)	23.5
	중도	(418)	41.6
	보수	(351)	34.9

## 마. 인구비례 할당표

행정구역	N=1000 구분	계	만 19세~29세		만 30~39세		만 40~49세		만 50~59세		만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체	1,000	92	84	94	89	105	104	100	99
서울특별시	대도시	199	19	19	19	19	19	20	19	19	21	25
부산광역시	대도시	71	6	6	6	6	7	7	7	8	8	10
대구광역시	대도시	48	5	4	4	4	5	5	5	5	5	6
인천광역시	대도시	56	5	5	6	5	6	6	6	6	5	6
광주광역시	대도시	29	3	3	3	3	3	3	3	3	2	3
대전광역시	대도시	30	3	3	3	3	3	3	3	3	3	3
울산광역시	대도시	21	2	2	2	2	2	2	3	2	2	2
경기도	동부	198	19	18	20	20	23	23	20	19	16	20
경기도	읍면부	41	3	3	4	3	5	4	4	4	5	6
강원도	동부	17	2	1	1	1	2	2	2	2	2	2
강원도	읍면부	12	1	1	1	1	1	1	1	1	2	2
충청북도	동부	20	2	2	2	2	2	2	2	2	2	2
충청북도	읍면부	12	1	1	1	1	1	1	1	1	2	2
충청남도	동부	19	2	2	2	2	2	2	2	2	1	2
충청남도	읍면부	23	2	1	2	1	2	2	2	2	4	5
전라북도	동부	23	2	2	2	2	3	3	2	2	2	3
전라북도	읍면부	13	1	1	1	1	1	1	1	1	2	3
전라남도	동부	15	1	1	1	1	2	2	2	2	1	2
전라남도	읍면부	21	1	1	1	1	2	2	2	2	4	5
경상북도	동부	28	3	2	3	2	3	3	3	3	3	3
경상북도	읍면부	26	2	1	2	1	2	2	3	3	4	6
경상남도	동부	41	4	3	4	4	5	5	4	4	4	4
경상남도	읍면부	23	2	1	2	2	2	2	2	2	3	5
제주특별자치도		11	1	1	1	1	1	1	1	1	1	2
세종특별자치시		3	0	0	1	1	1	0	0	0	0	0

## 2. 조사결과 집계표

[문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남한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한다	남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북한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63.9</b>	<b>26.9</b>	<b>8.4</b>	<b>0.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61.7	27.3	9.8	1.2	100.0	4.353
여자	(506)	66.0	26.5	6.9	0.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66.5	21.0	11.9	0.6	100.0	46.236***
만30세-만39세	(183)	66.1	23.5	9.3	1.1	100.0	
만40세-만49세	(211)	48.8	40.8	10.0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61.8	29.1	7.5	1.5	100.0	
만60세 이상	(236)	75.4	19.5	4.2	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73.7	21.0	4.2	1.2	100.0	13.718*
고졸 이하	(432)	60.4	30.6	8.1	0.9	100.0	
대졸 이상	(406)	63.5	25.4	10.3	0.7	100.0	
<b>지역</b>							
서울	(202)	62.9	27.2	8.9	1.0	100.0	29.147*
인천/경기	(298)	58.1	31.2	9.7	1.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0.8	21.7	6.6	0.9	100.0	
광주/전라	(101)	55.4	30.7	13.9	0.0	100.0	
대구/경북	(102)	68.6	22.5	5.9	2.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4.2	21.9	3.9	0.0	100.0	
강원/제주	(41)	63.4	26.8	9.8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60.7	26.8	8.9	3.6	100.0	40.149*
관리직	(19)	42.1	42.1	15.8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9.5	38.1	0.0	2.4	100.0	
사무직	(84)	67.9	21.4	9.5	1.2	100.0	
판매직	(217)	65.4	25.3	8.8	0.5	100.0	
서비스직	(254)	57.1	33.1	8.7	1.2	100.0	
생산직	(24)	58.3	37.5	0.0	4.2	100.0	
농어민	(32)	81.3	12.5	6.3	0.0	100.0	
미취업	(277)	69.0	22.0	9.0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72.6	19.6	6.5	1.2	100.0	13.88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1.0	29.7	8.2	1.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5.3	27.3	6.5	0.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7.5	29.0	12.4	1.1	100.0	
500만원 이상	(250)	63.2	28.0	8.4	0.4	100.0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60.2	28.0	11.9	0.0	100.0	20.706**
중도	(418)	60.0	29.4	9.6	1.0	100.0	
보수	(351)	70.9	23.1	4.6	1.4	100.0	

[문2] 통일이 된다면 다음 중 어떠한 정치제도가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한 명의를 대통령은 대중심제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고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이원집정부 제	국무총리 (수상) 중심으로 행정권이 이루어지 는 의원내각 제	모름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51.7	23.4	15.9	9.0	100.0	
성별							
남자	(499)	50.3	24.8	18.6	6.2	100.0	5.088
여자	(506)	53.2	21.9	13.2	11.7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0.6	21.6	15.3	12.5	100.0	8.844
만30세-만39세	(183)	52.5	20.8	18.0	8.7	100.0	
만40세-만49세	(211)	48.3	24.6	19.4	7.6	100.0	
만50세-만59세	(199)	50.3	28.1	15.6	6.0	100.0	
만60세 이상	(236)	56.4	21.6	11.9	10.2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52.7	24.0	13.2	10.2	100.0	1.929
고졸 이하	(432)	52.8	22.2	15.7	9.3	100.0	
대졸 이상	(406)	50.2	24.4	17.2	8.1	100.0	
지역							
서울	(202)	46.0	27.2	17.8	8.9	100.0	41.369** *
인천/경기	(298)	46.6	21.8	20.8	10.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7.5	27.4	13.2	1.9	100.0	
광주/전라	(101)	45.5	21.8	18.8	13.9	100.0	
대구/경북	(102)	56.9	27.5	7.8	7.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1.0	16.1	7.7	5.2	100.0	
강원/제주	(41)	31.7	26.8	22.0	19.5	100.0	
직업							
전문직	(56)	46.4	23.2	23.2	7.1	100.0	19.663
관리직	(19)	57.9	26.3	5.3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2.4	19.0	23.8	4.8	100.0	
사무직	(84)	48.8	23.8	21.4	6.0	100.0	
판매직	(217)	49.8	27.2	15.7	7.4	100.0	
서비스직	(254)	48.0	22.8	16.9	12.2	100.0	
생산직	(24)	54.2	29.2	12.5	4.2	100.0	
농어민	(32)	75.0	21.9	0.0	3.1	100.0	
미취업	(277)	55.2	20.9	13.7	10.1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56.5	17.3	13.7	12.5	100.0	11.97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8.4	29.7	11.5	10.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3.2	21.8	16.2	8.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0.0	24.7	18.8	6.5	100.0	
500만원 이상	(250)	50.8	23.2	18.4	7.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0.0	100.0	
이념							
진보	(236)	48.7	25.8	17.4	8.1	100.0	5.120
중도	(418)	52.4	23.2	12.9	11.5	100.0	
보수	(351)	53.0	21.9	18.5	6.6	100.0	

[문3] 남북한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자유주의 이념후호	단일 민족가원 복국복	평화 공존의 가치	자 주 의 경 제 체 제	남 북 민 지 의 인 권 증 진	한 민 지 의 인 권 증 진	기타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3.1</b>	<b>22.8</b>	<b>18.9</b>	<b>13.5</b>	<b>11.5</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여자	(499) (506)	34.3 32.0	22.4 23.1	17.2 20.6	13.4 13.6	12.6 10.5	0.0 0.2	100.0 100.0	3.901
<b>연령</b>	만19세-만29세 만30세-만39세 만40세-만49세 만50세-만59세 만60세 이상	(176) (183) (211) (199) (236)	34.7 33.9 30.3 35.7 31.8	17.0 18.0 19.0 25.1 32.2	20.5 19.1 23.7 15.1 16.5	13.1 15.8 14.2 15.1 10.2	14.2 13.1 12.8 9.0 9.3	0.6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33.298*
<b>학력</b>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67) (432) (406)	31.7 33.6 33.3	30.5 22.0 20.4	14.4 20.1 19.5	13.2 12.3 15.0	10.2 11.8 11.8	0.0 0.2 0.0	100.0 100.0 100.0	10.699
<b>지역</b>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202) (298) (106) (101) (102) (155) (41)	37.1 30.9 34.0 48.5 30.4 27.1 19.5	19.8 22.8 21.7 21.8 20.6 29.7 22.0	20.3 19.5 22.6 9.9 17.6 13.5 43.9	10.4 13.1 13.2 7.9 18.6 21.3 4.9	12.4 13.4 8.5 11.9 12.7 8.4 9.8	0.0 0.3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9.447**
<b>직업</b>	전문직 관리직 반전문, 기술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미취업	(56) (19) (42) (84) (217) (254) (24) (32) (277)	39.3 42.1 33.3 23.8 33.2 36.2 29.2 34.4 31.4	25.0 31.6 19.0 22.6 24.9 18.9 12.5 28.1 24.5	8.9 10.5 26.2 20.2 17.5 21.7 16.7 9.4 19.9	14.3 5.3 11.9 21.4 16.6 12.2 25.0 12.5 9.7	12.5 10.5 9.5 11.9 7.8 10.6 16.7 15.6 14.4	0.0 0.0 0.0 0.0 0.0 0.4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8.342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168) (182) (216) (186) (250) (3)	31.5 39.6 28.7 30.6 34.8 66.7	31.5 17.6 24.1 26.3 17.2 0.0	16.1 17.6 23.6 18.8 18.0 0.0	10.7 13.2 10.2 15.1 17.6 0.0	10.1 12.1 13.0 9.1 12.4 33.3	0.0 0.0 0.5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1.749*
<b>이념</b>	진보 중도 보수	(236) (418) (351)	34.7 31.1 34.5	17.8 23.7 25.1	22.9 19.6 15.4	13.1 11.7 16.0	11.4 13.6 9.1	0.0 0.2 0.0	100.0 100.0 100.0	16.159



[문5-1]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4.8</b>	<b>49.7</b>	<b>74.4</b>	<b>22.5</b>	<b>3.1</b>	<b>25.6</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7.1	47.5	74.5	22.8	2.6	25.5	100.0	3.799
	여자	(506)	22.5	51.8	74.3	22.1	3.6	25.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2.5	51.7	64.2	33.0	2.8	35.8	100.0	49.596***
	만30세-만39세	(183)	25.1	45.4	70.5	26.8	2.7	29.5	100.0	
	만40세-만49세	(211)	22.3	47.4	69.7	24.2	6.2	30.3	100.0	
	만50세-만59세	(199)	27.6	53.3	80.9	16.6	2.5	19.1	100.0	
	만60세 이상	(236)	33.5	50.4	83.9	14.8	1.3	16.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2.3	49.7	82.0	16.8	1.2	18.0	100.0	12.349
	고졸 이하	(432)	22.0	51.4	73.4	23.8	2.8	26.6	100.0	
	대졸 이상	(406)	24.6	47.8	72.4	23.4	4.2	27.6	100.0	
<b>지역</b>	서울	(202)	23.8	51.5	75.2	22.3	2.5	24.8	100.0	30.978*
	인천/경기	(298)	31.2	39.9	71.1	23.8	5.0	28.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4.5	49.1	73.6	23.6	2.8	26.4	100.0	
	광주/전라	(101)	21.8	51.5	73.3	25.7	1.0	26.7	100.0	
	대구/경북	(102)	27.5	52.0	79.4	18.6	2.0	20.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6.8 14.6	60.6 61.0	77.4 75.6	20.6 19.5	1.9 4.9	22.6 24.4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3.9	41.1	75.0	12.5	12.5	25.0	100.0	36.814*
	관리직	(19)	31.6	63.2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3.3	38.1	71.4	26.2	2.4	28.6	100.0	
	사무직	(84)	20.2	54.8	75.0	21.4	3.6	25.0	100.0	
	판매직	(217)	22.1	49.8	71.9	25.3	2.8	28.1	100.0	
	서비스직	(254)	23.6	50.0	73.6	23.6	2.8	26.4	100.0	
	생산직	(24)	20.8	41.7	62.5	37.5	0.0	37.5	100.0	
	농어민	(32)	28.1	43.8	71.9	25.0	3.1	28.1	100.0	
	미취업	(277)	25.6	51.6	77.3	20.6	2.2	22.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7.5	45.2	82.7	15.5	1.8	17.3	100.0	34.75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8.0	48.4	76.4	19.8	3.8	23.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2.7	49.5	72.2	25.0	2.8	27.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7	59.1	75.8	19.9	4.3	24.2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1.6 33.3	46.8 33.3	68.4 66.7	28.8 33.3	2.8 0.0	31.6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21.6	51.7	73.3	22.9	3.8	26.7	100.0	4.353
	중도	(418)	27.5	46.9	74.4	23.0	2.6	25.6	100.0	
	보수	(351)	23.6	51.6	75.2	21.7	3.1	24.8	100.0	

[문5-2]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2)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18.1	49.6	67.7	28.8	3.6	32.3	100.0	
성별	남자	(499)	19.6	48.5	68.1	28.3	3.6	31.9	100.0	1.591
	여자	(506)	16.6	50.6	67.2	29.2	3.6	32.8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21.0	50.6	71.6	25.0	3.4	28.4	100.0	11.247
	만30세-만39세	(183)	19.7	48.6	68.3	26.2	5.5	31.7	100.0	
	만40세-만49세	(211)	17.1	53.6	70.6	26.5	2.8	29.4	100.0	
	만50세-만59세	(199)	15.1	51.8	66.8	30.2	3.0	33.2	100.0	
	만60세 이상	(236)	18.2	44.1	62.3	34.3	3.4	37.7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8.0	44.3	62.3	32.9	4.8	37.7	100.0	8.900
	고졸 이하	(432)	15.7	53.2	69.0	28.5	2.5	31.0	100.0	
	대졸 이상	(406)	20.7	47.8	68.5	27.3	4.2	31.5	100.0	
지역	서울	(202)	19.8	42.6	62.4	32.2	5.4	37.6	100.0	72.827***
	인천/경기	(298)	25.2	53.7	78.9	19.1	2.0	21.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8.9	59.4	78.3	20.8	0.9	21.7	100.0	
	광주/전라	(101)	12.9	47.5	60.4	34.7	5.0	39.6	100.0	
	대구/경북	(102)	12.7	56.9	69.6	27.5	2.9	30.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9.0	38.1	47.1	46.5	6.5	52.9	100.0	
강원/제주	(41)	17.1	58.5	75.6	24.4	0.0	24.4	100.0		
직업	전문직	(56)	33.9	39.3	73.2	25.0	1.8	26.8	100.0	33.286
	관리직	(19)	21.1	31.6	52.6	36.8	10.5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64.3	78.6	19.0	2.4	21.4	100.0	
	사무직	(84)	13.1	50.0	63.1	28.6	8.3	36.9	100.0	
	판매직	(217)	17.5	52.5	70.0	27.2	2.8	30.0	100.0	
	서비스직	(254)	20.5	48.4	68.9	28.0	3.1	31.1	100.0	
	생산직	(24)	16.7	50.0	66.7	29.2	4.2	33.3	100.0	
	농어민 미취업	(32) (277)	12.5 15.9	62.5 47.7	75.0 63.5	18.8 33.6	6.3 2.9	25.0 36.5	10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7.9	40.5	58.3	37.5	4.2	41.7	100.0	22.15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2	56.6	75.8	21.4	2.7	24.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5.7	52.3	68.1	27.8	4.2	31.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1	54.8	69.9	28.5	1.6	30.1	100.0	
	500만원 이상	(250)	21.2	44.4	65.6	29.6	4.8	34.4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이념	진보	(236)	21.2	47.9	69.1	28.0	3.0	30.9	100.0	4.760
	중도	(418)	18.2	51.2	69.4	27.5	3.1	30.6	100.0	
	보수	(351)	16.0	48.7	64.7	30.8	4.6	35.3	100.0	

[문5-3]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3)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6.5	29.2	35.6	46.5	17.8	64.3	0.1	100.0	
성별	남자	(499)	6.6	29.3	35.9	47.3	16.8	64.1	0.0	100.0	0.712
	여자	(506)	6.3	29.1	35.4	45.7	18.8	64.4	0.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7	20.5	26.1	49.4	24.4	73.9	0.0	100.0	31.588**
	만30세-만39세	(183)	5.5	24.0	29.5	50.8	19.7	70.5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6.2	27.0	33.2	46.0	20.9	66.8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5.5	34.2	39.7	44.2	15.6	59.8	0.5	100.0	
	만60세 이상	(236)	8.9	37.3	46.2	43.2	10.6	53.8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0.2	37.1	47.3	44.3	8.4	52.7	0.0	100.0	27.361***
	고졸 이하	(432)	4.6	31.3	35.9	46.5	17.4	63.9	0.2	100.0	
	대졸 이상	(406)	6.9	23.6	30.5	47.3	22.2	69.5	0.0	100.0	
지역	서울	(202)	7.9	27.7	35.6	46.5	17.3	63.9	0.5	100.0	24.309
	인천/경기	(298)	7.7	27.9	35.6	40.6	23.8	64.4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7	30.2	35.8	48.1	16.0	64.2	0.0	100.0	
	광주/전라	(101)	4.0	25.7	29.7	56.4	13.9	70.3	0.0	100.0	
	대구/경북	(102)	4.9	34.3	39.2	42.2	18.6	60.8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2	29.7	34.8	54.2	11.0	65.2	0.0	100.0	
직업	강원/제주	(41)	7.3	36.6	43.9	41.5	14.6	56.1	0.0	100.0	
	전문직	(56)	8.9	19.6	28.6	46.4	25.0	71.4	0.0	100.0	29.893
	관리직	(19)	10.5	47.4	57.9	26.3	15.8	42.1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21.4	28.6	42.9	28.6	71.4	0.0	100.0	
	사무직	(84)	9.5	27.4	36.9	42.9	20.2	63.1	0.0	100.0	
	판매직	(217)	6.9	30.9	37.8	47.0	15.2	62.2	0.0	100.0	
	서비스직	(254)	8.3	26.4	34.6	47.6	17.7	65.4	0.0	100.0	
	생산직	(24)	4.2	37.5	41.7	33.3	25.0	58.3	0.0	100.0	
	농어민	(32)	3.1	18.8	21.9	53.1	25.0	78.1	0.0	100.0	
미취업	(277)	3.2	33.2	36.5	48.4	14.8	63.2	0.4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6.0	33.9	39.9	44.0	16.1	60.1	0.0	100.0	15.90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6	29.1	35.7	48.4	15.9	64.3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4	35.2	42.6	43.1	14.4	57.4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9	24.2	30.1	51.1	18.3	69.4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6.4	24.4	30.8	46.0	23.2	69.2	0.0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66.7	0.0	66.7	0.0	100.0	
이념	진보	(236)	5.1	29.2	34.3	43.6	21.6	65.3	0.4	100.0	11.615
	중도	(418)	8.1	25.8	34.0	47.4	18.7	66.0	0.0	100.0	
	보수	(351)	5.4	33.0	38.5	47.3	14.2	61.5	0.0	100.0	

[문5-4]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4)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3.9</b>	<b>55.7</b>	<b>89.7</b>	<b>9.1</b>	<b>1.2</b>	<b>10.2</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4.5	54.1	88.6	9.8	1.6	11.4	0.0	100.0	2.577
	여자	(506)	33.4	57.3	90.7	8.3	0.8	9.1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6.4	54.0	90.3	7.4	2.3	9.7	0.0	100.0	11.160
	만30세-만39세	(183)	39.3	49.7	89.1	8.7	1.6	10.4	0.5	100.0	
	만40세-만49세	(211)	32.2	55.0	87.2	11.8	0.9	12.8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30.2	60.8	91.0	8.5	0.5	9.0	0.0	100.0	
	만60세 이상	(236)	32.6	58.1	90.7	8.5	0.8	9.3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1.1	59.9	91.0	8.4	0.6	9.0	0.0	100.0	4.260
	고졸 이하	(432)	32.2	57.4	89.6	9.0	1.4	10.4	0.0	100.0	
	대졸 이상	(406)	36.9	52.2	89.2	9.4	1.2	10.6	0.2	100.0	
<b>지역</b>	서울	(202)	34.2	56.4	90.6	8.4	1.0	9.4	0.0	100.0	41.220**
	인천/경기	(298)	42.3	50.3	92.6	5.7	1.3	7.0	0.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7.4	61.3	88.7	10.4	0.9	11.3	0.0	100.0	
	광주/전라	(101)	38.6	52.5	91.1	7.9	1.0	8.9	0.0	100.0	
	대구/경북	(102)	23.5	54.9	78.4	19.6	2.0	21.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2	66.5	91.6	7.7	0.6	8.4	0.0	100.0	
	강원/제주	(41)	36.6	46.3	82.9	14.6	2.4	17.1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7.5	42.9	80.4	19.6	0.0	19.6	0.0	100.0	32.558
	관리직	(19)	47.4	52.6	100.0	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3.3	57.1	90.5	9.5	0.0	9.5	0.0	100.0	
	사무직	(84)	45.2	44.0	89.3	7.1	2.4	9.5	1.2	100.0	
	판매직	(217)	35.0	53.0	88.0	10.6	1.4	12.0	0.0	100.0	
	서비스직	(254)	30.3	59.1	89.4	9.8	0.8	10.6	0.0	100.0	
	생산직	(24)	29.2	62.5	91.7	4.2	4.2	8.3	0.0	100.0	
	농어민	(32)	18.8	68.8	87.5	12.5	0.0	12.5	0.0	100.0	
	미취업	(277)	33.6	58.8	92.4	6.1	1.4	7.6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9.9	53.0	92.9	7.1	0.0	7.1	0.0	100.0	14.7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4.1	56.6	90.7	8.2	1.1	9.3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0.6	59.7	90.3	8.3	1.4	9.7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8.5	55.9	84.4	13.4	2.2	15.6	0.0	100.0	
	500만원 이상	(250)	37.2	53.2	90.4	8.0	1.2	9.2	0.4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33.3	0.0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5.6	53.4	89.0	10.2	0.4	10.6	0.4	100.0	10.162
	중도	(418)	37.6	53.6	91.1	7.4	1.4	8.9	0.0	100.0	
	보수	(351)	28.5	59.8	88.3	10.3	1.4	11.7	0.0	100.0	

[문5-5]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5)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22.9	56.8	79.7	17.4	2.9	20.3	100.0	
성별	남자	(499)	23.4	55.5	79.0	18.2	2.8	21.0	100.0	0.841
	여자	(506)	22.3	58.1	80.4	16.6	3.0	19.6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29.0	52.8	81.8	15.9	2.3	18.2	100.0	11.237
	만30세-만39세	(183)	23.5	52.5	76.0	20.2	3.8	24.0	100.0	
	만40세-만49세	(211)	20.4	56.9	77.3	18.5	4.3	22.7	100.0	
	만50세-만59세	(199)	20.6	61.8	82.4	16.1	1.5	17.6	100.0	
	만60세 이상	(236)	22.0	58.9	80.9	16.5	2.5	19.1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9.8	58.1	77.8	19.8	2.4	22.2	100.0	4.784
	고졸 이하	(432)	22.7	55.8	78.5	19.0	2.5	21.5	100.0	
	대졸 이상	(406)	24.4	57.4	81.8	14.8	3.4	18.2	100.0	
지역	서울	(202)	22.8	57.9	80.7	14.9	4.5	19.3	100.0	29.858*
	인천/경기	(298)	28.2	50.3	78.5	17.1	4.4	21.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4.5	55.7	80.2	17.0	2.8	19.8	100.0	
	광주/전라	(101)	26.7	56.4	83.2	15.8	1.0	16.8	100.0	
	대구/경북	(102)	14.7	62.7	77.5	21.6	1.0	22.5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4.8 22.0	66.5 51.2	81.3 73.2	18.1 24.4	0.6 2.4	18.7 26.8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35.7	42.9	78.6	16.1	5.4	21.4	100.0	38.904*
	관리직	(19)	36.8	42.1	78.9	15.8	5.3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1.0	54.8	85.7	11.9	2.4	14.3	100.0	
	사무직	(84)	23.8	53.6	77.4	16.7	6.0	22.6	100.0	
	판매직	(217)	22.6	63.6	86.2	11.5	2.3	13.8	100.0	
	서비스직	(254)	22.8	53.9	76.8	20.1	3.1	23.2	100.0	
	생산직	(24)	25.0	33.3	58.3	37.5	4.2	41.7	100.0	
	농어민	(32)	9.4	71.9	81.3	18.8	0.0	18.8	100.0	
	미취업	(277)	19.5	59.6	79.1	19.1	1.8	20.9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22.0	56.5	78.6	19.6	1.8	21.4	100.0	21.48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0	57.7	79.7	17.0	3.3	20.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7.6	55.6	73.1	21.3	5.6	26.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0	61.8	83.9	13.4	2.7	16.1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9.2 33.3	53.6 66.7	82.8 100.0	16.0 0.0	1.2 0.0	17.2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22.5	54.7	77.1	19.9	3.0	22.9	100.0	5.388
	중도	(418)	25.1	56.5	81.6	15.1	3.3	18.4	100.0	
	보수	(351)	20.5	58.7	79.2	18.5	2.3	20.8	100.0	

[문5-6]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6) 통일국가에서는 재벌들의 경제 독점을 막아야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45.0</b>	<b>44.1</b>	<b>89.1</b>	<b>9.8</b>	<b>1.2</b>	<b>10.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4.9	43.1	88.0	10.6	1.4	12.0	100.0	1.355
여자	(506)	45.1	45.1	90.1	8.9	1.0	9.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1.5	47.7	89.2	9.1	1.7	10.8	100.0	9.699
만30세-만39세	(183)	46.4	43.2	89.6	8.2	2.2	10.4	100.0	
만40세-만49세	(211)	46.9	41.7	88.6	11.4	0.0	11.4	100.0	
만50세-만59세	(199)	46.2	40.7	86.9	11.6	1.5	13.1	100.0	
만60세 이상	(236)	43.6	47.0	90.7	8.5	0.8	9.3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0.1	49.7	89.8	8.4	1.8	10.2	100.0	3.709
고졸 이하	(432)	46.5	42.6	89.1	9.7	1.2	10.9	100.0	
대졸 이상	(406)	45.3	43.3	88.7	10.3	1.0	11.3	100.0	
<b>지역</b>									
서울	(202)	41.1	46.5	87.6	10.4	2.0	12.4	100.0	34.046*
인천/경기	(298)	50.0	39.3	89.3	9.4	1.3	10.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4.7	34.9	89.6	9.4	0.9	10.4	100.0	
광주/전라	(101)	47.5	43.6	91.1	8.9	0.0	8.9	100.0	
대구/경북	(102)	24.5	59.8	84.3	15.7	0.0	15.7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45.2 46.3	45.8 46.3	91.0 92.7	7.1 7.3	1.9 0.0	9.0 7.3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55.4	30.4	85.7	12.5	1.8	14.3	100.0	43.089**
관리직	(19)	36.8	47.4	84.2	15.8	0.0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7.6	45.2	92.9	7.1	0.0	7.1	100.0	
사무직	(84)	36.9	54.8	91.7	7.1	1.2	8.3	100.0	
판매직	(217)	46.5	41.0	87.6	11.5	0.9	12.4	100.0	
서비스직	(254)	47.6	42.1	89.8	9.8	0.4	10.2	100.0	
생산직	(24)	33.3	41.7	75.0	12.5	12.5	25.0	100.0	
농어민	(32)	37.5	53.1	90.6	9.4	0.0	9.4	100.0	
미취업	(277)	43.7	46.6	90.3	8.3	1.4	9.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2.4	38.7	91.1	7.7	1.2	8.9	100.0	6.13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2.9	44.5	87.4	11.5	1.1	12.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2.1	47.2	89.4	9.3	1.4	10.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5.2	44.1	89.2	9.7	1.1	10.8	100.0	
500만원 이상	(250)	44.0	44.8	88.8	10.4	0.8	11.2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47.5	41.9	89.4	9.3	1.3	10.6	100.0	14.029*
중도	(418)	49.3	40.2	89.5	10.0	0.5	10.5	100.0	
보수	(351)	38.2	50.1	88.3	9.7	2.0	11.7	100.0	

[문5-7]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7) 통일국가 정부는 예산을 아끼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7.8</b>	<b>42.0</b>	<b>59.8</b>	<b>34.0</b>	<b>6.1</b>	<b>40.1</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1.4	38.9	60.3	32.7	6.8	39.5	0.2	100.0	11.072*
	여자	(506)	14.2	45.1	59.3	35.4	5.3	40.7	0.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0.2	39.2	49.4	43.2	7.4	50.6	0.0	100.0	57.540***
	만30세-만39세	(183)	8.7	42.1	50.8	38.3	10.9	49.2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20.9	35.1	55.9	35.5	8.5	44.1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22.6	46.2	68.8	28.1	2.5	30.7	0.5	100.0	
	만60세 이상	(236)	23.7	46.6	70.3	27.5	2.1	29.7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5.7	50.9	76.6	22.2	1.2	23.4	0.0	100.0	30.948***
	고졸 이하	(432)	15.3	43.5	58.8	34.7	6.5	41.2	0.0	100.0	
	대졸 이상	(406)	17.2	36.7	53.9	38.2	7.6	45.8	0.2	100.0	
<b>지역</b>	서울	(202)	22.3	39.1	61.4	35.1	3.5	38.6	0.0	100.0	89.273***
	인천/경기	(298)	21.8	39.6	61.4	31.5	6.7	38.3	0.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1.1	31.1	62.3	28.3	9.4	37.7	0.0	100.0	
	광주/전라	(101)	9.9	29.7	39.6	49.5	10.9	60.4	0.0	100.0	
	대구/경북	(102)	10.8	47.1	57.8	31.4	10.8	42.2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7.1 9.8	62.6 41.5	69.7 51.2	30.3 43.9	0.0 4.9	30.3 48.8	0.0 0.0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9.6	32.1	51.8	33.9	12.5	46.4	1.8	100.0	32.067
	관리직	(19)	31.6	26.3	57.9	36.8	5.3	42.1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35.7	54.8	28.6	16.7	45.2	0.0	100.0	
	사무직	(84)	19.0	34.5	53.6	40.5	6.0	46.4	0.0	100.0	
	판매직	(217)	18.4	47.5	65.9	29.0	5.1	34.1	0.0	100.0	
	서비스직	(254)	19.7	41.7	61.4	32.3	6.3	38.6	0.0	100.0	
	생산직	(24)	12.5	50.0	62.5	33.3	4.2	37.5	0.0	100.0	
	농어민	(32)	12.5	56.3	68.8	28.1	3.1	31.3	0.0	100.0	
	미취업	(277)	14.8	41.9	56.7	39.0	4.3	43.3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3.2	43.5	66.7	30.4	3.0	33.3	0.0	100.0	22.89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1.4	40.1	61.5	34.1	4.4	38.5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6.7	49.1	65.7	29.2	5.1	34.3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3.4	38.2	51.6	39.2	9.1	48.4	0.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6.0 0.0	38.8 66.7	54.8 66.7	37.2 0.0	7.6 33.3	44.8 33.3	0.4 0.0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3.1	43.2	56.4	33.9	9.7	43.6	0.0	100.0	13.483*
	중도	(418)	18.7	39.7	58.4	36.6	4.8	41.4	0.2	100.0	
	보수	(351)	19.9	43.9	63.8	31.1	5.1	36.2	0.0	100.0	

[문5-8]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8)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25.2	46.7	71.8	24.4	3.8	28.2	100.0	
성별	남자	(499)	26.5	45.1	71.5	25.1	3.4	28.5	100.0	1.722
	여자	(506)	23.9	48.2	72.1	23.7	4.2	27.9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8.2	49.4	67.6	27.8	4.5	32.4	100.0	27.747**
	만30세-만39세	(183)	27.3	41.5	68.9	25.1	6.0	31.1	100.0	
	만40세-만49세	(211)	23.2	47.4	70.6	24.6	4.7	29.4	100.0	
	만50세-만59세	(199)	27.1	40.2	67.3	29.1	3.5	32.7	100.0	
	만60세 이상	(236)	28.8	53.4	82.2	16.9	0.8	17.8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27.5	48.5	76.0	22.8	1.2	24.0	100.0	7.467
	고졸 이하	(432)	25.2	47.5	72.7	24.1	3.2	27.3	100.0	
	대졸 이상	(406)	24.1	45.1	69.2	25.4	5.4	30.8	100.0	
지역	서울	(202)	20.3	49.0	69.3	27.2	3.5	30.7	100.0	80.160***
	인천/경기	(298)	30.5	46.0	76.5	20.1	3.4	23.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7	34.0	72.6	19.8	7.5	27.4	100.0	
	광주/전라	(101)	23.8	24.8	48.5	43.6	7.9	51.5	100.0	
	대구/경북	(102)	19.6	53.9	73.5	24.5	2.0	26.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8.1	63.9	81.9	17.4	0.6	18.1	100.0	
강원/제주	(41)	19.5	43.9	63.4	31.7	4.9	36.6	100.0		
직업	전문직	(56)	28.6	32.1	60.7	26.8	12.5	39.3	100.0	41.036*
	관리직	(19)	42.1	26.3	68.4	26.3	5.3	31.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42.9	78.6	16.7	4.8	21.4	100.0	
	사무직	(84)	17.9	42.9	60.7	33.3	6.0	39.3	100.0	
	판매직	(217)	23.5	47.9	71.4	24.9	3.7	28.6	100.0	
	서비스직	(254)	28.7	48.0	76.8	19.7	3.5	23.2	100.0	
	생산직	(24)	29.2	45.8	75.0	25.0	0.0	25.0	100.0	
	농어민	(32)	31.3	34.4	65.6	31.3	3.1	34.4	100.0	
	미취업	(277)	20.9	52.0	72.9	25.3	1.8	27.1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29.2	47.0	76.2	21.4	2.4	23.8	100.0	10.93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8.6	43.4	72.0	24.7	3.3	28.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2.7	50.0	72.7	23.1	4.2	27.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9.9	51.6	71.5	23.7	4.8	28.5	100.0	
	500만원 이상	(250)	26.0	42.4	68.4	27.6	4.0	31.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이념	진보	(236)	21.6	41.9	63.6	30.5	5.9	36.4	100.0	13.042*
	중도	(418)	27.3	46.4	73.7	22.7	3.6	26.3	100.0	
	보수	(351)	25.1	50.1	75.2	22.2	2.6	24.8	100.0	

[문5-9]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9)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12.9	52.6	65.6	27.5	6.8	34.2	0.2	100.0	
성별	남자	(499)	12.4	52.1	64.5	27.3	8.0	35.3	0.2	100.0	2.557
	여자	(506)	13.4	53.2	66.6	27.7	5.5	33.2	0.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9.1	46.6	55.7	35.2	9.1	44.3	0.0	100.0	17.742
	만30세-만39세	(183)	13.1	51.4	64.5	30.1	5.5	35.5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7.5	51.7	69.2	24.2	6.6	30.8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11.6	58.8	70.4	22.1	6.5	28.6	1.0	100.0	
	만60세 이상	(236)	12.7	53.8	66.5	27.1	6.4	33.5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2.6	55.1	67.7	25.1	7.2	32.3	0.0	100.0	6.893
	고졸 이하	(432)	11.3	55.8	67.1	25.5	6.9	32.4	0.5	100.0	
	대졸 이상	(406)	14.8	48.3	63.1	30.5	6.4	36.9	0.0	100.0	
지역	서울	(202)	11.4	57.4	68.8	25.7	5.0	30.7	0.5	100.0	28.687
	인천/경기	(298)	13.1	54.4	67.4	22.5	9.7	32.2	0.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48.1	63.2	32.1	4.7	36.8	0.0	100.0	
	광주/전라	(101)	12.9	53.5	66.3	26.7	6.9	33.7	0.0	100.0	
	대구/경북	(102)	9.8	52.0	61.8	27.5	10.8	38.2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5.5 12.2	49.7 39.0	65.2 51.2	33.5 39.0	1.3 9.8	34.8 48.8	0.0 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19.6	41.1	60.7	28.6	10.7	39.3	0.0	100.0	26.057
	관리직	(19)	10.5	63.2	73.7	10.5	15.8	26.3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52.4	64.3	31.0	4.8	35.7	0.0	100.0	
	사무직	(84)	11.9	57.1	69.0	27.4	3.6	31.0	0.0	100.0	
	판매직	(217)	14.3	50.7	65.0	30.4	4.6	35.0	0.0	100.0	
	서비스직	(254)	15.4	50.0	65.4	26.8	7.5	34.3	0.4	100.0	
	생산직	(24)	4.2	62.5	66.7	20.8	12.5	33.3	0.0	100.0	
	농어민	(32)	9.4	50.0	59.4	25.0	15.6	40.6	0.0	100.0	
	미취업	(277)	10.1	56.3	66.4	27.1	6.1	33.2	0.4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4.3	54.8	69.0	24.4	6.5	31.0	0.0	100.0	13.35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4.3	48.9	63.2	30.2	6.6	36.8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0.2	60.2	70.4	26.4	3.2	29.6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5	48.4	62.9	29.0	8.1	37.1	0.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2.4 0.0	50.4 66.7	62.8 66.7	27.6 0.0	8.8 33.3	36.4 33.3	0.8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13.1	53.8	66.9	28.4	4.7	33.1	0.0	100.0	13.249*
	중도	(418)	15.1	47.1	62.2	30.1	7.7	37.8	0.0	100.0	
	보수	(351)	10.3	58.4	68.7	23.6	7.1	30.8	0.6	100.0	

[문5-10]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0) 통일 이후 지방자치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20.4</b>	<b>50.6</b>	<b>71.0</b>	<b>25.5</b>	<b>3.5</b>	<b>29.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1.6	50.1	71.7	24.0	4.2	28.3	100.0	3.101
여자	(506)	19.2	51.2	70.4	26.9	2.8	29.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6	54.0	71.6	26.1	2.3	28.4	100.0	17.614
만30세-만39세	(183)	17.5	53.6	71.0	27.9	1.1	29.0	100.0	
만40세-만49세	(211)	17.1	51.7	68.7	27.0	4.3	31.3	100.0	
만50세-만59세	(199)	23.1	49.2	72.4	21.6	6.0	27.6	100.0	
만60세 이상	(236)	25.4	46.2	71.6	25.0	3.4	28.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1.6	49.7	71.3	26.3	2.4	28.7	100.0	2.561
고졸 이하	(432)	21.8	49.8	71.5	24.5	3.9	28.5	100.0	
대졸 이상	(406)	18.5	52.0	70.4	26.1	3.4	29.6	100.0	
<b>지역</b>									
서울	(202)	28.2	38.6	66.8	30.7	2.5	33.2	100.0	40.587**
인천/경기	(298)	18.8	51.0	69.8	25.8	4.4	30.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0	61.3	78.3	18.9	2.8	21.7	100.0	
광주/전라	(101)	25.7	54.5	80.2	17.8	2.0	19.8	100.0	
대구/경북	(102)	11.8	55.9	67.6	29.4	2.9	32.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8.1	53.5	71.6	25.8	2.6	28.4	100.0	
강원/제주	(41)	19.5	46.3	65.9	22.0	12.2	34.1	100.0	
<b>직업</b>									
전문직	(56)	25.0	41.1	66.1	28.6	5.4	33.9	100.0	32.461
관리직	(19)	10.5	52.6	63.2	31.6	5.3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8.6	47.6	76.2	19.0	4.8	23.8	100.0	
사무직	(84)	21.4	48.8	70.2	28.6	1.2	29.8	100.0	
판매직	(217)	22.1	58.1	80.2	17.5	2.3	19.8	100.0	
서비스직	(254)	16.9	50.4	67.3	26.4	6.3	32.7	100.0	
생산직	(24)	16.7	45.8	62.5	37.5	0.0	37.5	100.0	
농어민	(32)	15.6	62.5	78.1	18.8	3.1	21.9	100.0	
미취업	(277)	21.3	46.9	68.2	29.6	2.2	31.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5.6	48.2	73.8	22.6	3.6	26.2	100.0	16.28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5	51.1	73.6	23.6	2.7	26.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0	56.9	75.9	22.2	1.9	24.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9.9	51.6	71.5	24.7	3.8	28.5	100.0	
500만원 이상	(250)	17.2	46.0	63.2	32.0	4.8	36.8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22.9	51.3	74.2	22.5	3.4	25.8	100.0	3.544
중도	(418)	18.4	51.9	70.3	26.6	3.1	29.7	100.0	
보수	(351)	21.1	48.7	69.8	26.2	4.0	30.2	100.0	

[문5-11]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1)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1.1</b>	<b>42.8</b>	<b>53.9</b>	<b>30.9</b>	<b>15.1</b>	<b>46.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2.4	42.5	54.9	30.5	14.6	45.1	100.0	1.715
여자	(506)	9.9	43.1	53.0	31.4	15.6	47.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9.7	42.0	51.7	29.0	19.3	48.3	100.0	21.191*
만30세-만39세	(183)	5.5	48.6	54.1	27.9	18.0	45.9	100.0	
만40세-만49세	(211)	13.3	35.5	48.8	37.0	14.2	51.2	100.0	
만50세-만59세	(199)	13.6	42.2	55.8	30.7	13.6	44.2	100.0	
만60세 이상	(236)	12.7	45.8	58.5	29.7	11.9	41.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5.0	41.3	56.3	31.1	12.6	43.7	100.0	10.827
고졸 이하	(432)	11.8	45.4	57.2	29.9	13.0	42.8	100.0	
대졸 이상	(406)	8.9	40.6	49.5	32.0	18.5	50.5	100.0	
<b>지역</b>									
서울	(202)	10.9	41.6	52.5	33.7	13.9	47.5	100.0	37.350**
인천/경기	(298)	14.8	45.3	60.1	29.2	10.7	39.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6.0	50.0	66.0	26.4	7.5	34.0	100.0	
광주/전라	(101)	7.9	43.6	51.5	28.7	19.8	48.5	100.0	
대구/경북	(102)	7.8	34.3	42.2	34.3	23.5	57.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8	40.0	45.8	34.8	19.4	54.2	100.0	
강원/제주	(41)	9.8	41.5	51.2	24.4	24.4	48.8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37.5	55.4	23.2	21.4	44.6	100.0	17.941
관리직	(19)	21.1	42.1	63.2	21.1	15.8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38.1	50.0	26.2	23.8	50.0	100.0	
사무직	(84)	9.5	46.4	56.0	32.1	11.9	44.0	100.0	
판매직	(217)	9.7	44.7	54.4	31.8	13.8	45.6	100.0	
서비스직	(254)	11.0	41.3	52.4	33.5	14.2	47.6	100.0	
생산직	(24)	8.3	58.3	66.7	29.2	4.2	33.3	100.0	
농어민	(32)	12.5	34.4	46.9	31.3	21.9	53.1	100.0	
미취업	(277)	10.8	43.0	53.8	30.7	15.5	46.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5	41.7	60.1	24.4	15.5	39.9	100.0	30.26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7	51.1	58.8	29.7	11.5	41.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9	47.7	55.6	27.8	16.7	44.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0.8	33.3	44.1	39.2	16.7	55.9	100.0	
500만원 이상	(250)	11.6	40.8	52.4	32.8	14.8	47.6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0.2	46.2	56.4	30.5	13.1	43.6	100.0	2.291
중도	(418)	12.0	41.9	53.8	30.4	15.8	46.2	100.0	
보수	(351)	10.8	41.6	52.4	31.9	15.7	47.6	100.0	

[문5-12]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2)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3.6</b>	<b>46.0</b>	<b>59.6</b>	<b>33.6</b>	<b>6.7</b>	<b>40.3</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5.4	45.1	60.5	32.1	7.4	39.5	0.0	100.0	4.075
여자	(506)	11.9	46.8	58.7	35.2	5.9	41.1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2.5	38.6	51.1	36.9	11.9	48.9	0.0	100.0	20.651
만30세-만39세	(183)	14.8	41.5	56.3	36.6	7.1	43.7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1.8	49.3	61.1	32.2	6.6	38.9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15.6	44.7	60.3	34.2	5.0	39.2	0.5	100.0	
만60세 이상	(236)	13.6	53.0	66.5	29.7	3.8	33.5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3.2	53.3	66.5	29.3	4.2	33.5	0.0	100.0	16.285*
고졸 이하	(432)	15.7	47.2	63.0	31.5	5.3	36.8	0.2	100.0	
대졸 이상	(406)	11.6	41.6	53.2	37.7	9.1	46.8	0.0	100.0	
<b>지역</b>										
서울	(202)	17.3	44.1	61.4	32.2	6.4	38.6	0.0	100.0	19.073
인천/경기	(298)	15.4	44.0	59.4	33.2	7.0	40.3	0.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4.2	45.3	59.4	31.1	9.4	40.6	0.0	100.0	
광주/전라	(101)	9.9	45.5	55.4	38.6	5.9	44.6	0.0	100.0	
대구/경북	(102)	6.9	50.0	56.9	35.3	7.8	43.1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4.8	50.3	65.2	30.3	4.5	34.8	0.0	100.0	
강원/제주	(41)	2.4	46.3	48.8	46.3	4.9	51.2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33.9	48.2	35.7	16.1	51.8	0.0	100.0	37.798*
관리직	(19)	5.3	73.7	78.9	5.3	15.8	21.1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1.4	31.0	52.4	40.5	7.1	47.6	0.0	100.0	
사무직	(84)	8.3	51.2	59.5	31.0	9.5	40.5	0.0	100.0	
판매직	(217)	12.0	47.9	59.9	35.0	4.6	39.6	0.5	100.0	
서비스직	(254)	15.0	43.7	58.7	35.4	5.9	41.3	0.0	100.0	
생산직	(24)	12.5	41.7	54.2	45.8	0.0	45.8	0.0	100.0	
농어민	(32)	6.3	50.0	56.3	34.4	9.4	43.8	0.0	100.0	
미취업	(277)	15.5	47.7	63.2	31.0	5.8	36.8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5	51.8	70.2	25.6	4.2	29.8	0.0	100.0	26.60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3.7	46.2	59.9	33.0	6.6	39.6	0.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0	52.3	65.3	29.6	5.1	34.7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8	44.6	56.5	33.9	9.7	43.5	0.0	100.0	
500만원 이상	(250)	12.0	37.6	49.6	42.8	7.6	50.4	0.0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2.7	44.1	56.8	36.4	6.8	43.2	0.0	100.0	4.786
중도	(418)	14.1	45.0	59.1	32.8	8.1	40.9	0.0	100.0	
보수	(351)	13.7	48.4	62.1	32.8	4.8	37.6	0.3	100.0	

[문5-13]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3)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6.9</b>	<b>55.1</b>	<b>72.0</b>	<b>22.7</b>	<b>5.3</b>	<b>28.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7.8	57.5	75.4	21.0	3.6	24.6	100.0	7.924*
여자	(506)	16.0	52.8	68.8	24.3	6.9	31.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8.2	50.6	68.8	27.3	4.0	31.3	100.0	12.094
만30세-만39세	(183)	18.6	56.3	74.9	20.8	4.4	25.1	100.0	
만40세-만49세	(211)	19.9	56.4	76.3	19.0	4.7	23.7	100.0	
만50세-만59세	(199)	15.1	54.3	69.3	25.6	5.0	30.7	100.0	
만60세 이상	(236)	13.6	57.2	70.8	21.6	7.6	29.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0.8	58.1	68.9	23.4	7.8	31.1	100.0	9.235
고졸 이하	(432)	17.8	53.5	71.3	22.9	5.8	28.7	100.0	
대졸 이상	(406)	18.5	55.7	74.1	22.2	3.7	25.9	100.0	
<b>지역</b>									
서울	(202)	16.3	52.5	68.8	28.7	2.5	31.2	100.0	88.350***
인천/경기	(298)	22.5	55.7	78.2	18.8	3.0	21.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8	60.4	80.2	17.9	1.9	19.8	100.0	
광주/전라	(101)	20.8	64.4	85.1	12.9	2.0	14.9	100.0	
대구/경북	(102)	12.7	56.9	69.6	21.6	8.8	30.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7	44.5	52.3	31.6	16.1	47.7	100.0	
강원/제주	(41)	7.3	63.4	70.7	26.8	2.4	29.3	100.0	
<b>직업</b>									
전문직	(56)	28.6	39.3	67.9	25.0	7.1	32.1	100.0	24.129
관리직	(19)	10.5	52.6	63.2	31.6	5.3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6.7	61.9	78.6	16.7	4.8	21.4	100.0	
사무직	(84)	17.9	53.6	71.4	25.0	3.6	28.6	100.0	
판매직	(217)	17.5	52.5	70.0	23.5	6.5	30.0	100.0	
서비스직	(254)	18.1	55.5	73.6	20.5	5.9	26.4	100.0	
생산직	(24)	8.3	50.0	58.3	33.3	8.3	41.7	100.0	
농어민	(32)	9.4	53.1	62.5	37.5	0.0	37.5	100.0	
미취업	(277)	14.8	60.3	75.1	20.6	4.3	24.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9	54.8	69.6	23.8	6.5	30.4	100.0	14.07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0.3	53.3	73.6	20.3	6.0	26.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2.5	58.3	70.8	22.7	6.5	29.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5	53.8	68.3	26.9	4.8	31.7	100.0	
500만원 이상	(250)	21.2	55.2	76.4	20.4	3.2	23.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22.0	51.7	73.7	23.7	2.5	26.3	100.0	16.081*
중도	(418)	18.2	53.1	71.3	22.2	6.5	28.7	100.0	
보수	(351)	12.0	59.8	71.8	22.5	5.7	28.2	100.0	

[문5-14]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4) 통일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5.1</b>	<b>57.0</b>	<b>82.1</b>	<b>15.7</b>	<b>2.1</b>	<b>17.8</b>	<b>0.1</b>	<b>100.0</b>	
성별	남자	(499)	25.9	55.9	81.8	16.0	2.2	18.2	0.0	100.0	0.573
	여자	(506)	24.3	58.1	82.4	15.4	2.0	17.4	0.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27.8	51.1	79.0	18.2	2.8	21.0	0.0	100.0	7.859
	만30세-만39세	(183)	25.1	59.0	84.2	13.1	2.7	15.8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22.7	59.7	82.5	14.2	2.8	17.1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24.6	58.3	82.9	16.1	1.0	17.1	0.0	100.0	
	만60세 이상	(236)	25.4	56.4	81.8	16.9	1.3	18.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25.1	54.5	79.6	19.2	1.2	20.4	0.0	100.0	6.504
	고졸 이하	(432)	23.1	60.0	83.1	15.0	1.6	16.7	0.2	100.0	
	대졸 이상	(406)	27.1	54.9	82.0	15.0	3.0	18.0	0.0	100.0	
지역	서울	(202)	22.3	53.0	75.2	23.3	1.5	24.8	0.0	100.0	71.156***
	인천/경기	(298)	32.6	58.1	90.6	5.7	3.7	9.4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7.4	49.1	76.4	21.7	1.9	23.6	0.0	100.0	
	광주/전라	(101)	22.8	68.3	91.1	6.9	2.0	8.9	0.0	100.0	
	대구/경북	(102)	23.5	56.9	80.4	18.6	1.0	19.6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6.1 22.0	57.4 61.0	73.5 82.9	25.8 12.2	0.0 4.9	25.8 17.1	0.6 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33.9	50.0	83.9	10.7	5.4	16.1	0.0	100.0	25.575
	관리직	(19)	26.3	63.2	89.5	10.5	0.0	10.5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8.6	61.9	90.5	9.5	0.0	9.5	0.0	100.0	
	사무직	(84)	23.8	57.1	81.0	15.5	3.6	19.0	0.0	100.0	
	판매직	(217)	22.1	54.4	76.5	20.3	2.8	23.0	0.5	100.0	
	서비스직	(254)	29.1	53.5	82.7	15.7	1.6	17.3	0.0	100.0	
	생산직	(24)	8.3	79.2	87.5	12.5	0.0	12.5	0.0	100.0	
	농어민 미취업	(32) (277)	15.6 24.2	68.8 59.2	84.4 83.4	12.5 15.2	3.1 1.4	15.6 16.6	0.0 0.0	10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30.4	53.0	83.3	16.1	0.6	16.7	0.0	100.0	12.59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6.9	56.6	83.5	15.4	1.1	16.5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1.8	60.6	82.4	13.9	3.2	17.1	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0	59.7	81.7	17.2	1.1	18.3	0.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5.2 33.3	55.2 33.3	80.4 66.7	16.4 0.0	3.2 33.3	19.6 33.3	0.0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25.8	57.6	83.5	12.7	3.8	16.5	0.0	100.0	11.791
	중도	(418)	27.8	54.5	82.3	16.7	1.0	17.7	0.0	100.0	
	보수	(351)	21.4	59.5	80.9	16.5	2.3	18.8	0.3	100.0	

[문5-15]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5)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서는 안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6.7</b>	<b>43.2</b>	<b>69.9</b>	<b>21.6</b>	<b>8.6</b>	<b>3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5.1	41.3	66.3	23.0	10.6	33.7	100.0	7.706
여자	(506)	28.3	45.1	73.3	20.2	6.5	26.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7.3	45.5	72.7	20.5	6.8	27.3	100.0	11.547
만30세-만39세	(183)	25.1	40.4	65.6	26.2	8.2	34.4	100.0	
만40세-만49세	(211)	24.2	45.5	69.7	18.5	11.8	30.3	100.0	
만50세-만59세	(199)	24.6	45.7	70.4	21.1	8.5	29.6	100.0	
만60세 이상	(236)	31.4	39.4	70.8	22.0	7.2	29.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8.1	40.1	68.3	25.1	6.6	31.7	100.0	9.548
고졸 이하	(432)	28.2	44.9	73.1	20.1	6.7	26.9	100.0	
대졸 이상	(406)	24.4	42.6	67.0	21.7	11.3	33.0	100.0	
<b>지역</b>									
서울	(202)	22.3	48.5	70.8	22.3	6.9	29.2	100.0	46.262***
인천/경기	(298)	28.2	46.6	74.8	16.4	8.7	25.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7.7	38.7	76.4	16.0	7.5	23.6	100.0	
광주/전라	(101)	27.7	35.6	63.4	25.7	10.9	36.6	100.0	
대구/경북	(102)	19.6	51.0	70.6	26.5	2.9	29.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6.5	31.6	58.1	26.5	15.5	41.9	100.0	
강원/제주	(41)	24.4	46.3	70.7	29.3	0.0	29.3	100.0	
<b>직업</b>									
전문직	(56)	28.6	32.1	60.7	23.2	16.1	39.3	100.0	36.741*
관리직	(19)	36.8	42.1	78.9	10.5	10.5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35.7	78.6	19.0	2.4	21.4	100.0	
사무직	(84)	22.6	45.2	67.9	26.2	6.0	32.1	100.0	
판매직	(217)	24.4	43.3	67.7	21.7	10.6	32.3	100.0	
서비스직	(254)	28.0	46.5	74.4	15.7	9.8	25.6	100.0	
생산직	(24)	33.3	33.3	66.7	33.3	0.0	33.3	100.0	
농어민	(32)	15.6	34.4	50.0	40.6	9.4	50.0	100.0	
미취업	(277)	25.6	44.8	70.4	23.1	6.5	29.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9.2	38.1	67.3	25.6	7.1	32.7	100.0	15.73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1.9	42.3	74.2	18.7	7.1	25.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4.1	43.1	67.1	24.1	8.8	32.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0.4	45.7	66.1	21.0	12.9	33.9	100.0	
500만원 이상	(250)	28.0	45.2	73.2	19.6	7.2	26.8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4.2	39.0	63.1	24.2	12.7	36.9	100.0	13.442*
중도	(418)	28.0	44.3	72.2	18.9	8.9	27.8	100.0	
보수	(351)	26.8	44.7	71.5	23.1	5.4	28.5	100.0	

[문5-16]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6) 통일 후 이전 북한 공산주의의 잔재는 말끔히 청산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43.0	44.0	87.0	10.8	2.0	12.8	0.2	100.0	
성별	남자	(499)	43.5	41.9	85.4	12.2	2.2	14.4	0.2	100.0	3.014
	여자	(506)	42.5	46.0	88.5	9.5	1.8	11.3	0.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40.9	46.6	87.5	10.2	2.3	12.5	0.0	100.0	14.025
	만30세-만39세	(183)	44.3	38.8	83.1	13.7	2.7	16.4	0.5	100.0	
	만40세-만49세	(211)	36.5	48.8	85.3	11.8	2.8	14.7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42.7	46.7	89.4	9.5	1.0	10.6	0.0	100.0	
	만60세 이상	(236)	49.6	39.4	89.0	9.3	1.3	10.6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47.3	42.5	89.8	8.4	1.8	10.2	0.0	100.0	7.909
	고졸 이하	(432)	40.5	47.7	88.2	9.7	1.6	11.3	0.5	100.0	
	대졸 이상	(406)	43.8	40.6	84.5	13.1	2.5	15.5	0.0	100.0	
지역	서울	(202)	40.6	43.1	83.7	15.3	1.0	16.3	0.0	100.0	41.920**
	인천/경기	(298)	47.3	40.6	87.9	8.4	3.0	11.4	0.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1.5	40.6	82.1	17.0	0.9	17.9	0.0	100.0	
	광주/전라	(101)	52.5	39.6	92.1	5.0	3.0	7.9	0.0	100.0	
	대구/경북	(102)	41.2	40.2	81.4	15.7	2.9	18.6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8.1 26.8	55.5 58.5	93.5 85.4	6.5 9.8	0.0 4.9	6.5 14.6	0.0 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46.4	37.5	83.9	14.3	1.8	16.1	0.0	100.0	23.647
	관리직	(19)	52.6	36.8	89.5	5.3	5.3	10.5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0.0	35.7	85.7	9.5	4.8	14.3	0.0	100.0	
	사무직	(84)	40.5	45.2	85.7	13.1	1.2	14.3	0.0	100.0	
	판매직	(217)	39.6	43.3	82.9	15.2	1.4	16.6	0.5	100.0	
	서비스직	(254)	43.3	45.7	89.0	8.3	2.4	10.6	0.4	100.0	
	생산직	(24)	45.8	50.0	95.8	4.2	0.0	4.2	0.0	100.0	
	농어민	(32)	31.3	59.4	90.6	3.1	6.3	9.4	0.0	100.0	
	미취업	(277)	44.8	43.3	88.1	10.5	1.4	11.9	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54.8	38.1	92.9	6.5	0.6	7.1	0.0	100.0	20.28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8.5	48.9	87.4	9.3	3.3	12.6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8.4	48.1	86.6	11.6	1.9	13.4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0.3	43.5	83.9	12.9	2.7	15.6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44.4	40.8	85.2	12.8	1.6	14.4	0.4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0.0	100.0		
이념	진보	(236)	37.7	44.5	82.2	12.7	4.7	17.4	0.4	100.0	16.734*
	중도	(418)	46.7	43.3	90.0	8.9	1.2	10.0	0.0	100.0	
	보수	(351)	42.2	44.4	86.6	12.0	1.1	13.1	0.3	100.0	

[문5-17]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7) 통일 이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주적하여 앞장섰던 사람들을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20.8	49.3	70.0	26.8	3.2	30.0	100.0	
<b>성별</b>									
남자	(499)	22.0	47.1	69.1	26.9	4.0	30.9	100.0	3.797
여자	(506)	19.6	51.4	70.9	26.7	2.4	29.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3	50.6	73.9	23.9	2.3	26.1	100.0	15.229
만30세-만39세	(183)	21.3	52.5	73.8	24.0	2.2	26.2	100.0	
만40세-만49세	(211)	19.0	46.4	65.4	32.2	2.4	34.6	100.0	
만50세-만59세	(199)	21.6	43.2	64.8	29.1	6.0	35.2	100.0	
만60세 이상	(236)	19.5	53.4	72.9	24.2	3.0	27.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8.0	51.5	69.5	27.5	3.0	30.5	100.0	10.695
고졸 이하	(432)	18.5	51.9	70.4	25.2	4.4	29.6	100.0	
대졸 이상	(406)	24.4	45.6	70.0	28.1	2.0	30.0	100.0	
<b>지역</b>									
서울	(202)	19.3	58.4	77.7	19.8	2.5	22.3	100.0	40.309**
인천/경기	(298)	29.2	43.3	72.5	23.8	3.7	27.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4.2	52.8	67.0	29.2	3.8	33.0	100.0	
광주/전라	(101)	21.8	46.5	68.3	28.7	3.0	31.7	100.0	
대구/경북	(102)	16.7	52.0	68.6	30.4	1.0	31.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5	45.2	58.7	36.1	5.2	41.3	100.0	
강원/제주	(41)	19.5	53.7	73.2	26.8	0.0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28.6	42.9	71.4	25.0	3.6	28.6	100.0	19.405
관리직	(19)	10.5	47.4	57.9	42.1	0.0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1.4	50.0	71.4	23.8	4.8	28.6	100.0	
사무직	(84)	19.0	53.6	72.6	27.4	0.0	27.4	100.0	
판매직	(217)	21.2	45.2	66.4	30.0	3.7	33.6	100.0	
서비스직	(254)	23.6	46.9	70.5	25.6	3.9	29.5	100.0	
생산직	(24)	20.8	58.3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12.5	53.1	65.6	34.4	0.0	34.4	100.0	
미취업	(277)	18.4	53.4	71.8	24.5	3.6	28.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5	57.1	75.6	22.6	1.8	24.4	100.0	15.34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8.1	47.8	65.9	28.0	6.0	34.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0	49.5	68.5	28.7	2.8	31.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1.5	47.8	69.4	26.9	3.8	30.6	100.0	
500만원 이상	(250)	25.2	45.6	70.8	27.2	2.0	29.2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1.6	47.9	69.5	25.4	5.1	30.5	100.0	9.502
중도	(418)	19.4	47.6	67.0	30.6	2.4	33.0	100.0	
보수	(351)	21.9	52.1	74.1	23.1	2.8	25.9	100.0	

[문5-18]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8)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8.4</b>	<b>47.6</b>	<b>55.9</b>	<b>33.3</b>	<b>10.7</b>	<b>44.1</b>	<b>100.0</b>	
성별	남자	(499)	8.8	49.1	57.9	30.9	11.2	42.1	100.0	2.767
	여자	(506)	7.9	46.0	54.0	35.8	10.3	46.0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6.3	43.2	49.4	38.1	12.5	50.6	100.0	10.981
	만30세-만39세	(183)	8.2	49.7	57.9	32.2	9.8	42.1	100.0	
	만40세-만49세	(211)	9.5	51.2	60.7	31.3	8.1	39.3	100.0	
	만50세-만59세	(199)	6.0	49.7	55.8	33.2	11.1	44.2	100.0	
	만60세 이상	(236)	11.0	44.1	55.1	32.6	12.3	44.9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2.0	43.7	55.7	32.9	11.4	44.3	100.0	6.402
	고졸 이하	(432)	7.6	45.8	53.5	35.0	11.6	46.5	100.0	
	대졸 이상	(406)	7.6	51.0	58.6	31.8	9.6	41.4	100.0	
지역	서울	(202)	11.4	53.5	64.9	29.2	5.9	35.1	100.0	58.774***
	인천/경기	(298)	11.4	47.7	59.1	31.2	9.7	40.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3.2	48.1	61.3	30.2	8.5	38.7	100.0	
	광주/전라	(101)	5.0	49.5	54.5	31.7	13.9	45.5	100.0	
	대구/경북	(102)	1.0	42.2	43.1	35.3	21.6	56.9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9 2.4	37.4 63.4	41.3 65.9	47.1 24.4	11.6 9.8	58.7 34.1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14.3	44.6	58.9	32.1	8.9	41.1	100.0	23.801
	관리직	(19)	15.8	42.1	57.9	21.1	21.1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9.5	45.2	54.8	31.0	14.3	45.2	100.0	
	사무직	(84)	7.1	54.8	61.9	28.6	9.5	38.1	100.0	
	판매직	(217)	7.4	46.5	53.9	37.8	8.3	46.1	100.0	
	서비스직	(254)	8.7	43.3	52.0	35.0	13.0	48.0	100.0	
	생산직	(24)	4.2	75.0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9.4	46.9	56.3	28.1	15.6	43.8	100.0	
	미취업	(277)	7.6	49.1	56.7	32.9	10.5	43.3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2.5	43.5	56.0	29.2	14.9	44.0	100.0	17.43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8.2	49.5	57.7	33.5	8.8	42.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6	50.5	56.0	35.6	8.3	44.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8.1	51.1	59.1	33.3	7.5	40.9	100.0	
	500만원 이상	(250)	8.4	43.6	52.0	34.4	13.6	48.0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이념	진보	(236)	7.2	49.2	56.4	31.4	12.3	43.6	100.0	3.729
	중도	(418)	7.7	47.1	54.8	34.0	11.2	45.2	100.0	
	보수	(351)	10.0	47.0	57.0	33.9	9.1	43.0	100.0	

[문5-19]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단위 : %)

19)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11.1	49.6	60.7	29.0	10.3	39.3	100.0	
<b>성별</b>									
남자	(499)	11.8	46.5	58.3	31.5	10.2	41.7	100.0	4.451
여자	(506)	10.5	52.6	63.0	26.5	10.5	37.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2.5	47.7	60.2	31.8	8.0	39.8	100.0	17.714
만30세-만39세	(183)	9.3	55.7	65.0	26.2	8.7	35.0	100.0	
만40세-만49세	(211)	13.3	47.4	60.7	28.9	10.4	39.3	100.0	
만50세-만59세	(199)	9.5	53.3	62.8	30.2	7.0	37.2	100.0	
만60세 이상	(236)	11.0	44.9	55.9	28.0	16.1	44.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4.4	46.7	61.1	24.0	15.0	38.9	100.0	8.840
고졸 이하	(432)	10.2	50.0	60.2	31.0	8.8	39.8	100.0	
대졸 이상	(406)	10.8	50.2	61.1	28.8	10.1	38.9	100.0	
<b>지역</b>									
서울	(202)	14.9	45.5	60.4	30.7	8.9	39.6	100.0	62.108***
인천/경기	(298)	14.4	45.6	60.1	29.2	10.7	39.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1.3	71.7	83.0	11.3	5.7	17.0	100.0	
광주/전라	(101)	10.9	53.5	64.4	30.7	5.0	35.6	100.0	
대구/경북	(102)	3.9	48.0	52.0	28.4	19.6	48.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2	44.5	49.7	36.1	14.2	50.3	100.0	
강원/제주	(41)	9.8	53.7	63.4	34.1	2.4	36.6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35.7	50.0	32.1	17.9	50.0	100.0	30.355
관리직	(19)	21.1	57.9	78.9	10.5	10.5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40.5	47.6	35.7	16.7	52.4	100.0	
사무직	(84)	13.1	60.7	73.8	19.0	7.1	26.2	100.0	
판매직	(217)	10.1	49.3	59.4	32.7	7.8	40.6	100.0	
서비스직	(254)	9.8	51.6	61.4	30.7	7.9	38.6	100.0	
생산직	(24)	16.7	41.7	58.3	29.2	12.5	41.7	100.0	
농어민	(32)	9.4	37.5	46.9	37.5	15.6	53.1	100.0	
미취업	(277)	11.6	50.2	61.7	26.0	12.3	38.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0.7	44.6	55.4	25.6	19.0	44.6	100.0	23.57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4.3	45.6	59.9	31.9	8.2	40.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9.7	54.2	63.9	30.1	6.0	36.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9.7	51.1	60.8	29.6	9.7	39.2	100.0	
500만원 이상	(250)	11.6	50.8	62.4	27.6	10.0	37.6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1.0	53.4	64.4	29.2	6.4	35.6	100.0	8.277
중도	(418)	12.0	46.7	58.6	30.6	10.8	41.4	100.0	
보수	(351)	10.3	50.4	60.7	26.8	12.5	39.3	100.0	

[문6-1]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통일 이 후에 상 당 기간 동안 남북한 지역간 경제적 감수해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23.8	68.8	92.5	6.8	0.7	7.5	100.0	
<b>성별</b>									
남자	(499)	25.7	67.3	93.0	6.2	0.8	7.0	100.0	2.355
여자	(506)	21.9	70.2	92.1	7.3	0.6	7.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9.3	70.5	89.8	9.7	0.6	10.2	100.0	12.646
만30세-만39세	(183)	23.5	68.9	92.3	7.1	0.5	7.7	100.0	
만40세-만49세	(211)	26.5	68.2	94.8	4.7	0.5	5.2	100.0	
만50세-만59세	(199)	20.6	72.9	93.5	5.0	1.5	6.5	100.0	
만60세 이상	(236)	27.5	64.4	91.9	7.6	0.4	8.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2.2	71.3	93.4	6.6	0.0	6.6	100.0	5.878
고졸 이하	(432)	24.3	67.4	91.7	6.9	1.4	8.3	100.0	
대졸 이상	(406)	23.9	69.2	93.1	6.7	0.2	6.9	100.0	
<b>지역</b>									
서울	(202)	19.3	72.8	92.1	6.4	1.5	7.9	100.0	54.526***
인천/경기	(298)	30.9	62.4	93.3	5.7	1.0	6.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71.7	92.5	7.5	0.0	7.5	100.0	
광주/전라	(101)	37.6	59.4	97.0	3.0	0.0	3.0	100.0	
대구/경북	(102)	23.5	74.5	98.0	2.0	0.0	2.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0 17.1	75.5 70.7	86.5 87.8	12.9 12.2	0.6 0.0	13.5 12.2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25.0	62.5	87.5	10.7	1.8	12.5	100.0	37.227*
관리직	(19)	36.8	63.2	10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1.4	69.0	90.5	7.1	2.4	9.5	100.0	
사무직	(84)	14.3	78.6	92.9	7.1	0.0	7.1	100.0	
판매직	(217)	24.0	68.7	92.6	6.5	0.9	7.4	100.0	
서비스직	(254)	25.2	69.3	94.5	4.7	0.8	5.5	100.0	
생산직	(24)	25.0	45.8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25.0	75.0	100.0	0.0	0.0	0.0	100.0	
미취업	(277)	24.2	68.2	92.4	7.2	0.4	7.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2.0	66.7	88.7	9.5	1.8	11.3	100.0	19.6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9.7	67.0	96.7	3.3	0.0	3.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4	74.1	93.5	6.5	0.0	6.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5.8	67.2	93.0	5.9	1.1	7.0	100.0	
500만원 이상	(250)	23.2	68.0	91.2	8.4	0.4	8.8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27.1	67.8	94.9	5.1	0.0	5.1	100.0	9.387
중도	(418)	25.6	66.7	92.3	6.9	0.7	7.7	100.0	
보수	(351)	19.4	71.8	91.2	7.7	1.1	8.8	100.0	

[문6-2]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통일 이후 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 주민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 지 않다	(4)전 혀 그렇 지 않다	③+④	모름/ 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14.1	58.3	72.4	22.2	5.2	27.4	0.2	100.0	
성별	남자	(499)	16.2	60.3	76.6	18.0	5.4	23.4	0.0	100.0	11.598**
	여자	(506)	12.1	56.3	68.4	26.3	4.9	31.2	0.4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6.8	55.7	62.5	26.7	10.2	36.9	0.6	100.0	37.303***
	만30세-만39세	(183)	13.1	51.9	65.0	28.4	6.6	35.0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3.3	59.2	72.5	23.2	4.3	27.5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17.6	62.3	79.9	16.6	3.0	19.6	0.5	100.0	
	만60세 이상	(236)	18.2	61.0	79.2	17.8	3.0	20.8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8.6	59.3	77.8	19.2	2.4	21.6	0.6	100.0	6.999
	고졸 이하	(432)	13.9	57.6	71.5	22.5	5.8	28.2	0.2	100.0	
	대졸 이상	(406)	12.6	58.6	71.2	23.2	5.7	28.8	0.0	100.0	
지역	서울	(202)	11.9	61.9	73.8	20.8	4.5	25.2	1.0	100.0	31.727*
	인천/경기	(298)	15.4	62.1	77.5	19.1	3.4	22.5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4.2	50.9	65.1	29.2	5.7	34.9	0.0	100.0	
	광주/전라	(101)	10.9	63.4	74.3	16.8	8.9	25.7	0.0	100.0	
	대구/경북	(102)	17.6	45.1	62.7	26.5	10.8	37.3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2.9 19.5	60.6 43.9	73.5 63.4	22.6 34.1	3.9 2.4	26.5 36.6	0.0 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10.7	58.9	69.6	23.2	7.1	30.4	0.0	100.0	19.192
	관리직	(19)	21.1	52.6	73.7	21.1	5.3	26.3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59.5	78.6	14.3	7.1	21.4	0.0	100.0	
	사무직	(84)	8.3	58.3	66.7	29.8	2.4	32.1	1.2	100.0	
	판매직	(217)	17.1	53.5	70.5	23.0	6.5	29.5	0.0	100.0	
	서비스직	(254)	14.2	59.8	74.0	20.5	5.1	25.6	0.4	100.0	
	생산직	(24)	8.3	62.5	70.8	29.2	0.0	29.2	0.0	100.0	
	농어민	(32)	18.8	68.8	87.5	9.4	3.1	12.5	0.0	100.0	
	미취업	(277)	13.0	59.2	72.2	22.7	5.1	27.8	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7.9	51.8	69.6	23.2	7.1	30.4	0.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7.6	61.0	78.6	18.1	2.7	20.9	0.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4	58.3	71.8	24.1	4.2	28.2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3	58.6	69.9	26.3	3.8	30.1	0.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1.6 33.3	60.4 66.7	72.0 100.0	20.0 0.0	7.6 0.0	27.6 0.0	0.4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14.0	55.9	69.9	25.4	4.7	30.1	0.0	100.0	4.180
	중도	(418)	13.2	59.6	72.7	20.6	6.2	26.8	0.5	100.0	
	보수	(351)	15.4	58.4	73.8	21.9	4.3	26.2	0.0	100.0	

[문7-1]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1) 남북 간 자유 방문	사례수 (명)	(1)서둘 추진해 야 한다	(2)점진 추진해 야 한다	①+②	(3)상당 기간 유예해 야 한다	(4)통일 후에 추진하 야 한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1.4</b>	<b>62.3</b>	<b>83.7</b>	<b>16.1</b>	<b>0.2</b>	<b>16.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2.6	60.3	83.0	16.8	0.2	17.0	100.0	1.656
여자	(506)	20.2	64.2	84.4	15.4	0.2	15.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4.4	57.4	81.8	17.6	0.6	18.2	100.0	11.165
만30세-만39세	(183)	16.4	67.8	84.2	15.3	0.5	15.8	100.0	
만40세-만49세	(211)	23.7	61.1	84.8	15.2	0.0	15.2	100.0	
만50세-만59세	(199)	22.1	64.3	86.4	13.6	0.0	13.6	100.0	
만60세 이상	(236)	20.3	61.0	81.4	18.6	0.0	18.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2	64.1	80.2	19.8	0.0	19.8	100.0	7.666
고졸 이하	(432)	21.5	61.8	83.3	16.2	0.5	16.7	100.0	
대졸 이상	(406)	23.4	62.1	85.5	14.5	0.0	14.5	100.0	
<b>지역</b>									
서울	(202)	24.8	60.9	85.6	14.4	0.0	14.4	100.0	34.344*
인천/경기	(298)	17.1	65.1	82.2	17.8	0.0	17.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70.8	91.5	8.5	0.0	8.5	100.0	
광주/전라	(101)	23.8	60.4	84.2	15.8	0.0	15.8	100.0	
대구/경북	(102)	27.5	52.0	79.4	18.6	2.0	20.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9.4 24.4	60.6 63.4	80.0 87.8	20.0 12.2	0.0 0.0	20.0 12.2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21.4	60.7	82.1	17.9	0.0	17.9	100.0	16.582
관리직	(19)	31.6	52.6	84.2	15.8	0.0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69.0	88.1	11.9	0.0	11.9	100.0	
사무직	(84)	20.2	70.2	90.5	9.5	0.0	9.5	100.0	
판매직	(217)	18.0	62.2	80.2	19.8	0.0	19.8	100.0	
서비스직	(254)	22.4	61.8	84.3	15.4	0.4	15.7	100.0	
생산직	(24)	4.2	75.0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21.9	59.4	81.3	18.8	0.0	18.8	100.0	
미취업	(277)	24.5	59.6	84.1	15.5	0.4	15.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3.2	57.1	80.4	19.6	0.0	19.6	100.0	14.2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8	68.1	87.9	11.5	0.5	12.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7.6	66.7	84.3	15.7	0.0	15.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4.2	60.8	84.9	14.5	0.5	15.1	100.0	
500만원 이상	(250)	22.4	58.8	81.2	18.8	0.0	18.8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2.5	64.8	87.3	12.3	0.4	12.7	100.0	6.424
중도	(418)	22.5	59.3	81.8	17.9	0.2	18.2	100.0	
보수	(351)	19.4	64.1	83.5	16.5	0.0	16.5	100.0	

[문7-2]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2) 자유로운 거주 이전	사례수 (명)	(1)서둘 러 추진해 야 한다	(2)정중 으로 추진 해야 한다	①+②	(3)상당 기간 유 예해야 한다	(4)통일 후에 하 추진하 야 한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11.8</b>	<b>55.7</b>	<b>67.6</b>	<b>32.1</b>	<b>0.3</b>	<b>32.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4.2	53.3	67.5	32.3	0.2	32.5	100.0	6.133
여자	(506)	9.5	58.1	67.6	32.0	0.4	32.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3.6	48.9	62.5	36.9	0.6	37.5	100.0	9.049
만30세-만39세	(183)	10.4	53.6	63.9	36.1	0.0	36.1	100.0	
만40세-만49세	(211)	10.9	59.7	70.6	28.9	0.5	29.4	100.0	
만50세-만59세	(199)	13.1	56.8	69.8	30.2	0.0	30.2	100.0	
만60세 이상	(236)	11.4	58.1	69.5	30.1	0.4	30.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9.6	60.5	70.1	29.3	0.6	29.9	100.0	3.874
고졸 이하	(432)	11.3	56.3	67.6	32.2	0.2	32.4	100.0	
대졸 이상	(406)	13.3	53.2	66.5	33.3	0.2	33.5	100.0	
<b>지역</b>									
서울	(202)	11.9	55.4	67.3	32.2	0.5	32.7	100.0	29.081*
인천/경기	(298)	9.7	58.4	68.1	31.9	0.0	31.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66.0	81.1	18.9	0.0	18.9	100.0	
광주/전라	(101)	7.9	54.5	62.4	36.6	1.0	37.6	100.0	
대구/경북	(102)	15.7	53.9	69.6	30.4	0.0	30.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2.3	44.5	56.8	42.6	0.6	43.2	100.0	
강원/제주	(41)	17.1	61.0	78.0	22.0	0.0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50.0	66.1	33.9	0.0	33.9	100.0	30.743
관리직	(19)	31.6	42.1	73.7	26.3	0.0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54.8	61.9	35.7	2.4	38.1	100.0	
사무직	(84)	13.1	47.6	60.7	39.3	0.0	39.3	100.0	
판매직	(217)	11.1	59.0	70.0	30.0	0.0	30.0	100.0	
서비스직	(254)	10.2	53.9	64.2	35.8	0.0	35.8	100.0	
생산직	(24)	0.0	62.5	62.5	37.5	0.0	37.5	100.0	
농어민	(32)	9.4	65.6	75.0	25.0	0.0	25.0	100.0	
미취업	(277)	13.4	57.8	71.1	28.2	0.7	28.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1.3	60.7	72.0	27.4	0.6	28.0	100.0	17.90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0	62.1	73.1	26.9	0.0	26.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4	57.4	70.8	29.2	0.0	29.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0.8	52.7	63.4	36.6	0.0	36.6	100.0	
500만원 이상	(250)	12.0	48.4	60.4	38.8	0.8	39.6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0.6	58.9	69.5	29.7	0.8	30.5	100.0	7.408
중도	(418)	13.6	52.9	66.5	33.5	0.0	33.5	100.0	
보수	(351)	10.5	57.0	67.5	32.2	0.3	32.5	100.0	

[문7-3]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3) 남북 간 동시 선거	사례수 (명)	(1)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2)정진 추진해야 한다	①+②	(3)상당 기간 유예해야 한다	(4)통일 후에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5.6</b>	<b>54.3</b>	<b>70.0</b>	<b>28.4</b>	<b>1.7</b>	<b>30.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7.6	52.3	69.9	28.7	1.4	30.1	100.0	3.839
여자	(506)	13.6	56.3	70.0	28.1	2.0	30.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0.5	50.6	71.0	26.7	2.3	29.0	100.0	12.272
만30세-만39세	(183)	11.5	58.5	69.9	27.3	2.7	30.1	100.0	
만40세-만49세	(211)	17.1	54.0	71.1	28.4	0.5	28.9	100.0	
만50세-만59세	(199)	17.1	52.8	69.8	29.1	1.0	30.2	100.0	
만60세 이상	(236)	12.7	55.5	68.2	29.7	2.1	31.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8.4	56.9	65.3	32.3	2.4	34.7	100.0	11.167
고졸 이하	(432)	16.9	53.5	70.4	28.7	0.9	29.6	100.0	
대졸 이상	(406)	17.2	54.2	71.4	26.4	2.2	28.6	100.0	
<b>지역</b>									
서울	(202)	13.9	55.0	68.8	28.7	2.5	31.2	100.0	25.451
인천/경기	(298)	16.4	53.7	70.1	28.9	1.0	29.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8	66.0	85.8	13.2	0.9	14.2	100.0	
광주/전라	(101)	8.9	57.4	66.3	32.7	1.0	33.7	100.0	
대구/경북	(102)	16.7	52.0	68.6	29.4	2.0	31.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8.1	45.2	63.2	34.2	2.6	36.8	100.0	
강원/제주	(41)	12.2	58.5	70.7	26.8	2.4	29.3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51.8	67.9	26.8	5.4	32.1	100.0	17.703
관리직	(19)	26.3	47.4	73.7	26.3	0.0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50.0	69.0	28.6	2.4	31.0	100.0	
사무직	(84)	15.5	56.0	71.4	26.2	2.4	28.6	100.0	
판매직	(217)	16.1	51.2	67.3	32.3	0.5	32.7	100.0	
서비스직	(254)	14.2	56.3	70.5	27.2	2.4	29.5	100.0	
생산직	(24)	4.2	66.7	70.8	25.0	4.2	29.2	100.0	
농어민	(32)	12.5	59.4	71.9	28.1	0.0	28.1	100.0	
미취업	(277)	16.6	54.5	71.1	27.8	1.1	28.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2.5	54.8	67.3	30.4	2.4	32.7	100.0	21.37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9.9	63.7	73.6	24.7	1.6	26.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8	55.1	69.9	27.8	2.3	30.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7.2	54.3	71.5	28.0	0.5	28.5	100.0	
500만원 이상	(250)	21.6	46.4	68.0	30.8	1.2	32.0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4.8	55.5	70.3	28.0	1.7	29.7	100.0	0.851
중도	(418)	16.7	53.8	70.6	27.8	1.7	29.4	100.0	
보수	(351)	14.8	54.1	68.9	29.3	1.7	31.1	100.0	

[문7-4]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4) 남한 주둔 주한미군 철수	사례수 (명)	(1)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2)정진 추진해야 한다	①+②	(3)상당 기간 유예해야 한다	(4)통일 후에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9.6	39.5	49.1	40.2	10.7	50.9	100.0	
<b>성별</b>									
남자	(499)	10.0	39.3	49.3	38.7	12.0	50.7	100.0	2.316
여자	(506)	9.1	39.7	48.8	41.7	9.5	51.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9	38.1	50.0	38.6	11.4	50.0	100.0	30.559**
만30세-만39세	(183)	8.7	35.0	43.7	43.7	12.6	56.3	100.0	
만40세-만49세	(211)	11.4	46.0	57.3	37.4	5.2	42.7	100.0	
만50세-만59세	(199)	9.5	44.2	53.8	39.7	6.5	46.2	100.0	
만60세 이상	(236)	6.8	34.3	41.1	41.5	17.4	58.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7.8	30.5	38.3	47.3	14.4	61.7	100.0	18.313**
고졸 이하	(432)	7.2	41.9	49.1	39.6	11.3	50.9	100.0	
대졸 이상	(406)	12.8	40.6	53.4	37.9	8.6	46.6	100.0	
<b>지역</b>									
서울	(202)	11.4	37.6	49.0	44.6	6.4	51.0	100.0	55.613***
인천/경기	(298)	6.7	41.3	48.0	39.3	12.8	52.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0.4	45.3	55.7	31.1	13.2	44.3	100.0	
광주/전라	(101)	5.9	38.6	44.6	37.6	17.8	55.4	100.0	
대구/경북	(102)	5.9	39.2	45.1	42.2	12.7	54.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8.7	29.7	48.4	47.1	4.5	51.6	100.0	
강원/제주	(41)	2.4	61.0	63.4	24.4	12.2	36.6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32.1	46.4	37.5	16.1	53.6	100.0	19.858
관리직	(19)	10.5	52.6	63.2	31.6	5.3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38.1	52.4	31.0	16.7	47.6	100.0	
사무직	(84)	9.5	42.9	52.4	41.7	6.0	47.6	100.0	
판매직	(217)	10.1	37.8	47.9	42.4	9.7	52.1	100.0	
서비스직	(254)	8.7	40.9	49.6	39.4	11.0	50.4	100.0	
생산직	(24)	12.5	29.2	41.7	58.3	0.0	58.3	100.0	
농어민	(32)	3.1	43.8	46.9	43.8	9.4	53.1	100.0	
미취업	(277)	8.7	39.7	48.4	39.4	12.3	51.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	34.5	39.3	46.4	14.3	60.7	100.0	18.74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9.9	39.0	48.9	40.7	10.4	51.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8.3	43.5	51.9	40.3	7.9	48.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5	41.4	55.9	33.9	10.2	44.1	100.0	
500만원 이상	(250)	10.0	38.4	48.4	40.0	11.6	51.6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66.7	0.0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1.0	42.8	53.8	38.1	8.1	46.2	100.0	14.932*
중도	(418)	12.2	38.5	50.7	38.5	10.8	49.3	100.0	
보수	(351)	5.4	38.5	43.9	43.6	12.5	56.1	100.0	

[문7-5]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5) 북한의 당, 국가, 군대 해산	사례수 (명)	(1)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2)점진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②	(3)상당 기간 유예해 야 한다	(4)통일 이후 추진하 지 말아야 한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1.5</b>	<b>42.8</b>	<b>74.3</b>	<b>21.1</b>	<b>4.6</b>	<b>25.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1.9	41.3	73.1	21.8	5.0	26.9	100.0	1.226
여자	(506)	31.2	44.3	75.5	20.4	4.2	24.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1.8	45.5	77.3	18.8	4.0	22.7	100.0	7.758
만30세-만39세	(183)	33.9	39.9	73.8	21.9	4.4	26.2	100.0	
만40세-만49세	(211)	30.8	45.5	76.3	19.4	4.3	23.7	100.0	
만50세-만59세	(199)	31.2	44.7	75.9	21.1	3.0	24.1	100.0	
만60세 이상	(236)	30.5	39.0	69.5	23.7	6.8	30.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8.1	41.3	69.5	24.6	6.0	30.5	100.0	9.412
고졸 이하	(432)	29.6	43.3	72.9	21.3	5.8	27.1	100.0	
대졸 이상	(406)	35.0	42.9	77.8	19.5	2.7	22.2	100.0	
<b>지역</b>									
서울	(202)	27.2	40.6	67.8	25.2	6.9	32.2	100.0	53.829***
인천/경기	(298)	38.3	36.2	74.5	21.1	4.4	25.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6.4	56.6	83.0	14.2	2.8	17.0	100.0	
광주/전라	(101)	27.7	46.5	74.3	21.8	4.0	25.7	100.0	
대구/경북	(102)	41.2	44.1	85.3	5.9	8.8	14.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3.2	47.1	70.3	28.4	1.3	29.7	100.0	
강원/제주	(41)	34.1	36.6	70.7	26.8	2.4	29.3	100.0	
<b>직업</b>									
전문직	(56)	35.7	33.9	69.6	25.0	5.4	30.4	100.0	28.502
관리직	(19)	36.8	42.1	78.9	15.8	5.3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5.2	23.8	69.0	26.2	4.8	31.0	100.0	
사무직	(84)	31.0	51.2	82.1	16.7	1.2	17.9	100.0	
판매직	(217)	29.0	44.7	73.7	22.1	4.1	26.3	100.0	
서비스직	(254)	36.6	37.8	74.4	20.9	4.7	25.6	100.0	
생산직	(24)	20.8	62.5	83.3	16.7	0.0	16.7	100.0	
농어민	(32)	37.5	46.9	84.4	12.5	3.1	15.6	100.0	
미취업	(277)	26.0	45.8	71.8	22.0	6.1	28.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9.8	34.5	64.3	28.0	7.7	35.7	100.0	24.15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9.7	44.5	74.2	20.9	4.9	25.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9.2	49.5	78.7	16.7	4.6	21.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8	47.3	80.1	18.8	1.1	19.9	100.0	
500만원 이상	(250)	34.8	38.0	72.8	22.4	4.8	27.2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9.7	47.9	77.5	20.8	1.7	22.5	100.0	8.129
중도	(418)	32.8	41.1	73.9	20.6	5.5	26.1	100.0	
보수	(351)	31.3	41.3	72.6	21.9	5.4	27.4	100.0	

[문8-1]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1) 교사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20.0</b>	<b>73.9</b>	<b>6.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9.6	73.3	7.0	100.0	1.566
여자	(506)	20.4	74.5	5.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9.9	73.3	6.8	100.0	8.520
만30세-만39세	(183)	15.3	80.3	4.4	100.0	
만40세-만49세	(211)	20.4	73.5	6.2	100.0	
만50세-만59세	(199)	25.6	68.3	6.0	100.0	
만60세 이상	(236)	18.6	74.6	6.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9.8	73.1	7.2	100.0	9.240
고졸 이하	(432)	22.7	69.9	7.4	100.0	
대졸 이상	(406)	17.2	78.6	4.2	100.0	
<b>지역</b>						
서울	(202)	24.3	72.3	3.5	100.0	24.327*
인천/경기	(298)	15.8	75.2	9.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8	76.4	3.8	100.0	
광주/전라	(101)	17.8	79.2	3.0	100.0	
대구/경북	(102)	18.6	75.5	5.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6.5	68.4	5.2	100.0	
강원/제주	(41)	14.6	70.7	14.6	100.0	
<b>직업</b>						
전문직	(56)	23.2	64.3	12.5	100.0	14.778
관리직	(19)	26.3	68.4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78.6	9.5	100.0	
사무직	(84)	14.3	81.0	4.8	100.0	
판매직	(217)	18.9	75.6	5.5	100.0	
서비스직	(254)	21.3	72.8	5.9	100.0	
생산직	(24)	33.3	62.5	4.2	100.0	
농어민	(32)	28.1	68.8	3.1	100.0	
미취업	(277)	19.5	74.7	5.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9.6	73.2	7.1	100.0	16.16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6.4	66.5	7.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2.7	71.8	5.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5	77.4	8.1	100.0	
500만원 이상	(250)	17.6	79.2	3.2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8.2	76.3	5.5	100.0	1.826
중도	(418)	21.1	73.4	5.5	100.0	
보수	(351)	19.9	72.9	7.1	100.0	

[문8-2]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2) 대학교수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0.5</b>	<b>72.2</b>	<b>7.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1.0	70.9	8.0	100.0	1.146
여자	(506)	20.0	73.5	6.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1.0	69.3	9.7	100.0	8.927
만30세-만39세	(183)	15.3	79.2	5.5	100.0	
만40세-만49세	(211)	19.9	73.5	6.6	100.0	
만50세-만59세	(199)	24.1	69.8	6.0	100.0	
만60세 이상	(236)	21.6	69.9	8.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2.8	68.9	8.4	100.0	9.974*
고졸 이하	(432)	22.9	68.5	8.6	100.0	
대졸 이상	(406)	17.0	77.6	5.4	100.0	
<b>지역</b>						
서울	(202)	25.2	65.8	8.9	100.0	24.156*
인천/경기	(298)	14.8	75.8	9.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6.4	69.8	3.8	100.0	
광주/전라	(101)	19.8	77.2	3.0	100.0	
대구/경북	(102)	15.7	79.4	4.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2	68.4	6.5	100.0	
강원/제주	(41)	19.5	68.3	12.2	100.0	
<b>직업</b>						
전문직	(56)	19.6	67.9	12.5	100.0	18.623
관리직	(19)	31.6	63.2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6.7	71.4	11.9	100.0	
사무직	(84)	14.3	75.0	10.7	100.0	
판매직	(217)	21.2	72.8	6.0	100.0	
서비스직	(254)	22.4	72.4	5.1	100.0	
생산직	(24)	37.5	58.3	4.2	100.0	
농어민	(32)	28.1	68.8	3.1	100.0	
미취업	(277)	17.7	74.0	8.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7.9	73.2	8.9	100.0	11.06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4.7	68.1	7.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4.5	69.4	6.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1	74.2	9.7	100.0	
500만원 이상	(250)	19.2	75.6	5.2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8.2	73.7	8.1	100.0	2.692
중도	(418)	21.1	73.0	6.0	100.0	
보수	(351)	21.4	70.4	8.3	100.0	

[문8-3]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3) 의사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31.9</b>	<b>61.7</b>	<b>6.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4.9	58.5	6.6	100.0	4.375
여자	(506)	29.1	64.8	6.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7	58.5	6.8	100.0	5.332
만30세-만39세	(183)	26.2	67.8	6.0	100.0	
만40세-만49세	(211)	35.1	59.2	5.7	100.0	
만50세-만59세	(199)	33.2	60.8	6.0	100.0	
만60세 이상	(236)	30.5	62.3	7.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0.5	61.7	7.8	100.0	3.074
고졸 이하	(432)	34.0	59.3	6.7	100.0	
대졸 이상	(406)	30.3	64.3	5.4	100.0	
<b>지역</b>						
서울	(202)	37.6	53.5	8.9	100.0	49.939***
인천/경기	(298)	25.8	66.8	7.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1.1	64.2	4.7	100.0	
광주/전라	(101)	26.7	68.3	5.0	100.0	
대구/경북	(102)	21.6	72.5	5.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0.3	47.7	1.9	100.0	
강원/제주	(41)	19.5	68.3	12.2	100.0	
<b>직업</b>						
전문직	(56)	23.2	66.1	10.7	100.0	11.118
관리직	(19)	31.6	68.4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1.0	64.3	4.8	100.0	
사무직	(84)	28.6	64.3	7.1	100.0	
판매직	(217)	33.6	59.9	6.5	100.0	
서비스직	(254)	31.9	62.2	5.9	100.0	
생산직	(24)	50.0	50.0	0.0	100.0	
농어민	(32)	31.3	65.6	3.1	100.0	
미취업	(277)	32.1	60.6	7.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0.4	58.3	11.3	100.0	14.02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1.9	61.5	6.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8.0	58.3	3.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0.1	64.5	5.4	100.0	
500만원 이상	(250)	29.6	64.8	5.6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29.7	66.1	4.2	100.0	5.367
중도	(418)	33.3	60.8	6.0	100.0	
보수	(351)	31.9	59.8	8.3	100.0	

[문8-4]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4) 군인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18.1</b>	<b>62.2</b>	<b>19.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8.8	60.7	20.4	100.0	0.909
여자	(506)	17.4	63.6	19.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1.6	60.2	18.2	100.0	4.433
만30세-만39세	(183)	14.2	66.1	19.7	100.0	
만40세-만49세	(211)	18.0	61.1	20.9	100.0	
만50세-만59세	(199)	20.1	60.3	19.6	100.0	
만60세 이상	(236)	16.9	63.1	19.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8.6	61.7	19.8	100.0	4.088
고졸 이하	(432)	19.4	59.0	21.5	100.0	
대졸 이상	(406)	16.5	65.8	17.7	100.0	
<b>지역</b>						
서울	(202)	23.8	64.4	11.9	100.0	72.339***
인천/경기	(298)	17.1	51.7	31.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71.7	7.5	100.0	
광주/전라	(101)	9.9	81.2	8.9	100.0	
대구/경북	(102)	14.7	55.9	29.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0.6	64.5	14.8	100.0	
강원/제주	(41)	9.8	63.4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62.5	21.4	100.0	7.898
관리직	(19)	21.1	47.4	31.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66.7	21.4	100.0	
사무직	(84)	17.9	63.1	19.0	100.0	
판매직	(217)	20.7	61.8	17.5	100.0	
서비스직	(254)	17.7	65.0	17.3	100.0	
생산직	(24)	12.5	62.5	25.0	100.0	
농어민	(32)	21.9	59.4	18.8	100.0	
미취업	(277)	17.7	60.3	22.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7.3	60.7	22.0	100.0	2.90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2	61.0	19.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7.6	63.0	19.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6	64.5	19.9	100.0	
500만원 이상	(250)	20.4	62.0	17.6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5.3	62.7	22.0	100.0	3.986
중도	(418)	18.2	64.1	17.7	100.0	
보수	(351)	19.9	59.5	20.5	100.0	

[문8-5]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5) 공무원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14.9</b>	<b>69.2</b>	<b>15.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5.2	67.9	16.8	100.0	0.794
여자	(506)	14.6	70.4	15.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4.8	68.8	16.5	100.0	9.437
만30세-만39세	(183)	10.9	74.9	14.2	100.0	
만40세-만49세	(211)	12.8	67.8	19.4	100.0	
만50세-만59세	(199)	19.1	67.8	13.1	100.0	
만60세 이상	(236)	16.5	67.4	16.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2	70.7	13.2	100.0	5.469
고졸 이하	(432)	17.1	66.7	16.2	100.0	
대졸 이상	(406)	12.1	71.2	16.7	100.0	
<b>지역</b>						
서울	(202)	17.3	70.8	11.9	100.0	66.053***
인천/경기	(298)	11.1	61.1	27.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8.9	72.6	8.5	100.0	
광주/전라	(101)	13.9	79.2	6.9	100.0	
대구/경북	(102)	9.8	70.6	19.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1.9	72.3	5.8	100.0	
강원/제주	(41)	9.8	70.7	19.5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66.1	21.4	100.0	12.171
관리직	(19)	21.1	52.6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76.2	16.7	100.0	
사무직	(84)	10.7	75.0	14.3	100.0	
판매직	(217)	18.0	67.7	14.3	100.0	
서비스직	(254)	13.8	71.7	14.6	100.0	
생산직	(24)	20.8	62.5	16.7	100.0	
농어민	(32)	21.9	62.5	15.6	100.0	
미취업	(277)	14.8	68.2	17.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9	69.0	16.1	100.0	12.75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7.6	61.5	20.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4	74.5	12.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3	74.7	14.0	100.0	
500만원 이상	(250)	17.2	66.0	16.8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3.6	67.4	19.1	100.0	5.934
중도	(418)	14.4	72.5	13.2	100.0	
보수	(351)	16.5	66.4	17.1	100.0	

[문8-6]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단위 : %)

6) 법률인	사례수 (명)	(1)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2)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3)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13.2</b>	<b>70.2</b>	<b>16.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4.0	69.1	16.8	100.0	0.706
여자	(506)	12.5	71.3	16.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4	70.5	18.2	100.0	6.954
만30세-만39세	(183)	9.8	71.6	18.6	100.0	
만40세-만49세	(211)	13.7	69.2	17.1	100.0	
만50세-만59세	(199)	15.6	72.4	12.1	100.0	
만60세 이상	(236)	14.8	68.2	16.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5.6	68.3	16.2	100.0	7.828
고졸 이하	(432)	15.5	69.7	14.8	100.0	
대졸 이상	(406)	9.9	71.7	18.5	100.0	
<b>지역</b>						
서울	(202)	10.9	72.8	16.3	100.0	41.547***
인천/경기	(298)	12.1	62.8	25.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4.2	78.3	7.5	100.0	
광주/전라	(101)	13.9	77.2	8.9	100.0	
대구/경북	(102)	15.7	62.7	21.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7.4	74.8	7.7	100.0	
강원/제주	(41)	7.3	75.6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67.9	17.9	100.0	15.995
관리직	(19)	15.8	73.7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9.5	69.0	21.4	100.0	
사무직	(84)	7.1	75.0	17.9	100.0	
판매직	(217)	15.7	71.9	12.4	100.0	
서비스직	(254)	15.4	69.7	15.0	100.0	
생산직	(24)	16.7	66.7	16.7	100.0	
농어민	(32)	21.9	56.3	21.9	100.0	
미취업	(277)	10.1	70.4	19.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9	66.1	19.0	100.0	12.57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7.6	63.7	18.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0	74.5	12.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9.1	76.3	14.5	100.0	
500만원 이상	(250)	12.4	69.6	18.0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0.2	74.2	15.7	100.0	5.534
중도	(418)	15.3	69.6	15.1	100.0	
보수	(351)	12.8	68.4	18.8	100.0	

[문9-1]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 않음	(4)전혀 중요하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2.9</b>	<b>47.2</b>	<b>80.1</b>	<b>18.3</b>	<b>1.6</b>	<b>19.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1.7	48.3	80.0	18.4	1.6	20.0	100.0	0.766
	여자 (506)	34.2	46.0	80.2	18.2	1.6	19.8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5.6	45.5	71.0	25.6	3.4	29.0	100.0	36.428***
	만30세-만39세 (183)	30.1	43.2	73.2	24.0	2.7	26.8	100.0	
	만40세-만49세 (211)	36.0	43.6	79.6	19.9	0.5	20.4	100.0	
	만50세-만59세 (199)	32.2	51.8	83.9	15.1	1.0	16.1	100.0	
	만60세 이상 (236)	38.6	50.8	89.4	9.7	0.8	10.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5.9	53.9	89.8	9.6	0.6	10.2	100.0	16.815**
	고졸 이하 (432)	32.9	48.1	81.0	17.4	1.6	19.0	100.0	
	대졸 이상 (406)	31.8	43.3	75.1	22.9	2.0	24.9	100.0	
<b>지역</b>	서울 (202)	29.2	51.0	80.2	18.8	1.0	19.8	100.0	63.205***
	인천/경기 (298)	37.6	43.3	80.9	17.1	2.0	19.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6.4	50.0	76.4	20.8	2.8	23.6	100.0	
	광주/전라 (101)	48.5	33.7	82.2	17.8	0.0	17.8	100.0	
	대구/경북 (102)	34.3	48.0	82.4	15.7	2.0	17.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8.4	58.7	87.1	11.6	1.3	12.9	100.0	
	강원/제주 (41)	9.8	36.6	46.3	51.2	2.4	53.7	100.0	
<b>직업</b>	전문직 (56)	30.4	44.6	75.0	21.4	3.6	25.0	100.0	24.248
	관리직 (19)	26.3	57.9	84.2	15.8	0.0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35.7	78.6	21.4	0.0	21.4	100.0	
	사무직 (84)	22.6	51.2	73.8	22.6	3.6	26.2	100.0	
	판매직 (217)	35.5	46.1	81.6	17.5	0.9	18.4	100.0	
	서비스직 (254)	37.4	43.3	80.7	18.1	1.2	19.3	100.0	
	생산직 (24)	29.2	58.3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15.6	65.6	81.3	18.8	0.0	18.8	100.0	
	미취업 (277)	31.8	48.7	80.5	17.3	2.2	19.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3.3	50.6	83.9	15.5	0.6	16.1	100.0	11.21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9.0	41.2	80.2	17.6	2.2	19.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1.0	48.6	79.6	19.0	1.4	20.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1.7	47.3	79.0	20.4	0.5	21.0	100.0	
	500만원 이상 (250)	30.4	48.0	78.4	18.8	2.8	21.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0.5	47.5	78.0	20.3	1.7	22.0	100.0	11.026
	중도 (418)	36.8	42.3	79.2	19.6	1.2	20.8	100.0	
	보수 (351)	29.9	52.7	82.6	15.4	2.0	17.4	100.0	

[문9-2]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45.0</b>	<b>44.3</b>	<b>89.3</b>	<b>10.0</b>	<b>0.7</b>	<b>10.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4.1	46.1	90.2	9.0	0.8	9.8	100.0	2.116
여자	(506)	45.8	42.5	88.3	11.1	0.6	11.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0.9	43.8	84.7	14.2	1.1	15.3	100.0	18.606
만30세-만39세	(183)	37.2	48.1	85.2	13.7	1.1	14.8	100.0	
만40세-만49세	(211)	47.4	44.1	91.5	8.1	0.5	8.5	100.0	
만50세-만59세	(199)	46.2	42.7	88.9	10.6	0.5	11.1	100.0	
만60세 이상	(236)	50.8	43.2	94.1	5.5	0.4	5.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0.3	44.9	95.2	4.8	0.0	4.8	100.0	8.761
고졸 이하	(432)	44.4	44.2	88.7	10.4	0.9	11.3	100.0	
대졸 이상	(406)	43.3	44.1	87.4	11.8	0.7	12.6	100.0	
<b>지역</b>									
서울	(202)	38.6	52.0	90.6	9.4	0.0	9.4	100.0	55.012***
인천/경기	(298)	52.3	37.2	89.6	9.7	0.7	10.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5.3	41.5	86.8	11.3	1.9	13.2	100.0	
광주/전라	(101)	55.4	30.7	86.1	13.9	0.0	13.9	100.0	
대구/경북	(102)	47.1	43.1	90.2	9.8	0.0	9.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7.4	56.8	94.2	4.5	1.3	5.8	100.0	
강원/제주	(41)	19.5	53.7	73.2	24.4	2.4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46.4	35.7	82.1	16.1	1.8	17.9	100.0	24.416
관리직	(19)	36.8	57.9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2.4	38.1	90.5	9.5	0.0	9.5	100.0	
사무직	(84)	38.1	46.4	84.5	13.1	2.4	15.5	100.0	
판매직	(217)	47.0	40.1	87.1	12.4	0.5	12.9	100.0	
서비스직	(254)	47.2	44.1	91.3	8.7	0.0	8.7	100.0	
생산직	(24)	54.2	33.3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34.4	53.1	87.5	12.5	0.0	12.5	100.0	
미취업	(277)	43.0	48.7	91.7	7.2	1.1	8.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4.0	45.8	89.9	9.5	0.6	10.1	100.0	10.4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8.9	39.0	87.9	12.1	0.0	12.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4.4	43.1	87.5	12.0	0.5	12.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1.9	48.9	90.9	8.6	0.5	9.1	100.0	
500만원 이상	(250)	44.8	45.2	90.0	8.4	1.6	10.0	100.0	
모름/무응답	(3)	100.0	0.0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4.5	44.5	89.0	10.6	0.4	11.0	100.0	6.922
중도	(418)	46.2	42.3	88.5	11.2	0.2	11.5	100.0	
보수	(351)	43.9	46.4	90.3	8.3	1.4	9.7	100.0	

[문9-3]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 지 않음	(4)전혀 중요하 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28.6</b>	<b>47.1</b>	<b>75.6</b>	<b>22.1</b>	<b>2.3</b>	<b>24.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8.7	43.5	72.1	25.5	2.4	27.9	100.0	7.827*
여자	(506)	28.5	50.6	79.1	18.8	2.2	20.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2.7	43.8	66.5	27.8	5.7	33.5	100.0	40.200***
만30세-만39세	(183)	19.7	47.5	67.2	29.0	3.8	32.8	100.0	
만40세-만49세	(211)	32.2	46.0	78.2	20.9	0.9	21.8	100.0	
만50세-만59세	(199)	30.7	48.7	79.4	19.1	1.5	20.6	100.0	
만60세 이상	(236)	34.7	48.7	83.5	16.1	0.4	16.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3.5	52.7	86.2	13.2	0.6	13.8	100.0	19.950**
고졸 이하	(432)	27.1	49.8	76.9	21.1	2.1	23.1	100.0	
대졸 이상	(406)	28.1	41.9	70.0	26.8	3.2	30.0	100.0	
<b>지역</b>									
서울	(202)	32.2	36.6	68.8	30.2	1.0	31.2	100.0	98.073***
인천/경기	(298)	30.9	39.9	70.8	24.8	4.4	29.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8	61.3	81.1	17.0	1.9	18.9	100.0	
광주/전라	(101)	45.5	37.6	83.2	14.9	2.0	16.8	100.0	
대구/경북	(102)	19.6	59.8	79.4	20.6	0.0	20.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8	63.9	89.7	9.7	0.6	10.3	100.0	
강원/제주	(41)	7.3	41.5	48.8	43.9	7.3	51.2	100.0	
<b>직업</b>									
전문직	(56)	37.5	33.9	71.4	19.6	8.9	28.6	100.0	45.374**
관리직	(19)	52.6	31.6	84.2	15.8	0.0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6.2	45.2	71.4	28.6	0.0	28.6	100.0	
사무직	(84)	25.0	46.4	71.4	23.8	4.8	28.6	100.0	
판매직	(217)	24.0	49.3	73.3	25.8	0.9	26.7	100.0	
서비스직	(254)	29.9	46.5	76.4	23.2	0.4	23.6	100.0	
생산직	(24)	33.3	41.7	75.0	25.0	0.0	25.0	100.0	
농어민	(32)	18.8	53.1	71.9	28.1	0.0	28.1	100.0	
미취업	(277)	29.6	49.8	79.4	16.6	4.0	20.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9.2	51.2	80.4	17.9	1.8	19.6	100.0	10.16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9.1	47.3	76.4	23.1	0.5	23.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6.4	47.7	74.1	22.7	3.2	25.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6.3	50.0	76.3	21.5	2.2	23.7	100.0	
500만원 이상	(250)	30.8	41.6	72.4	24.4	3.2	27.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5.4	46.6	72.0	27.1	0.8	28.0	100.0	8.913
중도	(418)	29.9	46.9	76.8	21.1	2.2	23.2	100.0	
보수	(351)	29.1	47.6	76.6	19.9	3.4	23.4	100.0	

[문9-4]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 지 않음	(4)전혀 중요하 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9.9</b>	<b>49.8</b>	<b>89.7</b>	<b>9.8</b>	<b>0.6</b>	<b>10.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9.7	48.7	88.4	10.8	0.8	11.6	100.0	2.093
여자	(506)	40.1	50.8	90.9	8.7	0.4	9.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6.4	51.1	87.5	11.4	1.1	12.5	100.0	11.599
만30세-만39세	(183)	34.4	51.9	86.3	12.6	1.1	13.7	100.0	
만40세-만49세	(211)	43.1	48.8	91.9	7.6	0.5	8.1	100.0	
만50세-만59세	(199)	40.7	47.7	88.4	11.1	0.5	11.6	100.0	
만60세 이상	(236)	43.2	49.6	92.8	7.2	0.0	7.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1.9	49.1	91.0	9.0	0.0	9.0	100.0	5.137
고졸 이하	(432)	39.6	50.5	90.0	9.7	0.2	10.0	100.0	
대졸 이상	(406)	39.4	49.3	88.7	10.1	1.2	11.3	100.0	
<b>지역</b>									
서울	(202)	30.2	55.9	86.1	13.9	0.0	13.9	100.0	61.353***
인천/경기	(298)	45.3	45.3	90.6	8.7	0.7	9.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4.3	45.3	89.6	7.5	2.8	10.4	100.0	
광주/전라	(101)	47.5	37.6	85.1	14.9	0.0	14.9	100.0	
대구/경북	(102)	47.1	45.1	92.2	7.8	0.0	7.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1.0	65.8	96.8	3.2	0.0	3.2	100.0	
강원/제주	(41)	34.1	43.9	78.0	19.5	2.4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41.1	48.2	89.3	10.7	0.0	10.7	100.0	17.157
관리직	(19)	47.4	47.4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7.6	40.5	88.1	11.9	0.0	11.9	100.0	
사무직	(84)	33.3	53.6	86.9	10.7	2.4	13.1	100.0	
판매직	(217)	38.7	50.7	89.4	10.6	0.0	10.6	100.0	
서비스직	(254)	44.5	44.5	89.0	10.2	0.8	11.0	100.0	
생산직	(24)	33.3	54.2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31.3	59.4	90.6	9.4	0.0	9.4	100.0	
미취업	(277)	38.3	53.1	91.3	7.9	0.7	8.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3.5	45.8	89.3	10.1	0.6	10.7	100.0	6.18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9.0	50.5	89.6	10.4	0.0	10.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9.8	50.0	89.8	9.3	0.9	10.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4.4	53.8	88.2	11.3	0.5	11.8	100.0	
500만원 이상	(250)	42.0	48.8	90.8	8.4	0.8	9.2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9.0	49.2	88.1	10.6	1.3	11.9	100.0	3.125
중도	(418)	39.7	49.8	89.5	10.0	0.5	10.5	100.0	
보수	(351)	40.7	50.1	90.9	8.8	0.3	9.1	100.0	

[문9-5]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통일한국의 혈통을 가지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30.0</b>	<b>43.6</b>	<b>73.5</b>	<b>23.2</b>	<b>3.3</b>	<b>26.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8.9	42.5	71.3	24.4	4.2	28.7	100.0	3.934
여자	(506)	31.0	44.7	75.7	21.9	2.4	24.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2.2	47.7	69.9	23.9	6.3	30.1	100.0	29.425**
만30세-만39세	(183)	27.9	37.7	65.6	31.1	3.3	34.4	100.0	
만40세-만49세	(211)	31.3	41.2	72.5	24.2	3.3	27.5	100.0	
만50세-만59세	(199)	27.6	47.7	75.4	22.1	2.5	24.6	100.0	
만60세 이상	(236)	38.1	43.6	81.8	16.5	1.7	18.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6.5	43.7	80.2	18.6	1.2	19.8	100.0	11.903
고졸 이하	(432)	28.2	46.5	74.8	22.2	3.0	25.2	100.0	
대졸 이상	(406)	29.1	40.4	69.5	26.1	4.4	30.5	100.0	
<b>지역</b>									
서울	(202)	25.7	43.1	68.8	27.2	4.0	31.2	100.0	60.560***
인천/경기	(298)	27.2	46.6	73.8	23.2	3.0	26.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4.5	45.3	69.8	25.5	4.7	30.2	100.0	
광주/전라	(101)	41.6	30.7	72.3	20.8	6.9	27.7	100.0	
대구/경북	(102)	26.5	44.1	70.6	26.5	2.9	29.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4.5	45.2	89.7	10.3	0.0	10.3	100.0	
강원/제주	(41)	9.8	43.9	53.7	43.9	2.4	46.3	100.0	
<b>직업</b>									
전문직	(56)	39.3	32.1	71.4	21.4	7.1	28.6	100.0	21.218
관리직	(19)	36.8	42.1	78.9	21.1	0.0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8.6	40.5	69.0	28.6	2.4	31.0	100.0	
사무직	(84)	27.4	39.3	66.7	27.4	6.0	33.3	100.0	
판매직	(217)	27.6	44.7	72.4	24.9	2.8	27.6	100.0	
서비스직	(254)	30.7	42.5	73.2	23.6	3.1	26.8	100.0	
생산직	(24)	25.0	54.2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25.0	34.4	59.4	37.5	3.1	40.6	100.0	
미취업	(277)	30.7	48.0	78.7	18.4	2.9	21.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7.5	35.7	73.2	23.2	3.6	26.8	100.0	8.64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5.8	46.2	72.0	25.3	2.7	28.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8.2	44.9	73.1	23.1	3.7	26.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8.5	45.7	74.2	22.0	3.8	25.8	100.0	
500만원 이상	(250)	30.0	44.4	74.4	22.8	2.8	25.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0.9	40.3	71.2	25.0	3.8	28.8	100.0	5.692
중도	(418)	28.0	43.8	71.8	25.4	2.9	28.2	100.0	
보수	(351)	31.6	45.6	77.2	19.4	3.4	22.8	100.0	

[문9-6]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50.4</b>	<b>39.7</b>	<b>90.1</b>	<b>9.8</b>	<b>0.1</b>	<b>9.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9.7	41.1	90.8	9.2	0.0	9.2	100.0	1.861
여자	(506)	51.2	38.3	89.5	10.3	0.2	10.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51.1	33.5	84.7	15.3	0.0	15.3	100.0	24.075*
만30세-만39세	(183)	49.2	37.7	86.9	13.1	0.0	13.1	100.0	
만40세-만49세	(211)	46.4	43.6	90.0	10.0	0.0	10.0	100.0	
만50세-만59세	(199)	51.3	40.2	91.5	8.0	0.5	8.5	100.0	
만60세 이상	(236)	53.8	41.9	95.8	4.2	0.0	4.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5.7	37.7	93.4	6.6	0.0	6.6	100.0	7.526
고졸 이하	(432)	49.3	41.7	91.0	8.8	0.2	9.0	100.0	
대졸 이상	(406)	49.5	38.4	87.9	12.1	0.0	12.1	100.0	
<b>지역</b>									
서울	(202)	44.6	42.6	87.1	12.4	0.5	12.9	100.0	30.895*
인천/경기	(298)	54.0	36.2	90.3	9.7	0.0	9.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8.1	43.4	91.5	8.5	0.0	8.5	100.0	
광주/전라	(101)	58.4	29.7	88.1	11.9	0.0	11.9	100.0	
대구/경북	(102)	49.0	41.2	90.2	9.8	0.0	9.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1.6	45.8	97.4	2.6	0.0	2.6	100.0	
강원/제주	(41)	39.0	39.0	78.0	22.0	0.0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57.1	28.6	85.7	14.3	0.0	14.3	100.0	30.823
관리직	(19)	68.4	31.6	10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7.1	35.7	92.9	7.1	0.0	7.1	100.0	
사무직	(84)	34.5	53.6	88.1	11.9	0.0	11.9	100.0	
판매직	(217)	47.5	43.8	91.2	8.8	0.0	8.8	100.0	
서비스직	(254)	56.7	35.4	92.1	7.9	0.0	7.9	100.0	
생산직	(24)	62.5	29.2	91.7	8.3	0.0	8.3	100.0	
농어민	(32)	56.3	40.6	96.9	3.1	0.0	3.1	100.0	
미취업	(277)	46.6	40.4	87.0	12.6	0.4	13.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6.5	36.9	93.5	6.0	0.6	6.5	100.0	13.64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8.9	40.7	89.6	10.4	0.0	10.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3	44.4	90.7	9.3	0.0	9.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9	38.2	87.1	12.9	0.0	12.9	100.0	
500만원 이상	(250)	52.0	38.0	90.0	10.0	0.0	10.0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52.5	35.2	87.7	12.3	0.0	12.3	100.0	16.517*
중도	(418)	55.0	35.9	90.9	8.9	0.2	9.1	100.0	
보수	(351)	43.6	47.3	90.9	9.1	0.0	9.1	100.0	

[문9-7]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7)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사례수 (명)	(1)매우 중요함	(2)약간 중요함	①+②	(3)별로 중요하지 않음	(4)전혀 중요하지 않음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9.5</b>	<b>52.7</b>	<b>92.2</b>	<b>7.2</b>	<b>0.6</b>	<b>7.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8.1	52.7	90.8	8.2	1.0	9.2	100.0	4.765
여자	(506)	40.9	52.8	93.7	6.1	0.2	6.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8.1	50.0	88.1	9.7	2.3	11.9	100.0	18.533
만30세-만39세	(183)	36.1	54.6	90.7	8.7	0.5	9.3	100.0	
만40세-만49세	(211)	40.3	51.7	91.9	7.6	0.5	8.1	100.0	
만50세-만59세	(199)	41.2	51.8	93.0	7.0	0.0	7.0	100.0	
만60세 이상	(236)	41.1	55.1	96.2	3.8	0.0	3.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0.7	54.5	95.2	4.8	0.0	4.8	100.0	4.945
고졸 이하	(432)	37.7	54.6	92.4	6.9	0.7	7.6	100.0	
대졸 이상	(406)	40.9	50.0	90.9	8.4	0.7	9.1	100.0	
<b>지역</b>									
서울	(202)	38.1	55.4	93.6	6.4	0.0	6.4	100.0	72.433***
인천/경기	(298)	44.3	48.3	92.6	6.4	1.0	7.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5.5	66.0	91.5	7.5	0.9	8.5	100.0	
광주/전라	(101)	53.5	38.6	92.1	7.9	0.0	7.9	100.0	
대구/경북	(102)	58.8	32.4	91.2	8.8	0.0	8.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4.5	69.7	94.2	5.2	0.6	5.8	100.0	
강원/제주	(41)	22.0	58.5	80.5	17.1	2.4	19.5	100.0	
<b>직업</b>									
전문직	(56)	50.0	35.7	85.7	14.3	0.0	14.3	100.0	30.198
관리직	(19)	47.4	42.1	89.5	5.3	5.3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7.6	50.0	97.6	2.4	0.0	2.4	100.0	
사무직	(84)	33.3	53.6	86.9	11.9	1.2	13.1	100.0	
판매직	(217)	37.8	55.3	93.1	6.5	0.5	6.9	100.0	
서비스직	(254)	42.1	50.4	92.5	7.1	0.4	7.5	100.0	
생산직	(24)	41.7	45.8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31.3	65.6	96.9	3.1	0.0	3.1	100.0	
미취업	(277)	37.2	56.3	93.5	5.8	0.7	6.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2.9	50.6	93.5	6.5	0.0	6.5	100.0	10.04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0.1	52.7	92.9	5.5	1.6	7.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6.1	56.0	92.1	7.9	0.0	7.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7.6	52.7	90.3	8.6	1.1	9.7	100.0	
500만원 이상	(250)	40.8	51.6	92.4	7.2	0.4	7.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1.1	48.3	89.4	9.3	1.3	10.6	100.0	8.554
중도	(418)	40.0	51.9	91.9	7.7	0.5	8.1	100.0	
보수	(351)	37.9	56.7	94.6	5.1	0.3	5.4	100.0	

[문10-1] 다음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중국의 강대국화	사례수 (명)	(1)매우 위협이 다	(2)약간 위협이 다	①+②	(3)별로 위협이 아니다	(4)전혀 위협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32.5</b>	<b>49.7</b>	<b>82.2</b>	<b>16.3</b>	<b>1.5</b>	<b>17.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3.3	49.3	82.6	15.8	1.6	17.4	100.0	0.412
여자	(506)	31.8	50.0	81.8	16.8	1.4	18.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0.1	52.8	83.0	15.9	1.1	17.0	100.0	18.953
만30세-만39세	(183)	37.7	46.4	84.2	14.8	1.1	15.8	100.0	
만40세-만49세	(211)	37.9	49.3	87.2	11.4	1.4	12.8	100.0	
만50세-만59세	(199)	31.7	51.3	82.9	15.1	2.0	17.1	100.0	
만60세 이상	(236)	26.3	48.7	75.0	23.3	1.7	25.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5.1	50.9	76.0	22.2	1.8	24.0	100.0	9.268
고졸 이하	(432)	32.4	49.8	82.2	16.2	1.6	17.8	100.0	
대졸 이상	(406)	35.7	49.0	84.7	14.0	1.2	15.3	100.0	
<b>지역</b>									
서울	(202)	23.8	59.4	83.2	16.3	0.5	16.8	100.0	56.697***
인천/경기	(298)	38.3	46.6	84.9	12.8	2.3	15.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8.3	62.3	90.6	6.6	2.8	9.4	100.0	
광주/전라	(101)	32.7	45.5	78.2	20.8	1.0	21.8	100.0	
대구/경북	(102)	47.1	39.2	86.3	13.7	0.0	13.7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29.0 22.0	43.2 51.2	72.3 73.2	25.8 26.8	1.9 0.0	27.7 26.8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41.1	48.2	89.3	8.9	1.8	10.7	100.0	37.679*
관리직	(19)	52.6	42.1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0.0	40.5	90.5	9.5	0.0	9.5	100.0	
사무직	(84)	21.4	59.5	81.0	17.9	1.2	19.0	100.0	
판매직	(217)	34.6	47.5	82.0	14.3	3.7	18.0	100.0	
서비스직	(254)	29.5	50.8	80.3	18.5	1.2	19.7	100.0	
생산직	(24)	37.5	50.0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46.9	31.3	78.1	21.9	0.0	21.9	100.0	
미취업	(277)	29.2	51.6	80.9	18.4	0.7	19.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0.4	46.4	76.8	20.8	2.4	23.2	100.0	10.13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1.9	52.2	84.1	15.9	0.0	15.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1.5	50.0	81.5	17.6	0.9	18.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3.3	51.6	84.9	12.9	2.2	15.1	100.0	
500만원 이상	(250)	34.4	48.8	83.2	15.2	1.6	16.8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35.2	54.2	89.4	9.7	0.8	10.6	100.0	12.632*
중도	(418)	31.6	46.9	78.5	19.9	1.7	21.5	100.0	
보수	(351)	31.9	49.9	81.8	16.5	1.7	18.2	100.0	

[문10-2] 다음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일본의 군사대국화		사례수 (명)	(1)매우 위협이 다	(2)약간 위협이 다	①+②	(3)별로 위협이 아니다	(4)전혀 위협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2.5</b>	<b>45.1</b>	<b>77.6</b>	<b>20.9</b>	<b>1.5</b>	<b>22.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3.7	43.7	77.4	21.4	1.2	22.6	100.0	1.513
	여자	(506)	31.4	46.4	77.9	20.4	1.8	22.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9.5	42.6	72.2	25.6	2.3	27.8	100.0	15.006
	만30세-만39세	(183)	27.9	47.0	74.9	23.5	1.6	25.1	100.0	
	만40세-만49세	(211)	39.3	44.5	83.9	15.6	0.5	16.1	100.0	
	만50세-만59세	(199)	35.7	42.7	78.4	19.6	2.0	21.6	100.0	
	만60세 이상	(236)	29.7	47.9	77.5	21.2	1.3	22.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1.7	45.5	77.2	21.6	1.2	22.8	100.0	0.734
	고졸 이하	(432)	32.2	46.1	78.2	20.4	1.4	21.8	100.0	
	대졸 이상	(406)	33.3	43.8	77.1	21.2	1.7	22.9	100.0	
<b>지역</b>	서울	(202)	22.3	48.5	70.8	28.7	0.5	29.2	100.0	83.517***
	인천/경기	(298)	31.2	50.7	81.9	15.8	2.3	18.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4.9	56.6	91.5	7.5	0.9	8.5	100.0	
	광주/전라	(101)	37.6	44.6	82.2	17.8	0.0	17.8	100.0	
	대구/경북	(102)	56.9	22.5	79.4	19.6	1.0	20.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27.7 31.7	40.6 31.7	68.4 63.4	28.4 36.6	3.2 0.0	31.6 36.6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9.3	42.9	82.1	14.3	3.6	17.9	100.0	47.994**
	관리직	(19)	47.4	47.4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45.2	81.0	19.0	0.0	19.0	100.0	
	사무직	(84)	17.9	54.8	72.6	27.4	0.0	27.4	100.0	
	판매직	(217)	35.0	41.0	76.0	19.4	4.6	24.0	100.0	
	서비스직	(254)	32.7	44.5	77.2	22.4	0.4	22.8	100.0	
	생산직	(24)	50.0	41.7	91.7	8.3	0.0	8.3	100.0	
	농어민	(32)	46.9	40.6	87.5	12.5	0.0	12.5	100.0	
	미취업	(277)	28.9	46.9	75.8	23.5	0.7	24.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2.7	45.2	78.0	20.8	1.2	22.0	100.0	7.7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9.6	41.2	80.8	18.1	1.1	19.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1.5	47.2	78.7	19.9	1.4	21.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0.6	43.5	74.2	23.7	2.2	25.8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9.2 66.7	47.6 0.0	76.8 66.7	22.0 0.0	1.2 33.3	23.2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34.3	46.6	80.9	17.8	1.3	19.1	100.0	5.864
	중도	(418)	29.9	46.2	76.1	21.8	2.2	23.9	100.0	
	보수	(351)	34.5	42.7	77.2	21.9	0.9	22.8	100.0	

[문10-3] 다음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미국의 일방주의		사례수 (명)	(1)매우 위협이 다	(2)약간 위협이 다	①+②	(3)별로 위협이 아니다	(4)전혀 위협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16.4	53.4	69.9	28.0	2.2	30.1	100.0	
성별	남자	(499)	15.4	53.1	68.5	28.9	2.6	31.5	100.0	1.678
	여자	(506)	17.4	53.8	71.1	27.1	1.8	28.9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6.5	55.1	71.6	26.1	2.3	28.4	100.0	26.671**
	만30세-만39세	(183)	20.2	49.7	69.9	28.4	1.6	30.1	100.0	
	만40세-만49세	(211)	21.8	53.1	74.9	23.7	1.4	25.1	100.0	
	만50세-만59세	(199)	13.6	60.3	73.9	25.1	1.0	26.1	100.0	
	만60세 이상	(236)	11.0	49.6	60.6	35.2	4.2	39.4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2.0	45.5	57.5	39.5	3.0	42.5	100.0	17.473**
	고졸 이하	(432)	15.7	55.6	71.3	26.2	2.5	28.7	100.0	
	대졸 이상	(406)	19.0	54.4	73.4	25.1	1.5	26.6	100.0	
지역	서울	(202)	10.9	53.0	63.9	34.2	2.0	36.1	100.0	42.361***
	인천/경기	(298)	18.1	55.4	73.5	23.5	3.0	26.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6.0	63.2	79.2	17.9	2.8	20.8	100.0	
	광주/전라	(101)	21.8	57.4	79.2	19.8	1.0	20.8	100.0	
	대구/경북	(102)	24.5	47.1	71.6	28.4	0.0	28.4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0 19.5	45.8 51.2	56.8 70.7	40.6 26.8	2.6 2.4	43.2 29.3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23.2	57.1	80.4	16.1	3.6	19.6	100.0	32.692
	관리직	(19)	26.3	63.2	89.5	10.5	0.0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64.3	78.6	19.0	2.4	21.4	100.0	
	사무직	(84)	15.5	59.5	75.0	25.0	0.0	25.0	100.0	
	판매직	(217)	18.0	47.0	65.0	31.8	3.2	35.0	100.0	
	서비스직	(254)	12.6	59.8	72.4	25.6	2.0	27.6	100.0	
	생산직	(24)	16.7	41.7	58.3	37.5	4.2	41.7	100.0	
	농어민 미취업	(32) (277)	28.1 15.9	34.4 50.9	62.5 66.8	37.5 31.0	0.0 2.2	37.5 33.2	10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9.0	43.5	62.5	32.7	4.8	37.5	100.0	21.63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8.7	56.6	75.3	23.6	1.1	24.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8	53.2	68.1	30.6	1.4	31.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7.7	50.5	68.3	29.0	2.7	31.7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3.2 33.3	60.4 33.3	73.6 66.7	25.2 0.0	1.2 33.3	26.4 33.3	100.0 100.0	
이념	진보	(236)	22.0	52.5	74.6	23.7	1.7	25.4	100.0	11.310
	중도	(418)	15.8	55.0	70.8	27.3	1.9	29.2	100.0	
	보수	(351)	13.4	52.1	65.5	31.6	2.8	34.5	100.0	

[문10-4] 다음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국제테러	사례수 (명)	(1)매우 위협이 다	(2)약간 위협이 다	①+②	(3)별로 위협이 아니다	(4)전혀 위협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39.4</b>	<b>46.0</b>	<b>85.4</b>	<b>13.4</b>	<b>1.2</b>	<b>14.6</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7.3	47.1	84.4	14.4	1.2	15.6	100.0	2.144
여자	(506)	41.5	44.9	86.4	12.5	1.2	13.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1.5	44.9	86.4	13.1	0.6	13.6	100.0	12.894
만30세-만39세	(183)	39.9	41.5	81.4	16.4	2.2	18.6	100.0	
만40세-만49세	(211)	38.4	50.2	88.6	10.4	0.9	11.4	100.0	
만50세-만59세	(199)	41.7	47.7	89.4	10.1	0.5	10.6	100.0	
만60세 이상	(236)	36.4	44.9	81.4	16.9	1.7	18.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5.3	43.7	79.0	19.8	1.2	21.0	100.0	10.456
고졸 이하	(432)	40.5	47.9	88.4	10.9	0.7	11.6	100.0	
대졸 이상	(406)	39.9	44.8	84.7	13.5	1.7	15.3	100.0	
<b>지역</b>									
서울	(202)	38.1	45.5	83.7	15.3	1.0	16.3	100.0	49.324***
인천/경기	(298)	36.9	46.3	83.2	14.4	2.3	16.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8.1	47.2	95.3	3.8	0.9	4.7	100.0	
광주/전라	(101)	24.8	59.4	84.2	14.9	1.0	15.8	100.0	
대구/경북	(102)	43.1	33.3	76.5	23.5	0.0	23.5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47.1 39.0	46.5 39.0	93.5 78.0	5.8 22.0	0.6 0.0	6.5 22.0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7.5	41.1	78.6	17.9	3.6	21.4	100.0	18.292
관리직	(19)	52.6	26.3	78.9	21.1	0.0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45.2	81.0	19.0	0.0	19.0	100.0	
사무직	(84)	36.9	50.0	86.9	9.5	3.6	13.1	100.0	
판매직	(217)	39.2	46.1	85.3	13.8	0.9	14.7	100.0	
서비스직	(254)	39.0	48.8	87.8	11.4	0.8	12.2	100.0	
생산직	(24)	37.5	54.2	91.7	8.3	0.0	8.3	100.0	
농어민	(32)	43.8	43.8	87.5	12.5	0.0	12.5	100.0	
미취업	(277)	40.4	44.0	84.5	14.4	1.1	15.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0.5	39.9	80.4	17.9	1.8	19.6	100.0	14.54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9.0	45.6	84.6	13.2	2.2	15.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0.7	47.2	88.0	12.0	0.0	12.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1.4	48.9	90.3	9.1	0.5	9.7	100.0	
500만원 이상	(250)	36.0	47.6	83.6	15.2	1.2	16.4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35.6	51.3	86.9	11.4	1.7	13.1	100.0	5.970
중도	(418)	38.8	45.7	84.4	14.6	1.0	15.6	100.0	
보수	(351)	42.7	42.7	85.5	13.4	1.1	14.5	100.0	

[문11-1]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미국	사례수 (명)	(기간별 있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1)	(2)	(3)	(4)	독자적 외교(0+1+ 2+3+4)	중도 (5)	(6)	(7)	(8)
<b>▣ 전체 ▣</b>	<b>(1,005)</b>	<b>1.7</b>	<b>2.2</b>	<b>1.7</b>	<b>2.5</b>	<b>2.7</b>	<b>10.7</b>	<b>16.5</b>	<b>8.7</b>	<b>19.6</b>	<b>20.7</b>
<b>성별</b>											
남자	(499)	2.2	2.4	2.2	3.8	2.4	13.0	15.4	8.6	18.2	19.0
여자	(506)	1.2	2.0	1.2	1.2	3.0	8.5	17.6	8.7	20.9	22.3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	1.1	1.7	2.8	1.7	8.5	19.3	9.7	21.6	19.3
만30세-만39세	(183)	0.5	2.2	1.6	1.6	3.8	9.8	16.9	10.4	15.8	23.5
만40세-만49세	(211)	3.3	2.4	2.4	3.3	2.8	14.2	20.4	7.1	14.7	19.4
만50세-만59세	(199)	2.0	3.5	1.5	1.5	3.0	11.6	15.1	10.1	24.6	21.6
만60세 이상	(236)	1.3	1.7	1.3	3.0	2.1	9.3	11.9	6.8	21.2	19.9
<b>학력</b>											
중졸 이하	(167)	1.8	3.0	0.0	3.0	2.4	10.2	8.4	7.2	23.4	21.0
고졸 이하	(432)	1.2	2.3	1.9	1.4	2.3	9.0	18.1	10.0	17.4	22.7
대졸 이상	(406)	2.2	1.7	2.2	3.4	3.2	12.8	18.2	7.9	20.4	18.5
<b>지역</b>											
서울	(202)	0.5	0.5	0.5	2.0	2.0	5.4	13.9	7.9	21.3	21.3
인천/경기	(298)	2.3	1.3	1.3	1.7	1.7	8.4	17.4	5.7	13.8	26.5
대전/충청/세종	(106)	1.9	2.8	0.9	0.9	9.4	16.0	17.9	8.5	15.1	26.4
광주/전라	(101)	5.9	4.0	3.0	3.0	1.0	16.8	17.8	6.9	22.8	11.9
대구/경북	(102)	1.0	6.9	3.9	2.0	0.0	13.7	14.7	6.9	22.5	19.6
부산/울산/경남	(155)	0.0	0.6	1.3	6.5	3.2	11.6	16.1	18.1	24.5	12.9
강원/제주	(41)	0.0	4.9	4.9	0.0	4.9	14.6	22.0	7.3	31.7	14.6
<b>직업</b>											
전문직	(56)	7.1	0.0	1.8	3.6	3.6	16.1	21.4	5.4	12.5	14.3
관리직	(19)	5.3	15.8	0.0	10.5	0.0	31.6	5.3	10.5	15.8	5.3
반전문, 기술직	(42)	0.0	0.0	7.1	0.0	0.0	7.1	11.9	11.9	19.0	16.7
사무직	(84)	2.4	1.2	1.2	1.2	3.6	9.5	20.2	9.5	23.8	19.0
판매직	(217)	0.9	3.2	2.3	2.3	1.8	10.6	17.1	8.8	20.7	24.9
서비스직	(254)	1.2	2.0	1.2	2.8	3.5	10.6	20.9	9.4	18.1	19.3
생산직	(24)	0.0	4.2	0.0	4.2	4.2	12.5	8.3	0.0	29.2	20.8
농어민	(32)	3.1	3.1	6.3	0.0	0.0	12.5	0.0	3.1	21.9	28.1
미취업	(277)	1.4	1.4	0.7	2.5	2.9	9.0	14.1	9.0	19.5	21.3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1.2	2.4	1.8	1.8	8.9	7.7	6.0	19.6	22.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0.5	4.9	1.1	2.7	3.3	12.6	22.0	6.6	18.1	18.1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	2.8	0.9	3.2	3.7	12.5	20.4	10.2	15.7	22.2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1.6	2.2	2.7	2.2	10.8	17.2	12.4	21.0	17.2
500만원 이상	(250)	2.0	0.8	2.0	2.0	2.4	9.2	14.8	8.0	23.2	22.8
모름/무응답	(3)	0.0	0.0	0.0	0.0	0.0	0.0	0.0	0.0	0.0	33.3
<b>이념</b>											
진보	(236)	1.7	3.8	2.1	3.4	4.2	15.3	13.1	9.7	19.5	25.4
중도	(418)	1.4	0.7	1.4	1.9	1.9	7.4	24.2	9.6	16.0	18.7
보수	(351)	2.0	2.8	1.7	2.6	2.6	11.7	9.7	6.8	23.9	19.9

[문11-1]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미국	(9)	(10)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협력 강화(6+7+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4.4	9.4	72.7	100.0	6.8	
<b>성별</b>						
남자	14.2	11.4	71.5	100.0	6.8	18.065
여자	14.6	7.3	73.9	100.0	6.9	
<b>연령</b>						
만19세-만29세	9.7	11.9	72.2	100.0	6.9	45.002
만30세-만39세	14.2	9.3	73.2	100.0	6.9	
만40세-만49세	15.2	9.0	65.4	100.0	6.6	
만50세-만59세	10.6	6.5	73.4	100.0	6.6	
만60세 이상	20.8	10.2	78.8	100.0	7.2	
<b>학력</b>						
중졸 이하	18.6	11.4	81.4	100.0	7.2	42.300**
고졸 이하	16.9	6.0	72.9	100.0	6.8	
대졸 이상	10.1	12.1	69.0	100.0	6.7	
<b>지역</b>						
서울	18.8	11.4	80.7	100.0	7.3	162.157***
인천/경기	19.8	8.4	74.2	100.0	7.1	
대전/충청/세종	8.5	7.5	66.0	100.0	6.5	
광주/전라	6.9	16.8	65.3	100.0	6.4	
대구/경북	13.7	8.8	71.6	100.0	6.6	
부산/울산/경남	11.0	5.8	72.3	100.0	6.6	
강원/제주	2.4	7.3	63.4	100.0	6.2	
<b>직업</b>						
전문직	17.9	12.5	62.5	100.0	6.6	117.801**
관리직	10.5	21.1	63.2	100.0	5.9	
반전문, 기술직	11.9	21.4	81.0	100.0	7.3	
사무직	6.0	11.9	70.2	100.0	6.7	
판매직	11.5	6.5	72.4	100.0	6.7	
서비스직	13.0	8.7	68.5	100.0	6.7	
생산직	20.8	8.3	79.2	100.0	7.2	
농어민	21.9	12.5	87.5	100.0	7.3	
미취업	19.1	7.9	76.9	100.0	7.1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22.0	13.7	83.3	100.0	7.4	60.332*
200만원-300만원 미만	11.0	11.5	65.4	100.0	6.6	
300만원-400만원 미만	13.4	5.6	67.1	100.0	6.6	
400만원-500만원 미만	14.5	7.0	72.0	100.0	6.7	
500만원 이상	12.4	9.6	76.0	100.0	6.9	
모름/무응답	33.3	33.3	100.0	100.0	9.0	
<b>이념</b>						
진보	10.6	6.4	71.6	100.0	6.6	58.816***
중도	13.9	10.3	68.4	100.0	6.8	
보수	17.7		78.6	100.0	7.0	

[문11-2]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중국	사례수 (명)	(기간별 있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1)	(2)	(3)	(4)	독자적 외교(0+1+ 2+3+4)	중도 (5)	(6)	(7)	(8)	
<b>▣ 전체 ▣</b>	<b>(1,005)</b>		<b>1.5</b>	<b>2.3</b>	<b>1.9</b>	<b>2.3</b>	<b>2.8</b>	<b>10.7</b>	<b>23.1</b>	<b>13.0</b>	<b>20.7</b>	<b>18.0</b>
<b>성별</b>												
남자	(499)		2.0	2.0	2.6	1.8	2.8	11.2	21.4	12.6	20.0	18.8
여자	(506)		1.0	2.6	1.2	2.8	2.8	10.3	24.7	13.4	21.3	17.2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2.3	1.1	2.8	4.5	11.4	22.7	11.4	22.7	19.3
만30세-만39세	(183)		1.6	1.6	2.2	1.6	3.3	10.4	23.5	12.0	19.7	22.4
만40세-만49세	(211)		1.9	1.9	2.4	1.9	0.9	9.0	28.4	11.8	16.6	17.1
만50세-만59세	(199)		1.5	4.0	1.5	2.5	4.0	13.6	20.1	11.6	25.6	15.6
만60세 이상	(236)		1.7	1.7	2.1	2.5	1.7	9.7	20.8	17.4	19.5	16.5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	3.6	1.8	2.4	1.8	10.8	17.4	13.8	25.7	13.2
고졸 이하	(432)		1.2	2.5	1.6	2.1	3.0	10.4	21.8	14.1	20.1	19.9
대졸 이상	(406)		2.0	1.5	2.2	2.5	3.0	11.1	26.8	11.6	19.2	18.0
<b>지역</b>												
서울	(202)		1.0	2.0	0.5	3.0	3.5	9.9	20.3	17.8	20.8	19.3
인천/경기	(298)		1.7	2.7	2.0	2.3	2.3	11.1	25.2	7.0	18.1	22.1
대전/충청/세종	(106)		0.0	3.8	0.9	0.9	2.8	8.5	30.2	17.0	25.5	8.5
광주/전라	(101)		6.9	3.0	0.0	3.0	0.0	12.9	19.8	15.8	14.9	21.8
대구/경북	(102)		0.0	2.0	3.9	4.9	2.0	12.7	15.7	12.7	25.5	18.6
부산/울산/경남	(155)		0.0	0.0	2.6	0.6	4.5	7.7	24.5	12.3	23.2	14.2
강원/제주	(41)		2.4	4.9	7.3	0.0	4.9	19.5	24.4	19.5	19.5	9.8
<b>직업</b>												
전문직	(56)		7.1	1.8	0.0	3.6	1.8	14.3	23.2	10.7	19.6	19.6
관리직	(19)		5.3	10.5	0.0	0.0	0.0	15.8	15.8	5.3	26.3	10.5
반전문, 기술직	(42)		0.0	0.0	4.8	2.4	0.0	7.1	26.2	7.1	14.3	19.0
사무직	(84)		1.2	2.4	0.0	2.4	6.0	11.9	23.8	14.3	16.7	20.2
판매직	(217)		0.9	1.4	4.1	1.8	1.4	9.7	24.9	13.4	21.7	18.9
서비스직	(254)		1.6	2.4	0.8	0.8	3.5	9.1	28.3	15.4	20.9	15.4
생산직	(24)		0.0	4.2	0.0	4.2	0.0	8.3	20.8	12.5	16.7	20.8
농어민	(32)		0.0	6.3	9.4	0.0	0.0	15.6	6.3	6.3	12.5	40.6
미취업	(277)		1.1	2.2	1.1	4.0	3.6	11.9	18.8	13.0	23.1	16.2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2	1.8	4.2	3.0	1.2	11.3	13.7	14.3	21.4	18.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0.5	3.3	1.6	0.5	3.3	9.3	28.6	12.6	17.6	19.2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	2.3	1.4	3.2	2.8	11.1	23.1	13.0	19.0	19.9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	2.2	1.1	2.2	3.2	10.2	26.3	12.4	22.6	14.0
500만원 이상	(250)		2.0	2.0	1.6	2.4	3.2	11.2	22.8	13.2	22.8	18.0
모름/무응답	(3)		33.3	0.0	0.0	0.0	0.0	33.3	33.3	0.0	0.0	33.3
<b>이념</b>												
진보	(236)		0.4	3.8	2.5	3.4	2.5	12.7	20.3	13.6	21.2	17.8
중도	(418)		1.2	1.9	1.7	1.2	2.9	8.9	29.2	11.5	18.4	17.9
보수	(351)		2.6	1.7	1.7	2.8	2.8	11.7	17.7	14.5	23.1	18.2

[문11-2]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중국	(9)	(10)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협력 강화(6+7+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9.0</b>	<b>5.5</b>	<b>66.2</b>	<b>100.0</b>	<b>6.4</b>	
<b>성별</b>						
남자	9.2	6.6	67.3	100.0	6.5	10.086
여자	8.7	4.3	65.0	100.0	6.4	
<b>연령</b>						
만19세-만29세	7.4	5.1	65.9	100.0	6.4	34.514
만30세-만39세	8.7	3.3	66.1	100.0	6.4	
만40세-만49세	9.5	7.6	62.6	100.0	6.4	
만50세-만59세	9.0	4.5	66.3	100.0	6.3	
만60세 이상	9.7	6.4	69.5	100.0	6.5	
<b>학력</b>						
중졸 이하	12.0	7.2	71.9	100.0	6.6	22.644
고졸 이하	9.5	4.2	67.8	100.0	6.4	
대졸 이상	7.1	6.2	62.1	100.0	6.3	
<b>지역</b>						
서울	8.4	3.5	69.8	100.0	6.4	117.141***
인천/경기	9.7	6.7	63.8	100.0	6.5	
대전/충청/세종	6.6	3.8	61.3	100.0	6.2	
광주/전라	4.0	10.9	67.3	100.0	6.3	
대구/경북	8.8	5.9	71.6	100.0	6.5	
부산/울산/경남	14.2	3.9	67.7	100.0	6.6	
강원/제주	4.9	2.4	56.1	100.0	5.6	
<b>직업</b>						
전문직	7.1	5.4	62.5	100.0	6.1	117.262**
관리직	10.5	15.8	68.4	100.0	6.4	
반전문, 기술직	11.9	14.3	66.7	100.0	6.9	
사무직	7.1	6.0	64.3	100.0	6.4	
판매직	6.9	4.6	65.4	100.0	6.4	
서비스직	6.7	4.3	62.6	100.0	6.3	
생산직	16.7	4.2	70.8	100.0	6.7	
농어민	9.4	9.4	78.1	100.0	6.8	
미취업	12.3	4.7	69.3	100.0	6.5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3.1	7.7	75.0	100.0	6.7	39.864
200만원-300만원 미만	6.6	6.0	62.1	100.0	6.4	
300만원-400만원 미만	10.6	3.2	65.7	100.0	6.4	
400만원-500만원 미만	9.7	4.8	63.4	100.0	6.3	
500만원 이상	6.0	6.0	66.0	100.0	6.4	
모름/무응답	0.0	0.0	33.3	100.0	4.3	
<b>이념</b>						
진보	9.3	5.1	66.9	100.0	6.4	28.444
중도	8.4	5.7	62.0	100.0	6.4	
보수	9.4	5.4	70.7	100.0	6.5	

[문11-3]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일본	사례수 (명)	(기간별 있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1)	(2)	(3)	(4)	독자적 외교(0+1+ 2+3+4)	중도 (5)	(6)	(7)	(8)	
<b>▣ 전체 ▣</b>	<b>(1,005)</b>		<b>3.4</b>	<b>4.3</b>	<b>3.9</b>	<b>5.4</b>	<b>8.5</b>	<b>25.4</b>	<b>29.8</b>	<b>16.3</b>	<b>14.7</b>	<b>8.6</b>
<b>성별</b>												
남자	(499)		4.2	4.2	5.2	6.4	8.6	28.7	26.5	13.2	16.2	8.8
여자	(506)		2.6	4.3	2.6	4.3	8.3	22.1	33.0	19.4	13.2	8.3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8	2.8	5.1	6.8	9.7	27.3	33.5	15.9	11.9	8.0
만30세-만39세	(183)		3.3	3.3	3.8	6.6	8.2	25.1	33.9	15.8	12.0	7.7
만40세-만49세	(211)		2.8	5.7	3.8	6.6	8.5	27.5	29.4	15.6	13.3	7.1
만50세-만59세	(199)		4.0	6.5	3.5	3.0	8.5	25.6	29.1	16.6	13.6	11.6
만60세 이상	(236)		3.8	3.0	3.4	4.2	7.6	22.0	24.6	17.4	21.2	8.5
<b>학력</b>												
중졸 이하	(167)		4.2	4.8	3.6	4.8	6.6	24.0	23.4	19.8	20.4	5.4
고졸 이하	(432)		2.3	4.6	3.7	3.9	9.0	23.6	30.6	16.7	15.7	9.0
대졸 이상	(406)		4.2	3.7	4.2	7.1	8.6	27.8	31.5	14.5	11.3	9.4
<b>지역</b>												
서울	(202)		3.0	3.0	2.0	6.4	15.3	29.7	33.2	17.3	10.9	5.9
인천/경기	(298)		4.0	5.0	5.4	3.7	6.0	24.2	27.5	15.8	14.8	12.8
대전/충청/세종	(106)		3.8	3.8	4.7	4.7	6.6	23.6	35.8	12.3	16.0	4.7
광주/전라	(101)		6.9	4.0	2.0	4.0	1.0	17.8	27.7	17.8	16.8	7.9
대구/경북	(102)		2.0	3.9	2.9	5.9	5.9	20.6	23.5	18.6	19.6	11.8
부산/울산/경남	(155)		0.6	4.5	4.5	9.0	14.2	32.9	28.4	14.8	14.8	5.8
강원/제주	(41)		4.9	7.3	4.9	2.4	0.0	19.5	39.0	22.0	12.2	4.9
<b>직업</b>												
전문직	(56)		10.7	5.4	3.6	10.7	5.4	35.7	33.9	12.5	3.6	7.1
관리직	(19)		10.5	21.1	10.5	0.0	10.5	52.6	5.3	0.0	5.3	15.8
반전문, 기술직	(42)		2.4	0.0	7.1	4.8	2.4	16.7	45.2	7.1	14.3	7.1
사무직	(84)		2.4	4.8	1.2	7.1	8.3	23.8	33.3	17.9	11.9	9.5
판매직	(217)		1.4	4.6	5.5	5.5	9.2	26.3	30.0	18.4	14.3	9.7
서비스직	(254)		3.9	3.1	3.1	2.8	9.8	22.8	30.3	17.7	18.1	5.5
생산직	(24)		0.0	8.3	0.0	4.2	8.3	20.8	33.3	16.7	4.2	12.5
농어민	(32)		3.1	9.4	12.5	3.1	0.0	28.1	18.8	9.4	28.1	12.5
미취업	(277)		3.2	3.2	2.5	6.9	9.0	24.9	27.4	17.0	15.2	9.4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	1.8	5.4	6.5	4.8	23.2	23.8	17.3	20.2	6.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7.1	3.3	3.3	7.7	23.6	30.2	19.2	11.0	10.4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2	4.2	3.7	3.7	11.1	25.9	31.0	15.3	13.9	10.6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2.7	2.2	8.6	12.9	29.6	28.0	13.4	18.3	7.0
500만원 이상	(250)		3.6	5.2	4.8	5.2	6.0	24.8	33.6	16.8	12.0	8.0
모름/무응답	(3)		0.0	0.0	0.0	0.0	0.0	0.0	33.3	0.0	0.0	33.3
<b>이념</b>												
진보	(236)		2.5	6.8	4.7	6.4	5.9	26.3	28.4	13.6	14.8	11.0
중도	(418)		3.3	4.5	3.8	3.3	8.6	23.7	34.2	17.2	13.2	6.9
보수	(351)		4.0	2.3	3.4	7.1	10.0	26.8	25.4	17.1	16.5	8.8

[문11-3]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일본	(9)	(10)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협력 강화(6+7+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2.7	2.6	44.9	100.0	5.3	
<b>성별</b>						
남자	3.4	3.2	44.9	100.0	5.3	22.966*
여자	2.0	2.0	44.9	100.0	5.3	
<b>연령</b>						
만19세-만29세	1.1	2.3	39.2	100.0	5.2	34.404
만30세-만39세	3.3	2.2	41.0	100.0	5.2	
만40세-만49세	3.3	3.8	43.1	100.0	5.3	
만50세-만59세	2.5	1.0	45.2	100.0	5.2	
만60세 이상	3.0	3.4	53.4	100.0	5.6	
<b>학력</b>						
중졸 이하	3.6	3.6	52.7	100.0	5.4	26.260
고졸 이하	2.8	1.6	45.8	100.0	5.4	
대졸 이상	2.2	3.2	40.6	100.0	5.2	
<b>지역</b>						
서울	2.0	1.0	37.1	100.0	5.1	110.836***
인천/경기	3.0	2.0	48.3	100.0	5.4	
대전/충청/세종	4.7	2.8	40.6	100.0	5.3	
광주/전라	2.0	9.9	54.5	100.0	5.7	
대구/경북	2.0	3.9	55.9	100.0	5.7	
부산/울산/경남	3.2	0.0	38.7	100.0	5.1	
강원/제주	0.0	2.4	41.5	100.0	5.0	
<b>직업</b>						
전문직	3.6	3.6	30.4	100.0	4.6	137.886***
관리직	15.8	5.3	42.1	100.0	4.7	
반전문, 기술직	2.4	7.1	38.1	100.0	5.6	
사무직	1.2	2.4	42.9	100.0	5.3	
판매직	0.0	1.4	43.8	100.0	5.2	
서비스직	2.8	2.8	46.9	100.0	5.4	
생산직	12.5	0.0	45.8	100.0	5.6	
농어민	0.0	3.1	53.1	100.0	5.2	
미취업	3.6	2.5	47.7	100.0	5.4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4.8	4.8	53.0	100.0	5.5	61.431*
200만원-300만원 미만	1.6	3.8	46.2	100.0	5.3	
300만원-400만원 미만	2.3	0.9	43.1	100.0	5.3	
400만원-500만원 미만	3.2	0.5	42.5	100.0	5.2	
500만원 이상	2.0	2.8	41.6	100.0	5.2	
모름/무응답	0.0	33.3	66.7	100.0	7.7	
<b>이념</b>						
진보	3.0	3.0	45.3	100.0	5.3	28.135
중도	2.4	2.4	42.1	100.0	5.2	
보수	2.8	2.6	47.9	100.0	5.4	

[문11-4]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러시아	사례수 (명)	이간섭 없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1)	(2)	(3)	(4)	독자적 외교(0+1+ 2+3+4)	중도 (5)	(6)	(7)	(8)
<b>▣ 전체 ▣</b>	<b>(1,005)</b>	<b>2.4</b>	<b>3.2</b>	<b>3.8</b>	<b>6.8</b>	<b>8.6</b>	<b>24.7</b>	<b>33.5</b>	<b>17.5</b>	<b>12.4</b>	<b>7.1</b>
<b>성별</b>											
남자	(499)	3.2	3.4	4.0	6.4	8.4	25.5	30.9	16.2	13.2	8.2
여자	(506)	1.6	3.0	3.6	7.1	8.7	23.9	36.2	18.8	11.7	5.9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	3.4	6.8	8.0	6.8	26.1	37.5	15.9	11.4	5.1
만30세-만39세	(183)	2.2	2.2	2.2	10.4	9.8	26.8	35.0	14.2	13.1	7.1
만40세-만49세	(211)	2.8	2.8	4.7	6.2	9.5	26.1	34.6	13.7	10.9	7.6
만50세-만59세	(199)	3.0	5.0	3.0	5.0	8.0	24.1	33.2	18.6	12.6	8.0
만60세 이상	(236)	2.5	2.5	2.5	5.1	8.5	21.2	28.8	23.7	14.0	7.2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	4.8	1.8	4.2	8.4	21.6	26.9	23.4	13.8	7.8
고졸 이하	(432)	2.1	2.8	4.6	5.8	7.9	23.1	32.9	18.8	13.2	7.9
대졸 이상	(406)	2.7	3.0	3.7	8.9	9.4	27.6	36.9	13.8	11.1	5.9
<b>지역</b>											
서울	(202)	1.0	2.0	3.5	10.9	11.9	29.2	32.2	18.8	12.4	5.4
인천/경기	(298)	2.7	4.0	5.4	5.4	5.7	23.2	32.9	15.4	12.4	9.1
대전/충청/세종	(106)	1.9	4.7	1.9	4.7	10.4	23.6	42.5	18.9	4.7	5.7
광주/전라	(101)	7.9	3.0	2.0	2.0	6.9	21.8	36.6	13.9	8.9	7.9
대구/경북	(102)	2.0	4.9	3.9	3.9	8.8	23.5	31.4	10.8	23.5	7.8
부산/울산/경남	(155)	0.6	1.3	2.6	11.6	11.0	27.1	25.8	23.9	14.8	6.5
강원/제주	(41)	2.4	2.4	7.3	2.4	2.4	17.1	48.8	24.4	4.9	2.4
<b>직업</b>											
전문직	(56)	5.4	5.4	5.4	1.8	10.7	28.6	30.4	21.4	1.8	14.3
관리직	(19)	5.3	10.5	5.3	5.3	0.0	26.3	15.8	5.3	21.1	21.1
반전문, 기술직	(42)	0.0	4.8	7.1	7.1	7.1	26.2	40.5	4.8	9.5	9.5
사무직	(84)	2.4	2.4	3.6	8.3	13.1	29.8	38.1	14.3	11.9	3.6
판매직	(217)	2.3	2.8	4.1	7.4	9.2	25.8	35.9	15.7	13.4	7.4
서비스직	(254)	2.8	2.0	3.1	6.7	8.3	22.8	35.8	20.5	11.0	3.5
생산직	(24)	0.0	4.2	0.0	4.2	4.2	12.5	37.5	25.0	4.2	16.7
농어민	(32)	3.1	9.4	6.3	3.1	3.1	25.0	15.6	6.3	28.1	21.9
미취업	(277)	1.8	2.9	3.2	7.6	8.3	23.8	30.7	19.9	14.1	5.8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4.2	4.2	3.0	6.0	19.0	25.0	20.8	17.3	8.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3.8	3.8	5.5	6.0	20.9	40.7	18.1	8.2	6.6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	3.2	3.7	6.5	8.3	23.6	32.9	18.5	15.7	6.5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2.2	4.8	9.1	11.3	30.6	29.0	15.6	15.1	6.5
500만원 이상	(250)	2.8	2.8	2.8	8.8	10.4	27.6	38.4	15.6	7.2	6.8
모름/무응답	(3)	33.3	0.0	0.0	0.0	0.0	33.3	0.0	0.0	33.3	33.3
<b>이념</b>											
진보	(236)	1.7	3.8	5.1	7.2	8.9	26.7	31.8	12.7	15.3	7.2
중도	(418)	2.6	2.9	3.3	7.2	7.9	23.9	37.8	16.3	11.7	6.0
보수	(351)	2.6	3.1	3.4	6.0	9.1	24.2	29.6	22.2	11.4	8.3

[문11-4]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러시아	(9)	(10) 긴밀한 협력관계 강화	협력 강화(6+7+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2.5	2.3	41.8	100.0	5.3	
<b>성별</b>						
남자	3.0	3.0	43.7	100.0	5.3	11.966
여자	2.0	1.6	39.9	100.0	5.2	
<b>연령</b>						
만19세-만29세	1.7	2.3	36.4	100.0	5.1	36.733
만30세-만39세	2.2	1.6	38.3	100.0	5.2	
만40세-만49세	3.8	3.3	39.3	100.0	5.3	
만50세-만59세	2.0	1.5	42.7	100.0	5.2	
만60세 이상	2.5	2.5	50.0	100.0	5.5	
<b>학력</b>						
중졸 이하	3.6	3.0	51.5	100.0	5.5	25.572
고졸 이하	2.5	1.6	44.0	100.0	5.3	
대졸 이상	2.0	2.7	35.5	100.0	5.1	
<b>지역</b>						
서울	1.0	1.0	38.6	100.0	5.1	129.993***
인천/경기	4.7	2.3	44.0	100.0	5.4	
대전/충청/세종	2.8	1.9	34.0	100.0	5.1	
광주/전라	2.0	8.9	41.6	100.0	5.4	
대구/경북	1.0	2.0	45.1	100.0	5.4	
부산/울산/경남	1.9	0.0	47.1	100.0	5.3	
강원/제주	0.0	2.4	34.1	100.0	5.0	
<b>직업</b>						
전문직	1.8	1.8	41.1	100.0	5.1	110.520*
관리직	10.5	0.0	57.9	100.0	5.6	
반전문, 기술직	4.8	4.8	33.3	100.0	5.3	
사무직	1.2	1.2	32.1	100.0	5.0	
판매직	0.5	1.4	38.2	100.0	5.1	
서비스직	2.8	3.5	41.3	100.0	5.3	
생산직	4.2	0.0	50.0	100.0	5.7	
농어민	0.0	3.1	59.4	100.0	5.6	
미취업	3.6	2.2	45.5	100.0	5.4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4.8	4.2	56.0	100.0	5.7	55.537
200만원-300만원 미만	1.6	3.8	38.5	100.0	5.3	
300만원-400만원 미만	1.9	0.9	43.5	100.0	5.3	
400만원-500만원 미만	2.2	1.1	40.3	100.0	5.1	
500만원 이상	2.4	2.0	34.0	100.0	5.1	
모름/무응답	0.0	0.0	66.7	100.0	5.0	
<b>이념</b>						
진보	3.4	3.0	41.5	100.0	5.3	20.362
중도	2.2	2.2	38.3	100.0	5.2	
보수	2.3	2.0	46.2	100.0	5.3	

[문12-1]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 답해주시시오.

(단위 : %)

1)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3</b>	<b>6.0</b>	<b>7.3</b>	<b>35.3</b>	<b>57.4</b>	<b>92.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	6.8	8.4	35.3	56.3	91.6	100.0	2.126
여자	(506)	1.0	5.1	6.1	35.4	58.5	93.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0	8.5	8.5	37.5	54.0	91.5	100.0	29.575**
만30세-만39세	(183)	2.2	7.1	9.3	43.2	47.5	90.7	100.0	
만40세-만49세	(211)	1.9	4.3	6.2	40.8	53.1	93.8	100.0	
만50세-만59세	(199)	1.5	5.5	7.0	31.7	61.3	93.0	100.0	
만60세 이상	(236)	0.8	5.1	5.9	25.8	68.2	94.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	5.4	6.6	26.3	67.1	93.4	100.0	9.774
고졸 이하	(432)	1.2	6.0	7.2	35.2	57.6	92.8	100.0	
대졸 이상	(406)	1.5	6.2	7.6	39.2	53.2	92.4	100.0	
<b>지역</b>									
서울	(202)	1.0	11.9	12.9	49.5	37.6	87.1	100.0	73.031***
인천/경기	(298)	2.3	5.0	7.4	33.9	58.7	92.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6.6	7.5	32.1	60.4	92.5	100.0	
광주/전라	(101)	0.0	2.0	2.0	24.8	73.3	98.0	100.0	
대구/경북	(102)	2.0	2.0	3.9	21.6	74.5	96.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0	5.8	5.8	34.2	60.0	94.2	100.0	
강원/제주	(41)	2.4	2.4	4.9	48.8	46.3	95.1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8.9	10.7	41.1	48.2	89.3	100.0	29.734
관리직	(19)	5.3	5.3	10.5	36.8	52.6	89.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7.1	9.5	28.6	61.9	90.5	100.0	
사무직	(84)	1.2	3.6	4.8	53.6	41.7	95.2	100.0	
판매직	(217)	1.4	6.5	7.8	36.4	55.8	92.2	100.0	
서비스직	(254)	1.2	7.1	8.3	31.9	59.8	91.7	100.0	
생산직	(24)	0.0	4.2	4.2	45.8	50.0	95.8	100.0	
농어민	(32)	0.0	6.3	6.3	15.6	78.1	93.8	100.0	
미취업	(277)	1.1	4.7	5.8	33.2	61.0	94.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4	6.0	8.3	25.0	66.7	91.7	100.0	27.67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8.8	10.4	28.6	61.0	89.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9	5.6	6.5	36.1	57.4	93.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0	7.0	7.0	41.9	51.1	93.0	100.0	
500만원 이상	(250)	1.6	3.6	5.2	42.0	52.8	94.8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0.0	100.0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7	8.1	9.7	41.5	48.7	90.3	100.0	12.187
중도	(418)	1.2	4.3	5.5	32.8	61.7	94.5	100.0	
보수	(351)	1.1	6.6	7.7	34.2	58.1	92.3	100.0	

[문12-2]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 답해주시시오.

(단위 : %)

2) 나는 한국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례수 (명)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①+②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1</b>	<b>2.6</b>	<b>3.7</b>	<b>24.4</b>	<b>71.8</b>	<b>96.2</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	3.4	5.0	26.1	68.7	94.8	0.2	100.0	7.384
여자	(506)	0.6	1.8	2.4	22.7	74.9	97.6	0.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	1.7	2.8	32.4	64.8	97.2	0.0	100.0	30.025**
만30세-만39세	(183)	2.2	2.2	4.4	29.0	66.1	95.1	0.5	100.0	
만40세-만49세	(211)	0.5	1.4	1.9	28.4	69.7	98.1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0.5	4.5	5.0	15.6	79.4	95.0	0.0	100.0	
만60세 이상	(236)	1.3	3.0	4.2	18.6	77.1	95.8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8	3.0	4.8	20.4	74.9	95.2	0.0	100.0	7.596
고졸 이하	(432)	0.5	3.2	3.7	23.6	72.7	96.3	0.0	100.0	
대졸 이상	(406)	1.5	1.7	3.2	26.8	69.7	96.6	0.2	100.0	
<b>지역</b>										
서울	(202)	1.0	4.0	5.0	31.2	63.9	95.0	0.0	100.0	38.155**
인천/경기	(298)	1.7	2.0	3.7	26.8	69.5	96.3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4.7	6.6	15.1	78.3	93.4	0.0	100.0	
광주/전라	(101)	0.0	1.0	1.0	10.9	88.1	99.0	0.0	100.0	
대구/경북	(102)	0.0	1.0	1.0	22.5	76.5	99.0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1.3	2.6	25.8	71.0	96.8	0.6	100.0	
강원/제주	(41)	0.0	7.3	7.3	29.3	63.4	92.7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1.8	3.6	37.5	58.9	96.4	0.0	100.0	35.843
관리직	(19)	0.0	10.5	10.5	15.8	73.7	89.5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0.0	0.0	26.2	73.8	100.0	0.0	100.0	
사무직	(84)	2.4	1.2	3.6	38.1	58.3	96.4	0.0	100.0	
판매직	(217)	1.8	1.8	3.7	22.6	73.7	96.3	0.0	100.0	
서비스직	(254)	1.2	2.8	3.9	19.3	76.8	96.1	0.0	100.0	
생산직	(24)	0.0	4.2	4.2	12.5	79.2	91.7	4.2	100.0	
농어민	(32)	0.0	6.3	6.3	15.6	78.1	93.8	0.0	100.0	
미취업	(277)	0.4	2.9	3.2	26.0	70.8	96.8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0.6	1.2	1.8	20.2	78.0	98.2	0.0	100.0	17.12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4.4	6.0	18.7	75.3	94.0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9	1.9	2.8	22.7	74.1	96.8	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	3.2	4.3	31.2	64.5	95.7	0.0	100.0	
500만원 이상	(250)	1.2	2.4	3.6	28.0	68.4	96.4	0.0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0.4	2.5	3.0	30.9	66.1	97.0	0.0	100.0	10.390
중도	(418)	1.7	2.2	3.8	21.5	74.6	96.2	0.0	100.0	
보수	(351)	0.9	3.1	4.0	23.4	72.4	95.7	0.3	100.0	

[문12-3]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 답해주시시오.

(단위 : %)

3) 나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1.7</b>	<b>11.0</b>	<b>12.7</b>	<b>43.2</b>	<b>44.1</b>	<b>87.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6	13.8	16.4	41.9	41.7	83.6	100.0	13.520**
여자	(506)	0.8	8.3	9.1	44.5	46.4	90.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14.2	16.5	45.5	38.1	83.5	100.0	31.495**
만30세-만39세	(183)	3.8	15.8	19.7	39.3	41.0	80.3	100.0	
만40세-만49세	(211)	1.4	12.3	13.7	46.0	40.3	86.3	100.0	
만50세-만59세	(199)	0.5	9.0	9.5	46.2	44.2	90.5	100.0	
만60세 이상	(236)	0.8	5.5	6.4	39.4	54.2	93.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0	4.8	4.8	40.7	54.5	95.2	100.0	27.726***
고졸 이하	(432)	0.7	10.9	11.6	44.2	44.2	88.4	100.0	
대졸 이상	(406)	3.4	13.8	17.2	43.1	39.7	82.8	100.0	
<b>지역</b>									
서울	(202)	2.0	15.8	17.8	51.0	31.2	82.2	100.0	72.809***
인천/경기	(298)	3.4	11.7	15.1	48.7	36.2	84.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12.3	13.2	40.6	46.2	86.8	100.0	
광주/전라	(101)	0.0	5.9	5.9	27.7	66.3	94.1	100.0	
대구/경북	(102)	0.0	9.8	9.8	37.3	52.9	90.2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6.5	7.7	33.5	58.7	92.3	100.0	
강원/제주	(41)	0.0	12.2	12.2	61.0	26.8	87.8	100.0	
<b>직업</b>									
전문직	(56)	5.4	12.5	17.9	42.9	39.3	82.1	100.0	26.614
관리직	(19)	0.0	15.8	15.8	63.2	21.1	84.2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11.9	11.9	42.9	45.2	88.1	100.0	
사무직	(84)	2.4	13.1	15.5	45.2	39.3	84.5	100.0	
판매직	(217)	0.9	12.0	12.9	41.9	45.2	87.1	100.0	
서비스직	(254)	2.8	9.8	12.6	44.5	42.9	87.4	100.0	
생산직	(24)	0.0	8.3	8.3	58.3	33.3	91.7	100.0	
농어민	(32)	0.0	9.4	9.4	21.9	68.8	90.6	100.0	
미취업	(277)	1.1	10.5	11.6	42.2	46.2	88.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0.6	8.9	9.5	33.3	57.1	90.5	100.0	21.65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10.4	12.6	41.8	45.6	87.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	9.3	10.6	50.0	39.4	89.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	12.9	14.5	47.3	38.2	85.5	100.0	
500만원 이상	(250)	2.4	13.2	15.6	42.0	42.4	84.4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33.3	66.7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3.0	18.2	21.2	42.4	36.4	78.8	100.0	22.033**
중도	(418)	1.4	8.1	9.6	43.5	46.9	90.4	100.0	
보수	(351)	1.1	9.7	10.8	43.3	45.9	89.2	100.0	

[문12-4]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4) 나는 한국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5</b>	<b>10.8</b>	<b>12.3</b>	<b>48.7</b>	<b>39.0</b>	<b>87.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2	12.8	15.0	46.3	38.7	85.0	100.0	8.113*
여자	(506)	0.8	8.9	9.7	51.0	39.3	90.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0	13.1	13.1	50.0	36.9	86.9	100.0	19.739
만30세-만39세	(183)	3.3	13.7	16.9	50.8	32.2	83.1	100.0	
만40세-만49세	(211)	0.9	12.8	13.7	46.9	39.3	86.3	100.0	
만50세-만59세	(199)	1.0	9.5	10.6	46.7	42.7	89.4	100.0	
만60세 이상	(236)	2.1	6.4	8.5	49.2	42.4	91.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	4.8	6.0	51.5	42.5	94.0	100.0	9.429
고졸 이하	(432)	1.6	13.2	14.8	46.5	38.7	85.2	100.0	
대졸 이상	(406)	1.5	10.8	12.3	49.8	37.9	87.7	100.0	
<b>지역</b>									
서울	(202)	3.5	18.8	22.3	50.5	27.2	77.7	100.0	82.431***
인천/경기	(298)	2.0	10.4	12.4	56.7	30.9	87.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0	9.4	9.4	57.5	33.0	90.6	100.0	
광주/전라	(101)	1.0	6.9	7.9	31.7	60.4	92.1	100.0	
대구/경북	(102)	0.0	3.9	3.9	39.2	56.9	96.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6	8.4	9.0	41.9	49.0	91.0	100.0	
강원/제주	(41)	0.0	14.6	14.6	48.8	36.6	85.4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10.7	14.3	41.1	44.6	85.7	100.0	30.891
관리직	(19)	0.0	15.8	15.8	52.6	31.6	84.2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11.9	11.9	33.3	54.8	88.1	100.0	
사무직	(84)	2.4	7.1	9.5	54.8	35.7	90.5	100.0	
판매직	(217)	1.4	14.3	15.7	43.3	41.0	84.3	100.0	
서비스직	(254)	1.6	13.0	14.6	48.0	37.4	85.4	100.0	
생산직	(24)	0.0	4.2	4.2	62.5	33.3	95.8	100.0	
농어민	(32)	0.0	3.1	3.1	37.5	59.4	96.9	100.0	
미취업	(277)	1.4	8.3	9.7	55.2	35.0	90.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5.4	7.1	48.8	44.0	92.9	100.0	13.82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11.5	13.2	46.2	40.7	86.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3	10.2	12.5	50.0	37.5	87.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5	15.6	16.1	46.2	37.6	83.9	100.0	
500만원 이상	(250)	1.2	11.2	12.4	51.2	36.4	87.6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33.3	66.7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3	13.6	14.8	52.5	32.6	85.2	100.0	10.365
중도	(418)	1.0	9.8	10.8	45.9	43.3	89.2	100.0	
보수	(351)	2.3	10.3	12.5	49.3	38.2	87.5	100.0	

[문12-5]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5) 나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3</b>	<b>5.3</b>	<b>6.6</b>	<b>54.3</b>	<b>39.0</b>	<b>93.3</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4	5.8	7.2	55.3	37.5	92.8	0.0	100.0	1.405
여자	(506)	1.2	4.7	5.9	53.4	40.5	93.9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0	4.5	4.5	54.5	40.9	95.5	0.0	100.0	16.431
만30세-만39세	(183)	2.7	3.8	6.6	59.0	34.4	93.4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9	4.7	6.6	56.9	36.5	93.4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0.5	8.5	9.0	51.8	39.2	91.0	0.0	100.0	
만60세 이상	(236)	1.3	4.7	5.9	50.4	43.2	93.6	0.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6	4.2	4.8	49.1	46.1	95.2	0.0	100.0	7.211
고졸 이하	(432)	1.2	6.5	7.6	55.6	36.6	92.1	0.2	100.0	
대졸 이상	(406)	1.7	4.4	6.2	55.2	38.7	93.8	0.0	100.0	
<b>지역</b>										
서울	(202)	1.0	8.9	9.9	53.5	36.1	89.6	0.5	100.0	62.828***
인천/경기	(298)	2.0	4.0	6.0	61.7	32.2	94.0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3.8	4.7	50.0	45.3	95.3	0.0	100.0	
광주/전라	(101)	0.0	0.0	0.0	34.7	65.3	100.0	0.0	100.0	
대구/경북	(102)	1.0	3.9	4.9	48.0	47.1	95.1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6	7.7	8.4	61.9	29.7	91.6	0.0	100.0	
강원/제주	(41)	4.9	7.3	12.2	51.2	36.6	87.8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5.4	7.1	60.7	32.1	92.9	0.0	100.0	54.110***
관리직	(19)	5.3	10.5	15.8	63.2	21.1	84.2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4.8	4.8	47.6	47.6	95.2	0.0	100.0	
사무직	(84)	2.4	7.1	9.5	58.3	32.1	90.5	0.0	100.0	
판매직	(217)	2.3	5.1	7.4	49.8	42.9	92.6	0.0	100.0	
서비스직	(254)	0.4	6.3	6.7	55.1	38.2	93.3	0.0	100.0	
생산직	(24)	8.3	4.2	12.5	54.2	33.3	87.5	0.0	100.0	
농어민	(32)	0.0	0.0	0.0	18.8	81.3	100.0	0.0	100.0	
미취업	(277)	0.4	4.3	4.7	59.2	35.7	94.9	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0.0	4.2	4.2	48.8	47.0	95.8	0.0	100.0	16.12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5.5	7.7	48.4	44.0	92.3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	4.6	6.0	58.3	35.6	94.0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7.0	9.1	56.5	33.9	90.3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0.8	5.2	6.0	57.6	36.4	94.0	0.0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33.3	66.7	10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5	4.2	6.8	61.9	31.4	93.2	0.0	100.0	14.490*
중도	(418)	0.5	5.3	5.7	51.2	43.1	94.3	0.0	100.0	
보수	(351)	1.4	6.0	7.4	53.0	39.3	92.3	0.3	100.0	

[문12-6]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 답해주시시오.

(단위 : %)

6) 나는 훌륭한 한국 사람이 되고싶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 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 지 않다	(4)전 혀 그렇 지 않다	③+④	모름/ 응답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27.3</b>	<b>53.2</b>	<b>80.5</b>	<b>15.6</b>	<b>3.8</b>	<b>19.4</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6.9	52.7	79.6	16.6	3.8	20.4	0.0	100.0	0.763
여자	(506)	27.7	53.8	81.4	14.6	3.8	18.4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6.1	53.4	79.5	15.9	4.5	20.5	0.0	100.0	15.685
만30세-만39세	(183)	23.0	57.9	80.9	17.5	1.6	19.1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24.6	52.1	76.8	17.5	5.2	22.7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26.6	52.3	78.9	16.1	5.0	21.1	0.0	100.0	
만60세 이상	(236)	34.3	51.3	85.6	11.9	2.5	14.4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8.7	54.5	83.2	13.2	3.6	16.8	0.0	100.0	2.131
고졸 이하	(432)	26.2	52.5	78.7	17.1	4.2	21.3	0.0	100.0	
대졸 이상	(406)	27.8	53.4	81.3	15.0	3.4	18.5	0.2	100.0	
<b>지역</b>										
서울	(202)	24.3	53.5	77.7	18.3	3.5	21.8	0.5	100.0	54.402***
인천/경기	(298)	27.9	52.0	79.9	13.8	6.4	20.1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0	66.0	83.0	14.2	2.8	17.0	0.0	100.0	
광주/전라	(101)	31.7	49.5	81.2	16.8	2.0	18.8	0.0	100.0	
대구/경북	(102)	46.1	35.3	81.4	13.7	4.9	18.6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8.7 39.0	62.6 46.3	81.3 85.4	18.7 9.8	0.0 4.9	18.7 14.6	0.0 0.0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2.1	48.2	80.4	12.5	5.4	17.9	1.8	100.0	29.101
관리직	(19)	21.1	73.7	94.7	5.3	0.0	5.3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0.5	38.1	78.6	14.3	7.1	21.4	0.0	100.0	
사무직	(84)	17.9	60.7	78.6	17.9	3.6	21.4	0.0	100.0	
판매직	(217)	24.0	51.2	75.1	18.9	6.0	24.9	0.0	100.0	
서비스직	(254)	28.0	51.6	79.5	16.9	3.5	20.5	0.0	100.0	
생산직	(24)	20.8	70.8	91.7	8.3	0.0	8.3	0.0	100.0	
농어민	(32)	37.5	50.0	87.5	9.4	3.1	12.5	0.0	100.0	
미취업	(277)	28.9	54.9	83.8	14.1	2.2	16.2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3.9	53.0	86.9	10.1	3.0	13.1	0.0	100.0	21.83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3.0	48.4	81.3	14.3	4.4	18.7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1.8	55.1	76.9	20.4	2.8	23.1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4	48.9	76.3	18.8	4.3	23.1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22.8	58.8	81.6	14.0	4.4	18.4	0.0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8.8	53.8	82.6	14.4	2.5	16.9	0.4	100.0	2.492
중도	(418)	27.8	52.4	80.1	16.0	3.8	19.9	0.0	100.0	
보수	(351)	25.6	53.8	79.5	16.0	4.6	20.5	0.0	100.0	

[문12-7]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7) 나는 한국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27.4</b>	<b>52.5</b>	<b>79.9</b>	<b>16.5</b>	<b>3.6</b>	<b>20.1</b>	<b>100.0</b>	
성별	남자	(499)	27.3	52.1	79.4	17.0	3.6	20.6	100.0	0.202
	여자	(506)	27.5	53.0	80.4	16.0	3.6	19.6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25.0	49.4	74.4	20.5	5.1	25.6	100.0	34.829***
	만30세-만39세	(183)	19.7	53.6	73.2	24.0	2.7	26.8	100.0	
	만40세-만49세	(211)	22.3	58.3	80.6	15.6	3.8	19.4	100.0	
	만50세-만59세	(199)	29.1	53.3	82.4	13.6	4.0	17.6	100.0	
	만60세 이상	(236)	38.1	48.3	86.4	11.0	2.5	13.6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34.1	52.7	86.8	10.2	3.0	13.2	100.0	10.405
	고졸 이하	(432)	27.8	52.1	79.9	16.9	3.2	20.1	100.0	
	대졸 이상	(406)	24.1	53.0	77.1	18.7	4.2	22.9	100.0	
지역	서울	(202)	27.7	53.0	80.7	16.3	3.0	19.3	100.0	37.800**
	인천/경기	(298)	24.5	52.7	77.2	16.4	6.4	22.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8.3	50.9	79.2	18.9	1.9	20.8	100.0	
	광주/전라	(101)	29.7	43.6	73.3	24.8	2.0	26.7	100.0	
	대구/경북	(102)	38.2	42.2	80.4	14.7	4.9	19.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21.9 31.7	65.8 51.2	87.7 82.9	12.3 12.2	0.0 4.9	12.3 17.1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23.2	53.6	76.8	16.1	7.1	23.2	100.0	32.178
	관리직	(19)	47.4	47.4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1.0	45.2	76.2	16.7	7.1	23.8	100.0	
	사무직	(84)	11.9	58.3	70.2	25.0	4.8	29.8	100.0	
	판매직	(217)	25.3	53.9	79.3	17.5	3.2	20.7	100.0	
	서비스직	(254)	26.4	52.0	78.3	17.3	4.3	21.7	100.0	
	생산직	(24)	41.7	45.8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40.6	43.8	84.4	12.5	3.1	15.6	100.0	
	미취업	(277)	30.7	53.1	83.8	14.1	2.2	16.2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36.9	51.2	88.1	10.1	1.8	11.9	100.0	27.88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9.7	49.5	79.1	17.6	3.3	20.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8.7	53.7	82.4	14.4	3.2	17.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1.0	49.5	70.4	24.2	5.4	29.6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2.4 66.7	57.2 33.3	79.6 100.0	16.4 0.0	4.0 0.0	20.4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26.7	51.7	78.4	19.5	2.1	21.6	100.0	5.711
	중도	(418)	28.5	50.5	78.9	16.7	4.3	21.1	100.0	
	보수	(351)	26.5	55.6	82.1	14.2	3.7	17.9	100.0	

[문12-8]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8) 다른 한국 사람들은 내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1.2</b>	<b>46.9</b>	<b>58.1</b>	<b>36.3</b>	<b>5.6</b>	<b>41.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9.6	48.5	58.1	37.7	4.2	41.9	100.0	6.699
여자	(506)	12.8	45.3	58.1	35.0	6.9	41.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4.8	43.8	58.5	35.2	6.3	41.5	100.0	15.807
만30세-만39세	(183)	10.9	44.3	55.2	41.0	3.8	44.8	100.0	
만40세-만49세	(211)	10.4	42.7	53.1	40.8	6.2	46.9	100.0	
만50세-만59세	(199)	9.0	47.2	56.3	38.2	5.5	43.7	100.0	
만60세 이상	(236)	11.4	54.7	66.1	28.0	5.9	33.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9.0	53.9	62.9	29.3	7.8	37.1	100.0	9.735
고졸 이하	(432)	11.3	45.1	56.5	39.4	4.2	43.5	100.0	
대졸 이상	(406)	12.1	45.8	57.9	36.0	6.2	42.1	100.0	
<b>지역</b>									
서울	(202)	14.4	39.6	54.0	43.1	3.0	46.0	100.0	35.738**
인천/경기	(298)	8.4	46.0	54.4	36.6	9.1	45.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0.4	53.8	64.2	31.1	4.7	35.8	100.0	
광주/전라	(101)	11.9	41.6	53.5	35.6	10.9	46.5	100.0	
대구/경북	(102)	14.7	52.9	67.6	29.4	2.9	32.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1.0	52.3	63.2	34.8	1.9	36.8	100.0	
강원/제주	(41)	9.8	48.8	58.5	39.0	2.4	41.5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41.1	55.4	35.7	8.9	44.6	100.0	23.080
관리직	(19)	10.5	47.4	57.9	36.8	5.3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45.2	57.1	33.3	9.5	42.9	100.0	
사무직	(84)	9.5	35.7	45.2	47.6	7.1	54.8	100.0	
판매직	(217)	11.1	46.5	57.6	37.8	4.6	42.4	100.0	
서비스직	(254)	11.8	45.7	57.5	37.4	5.1	42.5	100.0	
생산직	(24)	0.0	70.8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12.5	43.8	56.3	43.8	0.0	43.8	100.0	
미취업	(277)	11.6	51.3	62.8	31.0	6.1	37.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3.7	50.6	64.3	32.1	3.6	35.7	100.0	13.44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9.9	50.0	59.9	34.1	6.0	40.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0.2	45.8	56.0	40.7	3.2	44.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9.7	48.9	58.6	33.9	7.5	41.4	100.0	
500만원 이상	(250)	12.0	41.6	53.6	39.2	7.2	46.4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1.9	47.0	58.9	36.0	5.1	41.1	100.0	5.900
중도	(418)	9.8	44.7	54.5	38.5	6.9	45.5	100.0	
보수	(351)	12.5	49.3	61.8	33.9	4.3	38.2	100.0	

[문12-9]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9)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1.1</b>	<b>42.6</b>	<b>53.7</b>	<b>40.5</b>	<b>5.7</b>	<b>46.2</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3.0	43.9	56.9	38.5	4.6	43.1	0.0	100.0	6.513
여자	(506)	9.3	41.3	50.6	42.5	6.7	49.2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3.6	38.6	52.3	42.6	5.1	47.7	0.0	100.0	4.498
만30세-만39세	(183)	9.8	42.1	51.9	42.1	6.0	48.1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0.0	43.1	53.1	40.3	6.2	46.4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10.1	42.7	52.8	41.7	5.5	47.2	0.0	100.0	
만60세 이상	(236)	12.3	45.3	57.6	36.9	5.5	42.4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9.0	49.1	58.1	37.7	4.2	41.9	0.0	100.0	6.591
고졸 이하	(432)	11.1	41.2	52.3	40.3	7.2	47.5	0.2	100.0	
대졸 이상	(406)	12.1	41.4	53.4	41.9	4.7	46.6	0.0	100.0	
<b>지역</b>										
서울	(202)	14.4	46.5	60.9	34.7	4.5	39.1	0.0	100.0	51.823***
인천/경기	(298)	12.8	35.9	48.7	43.3	8.1	51.3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9.4	56.6	66.0	30.2	2.8	33.0	0.9	100.0	
광주/전라	(101)	6.9	34.7	41.6	46.5	11.9	58.4	0.0	100.0	
대구/경북	(102)	14.7	52.0	66.7	31.4	2.0	33.3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7	41.3	49.0	47.1	3.9	51.0	0.0	100.0	
강원/제주	(41)	2.4	36.6	39.0	58.5	2.4	61.0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33.9	51.8	37.5	10.7	48.2	0.0	100.0	23.885
관리직	(19)	21.1	42.1	63.2	31.6	5.3	36.8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45.2	64.3	33.3	2.4	35.7	0.0	100.0	
사무직	(84)	4.8	44.0	48.8	46.4	4.8	51.2	0.0	100.0	
판매직	(217)	7.4	45.6	53.0	41.0	6.0	47.0	0.0	100.0	
서비스직	(254)	11.4	43.3	54.7	39.8	5.5	45.3	0.0	100.0	
생산직	(24)	16.7	41.7	58.3	41.7	0.0	41.7	0.0	100.0	
농어민	(32)	9.4	53.1	62.5	31.3	6.3	37.5	0.0	100.0	
미취업	(277)	12.3	39.4	51.6	42.2	5.8	48.0	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9	45.2	60.1	34.5	5.4	39.9	0.0	100.0	18.60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0.4	47.8	58.2	37.9	3.8	41.8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0	43.5	49.5	44.9	5.6	50.5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8	40.3	52.2	43.0	4.3	47.3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12.4	38.4	50.8	40.8	8.4	49.2	0.0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33.3	0.0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1.0	42.8	53.8	41.1	5.1	46.2	0.0	100.0	1.002
중도	(418)	10.8	42.1	52.9	40.4	6.5	46.9	0.2	100.0	
보수	(351)	11.7	43.0	54.7	40.2	5.1	45.3	0.0	100.0	

[문12-10]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10)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9.0</b>	<b>52.8</b>	<b>71.8</b>	<b>26.0</b>	<b>2.2</b>	<b>28.2</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8	54.1	70.9	27.3	1.8	29.1	100.0	4.064
여자	(506)	21.1	51.6	72.7	24.7	2.6	27.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6	49.4	67.0	29.5	3.4	33.0	100.0	26.081*
만30세-만39세	(183)	14.2	54.1	68.3	31.1	0.5	31.7	100.0	
만40세-만49세	(211)	15.6	52.1	67.8	28.0	4.3	32.2	100.0	
만50세-만59세	(199)	22.6	53.3	75.9	21.6	2.5	24.1	100.0	
만60세 이상	(236)	23.7	54.7	78.4	21.2	0.4	21.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2.8	56.9	79.6	19.8	0.6	20.4	100.0	12.021
고졸 이하	(432)	20.8	51.6	72.5	25.2	2.3	27.5	100.0	
대졸 이상	(406)	15.5	52.5	68.0	29.3	2.7	32.0	100.0	
<b>지역</b>									
서울	(202)	24.8	50.5	75.2	24.3	0.5	24.8	100.0	41.002**
인천/경기	(298)	14.1	58.7	72.8	22.1	5.0	27.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51.9	67.0	32.1	0.9	33.0	100.0	
광주/전라	(101)	17.8	48.5	66.3	32.7	1.0	33.7	100.0	
대구/경북	(102)	21.6	44.1	65.7	31.4	2.9	34.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1.3	52.3	73.5	26.5	0.0	26.5	100.0	
강원/제주	(41)	24.4	58.5	82.9	14.6	2.4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41.1	58.9	39.3	1.8	41.1	100.0	26.923
관리직	(19)	15.8	57.9	73.7	26.3	0.0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6.2	50.0	76.2	21.4	2.4	23.8	100.0	
사무직	(84)	16.7	52.4	69.0	26.2	4.8	31.0	100.0	
판매직	(217)	17.5	50.2	67.7	28.1	4.1	32.3	100.0	
서비스직	(254)	18.9	52.0	70.9	27.6	1.6	29.1	100.0	
생산직	(24)	33.3	50.0	83.3	16.7	0.0	16.7	100.0	
농어민	(32)	15.6	68.8	84.4	15.6	0.0	15.6	100.0	
미취업	(277)	19.5	56.7	76.2	22.7	1.1	23.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0.2	57.1	77.4	22.0	0.6	22.6	100.0	16.86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2	54.9	74.2	23.1	2.7	25.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1.8	51.4	73.1	26.4	0.5	26.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7.2	52.2	69.4	28.5	2.2	30.6	100.0	
500만원 이상	(250)	16.4	50.4	66.8	28.8	4.4	33.2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7.8	49.2	66.9	30.9	2.1	33.1	100.0	7.573
중도	(418)	18.2	52.4	70.6	27.0	2.4	29.4	100.0	
보수	(351)	20.8	55.8	76.6	21.4	2.0	23.4	100.0	

[문12-11]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11)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20.2	49.8	70.0	27.0	3.1	30.0	100.0	
<b>성별</b>									
남자	(499)	19.0	50.1	69.1	27.1	3.8	30.9	100.0	2.368
여자	(506)	21.3	49.4	70.8	26.9	2.4	29.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5.9	46.6	62.5	31.3	6.3	37.5	100.0	49.488***
만30세-만39세	(183)	16.4	42.6	59.0	35.5	5.5	41.0	100.0	
만40세-만49세	(211)	16.1	52.1	68.2	29.4	2.4	31.8	100.0	
만50세-만59세	(199)	20.1	55.3	75.4	22.6	2.0	24.6	100.0	
만60세 이상	(236)	30.1	50.8	80.9	18.6	0.4	19.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0	55.7	79.6	19.8	0.6	20.4	100.0	20.089**
고졸 이하	(432)	21.8	50.5	72.2	25.2	2.5	27.8	100.0	
대졸 이상	(406)	17.0	46.6	63.5	31.8	4.7	36.5	100.0	
<b>지역</b>									
서울	(202)	19.8	51.0	70.8	27.7	1.5	29.2	100.0	39.478**
인천/경기	(298)	18.8	49.7	68.5	25.8	5.7	31.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0	52.8	69.8	27.4	2.8	30.2	100.0	
광주/전라	(101)	12.9	42.6	55.4	42.6	2.0	44.6	100.0	
대구/경북	(102)	26.5	52.0	78.4	17.6	3.9	21.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7.7	45.8	73.5	25.8	0.6	26.5	100.0	
강원/제주	(41)	14.6	63.4	78.0	19.5	2.4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9.6	42.9	62.5	28.6	8.9	37.5	100.0	37.120*
관리직	(19)	36.8	42.1	78.9	21.1	0.0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6.2	52.4	78.6	16.7	4.8	21.4	100.0	
사무직	(84)	8.3	47.6	56.0	40.5	3.6	44.0	100.0	
판매직	(217)	15.7	52.1	67.7	29.5	2.8	32.3	100.0	
서비스직	(254)	21.3	50.0	71.3	26.8	2.0	28.7	100.0	
생산직	(24)	37.5	45.8	83.3	16.7	0.0	16.7	100.0	
농어민	(32)	25.0	43.8	68.8	28.1	3.1	31.3	100.0	
미취업	(277)	22.4	50.9	73.3	23.5	3.2	26.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0.4	53.0	83.3	16.1	0.6	16.7	100.0	35.42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1.4	48.9	70.3	26.4	3.3	29.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6.2	54.6	70.8	27.3	1.9	29.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8.8	43.5	62.4	33.9	3.8	37.6	100.0	
500만원 이상	(250)	16.0	49.2	65.2	29.6	5.2	34.8	100.0	
모름/무응답	(3)	100.0	0.0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7.4	46.6	64.0	30.1	5.9	36.0	100.0	15.978*
중도	(418)	22.0	47.1	69.1	28.5	2.4	30.9	100.0	
보수	(351)	19.9	55.0	74.9	23.1	2.0	25.1	100.0	

[문12-12]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시오

(단위 : %)

12)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27.5	55.5	83.0	14.8	2.2	17.0	100.0	
<b>성별</b>									
남자	(499)	28.1	53.7	81.8	15.8	2.4	18.2	100.0	1.602
여자	(506)	26.9	57.3	84.2	13.8	2.0	15.8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5.6	54.5	80.1	16.5	3.4	19.9	100.0	20.445
만30세-만39세	(183)	20.8	61.2	82.0	15.8	2.2	18.0	100.0	
만40세-만49세	(211)	24.6	55.9	80.6	17.1	2.4	19.4	100.0	
만50세-만59세	(199)	27.1	55.3	82.4	15.1	2.5	17.6	100.0	
만60세 이상	(236)	36.9	51.7	88.6	10.6	0.8	11.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3.5	52.1	85.6	13.8	0.6	14.4	100.0	6.842
고졸 이하	(432)	26.9	55.3	82.2	15.7	2.1	17.8	100.0	
대졸 이상	(406)	25.6	57.1	82.8	14.3	3.0	17.2	100.0	
<b>지역</b>									
서울	(202)	20.8	60.4	81.2	18.3	0.5	18.8	100.0	90.879***
인천/경기	(298)	19.1	54.4	73.5	20.8	5.7	26.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3.6	67.0	90.6	9.4	0.0	9.4	100.0	
광주/전라	(101)	31.7	52.5	84.2	15.8	0.0	15.8	100.0	
대구/경북	(102)	37.3	52.9	90.2	8.8	1.0	9.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5.8	47.7	93.5	4.5	1.9	6.5	100.0	
강원/제주	(41)	26.8	53.7	80.5	19.5	0.0	19.5	100.0	
<b>직업</b>									
전문직	(56)	26.8	46.4	73.2	21.4	5.4	26.8	100.0	22.914
관리직	(19)	31.6	57.9	89.5	10.5	0.0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8.6	54.8	83.3	11.9	4.8	16.7	100.0	
사무직	(84)	19.0	63.1	82.1	15.5	2.4	17.9	100.0	
판매직	(217)	23.5	56.7	80.2	17.5	2.3	19.8	100.0	
서비스직	(254)	29.1	52.8	81.9	15.4	2.8	18.1	100.0	
생산직	(24)	41.7	45.8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37.5	56.3	93.8	6.3	0.0	6.3	100.0	
미취업	(277)	28.9	57.4	86.3	12.6	1.1	13.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8.1	48.2	86.3	13.1	0.6	13.7	100.0	30.83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1.3	50.0	81.3	15.4	3.3	18.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2.2	63.9	86.1	13.4	0.5	13.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8.0	55.9	83.9	14.0	2.2	16.1	100.0	
500만원 이상	(250)	21.2	57.2	78.4	17.6	4.0	21.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4.6	56.4	80.9	16.5	2.5	19.1	100.0	4.586
중도	(418)	28.9	52.9	81.8	15.8	2.4	18.2	100.0	
보수	(351)	27.6	58.1	85.8	12.5	1.7	14.2	100.0	

[문13-1] 귀하가 속한 다음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단위 : %)

1) 남한 국민	사례수 (명)	(1)매우 소속감이 강하다	(2)약간 소속감이 있다	①+②	(3)별로 소속감이 있지 않다	(4)전혀 소속감이 없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50.0</b>	<b>43.6</b>	<b>93.6</b>	<b>5.8</b>	<b>0.6</b>	<b>6.4</b>	<b>100.0</b>		
성별	남자	(499)	49.1	45.1	94.2	5.0	0.8	5.8	100.0	2.386
	여자	(506)	51.0	42.1	93.1	6.5	0.4	6.9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42.0	47.7	89.8	8.5	1.7	10.2	100.0	24.505*
	만30세-만39세	(183)	43.2	48.1	91.3	8.2	0.5	8.7	100.0	
	만40세-만49세	(211)	50.2	44.1	94.3	5.7	0.0	5.7	100.0	
	만50세-만59세	(199)	52.8	43.2	96.0	3.5	0.5	4.0	100.0	
	만60세 이상	(236)	58.9	36.9	95.8	3.8	0.4	4.2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58.1	37.1	95.2	4.2	0.6	4.8	100.0	6.280
	고졸 이하	(432)	48.6	44.0	92.6	6.7	0.7	7.4	100.0	
	대졸 이상	(406)	48.3	45.8	94.1	5.4	0.5	5.9	100.0	
지역	서울	(202)	43.1	48.5	91.6	7.4	1.0	8.4	100.0	36.027**
	인천/경기	(298)	54.0	38.6	92.6	6.4	1.0	7.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6.2	47.2	93.4	6.6	0.0	6.6	100.0	
	광주/전라	(101)	58.4	38.6	97.0	3.0	0.0	3.0	100.0	
	대구/경북	(102)	63.7	32.4	96.1	2.9	1.0	3.9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40.0 48.8	56.1 39.0	96.1 87.8	3.9 12.2	0.0 0.0	3.9 12.2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57.1	35.7	92.9	5.4	1.8	7.1	100.0	28.313
	관리직	(19)	52.6	42.1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61.9	26.2	88.1	11.9	0.0	11.9	100.0	
	사무직	(84)	38.1	51.2	89.3	10.7	0.0	10.7	100.0	
	판매직	(217)	48.8	46.1	94.9	4.1	0.9	5.1	100.0	
	서비스직	(254)	50.8	42.9	93.7	5.9	0.4	6.3	100.0	
	생산직	(24)	50.0	45.8	95.8	4.2	0.0	4.2	100.0	
	농어민	(32)	50.0	34.4	84.4	12.5	3.1	15.6	100.0	
	미취업	(277)	50.5	45.1	95.7	4.0	0.4	4.3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59.5	34.5	94.0	4.8	1.2	6.0	100.0	25.6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58.2	34.6	92.9	7.1	0.0	7.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3.1	50.9	94.0	5.1	0.9	6.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2.5	51.6	94.1	5.4	0.5	5.9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49.2 66.7	44.0 33.3	93.2 100.0	6.4 0.0	0.4 0.0	6.8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50.0	45.8	95.8	4.2	0.0	4.2	100.0	4.824
	중도	(418)	51.4	41.1	92.6	6.7	0.7	7.4	100.0	
	보수	(351)	48.4	45.0	93.4	5.7	0.9	6.6	100.0	

[문13-2] 귀하가 속한 다음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단위 : %)

2) 한민족	사례수 (명)	(1)매우 소속감 이 강하다	(2)약간 소속감 이 있다	①+②	(3)별로 소속감 을 있지 않다	(4)전혀 소속감 을 있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30.4	55.3	85.8	12.9	1.3	14.2	100.0	
<b>성별</b>									
남자	(499)	29.5	57.3	86.8	12.0	1.2	13.2	100.0	1.729
여자	(506)	31.4	53.4	84.8	13.8	1.4	15.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1.6	58.0	79.5	17.0	3.4	20.5	100.0	40.859***
만30세-만39세	(183)	23.5	56.3	79.8	17.5	2.7	20.2	100.0	
만40세-만49세	(211)	31.8	54.0	85.8	13.7	0.5	14.2	100.0	
만50세-만59세	(199)	34.7	52.8	87.4	12.1	0.5	12.6	100.0	
만60세 이상	(236)	37.7	55.9	93.6	6.4	0.0	6.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2.3	58.1	90.4	9.6	0.0	9.6	100.0	11.027
고졸 이하	(432)	31.5	52.3	83.8	15.3	0.9	16.2	100.0	
대졸 이상	(406)	28.6	57.4	86.0	11.8	2.2	14.0	100.0	
<b>지역</b>									
서울	(202)	20.3	59.9	80.2	17.8	2.0	19.8	100.0	37.633**
인천/경기	(298)	33.9	52.3	86.2	11.7	2.0	13.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7	51.9	90.6	8.5	0.9	9.4	100.0	
광주/전라	(101)	39.6	40.6	80.2	18.8	1.0	19.8	100.0	
대구/경북	(102)	29.4	57.8	87.3	11.8	1.0	12.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7.7	63.9	91.6	8.4	0.0	8.4	100.0	
강원/제주	(41)	24.4	61.0	85.4	14.6	0.0	14.6	100.0	
<b>직업</b>									
전문직	(56)	37.5	46.4	83.9	12.5	3.6	16.1	100.0	34.939
관리직	(19)	42.1	47.4	89.5	10.5	0.0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40.5	83.3	16.7	0.0	16.7	100.0	
사무직	(84)	20.2	58.3	78.6	20.2	1.2	21.4	100.0	
판매직	(217)	26.3	59.9	86.2	12.4	1.4	13.8	100.0	
서비스직	(254)	30.3	58.3	88.6	9.8	1.6	11.4	100.0	
생산직	(24)	45.8	45.8	91.7	8.3	0.0	8.3	100.0	
농어민	(32)	46.9	28.1	75.0	21.9	3.1	25.0	100.0	
미취업	(277)	29.6	56.7	86.3	13.0	0.7	13.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5.7	54.2	89.9	7.7	2.4	10.1	100.0	22.38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4.6	53.8	88.5	11.0	0.5	11.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5.5	61.6	87.0	12.5	0.5	13.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1.7	50.0	81.7	17.7	0.5	18.3	100.0	
500만원 이상	(250)	27.2	56.0	83.2	14.4	2.4	16.8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28.0	55.9	83.9	15.3	0.8	16.1	100.0	3.819
중도	(418)	32.8	54.3	87.1	11.7	1.2	12.9	100.0	
보수	(351)	29.3	56.1	85.5	12.8	1.7	14.5	100.0	

[문13-3] 귀하가 속한 다음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단위 : %)

3) 아시아인	사례수 (명)	(1)매우 소속감이 강하다	(2)약간 소속감이 있다	①+②	(3)별로 소속감이 있지 않다	(4)전혀 소속감이 없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10.6</b>	<b>50.9</b>	<b>61.6</b>	<b>34.4</b>	<b>4.0</b>	<b>38.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0.4	49.3	59.7	36.5	3.8	40.3	100.0	1.853
여자	(506)	10.9	52.6	63.4	32.4	4.2	36.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0	51.1	59.1	37.5	3.4	40.9	100.0	23.099*
만30세-만39세	(183)	4.4	49.7	54.1	41.5	4.4	45.9	100.0	
만40세-만49세	(211)	10.9	47.9	58.8	35.5	5.7	41.2	100.0	
만50세-만59세	(199)	15.1	51.3	66.3	30.2	3.5	33.7	100.0	
만60세 이상	(236)	13.6	54.2	67.8	29.2	3.0	32.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0	55.1	67.1	29.3	3.6	32.9	100.0	5.340
고졸 이하	(432)	10.9	48.1	59.0	37.5	3.5	41.0	100.0	
대졸 이상	(406)	9.9	52.2	62.1	33.3	4.7	37.9	100.0	
<b>지역</b>									
서울	(202)	7.9	40.1	48.0	45.5	6.4	52.0	100.0	53.604***
인천/경기	(298)	14.8	44.0	58.7	37.6	3.7	41.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9.4	64.2	73.6	24.5	1.9	26.4	100.0	
광주/전라	(101)	8.9	55.4	64.4	33.7	2.0	35.6	100.0	
대구/경북	(102)	11.8	55.9	67.6	28.4	3.9	32.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8	62.6	68.4	29.0	2.6	31.6	100.0	
강원/제주	(41)	17.1	53.7	70.7	19.5	9.8	29.3	100.0	
<b>직업</b>									
전문직	(56)	19.6	50.0	69.6	23.2	7.1	30.4	100.0	33.680
관리직	(19)	15.8	47.4	63.2	31.6	5.3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1.4	52.4	73.8	23.8	2.4	26.2	100.0	
사무직	(84)	4.8	46.4	51.2	44.0	4.8	48.8	100.0	
판매직	(217)	9.2	49.3	58.5	36.9	4.6	41.5	100.0	
서비스직	(254)	11.0	48.0	59.1	37.0	3.9	40.9	100.0	
생산직	(24)	25.0	45.8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12.5	46.9	59.4	37.5	3.1	40.6	100.0	
미취업	(277)	7.9	57.4	65.3	31.4	3.2	34.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3.7	57.1	70.8	26.2	3.0	29.2	100.0	19.00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3.2	49.5	62.6	31.9	5.5	37.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4	54.2	61.6	36.1	2.3	38.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8.1	51.6	59.7	36.6	3.8	40.3	100.0	
500만원 이상	(250)	11.2	44.8	56.0	38.8	5.2	44.0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8.1	51.7	59.7	36.0	4.2	40.3	100.0	4.499
중도	(418)	12.0	49.8	61.7	35.2	3.1	38.3	100.0	
보수	(351)	10.8	51.9	62.7	32.5	4.8	37.3	100.0	

[문13-4] 귀하가 속한 다음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단위 : %)

4) 세계인	사례수 (명)	(1)매우 소속감이 강하다	(2)약간 소속감이 있다	①+②	(3)별로 소속감이 있지 않다	(4)전혀 소속감이 있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b>(1,005)</b>	<b>8.8</b>	<b>38.5</b>	<b>47.3</b>	<b>43.3</b>	<b>9.5</b>	<b>52.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8.8	37.9	46.7	43.3	10.0	53.3	100.0	0.444
여자	(506)	8.7	39.1	47.8	43.3	8.9	52.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9.1	40.3	49.4	44.3	6.3	50.6	100.0	15.980
만30세-만39세	(183)	2.7	37.2	39.9	47.5	12.6	60.1	100.0	
만40세-만49세	(211)	9.5	37.9	47.4	43.6	9.0	52.6	100.0	
만50세-만59세	(199)	10.1	38.2	48.2	42.7	9.0	51.8	100.0	
만60세 이상	(236)	11.4	39.0	50.4	39.4	10.2	49.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8.4	38.9	47.3	40.7	12.0	52.7	100.0	4.341
고졸 이하	(432)	9.0	37.0	46.1	46.1	7.9	53.9	100.0	
대졸 이상	(406)	8.6	39.9	48.5	41.4	10.1	51.5	100.0	
<b>지역</b>									
서울	(202)	7.9	29.7	37.6	46.5	15.8	62.4	100.0	55.354***
인천/경기	(298)	13.1	36.6	49.7	39.6	10.7	50.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51.9	58.5	36.8	4.7	41.5	100.0	
광주/전라	(101)	5.0	33.7	38.6	54.5	6.9	61.4	100.0	
대구/경북	(102)	12.7	45.1	57.8	35.3	6.9	42.2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9 12.2	44.5 34.1	46.5 46.3	47.1 48.8	6.5 4.9	53.5 53.7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50.0	66.1	25.0	8.9	33.9	100.0	40.870*
관리직	(19)	10.5	31.6	42.1	47.4	10.5	57.9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1.4	40.5	61.9	33.3	4.8	38.1	100.0	
사무직	(84)	4.8	36.9	41.7	44.0	14.3	58.3	100.0	
판매직	(217)	6.5	32.7	39.2	53.9	6.9	60.8	100.0	
서비스직	(254)	8.7	37.0	45.7	42.1	12.2	54.3	100.0	
생산직	(24)	12.5	45.8	58.3	29.2	12.5	41.7	100.0	
농어민	(32)	12.5	40.6	53.1	37.5	9.4	46.9	100.0	
미취업	(277)	7.6	41.9	49.5	42.6	7.9	50.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1.9	41.7	53.6	36.3	10.1	46.4	100.0	14.58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5	31.9	43.4	47.3	9.3	56.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4	42.1	49.5	42.6	7.9	5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7.0	37.6	44.6	47.3	8.1	55.4	100.0	
500만원 이상	(250)	6.8	38.8	45.6	42.8	11.6	54.4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5.5	38.6	44.1	47.5	8.5	55.9	100.0	15.565*
중도	(418)	10.5	39.2	49.8	43.5	6.7	50.2	100.0	
보수	(351)	8.8	37.6	46.4	40.2	13.4	53.6	100.0	

[문14-1]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탈북자	사례수 (명)	(1)우리의 민족구성원 이다	(2)우리의 민족구성원 은/도 수있다	①+②	(3)우리의 민족구성원 으로 보이지 않는다	(4)우리의 민족구성원 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7.0</b>	<b>51.9</b>	<b>89.0</b>	<b>10.1</b>	<b>0.9</b>	<b>11.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8.1	54.1	92.2	7.0	0.8	7.8	100.0	10.895*
여자	(506)	36.0	49.8	85.8	13.2	1.0	14.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2.4	53.4	85.8	10.8	3.4	14.2	100.0	28.400**
만30세-만39세	(183)	31.1	56.8	88.0	12.0	0.0	12.0	100.0	
만40세-만49세	(211)	44.5	45.5	90.0	9.0	0.9	10.0	100.0	
만50세-만59세	(199)	41.2	49.7	91.0	8.5	0.5	9.0	100.0	
만60세 이상	(236)	34.7	54.7	89.4	10.6	0.0	10.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1.1	55.7	86.8	13.2	0.0	13.2	100.0	7.360
고졸 이하	(432)	37.3	50.9	88.2	10.6	1.2	11.8	100.0	
대졸 이상	(406)	39.2	51.5	90.6	8.4	1.0	9.4	100.0	
<b>지역</b>									
서울	(202)	30.2	57.9	88.1	11.9	0.0	11.9	100.0	90.843***
인천/경기	(298)	52.0	41.3	93.3	6.4	0.3	6.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2.6	65.1	87.7	12.3	0.0	12.3	100.0	
광주/전라	(101)	28.7	58.4	87.1	9.9	3.0	12.9	100.0	
대구/경북	(102)	38.2	39.2	77.5	17.6	4.9	22.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9.0	61.9	91.0	9.0	0.0	9.0	100.0	
강원/제주	(41)	46.3	43.9	90.2	9.8	0.0	9.8	100.0	
<b>직업</b>									
전문직	(56)	41.1	53.6	94.6	3.6	1.8	5.4	100.0	16.673
관리직	(19)	47.4	47.4	94.7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50.0	92.9	7.1	0.0	7.1	100.0	
사무직	(84)	40.5	45.2	85.7	13.1	1.2	14.3	100.0	
판매직	(217)	41.0	49.8	90.8	8.8	0.5	9.2	100.0	
서비스직	(254)	36.2	52.0	88.2	11.0	0.8	11.8	100.0	
생산직	(24)	37.5	45.8	83.3	16.7	0.0	16.7	100.0	
농어민	(32)	28.1	56.3	84.4	15.6	0.0	15.6	100.0	
미취업	(277)	32.1	56.0	88.1	10.5	1.4	11.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2.1	52.4	84.5	14.9	0.6	15.5	100.0	11.45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0.7	48.4	89.0	9.9	1.1	11.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8.0	51.9	89.8	9.7	0.5	10.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3.3	57.5	90.9	8.6	0.5	9.1	100.0	
500만원 이상	(250)	39.2	50.4	89.6	8.8	1.6	10.4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1.9	46.6	88.6	10.6	0.8	11.4	100.0	6.813
중도	(418)	37.3	52.6	90.0	8.9	1.2	10.0	100.0	
보수	(351)	33.3	54.7	88.0	11.4	0.6	12.0	100.0	

[문14-2]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사례수 (명)	(1)우리민족구성원이다	(2)우리민족구성원으로 수도 있다	①+②	(3)우리민족구성원으로 보기에 어렵다	(4)우리민족구성원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0.9</b>	<b>48.2</b>	<b>59.1</b>	<b>34.3</b>	<b>6.6</b>	<b>40.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1.8	47.1	58.9	34.3	6.8	41.1	100.0	1.025
여자	(506)	10.1	49.2	59.3	34.4	6.3	40.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4.2	50.6	64.8	28.4	6.8	35.2	100.0	9.282
만30세-만39세	(183)	8.7	44.3	53.0	40.4	6.6	47.0	100.0	
만40세-만49세	(211)	10.0	52.1	62.1	32.2	5.7	37.9	100.0	
만50세-만59세	(199)	12.1	46.2	58.3	35.2	6.5	41.7	100.0	
만60세 이상	(236)	10.2	47.5	57.6	35.2	7.2	42.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0.8	48.5	59.3	34.7	6.0	40.7	100.0	3.890
고졸 이하	(432)	9.0	48.8	57.9	35.6	6.5	42.1	100.0	
대졸 이상	(406)	13.1	47.3	60.3	32.8	6.9	39.7	100.0	
<b>지역</b>									
서울	(202)	11.4	45.5	56.9	40.6	2.5	43.1	100.0	49.019***
인천/경기	(298)	13.1	45.0	58.1	32.6	9.4	41.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0.4	66.0	76.4	23.6	0.0	23.6	100.0	
광주/전라	(101)	9.9	42.6	52.5	41.6	5.9	47.5	100.0	
대구/경북	(102)	10.8	47.1	57.8	34.3	7.8	42.2	100.0	
부산/울산/경남	(155)	5.8	46.5	52.3	36.8	11.0	47.7	100.0	
강원/제주	(41)	17.1	61.0	78.0	17.1	4.9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39.3	55.4	28.6	16.1	44.6	100.0	30.147
관리직	(19)	0.0	57.9	57.9	31.6	10.5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40.5	59.5	31.0	9.5	40.5	100.0	
사무직	(84)	10.7	46.4	57.1	35.7	7.1	42.9	100.0	
판매직	(217)	10.1	49.8	59.9	35.0	5.1	40.1	100.0	
서비스직	(254)	10.6	51.2	61.8	34.6	3.5	38.2	100.0	
생산직	(24)	16.7	29.2	45.8	45.8	8.3	54.2	100.0	
농어민	(32)	15.6	34.4	50.0	43.8	6.3	50.0	100.0	
미취업	(277)	9.4	50.2	59.6	32.9	7.6	4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3	49.4	57.7	35.1	7.1	42.3	100.0	25.29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4.3	48.9	63.2	33.5	3.3	36.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1.1	47.2	58.3	37.5	4.2	41.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4	55.9	61.3	30.6	8.1	38.7	100.0	
500만원 이상	(250)	14.4	41.6	56.0	34.8	9.2	44.0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8.9	47.5	56.4	36.9	6.8	43.6	100.0	10.038
중도	(418)	14.1	49.3	63.4	30.6	6.0	36.6	100.0	
보수	(351)	8.5	47.3	55.8	37.0	7.1	44.2	100.0	

[문14-3]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	사례수 (명)	(1)우족의 구성원 이다	(2)우족의 구성원 으로 수 있다	①+②	(3)우족의 구성원 으로 보 기 어 렵 다	(4)우족의 구성원 이 아 니 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6.0</b>	<b>31.9</b>	<b>37.9</b>	<b>44.2</b>	<b>17.9</b>	<b>62.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5.8	32.3	38.1	44.1	17.8	61.9	100.0	0.079
여자	(506)	6.1	31.6	37.7	44.3	18.0	62.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5	38.6	47.2	37.5	15.3	52.8	100.0	22.973*
만30세-만39세	(183)	3.3	24.6	27.9	50.3	21.9	72.1	100.0	
만40세-만49세	(211)	4.3	35.1	39.3	46.9	13.7	60.7	100.0	
만50세-만59세	(199)	7.5	33.2	40.7	39.2	20.1	59.3	100.0	
만60세 이상	(236)	6.4	28.8	35.2	46.2	18.6	64.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6.0	26.9	32.9	48.5	18.6	67.1	100.0	3.808
고졸 이하	(432)	6.0	31.9	38.0	42.8	19.2	62.0	100.0	
대졸 이상	(406)	5.9	34.0	39.9	43.8	16.3	60.1	100.0	
<b>지역</b>									
서울	(202)	6.4	32.2	38.6	50.0	11.4	61.4	100.0	37.766**
인천/경기	(298)	5.4	30.2	35.6	40.6	23.8	64.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8.5	41.5	50.0	40.6	9.4	50.0	100.0	
광주/전라	(101)	6.9	25.7	32.7	43.6	23.8	67.3	100.0	
대구/경북	(102)	6.9	29.4	36.3	44.1	19.6	63.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2	29.0	32.3	49.0	18.7	67.7	100.0	
강원/제주	(41)	7.3	51.2	58.5	34.1	7.3	41.5	100.0	
<b>직업</b>									
전문직	(56)	7.1	25.0	32.1	42.9	25.0	67.9	100.0	45.265**
관리직	(19)	0.0	31.6	31.6	42.1	26.3	68.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3.8	28.6	52.4	28.6	19.0	47.6	100.0	
사무직	(84)	6.0	31.0	36.9	42.9	20.2	63.1	100.0	
판매직	(217)	3.2	32.3	35.5	52.1	12.4	64.5	100.0	
서비스직	(254)	5.9	32.7	38.6	42.5	18.9	61.4	100.0	
생산직	(24)	8.3	29.2	37.5	45.8	16.7	62.5	100.0	
농어민	(32)	3.1	18.8	21.9	50.0	28.1	78.1	100.0	
미취업	(277)	5.8	35.0	40.8	41.9	17.3	59.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4	30.4	35.7	48.8	15.5	64.3	100.0	20.76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8	31.3	35.2	44.0	20.9	64.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9	31.9	38.9	48.1	13.0	61.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8	34.9	38.7	45.7	15.6	61.3	100.0	
500만원 이상	(250)	8.8	30.8	39.6	37.2	23.2	60.4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4.7	31.8	36.4	46.2	17.4	63.6	100.0	5.596
중도	(418)	7.9	31.6	39.5	41.9	18.7	60.5	100.0	
보수	(351)	4.6	32.5	37.0	45.6	17.4	63.0	100.0	

[문14-4]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결혼 이민자	사례수 (명)	(1)우리 민족구성원 이다	(2)우리 민족구성원 으로 수 있다	①+②	(3)우리 민족구성원 으로 보 기 어 렵 다	(4)우리 민족구성원 이 아 니 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8.6</b>	<b>56.9</b>	<b>75.5</b>	<b>21.2</b>	<b>3.3</b>	<b>24.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8.2	57.3	75.6	21.2	3.2	24.4	100.0	0.120
여자	(506)	19.0	56.5	75.5	21.1	3.4	24.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0.5	53.4	73.9	23.9	2.3	26.1	100.0	7.617
만30세-만39세	(183)	18.0	54.1	72.1	22.4	5.5	27.9	100.0	
만40세-만49세	(211)	17.5	59.7	77.3	19.9	2.8	22.7	100.0	
만50세-만59세	(199)	20.1	57.3	77.4	20.6	2.0	22.6	100.0	
만60세 이상	(236)	17.4	58.9	76.3	19.9	3.8	23.7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5.0	62.9	77.8	18.6	3.6	22.2	100.0	6.904
고졸 이하	(432)	16.9	57.6	74.5	22.2	3.2	25.5	100.0	
대졸 이상	(406)	21.9	53.7	75.6	21.2	3.2	24.4	100.0	
<b>지역</b>									
서울	(202)	12.9	59.9	72.8	25.2	2.0	27.2	100.0	49.995***
인천/경기	(298)	23.2	50.7	73.8	22.8	3.4	26.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8.9	72.6	91.5	6.6	1.9	8.5	100.0	
광주/전라	(101)	23.8	57.4	81.2	18.8	0.0	18.8	100.0	
대구/경북	(102)	15.7	47.1	62.7	29.4	7.8	37.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4.2	60.6	74.8	20.0	5.2	25.2	100.0	
강원/제주	(41)	24.4	56.1	80.5	17.1	2.4	19.5	100.0	
<b>직업</b>									
전문직	(56)	23.2	44.6	67.9	25.0	7.1	32.1	100.0	27.310
관리직	(19)	10.5	52.6	63.2	26.3	10.5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1.0	47.6	78.6	14.3	7.1	21.4	100.0	
사무직	(84)	17.9	56.0	73.8	25.0	1.2	26.2	100.0	
판매직	(217)	17.5	58.1	75.6	22.1	2.3	24.4	100.0	
서비스직	(254)	15.4	62.6	78.0	19.3	2.8	22.0	100.0	
생산직	(24)	20.8	50.0	70.8	25.0	4.2	29.2	100.0	
농어민	(32)	15.6	71.9	87.5	12.5	0.0	12.5	100.0	
미취업	(277)	20.6	54.2	74.7	21.7	3.6	25.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7.3	57.1	74.4	20.8	4.8	25.6	100.0	8.75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0.3	55.5	75.8	20.3	3.8	24.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9	59.7	73.6	24.1	2.3	26.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0.4	55.9	76.3	21.5	2.2	23.7	100.0	
500만원 이상	(250)	21.2	56.4	77.6	19.2	3.2	22.4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9.1	55.9	75.0	20.8	4.2	25.0	100.0	7.148
중도	(418)	18.9	56.5	75.4	23.0	1.7	24.6	100.0	
보수	(351)	17.9	58.1	76.1	19.4	4.6	23.9	100.0	

[문14-5]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사례수 (명)	(1)우리 민족의 구성원 이다	(2)우리 민족의 구성원 으로 수 있다	①+②	(3)우리 민족의 구성원 으로 보 이지 않다	(4)우리 민족의 구성원 이 아 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0.2</b>	<b>54.2</b>	<b>84.5</b>	<b>13.6</b>	<b>1.9</b>	<b>15.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0.5	53.7	84.2	14.0	1.8	15.8	100.0	0.218
여자	(506)	30.0	54.7	84.8	13.2	2.0	15.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9.5	50.6	80.1	16.5	3.4	19.9	100.0	11.187
만30세-만39세	(183)	34.4	49.2	83.6	15.3	1.1	16.4	100.0	
만40세-만49세	(211)	31.8	55.5	87.2	10.4	2.4	12.8	100.0	
만50세-만59세	(199)	29.6	55.8	85.4	13.1	1.5	14.6	100.0	
만60세 이상	(236)	26.7	58.5	85.2	13.6	1.3	14.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3.4	61.7	85.0	13.2	1.8	15.0	100.0	9.004
고졸 이하	(432)	28.7	55.3	84.0	13.9	2.1	16.0	100.0	
대졸 이상	(406)	34.7	50.0	84.7	13.5	1.7	15.3	100.0	
<b>지역</b>									
서울	(202)	27.2	43.1	70.3	26.2	3.5	29.7	100.0	112.046***
인천/경기	(298)	39.6	50.0	89.6	9.7	0.7	10.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7.4	67.0	94.3	4.7	0.9	5.7	100.0	
광주/전라	(101)	43.6	48.5	92.1	7.9	0.0	7.9	100.0	
대구/경북	(102)	20.6	52.9	73.5	19.6	6.9	26.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5.5	73.5	89.0	9.7	1.3	11.0	100.0	
강원/제주	(41)	31.7	51.2	82.9	17.1	0.0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33.9	46.4	80.4	17.9	1.8	19.6	100.0	28.285
관리직	(19)	26.3	52.6	78.9	15.8	5.3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45.2	88.1	11.9	0.0	11.9	100.0	
사무직	(84)	36.9	45.2	82.1	16.7	1.2	17.9	100.0	
판매직	(217)	31.3	53.9	85.3	12.9	1.8	14.7	100.0	
서비스직	(254)	26.4	58.3	84.6	12.6	2.8	15.4	100.0	
생산직	(24)	20.8	50.0	70.8	20.8	8.3	29.2	100.0	
농어민	(32)	28.1	71.9	100.0	0.0	0.0	0.0	100.0	
미취업	(277)	29.6	54.9	84.5	14.4	1.1	15.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8.0	56.5	84.5	14.3	1.2	15.5	100.0	16.68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1.3	50.5	81.9	15.9	2.2	18.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4.5	60.6	85.2	13.4	1.4	14.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8.0	57.0	84.9	14.0	1.1	15.1	100.0	
500만원 이상	(250)	38.0	47.6	85.6	11.6	2.8	14.4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31.8	55.5	87.3	11.4	1.3	12.7	100.0	5.381
중도	(418)	31.6	53.3	84.9	13.6	1.4	15.1	100.0	
보수	(351)	27.6	54.4	82.1	15.1	2.8	17.9	100.0	

[문14-6]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6) 조선족	사례수 (명)	(1)우족의 구성원 이다	(2)우족의 구성원 으로 수 있다	①+②	(3)우족의 구성원 으로 보 기 어 렵 다	(4)우족의 구성원 이 아 니 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4.0</b>	<b>49.1</b>	<b>63.1</b>	<b>31.1</b>	<b>5.8</b>	<b>36.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4.6	47.5	62.1	31.3	6.6	37.9	100.0	1.968
여자	(506)	13.4	50.6	64.0	31.0	4.9	36.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0.2	42.0	52.3	36.4	11.4	47.7	100.0	42.699***
만30세-만39세	(183)	9.3	46.4	55.7	33.9	10.4	44.3	100.0	
만40세-만49세	(211)	17.1	49.3	66.4	32.2	1.4	33.6	100.0	
만50세-만59세	(199)	17.6	50.8	68.3	27.1	4.5	31.7	100.0	
만60세 이상	(236)	14.8	54.7	69.5	27.5	3.0	30.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5.6	51.5	67.1	29.3	3.6	32.9	100.0	5.331
고졸 이하	(432)	14.6	47.7	62.3	32.6	5.1	37.7	100.0	
대졸 이상	(406)	12.8	49.5	62.3	30.3	7.4	37.7	100.0	
<b>지역</b>									
서울	(202)	9.9	39.1	49.0	41.6	9.4	51.0	100.0	65.136***
인천/경기	(298)	15.8	44.6	60.4	33.6	6.0	39.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9.4	61.3	70.8	25.5	3.8	29.2	100.0	
광주/전라	(101)	9.9	55.4	65.3	31.7	3.0	34.7	100.0	
대구/경북	(102)	12.7	51.0	63.7	23.5	12.7	36.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1.9	52.3	74.2	25.2	0.6	25.8	100.0	
강원/제주	(41)	17.1	65.9	82.9	17.1	0.0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21.4	41.1	62.5	21.4	16.1	37.5	100.0	37.834*
관리직	(19)	15.8	63.2	78.9	21.1	0.0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3.8	54.8	78.6	19.0	2.4	21.4	100.0	
사무직	(84)	11.9	45.2	57.1	36.9	6.0	42.9	100.0	
판매직	(217)	13.4	48.4	61.8	32.7	5.5	38.2	100.0	
서비스직	(254)	11.4	53.1	64.6	29.1	6.3	35.4	100.0	
생산직	(24)	29.2	41.7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18.8	53.1	71.9	21.9	6.3	28.1	100.0	
미취업	(277)	12.6	46.9	59.6	35.7	4.7	4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5	51.2	69.6	25.0	5.4	30.4	100.0	10.81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5	51.6	63.2	30.2	6.6	36.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9	48.6	62.5	32.9	4.6	37.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0.2	47.8	58.1	35.5	6.5	41.9	100.0	
500만원 이상	(250)	16.0	46.8	62.8	31.6	5.6	37.2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3.1	41.1	54.2	38.6	7.2	45.8	100.0	13.808*
중도	(418)	16.0	51.9	67.9	27.0	5.0	32.1	100.0	
보수	(351)	12.3	51.0	63.2	31.1	5.7	36.8	100.0	

[문14-7]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7) 북한 주민	사례수 (명)	(1)우족의 구성원 이다	(2)리 민족으로 구성원 이 아니다	①+②	(3)우족의 구성원으로 보이지 않는다	(4)우족의 구성원 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2.7</b>	<b>50.0</b>	<b>72.7</b>	<b>22.6</b>	<b>4.7</b>	<b>27.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5.7	48.9	74.5	21.2	4.2	25.5	100.0	5.361
여자	(506)	19.8	51.2	70.9	23.9	5.1	29.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9.9	46.6	66.5	26.7	6.8	33.5	100.0	15.827
만30세-만39세	(183)	18.6	49.2	67.8	26.2	6.0	32.2	100.0	
만40세-만49세	(211)	24.6	50.2	74.9	19.9	5.2	25.1	100.0	
만50세-만59세	(199)	26.1	54.3	80.4	17.1	2.5	19.6	100.0	
만60세 이상	(236)	23.3	49.6	72.9	23.7	3.4	27.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8	59.9	76.6	19.8	3.6	23.4	100.0	9.662
고졸 이하	(432)	24.3	47.5	71.8	24.1	4.2	28.2	100.0	
대졸 이상	(406)	23.4	48.8	72.2	22.2	5.7	27.8	100.0	
<b>지역</b>									
서울	(202)	15.8	56.4	72.3	23.8	4.0	27.7	100.0	54.837***
인천/경기	(298)	30.5	40.6	71.1	22.1	6.7	28.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2.3	59.4	71.7	26.4	1.9	28.3	100.0	
광주/전라	(101)	21.8	58.4	80.2	13.9	5.9	19.8	100.0	
대구/경북	(102)	18.6	44.1	62.7	27.5	9.8	37.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2	53.5	78.7	21.3	0.0	21.3	100.0	
강원/제주	(41)	29.3	43.9	73.2	24.4	2.4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26.8	37.5	64.3	25.0	10.7	35.7	100.0	26.631
관리직	(19)	31.6	42.1	73.7	26.3	0.0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40.5	76.2	21.4	2.4	23.8	100.0	
사무직	(84)	20.2	46.4	66.7	31.0	2.4	33.3	100.0	
판매직	(217)	20.3	54.4	74.7	18.9	6.5	25.3	100.0	
서비스직	(254)	21.7	50.4	72.0	22.8	5.1	28.0	100.0	
생산직	(24)	33.3	45.8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18.8	62.5	81.3	15.6	3.1	18.8	100.0	
미취업	(277)	22.4	50.9	73.3	23.1	3.6	26.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2.0	50.6	72.6	23.2	4.2	27.4	100.0	6.36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0	51.6	73.6	20.3	6.0	26.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3.1	52.3	75.5	21.8	2.8	24.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0.4	48.4	68.8	26.3	4.8	31.2	100.0	
500만원 이상	(250)	24.8	48.0	72.8	21.6	5.6	27.2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9.9	50.0	69.9	25.4	4.7	30.1	100.0	10.093
중도	(418)	25.4	46.9	72.2	24.2	3.6	27.8	100.0	
보수	(351)	21.4	53.8	75.2	18.8	6.0	24.8	100.0	

[문15-1])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2.2	41.0	43.2	42.3	14.5	56.8	100.0	
<b>성별</b>									
남자	(499)	2.6	40.9	43.5	42.1	14.4	56.5	100.0	0.804
여자	(506)	1.8	41.1	42.9	42.5	14.6	57.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	34.1	35.8	47.7	16.5	64.2	100.0	15.861
만30세-만39세	(183)	2.2	37.2	39.3	43.2	17.5	60.7	100.0	
만40세-만49세	(211)	3.3	37.9	41.2	44.1	14.7	58.8	100.0	
만50세-만59세	(199)	2.0	49.7	51.8	37.7	10.6	48.2	100.0	
만60세 이상	(236)	1.7	44.5	46.2	39.8	14.0	53.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6	45.5	46.1	40.7	13.2	53.9	100.0	11.028
고졸 이하	(432)	2.1	44.4	46.5	39.4	14.1	53.5	100.0	
대졸 이상	(406)	3.0	35.5	38.4	46.1	15.5	61.6	100.0	
<b>지역</b>									
서울	(202)	2.5	33.7	36.1	52.0	11.9	63.9	100.0	71.886***
인천/경기	(298)	3.0	41.3	44.3	39.6	16.1	55.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51.9	53.8	29.2	17.0	46.2	100.0	
광주/전라	(101)	1.0	25.7	26.7	41.6	31.7	73.3	100.0	
대구/경북	(102)	4.9	44.1	49.0	36.3	14.7	51.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0	49.7	49.7	47.1	3.2	50.3	100.0	
강원/제주	(41)	0.0	43.9	43.9	46.3	9.8	56.1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39.3	41.1	33.9	25.0	58.9	100.0	32.725
관리직	(19)	10.5	42.1	52.6	31.6	15.8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33.3	38.1	47.6	14.3	61.9	100.0	
사무직	(84)	1.2	39.3	40.5	51.2	8.3	59.5	100.0	
판매직	(217)	2.8	41.0	43.8	41.5	14.7	56.2	100.0	
서비스직	(254)	1.6	39.0	40.6	42.1	17.3	59.4	100.0	
생산직	(24)	0.0	62.5	62.5	29.2	8.3	37.5	100.0	
농어민	(32)	0.0	25.0	25.0	56.3	18.8	75.0	100.0	
미취업	(277)	2.2	44.8	46.9	41.5	11.6	53.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6	44.0	47.6	38.7	13.7	52.4	100.0	11.82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3	41.2	44.5	40.1	15.4	55.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5	45.4	45.8	40.3	13.9	54.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	37.1	38.2	47.3	14.5	61.8	100.0	
500만원 이상	(250)	2.8	38.4	41.2	44.0	14.8	58.8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66.7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2.1	39.0	41.1	41.1	17.8	58.9	100.0	11.540
중도	(418)	2.6	37.1	39.7	44.7	15.6	60.3	100.0	
보수	(351)	1.7	47.0	48.7	40.2	11.1	51.3	100.0	

[문15-2])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4.7</b>	<b>66.2</b>	<b>80.9</b>	<b>17.5</b>	<b>1.6</b>	<b>19.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8	64.9	81.8	17.0	1.2	18.2	100.0	4.293
	여자	(506)	12.6	67.4	80.0	18.0	2.0	20.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6.5	67.0	83.5	15.3	1.1	16.5	100.0	22.951*
	만30세-만39세	(183)	16.9	66.7	83.6	14.8	1.6	16.4	100.0	
	만40세-만49세	(211)	19.9	65.9	85.8	12.3	1.9	14.2	100.0	
	만50세-만59세	(199)	8.0	68.8	76.9	22.1	1.0	23.1	100.0	
	만60세 이상	(236)	12.7	63.1	75.8	22.0	2.1	24.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1.4	66.5	77.8	20.4	1.8	22.2	100.0	7.315
	고졸 이하	(432)	13.7	66.2	79.9	19.0	1.2	20.1	100.0	
	대졸 이상	(406)	17.2	66.0	83.3	14.8	2.0	16.7	100.0	
<b>지역</b>	서울	(202)	13.9	63.4	77.2	20.8	2.0	22.8	100.0	29.948*
	인천/경기	(298)	17.1	68.1	85.2	13.4	1.3	14.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9	61.3	79.2	18.9	1.9	20.8	100.0	
	광주/전라	(101)	15.8	64.4	80.2	15.8	4.0	19.8	100.0	
	대구/경북	(102)	10.8	57.8	68.6	30.4	1.0	31.4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6 12.2	72.9 78.0	84.5 90.2	14.8 9.8	0.6 0.0	15.5 9.8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26.8	51.8	78.6	16.1	5.4	21.4	100.0	26.023
	관리직	(19)	10.5	73.7	84.2	10.5	5.3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69.0	88.1	11.9	0.0	11.9	100.0	
	사무직	(84)	14.3	67.9	82.1	17.9	0.0	17.9	100.0	
	판매직	(217)	12.4	67.3	79.7	18.9	1.4	20.3	100.0	
	서비스직	(254)	18.1	63.0	81.1	17.3	1.6	18.9	100.0	
	생산직	(24)	8.3	70.8	79.2	20.8	0.0	20.8	100.0	
	농어민	(32)	9.4	68.8	78.1	18.8	3.1	21.9	100.0	
	미취업	(277)	11.9	69.0	80.9	17.7	1.4	19.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3	64.9	79.2	19.6	1.2	20.8	100.0	18.55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2	66.5	85.7	13.2	1.1	14.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3.0	71.3	84.3	15.7	0.0	15.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1	67.2	82.3	15.6	2.2	17.7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3.2 0.0	61.6 66.7	74.8 66.7	22.4 0.0	2.8 33.3	25.2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6.9	70.8	87.7	11.0	1.3	12.3	100.0	16.966**
	중도	(418)	15.6	66.5	82.1	16.3	1.7	17.9	100.0	
	보수	(351)	12.3	62.7	74.9	23.4	1.7	25.1	100.0	

[문15-3])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b>전체</b>		<b>(1,005)</b>	<b>6.7</b>	<b>41.4</b>	<b>48.1</b>	<b>40.9</b>	<b>10.9</b>	<b>51.8</b>	<b>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7.0	39.5	46.5	42.5	11.0	53.5	0.0	
	여자	(506)	6.3	43.3	49.6	39.3	10.9	50.2	0.2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8	35.2	38.1	44.3	17.6	61.9	0.0	
	만30세-만39세	(183)	4.9	35.5	40.4	44.8	14.2	59.0	0.5	
	만40세-만49세	(211)	8.5	37.4	46.0	43.1	10.9	54.0	0.0	
	만50세-만59세	(199)	7.0	45.2	52.3	40.2	7.5	47.7	0.0	
	만60세 이상	(236)	8.9	50.8	59.7	33.9	6.4	40.3	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7.2	51.5	58.7	32.3	9.0	41.3	0.0	
	고졸 이하	(432)	7.6	41.9	49.5	41.7	8.6	50.2	0.2	
	대졸 이상	(406)	5.4	36.7	42.1	43.6	14.3	57.9	0.0	
<b>지역</b>	서울	(202)	7.9	35.6	43.6	46.0	10.4	56.4	0.0	
	인천/경기	(298)	7.4	43.3	50.7	35.6	13.4	49.0	0.3	
	대전/충청/세종	(106)	7.5	54.7	62.3	25.5	12.3	37.7	0.0	
	광주/전라	(101)	2.0	33.7	35.6	42.6	21.8	64.4	0.0	
	대구/경북	(102)	4.9	45.1	50.0	47.1	2.9	50.0	0.0	
	부산/울산/경남	(155)	8.4	40.0	48.4	49.7	1.9	51.6	0.0	
	강원/제주	(41)	2.4	36.6	39.0	41.5	19.5	61.0	0.0	
<b>직업</b>	전문직	(56)	8.9	26.8	35.7	39.3	25.0	64.3	0.0	
	관리직	(19)	15.8	42.1	57.9	31.6	10.5	42.1	0.0	
	반전문, 기술직	(42)	7.1	35.7	42.9	35.7	21.4	57.1	0.0	
	사무직	(84)	4.8	40.5	45.2	39.3	15.5	54.8	0.0	
	판매직	(217)	8.3	40.1	48.4	44.2	6.9	51.2	0.5	
	서비스직	(254)	4.7	46.5	51.2	39.0	9.8	48.8	0.0	
	생산직	(24)	12.5	37.5	50.0	41.7	8.3	50.0	0.0	
	농어민	(32)	3.1	56.3	59.4	37.5	3.1	40.6	0.0	
	미취업	(277)	6.5	40.4	46.9	42.6	10.5	53.1	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3	47.0	55.4	38.1	6.5	44.6	0.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7	39.6	47.3	39.0	13.7	52.7	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0	43.1	49.1	38.4	12.0	50.5	0.5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3	34.4	38.7	48.4	12.9	61.3	0.0	
500만원 이상		(250)	6.8	42.8	49.6	40.8	9.6	50.4	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0.0	
<b>이념</b>	진보	(236)	5.9	33.1	39.0	44.9	16.1	61.0	0.0	
	중도	(418)	6.5	43.1	49.5	40.0	10.3	50.2	0.2	
	보수	(351)	7.4	45.0	52.4	39.3	8.3	47.6	0.0	

[문15-4])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일반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사회가 잘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5.0</b>	<b>43.5</b>	<b>48.5</b>	<b>39.3</b>	<b>12.2</b>	<b>51.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5.8	45.1	50.9	36.1	13.0	49.1	100.0	5.118
	여자	(506)	4.2	41.9	46.0	42.5	11.5	54.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	47.7	51.1	35.8	13.1	48.9	100.0	16.195
	만30세-만39세	(183)	6.0	34.4	40.4	45.4	14.2	59.6	100.0	
	만40세-만49세	(211)	5.2	39.8	45.0	39.8	15.2	55.0	100.0	
	만50세-만59세	(199)	4.5	44.7	49.2	40.7	10.1	50.8	100.0	
	만60세 이상	(236)	5.5	49.6	55.1	35.6	9.3	44.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4	49.1	54.5	35.3	10.2	45.5	100.0	11.115
	고졸 이하	(432)	4.9	47.0	51.9	36.8	11.3	48.1	100.0	
	대졸 이상	(406)	4.9	37.4	42.4	43.6	14.0	57.6	100.0	
<b>지역</b>	서울	(202)	5.4	38.6	44.1	47.0	8.9	55.9	100.0	77.472***
	인천/경기	(298)	7.7	40.9	48.7	37.6	13.8	51.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5	50.9	58.5	34.0	7.5	41.5	100.0	
	광주/전라	(101)	2.0	26.7	28.7	50.5	20.8	71.3	100.0	
	대구/경북	(102)	2.9	36.3	39.2	51.0	9.8	60.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65.8	67.1	21.9	11.0	32.9	100.0	
	강원/제주	(41)	2.4	41.5	43.9	36.6	19.5	56.1	100.0	
<b>직업</b>	전문직	(56)	7.1	25.0	32.1	39.3	28.6	67.9	100.0	50.561**
	관리직	(19)	10.5	36.8	47.4	31.6	21.1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31.0	38.1	50.0	11.9	61.9	100.0	
	사무직	(84)	10.7	38.1	48.8	38.1	13.1	51.2	100.0	
	판매직	(217)	5.5	47.9	53.5	37.3	9.2	46.5	100.0	
	서비스직	(254)	4.3	42.5	46.9	44.5	8.7	53.1	100.0	
	생산직	(24)	8.3	45.8	54.2	33.3	12.5	45.8	100.0	
	농어민	(32)	0.0	31.3	31.3	46.9	21.9	68.8	100.0	
	미취업	(277)	2.5	49.8	52.3	35.0	12.6	47.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3	39.9	48.2	39.3	12.5	51.8	100.0	18.00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9	46.7	51.6	34.1	14.3	48.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2	47.2	50.5	39.4	10.2	49.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8	40.9	44.6	38.2	17.2	55.4	100.0	
	500만원 이상	(250)	4.8	42.4	47.2	44.0	8.8	52.8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3.8	40.3	44.1	40.7	15.3	55.9	100.0	7.407
	중도	(418)	4.8	42.6	47.4	39.7	12.9	52.6	100.0	
	보수	(351)	6.0	46.7	52.7	37.9	9.4	47.3	100.0	

[문15-5])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치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5</b>	<b>37.7</b>	<b>41.2</b>	<b>36.1</b>	<b>22.7</b>	<b>58.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6	36.7	40.3	34.9	24.8	59.7	100.0	2.800
	여자	(506)	3.4	38.7	42.1	37.4	20.6	57.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	29.5	31.3	39.2	29.5	68.8	100.0	24.383*
	만30세-만39세	(183)	3.3	35.0	38.3	38.8	23.0	61.7	100.0	
	만40세-만49세	(211)	5.2	32.7	37.9	37.4	24.6	62.1	100.0	
	만50세-만59세	(199)	3.0	43.7	46.7	36.2	17.1	53.3	100.0	
	만60세 이상	(236)	3.8	45.3	49.2	30.5	20.3	5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6	47.3	50.9	31.1	18.0	49.1	100.0	15.630*
	고졸 이하	(432)	2.8	39.8	42.6	36.1	21.3	57.4	100.0	
	대졸 이상	(406)	4.2	31.5	35.7	38.2	26.1	64.3	100.0	
<b>지역</b>	서울	(202)	2.5	36.6	39.1	42.1	18.8	60.9	100.0	86.939***
	인천/경기	(298)	5.4	31.9	37.2	35.9	26.8	62.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	49.1	52.8	24.5	22.6	47.2	100.0	
	광주/전라	(101)	2.0	17.8	19.8	42.6	37.6	80.2	100.0	
	대구/경북	(102)	2.9	28.4	31.4	49.0	19.6	68.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2 0.0	60.6 41.5	63.9 41.5	24.5 34.1	11.6 24.4	36.1 58.5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7.1	23.2	30.4	37.5	32.1	69.6	100.0	32.877
	관리직	(19)	5.3	42.1	47.4	42.1	10.5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21.4	23.8	38.1	38.1	76.2	100.0	
	사무직	(84)	4.8	34.5	39.3	41.7	19.0	60.7	100.0	
	판매직	(217)	4.6	41.0	45.6	36.9	17.5	54.4	100.0	
	서비스직	(254)	2.0	37.0	39.0	37.4	23.6	61.0	100.0	
	생산직	(24)	8.3	29.2	37.5	33.3	29.2	62.5	100.0	
	농어민	(32)	0.0	53.1	53.1	28.1	18.8	46.9	100.0	
	미취업	(277)	2.9	40.8	43.7	32.9	23.5	56.3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4.8	41.7	46.4	33.9	19.6	53.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4	37.4	41.8	33.5	24.7	58.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	41.7	43.5	37.0	19.4	56.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8	34.4	38.2	34.9	26.9	61.8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8 33.3	34.4 33.3	37.2 66.7	39.6 33.3	23.2 0.0	62.8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3.4	35.2	38.6	35.2	26.3	61.4	100.0	16.687*
	중도	(418)	2.9	33.0	35.9	39.7	24.4	64.1	100.0	
	보수	(351)	4.3	45.0	49.3	32.5	18.2	50.7	100.0	

[문16-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4</b>	<b>48.5</b>	<b>51.8</b>	<b>42.0</b>	<b>6.2</b>	<b>48.2</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2	51.7	55.9	37.7	6.4	44.1	100.0	8.640*
여자	(506)	2.6	45.3	47.8	46.2	5.9	52.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	42.0	45.5	42.0	12.5	54.5	100.0	21.444*
만30세-만39세	(183)	3.8	44.3	48.1	45.9	6.0	51.9	100.0	
만40세-만49세	(211)	3.3	48.3	51.7	43.1	5.2	48.3	100.0	
만50세-만59세	(199)	4.0	50.3	54.3	41.2	4.5	45.7	100.0	
만60세 이상	(236)	2.5	55.1	57.6	38.6	3.8	42.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	52.7	53.9	41.3	4.8	46.1	100.0	5.199
고졸 이하	(432)	3.2	47.5	50.7	42.8	6.5	49.3	100.0	
대졸 이상	(406)	4.4	47.8	52.2	41.4	6.4	47.8	100.0	
<b>지역</b>									
서울	(202)	6.4	47.0	53.5	42.6	4.0	46.5	100.0	63.201***
인천/경기	(298)	3.0	58.4	61.4	34.9	3.7	38.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42.5	44.3	51.9	3.8	55.7	100.0	
광주/전라	(101)	2.0	27.7	29.7	53.5	16.8	70.3	100.0	
대구/경북	(102)	3.9	47.1	51.0	43.1	5.9	49.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2.6 0.0	47.1 58.5	49.7 58.5	40.6 39.0	9.7 2.4	50.3 41.5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0.7	39.3	50.0	37.5	12.5	50.0	100.0	40.396*
관리직	(19)	0.0	78.9	78.9	15.8	5.3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50.0	54.8	35.7	9.5	45.2	100.0	
사무직	(84)	2.4	38.1	40.5	54.8	4.8	59.5	100.0	
판매직	(217)	2.3	48.4	50.7	44.2	5.1	49.3	100.0	
서비스직	(254)	2.4	49.2	51.6	41.7	6.7	48.4	100.0	
생산직	(24)	0.0	54.2	54.2	41.7	4.2	45.8	100.0	
농어민	(32)	3.1	28.1	31.3	59.4	9.4	68.8	100.0	
미취업	(277)	4.3	52.3	56.7	38.3	5.1	43.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6	49.4	53.0	42.9	4.2	47.0	100.0	17.76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4	49.5	53.8	37.9	8.2	46.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	54.6	56.5	36.1	7.4	43.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41.9	44.1	51.1	4.8	55.9	100.0	
500만원 이상	(250)	4.8	46.0	50.8	43.2	6.0	49.2	100.0	
모름/무응답	(3)	0.0	100.0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8	49.6	53.4	40.7	5.9	46.6	100.0	2.928
중도	(418)	2.9	46.4	49.3	43.5	7.2	50.7	100.0	
보수	(351)	3.7	50.1	53.8	41.0	5.1	46.2	100.0	

[문16-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사회복지를 위해 나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5.6</b>	<b>44.7</b>	<b>50.2</b>	<b>39.9</b>	<b>9.9</b>	<b>49.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5.8	48.5	54.3	35.3	10.4	45.7	100.0	8.991*
여자	(506)	5.3	40.9	46.2	44.5	9.3	53.8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5	43.2	47.7	39.8	12.5	52.3	100.0	9.634
만30세-만39세	(183)	7.7	38.3	45.9	41.5	12.6	54.1	100.0	
만40세-만49세	(211)	6.2	46.4	52.6	38.9	8.5	47.4	100.0	
만50세-만59세	(199)	4.5	48.7	53.3	38.2	8.5	46.7	100.0	
만60세 이상	(236)	5.1	45.8	50.8	41.1	8.1	49.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2	41.3	45.5	44.9	9.6	54.5	100.0	12.505
고졸 이하	(432)	4.2	43.3	47.5	43.3	9.3	52.5	100.0	
대졸 이상	(406)	7.6	47.5	55.2	34.2	10.6	44.8	100.0	
<b>지역</b>									
서울	(202)	6.9	48.5	55.4	36.1	8.4	44.6	100.0	51.504***
인천/경기	(298)	5.4	55.4	60.7	31.9	7.4	39.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7	26.4	31.1	57.5	11.3	68.9	100.0	
광주/전라	(101)	2.0	43.6	45.5	38.6	15.8	54.5	100.0	
대구/경북	(102)	6.9	36.3	43.1	42.2	14.7	56.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7	37.4	45.2	45.8	9.0	54.8	100.0	
강원/제주	(41)	0.0	46.3	46.3	46.3	7.3	53.7	100.0	
<b>직업</b>									
전문직	(56)	10.7	44.6	55.4	26.8	17.9	44.6	100.0	43.096**
관리직	(19)	26.3	52.6	78.9	10.5	10.5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47.6	54.8	35.7	9.5	45.2	100.0	
사무직	(84)	4.8	42.9	47.6	38.1	14.3	52.4	100.0	
판매직	(217)	4.6	39.2	43.8	47.9	8.3	56.2	100.0	
서비스직	(254)	5.5	46.9	52.4	38.6	9.1	47.6	100.0	
생산직	(24)	4.2	62.5	66.7	29.2	4.2	33.3	100.0	
농어민	(32)	3.1	34.4	37.5	50.0	12.5	62.5	100.0	
미취업	(277)	4.3	46.2	50.5	40.4	9.0	49.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6.5	42.3	48.8	39.9	11.3	51.2	100.0	11.27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6	45.6	52.2	39.6	8.2	47.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2	50.9	54.2	35.6	10.2	45.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	41.4	46.2	46.2	7.5	53.8	100.0	
500만원 이상	(250)	6.0	43.2	49.2	39.2	11.6	50.8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5.1	50.8	55.9	37.7	6.4	44.1	100.0	8.933
중도	(418)	6.7	42.8	49.5	40.2	10.3	50.5	100.0	
보수	(351)	4.6	42.7	47.3	41.0	11.7	52.7	100.0	

[문16-3])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장에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것 같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3.4	39.5	42.9	48.3	8.9	57.1	100.0	
성별	남자	(499)	3.0	39.5	42.5	47.5	10.0	57.5	100.0	2.054
	여자	(506)	3.8	39.5	43.3	49.0	7.7	56.7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1	39.2	44.3	48.3	7.4	55.7	100.0	11.177
	만30세-만39세	(183)	2.7	34.4	37.2	52.5	10.4	62.8	100.0	
	만40세-만49세	(211)	3.3	41.7	45.0	47.4	7.6	55.0	100.0	
	만50세-만59세	(199)	3.0	42.2	45.2	48.7	6.0	54.8	100.0	
	만60세 이상	(236)	3.0	39.4	42.4	45.3	12.3	57.6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2.4	38.9	41.3	49.7	9.0	58.7	100.0	4.830
	고졸 이하	(432)	3.7	42.8	46.5	45.4	8.1	53.5	100.0	
	대졸 이상	(406)	3.4	36.2	39.7	50.7	9.6	60.3	100.0	
지역	서울	(202)	4.5	42.1	46.5	45.0	8.4	53.5	100.0	53.791***
	인천/경기	(298)	2.7	35.6	38.3	53.0	8.7	61.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32.1	33.0	56.6	10.4	67.0	100.0	
	광주/전라	(101)	1.0	47.5	48.5	44.6	6.9	51.5	100.0	
	대구/경북	(102)	2.9	29.4	32.4	49.0	18.6	67.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7.1 2.4	52.3 31.7	59.4 34.1	38.7 51.2	1.9 14.6	40.6 65.9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3.6	23.2	26.8	57.1	16.1	73.2	100.0	31.443
	관리직	(19)	10.5	47.4	57.9	26.3	15.8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38.1	38.1	42.9	19.0	61.9	100.0	
	사무직	(84)	2.4	33.3	35.7	56.0	8.3	64.3	100.0	
	판매직	(217)	4.1	42.9	47.0	45.2	7.8	53.0	100.0	
	서비스직	(254)	3.1	38.2	41.3	48.8	9.8	58.7	100.0	
	생산직	(24)	4.2	33.3	37.5	54.2	8.3	62.5	100.0	
	농어민	(32)	0.0	50.0	50.0	46.9	3.1	50.0	100.0	
	미취업	(277)	3.6	42.2	45.8	48.0	6.1	54.2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2	39.9	41.1	48.2	10.7	58.9	100.0	18.21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8	34.1	37.9	53.3	8.8	62.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0	43.5	49.5	41.2	9.3	5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	41.4	42.5	48.4	9.1	57.5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4.0 0.0	38.0 66.7	42.0 66.7	51.2 0.0	6.8 33.3	58.0 33.3	100.0 100.0	
이념	진보	(236)	5.5	36.9	42.4	47.5	10.2	57.6	100.0	7.104
	중도	(418)	3.1	38.3	41.4	50.0	8.6	58.6	100.0	
	보수	(351)	2.3	42.7	45.0	46.7	8.3	55.0	100.0	

[문16-4]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다른 사람이 벌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 같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5.1	43.6	48.7	42.1	9.3	51.3	100.0	
성별	남자	(499)	5.6	38.9	44.5	45.3	10.2	55.5	100.0	9.009*
	여자	(506)	4.5	48.2	52.8	38.9	8.3	47.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7	42.6	48.3	44.3	7.4	51.7	100.0	21.865*
	만30세-만39세	(183)	5.5	47.5	53.0	39.9	7.1	47.0	100.0	
	만40세-만49세	(211)	4.7	43.6	48.3	42.7	9.0	51.7	100.0	
	만50세-만59세	(199)	5.0	40.2	45.2	49.2	5.5	54.8	100.0	
	만60세 이상	(236)	4.7	44.1	48.7	35.6	15.7	51.3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6.0	47.3	53.3	33.5	13.2	46.7	100.0	8.522
	고졸 이하	(432)	4.4	42.6	47.0	44.0	9.0	53.0	100.0	
	대졸 이상	(406)	5.4	43.1	48.5	43.6	7.9	51.5	100.0	
지역	서울	(202)	6.9	40.6	47.5	38.6	13.9	52.5	100.0	38.498**
	인천/경기	(298)	4.0	37.2	41.3	50.3	8.4	58.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7	56.6	61.3	31.1	7.5	38.7	100.0	
	광주/전라	(101)	4.0	53.5	57.4	36.6	5.9	42.6	100.0	
	대구/경북	(102)	4.9	37.3	42.2	45.1	12.7	57.8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6.5 2.4	51.0 34.1	57.4 36.6	36.1 56.1	6.5 7.3	42.6 63.4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0.0	35.7	35.7	41.1	23.2	64.3	100.0	48.942**
	관리직	(19)	5.3	42.1	47.4	31.6	21.1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35.7	35.7	45.2	19.0	64.3	100.0	
	사무직	(84)	7.1	46.4	53.6	44.0	2.4	46.4	100.0	
	판매직	(217)	5.5	41.9	47.5	45.2	7.4	52.5	100.0	
	서비스직	(254)	5.9	39.8	45.7	43.3	11.0	54.3	100.0	
	생산직	(24)	12.5	37.5	50.0	50.0	0.0	50.0	100.0	
	농어민	(32)	0.0	59.4	59.4	37.5	3.1	40.6	100.0	
	미취업	(277)	5.1	49.1	54.2	38.3	7.6	45.8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4.2	41.7	45.8	38.1	16.1	54.2	100.0	16.42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6	42.9	49.5	41.2	9.3	50.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0	43.5	49.5	41.7	8.8	5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46.2	48.9	44.6	6.5	51.1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5.6 0.0	43.6 33.3	49.2 33.3	43.6 66.7	7.2 0.0	50.8 66.7	100.0 100.0	
이념	진보	(236)	5.1	41.1	46.2	44.5	9.3	53.8	100.0	1.989
	중도	(418)	4.3	44.5	48.8	41.9	9.3	51.2	100.0	
	보수	(351)	6.0	44.2	50.1	40.7	9.1	49.9	100.0	

[문16-5]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 같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3.9	36.2	40.1	40.5	19.4	59.9	100.0	
<b>성별</b>									
남자	(499)	4.2	35.9	40.1	41.3	18.6	59.9	100.0	0.758
여자	(506)	3.6	36.6	40.1	39.7	20.2	59.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32.4	34.7	47.2	18.2	65.3	100.0	26.340**
만30세-만39세	(183)	4.9	36.6	41.5	39.3	19.1	58.5	100.0	
만40세-만49세	(211)	4.3	41.2	45.5	36.5	18.0	54.5	100.0	
만50세-만59세	(199)	2.5	39.2	41.7	45.7	12.6	58.3	100.0	
만60세 이상	(236)	5.1	31.8	36.9	35.6	27.5	63.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8	35.3	40.1	33.5	26.3	59.9	100.0	11.334
고졸 이하	(432)	4.4	37.7	42.1	41.9	16.0	57.9	100.0	
대졸 이상	(406)	3.0	35.0	37.9	41.9	20.2	62.1	100.0	
<b>지역</b>									
서울	(202)	5.9	25.7	31.7	43.1	25.2	68.3	100.0	66.016***
인천/경기	(298)	2.3	38.6	40.9	39.3	19.8	59.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	29.2	33.0	48.1	18.9	67.0	100.0	
광주/전라	(101)	5.9	42.6	48.5	34.7	16.8	51.5	100.0	
대구/경북	(102)	4.9	26.5	31.4	49.0	19.6	68.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2	55.5	58.7	33.5	7.7	41.3	100.0	
강원/제주	(41)	0.0	24.4	24.4	36.6	39.0	75.6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23.2	25.0	44.6	30.4	75.0	100.0	40.618*
관리직	(19)	0.0	42.1	42.1	42.1	15.8	57.9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31.0	33.3	40.5	26.2	66.7	100.0	
사무직	(84)	2.4	38.1	40.5	50.0	9.5	59.5	100.0	
판매직	(217)	7.4	36.4	43.8	40.1	16.1	56.2	100.0	
서비스직	(254)	2.4	39.4	41.7	37.8	20.5	58.3	100.0	
생산직	(24)	12.5	41.7	54.2	41.7	4.2	45.8	100.0	
농어민	(32)	6.3	37.5	43.8	46.9	9.4	56.3	100.0	
미취업	(277)	2.9	35.0	37.9	38.6	23.5	62.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4	29.2	34.5	33.9	31.5	65.5	100.0	32.46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8	30.2	34.1	45.6	20.3	65.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7	37.0	40.7	41.7	17.6	59.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43.0	46.2	35.5	18.3	53.8	100.0	
500만원 이상	(250)	3.6	39.6	43.2	44.0	12.8	56.8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2.5	32.2	34.7	45.8	19.5	65.3	100.0	9.426
중도	(418)	3.3	39.2	42.6	36.8	20.6	57.4	100.0	
보수	(351)	5.4	35.3	40.7	41.3	17.9	59.3	100.0	

[문16-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6)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 같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9.1	49.0	58.0	35.9	6.1	42.0	100.0	
성별	남자	(499)	7.2	47.7	54.9	37.7	7.4	45.1	100.0	7.833*
	여자	(506)	10.9	50.2	61.1	34.2	4.7	38.9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0.8	43.2	54.0	36.9	9.1	46.0	100.0	15.921
	만30세-만39세	(183)	6.6	50.3	56.8	38.8	4.4	43.2	100.0	
	만40세-만49세	(211)	11.4	46.0	57.3	35.5	7.1	42.7	100.0	
	만50세-만59세	(199)	9.5	47.7	57.3	38.7	4.0	42.7	100.0	
	만60세 이상	(236)	7.2	55.9	63.1	30.9	5.9	36.9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7.8	52.1	59.9	35.3	4.8	40.1	100.0	4.205
	고졸 이하	(432)	9.3	50.9	60.2	34.3	5.6	39.8	100.0	
	대졸 이상	(406)	9.4	45.6	54.9	37.9	7.1	45.1	100.0	
지역	서울	(202)	11.9	44.6	56.4	37.1	6.4	43.6	100.0	48.409***
	인천/경기	(298)	5.4	50.0	55.4	36.6	8.1	44.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5	55.7	63.2	29.2	7.5	36.8	100.0	
	광주/전라	(101)	17.8	53.5	71.3	25.7	3.0	28.7	100.0	
	대구/경북	(102)	4.9	58.8	63.7	33.3	2.9	36.3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6 4.9	40.0 43.9	51.6 48.8	45.8 36.6	2.6 14.6	48.4 51.2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5.4	37.5	42.9	51.8	5.4	57.1	100.0	36.265
	관리직	(19)	10.5	47.4	57.9	26.3	15.8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47.6	52.4	35.7	11.9	47.6	100.0	
	사무직	(84)	4.8	58.3	63.1	34.5	2.4	36.9	100.0	
	판매직	(217)	11.5	53.5	65.0	29.5	5.5	35.0	100.0	
	서비스직	(254)	9.8	46.5	56.3	37.8	5.9	43.7	100.0	
	생산직	(24)	20.8	50.0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3.1	37.5	40.6	56.3	3.1	59.4	100.0	
	미취업	(277)	8.7	48.7	57.4	35.4	7.2	42.6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6.5	52.4	58.9	33.9	7.1	41.1	100.0	9.33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0	45.6	56.6	34.1	9.3	43.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0.2	49.5	59.7	35.6	4.6	40.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9.7	47.3	57.0	37.6	5.4	43.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8.0 0.0	49.6 66.7	57.6 66.7	37.6 33.3	4.8 0.0	42.4 33.3	100.0 100.0	
이념	진보	(236)	10.2	41.9	52.1	39.8	8.1	47.9	100.0	10.025
	중도	(418)	9.3	48.3	57.7	36.1	6.2	42.3	100.0	
	보수	(351)	8.0	54.4	62.4	33.0	4.6	37.6	100.0	

[문16-7)]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7) 정부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8</b>	<b>38.1</b>	<b>41.9</b>	<b>46.9</b>	<b>11.2</b>	<b>58.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4	36.9	41.3	46.9	11.8	58.7	100.0	1.727
여자	(506)	3.2	39.3	42.5	46.8	10.7	57.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27.8	30.1	53.4	16.5	69.9	100.0	45.284***
만30세-만39세	(183)	2.2	30.6	32.8	51.9	15.3	67.2	100.0	
만40세-만49세	(211)	4.7	35.5	40.3	45.5	14.2	59.7	100.0	
만50세-만59세	(199)	4.5	43.7	48.2	44.2	7.5	51.8	100.0	
만60세 이상	(236)	4.7	49.2	53.8	41.5	4.7	46.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0	48.5	51.5	43.7	4.8	48.5	100.0	16.816**
고졸 이하	(432)	4.2	37.7	41.9	47.2	10.9	58.1	100.0	
대졸 이상	(406)	3.7	34.2	37.9	47.8	14.3	62.1	100.0	
<b>지역</b>									
서울	(202)	3.5	36.1	39.6	51.0	9.4	60.4	100.0	61.541***
인천/경기	(298)	5.7	34.9	40.6	47.7	11.7	59.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7	38.7	44.3	50.0	5.7	55.7	100.0	
광주/전라	(101)	3.0	21.8	24.8	46.5	28.7	75.2	100.0	
대구/경북	(102)	0.0	49.0	49.0	42.2	8.8	51.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6	49.0	51.6	41.3	7.1	48.4	100.0	
강원/제주	(41)	2.4	41.5	43.9	46.3	9.8	56.1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23.2	35.7	44.6	19.6	64.3	100.0	31.724
관리직	(19)	10.5	36.8	47.4	42.1	10.5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38.1	42.9	42.9	14.3	57.1	100.0	
사무직	(84)	4.8	34.5	39.3	44.0	16.7	60.7	100.0	
판매직	(217)	2.8	36.4	39.2	50.7	10.1	60.8	100.0	
서비스직	(254)	2.4	40.6	42.9	46.5	10.6	57.1	100.0	
생산직	(24)	4.2	45.8	50.0	45.8	4.2	50.0	100.0	
농어민	(32)	3.1	50.0	53.1	37.5	9.4	46.9	100.0	
미취업	(277)	3.2	39.4	42.6	47.7	9.7	57.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	45.2	50.0	41.1	8.9	50.0	100.0	20.86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39.0	41.2	46.2	12.6	58.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1	43.5	48.6	41.7	9.7	51.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32.8	34.9	50.0	15.1	65.1	100.0	
500만원 이상	(250)	3.6	32.4	36.0	53.6	10.4	64.0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3.4	29.2	32.6	50.4	16.9	67.4	100.0	18.419**
중도	(418)	3.6	39.0	42.6	46.9	10.5	57.4	100.0	
보수	(351)	4.3	43.0	47.3	44.4	8.3	52.7	100.0	

[문16-8]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8) 한국의 정치권은 다양한 집단들의 갈등을 제대로 대변하고, 조정에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4.3	34.8	39.1	43.7	17.2	60.9	100.0	
성별	남자	(499)	4.0	33.9	37.9	43.3	18.8	62.1	100.0	1.984
	여자	(506)	4.5	35.8	40.3	44.1	15.6	59.7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4.5	30.7	35.2	46.0	18.8	64.8	100.0	26.960**
	만30세-만39세	(183)	4.4	24.6	29.0	48.1	23.0	71.0	100.0	
	만40세-만49세	(211)	3.8	32.2	36.0	44.1	19.9	64.0	100.0	
	만50세-만59세	(199)	4.0	38.7	42.7	43.2	14.1	57.3	100.0	
	만60세 이상	(236)	4.7	44.9	49.6	38.6	11.9	5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4.2	45.5	49.7	40.1	10.2	50.3	100.0	24.148***
	고졸 이하	(432)	4.6	37.3	41.9	42.6	15.5	58.1	100.0	
	대졸 이상	(406)	3.9	27.8	31.8	46.3	21.9	68.2	100.0	
지역	서울	(202)	5.4	31.7	37.1	49.0	13.9	62.9	100.0	79.863***
	인천/경기	(298)	6.4	35.9	42.3	39.9	17.8	57.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	31.1	34.9	50.9	14.2	65.1	100.0	
	광주/전라	(101)	1.0	15.8	16.8	47.5	35.6	83.2	100.0	
	대구/경북	(102)	0.0	36.3	36.3	44.1	19.6	63.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5	53.5	58.1	31.0	11.0	41.9	100.0	
	강원/제주	(41)	2.4	24.4	26.8	63.4	9.8	73.2	100.0	
직업	전문직	(56)	7.1	25.0	32.1	42.9	25.0	67.9	100.0	28.375
	관리직	(19)	5.3	42.1	47.4	31.6	21.1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33.3	38.1	35.7	26.2	61.9	100.0	
	사무직	(84)	1.2	33.3	34.5	45.2	20.2	65.5	100.0	
	판매직	(217)	4.6	30.9	35.5	50.2	14.3	64.5	100.0	
	서비스직	(254)	3.9	34.3	38.2	44.1	17.7	61.8	100.0	
	생산직	(24)	0.0	16.7	16.7	54.2	29.2	83.3	100.0	
	농어민	(32)	3.1	43.8	46.9	40.6	12.5	53.1	100.0	
	미취업	(277)	5.1	41.2	46.2	39.4	14.4	53.8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2.4	43.5	45.8	40.5	13.7	54.2	100.0	18.98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4	32.4	36.8	42.9	20.3	63.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8	39.8	42.6	41.7	15.7	57.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7.0	31.7	38.7	44.1	17.2	61.3	100.0	
	500만원 이상	(250)	4.4	28.8	33.2	48.0	18.8	66.8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이념	진보	(236)	4.2	27.1	31.4	45.3	23.3	68.6	100.0	12.740*
	중도	(418)	4.3	36.4	40.7	43.1	16.3	59.3	100.0	
	보수	(351)	4.3	38.2	42.5	43.3	14.2	57.5	100.0	

[문16-9]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9) 한국 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4.0	31.7	35.7	49.4	14.8	64.2	0.1	100.0	
성별	남자	(499)	4.2	31.9	36.1	47.5	16.2	63.7	0.2	100.0	2.150
	여자	(506)	3.8	31.6	35.4	51.2	13.4	64.6	0.0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7	25.0	30.7	54.0	15.3	69.3	0.0	100.0	28.709**
	만30세-만39세	(183)	3.8	25.1	29.0	50.8	20.2	71.0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3.8	28.4	32.2	50.2	17.5	67.8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3.5	38.7	42.2	43.2	14.6	57.8	0.0	100.0	
	만60세 이상	(236)	3.4	39.0	42.4	49.2	8.1	57.2	0.4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3.6	40.1	43.7	47.3	8.4	55.7	0.6	100.0	18.406**
	고졸 이하	(432)	2.8	33.3	36.1	49.3	14.6	63.9	0.0	100.0	
	대졸 이상	(406)	5.4	26.6	32.0	50.2	17.7	68.0	0.0	100.0	
지역	서울	(202)	1.5	28.7	30.2	53.5	16.3	69.8	0.0	100.0	44.430***
	인천/경기	(298)	3.0	30.2	33.2	52.3	14.4	66.8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8.5	33.0	41.5	47.2	10.4	57.5	0.9	100.0	
	광주/전라	(101)	5.0	24.8	29.7	48.5	21.8	70.3	0.0	100.0	
	대구/경북	(102)	2.0	42.2	44.1	49.0	6.9	55.9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1	36.1	43.2	36.8	20.0	56.8	0.0	100.0	
	강원/제주	(41)	2.4	29.3	31.7	63.4	4.9	68.3	0.0	100.0	
직업	전문직	(56)	3.6	28.6	32.1	50.0	17.9	67.9	0.0	100.0	22.394
	관리직	(19)	5.3	36.8	42.1	47.4	10.5	57.9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16.7	21.4	61.9	16.7	78.6	0.0	100.0	
	사무직	(84)	3.6	25.0	28.6	53.6	17.9	71.4	0.0	100.0	
	판매직	(217)	3.7	34.1	37.8	47.5	14.7	62.2	0.0	100.0	
	서비스직	(254)	4.7	28.7	33.5	48.0	18.1	66.1	0.4	100.0	
	생산직	(24)	0.0	33.3	33.3	62.5	4.2	66.7	0.0	100.0	
	농어민 미취업	(32) (277)	6.3 3.6	46.9 35.4	53.1 39.0	34.4 49.5	12.5 11.6	46.9 61.0	0.0 0.0	10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6.0	35.1	41.1	46.4	12.5	58.9	0.0	100.0	27.89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34.6	36.3	48.9	14.3	63.2	0.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	37.0	38.4	47.7	13.9	61.6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28.0	30.6	48.9	20.4	69.4	0.0	100.0	
	500만원 이상	(250)	7.2	26.0	33.2	53.2	13.6	66.8	0.0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66.7	0.0	66.7	0.0	100.0	
이념	진보	(236)	3.4	28.8	32.2	48.3	19.5	67.8	0.0	100.0	12.536
	중도	(418)	4.8	29.2	34.0	53.1	12.7	65.8	0.2	100.0	
	보수	(351)	3.4	36.8	40.2	45.6	14.2	59.8	0.0	100.0	

[문16-10]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0) 한국을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회이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 무응답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3.9	31.8	35.7	48.7	15.5	64.2	0.1	100.0	
<b>성별</b>										
남자	(499)	4.2	32.5	36.7	46.7	16.6	63.3	0.0	100.0	1.968
여자	(506)	3.6	31.2	34.8	50.6	14.4	65.0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25.6	27.8	50.6	21.6	72.2	0.0	100.0	40.224***
만30세-만39세	(183)	2.2	28.4	30.6	50.8	18.6	69.4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4.3	28.0	32.2	45.5	21.8	67.3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4.5	34.7	39.2	49.2	11.6	60.8	0.0	100.0	
만60세 이상	(236)	5.5	40.3	45.8	47.9	6.4	54.2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6.0	44.9	50.9	43.1	6.0	49.1	0.0	100.0	28.018***
고졸 이하	(432)	3.0	30.8	33.8	50.0	16.2	66.2	0.0	100.0	
대졸 이상	(406)	3.9	27.6	31.5	49.5	18.7	68.2	0.2	100.0	
<b>지역</b>										
서울	(202)	3.5	30.7	34.2	51.0	14.9	65.8	0.0	100.0	38.726**
인천/경기	(298)	3.0	25.2	28.2	52.0	19.8	71.8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29.2	35.8	48.1	16.0	64.2	0.0	100.0	
광주/전라	(101)	2.0	29.7	31.7	50.5	17.8	68.3	0.0	100.0	
대구/경북	(102)	2.0	38.2	40.2	44.1	14.7	58.8	1.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4.5 12.2	44.5 34.1	49.0 46.3	41.9 46.3	9.0 7.3	51.0 53.7	0.0 0.0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21.4	25.0	46.4	28.6	75.0	0.0	100.0	54.963***
관리직	(19)	21.1	26.3	47.4	47.4	5.3	52.6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33.3	33.3	40.5	26.2	66.7	0.0	100.0	
사무직	(84)	1.2	32.1	33.3	42.9	23.8	66.7	0.0	100.0	
판매직	(217)	5.1	30.9	35.9	51.6	12.4	64.1	0.0	100.0	
서비스직	(254)	3.5	31.1	34.6	48.4	16.5	65.0	0.4	100.0	
생산직	(24)	8.3	33.3	41.7	41.7	16.7	58.3	0.0	100.0	
농어민	(32)	0.0	59.4	59.4	31.3	9.4	40.6	0.0	100.0	
미취업	(277)	3.6	32.1	35.7	52.7	11.6	64.3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6.5	33.3	39.9	45.8	14.3	60.1	0.0	100.0	13.25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7	36.3	39.0	47.3	13.7	61.0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3	33.3	35.6	50.9	13.4	64.4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4	28.5	33.9	47.8	17.7	65.6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2.8	28.8	31.6	50.4	18.0	68.4	0.0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1	26.7	28.8	50.0	21.2	71.2	0.0	100.0	16.278*
중도	(418)	4.5	30.1	34.7	51.2	13.9	65.1	0.2	100.0	
보수	(351)	4.3	37.3	41.6	44.7	13.7	58.4	0.0	100.0	

[문16-1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1)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4.2	24.0	28.2	53.9	17.9	71.8	100.0	
<b>성별</b>									
남자	(499)	2.8	22.8	25.7	53.7	20.6	74.3	100.0	9.142*
여자	(506)	5.5	25.1	30.6	54.2	15.2	69.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0	16.5	20.5	52.8	26.7	79.5	100.0	44.345***
만30세-만39세	(183)	3.8	18.0	21.9	56.8	21.3	78.1	100.0	
만40세-만49세	(211)	3.8	20.9	24.6	52.6	22.7	75.4	100.0	
만50세-만59세	(199)	4.5	29.6	34.2	52.3	13.6	65.8	100.0	
만60세 이상	(236)	4.7	32.2	36.9	55.1	8.1	63.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	38.3	40.7	50.3	9.0	59.3	100.0	34.249***
고졸 이하	(432)	5.8	22.7	28.5	53.7	17.8	71.5	100.0	
대졸 이상	(406)	3.2	19.5	22.7	55.7	21.7	77.3	100.0	
<b>지역</b>									
서울	(202)	5.0	18.3	23.3	60.9	15.8	76.7	100.0	44.999***
인천/경기	(298)	3.7	22.1	25.8	51.3	22.8	74.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5	22.6	30.2	55.7	14.2	69.8	100.0	
광주/전라	(101)	0.0	19.8	19.8	62.4	17.8	80.2	100.0	
대구/경북	(102)	1.0	27.5	28.4	53.9	17.6	71.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7	35.5	43.2	44.5	12.3	56.8	100.0	
강원/제주	(41)	0.0	26.8	26.8	48.8	24.4	73.2	100.0	
<b>직업</b>									
전문직	(56)	5.4	12.5	17.9	58.9	23.2	82.1	100.0	37.180*
관리직	(19)	10.5	21.1	31.6	36.8	31.6	68.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21.4	21.4	50.0	28.6	78.6	100.0	
사무직	(84)	2.4	26.2	28.6	46.4	25.0	71.4	100.0	
판매직	(217)	5.1	24.0	29.0	56.7	14.3	71.0	100.0	
서비스직	(254)	5.5	20.5	26.0	57.9	16.1	74.0	100.0	
생산직	(24)	4.2	29.2	33.3	58.3	8.3	66.7	100.0	
농어민	(32)	0.0	46.9	46.9	43.8	9.4	53.1	100.0	
미취업	(277)	3.2	26.4	29.6	52.0	18.4	7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0	28.6	31.5	54.2	14.3	68.5	100.0	12.14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3	22.5	25.8	58.8	15.4	74.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	20.8	25.5	56.5	18.1	74.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27.4	30.6	48.9	20.4	69.4	100.0	
500만원 이상	(250)	5.6	21.6	27.2	52.4	20.4	72.8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0	21.6	24.6	54.2	21.2	75.4	100.0	8.490
중도	(418)	4.8	21.8	26.6	55.0	18.4	73.4	100.0	
보수	(351)	4.3	28.2	32.5	52.4	15.1	67.5	100.0	

[문16-12]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2)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4.0</b>	<b>45.5</b>	<b>49.5</b>	<b>44.4</b>	<b>6.2</b>	<b>50.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0	46.1	49.1	43.9	7.0	50.9	100.0	3.647
	여자	(506)	4.9	44.9	49.8	44.9	5.3	5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39.8	42.0	47.2	10.8	58.0	100.0	37.244***
	만30세-만39세	(183)	2.2	35.5	37.7	56.8	5.5	62.3	100.0	
	만40세-만49세	(211)	2.8	47.4	50.2	43.1	6.6	49.8	100.0	
	만50세-만59세	(199)	5.0	48.7	53.8	40.7	5.5	46.2	100.0	
	만60세 이상	(236)	6.8	53.0	59.7	36.9	3.4	40.3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4	49.1	54.5	41.9	3.6	45.5	100.0	5.443
	고졸 이하	(432)	4.4	44.2	48.6	45.1	6.3	51.4	100.0	
	대졸 이상	(406)	3.0	45.3	48.3	44.6	7.1	51.7	100.0	
<b>지역</b>	서울	(202)	2.0	45.0	47.0	45.5	7.4	53.0	100.0	65.977***
	인천/경기	(298)	1.7	45.3	47.0	46.6	6.4	53.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33.0	39.6	51.9	8.5	60.4	100.0	
	광주/전라	(101)	4.0	33.7	37.6	54.5	7.9	62.4	100.0	
	대구/경북	(102)	1.0	58.8	59.8	33.3	6.9	40.2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0 4.9	55.5 39.0	66.5 43.9	31.0 56.1	2.6 0.0	33.5 56.1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42.9	46.4	41.1	12.5	53.6	100.0	23.922
	관리직	(19)	10.5	31.6	42.1	57.9	0.0	57.9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45.2	45.2	45.2	9.5	54.8	100.0	
	사무직	(84)	4.8	44.0	48.8	47.6	3.6	51.2	100.0	
	판매직	(217)	6.0	46.1	52.1	43.3	4.6	47.9	100.0	
	서비스직	(254)	3.1	43.3	46.5	46.1	7.5	53.5	100.0	
	생산직	(24)	4.2	41.7	45.8	45.8	8.3	54.2	100.0	
	농어민	(32)	0.0	65.6	65.6	28.1	6.3	34.4	100.0	
	미취업	(277)	3.6	46.9	50.5	44.0	5.4	49.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6	47.6	51.2	42.3	6.5	48.8	100.0	19.53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41.8	44.0	50.5	5.5	56.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4	44.0	51.4	43.1	5.6	48.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52.2	54.8	36.6	8.6	45.2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3.6 0.0	42.8 66.7	46.4 66.7	48.4 33.3	5.2 0.0	53.6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7	40.3	41.9	50.8	7.2	58.1	100.0	12.701*
	중도	(418)	3.8	45.5	49.3	44.7	6.0	50.7	100.0	
	보수	(351)	5.7	49.0	54.7	39.6	5.7	45.3	100.0	

[문16-13]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3) 한국의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3.2	30.9	34.1	52.6	13.2	65.9	100.0	
성별	남자 (499)	3.0	32.3	35.3	50.7	14.0	64.7	100.0	1.834
	여자 (506)	3.4	29.6	33.0	54.5	12.5	67.0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2.3	24.4	26.7	55.7	17.6	73.3	100.0	36.585***
	만30세-만39세 (183)	2.7	25.7	28.4	53.0	18.6	71.6	100.0	
	만40세-만49세 (211)	1.9	30.8	32.7	52.6	14.7	67.3	100.0	
	만50세-만59세 (199)	2.5	30.7	33.2	55.3	11.6	66.8	100.0	
	만60세 이상 (236)	5.9	40.3	46.2	47.9	5.9	53.8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6.0	37.1	43.1	50.3	6.6	56.9	100.0	15.829*
	고졸 이하 (432)	2.8	29.9	32.6	54.2	13.2	67.4	100.0	
	대졸 이상 (406)	2.5	29.6	32.0	52.0	16.0	68.0	100.0	
지역	서울 (202)	3.0	30.2	33.2	55.9	10.9	66.8	100.0	53.820***
	인천/경기 (298)	2.3	31.5	33.9	51.3	14.8	66.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22.6	29.2	58.5	12.3	70.8	100.0	
	광주/전라 (101)	2.0	12.9	14.9	61.4	23.8	85.1	100.0	
	대구/경북 (102)	2.9	46.1	49.0	44.1	6.9	51.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5	40.0	44.5	45.8	9.7	55.5	100.0	
	강원/제주 (41)	0.0	24.4	24.4	56.1	19.5	75.6	100.0	
직업	전문직 (56)	1.8	25.0	26.8	50.0	23.2	73.2	100.0	24.437
	관리직 (19)	10.5	36.8	47.4	36.8	15.8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38.1	40.5	40.5	19.0	59.5	100.0	
	사무직 (84)	3.6	27.4	31.0	52.4	16.7	69.0	100.0	
	판매직 (217)	2.3	33.6	35.9	52.5	11.5	64.1	100.0	
	서비스직 (254)	3.5	26.8	30.3	57.5	12.2	69.7	100.0	
	생산직 (24)	4.2	25.0	29.2	62.5	8.3	70.8	100.0	
	농어민 (32)	0.0	40.6	40.6	40.6	18.8	59.4	100.0	
	미취업 (277)	3.6	32.9	36.5	52.3	11.2	63.5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4.8	37.5	42.3	48.2	9.5	57.7	100.0	10.86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28.0	30.2	54.4	15.4	69.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7	29.6	33.3	55.6	11.1	66.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31.2	33.9	50.5	15.6	66.1	100.0	
	500만원 이상 (250)	2.8	29.2	32.0	54.0	14.0	68.0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33.3	33.3	100.0	
이념	진보 (236)	0.4	24.6	25.0	56.8	18.2	75.0	100.0	22.477***
	중도 (418)	3.6	30.1	33.7	54.1	12.2	66.3	100.0	
	보수 (351)	4.6	36.2	40.7	48.1	11.1	59.3	100.0	

[문16-14]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4) 한국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사회이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3.1	45.9	49.0	45.6	5.5	51.0	100.0	
<b>성별</b>									
남자	(499)	2.6	45.9	48.5	45.5	6.0	51.5	100.0	1.267
여자	(506)	3.6	45.8	49.4	45.7	4.9	50.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35.8	38.1	52.3	9.7	61.9	100.0	47.417***
만30세-만39세	(183)	2.7	41.0	43.7	48.6	7.7	56.3	100.0	
만40세-만49세	(211)	1.4	41.7	43.1	50.2	6.6	56.9	100.0	
만50세-만59세	(199)	2.0	52.8	54.8	41.7	3.5	45.2	100.0	
만60세 이상	(236)	6.4	55.1	61.4	37.3	1.3	38.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6.6	56.3	62.9	35.3	1.8	37.1	100.0	35.048***
고졸 이하	(432)	3.0	48.4	51.4	44.2	4.4	48.6	100.0	
대졸 이상	(406)	1.7	38.9	40.6	51.2	8.1	59.4	100.0	
<b>지역</b>									
서울	(202)	1.0	47.0	48.0	45.5	6.4	52.0	100.0	44.206***
인천/경기	(298)	1.3	40.3	41.6	52.0	6.4	58.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7	39.6	44.3	47.2	8.5	55.7	100.0	
광주/전라	(101)	3.0	42.6	45.5	49.5	5.0	54.5	100.0	
대구/경북	(102)	2.9	55.9	58.8	36.3	4.9	41.2	100.0	
부산/울산/경남	(155)	6.5	56.8	63.2	34.8	1.9	36.8	100.0	
강원/제주	(41)	9.8	39.0	48.8	48.8	2.4	51.2	100.0	
<b>직업</b>									
전문직	(56)	5.4	33.9	39.3	51.8	8.9	60.7	100.0	52.709***
관리직	(19)	5.3	47.4	52.6	42.1	5.3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38.1	40.5	42.9	16.7	59.5	100.0	
사무직	(84)	1.2	41.7	42.9	48.8	8.3	57.1	100.0	
판매직	(217)	1.4	53.5	54.8	42.4	2.8	45.2	100.0	
서비스직	(254)	2.4	41.3	43.7	50.4	5.9	56.3	100.0	
생산직	(24)	8.3	41.7	50.0	50.0	0.0	50.0	100.0	
농어민	(32)	0.0	81.3	81.3	15.6	3.1	18.8	100.0	
미취업	(277)	5.1	45.1	50.2	45.1	4.7	49.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7.7	53.0	60.7	32.7	6.5	39.3	100.0	35.19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47.3	48.9	47.3	3.8	51.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	49.1	50.9	44.9	4.2	49.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46.8	48.9	45.2	5.9	51.1	100.0	
500만원 이상	(250)	2.4	36.8	39.2	54.0	6.8	60.8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0.8	41.9	42.8	48.7	8.5	57.2	100.0	15.339*
중도	(418)	4.1	44.0	48.1	46.9	5.0	51.9	100.0	
보수	(351)	3.4	50.7	54.1	41.9	4.0	45.9	100.0	

[문16-15]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5) 한국의 대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이윤추구 외에 사회적 다하고 있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3</b>	<b>27.8</b>	<b>29.1</b>	<b>49.2</b>	<b>21.8</b>	<b>70.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2	27.3	28.5	49.5	22.0	71.5	100.0	0.208
	여자	(506)	1.4	28.3	29.6	48.8	21.5	70.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22.7	23.3	55.1	21.6	76.7	100.0	27.174**
	만30세-만39세	(183)	1.1	24.0	25.1	47.0	27.9	74.9	100.0	
	만40세-만49세	(211)	0.9	27.0	28.0	43.6	28.4	72.0	100.0	
	만50세-만59세	(199)	1.0	33.2	34.2	47.7	18.1	65.8	100.0	
	만60세 이상	(236)	2.5	30.5	33.1	52.5	14.4	66.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	33.5	35.9	53.3	10.8	64.1	100.0	21.821**
	고졸 이하	(432)	1.2	28.7	29.9	49.3	20.8	70.1	100.0	
	대졸 이상	(406)	1.0	24.4	25.4	47.3	27.3	74.6	100.0	
<b>지역</b>	서울	(202)	1.0	29.2	30.2	53.0	16.8	69.8	100.0	65.747***
	인천/경기	(298)	1.3	23.5	24.8	50.7	24.5	75.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32.1	33.0	52.8	14.2	67.0	100.0	
	광주/전라	(101)	1.0	11.9	12.9	55.4	31.7	87.1	100.0	
	대구/경북	(102)	0.0	32.4	32.4	54.9	12.7	67.6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9 4.9	38.7 26.8	40.6 31.7	28.4 58.5	31.0 9.8	59.4 68.3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21.4	25.0	42.9	32.1	75.0	100.0	23.057
	관리직	(19)	5.3	31.6	36.8	36.8	26.3	63.2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19.0	19.0	54.8	26.2	81.0	100.0	
	사무직	(84)	1.2	25.0	26.2	45.2	28.6	73.8	100.0	
	판매직	(217)	0.9	31.8	32.7	50.7	16.6	67.3	100.0	
	서비스직	(254)	0.8	26.0	26.8	50.0	23.2	73.2	100.0	
	생산직	(24)	0.0	29.2	29.2	54.2	16.7	70.8	100.0	
	농어민	(32)	0.0	25.0	25.0	59.4	15.6	75.0	100.0	
	미취업	(277)	1.8	29.6	31.4	48.0	20.6	68.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6	28.6	32.1	50.6	17.3	67.9	100.0	30.32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0.5	24.7	25.3	56.6	18.1	74.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9	31.9	32.9	45.4	21.8	67.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5	32.3	32.8	38.7	28.5	67.2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0.8 33.3	22.4 33.3	23.2 66.7	54.0 33.3	22.8 0.0	76.8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0.4	24.2	24.6	46.2	29.2	75.4	100.0	17.643**
	중도	(418)	1.4	25.4	26.8	52.2	21.1	73.2	100.0	
	보수	(351)	1.7	33.0	34.8	47.6	17.7	65.2	100.0	

[문17-1])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8.8</b>	<b>63.1</b>	<b>81.9</b>	<b>16.2</b>	<b>1.9</b>	<b>18.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2	63.7	80.0	17.6	2.4	20.0	100.0	6.168
여자	(506)	21.3	62.5	83.8	14.8	1.4	16.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2.5	66.5	79.0	18.2	2.8	21.0	100.0	25.241*
만30세-만39세	(183)	15.8	59.6	75.4	21.3	3.3	24.6	100.0	
만40세-만49세	(211)	16.1	67.8	83.9	14.7	1.4	16.1	100.0	
만50세-만59세	(199)	21.6	64.8	86.4	13.1	0.5	13.6	100.0	
만60세 이상	(236)	25.8	57.6	83.5	14.8	1.7	16.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7.5	58.1	85.6	13.2	1.2	14.4	100.0	12.224
고졸 이하	(432)	17.6	63.0	80.6	17.8	1.6	19.4	100.0	
대졸 이상	(406)	16.5	65.3	81.8	15.8	2.5	18.2	100.0	
<b>지역</b>									
서울	(202)	19.8	57.4	77.2	21.3	1.5	22.8	100.0	35.776**
인천/경기	(298)	15.1	66.1	81.2	16.8	2.0	18.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60.4	81.1	17.9	0.9	18.9	100.0	
광주/전라	(101)	19.8	61.4	81.2	18.8	0.0	18.8	100.0	
대구/경북	(102)	21.6	69.6	91.2	8.8	0.0	8.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4.5	60.6	85.2	10.3	4.5	14.8	100.0	
강원/제주	(41)	4.9	73.2	78.0	17.1	4.9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66.1	78.6	19.6	1.8	21.4	100.0	27.435
관리직	(19)	15.8	47.4	63.2	36.8	0.0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66.7	81.0	16.7	2.4	19.0	100.0	
사무직	(84)	9.5	72.6	82.1	16.7	1.2	17.9	100.0	
판매직	(217)	19.4	60.4	79.7	17.5	2.8	20.3	100.0	
서비스직	(254)	20.9	64.2	85.0	13.0	2.0	15.0	100.0	
생산직	(24)	37.5	54.2	91.7	4.2	4.2	8.3	100.0	
농어민	(32)	12.5	68.8	81.3	18.8	0.0	18.8	100.0	
미취업	(277)	20.6	61.4	81.9	16.6	1.4	18.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6.8	53.0	79.8	16.7	3.6	20.2	100.0	29.12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3.1	59.9	83.0	14.8	2.2	17.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1.6	69.9	81.5	15.7	2.8	18.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6	63.4	79.0	20.4	0.5	21.0	100.0	
500만원 이상	(250)	18.8	66.0	84.8	14.4	0.8	15.2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5.3	60.2	75.4	22.0	2.5	24.6	100.0	13.039*
중도	(418)	20.8	64.6	85.4	13.6	1.0	14.6	100.0	
보수	(351)	18.8	63.2	82.1	15.4	2.6	17.9	100.0	

[문17-2])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아내는 남편의 돈에 따르는 것이 좋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8.7</b>	<b>52.4</b>	<b>61.1</b>	<b>33.6</b>	<b>5.3</b>	<b>38.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9.0	53.5	62.5	32.9	4.6	37.5	100.0	1.368
	여자	(506)	8.3	51.4	59.7	34.4	5.9	40.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5	44.3	48.9	40.9	10.2	51.1	100.0	47.922***
	만30세-만39세	(183)	5.5	48.1	53.6	38.8	7.7	46.4	100.0	
	만40세-만49세	(211)	6.6	52.1	58.8	37.9	3.3	41.2	100.0	
	만50세-만59세	(199)	11.6	56.8	68.3	28.1	3.5	31.7	100.0	
	만60세 이상	(236)	13.6	58.5	72.0	25.0	3.0	28.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3.2	58.7	71.9	24.6	3.6	28.1	100.0	12.928*
	고졸 이하	(432)	8.1	50.7	58.8	36.1	5.1	41.2	100.0	
	대졸 이상	(406)	7.4	51.7	59.1	34.7	6.2	40.9	100.0	
<b>지역</b>	서울	(202)	8.4	52.5	60.9	33.2	5.9	39.1	100.0	53.891***
	인천/경기	(298)	4.0	49.3	53.4	41.9	4.7	46.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9	48.1	66.0	30.2	3.8	34.0	100.0	
	광주/전라	(101)	9.9	61.4	71.3	25.7	3.0	28.7	100.0	
	대구/경북	(102)	8.8	64.7	73.5	26.5	0.0	26.5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6 4.9	49.0 46.3	60.6 51.2	29.0 39.0	10.3 9.8	39.4 48.8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8.9	44.6	53.6	41.1	5.4	46.4	100.0	25.444
	관리직	(19)	5.3	47.4	52.6	42.1	5.3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45.2	52.4	45.2	2.4	47.6	100.0	
	사무직	(84)	1.2	53.6	54.8	38.1	7.1	45.2	100.0	
	판매직	(217)	11.5	51.6	63.1	29.5	7.4	36.9	100.0	
	서비스직	(254)	8.7	55.9	64.6	32.3	3.1	35.4	100.0	
	생산직	(24)	16.7	41.7	58.3	37.5	4.2	41.7	100.0	
	농어민	(32)	12.5	59.4	71.9	28.1	0.0	28.1	100.0	
	미취업	(277)	7.9	52.7	60.6	33.2	6.1	39.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1.9	50.0	61.9	31.0	7.1	38.1	100.0	18.34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0.4	58.8	69.2	25.8	4.9	30.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6	49.1	54.6	38.9	6.5	45.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7.5	48.9	56.5	38.7	4.8	43.5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8.4 33.3	55.2 33.3	63.6 66.7	32.8 33.3	3.6 0.0	36.4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8.1	45.8	53.8	39.8	6.4	46.2	100.0	7.551
	중도	(418)	9.1	53.8	62.9	32.5	4.5	37.1	100.0	
	보수	(351)	8.5	55.3	63.8	30.8	5.4	36.2	100.0	

[문17-3]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조치가 잘 되려면 지나치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4.6</b>	<b>37.5</b>	<b>42.1</b>	<b>49.0</b>	<b>9.0</b>	<b>57.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4	38.9	43.3	47.1	9.6	56.7	100.0	1.743
여자	(506)	4.7	36.2	40.9	50.8	8.3	59.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	29.0	32.4	50.0	17.6	67.6	100.0	51.817***
만30세-만39세	(183)	4.4	30.1	34.4	59.0	6.6	65.6	100.0	
만40세-만49세	(211)	3.3	35.5	38.9	50.2	10.9	61.1	100.0	
만50세-만59세	(199)	5.0	39.7	44.7	50.8	4.5	55.3	100.0	
만60세 이상	(236)	6.4	49.6	55.9	37.7	6.4	44.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6.0	46.7	52.7	41.3	6.0	47.3	100.0	24.216***
고졸 이하	(432)	5.3	39.6	44.9	48.4	6.7	55.1	100.0	
대졸 이상	(406)	3.2	31.5	34.7	52.7	12.6	65.3	100.0	
<b>지역</b>									
서울	(202)	4.0	38.1	42.1	49.0	8.9	57.9	100.0	17.296
인천/경기	(298)	5.7	34.2	39.9	51.7	8.4	60.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39.6	46.2	43.4	10.4	53.8	100.0	
광주/전라	(101)	1.0	39.6	40.6	44.6	14.9	59.4	100.0	
대구/경북	(102)	2.9	37.3	40.2	52.0	7.8	59.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6.5	39.4	45.8	47.7	6.5	54.2	100.0	
강원/제주	(41)	0.0	41.5	41.5	51.2	7.3	58.5	100.0	
<b>직업</b>									
전문직	(56)	5.4	25.0	30.4	53.6	16.1	69.6	100.0	32.519
관리직	(19)	0.0	47.4	47.4	42.1	10.5	52.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26.2	28.6	59.5	11.9	71.4	100.0	
사무직	(84)	2.4	29.8	32.1	59.5	8.3	67.9	100.0	
판매직	(217)	6.5	36.4	42.9	52.5	4.6	57.1	100.0	
서비스직	(254)	4.7	40.2	44.9	42.5	12.6	55.1	100.0	
생산직	(24)	4.2	50.0	54.2	41.7	4.2	45.8	100.0	
농어민	(32)	3.1	43.8	46.9	50.0	3.1	53.1	100.0	
미취업	(277)	4.3	40.1	44.4	47.3	8.3	55.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	43.5	48.2	44.6	7.1	51.8	100.0	17.57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9	39.6	44.5	44.0	11.5	55.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8	41.7	44.4	50.5	5.1	55.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4	30.6	36.0	52.7	11.3	64.0	100.0	
500만원 이상	(250)	4.8	33.6	38.4	51.6	10.0	61.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4.2	31.8	36.0	53.8	10.2	64.0	100.0	10.496
중도	(418)	3.8	36.6	40.4	49.8	9.8	59.6	100.0	
보수	(351)	5.7	42.5	48.1	44.7	7.1	51.9	100.0	

[문17-4]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강력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49.9</b>	<b>40.0</b>	<b>89.9</b>	<b>9.5</b>	<b>0.7</b>	<b>10.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9.1	40.3	89.4	9.2	1.4	10.6	100.0	7.288
여자	(506)	50.6	39.7	90.3	9.7	0.0	9.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54.5	35.8	90.3	8.5	1.1	9.7	100.0	13.499
만30세-만39세	(183)	45.4	41.0	86.3	13.1	0.5	13.7	100.0	
만40세-만49세	(211)	46.4	45.0	91.5	7.6	0.9	8.5	100.0	
만50세-만59세	(199)	47.7	39.7	87.4	12.1	0.5	12.6	100.0	
만60세 이상	(236)	54.7	38.1	92.8	6.8	0.4	7.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3.9	37.7	91.6	8.4	0.0	8.4	100.0	10.885
고졸 이하	(432)	49.5	39.1	88.7	9.7	1.6	11.3	100.0	
대졸 이상	(406)	48.5	41.9	90.4	9.6	0.0	9.6	100.0	
<b>지역</b>									
서울	(202)	55.0	36.6	91.6	7.9	0.5	8.4	100.0	84.926***
인천/경기	(298)	55.0	36.9	91.9	7.0	1.0	8.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2.5	48.1	90.6	9.4	0.0	9.4	100.0	
광주/전라	(101)	74.3	21.8	96.0	4.0	0.0	4.0	100.0	
대구/경북	(102)	51.0	35.3	86.3	11.8	2.0	13.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8	54.8	80.6	18.7	0.6	19.4	100.0	
강원/제주	(41)	34.1	58.5	92.7	7.3	0.0	7.3	100.0	
<b>직업</b>									
전문직	(56)	42.9	46.4	89.3	10.7	0.0	10.7	100.0	22.044
관리직	(19)	36.8	47.4	84.2	10.5	5.3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7.1	33.3	90.5	7.1	2.4	9.5	100.0	
사무직	(84)	44.0	44.0	88.1	11.9	0.0	11.9	100.0	
판매직	(217)	48.4	40.6	88.9	10.1	0.9	11.1	100.0	
서비스직	(254)	55.9	36.6	92.5	6.7	0.8	7.5	100.0	
생산직	(24)	45.8	41.7	87.5	12.5	0.0	12.5	100.0	
농어민	(32)	56.3	40.6	96.9	3.1	0.0	3.1	100.0	
미취업	(277)	48.0	40.4	88.4	11.2	0.4	11.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4.8	37.5	92.3	7.7	0.0	7.7	100.0	16.56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57.1	37.4	94.5	5.5	0.0	5.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3	42.6	88.9	10.6	0.5	11.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5.7	41.4	87.1	11.8	1.1	12.9	100.0	
500만원 이상	(250)	47.6	40.0	87.6	10.8	1.6	12.4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5.3	42.4	87.7	11.4	0.8	12.3	100.0	7.721
중도	(418)	54.5	37.3	91.9	7.7	0.5	8.1	100.0	
보수	(351)	47.3	41.6	88.9	10.3	0.9	11.1	100.0	

[문17-5]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포르노 등 음란물의 판매/유통을 성인들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22.0</b>	<b>45.3</b>	<b>67.3</b>	<b>29.5</b>	<b>3.3</b>	<b>32.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8.8	41.5	60.3	34.3	5.4	39.7	100.0	29.087***
여자	(506)	25.1	49.0	74.1	24.7	1.2	25.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3.1	44.9	58.0	36.4	5.7	42.0	100.0	39.449***
만30세-만39세	(183)	17.5	43.7	61.2	35.5	3.3	38.8	100.0	
만40세-만49세	(211)	19.0	46.0	64.9	31.8	3.3	35.1	100.0	
만50세-만59세	(199)	25.1	45.2	70.4	27.1	2.5	29.6	100.0	
만60세 이상	(236)	32.2	46.2	78.4	19.5	2.1	21.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8.1	49.7	77.8	20.4	1.8	22.2	100.0	14.777*
고졸 이하	(432)	22.7	44.9	67.6	29.4	3.0	32.4	100.0	
대졸 이상	(406)	18.7	43.8	62.6	33.3	4.2	37.4	100.0	
<b>지역</b>									
서울	(202)	22.8	42.6	65.3	31.7	3.0	34.7	100.0	34.044*
인천/경기	(298)	17.8	48.3	66.1	29.2	4.7	33.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49.1	69.8	27.4	2.8	30.2	100.0	
광주/전라	(101)	35.6	39.6	75.2	20.8	4.0	24.8	100.0	
대구/경북	(102)	17.6	43.1	60.8	35.3	3.9	39.2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8.7 41.5	47.1 39.0	65.8 80.5	32.9 19.5	1.3 0.0	34.2 19.5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25.0	39.3	64.3	30.4	5.4	35.7	100.0	40.152*
관리직	(19)	26.3	26.3	52.6	47.4	0.0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8.6	38.1	66.7	28.6	4.8	33.3	100.0	
사무직	(84)	6.0	57.1	63.1	32.1	4.8	36.9	100.0	
판매직	(217)	24.0	38.2	62.2	36.4	1.4	37.8	100.0	
서비스직	(254)	23.6	48.4	72.0	24.4	3.5	28.0	100.0	
생산직	(24)	29.2	45.8	75.0	20.8	4.2	25.0	100.0	
농어민	(32)	34.4	31.3	65.6	28.1	6.3	34.4	100.0	
미취업	(277)	19.9	49.5	69.3	27.4	3.2	30.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2.7	45.8	78.6	18.5	3.0	21.4	100.0	27.47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5	47.8	70.3	26.9	2.7	29.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9	44.0	63.9	32.9	3.2	36.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1	43.5	58.6	38.2	3.2	41.4	100.0	
500만원 이상	(250)	21.2	45.6	66.8	29.2	4.0	33.2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8.2	39.4	57.6	37.3	5.1	42.4	100.0	20.312**
중도	(418)	24.6	49.5	74.2	23.4	2.4	25.8	100.0	
보수	(351)	21.4	44.2	65.5	31.3	3.1	34.5	100.0	

[문17-6])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6) 확인되지 않은 소수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15.7	45.9	61.6	32.3	6.1	38.4	100.0	
성별	남자	(499)	15.4	45.5	60.9	32.5	6.6	39.1	100.0	0.572
	여자	(506)	16.0	46.2	62.3	32.2	5.5	37.7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4.2	38.6	52.8	39.8	7.4	47.2	100.0	18.719
	만30세-만39세	(183)	15.3	43.2	58.5	36.6	4.9	41.5	100.0	
	만40세-만49세	(211)	13.7	45.5	59.2	35.5	5.2	40.8	100.0	
	만50세-만59세	(199)	16.6	51.3	67.8	27.1	5.0	32.2	100.0	
	만60세 이상	(236)	18.2	49.2	67.4	25.0	7.6	32.6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7.4	52.1	69.5	25.7	4.8	30.5	100.0	8.694
	고졸 이하	(432)	14.8	47.0	61.8	31.3	6.9	38.2	100.0	
	대졸 이상	(406)	16.0	42.1	58.1	36.2	5.7	41.9	100.0	
지역	서울	(202)	14.9	51.5	66.3	31.2	2.5	33.7	100.0	54.808***
	인천/경기	(298)	16.8	40.6	57.4	35.9	6.7	42.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9	52.8	70.8	26.4	2.8	29.2	100.0	
	광주/전라	(101)	27.7	34.7	62.4	29.7	7.9	37.6	100.0	
	대구/경북	(102)	9.8	44.1	53.9	43.1	2.9	46.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9.7	55.5	65.2	23.9	11.0	34.8	100.0	
	강원/제주	(41)	14.6	34.1	48.8	39.0	12.2	51.2	100.0	
직업	전문직	(56)	23.2	48.2	71.4	23.2	5.4	28.6	100.0	38.594*
	관리직	(19)	15.8	26.3	42.1	42.1	15.8	57.9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52.4	66.7	33.3	0.0	33.3	100.0	
	사무직	(84)	10.7	45.2	56.0	38.1	6.0	44.0	100.0	
	판매직	(217)	15.7	45.6	61.3	32.7	6.0	38.7	100.0	
	서비스직	(254)	18.1	46.5	64.6	31.5	3.9	35.4	100.0	
	생산직	(24)	25.0	45.8	70.8	25.0	4.2	29.2	100.0	
	농어민	(32)	3.1	31.3	34.4	43.8	21.9	65.6	100.0	
	미취업	(277)	14.4	47.3	61.7	31.4	6.9	38.3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8.5	42.9	61.3	32.1	6.5	38.7	100.0	7.97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8.1	45.6	63.7	30.8	5.5	36.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4	47.2	61.6	33.3	5.1	38.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0.2	50.0	60.2	33.3	6.5	39.8	100.0	
	500만원 이상	(250)	17.2	44.4	61.6	31.6	6.8	38.4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66.7	0.0	66.7	100.0	
이념	진보	(236)	16.1	44.1	60.2	33.1	6.8	39.8	100.0	7.413
	중도	(418)	14.8	45.0	59.8	35.6	4.5	40.2	100.0	
	보수	(351)	16.5	48.1	64.7	27.9	7.4	35.3	100.0	

[문17-7]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7)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11.5	50.8	62.4	34.4	3.2	37.6	100.0	
<b>성별</b>									
남자	(499)	13.6	49.3	62.9	33.5	3.6	37.1	100.0	5.022
여자	(506)	9.5	52.4	61.9	35.4	2.8	38.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5	42.6	51.1	42.0	6.8	48.9	100.0	75.767***
만30세-만39세	(183)	7.1	37.7	44.8	49.7	5.5	55.2	100.0	
만40세-만49세	(211)	10.9	50.7	61.6	36.5	1.9	38.4	100.0	
만50세-만59세	(199)	13.1	56.8	69.8	27.1	3.0	30.2	100.0	
만60세 이상	(236)	16.5	62.3	78.8	21.2	0.0	21.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2	62.3	78.4	20.4	1.2	21.6	100.0	33.427***
고졸 이하	(432)	11.1	53.0	64.1	33.3	2.5	35.9	100.0	
대졸 이상	(406)	10.1	43.8	53.9	41.4	4.7	46.1	100.0	
<b>지역</b>									
서울	(202)	14.4	43.1	57.4	37.1	5.4	42.6	100.0	64.355***
인천/경기	(298)	8.7	54.4	63.1	32.9	4.0	36.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40.6	55.7	40.6	3.8	44.3	100.0	
광주/전라	(101)	5.9	48.5	54.5	44.6	1.0	45.5	100.0	
대구/경북	(102)	7.8	57.8	65.7	33.3	1.0	34.3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20.0 0.0	60.6 41.5	80.6 41.5	18.1 56.1	1.3 2.4	19.4 58.5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32.1	50.0	44.6	5.4	50.0	100.0	34.888
관리직	(19)	10.5	57.9	68.4	26.3	5.3	31.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4.3	50.0	64.3	33.3	2.4	35.7	100.0	
사무직	(84)	2.4	46.4	48.8	47.6	3.6	51.2	100.0	
판매직	(217)	15.2	48.4	63.6	34.6	1.8	36.4	100.0	
서비스직	(254)	10.2	53.1	63.4	33.1	3.5	36.6	100.0	
생산직	(24)	8.3	62.5	70.8	29.2	0.0	29.2	100.0	
농어민	(32)	12.5	71.9	84.4	15.6	0.0	15.6	100.0	
미취업	(277)	11.2	52.0	63.2	32.9	4.0	36.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4.3	57.7	72.0	25.6	2.4	28.0	100.0	12.56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0.4	51.6	62.1	33.5	4.4	37.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8.8	48.6	57.4	39.8	2.8	42.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2.4	48.9	61.3	34.9	3.8	38.7	100.0	
500만원 이상	(250)	12.4	48.8	61.2	36.0	2.8	38.8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8.1	48.3	56.4	39.8	3.8	43.6	100.0	10.737
중도	(418)	14.6	50.0	64.6	32.1	3.3	35.4	100.0	
보수	(351)	10.3	53.6	63.8	33.6	2.6	36.2	100.0	

[문17-8]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8) 자기 자녀가 국적을 바꾼 사람은 공직에 나서서는 안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로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5)	22.3	43.3	65.6	30.0	4.5	34.4	100.0	
<b>성별</b>									
남자	(499)	23.6	41.1	64.7	31.3	4.0	35.3	100.0	2.989
여자	(506)	20.9	45.5	66.4	28.7	4.9	33.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3.6	38.1	51.7	38.6	9.7	48.3	100.0	52.874***
만30세-만39세	(183)	16.4	43.2	59.6	36.6	3.8	40.4	100.0	
만40세-만49세	(211)	21.8	44.5	66.4	28.0	5.7	33.6	100.0	
만50세-만59세	(199)	23.6	45.2	68.8	29.1	2.0	31.2	100.0	
만60세 이상	(236)	32.6	44.5	77.1	20.8	2.1	22.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9.9	46.7	76.6	20.4	3.0	23.4	100.0	13.802*
고졸 이하	(432)	21.3	42.8	64.1	31.7	4.2	35.9	100.0	
대졸 이상	(406)	20.2	42.4	62.6	32.0	5.4	37.4	100.0	
<b>지역</b>									
서울	(202)	15.8	42.6	58.4	36.1	5.4	41.6	100.0	40.520**
인천/경기	(298)	20.8	42.3	63.1	32.6	4.4	36.9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0	46.2	63.2	30.2	6.6	36.8	100.0	
광주/전라	(101)	30.7	32.7	63.4	30.7	5.9	36.6	100.0	
대구/경북	(102)	27.5	43.1	70.6	27.5	2.0	29.4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1.6 9.8	47.7 56.1	79.4 65.9	18.7 26.8	1.9 7.3	20.6 34.1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33.9	51.8	42.9	5.4	48.2	100.0	38.469*
관리직	(19)	36.8	26.3	63.2	26.3	10.5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33.3	69.0	26.2	4.8	31.0	100.0	
사무직	(84)	16.7	48.8	65.5	28.6	6.0	34.5	100.0	
판매직	(217)	26.7	41.9	68.7	28.1	3.2	31.3	100.0	
서비스직	(254)	19.3	46.9	66.1	30.3	3.5	33.9	100.0	
생산직	(24)	20.8	58.3	79.2	12.5	8.3	20.8	100.0	
농어민	(32)	43.8	37.5	81.3	18.8	0.0	18.8	100.0	
미취업	(277)	18.8	43.3	62.1	32.5	5.4	37.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8.6	43.5	72.0	25.0	3.0	28.0	100.0	13.27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3.6	40.1	63.7	31.3	4.9	36.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1.8	42.6	64.4	32.4	3.2	35.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1.0	48.4	69.4	26.9	3.8	30.6	100.0	
500만원 이상	(250)	18.8	42.4	61.2	32.4	6.4	38.8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9.5	43.2	62.7	32.2	5.1	37.3	100.0	4.882
중도	(418)	23.7	42.1	65.8	30.9	3.3	34.2	100.0	
보수	(351)	22.5	44.7	67.2	27.4	5.4	32.8	100.0	

[문17-9]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9)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원래 한국인이었다 하더라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대체 그렇다	①+②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모름/응답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21.8	46.2	68.0	26.3	5.7	31.9	0.1	100.0	
성별	남자	(499)	22.0	46.9	68.9	26.3	4.8	31.1	0.0	100.0	1.439
	여자	(506)	21.5	45.5	67.0	26.3	6.5	32.8	0.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3.6	41.5	55.1	34.7	10.2	44.9	0.0	100.0	36.981***
	만30세-만39세	(183)	21.9	44.3	66.1	31.1	2.7	33.9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18.5	50.2	68.7	23.7	7.6	31.3	0.0	100.0	
	만50세-만59세	(199)	26.1	44.7	70.9	23.1	5.5	28.6	0.5	100.0	
	만60세 이상	(236)	27.1	48.7	75.8	21.2	3.0	24.2	0.0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28.7	44.3	73.1	22.8	4.2	26.9	0.0	100.0	7.424
	고졸 이하	(432)	19.0	47.5	66.4	27.1	6.3	33.3	0.2	100.0	
	대졸 이상	(406)	21.9	45.6	67.5	26.8	5.7	32.5	0.0	100.0	
지역	서울	(202)	12.9	42.1	55.0	33.2	11.4	44.6	0.5	100.0	71.168***
	인천/경기	(298)	22.5	46.6	69.1	25.8	5.0	30.9	0.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3.2	52.8	66.0	28.3	5.7	34.0	0.0	100.0	
	광주/전라	(101)	32.7	38.6	71.3	21.8	6.9	28.7	0.0	100.0	
	대구/경북	(102)	27.5	38.2	65.7	31.4	2.9	34.3	0.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1.6 4.9	52.3 61.0	83.9 65.9	14.8 31.7	1.3 2.4	16.1 34.1	0.0 0.0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26.8	39.3	66.1	30.4	3.6	33.9	0.0	100.0	35.833
	관리직	(19)	36.8	31.6	68.4	15.8	15.8	31.6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38.1	73.8	21.4	4.8	26.2	0.0	100.0	
	사무직	(84)	17.9	53.6	71.4	23.8	4.8	28.6	0.0	100.0	
	판매직	(217)	23.0	47.0	70.0	24.9	5.1	30.0	0.0	100.0	
	서비스직	(254)	18.5	44.5	63.0	29.1	7.5	36.6	0.4	100.0	
	생산직	(24)	25.0	58.3	83.3	16.7	0.0	16.7	0.0	100.0	
	농어민	(32)	43.8	40.6	84.4	15.6	0.0	15.6	0.0	100.0	
	미취업	(277)	18.1	48.0	66.1	28.2	5.8	33.9	0.0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28.0	48.8	76.8	19.0	4.2	23.2	0.0	100.0	9.54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0.3	47.3	67.6	26.9	5.5	32.4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4	47.2	66.7	27.3	6.0	33.3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6	43.5	66.1	28.0	5.9	33.9	0.0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20.4 0.0	44.8 33.3	65.2 33.3	28.4 33.3	6.0 33.3	34.4 66.7	0.4 0.0	100.0 100.0	
이념	진보	(236)	20.3	49.2	69.5	25.0	5.5	30.5	0.0	100.0	1.452
	중도	(418)	23.0	45.0	67.9	26.3	5.5	31.8	0.2	100.0	
	보수	(351)	21.4	45.6	67.0	27.1	6.0	33.0	0.0	100.0	

[문18-1])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1) 개인의 생계유지	사례수 (명)	(1)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2)정부 책임으로 볼 수 있다	①+②	(3)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	(4)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2.5</b>	<b>36.6</b>	<b>39.1</b>	<b>47.9</b>	<b>13.0</b>	<b>60.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8	36.7	39.5	49.7	10.8	60.5	100.0	4.828
여자	(506)	2.2	36.6	38.7	46.0	15.2	61.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38.6	39.2	49.4	11.4	60.8	100.0	25.470*
만30세-만39세	(183)	3.3	38.3	41.5	50.3	8.2	58.5	100.0	
만40세-만49세	(211)	5.2	39.8	45.0	40.8	14.2	55.0	100.0	
만50세-만59세	(199)	2.5	31.7	34.2	53.3	12.6	65.8	100.0	
만60세 이상	(236)	0.8	35.2	36.0	46.6	17.4	64.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0	39.5	39.5	41.9	18.6	60.5	100.0	23.522***
고졸 이하	(432)	1.9	32.2	34.0	52.8	13.2	66.0	100.0	
대졸 이상	(406)	4.2	40.1	44.3	45.1	10.6	55.7	100.0	
<b>지역</b>									
서울	(202)	3.5	36.6	40.1	48.0	11.9	59.9	100.0	53.997***
인천/경기	(298)	2.7	33.2	35.9	53.7	10.4	64.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51.9	53.8	35.8	10.4	46.2	100.0	
광주/전라	(101)	3.0	53.5	56.4	34.7	8.9	43.6	100.0	
대구/경북	(102)	2.0	38.2	40.2	38.2	21.6	59.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25.8	27.1	55.5	17.4	72.9	100.0	
강원/제주	(41)	2.4	17.1	19.5	63.4	17.1	80.5	100.0	
<b>직업</b>									
전문직	(56)	8.9	48.2	57.1	32.1	10.7	42.9	100.0	44.130**
관리직	(19)	5.3	26.3	31.6	52.6	15.8	68.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42.9	45.2	38.1	16.7	54.8	100.0	
사무직	(84)	2.4	48.8	51.2	39.3	9.5	48.8	100.0	
판매직	(217)	2.3	34.1	36.4	51.2	12.4	63.6	100.0	
서비스직	(254)	2.0	30.7	32.7	56.3	11.0	67.3	100.0	
생산직	(24)	0.0	54.2	54.2	41.7	4.2	45.8	100.0	
농어민	(32)	0.0	34.4	34.4	59.4	6.3	65.6	100.0	
미취업	(277)	2.2	36.5	38.6	43.7	17.7	61.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43.5	45.2	37.5	17.3	54.8	100.0	24.74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39.0	41.2	47.3	11.5	58.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	38.4	39.8	44.9	15.3	60.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27.4	30.1	58.6	11.3	69.9	100.0	
500만원 이상	(250)	4.0	36.0	40.0	49.6	10.4	60.0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66.7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3.4	39.4	42.8	48.3	8.9	57.2	100.0	9.710
중도	(418)	2.9	37.6	40.4	46.7	12.9	59.6	100.0	
보수	(351)	1.4	33.6	35.0	49.0	16.0	65.0	100.0	

[문18-2]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2) 주택 제공		사례수 (명)	(1)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이다	(2)정부 책임으로 볼 수 있다	①+②	(3)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	(4)전혀 정부가 책임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6.4</b>	<b>47.4</b>	<b>53.7</b>	<b>37.8</b>	<b>8.5</b>	<b>46.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6.4	45.1	51.5	40.7	7.8	48.5	100.0	3.727
	여자	(506)	6.3	49.6	55.9	35.0	9.1	44.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5.7	59.7	65.3	27.3	7.4	34.7	100.0	29.633**
	만30세-만39세	(183)	7.7	48.6	56.3	39.9	3.8	43.7	100.0	
	만40세-만49세	(211)	5.7	49.3	55.0	35.5	9.5	45.0	100.0	
	만50세-만59세	(199)	8.0	39.7	47.7	44.2	8.0	52.3	100.0	
	만60세 이상	(236)	5.1	41.9	47.0	40.7	12.3	53.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6.0	44.9	50.9	34.7	14.4	49.1	100.0	14.458*
	고졸 이하	(432)	5.1	46.3	51.4	40.0	8.6	48.6	100.0	
	대졸 이상	(406)	7.9	49.5	57.4	36.7	5.9	42.6	100.0	
<b>지역</b>	서울	(202)	9.4	49.5	58.9	37.6	3.5	41.1	100.0	50.914***
	인천/경기	(298)	6.0	48.0	54.0	37.2	8.7	46.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48.1	50.0	41.5	8.5	50.0	100.0	
	광주/전라	(101)	5.9	56.4	62.4	34.7	3.0	37.6	100.0	
	대구/경북	(102)	2.0	47.1	49.0	32.4	18.6	51.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11.0 0.0	41.3 31.7	52.3 31.7	38.1 53.7	9.7 14.6	47.7 68.3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10.7	55.4	66.1	25.0	8.9	33.9	100.0	36.984*
	관리직	(19)	21.1	42.1	63.2	21.1	15.8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42.9	50.0	38.1	11.9	50.0	100.0	
	사무직	(84)	1.2	59.5	60.7	33.3	6.0	39.3	100.0	
	판매직	(217)	5.5	43.8	49.3	41.5	9.2	50.7	100.0	
	서비스직	(254)	5.1	43.3	48.4	44.1	7.5	51.6	100.0	
	생산직	(24)	12.5	37.5	50.0	45.8	4.2	50.0	100.0	
	농어민	(32)	3.1	46.9	50.0	46.9	3.1	50.0	100.0	
	미취업	(277)	7.6	50.5	58.1	32.5	9.4	41.9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6.5	43.5	50.0	38.7	11.3	50.0	100.0	8.707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6	46.2	52.7	38.5	8.8	47.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7	50.9	54.6	36.6	8.8	45.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8.6	48.9	57.5	36.0	6.5	42.5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6.8 0.0	46.8 33.3	53.6 33.3	39.2 33.3	7.2 33.3	46.4 66.7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8.1	47.5	55.5	37.7	6.8	44.5	100.0	16.156*
	중도	(418)	5.3	52.9	58.1	35.2	6.7	41.9	100.0	
	보수	(351)	6.6	40.7	47.3	41.0	11.7	52.7	100.0	

[문18-3]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3) 대학교육 비용	사례수 (명)	(1)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2)정부 책임으로 볼 수 있다	①+②	(3)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	(4)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2.1</b>	<b>44.3</b>	<b>56.4</b>	<b>35.7</b>	<b>7.9</b>	<b>43.6</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1.2	42.5	53.7	38.3	8.0	46.3	100.0	3.248
	여자 (506)	13.0	46.0	59.1	33.2	7.7	40.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6	46.0	63.6	31.8	4.5	36.4	100.0	38.324***
	만30세-만39세 (183)	14.8	45.4	60.1	33.9	6.0	39.9	100.0	
	만40세-만49세 (211)	13.3	51.7	64.9	27.0	8.1	35.1	100.0	
	만50세-만59세 (199)	12.1	37.7	49.7	42.2	8.0	50.3	100.0	
만60세 이상 (236)	5.1	41.1	46.2	42.4	11.4	53.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4	43.7	49.1	40.7	10.2	50.9	100.0	13.565*
	고졸 이하 (432)	11.6	45.4	56.9	35.9	7.2	43.1	100.0	
	대졸 이상 (406)	15.5	43.3	58.9	33.5	7.6	41.1	100.0	
<b>지역</b>	서울 (202)	17.3	44.6	61.9	33.2	5.0	38.1	100.0	39.798**
	인천/경기 (298)	13.1	42.6	55.7	39.3	5.0	44.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5	52.8	60.4	27.4	12.3	39.6	100.0	
	광주/전라 (101)	11.9	44.6	56.4	39.6	4.0	43.6	100.0	
	대구/경북 (102)	9.8	43.1	52.9	31.4	15.7	47.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0.3	42.6	52.9	34.8	12.3	47.1	100.0	
강원/제주 (41)	4.9	41.5	46.3	48.8	4.9	53.7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44.6	57.1	35.7	7.1	42.9	100.0	17.382
	관리직 (19)	26.3	26.3	52.6	36.8	10.5	47.4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6.7	38.1	54.8	35.7	9.5	45.2	100.0	
	사무직 (84)	15.5	44.0	59.5	33.3	7.1	40.5	100.0	
	판매직 (217)	10.6	40.1	50.7	40.1	9.2	49.3	100.0	
	서비스직 (254)	9.8	48.0	57.9	34.6	7.5	42.1	100.0	
	생산직 (24)	8.3	50.0	58.3	41.7	0.0	41.7	100.0	
	농어민 (32)	12.5	40.6	53.1	43.8	3.1	46.9	100.0	
	미취업 (277)	13.0	46.2	59.2	32.5	8.3	40.8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7.7	44.6	52.4	40.5	7.1	47.6	100.0	12.57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9.9	47.3	57.1	32.4	10.4	42.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1.6	47.2	58.8	34.3	6.9	41.2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0	43.5	57.5	35.5	7.0	42.5	100.0	
	500만원 이상 (250)	16.0	40.4	56.4	36.0	7.6	43.6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66.7	33.3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11.9	43.2	55.1	39.4	5.5	44.9	100.0	9.841
	중도 (418)	13.9	46.9	60.8	31.3	7.9	39.2	100.0	
	보수 (351)	10.3	41.9	52.1	38.5	9.4	47.9	100.0	

[문18-4]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4) 청년 일자리 제공	사례수 (명)	(1)전적 적으로 책임이 다	(2)정부 책임은 불수 있다	①+②	(3)정부 책임은 불 수 없다	(4)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26.0</b>	<b>56.1</b>	<b>82.1</b>	<b>14.7</b>	<b>3.2</b>	<b>17.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7.5	54.5	82.0	14.8	3.2	18.0	100.0	1.308
여자	(506)	24.5	57.7	82.2	14.6	3.2	17.8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0.1	52.8	83.0	14.8	2.3	17.0	100.0	6.145
만30세-만39세	(183)	28.4	54.6	83.1	14.8	2.2	16.9	100.0	
만40세-만49세	(211)	23.7	59.2	82.9	12.8	4.3	17.1	100.0	
만50세-만59세	(199)	25.1	55.3	80.4	16.1	3.5	19.6	100.0	
만60세 이상	(236)	23.7	57.6	81.4	15.3	3.4	18.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9.8	64.7	84.4	13.2	2.4	15.6	100.0	7.606
고졸 이하	(432)	27.8	53.7	81.5	14.6	3.9	18.5	100.0	
대졸 이상	(406)	26.6	55.2	81.8	15.5	2.7	18.2	100.0	
<b>지역</b>									
서울	(202)	21.3	52.0	73.3	23.3	3.5	26.7	100.0	72.267***
인천/경기	(298)	27.2	56.0	83.2	15.1	1.7	16.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20.8	67.0	87.7	10.4	1.9	12.3	100.0	
광주/전라	(101)	31.7	65.3	97.0	3.0	0.0	3.0	100.0	
대구/경북	(102)	14.7	67.6	82.4	9.8	7.8	17.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8.1	39.4	77.4	16.8	5.8	22.6	100.0	
강원/제주	(41)	22.0	61.0	82.9	14.6	2.4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37.5	41.1	78.6	17.9	3.6	21.4	100.0	52.110***
관리직	(19)	36.8	42.1	78.9	0.0	21.1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5.7	47.6	83.3	11.9	4.8	16.7	100.0	
사무직	(84)	22.6	65.5	88.1	9.5	2.4	11.9	100.0	
판매직	(217)	18.4	58.5	77.0	19.4	3.7	23.0	100.0	
서비스직	(254)	25.2	56.7	81.9	15.0	3.1	18.1	100.0	
생산직	(24)	37.5	54.2	91.7	8.3	0.0	8.3	100.0	
농어민	(32)	34.4	62.5	96.9	3.1	0.0	3.1	100.0	
미취업	(277)	27.1	55.6	82.7	15.2	2.2	17.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6.8	60.7	87.5	11.9	0.6	12.5	100.0	10.8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1.4	59.9	81.3	14.8	3.8	18.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5.5	57.4	82.9	13.4	3.7	17.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6.9	52.2	79.0	17.7	3.2	21.0	100.0	
500만원 이상	(250)	28.4	52.8	81.2	15.2	3.6	18.8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25.4	59.3	84.7	13.6	1.7	15.3	100.0	14.591*
중도	(418)	26.3	59.1	85.4	12.0	2.6	14.6	100.0	
보수	(351)	25.9	50.4	76.4	18.8	4.8	23.6	100.0	

[문18-5]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5) 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부양	사례수 (명)	(1)전적 정부의 책임이다	(2)정부 책임으로 볼 수 있다	①+②	(3)정부 책임으로 볼 수 없다	(4)전혀 책임이 아니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1.1</b>	<b>56.5</b>	<b>87.7</b>	<b>9.9</b>	<b>2.5</b>	<b>12.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2.5	54.9	87.4	10.2	2.4	12.6	100.0	1.173
여자	(506)	29.8	58.1	87.9	9.5	2.6	12.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8.6	54.0	92.6	7.4	0.0	7.4	100.0	20.166
만30세-만39세	(183)	31.1	59.6	90.7	6.6	2.7	9.3	100.0	
만40세-만49세	(211)	29.9	57.8	87.7	10.4	1.9	12.3	100.0	
만50세-만59세	(199)	28.1	53.3	81.4	14.1	4.5	18.6	100.0	
만60세 이상	(236)	29.2	57.6	86.9	10.2	3.0	13.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3.4	64.1	87.4	9.0	3.6	12.6	100.0	9.191
고졸 이하	(432)	31.9	54.2	86.1	11.3	2.5	13.9	100.0	
대졸 이상	(406)	33.5	55.9	89.4	8.6	2.0	10.6	100.0	
<b>지역</b>									
서울	(202)	30.7	58.9	89.6	10.4	0.0	10.4	100.0	92.808***
인천/경기	(298)	32.6	57.0	89.6	8.7	1.7	10.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3.2	67.0	80.2	16.0	3.8	19.8	100.0	
광주/전라	(101)	41.6	56.4	98.0	2.0	0.0	2.0	100.0	
대구/경북	(102)	16.7	63.7	80.4	13.7	5.9	19.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9.7	37.4	87.1	8.4	4.5	12.9	100.0	
강원/제주	(41)	9.8	68.3	78.0	14.6	7.3	22.0	100.0	
<b>직업</b>									
전문직	(56)	50.0	39.3	89.3	7.1	3.6	10.7	100.0	48.069**
관리직	(19)	31.6	42.1	73.7	15.8	10.5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50.0	38.1	88.1	7.1	4.8	11.9	100.0	
사무직	(84)	31.0	63.1	94.0	4.8	1.2	6.0	100.0	
판매직	(217)	26.3	56.7	82.9	13.4	3.7	17.1	100.0	
서비스직	(254)	25.6	60.6	86.2	12.2	1.6	13.8	100.0	
생산직	(24)	50.0	37.5	87.5	8.3	4.2	12.5	100.0	
농어민	(32)	28.1	65.6	93.8	6.3	0.0	6.3	100.0	
미취업	(277)	32.1	58.5	90.6	7.6	1.8	9.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6.9	52.4	89.3	9.5	1.2	10.7	100.0	21.67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0.9	63.7	84.6	12.1	3.3	15.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0.6	56.5	87.0	10.2	2.8	13.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9.6	60.2	89.8	9.7	0.5	10.2	100.0	
500만원 이상	(250)	36.4	52.0	88.4	8.0	3.6	11.6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32.2	56.4	88.6	10.2	1.3	11.4	100.0	8.482
중도	(418)	32.1	57.4	89.5	8.9	1.7	10.5	100.0	
보수	(351)	29.3	55.6	84.9	10.8	4.3	15.1	100.0	

[문19-1]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1순위	사례수 (명)	6.25 전쟁	천안함 폭침 사건	남북이 가 상봉	연평도 포격 사건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KAL 기 폭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참가	평안북도 개성공단	남한의 UN 시업	아용사 테러 사건	7.4 남북공동선언
<b>전체</b>	<b>(1,005)</b>	<b>69.7</b>	<b>12.1</b>	<b>5.4</b>	<b>4.2</b>	<b>1.9</b>	<b>1.3</b>	<b>1.3</b>	<b>1.3</b>	<b>0.9</b>	<b>0.7</b>	
<b>성별</b>												
남자	(499)	69.7	11.8	4.8	4.2	3.0	1.0	1.6	1.0	1.0	0.8	
여자	(506)	69.6	12.5	5.9	4.2	0.8	1.6	1.0	1.6	0.8	0.6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70.5	14.8	5.1	3.4	0.6	0.6	1.1	1.1	0.6	0.6	
만30세-만39세	(183)	67.8	16.9	4.4	6.0	1.6	1.1	0.0	0.0	1.1	0.5	
만40세-만49세	(211)	64.5	11.4	7.1	6.2	1.9	0.5	2.4	2.8	0.5	0.9	
만50세-만59세	(199)	68.3	12.1	5.5	3.0	3.0	2.0	1.5	1.5	1.0	1.0	
만60세 이상	(236)	76.3	7.2	4.7	2.5	2.1	2.1	1.3	0.8	1.3	0.4	
<b>학력</b>												
중졸 이하	(167)	77.8	6.0	6.0	2.4	1.8	3.0	0.0	0.0	0.6	0.6	
고졸 이하	(432)	67.6	14.6	4.4	4.6	2.3	0.7	1.2	2.3	0.9	0.5	
대졸 이상	(406)	68.5	12.1	6.2	4.4	1.5	1.2	2.0	0.7	1.0	1.0	
<b>지역</b>												
서울	(202)	77.2	9.9	3.5	5.0	1.0	0.0	1.0	0.5	1.0	0.5	
인천/경기	(298)	70.1	9.7	3.7	3.0	2.3	2.0	2.0	3.0	1.3	1.0	
대전/충청/세종	(106)	64.2	15.1	5.7	9.4	1.9	0.0	0.0	0.9	0.0	0.9	
광주/전라	(101)	68.3	9.9	5.9	2.0	6.9	1.0	1.0	1.0	1.0	2.0	
대구/경북	(102)	76.5	11.8	2.9	2.0	1.0	1.0	2.0	0.0	1.0	0.0	
부산/울산/경남	(155)	58.1	19.4	13.5	2.6	0.0	3.2	1.3	0.6	0.6	0.0	
강원/제주	(41)	73.2	12.2	0.0	12.2	0.0	0.0	0.0	0.0	0.0	0.0	
<b>직업</b>												
전문직	(56)	60.7	19.6	7.1	3.6	3.6	0.0	3.6	0.0	1.8	0.0	
관리직	(19)	63.2	10.5	5.3	10.5	0.0	5.3	0.0	0.0	0.0	5.3	
반전문, 기술직	(42)	76.2	7.1	2.4	9.5	2.4	2.4	0.0	0.0	0.0	0.0	
사무직	(84)	69.0	17.9	6.0	4.8	0.0	1.2	0.0	0.0	0.0	1.2	
판매직	(217)	69.1	13.4	5.1	0.9	1.4	1.4	0.9	3.2	1.4	1.4	
서비스직	(254)	65.7	10.2	6.3	6.3	3.5	2.0	2.4	1.6	1.2	0.4	
생산직	(24)	83.3	8.3	0.0	4.2	0.0	0.0	0.0	0.0	0.0	0.0	
농어민	(32)	68.8	6.3	12.5	3.1	3.1	0.0	0.0	0.0	0.0	3.1	
미취업	(277)	74.0	11.6	4.3	3.6	1.1	0.7	1.1	0.7	0.7	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0.4	4.8	6.5	3.6	0.6	2.4	1.2	0.0	0.0	0.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2.0	7.7	4.9	3.3	2.2	2.2	0.5	3.3	1.1	1.1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9.9	13.4	4.2	4.2	3.7	0.0	0.5	0.9	0.0	0.9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60.8	19.9	6.5	3.8	1.1	1.1	2.7	1.1	2.2	0.0	
500만원 이상	(250)	66.8	13.6	5.2	5.6	1.6	1.2	1.6	1.2	1.2	1.2	
모름/무응답	(3)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b>이념</b>												
진보	(236)	63.6	14.0	6.4	3.8	2.5	0.8	1.7	3.0	1.7	1.3	
중도	(418)	70.3	12.7	4.1	4.8	1.2	1.9	1.4	1.0	0.7	1.0	
보수	(351)	72.9	10.3	6.3	3.7	2.3	0.9	0.9	0.6	0.6	0.0	

[문19-1]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1순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및 2차 남북정상회담	울진, 삼척 무장공비 남파사건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0.6</b>	<b>0.4</b>	<b>0.3</b>	<b>100.0</b>	
<b>성별</b>					
남자	0.8	0.0	0.2	100.0	14.472
여자	0.4	0.8	0.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0.6	1.1	0.0	100.0	52.856
만30세-만39세	0.5	0.0	0.0	100.0	
만40세-만49세	0.9	0.0	0.9	100.0	
만50세-만59세	0.0	1.0	0.0	100.0	
만60세 이상	0.8	0.0	0.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0.6	0.6	0.6	100.0	37.102*
고졸 이하	0.0	0.5	0.5	100.0	
대졸 이상	1.2	0.2	0.0	100.0	
<b>지역</b>					
서울	0.5	0.0	0.0	100.0	136.361***
인천/경기	0.7	0.0	1.0	100.0	
대전/충청/세종	0.0	1.9	0.0	100.0	
광주/전라	1.0	0.0	0.0	100.0	
대구/경북	0.0	2.0	0.0	100.0	
부산/울산/경남	0.6	0.0	0.0	100.0	
강원/제주	2.4	0.0	0.0	100.0	
<b>직업</b>					
전문직	0.0	0.0	0.0	100.0	109.348
관리직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0.0	0.0	0.0	100.0	
사무직	0.0	0.0	0.0	100.0	
판매직	1.8	0.0	0.0	100.0	
서비스직	0.0	0.0	0.4	100.0	
생산직	0.0	4.2	0.0	100.0	
농어민	3.1	0.0	0.0	100.0	
미취업	0.4	1.1	0.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0.6	0.0	0.0	100.0	75.255**
200만원-300만원 미만	0.5	1.1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0.9	0.5	0.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0.0	0.5	0.5	100.0	
500만원 이상	0.8	0.0	0.0	100.0	
모름/무응답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0.8	0.0	0.4	100.0	30.416
중도	0.2	0.7	0.0	100.0	
보수	0.9	0.3	0.6	100.0	

[문19-2]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2순위	사례수 (명)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북산 폭격	KAL기 폭파 사건	2000년 김대중정부 1차 남북 정상회담	6.25 전쟁	아산 테러 사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아예 남한에 참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아예 남한에 참가	2007년 현 정부 출범	2007년 현 정부 출범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2)	22.8	22.4	19.8	6.7	6.2	5.0	4.4	3.6	2.3	2.0	2.0
<b>성별</b>												
남자	(498)	22.1	21.1	20.1	5.6	6.0	4.2	4.4	5.6	2.6	2.6	2.6
여자	(504)	23.4	23.6	19.4	7.7	6.3	5.8	4.4	1.6	2.0	1.4	1.4
<b>연령</b>												
만19세-만29세	(175)	29.1	26.9	16.6	3.4	5.7	4.0	1.1	5.7	1.1	1.7	1.7
만30세-만39세	(183)	24.0	21.3	19.7	2.7	9.3	4.9	3.3	2.7	3.8	2.7	2.7
만40세-만49세	(209)	22.0	23.4	15.8	6.2	9.1	6.2	4.3	4.3	1.4	1.9	1.9
만50세-만59세	(199)	21.1	21.6	22.6	8.0	6.0	5.5	4.0	4.0	1.5	2.0	2.0
만60세 이상	(236)	19.1	19.5	23.3	11.4	1.7	4.2	8.1	1.7	3.4	1.7	1.7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2	21.6	24.6	12.6	4.2	3.0	7.8	2.4	2.4	1.2	1.2
고졸 이하	(431)	23.9	23.7	19.0	6.7	5.1	5.3	4.2	3.2	2.1	2.3	2.3
대졸 이상	(404)	24.3	21.3	18.6	4.2	8.2	5.4	3.2	4.5	2.5	2.0	2.0
<b>지역</b>												
서울	(201)	19.4	22.4	16.9	4.5	8.0	5.5	6.5	9.0	1.5	1.0	1.0
인천/경기	(298)	25.5	20.5	16.8	7.7	6.4	5.7	4.0	1.3	2.0	1.7	1.7
대전/충청/세종	(106)	25.5	32.1	10.4	6.6	11.3	5.7	0.9	2.8	0.0	3.8	3.8
광주/전라	(101)	23.8	10.9	28.7	3.0	8.9	4.0	1.0	5.9	5.0	5.9	5.9
대구/경북	(101)	18.8	20.8	18.8	7.9	5.0	4.0	8.9	2.0	5.9	0.0	0.0
부산/울산/경남	(155)	19.4	29.0	27.7	7.7	0.6	5.2	4.5	1.3	1.9	1.3	1.3
강원/제주	(40)	32.5	17.5	30.0	12.5	0.0	0.0	2.5	2.5	0.0	2.5	2.5
<b>직업</b>												
전문직	(56)	21.4	21.4	14.3	12.5	5.4	3.6	1.8	5.4	3.6	5.4	5.4
관리직	(19)	21.1	31.6	5.3	0.0	10.5	5.3	10.5	10.5	0.0	0.0	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26.2	26.2	2.4	11.9	4.8	2.4	2.4	2.4	0.0	0.0
사무직	(84)	26.2	25.0	11.9	1.2	13.1	7.1	4.8	1.2	1.2	1.2	1.2
판매직	(217)	25.3	20.3	18.9	8.8	3.7	3.7	4.1	4.6	4.1	1.4	1.4
서비스직	(252)	25.4	21.4	21.4	4.8	5.2	6.3	3.6	4.0	1.6	2.8	2.8
생산직	(24)	20.8	20.8	20.8	16.7	12.5	4.2	0.0	0.0	4.2	0.0	0.0
농어민	(32)	15.6	28.1	21.9	9.4	9.4	3.1	3.1	3.1	0.0	6.3	6.3
미취업	(276)	20.3	22.5	22.1	7.2	5.1	4.7	6.2	2.9	1.8	1.4	1.4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7.3	23.2	19.0	11.9	4.2	1.8	10.1	1.2	2.4	2.4	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7.6	25.8	24.7	9.3	4.4	3.8	3.8	2.7	1.6	2.2	2.2
300만원-400만원 미만	(215)	23.3	20.0	14.9	5.6	6.5	7.4	4.7	5.1	3.7	2.3	2.3
400만원-500만원 미만	(185)	25.9	19.5	21.6	5.4	5.9	5.9	2.7	5.4	1.6	1.6	1.6
500만원 이상	(249)	27.7	23.3	19.7	3.2	8.8	5.2	1.6	3.2	1.6	1.6	1.6
모름/무응답	(3)	0.0	33.3	0.0	0.0	0.0	0.0	33.3	0.0	33.3	0.0	0.0
<b>이념</b>												
진보	(235)	22.1	21.7	17.4	5.5	10.6	6.8	2.6	2.6	0.4	4.7	4.7
중도	(418)	23.9	21.1	21.1	6.7	5.7	4.8	3.8	4.1	2.4	1.2	1.2
보수	(349)	21.8	24.4	19.8	7.4	3.7	4.0	6.3	3.7	3.4	1.1	1.1

[문19-2]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2순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강릉 접수합침투사건	기타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1</b>	<b>0.9</b>	<b>0.7</b>	<b>0.6</b>	<b>100.0</b>	
<b>성별</b>						
남자	1.2	1.2	0.8	0.8	100.0	19.397
여자	1.0	0.6	0.6	0.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0.6	1.1	0.0	0.6	100.0	74.925*
만30세-만39세	1.1	0.5	1.1	0.5	100.0	
만40세-만49세	1.9	1.0	0.5	0.5	100.0	
만50세-만59세	0.5	1.5	0.5	0.0	100.0	
만60세 이상	1.3	0.4	1.3	1.3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2	1.2	0.6	0.6	100.0	39.054*
고졸 이하	1.2	0.2	0.7	0.5	100.0	
대졸 이상	1.0	1.5	0.7	0.7	100.0	
<b>지역</b>						
서울	1.5	0.5	1.0	1.0	100.0	162.988***
인천/경기	2.7	1.0	0.7	0.3	100.0	
대전/충청/세종	0.0	0.9	0.0	0.0	100.0	
광주/전라	0.0	1.0	1.0	1.0	100.0	
대구/경북	0.0	3.0	2.0	1.0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6 0.0	100.0 100.0	
<b>직업</b>						
전문직	0.0	1.8	1.8	0.0	100.0	99.595
관리직	5.3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2.4	4.8	2.4	0.0	100.0	
사무직	1.2	1.2	0.0	1.2	100.0	
판매직	1.4	0.9	0.9	0.5	100.0	
서비스직	0.8	0.4	0.4	0.8	100.0	
생산직	0.0	0.0	0.0	0.0	100.0	
농어민	0.0	0.0	0.0	0.0	100.0	
미취업	1.1	0.7	0.7	0.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0.0	0.6	3.0	1.2	100.0	88.039**
200만원-300만원 미만	2.2	0.5	0.0	0.0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3	0.9	0.5	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0.0	1.1	0.5	0.0	100.0	
500만원 이상	0.8	1.2	0.0	1.2	100.0	
모름/무응답	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1.3	0.4	0.4	0.4	100.0	45.015*
중도	1.4	1.0	1.0	0.5	100.0	
보수	0.6	1.1	0.6	0.9	100.0	

[문19-3]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1+2순위(중복응답)	사례수 (명)	6.25 전쟁	천안 함몰 사건	연평 도 포격 사건	남북 산총 상봉	2000년 중대 형의 및 1차 남북 회담	KAL기 폭파사 건	아웅산 사건	올림픽과 아시아 게임 단일팀 참가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005)	74.6	34.4	26.9	25.1	8.1	8.0	5.3	4.9
<b>성별</b>									
남자	(499)	73.9	32.9	26.3	24.8	9.0	6.6	5.4	7.2
여자	(506)	75.3	36.0	27.5	25.3	7.1	9.3	5.1	2.6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74.4	41.5	32.4	21.6	6.3	4.0	1.7	6.8
만30세-만39세	(183)	72.7	38.3	30.1	24.0	10.9	3.8	4.4	2.7
만40세-만49세	(211)	70.6	34.6	28.0	22.7	10.9	6.6	4.7	6.6
만50세-만59세	(199)	73.9	33.7	24.1	28.1	9.0	10.1	5.0	5.5
만60세 이상	(236)	80.5	26.7	21.6	28.0	3.8	13.6	9.3	3.0
<b>학력</b>									
중졸 이하	(167)	80.8	27.5	18.6	30.5	6.0	15.6	8.4	2.4
고졸 이하	(432)	72.9	38.2	28.5	23.4	7.4	7.4	5.1	4.4
대졸 이상	(406)	73.9	33.3	28.6	24.6	9.6	5.4	4.2	6.4
<b>지역</b>									
서울	(202)	82.7	32.2	24.3	20.3	8.9	4.5	7.4	9.9
인천/경기	(298)	75.8	30.2	28.5	20.5	8.7	9.7	5.4	3.4
대전/충청/세종	(106)	69.8	47.2	34.9	16.0	13.2	6.6	0.9	2.8
광주/전라	(101)	72.3	20.8	25.7	34.7	15.8	4.0	2.0	6.9
대구/경북	(102)	80.4	32.4	20.6	21.6	5.9	8.8	9.8	3.9
부산/울산/경남	(155)	63.2	48.4	21.9	41.3	0.6	11.0	5.2	2.6
강원/제주	(41)	73.2	29.3	43.9	29.3	0.0	12.2	2.4	2.4
<b>직업</b>									
전문직	(56)	64.3	41.1	25.0	21.4	8.9	12.5	3.6	8.9
관리직	(19)	68.4	42.1	31.6	10.5	10.5	5.3	10.5	10.5
반전문, 기술직	(42)	81.0	33.3	21.4	28.6	14.3	4.8	2.4	2.4
사무직	(84)	76.2	42.9	31.0	17.9	13.1	2.4	4.8	1.2
판매직	(217)	72.8	33.6	26.3	24.0	5.1	10.1	5.5	5.5
서비스직	(254)	72.0	31.5	31.5	27.6	8.7	6.7	4.7	6.3
생산직	(24)	87.5	29.2	25.0	20.8	12.5	16.7	0.0	0.0
농어민	(32)	71.9	34.4	18.8	34.4	12.5	9.4	3.1	3.1
미취업	(277)	78.7	33.9	23.8	26.4	6.1	7.9	6.9	4.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2.1	28.0	20.8	25.6	4.8	14.3	10.1	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5.8	33.5	20.9	29.7	6.6	11.5	4.9	3.3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7.3	33.3	27.3	19.0	10.2	5.6	4.6	5.6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66.7	39.2	29.6	28.0	7.0	6.5	4.8	8.1
500만원 이상	(250)	72.0	36.8	33.2	24.8	10.4	4.4	2.8	4.8
모름/무응답	(3)	100.0	33.3	0.0	0.0	0.0	0.0	33.3	0.0
<b>이념</b>									
진보	(236)	70.3	35.6	25.8	23.7	13.1	6.4	4.2	4.2
중도	(418)	75.1	33.7	28.7	25.1	6.9	8.6	4.5	5.5
보수	(351)	76.9	34.5	25.4	25.9	6.0	8.3	6.8	4.6

[문19-3]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단위 : %)

1+2순위(중복응답)	올진, 삼척 무장공비 납파사건	74 남북공동 선언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체결	강릉-점수함 침투사건	기타
<b>☐ 전체 ☐</b>	<b>2.6</b>	<b>2.4</b>	<b>2.2</b>	<b>1.7</b>	<b>0.7</b>	<b>0.6</b>
<b>성별</b>						
남자	2.8	2.4	2.2	2.0	0.8	0.8
여자	2.4	2.4	2.2	1.4	0.6	0.4
<b>연령</b>						
만19세-만29세	1.1	2.8	2.3	1.1	0.0	0.6
만30세-만39세	3.8	2.7	0.5	1.6	1.1	0.5
만40세-만49세	2.4	2.4	3.8	2.8	0.5	0.5
만50세-만59세	1.5	2.0	3.0	0.5	0.5	0.0
만60세 이상	3.8	2.1	1.3	2.1	1.3	1.3
<b>학력</b>						
중졸 이하	3.0	1.2	1.2	1.8	0.6	0.6
고졸 이하	2.5	2.3	2.5	1.2	0.7	0.5
대졸 이상	2.5	3.0	2.2	2.2	0.7	0.7
<b>지역</b>						
서울	1.5	2.0	1.0	2.0	1.0	1.0
인천/경기	3.0	4.7	4.0	3.4	0.7	0.3
대전/충청/세종	0.0	0.9	1.9	0.0	0.0	0.0
광주/전라	5.0	2.0	2.0	1.0	1.0	1.0
대구/경북	5.9	2.0	2.9	0.0	2.0	1.0
부산/울산/경남	1.9	0.6	0.6	0.6	0.0	0.6
강원/제주	0.0	0.0	0.0	2.4	0.0	0.0
<b>직업</b>						
전문직	3.6	1.8	1.8	0.0	1.8	0.0
관리직	0.0	5.3	0.0	5.3	0.0	0.0
반전문, 기술직	2.4	0.0	4.8	2.4	2.4	0.0
사무직	1.2	4.8	1.2	1.2	0.0	1.2
판매직	4.1	2.8	4.1	3.2	0.9	0.5
서비스직	2.0	1.6	2.0	0.8	0.4	0.8
생산직	4.2	0.0	0.0	0.0	0.0	0.0
농어민	0.0	3.1	0.0	3.1	0.0	0.0
미취업	2.5	2.5	1.4	1.4	0.7	0.7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2.4	1.8	0.6	0.6	3.0	1.2
200만원-300만원 미만	1.6	2.2	3.8	2.7	0.0	0.0
300만원-400만원 미만	4.6	3.2	1.9	3.2	0.5	0.5
400만원-500만원 미만	2.2	2.7	2.2	0.0	0.5	0.0
500만원 이상	1.6	2.0	2.4	1.6	0.0	1.2
모름/무응답	33.3	0.0	0.0	0.0	0.0	0.0
<b>이념</b>						
진보	0.8	4.2	3.4	2.1	0.4	0.4
중도	2.4	2.4	1.9	1.7	1.0	0.5
보수	4.0	1.1	1.7	1.4	0.6	0.9

[문20-1]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1) 신문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6.6</b>	<b>6.5</b>	<b>10.7</b>	<b>66.2</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9.4	9.0	12.4	59.1	100.0	24.762***
여자	(506)	13.8	4.0	9.1	73.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6.3	6.3	15.9	71.6	100.0	47.789***
만30세-만39세	(183)	11.5	9.3	11.5	67.8	100.0	
만40세-만49세	(211)	18.0	6.6	13.3	62.1	100.0	
만50세-만59세	(199)	25.6	8.0	7.5	58.8	100.0	
만60세 이상	(236)	19.5	3.0	6.8	7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3.2	0.6	7.2	79.0	100.0	33.311***
고졸 이하	(432)	17.1	5.6	9.0	68.3	100.0	
대졸 이상	(406)	17.5	9.9	14.0	58.6	100.0	
<b>지역</b>							
서울	(202)	25.2	8.4	13.9	52.5	100.0	48.941***
인천/경기	(298)	18.5	6.7	8.7	66.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0.4	8.5	18.9	62.3	100.0	
광주/전라	(101)	12.9	4.0	11.9	71.3	100.0	
대구/경북	(102)	12.7	3.9	8.8	74.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2.3	4.5	4.5	78.7	100.0	
강원/제주	(41)	12.2	9.8	14.6	63.4	100.0	
<b>직업</b>							
전문직	(56)	32.1	10.7	10.7	46.4	100.0	79.749***
관리직	(19)	26.3	31.6	15.8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9.5	14.3	69.0	100.0	
사무직	(84)	19.0	11.9	15.5	53.6	100.0	
판매직	(217)	19.4	4.6	10.6	65.4	100.0	
서비스직	(254)	20.9	5.1	11.0	63.0	100.0	
생산직	(24)	8.3	8.3	8.3	75.0	100.0	
농어민	(32)	0.0	3.1	15.6	81.3	100.0	
미취업	(277)	10.1	4.7	7.9	77.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9	1.2	11.3	78.6	100.0	36.57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1.4	4.9	8.8	64.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5.7	7.9	8.3	68.1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7	5.9	9.7	67.7	100.0	
500만원 이상	(250)	18.8	10.0	14.8	56.4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3.1	9.7	14.0	63.1	100.0	21.963**
중도	(418)	13.6	5.5	10.8	70.1	100.0	
보수	(351)	22.5	5.4	8.5	63.5	100.0	

[문20-2]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2) TV 공중파 채널 (KBS, MBC, SBS 등)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74.8</b>	<b>13.5</b>	<b>8.4</b>	<b>3.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71.5	14.2	9.6	4.6	100.0	8.972*
여자	(506)	78.1	12.8	7.1	2.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8.3	25.0	17.0	9.7	100.0	136.471* **
만30세-만39세	(183)	67.2	15.8	10.9	6.0	100.0	
만40세-만49세	(211)	73.5	14.7	10.0	1.9	100.0	
만50세-만59세	(199)	86.9	7.0	5.5	0.5	100.0	
만60세 이상	(236)	91.5	7.6	0.8	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93.4	4.8	1.8	0.0	100.0	52.995***
고졸 이하	(432)	76.2	14.1	6.7	3.0	100.0	
대졸 이상	(406)	65.8	16.5	12.8	4.9	100.0	
<b>지역</b>							
서울	(202)	77.7	11.9	5.9	4.5	100.0	52.021***
인천/경기	(298)	65.4	21.5	9.4	3.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77.4	11.3	5.7	5.7	100.0	
광주/전라	(101)	73.3	12.9	11.9	2.0	100.0	
대구/경북	(102)	83.3	2.9	11.8	2.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85.2	9.7	4.5	0.6	100.0	
강원/제주	(41)	65.9	12.2	17.1	4.9	100.0	
<b>직업</b>							
전문직	(56)	64.3	17.9	14.3	3.6	100.0	33.733
관리직	(19)	73.7	21.1	5.3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4	19.0	2.4	7.1	100.0	
사무직	(84)	65.5	22.6	9.5	2.4	100.0	
판매직	(217)	73.7	15.2	7.4	3.7	100.0	
서비스직	(254)	77.2	12.2	9.1	1.6	100.0	
생산직	(24)	87.5	8.3	4.2	0.0	100.0	
농어민	(32)	90.6	3.1	0.0	6.3	100.0	
미취업	(277)	76.2	10.1	9.4	4.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88.1	8.3	3.0	0.6	100.0	33.68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7.5	10.4	9.9	2.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2.7	12.5	10.2	4.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66.1	17.2	12.4	4.3	100.0	
500만원 이상	(250)	72.8	17.2	6.4	3.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0.0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58.5	21.6	13.1	6.8	100.0	54.135***
중도	(418)	76.3	11.7	9.1	2.9	100.0	
보수	(351)	84.0	10.3	4.3	1.4	100.0	

[문20-3]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3) TV 중편 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53.9	21.3	15.0	9.8	100.0	
성별	남자	(499)	51.5	22.6	16.0	9.8	100.0	2.607
	여자	(506)	56.3	20.0	14.0	9.7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30.7	27.3	25.0	17.0	100.0	75.051***
	만30세-만39세	(183)	47.0	24.6	18.0	10.4	100.0	
	만40세-만49세	(211)	55.0	22.7	14.7	7.6	100.0	
	만50세-만59세	(199)	62.8	20.1	10.6	6.5	100.0	
	만60세 이상	(236)	68.2	14.0	9.3	8.5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64.1	12.0	12.6	11.4	100.0	22.526***
	고졸 이하	(432)	56.9	20.8	14.1	8.1	100.0	
	대졸 이상	(406)	46.6	25.6	17.0	10.8	100.0	
지역	서울	(202)	51.5	27.7	10.9	9.9	100.0	84.336***
	인천/경기	(298)	46.0	26.8	17.8	9.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2.3	12.3	11.3	14.2	100.0	
	광주/전라	(101)	48.5	14.9	24.8	11.9	100.0	
	대구/경북	(102)	53.9	15.7	16.7	13.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6.1	16.1	7.1	0.6	100.0	
	강원/제주	(41)	31.7	22.0	26.8	19.5	100.0	
직업	전문직	(56)	44.6	25.0	16.1	14.3	100.0	50.711**
	관리직	(19)	31.6	52.6	15.8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2.9	19.0	21.4	16.7	100.0	
	사무직	(84)	48.8	31.0	14.3	6.0	100.0	
	판매직	(217)	56.2	22.6	12.9	8.3	100.0	
	서비스직	(254)	55.9	21.3	16.9	5.9	100.0	
	생산직	(24)	62.5	20.8	12.5	4.2	100.0	
	농어민	(32)	68.8	3.1	6.3	21.9	100.0	
	미취업	(277)	54.5	17.0	15.2	13.4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60.1	16.1	11.3	12.5	100.0	14.47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54.4	20.9	14.8	9.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3.7	19.0	19.0	8.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4	25.3	15.1	11.3	100.0	
	500만원 이상	(250)	54.0	24.0	14.4	7.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0.0	33.3	100.0	
이념	진보	(236)	45.3	30.9	13.6	10.2	100.0	29.694***
	중도	(418)	53.1	17.7	19.4	9.8	100.0	
	보수	(351)	60.7	19.1	10.8	9.4	100.0	

[문20-4]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4) 인터넷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55.4</b>	<b>10.8</b>	<b>11.5</b>	<b>22.2</b>	<b>100.0</b>	
<b>성별</b>							
남자	(499)	61.1	11.2	10.4	17.2	100.0	17.983***
여자	(506)	49.8	10.5	12.6	27.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1.8	10.2	5.1	2.8	100.0	392.550***
만30세-만39세	(183)	77.6	12.0	7.1	3.3	100.0	
만40세-만49세	(211)	64.9	15.2	11.8	8.1	100.0	
만50세-만59세	(199)	45.2	13.6	18.1	23.1	100.0	
만60세 이상	(236)	18.6	4.2	14.0	63.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1.4	4.2	11.4	73.1	100.0	350.011***
고졸 이하	(432)	55.6	11.1	14.4	19.0	100.0	
대졸 이상	(406)	73.4	13.3	8.6	4.7	100.0	
<b>지역</b>							
서울	(202)	66.3	10.4	4.0	19.3	100.0	78.258***
인천/경기	(298)	60.7	12.8	8.7	17.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4.2	5.7	12.3	17.9	100.0	
광주/전라	(101)	51.5	7.9	13.9	26.7	100.0	
대구/경북	(102)	44.1	8.8	12.7	34.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7.4	17.4	21.3	23.9	100.0	
강원/제주	(41)	46.3	0.0	22.0	31.7	100.0	
<b>직업</b>							
전문직	(56)	66.1	14.3	16.1	3.6	100.0	112.063***
관리직	(19)	57.9	26.3	10.5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64.3	7.1	14.3	14.3	100.0	
사무직	(84)	83.3	9.5	6.0	1.2	100.0	
판매직	(217)	60.4	13.4	7.8	18.4	100.0	
서비스직	(254)	54.7	9.1	15.4	20.9	100.0	
생산직	(24)	37.5	4.2	25.0	33.3	100.0	
농어민	(32)	25.0	9.4	15.6	50.0	100.0	
미취업	(277)	45.1	10.5	9.7	34.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5.0	5.4	10.1	59.5	100.0	212.52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8.9	9.3	14.3	27.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55.6	15.3	14.8	14.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65.1	12.4	12.4	10.2	100.0	
500만원 이상	(250)	73.6	10.8	7.2	8.4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0.0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72.9	11.4	11.4	4.2	100.0	98.113***
중도	(418)	57.2	12.2	10.8	19.9	100.0	
보수	(351)	41.6	8.8	12.5	37.0	100.0	

[문20-5]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5) 라디오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0.6</b>	<b>8.9</b>	<b>17.4</b>	<b>63.1</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1.4	11.8	18.6	58.1	100.0	15.150**
여자	(506)	9.9	5.9	16.2	68.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0	5.1	13.6	77.3	100.0	59.203***
만30세-만39세	(183)	10.9	9.8	25.7	53.6	100.0	
만40세-만49세	(211)	15.6	12.8	21.8	49.8	100.0	
만50세-만59세	(199)	11.6	11.1	16.6	60.8	100.0	
만60세 이상	(236)	10.2	5.5	10.6	73.7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4	6.0	8.4	80.2	100.0	34.038***
고졸 이하	(432)	11.1	7.4	17.6	63.9	100.0	
대졸 이상	(406)	12.3	11.6	20.9	55.2	100.0	
<b>지역</b>							
서울	(202)	11.4	9.9	16.8	61.9	100.0	20.498
인천/경기	(298)	11.7	6.7	20.1	61.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3.2	10.4	18.9	57.5	100.0	
광주/전라	(101)	15.8	9.9	14.9	59.4	100.0	
대구/경북	(102)	10.8	7.8	15.7	65.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2	11.0	15.5	70.3	100.0	
강원/제주	(41)	7.3	7.3	14.6	70.7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14.3	17.9	55.4	100.0	50.122**
관리직	(19)	15.8	21.1	31.6	31.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11.9	23.8	45.2	100.0	
사무직	(84)	16.7	7.1	27.4	48.8	100.0	
판매직	(217)	8.3	10.1	18.9	62.7	100.0	
서비스직	(254)	12.2	9.8	16.1	61.8	100.0	
생산직	(24)	12.5	8.3	20.8	58.3	100.0	
농어민	(32)	12.5	6.3	9.4	71.9	100.0	
미취업	(277)	6.9	5.4	13.0	74.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1.3	5.4	11.3	72.0	100.0	33.94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3.2	7.1	17.0	62.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5	6.5	22.7	64.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6	14.5	15.1	54.8	100.0	
500만원 이상	(250)	8.4	10.4	18.8	62.4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8.9	9.7	20.8	60.6	100.0	9.966
중도	(418)	12.2	9.8	18.2	59.8	100.0	
보수	(351)	10.0	7.1	14.2	68.7	100.0	

[문20-6]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단위 : %)

6) 모바일 핸드폰	사례수 (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71.4</b>	<b>8.1</b>	<b>4.2</b>	<b>16.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71.5	9.0	4.4	15.0	100.0	2.264
여자	(506)	71.3	7.1	4.0	17.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91.5	5.1	0.6	2.8	100.0	326.198***
만30세-만39세	(183)	90.7	6.0	1.6	1.6	100.0	
만40세-만49세	(211)	82.9	8.5	4.3	4.3	100.0	
만50세-만59세	(199)	66.3	11.6	8.5	13.6	100.0	
만60세 이상	(236)	35.6	8.5	5.1	5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9.3	10.8	5.4	54.5	100.0	239.083***
고졸 이하	(432)	75.7	8.1	4.6	11.6	100.0	
대졸 이상	(406)	84.2	6.9	3.2	5.7	100.0	
<b>지역</b>							
서울	(202)	75.2	5.9	4.0	14.9	100.0	32.328*
인천/경기	(298)	76.5	8.4	4.0	11.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5.1	10.4	5.7	18.9	100.0	
광주/전라	(101)	69.3	5.0	5.0	20.8	100.0	
대구/경북	(102)	63.7	6.9	3.9	25.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73.5	8.4	3.2	14.8	100.0	
강원/제주	(41)	48.8	19.5	4.9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76.8	8.9	7.1	7.1	100.0	83.952***
관리직	(19)	57.9	15.8	10.5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81.0	7.1	2.4	9.5	100.0	
사무직	(84)	89.3	3.6	3.6	3.6	100.0	
판매직	(217)	77.0	8.3	2.3	12.4	100.0	
서비스직	(254)	72.0	9.1	6.3	12.6	100.0	
생산직	(24)	62.5	16.7	0.0	20.8	100.0	
농어민	(32)	34.4	15.6	12.5	37.5	100.0	
미취업	(277)	64.6	6.1	2.5	26.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1.7	6.0	3.0	49.4	100.0	190.73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3.2	12.6	6.0	18.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8.7	8.3	4.2	8.8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83.3	5.9	3.8	7.0	100.0	
500만원 이상	(250)	82.8	7.6	4.0	5.6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0.0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84.3	7.2	3.8	4.7	100.0	69.509***
중도	(418)	75.1	6.5	5.0	13.4	100.0	
보수	(351)	58.4	10.5	3.4	27.6	100.0	

[문21]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 매우 관심이 많다	② 약간 관심이 있다	③+②	③ 별로 관심이 없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③+④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9.0	38.2	47.2	40.7	12.1	52.8	100.0	
성별	남자	(499)	13.2	43.7	56.9	33.7	9.4	43.1	100.0	46.051***
	여자	(506)	4.7	32.8	37.5	47.6	14.8	62.5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5.7	31.3	36.9	44.3	18.8	63.1	100.0	32.381**
	만30세-만39세	(183)	6.0	33.3	39.3	45.4	15.3	60.7	100.0	
	만40세-만49세	(211)	9.5	44.1	53.6	37.4	9.0	46.4	100.0	
	만50세-만59세	(199)	10.6	40.2	50.8	43.2	6.0	49.2	100.0	
	만60세 이상	(236)	11.9	40.3	52.1	35.2	12.7	47.9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10.2	37.1	47.3	41.3	11.4	52.7	100.0	11.382
	고졸 이하	(432)	7.9	33.8	41.7	45.1	13.2	58.3	100.0	
	대졸 이상	(406)	9.6	43.3	53.0	35.7	11.3	47.0	100.0	
지역	서울	(202)	11.4	45.0	56.4	32.2	11.4	43.6	100.0	39.292**
	인천/경기	(298)	12.1	41.6	53.7	33.6	12.8	46.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27.4	34.0	54.7	11.3	66.0	100.0	
	광주/전라	(101)	5.0	37.6	42.6	44.6	12.9	57.4	100.0	
	대구/경북	(102)	7.8	38.2	46.1	42.2	11.8	53.9	100.0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155) (41)	3.9 12.2	31.6 34.1	35.5 46.3	51.0 46.3	13.5 7.3	64.5 53.7	100.0 100.0	
직업	전문직	(56)	19.6	35.7	55.4	35.7	8.9	44.6	100.0	55.937***
	관리직	(19)	31.6	36.8	68.4	10.5	21.1	31.6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47.6	66.7	23.8	9.5	33.3	100.0	
	사무직	(84)	6.0	36.9	42.9	42.9	14.3	57.1	100.0	
	판매직	(217)	6.9	39.2	46.1	40.6	13.4	53.9	100.0	
	서비스직	(254)	8.3	39.8	48.0	42.9	9.1	52.0	100.0	
	생산직	(24)	16.7	33.3	50.0	50.0	0.0	50.0	100.0	
	농어민	(32)	3.1	31.3	34.4	62.5	3.1	65.6	100.0	
	미취업	(277)	6.9	36.8	43.7	40.4	15.9	56.3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12.5	34.5	47.0	38.7	14.3	53.0	100.0	16.57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0.4	43.4	53.8	39.6	6.6	46.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5	39.8	46.3	39.4	14.4	53.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7.0	33.3	40.3	46.2	13.4	59.7	100.0	
	500만원 이상	(250)	8.4	39.2	47.6	40.4	12.0	52.4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이념	진보	(236)	8.5	37.3	45.8	42.8	11.4	54.2	100.0	1.711
	중도	(418)	8.9	37.1	45.9	41.6	12.4	54.1	100.0	
	보수	(351)	9.4	40.2	49.6	38.2	12.3	50.4	100.0	

[문22-1]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1) 지원대상	사례수 (명)	(0)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동의안함 (0+1+2+3 +4)	중도 (5)	(6)	(7)	
<b>전체</b>	<b>(1,005)</b>	<b>9.3</b>	<b>9.8</b>	<b>8.3</b>	<b>9.1</b>	<b>6.8</b>	<b>43.1</b>	<b>24.1</b>	<b>10.2</b>	<b>11.2</b>	
<b>성별</b>	남자	(499)	9.4	10.0	8.6	7.6	6.8	42.5	23.6	9.0	10.8
	여자	(506)	9.1	9.5	7.9	10.5	6.7	43.7	24.5	11.5	11.7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2.5	9.7	5.7	13.1	9.1	50.0	24.4	9.1	8.0
	만30세-만39세	(183)	9.8	9.8	7.1	8.7	7.7	43.2	30.1	8.2	8.2
	만40세-만49세	(211)	6.2	10.4	8.1	9.0	5.7	39.3	23.2	7.1	17.1
	만50세-만59세	(199)	8.0	10.6	9.0	6.5	5.0	39.2	22.1	12.1	13.1
	만60세 이상	(236)	10.2	8.5	10.6	8.5	6.8	44.5	21.6	14.0	9.3
<b>학력</b>	중졸 이하	(167)	10.8	10.2	9.6	7.8	5.4	43.7	19.8	16.2	10.8
	고졸 이하	(432)	8.1	10.9	9.0	8.6	7.6	44.2	24.3	9.5	12.0
	대졸 이상	(406)	9.9	8.4	6.9	10.1	6.4	41.6	25.6	8.6	10.6
<b>지역</b>	서울	(202)	4.5	8.4	9.4	13.9	6.9	43.1	21.8	9.9	13.9
	인천/경기	(298)	7.7	12.4	7.0	6.4	7.7	41.3	25.2	8.1	10.7
	대전/충청/세종	(106)	12.3	15.1	10.4	12.3	7.5	57.5	20.8	5.7	3.8
	광주/전라	(101)	16.8	8.9	10.9	5.0	5.0	46.5	17.8	9.9	10.9
	대구/경북	(102)	20.6	2.0	10.8	4.9	3.9	42.2	28.4	18.6	5.9
	부산/울산/경남	(155)	3.2	9.0	4.5	11.0	6.5	34.2	31.0	11.6	16.8
	강원/제주	(41)	12.2	7.3	7.3	9.8	9.8	46.3	14.6	14.6	14.6
<b>직업</b>	전문직	(56)	8.9	7.1	7.1	8.9	1.8	33.9	30.4	5.4	14.3
	관리직	(19)	15.8	21.1	21.1	0.0	0.0	57.9	21.1	0.0	5.3
	반전문, 기술직	(42)	21.4	7.1	9.5	4.8	9.5	52.4	23.8	9.5	7.1
	사무직	(84)	7.1	13.1	4.8	11.9	7.1	44.0	25.0	9.5	10.7
	판매직	(217)	6.5	8.8	9.7	9.7	5.1	39.6	24.9	9.2	12.4
	서비스직	(254)	11.0	5.9	9.1	9.1	6.3	41.3	27.6	9.1	11.4
	생산직	(24)	0.0	16.7	4.2	0.0	20.8	41.7	25.0	16.7	4.2
	농어민	(32)	3.1	12.5	3.1	3.1	3.1	25.0	21.9	18.8	18.8
	미취업	(277)	9.7	12.3	7.6	10.5	8.7	48.7	19.1	12.6	10.5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6.1	11.3	8.9	8.3	5.4	50.0	17.3	13.1	8.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8.8	8.2	8.2	7.1	4.4	36.8	28.0	11.5	12.6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7.4	13.0	8.3	8.8	4.2	41.7	26.9	9.3	9.7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4	5.9	6.5	9.1	10.8	37.6	26.9	9.1	14.0
	500만원 이상	(250)	9.6	9.6	9.2	10.8	8.8	48.0	21.6	9.2	11.6
	모름/무응답	(3)	0.0	33.3	0.0	33.3	0.0	66.7	0.0	0.0	0.0
<b>이념</b>	진보	(236)	7.2	9.3	6.8	5.9	6.8	36.0	25.4	11.0	13.1
	중도	(418)	11.5	10.3	6.7	8.6	6.5	43.5	28.2	8.6	8.1
	보수	(351)	8.0	9.4	11.1	11.7	7.1	47.3	18.2	11.7	13.7

[문22-1]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1) 지원대상	(8)	(9)	(10)매우 동의함	동의함(6+7 +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6.4</b>	<b>2.3</b>	<b>2.7</b>	<b>32.8</b>	<b>100.0</b>	<b>4.4</b>		
성별	남자	8.6	2.0	3.4	33.9	100.0	4.5	14.364
	여자	4.2	2.6	2.0	31.8	100.0	4.3	
연령	만19세-만29세	7.4	0.6	0.6	25.6	100.0	4.0	54.480
	만30세-만39세	6.0	0.0	4.4	26.8	100.0	4.3	
	만40세-만49세	6.6	3.3	3.3	37.4	100.0	4.7	
	만50세-만59세	7.0	3.5	3.0	38.7	100.0	4.6	
	만60세 이상	5.1	3.4	2.1	33.9	100.0	4.3	
학력	중졸 이하	4.8	3.6	1.2	36.5	100.0	4.3	25.460
	고졸 이하	5.3	2.5	2.1	31.5	100.0	4.3	
	대졸 이상	8.1	1.5	3.9	32.8	100.0	4.5	
지역	서울	8.9	0.5	2.0	35.1	100.0	4.6	137.651***
	인천/경기	6.7	5.4	2.7	33.6	100.0	4.5	
	대전/충청/세종	4.7	2.8	4.7	21.7	100.0	3.8	
	광주/전라	6.9	2.0	5.9	35.6	100.0	4.2	
	대구/경북	2.9	0.0	2.0	29.4	100.0	3.9	
	부산/울산/경남	5.8	0.6	0.0	34.8	100.0	4.7	
	강원/제주	4.9	0.0	4.9	39.0	100.0	4.4	
직업	전문직	8.9	0.0	7.1	35.7	100.0	4.8	107.053*
	관리직	10.5	5.3	0.0	21.1	100.0	3.4	
	반전문, 기술직	2.4	0.0	4.8	23.8	100.0	3.7	
	사무직	7.1	1.2	2.4	31.0	100.0	4.4	
	판매직	7.8	1.4	4.6	35.5	100.0	4.7	
	서비스직	5.5	3.5	1.6	31.1	100.0	4.4	
	생산직	4.2	8.3	0.0	33.3	100.0	4.7	
	농어민	6.3	0.0	9.4	53.1	100.0	5.4	
	미취업	5.8	2.5	0.7	32.1	100.0	4.1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4	3.6	2.4	32.7	100.0	4.0	52.555
	200만원-300만원 미만	6.0	1.1	3.8	35.2	100.0	4.6	
	300만원-400만원 미만	6.0	2.8	3.7	31.5	100.0	4.4	
	400만원-500만원 미만	9.1	1.6	1.6	35.5	100.0	4.8	
	500만원 이상	5.6	2.4	1.6	30.4	100.0	4.2	
	모름/무응답	0.0	0.0	33.3	33.3	100.0	4.7	
이념	진보	8.1	2.1	4.2	38.6	100.0	4.8	38.125**
	중도	6.0	2.4	3.1	28.2	100.0	4.3	
	보수	5.7	2.3	1.1	34.5	100.0	4.3	

[문22-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2) 적대대상	사례수 (명)	(0)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동의안함(0+1+2+3+4)	중도(5)	(6)	(7)
<b>전체</b>	<b>(1,005)</b>	<b>4.3</b>	<b>3.1</b>	<b>4.3</b>	<b>5.1</b>	<b>9.4</b>	<b>26.1</b>	<b>23.2</b>	<b>11.1</b>	<b>12.0</b>
<b>성별</b>										
남자	(499)	5.2	2.8	4.2	5.0	8.2	25.5	22.4	11.0	12.2
여자	(506)	3.4	3.4	4.3	5.1	10.5	26.7	23.9	11.3	11.9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8	2.8	3.4	5.7	11.4	26.1	24.4	10.8	8.5
만30세-만39세	(183)	5.5	1.1	1.6	4.9	6.6	19.7	25.1	12.0	9.8
만40세-만49세	(211)	6.6	3.8	6.6	4.7	9.5	31.3	21.3	10.4	10.4
만50세-만59세	(199)	4.0	3.5	7.0	6.5	11.1	32.2	21.6	8.5	15.6
만60세 이상	(236)	2.5	3.8	2.5	3.8	8.5	21.2	23.7	13.6	14.8
<b>학력</b>										
중졸 이하	(167)	1.2	3.6	3.0	4.2	8.4	20.4	21.0	13.8	13.8
고졸 이하	(432)	3.9	2.1	3.9	5.6	9.0	24.5	22.7	9.7	14.4
대졸 이상	(406)	5.9	3.9	5.2	4.9	10.1	30.0	24.6	11.6	8.9
<b>지역</b>										
서울	(202)	2.0	2.0	6.4	5.4	10.4	26.2	24.8	14.4	9.9
인천/경기	(298)	5.4	3.7	3.4	3.7	7.0	23.2	24.8	9.4	14.4
대전/충청/세종	(106)	4.7	5.7	3.8	4.7	16.0	34.9	11.3	8.5	7.5
광주/전라	(101)	7.9	2.0	5.9	3.0	3.0	21.8	40.6	5.9	9.9
대구/경북	(102)	6.9	2.0	3.9	3.9	2.0	18.6	21.6	16.7	17.6
부산/울산/경남	(155)	0.6	3.2	3.2	7.7	16.8	31.6	18.1	11.6	9.0
강원/제주	(41)	4.9	2.4	2.4	12.2	9.8	31.7	14.6	12.2	19.5
<b>직업</b>										
전문직	(56)	8.9	8.9	1.8	5.4	7.1	32.1	21.4	7.1	5.4
관리직	(19)	5.3	0.0	10.5	5.3	5.3	26.3	10.5	0.0	10.5
반전문, 기술직	(42)	9.5	0.0	7.1	4.8	4.8	26.2	21.4	7.1	14.3
사무직	(84)	2.4	3.6	2.4	9.5	17.9	35.7	20.2	10.7	7.1
판매직	(217)	5.1	1.8	5.5	4.1	9.2	25.8	25.8	13.8	11.1
서비스직	(254)	5.1	2.8	5.1	4.3	9.1	26.4	19.7	12.2	15.0
생산직	(24)	0.0	4.2	4.2	4.2	8.3	20.8	12.5	12.5	16.7
농어민	(32)	9.4	3.1	0.0	9.4	9.4	31.3	21.9	6.3	18.8
미취업	(277)	1.4	3.6	3.2	4.7	8.7	21.7	27.8	10.8	11.6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2	5.4	2.4	6.0	6.5	24.4	19.0	13.1	13.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3	1.1	6.6	3.8	7.7	22.5	25.8	9.9	12.6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	3.7	5.6	5.1	7.9	26.9	21.8	11.6	10.6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7	2.2	3.2	4.3	15.1	27.4	25.3	12.4	13.4
500만원 이상	(250)	6.0	3.2	3.6	5.6	9.6	28.0	24.0	9.6	11.2
모름/무응답	(3)	0.0	0.0	0.0	33.3	0.0	33.3	0.0	0.0	0.0
<b>이념</b>										
진보	(236)	6.4	2.5	5.1	5.1	12.7	31.8	26.7	9.3	10.2
중도	(418)	4.8	3.8	4.3	6.2	9.1	28.2	22.0	10.3	10.5
보수	(351)	2.3	2.6	3.7	3.7	7.4	19.7	22.2	13.4	15.1

[문22-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2) 적대대상	(8)	(9)	(10)매우 동의함	동의함(6+7 +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12.6	8.1	6.9	50.7	100.0	5.7		
성별	남자	12.8	8.4	7.6	52.1	100.0	5.8	4.921
	여자	12.5	7.7	6.1	49.4	100.0	5.7	
연령	만19세-만29세	9.1	11.4	9.7	49.4	100.0	5.9	55.468
	만30세-만39세	18.0	7.1	8.2	55.2	100.0	6.0	
	만40세-만49세	14.2	9.0	3.3	47.4	100.0	5.4	
	만50세-만59세	9.0	7.5	5.5	46.2	100.0	5.5	
	만60세 이상	12.7	5.9	8.1	55.1	100.0	5.9	
학력	중졸 이하	15.6	7.8	7.8	58.7	100.0	6.1	23.421
	고졸 이하	13.7	8.6	6.5	52.8	100.0	5.9	
	대졸 이상	10.3	7.6	6.9	45.3	100.0	5.4	
지역	서울	14.4	7.4	3.0	49.0	100.0	5.6	120.775***
	인천/경기	12.8	8.1	7.4	52.0	100.0	5.8	
	대전/충청/세종	17.0	11.3	9.4	53.8	100.0	5.8	
	광주/전라	6.9	4.0	10.9	37.6	100.0	5.4	
	대구/경북	13.7	4.9	6.9	59.8	100.0	5.8	
	부산/울산/경남	10.3	11.6	7.7	50.3	100.0	5.9	
	강원/제주	12.2	7.3	2.4	53.7	100.0	5.5	
직업	전문직	16.1	3.6	14.3	46.4	100.0	5.5	110.963*
	관리직	0.0	31.6	21.1	63.2	100.0	6.8	
	반전문, 기술직	9.5	9.5	11.9	52.4	100.0	5.8	
	사무직	9.5	8.3	8.3	44.0	100.0	5.6	
	판매직	13.4	7.4	2.8	48.4	100.0	5.5	
	서비스직	11.0	8.7	7.1	53.9	100.0	5.8	
	생산직	25.0	12.5	0.0	66.7	100.0	6.3	
	농어민	9.4	9.4	3.1	46.9	100.0	5.4	
	미취업	14.4	6.5	7.2	50.5	100.0	5.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4.3	6.0	10.1	56.5	100.0	5.9	50.382
	200만원-300만원 미만	15.4	7.7	6.0	51.6	100.0	5.9	
	300만원-400만원 미만	15.7	8.3	5.1	51.4	100.0	5.7	
	400만원-500만원 미만	11.3	4.3	5.9	47.3	100.0	5.6	
	500만원 이상	8.0	12.0	7.2	48.0	100.0	5.7	
	모름/무응답	0.0	33.3	33.3	66.7	100.0	7.3	
이념	진보	11.9	4.7	5.5	41.5	100.0	5.3	28.662
	중도	13.2	8.6	7.2	49.8	100.0	5.7	
	보수	12.5	9.7	7.4	58.1	100.0	6.1	

[문22-3]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3) 협력대상	사례수 (명)	(0)전혀 동의 안함	(1)	(2)	(3)	(4)	동의안함(0+1+2+3+4)	중도(5)	(6)	(7)
<b>전체</b>	<b>(1,005)</b>	<b>5.0</b>	<b>7.5</b>	<b>4.6</b>	<b>7.9</b>	<b>6.5</b>	<b>31.3</b>	<b>29.6</b>	<b>13.6</b>	<b>10.7</b>
<b>성별</b>										
남자	(499)	6.0	6.0	5.2	7.8	5.4	30.5	26.7	12.4	12.2
여자	(506)	4.0	8.9	4.0	7.9	7.5	32.2	32.4	14.8	9.3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5	8.0	5.1	9.1	4.0	34.7	26.1	16.5	12.5
만30세-만39세	(183)	5.5	7.1	2.2	13.7	7.1	35.5	30.6	12.0	7.1
만40세-만49세	(211)	3.8	8.5	3.3	4.7	7.1	27.5	30.8	10.4	11.4
만50세-만59세	(199)	4.5	4.5	7.0	7.0	6.0	29.1	28.6	15.6	12.6
만60세 이상	(236)	3.4	8.9	5.1	5.9	7.6	30.9	30.9	14.0	10.2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	10.2	4.8	4.8	4.2	26.3	34.7	14.4	10.8
고졸 이하	(432)	5.1	6.5	5.3	7.9	7.6	32.4	27.3	14.6	10.9
대졸 이상	(406)	5.9	7.4	3.7	9.1	6.2	32.3	29.8	12.3	10.6
<b>지역</b>										
서울	(202)	3.0	6.4	5.9	13.4	6.4	35.1	24.8	14.9	12.9
인천/경기	(298)	5.0	11.1	6.4	9.1	8.1	39.6	28.9	10.4	8.1
대전/충청/세종	(106)	6.6	8.5	3.8	9.4	2.8	31.1	33.0	17.0	6.6
광주/전라	(101)	8.9	5.0	5.0	2.0	3.0	23.8	41.6	9.9	6.9
대구/경북	(102)	6.9	2.0	2.9	5.9	9.8	27.5	39.2	12.7	8.8
부산/울산/경남	(155)	2.6	6.5	1.3	1.9	4.5	16.8	23.2	18.7	20.0
강원/제주	(41)	4.9	7.3	2.4	9.8	12.2	36.6	19.5	14.6	9.8
<b>직업</b>										
전문직	(56)	8.9	3.6	5.4	12.5	3.6	33.9	28.6	7.1	8.9
관리직	(19)	21.1	15.8	10.5	5.3	0.0	52.6	15.8	5.3	5.3
반전문, 기술직	(42)	9.5	11.9	4.8	4.8	2.4	33.3	35.7	9.5	7.1
사무직	(84)	2.4	7.1	1.2	13.1	8.3	32.1	21.4	21.4	13.1
판매직	(217)	3.2	5.5	4.6	9.7	7.8	30.9	29.0	12.9	12.0
서비스직	(254)	6.3	6.3	5.9	8.3	5.5	32.3	31.1	13.8	11.0
생산직	(24)	0.0	8.3	0.0	8.3	16.7	33.3	29.2	12.5	4.2
농어민	(32)	3.1	3.1	3.1	0.0	0.0	9.4	25.0	25.0	15.6
미취업	(277)	4.0	10.1	4.3	5.1	7.2	30.7	31.8	13.0	10.1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5.4	11.3	4.8	7.1	3.6	32.1	31.0	11.9	10.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6.0	3.8	3.8	4.9	20.9	34.6	13.2	9.9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	8.8	4.6	8.8	6.9	33.8	26.9	11.1	12.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	4.8	3.8	8.1	8.6	30.1	28.0	15.1	12.9
500만원 이상	(250)	6.8	6.8	5.6	10.4	7.6	37.2	28.4	16.4	9.2
모름/무응답	(3)	33.3	0.0	0.0	0.0	0.0	33.3	33.3	0.0	0.0
<b>이념</b>										
진보	(236)	3.0	6.4	2.5	7.6	8.1	27.5	25.0	16.9	12.3
중도	(418)	6.7	8.1	5.0	7.7	5.3	32.8	32.8	11.2	9.3
보수	(351)	4.3	7.4	5.4	8.3	6.8	32.2	28.8	14.2	11.4

[문22-3]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3) 협력대상	(8)	(9)	(10)매우 동의함	동의함(6+7 +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7.4	3.5	3.9	39.1	100.0	5.0		
성별	남자	8.0	4.2	6.0	42.9	100.0	5.2	27.088**
	여자	6.7	2.8	1.8	35.4	100.0	4.8	
연령	만19세-만29세	6.3	2.8	1.1	39.2	100.0	4.7	49.111
	만30세-만39세	6.0	3.3	5.5	33.9	100.0	4.9	
	만40세-만49세	10.4	4.3	5.2	41.7	100.0	5.3	
	만50세-만59세	6.5	3.0	4.5	42.2	100.0	5.1	
	만60세 이상	7.2	3.8	3.0	38.1	100.0	5.0	
학력	중졸 이하	9.6	3.6	0.6	38.9	100.0	5.0	30.504
	고졸 이하	7.2	4.6	3.0	40.3	100.0	5.0	
	대졸 이상	6.7	2.2	6.2	37.9	100.0	5.0	
지역	서울	7.4	2.0	3.0	40.1	100.0	4.9	136.624***
	인천/경기	4.4	4.4	4.4	31.5	100.0	4.6	
	대전/충청/세종	3.8	2.8	5.7	35.8	100.0	4.8	
	광주/전라	8.9	1.0	7.9	34.7	100.0	5.1	
	대구/경북	5.9	2.0	3.9	33.3	100.0	5.0	
	부산/울산/경남	14.2	7.1	0.0	60.0	100.0	5.8	
	강원/제주	12.2	2.4	4.9	43.9	100.0	5.1	
직업	전문직	8.9	1.8	10.7	37.5	100.0	5.1	112.674**
	관리직	10.5	5.3	5.3	31.6	100.0	3.8	
	반전문, 기술직	7.1	0.0	7.1	31.0	100.0	4.6	
	사무직	7.1	2.4	2.4	46.4	100.0	5.1	
	판매직	6.0	4.1	5.1	40.1	100.0	5.2	
	서비스직	5.1	2.8	3.9	36.6	100.0	4.9	
	생산직	8.3	12.5	0.0	37.5	100.0	5.3	
	농어민	6.3	6.3	12.5	65.6	100.0	6.3	
	미취업	10.1	3.6	0.7	37.5	100.0	4.9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9.5	3.0	2.4	36.9	100.0	4.8	52.909
	200만원-300만원 미만	8.2	4.9	8.2	44.5	100.0	5.6	
	300만원-400만원 미만	7.9	4.6	3.7	39.4	100.0	5.0	
	400만원-500만원 미만	9.1	2.2	2.7	41.9	100.0	5.1	
	500만원 이상	3.2	2.8	2.8	34.4	100.0	4.6	
	모름/무응답	33.3	0.0	0.0	33.3	100.0	4.3	
이념	진보	8.1	3.0	7.2	47.5	100.0	5.4	29.823
	중도	6.5	3.8	3.6	34.4	100.0	4.8	
	보수	8.0	3.4	2.0	39.0	100.0	4.9	

[문22-4]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4) 경제대상	사례수 (명)	(0)전혀 동의 않함	(1)	(2)	(3)	(4)	동의안함 (0+1+2+3 +4)	중도( 5)	(6)	(7)
<b>▣ 전체 ▣</b>	<b>(1,005)</b>	<b>2.7</b>	<b>2.1</b>	<b>2.9</b>	<b>2.7</b>	<b>4.1</b>	<b>14.4</b>	<b>21.4</b>	<b>13.1</b>	<b>17.9</b>
<b>성별</b>										
남자	(499)	2.4	2.0	2.6	2.2	3.6	12.8	20.2	13.4	16.2
여자	(506)	3.0	2.2	3.2	3.2	4.5	16.0	22.5	12.8	19.6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	3.4	2.3	1.7	5.7	14.8	21.0	12.5	16.5
만30세-만39세	(183)	1.6	1.1	3.3	2.2	1.6	9.8	22.4	13.7	16.9
만40세-만49세	(211)	1.9	1.9	5.2	4.3	5.2	18.5	23.2	12.8	15.6
만50세-만59세	(199)	5.5	2.0	3.5	3.5	4.0	18.6	17.6	15.1	18.6
만60세 이상	(236)	2.5	2.1	0.4	1.7	3.8	10.6	22.5	11.9	21.2
<b>학력</b>										
중졸 이하	(167)	3.0	2.4	1.2	1.2	2.4	10.2	24.6	10.8	19.8
고졸 이하	(432)	2.1	1.4	2.5	3.0	4.6	13.7	20.1	13.9	19.2
대졸 이상	(406)	3.2	2.7	3.9	3.0	4.2	17.0	21.4	13.3	15.8
<b>지역</b>										
서울	(202)	1.5	1.5	3.5	4.0	5.4	15.8	12.9	15.3	26.2
인천/경기	(298)	5.4	2.7	3.0	2.3	4.0	17.4	19.8	12.8	19.8
대전/충청/세종	(106)	4.7	7.5	3.8	3.8	4.7	24.5	22.6	5.7	5.7
광주/전라	(101)	2.0	2.0	1.0	2.0	3.0	9.9	30.7	12.9	15.8
대구/경북	(102)	0.0	0.0	4.9	2.0	1.0	7.8	21.6	9.8	16.7
부산/울산/경남	(155)	0.0	0.0	1.3	0.6	3.2	5.2	31.0	19.4	12.3
강원/제주	(41)	2.4	0.0	2.4	7.3	9.8	22.0	12.2	9.8	24.4
<b>직업</b>										
전문직	(56)	3.6	3.6	8.9	5.4	7.1	28.6	17.9	10.7	10.7
관리직	(19)	10.5	0.0	10.5	5.3	0.0	26.3	0.0	15.8	10.5
반전문, 기술직	(42)	4.8	2.4	2.4	0.0	0.0	9.5	26.2	16.7	16.7
사무직	(84)	1.2	0.0	0.0	2.4	9.5	13.1	21.4	16.7	10.7
판매직	(217)	2.8	3.2	1.8	0.5	4.1	12.4	22.1	15.2	17.5
서비스직	(254)	3.5	1.6	2.8	3.9	4.3	16.1	21.7	10.2	20.5
생산직	(24)	0.0	0.0	8.3	4.2	0.0	12.5	12.5	25.0	8.3
농어민	(32)	0.0	0.0	6.3	6.3	9.4	21.9	28.1	6.3	15.6
미취업	(277)	1.8	2.5	2.2	2.5	2.2	11.2	22.0	12.6	21.3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0	3.0	3.0	4.2	3.6	16.7	18.5	11.3	15.5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	2.2	3.3	1.1	3.8	11.5	20.9	13.2	19.8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	2.3	1.4	2.8	3.7	14.8	22.7	10.6	19.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5	1.1	4.3	2.7	4.3	12.9	22.6	17.2	21.0
500만원 이상	(250)	3.6	2.0	2.8	2.8	4.8	16.0	22.0	13.6	14.8
모름/무응답	(3)	0.0	0.0	0.0	0.0	0.0	0.0	0.0	0.0	33.3
<b>이념</b>										
진보	(236)	2.1	2.1	5.9	3.0	4.2	17.4	24.6	11.0	20.3
중도	(418)	3.6	3.1	1.9	3.6	4.3	16.5	23.0	13.6	12.7
보수	(351)	2.0	0.9	2.0	1.4	3.7	10.0	17.4	14.0	22.5

[문22-4]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단위 : %)

4) 경계대상	(8)	(9)	(10)매우 동의함	동의함(6+7 +8+9+10)	계	평균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3.4</b>	<b>10.0</b>	<b>9.7</b>	<b>64.2</b>	<b>100.0</b>	<b>6.4</b>	
<b>성별</b>							
남자	15.6	9.8	11.8	66.9	100.0	6.6	12.697
여자	11.3	10.3	7.5	61.5	100.0	6.2	
<b>연령</b>							
만19세-만29세	10.2	10.8	14.2	64.2	100.0	6.5	48.854
만30세-만39세	16.4	8.2	12.6	67.8	100.0	6.6	
만40세-만49세	11.8	12.3	5.7	58.3	100.0	6.1	
만50세-만59세	13.1	8.5	8.5	63.8	100.0	6.1	
만60세 이상	15.3	10.2	8.5	66.9	100.0	6.5	
<b>학력</b>							
중졸 이하	14.4	12.0	8.4	65.3	100.0	6.5	21.801
고졸 이하	14.4	11.1	7.6	66.2	100.0	6.4	
대졸 이상	12.1	8.1	12.3	61.6	100.0	6.3	
<b>지역</b>							
서울	15.3	5.9	8.4	71.3	100.0	6.4	132.427***
인천/경기	13.4	8.7	8.1	62.8	100.0	6.1	
대전/충청/세종	17.0	15.1	9.4	52.8	100.0	6.0	
광주/전라	9.9	8.9	11.9	59.4	100.0	6.4	
대구/경북	15.7	14.7	13.7	70.6	100.0	7.0	
부산/울산/경남	8.4	12.9	11.0	63.9	100.0	6.7	
강원/제주	17.1	7.3	7.3	65.9	100.0	6.3	
<b>직업</b>							
전문직	12.5	1.8	17.9	53.6	100.0	5.9	111.340*
관리직	5.3	15.8	26.3	73.7	100.0	6.5	
반전문, 기술직	7.1	4.8	19.0	64.3	100.0	6.5	
사무직	13.1	13.1	11.9	65.5	100.0	6.7	
판매직	16.1	10.6	6.0	65.4	100.0	6.3	
서비스직	13.0	9.8	8.7	62.2	100.0	6.3	
생산직	20.8	8.3	12.5	75.0	100.0	6.7	
농어민	9.4	9.4	9.4	50.0	100.0	6.1	
미취업	13.4	11.2	8.3	66.8	100.0	6.5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3.7	11.3	13.1	64.9	100.0	6.5	39.314
200만원-300만원 미만	13.7	13.7	7.1	67.6	100.0	6.5	
300만원-400만원 미만	14.4	11.1	7.4	62.5	100.0	6.3	
400만원-500만원 미만	12.9	4.8	8.6	64.5	100.0	6.3	
500만원 이상	12.4	9.6	11.6	62.0	100.0	6.3	
모름/무응답	33.3	0.0	33.3	100.0	100.0	8.3	
<b>이념</b>							
진보	11.0	6.4	9.3	58.1	100.0	6.1	43.346**
중도	13.2	11.0	10.0	60.5	100.0	6.3	
보수	15.4	11.4	9.4	72.6	100.0	6.7	

[문23-1]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1) (A)불친절하다 vs (B)친절하다	사례수 (명)	A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 에 가깝다	①+ ②	동 아니 다	B의 견 에 가깝 다	B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3.4</b>	<b>19.1</b>	<b>22.5</b>	<b>57.2</b>	<b>18.0</b>	<b>2.3</b>	<b>20.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0	18.0	21.0	57.9	18.0	3.0	21.0	100.0	3.324
여자	(506)	3.8	20.2	23.9	56.5	18.0	1.6	19.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5	16.5	21.0	56.3	21.0	1.7	22.7	100.0	13.363
만30세-만39세	(183)	2.2	21.3	23.5	57.9	15.3	3.3	18.6	100.0	
만40세-만49세	(211)	4.3	19.9	24.2	52.6	22.3	0.9	23.2	100.0	
만50세-만59세	(199)	2.5	18.1	20.6	59.3	17.1	3.0	20.1	100.0	
만60세 이상	(236)	3.4	19.5	22.9	59.7	14.8	2.5	17.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2	19.2	23.4	55.7	18.6	2.4	21.0	100.0	4.408
고졸 이하	(432)	3.5	19.7	23.1	57.6	16.2	3.0	19.2	100.0	
대졸 이상	(406)	3.0	18.5	21.4	57.4	19.7	1.5	21.2	100.0	
<b>지역</b>										
서울	(202)	4.5	30.7	35.1	50.0	13.9	1.0	14.9	100.0	92.666***
인천/경기	(298)	1.7	16.4	18.1	55.0	23.5	3.4	26.8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9.4	11.3	68.9	19.8	0.0	19.8	100.0	
광주/전라	(101)	1.0	8.9	9.9	70.3	15.8	4.0	19.8	100.0	
대구/경북	(102)	8.8	22.5	31.4	44.1	17.6	6.9	24.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6	17.4	20.0	66.5	13.5	0.0	13.5	100.0	
강원/제주	(41)	9.8	29.3	39.0	43.9	17.1	0.0	17.1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19.6	23.2	51.8	21.4	3.6	25.0	100.0	15.394
관리직	(19)	5.3	10.5	15.8	63.2	21.1	0.0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4	14.3	16.7	64.3	16.7	2.4	19.0	100.0	
사무직	(84)	3.6	22.6	26.2	54.8	19.0	0.0	19.0	100.0	
판매직	(217)	2.8	18.0	20.7	54.4	21.2	3.7	24.9	100.0	
서비스직	(254)	3.9	18.5	22.4	60.6	14.6	2.4	16.9	100.0	
생산직	(24)	4.2	20.8	25.0	58.3	16.7	0.0	16.7	100.0	
농어민	(32)	0.0	18.8	18.8	56.3	21.9	3.1	25.0	100.0	
미취업	(277)	3.6	20.6	24.2	56.7	17.3	1.8	19.1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2	25.0	29.2	57.1	11.3	2.4	13.7	100.0	23.630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3	11.5	14.8	59.3	22.0	3.8	25.8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2	17.6	21.8	54.6	21.3	2.3	23.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22.6	25.8	53.8	19.4	1.1	20.4	100.0	
500만원 이상	(250)	2.4	19.2	21.6	60.4	16.0	2.0	18.0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66.7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0	16.9	19.9	52.1	24.6	3.4	28.0	100.0	13.494
중도	(418)	3.3	17.9	21.3	60.3	16.5	1.9	18.4	100.0	
보수	(351)	3.7	21.9	25.6	57.0	15.4	2.0	17.4	100.0	

[문23-2]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2) (A)계으르다 vs (B)근면하다		사례수 (명)	A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 에 가깝다	①+ ②	동 다 아 니 다	B의 견 에 가 깝 다	B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5</b>	<b>10.3</b>	<b>12.8</b>	<b>41.3</b>	<b>35.1</b>	<b>10.7</b>	<b>45.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2	9.4	12.6	40.5	35.9	11.0	46.9	100.0	3.272
	여자	(506)	1.8	11.3	13.0	42.1	34.4	10.5	44.9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3	11.4	13.6	47.7	31.3	7.4	38.6	100.0	10.207
	만30세-만39세	(183)	2.2	8.2	10.4	42.6	36.1	10.9	47.0	100.0	
	만40세-만49세	(211)	2.8	11.4	14.2	43.1	32.2	10.4	42.7	100.0	
	만50세-만59세	(199)	2.5	10.1	12.6	37.7	38.2	11.6	49.7	100.0	
	만60세 이상	(236)	2.5	10.6	13.1	36.9	37.3	12.7	50.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0	10.8	13.8	33.5	37.7	15.0	52.7	100.0	9.187
	고졸 이하	(432)	2.8	10.4	13.2	40.7	36.3	9.7	46.1	100.0	
	대졸 이상	(406)	2.0	10.1	12.1	45.1	32.8	10.1	42.9	100.0	
<b>지역</b>	서울	(202)	4.5	19.3	23.8	41.6	28.2	6.4	34.7	100.0	85.103***
	인천/경기	(298)	1.7	9.1	10.7	44.6	37.6	7.0	44.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8.5	9.4	51.9	32.1	6.6	38.7	100.0	
	광주/전라	(101)	1.0	5.0	5.9	39.6	33.7	20.8	54.5	100.0	
	대구/경북	(102)	5.9	11.8	17.6	36.3	26.5	19.6	46.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6.5	7.7	31.0	45.8	15.5	61.3	100.0	
	강원/제주	(41)	2.4	4.9	7.3	43.9	43.9	4.9	48.8	100.0	
<b>직업</b>	전문직	(56)	3.6	8.9	12.5	37.5	30.4	19.6	50.0	100.0	30.696
	관리직	(19)	5.3	15.8	21.1	21.1	47.4	10.5	57.9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7.1	7.1	33.3	42.9	16.7	59.5	100.0	
	사무직	(84)	1.2	8.3	9.5	44.0	39.3	7.1	46.4	100.0	
	판매직	(217)	1.4	11.5	12.9	46.5	31.3	9.2	40.6	100.0	
	서비스직	(254)	3.5	9.1	12.6	42.5	33.9	11.0	44.9	100.0	
	생산직	(24)	4.2	16.7	20.8	37.5	41.7	0.0	41.7	100.0	
	농어민 미취업	(32) (277)	0.0 2.9	6.3 11.6	6.3 14.4	37.5 39.4	50.0 34.7	6.3 11.6	56.3 46.2	10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2	8.3	12.5	38.1	38.7	10.7	49.4	100.0	15.81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	9.3	11.5	36.8	37.4	14.3	51.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2.8	12.0	14.8	42.6	31.5	11.1	42.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2.2	11.8	14.0	38.2	39.2	8.6	47.8	100.0	
	500만원 이상 모름/무응답	(250) (3)	1.6 0.0	9.6 33.3	11.2 33.3	47.6 66.7	31.6 0.0	9.6 0.0	41.2 0.0	100.0 100.0	
<b>이념</b>	진보	(236)	2.5	8.5	11.0	40.7	39.4	8.9	48.3	100.0	8.839
	중도	(418)	3.1	12.0	15.1	42.1	30.9	12.0	42.8	100.0	
	보수	(351)	1.7	9.7	11.4	40.7	37.3	10.5	47.9	100.0	

[문23-3]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3) (A)공격적이다 vs (B)온화하다	사례수 (명)	A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 에 가깝다	①+ ②	동 다 아 니 다	B의 견 에 가 깝 다	B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5.7</b>	<b>38.9</b>	<b>54.6</b>	<b>36.0</b>	<b>8.0</b>	<b>1.4</b>	<b>9.4</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5.6	38.9	54.5	33.9	10.0	1.6	11.6	100.0	6.877
여자	(506)	15.8	38.9	54.7	38.1	5.9	1.2	7.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9.7	40.3	50.0	38.6	10.2	1.1	11.4	100.0	24.063
만30세-만39세	(183)	13.7	35.5	49.2	40.4	7.7	2.7	10.4	100.0	
만40세-만49세	(211)	16.1	34.1	50.2	38.9	9.0	1.9	10.9	100.0	
만50세-만59세	(199)	18.6	40.2	58.8	31.7	8.0	1.5	9.5	100.0	
만60세 이상	(236)	19.1	43.6	62.7	31.8	5.5	0.0	5.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24.0	41.9	65.9	29.3	4.8	0.0	4.8	100.0	22.839**
고졸 이하	(432)	15.3	41.0	56.3	35.0	7.4	1.4	8.8	100.0	
대졸 이상	(406)	12.8	35.5	48.3	39.9	9.9	2.0	11.8	100.0	
<b>지역</b>										
서울	(202)	19.8	41.6	61.4	28.2	9.4	1.0	10.4	100.0	56.468***
인천/경기	(298)	10.4	39.6	50.0	41.6	7.7	0.7	8.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8.9	34.9	53.8	34.0	10.4	1.9	12.3	100.0	
광주/전라	(101)	5.9	36.6	42.6	45.5	8.9	3.0	11.9	100.0	
대구/경북	(102)	20.6	42.2	62.7	25.5	9.8	2.0	11.8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8.7	39.4	58.1	38.1	3.9	0.0	3.9	100.0	
강원/제주	(41)	26.8	26.8	53.7	34.1	4.9	7.3	12.2	100.0	
<b>직업</b>										
전문직	(56)	19.6	30.4	50.0	35.7	7.1	7.1	14.3	100.0	37.114
관리직	(19)	31.6	21.1	52.6	31.6	15.8	0.0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6.7	40.5	57.1	31.0	9.5	2.4	11.9	100.0	
사무직	(84)	13.1	38.1	51.2	39.3	8.3	1.2	9.5	100.0	
판매직	(217)	14.3	36.4	50.7	39.2	8.3	1.8	10.1	100.0	
서비스직	(254)	13.8	40.9	54.7	38.2	6.3	0.8	7.1	100.0	
생산직	(24)	16.7	45.8	62.5	37.5	0.0	0.0	0.0	100.0	
농어민	(32)	9.4	43.8	53.1	31.3	12.5	3.1	15.6	100.0	
미취업	(277)	18.1	40.8	58.8	32.1	8.7	0.4	9.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3.8	45.2	69.0	25.0	6.0	0.0	6.0	100.0	30.34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3.7	36.3	50.0	38.5	8.8	2.7	11.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4.4	32.9	47.2	43.1	8.8	0.9	9.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4.5	43.0	57.5	32.8	8.6	1.1	9.7	100.0	
500만원 이상	(250)	13.6	39.2	52.8	37.6	7.6	2.0	9.6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66.7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9.3	39.4	48.7	38.1	11.0	2.1	13.1	100.0	27.610***
중도	(418)	13.9	38.0	51.9	37.8	8.9	1.4	10.3	100.0	
보수	(351)	22.2	39.6	61.8	32.5	4.8	0.9	5.7	100.0	

[문23-4]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4) (A)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vs (B)타인을 배려한다	사례수 (명)	A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 에 가깝다	①+ ②	동 다 아 니 다	B의 견 에 가 깝 다	B의견 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9.2</b>	<b>31.4</b>	<b>40.6</b>	<b>48.9</b>	<b>9.8</b>	<b>0.8</b>	<b>10.5</b>	<b>100.0</b>	
<b>성별</b>										
남자	(499)	9.6	30.5	40.1	49.3	9.2	1.4	10.6	100.0	5.451
여자	(506)	8.7	32.4	41.1	48.4	10.3	0.2	10.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6.8	26.7	33.5	50.6	15.3	0.6	15.9	100.0	31.020*
만30세-만39세	(183)	7.7	30.6	38.3	51.4	8.2	2.2	10.4	100.0	
만40세-만49세	(211)	8.5	33.6	42.2	44.1	13.3	0.5	13.7	100.0	
만50세-만59세	(199)	7.5	34.2	41.7	50.8	7.0	0.5	7.5	100.0	
만60세 이상	(236)	14.0	31.4	45.3	48.3	5.9	0.4	6.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5.0	32.3	47.3	46.7	6.0	0.0	6.0	100.0	16.829*
고졸 이하	(432)	8.1	34.0	42.1	47.9	9.3	0.7	10.0	100.0	
대졸 이상	(406)	7.9	28.3	36.2	50.7	11.8	1.2	13.1	100.0	
<b>지역</b>										
서울	(202)	11.9	35.6	47.5	43.1	8.9	0.5	9.4	100.0	34.810
인천/경기	(298)	6.0	29.2	35.2	52.3	11.4	1.0	12.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9.4	25.5	34.9	55.7	8.5	0.9	9.4	100.0	
광주/전라	(101)	5.9	21.8	27.7	58.4	11.9	2.0	13.9	100.0	
대구/경북	(102)	9.8	36.3	46.1	41.2	11.8	1.0	12.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1.0	39.4	50.3	43.2	6.5	0.0	6.5	100.0	
강원/제주	(41)	17.1	24.4	41.5	51.2	7.3	0.0	7.3	100.0	
<b>직업</b>										
전문직	(56)	12.5	25.0	37.5	46.4	8.9	7.1	16.1	100.0	62.394**
관리직	(19)	21.1	47.4	68.4	26.3	5.3	0.0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4.8	31.0	35.7	52.4	9.5	2.4	11.9	100.0	
사무직	(84)	8.3	31.0	39.3	53.6	7.1	0.0	7.1	100.0	
판매직	(217)	5.1	32.7	37.8	52.5	8.8	0.9	9.7	100.0	
서비스직	(254)	9.4	31.1	40.6	49.2	10.2	0.0	10.2	100.0	
생산직	(24)	16.7	37.5	54.2	45.8	0.0	0.0	0.0	100.0	
농어민	(32)	3.1	34.4	37.5	43.8	15.6	3.1	18.8	100.0	
미취업	(277)	11.6	30.3	41.9	46.6	11.6	0.0	11.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6.1	33.3	49.4	44.0	6.0	0.6	6.5	100.0	26.46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6.6	28.6	35.2	54.4	8.8	1.6	10.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9.7	30.6	40.3	47.7	11.6	0.5	12.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9	36.0	41.9	45.7	12.4	0.0	12.4	100.0	
500만원 이상	(250)	8.0	29.6	37.6	51.6	9.6	1.2	10.8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5.5	27.1	32.6	52.1	14.0	1.3	15.3	100.0	20.703**
중도	(418)	8.6	30.4	39.0	50.7	9.6	0.7	10.3	100.0	
보수	(351)	12.3	35.6	47.9	44.4	7.1	0.6	7.7	100.0	

[문23-5]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5) (A)폐쇄적이다 vs (B)개방적이다	사례수 (명)	A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에 가깝다	①+②	둘 다 아니다	B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31.1</b>	<b>43.2</b>	<b>74.3</b>	<b>19.7</b>	<b>5.5</b>	<b>0.5</b>	<b>6.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1.1	40.3	71.3	21.8	6.0	0.8	6.8	100.0	6.615
여자	(506)	31.2	46.0	77.3	17.6	4.9	0.2	5.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34.7	34.7	69.3	26.1	4.5	0.0	4.5	100.0	24.514
만30세-만39세	(183)	29.5	45.9	75.4	18.0	6.6	0.0	6.6	100.0	
만40세-만49세	(211)	32.2	40.8	73.0	19.4	7.1	0.5	7.6	100.0	
만50세-만59세	(199)	27.1	44.7	71.9	19.6	7.0	1.5	8.5	100.0	
만60세 이상	(236)	32.2	48.3	80.5	16.5	2.5	0.4	3.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1.7	49.1	80.8	13.8	4.8	0.6	5.4	100.0	7.157
고졸 이하	(432)	31.7	42.6	74.3	19.9	5.6	0.2	5.8	100.0	
대졸 이상	(406)	30.3	41.4	71.7	21.9	5.7	0.7	6.4	100.0	
<b>지역</b>										
서울	(202)	26.2	49.0	75.2	17.8	6.4	0.5	6.9	100.0	18.977
인천/경기	(298)	32.6	42.6	75.2	19.5	4.7	0.7	5.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0.2	37.7	67.9	24.5	6.6	0.9	7.5	100.0	
광주/전라	(101)	34.7	38.6	73.3	23.8	3.0	0.0	3.0	100.0	
대구/경북	(102)	24.5	48.0	72.5	20.6	5.9	1.0	6.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5.5	43.2	78.7	15.5	5.8	0.0	5.8	100.0	
강원/제주	(41)	39.0	31.7	70.7	22.0	7.3	0.0	7.3	100.0	
<b>직업</b>										
전문직	(56)	44.6	28.6	73.2	12.5	10.7	3.6	14.3	100.0	38.409
관리직	(19)	36.8	31.6	68.4	21.1	10.5	0.0	10.5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3.3	42.9	76.2	14.3	9.5	0.0	9.5	100.0	
사무직	(84)	33.3	47.6	81.0	14.3	3.6	1.2	4.8	100.0	
판매직	(217)	25.8	46.5	72.4	22.6	5.1	0.0	5.1	100.0	
서비스직	(254)	31.9	40.9	72.8	21.7	5.1	0.4	5.5	100.0	
생산직	(24)	33.3	45.8	79.2	20.8	0.0	0.0	0.0	100.0	
농어민	(32)	18.8	56.3	75.0	18.8	6.3	0.0	6.3	100.0	
미취업	(277)	31.8	43.3	75.1	19.5	5.1	0.4	5.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38.7	44.0	82.7	14.9	2.4	0.0	2.4	100.0	30.80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2.0	46.2	68.1	25.3	4.9	1.6	6.6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0.6	44.0	74.5	19.0	6.5	0.0	6.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1.7	46.8	78.5	15.6	5.9	0.0	5.9	100.0	
500만원 이상	(250)	32.4	37.6	70.0	22.4	6.8	0.8	7.6	100.0	
모름/무응답	(3)	66.7	0.0	66.7	33.3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1.8	43.6	75.4	19.1	5.5	0.0	5.5	100.0	5.663
중도	(418)	31.6	40.9	72.5	22.0	4.8	0.7	5.5	100.0	
보수	(351)	30.2	45.6	75.8	17.4	6.3	0.6	6.8	100.0	

[문23-6]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단위 : %)

6) (A)신뢰할 수 없다 vs (B)신뢰할 수 있다	사례수 (명)	A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에 가깝다	①+②	둘 다 아니다	B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④+⑤	계	X <sup>2</sup> -test
<b>전체</b>	<b>(1,005)</b>	<b>12.6</b>	<b>30.9</b>	<b>43.6</b>	<b>48.5</b>	<b>7.3</b>	<b>0.7</b>	<b>8.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여자 (506)	11.4 13.8	29.7 32.2	41.1 46.0	50.5 46.4	7.4 7.1	1.0 0.4	8.4 7.5	100.0 100.0	3.898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만30세-만39세 (183) 만40세-만49세 (211) 만50세-만59세 (199) 만60세 이상 (236)	13.6 11.5 10.0 13.6 14.4	19.9 31.1 29.9 33.7 37.7	33.5 42.6 39.8 47.2 52.1	56.3 50.3 49.8 44.7 43.2	9.1 7.1 10.0 6.0 4.7	1.1 0.0 0.5 2.0 0.0	10.2 7.1 10.4 8.0 4.7	100.0 100.0 100.0 100.0 100.0	31.599*
<b>학력</b>	중졸 이하 (167) 고졸 이하 (432) 대졸 이상 (406)	16.2 11.3 12.6	38.3 30.1 28.8	54.5 41.4 41.4	40.1 50.5 49.8	5.4 7.6 7.6	0.0 0.5 1.2	5.4 8.1 8.9	100.0 100.0 100.0	12.889
<b>지역</b>	서울 (202) 인천/경기 (298) 대전/충청/세종 (106) 광주/전라 (101) 대구/경북 (102) 부산/울산/경남 (155) 강원/제주 (41)	9.9 8.7 19.8 8.9 19.6 13.5 24.4	45.0 26.8 23.6 27.7 28.4 29.7 29.3	55.0 35.6 43.4 36.6 48.0 43.2 53.7	40.1 55.4 51.9 56.4 37.3 49.0 36.6	4.0 8.4 3.8 6.9 13.7 7.7 7.3	1.0 0.7 0.9 0.0 1.0 0.0 2.4	5.0 9.1 4.7 6.9 14.7 7.7 9.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2.436***
<b>직업</b>	전문직 (56) 관리직 (19) 반전문, 기술직 (42) 사무직 (84) 판매직 (217) 서비스직 (254) 생산직 (24) 농어민 (32) 미취업 (277)	17.9 10.5 7.1 14.3 12.0 14.2 16.7 9.4 11.2	23.2 36.8 31.0 27.4 32.3 29.5 29.2 34.4 33.2	41.1 47.4 38.1 41.7 44.2 43.7 45.8 43.8 44.4	48.2 31.6 42.9 51.2 48.4 50.0 50.0 40.6 49.1	7.1 15.8 16.7 7.1 7.4 5.5 4.2 15.6 6.1	3.6 5.3 2.4 0.0 0.0 0.8 0.0 0.0 0.4	10.7 21.1 19.0 7.1 7.4 6.3 4.2 15.6 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7.642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500만원 이상 (250) 모름/무응답 (3)	17.3 12.1 10.2 12.4 12.0 33.3	37.5 30.8 29.2 32.8 26.8 33.3	54.8 42.9 39.4 45.2 38.8 66.7	39.9 47.3 51.4 44.6 55.6 33.3	5.4 8.2 8.8 9.7 4.8 0.0	0.0 1.6 0.5 0.5 0.8 0.0	5.4 9.9 9.3 10.2 5.6 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494
<b>이념</b>	진보 (236) 중도 (418) 보수 (351)	8.1 13.9 14.2	29.2 29.9 33.3	37.3 43.8 47.6	52.5 48.1 46.2	9.7 7.2 5.7	0.4 1.0 0.6	10.2 8.1 6.3	100.0 100.0 100.0	11.309

[문24] 현재 북한은 물품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 가운데 북한의 시장을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사례수 (명)	전통장	지역장	장마당	마당장	모름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0</b>	<b>1.5</b>	<b>40.2</b>	<b>8.1</b>	<b>48.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8	1.8	46.1	8.2	42.1	100.0	2.132
여자	(506)	2.2	1.2	34.4	7.9	54.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3.4	23.9	9.1	63.1	100.0	27.594**
만30세-만39세	(183)	2.7	1.1	35.5	8.7	51.9	100.0	
만40세-만49세	(211)	2.4	2.8	40.3	6.6	47.9	100.0	
만50세-만59세	(199)	2.0	0.0	57.3	8.0	32.7	100.0	
만60세 이상	(236)	2.1	0.4	41.5	8.1	47.9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6	0.0	35.9	7.2	56.3	100.0	11.307
고졸 이하	(432)	2.8	1.6	42.8	6.0	46.8	100.0	
대졸 이상	(406)	1.7	2.0	39.2	10.6	46.6	100.0	
<b>지역</b>								
서울	(202)	4.0	1.0	32.7	10.4	52.0	100.0	66.449***
인천/경기	(298)	2.3	1.0	46.3	3.4	47.0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9	3.8	33.0	15.1	46.2	100.0	
광주/전라	(101)	1.0	2.0	18.8	14.9	63.4	100.0	
대구/경북	(102)	1.0	0.0	44.1	10.8	44.1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0	1.3	52.9	4.5	41.3	100.0	
강원/제주	(41)	2.4	4.9	46.3	2.4	43.9	100.0	
<b>직업</b>								
전문직	(56)	0.0	0.0	46.4	7.1	46.4	100.0	21.149
관리직	(19)	0.0	5.3	68.4	5.3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4.8	45.2	9.5	40.5	100.0	
사무직	(84)	0.0	2.4	40.5	7.1	50.0	100.0	
판매직	(217)	1.8	0.0	43.8	8.3	46.1	100.0	
서비스직	(254)	3.1	2.4	42.9	8.7	42.9	100.0	
생산직	(24)	0.0	4.2	45.8	8.3	41.7	100.0	
농어민	(32)	3.1	0.0	18.8	3.1	75.0	100.0	
미취업	(277)	2.5	1.1	32.9	8.3	55.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0.6	36.9	6.0	54.8	100.0	12.49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7	0.5	43.4	8.2	45.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2	3.7	44.0	7.4	41.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1	1.1	43.0	9.1	45.7	100.0	
500만원 이상	(250)	1.2	1.2	34.4	8.8	54.4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66.7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7	2.1	40.3	10.2	45.8	100.0	9.781
중도	(418)	2.6	1.9	36.6	5.5	53.3	100.0	
보수	(351)	1.4	0.6	44.4	9.7	43.9	100.0	

[문25]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자주 신문	통일 신문	아리랑 신문	노동 신문	모름	계	X <sup>2</sup> -test
<input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0.2</b>	<b>3.7</b>	<b>6.0</b>	<b>65.2</b>	<b>25.0</b>	<b>100.0</b>	
<b>성별</b>								
남자	(499)	0.4	3.0	3.4	73.7	19.4	100.0	21.386***
여자	(506)	0.0	4.3	8.5	56.7	30.4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4.5	14.2	39.2	41.5	100.0	63.767***
만30세-만39세	(183)	0.5	4.4	6.0	61.2	27.9	100.0	
만40세-만49세	(211)	0.0	6.6	3.3	74.9	15.2	100.0	
만50세-만59세	(199)	0.0	2.0	5.0	80.4	12.6	100.0	
만60세 이상	(236)	0.0	1.3	3.0	66.1	29.7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0	3.6	1.8	55.1	39.5	100.0	10.654
고졸 이하	(432)	0.2	3.5	8.8	65.5	22.0	100.0	
대졸 이상	(406)	0.2	3.9	4.7	69.0	22.2	100.0	
<b>지역</b>								
서울	(202)	0.5	5.0	3.5	70.8	20.3	100.0	17.146
인천/경기	(298)	0.0	4.7	7.4	60.4	27.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0	2.8	5.7	70.8	20.8	100.0	
광주/전라	(101)	1.0	2.0	5.9	50.5	40.6	100.0	
대구/경북	(102)	0.0	3.9	6.9	58.8	30.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0	2.6	5.8	76.8	14.8	100.0	
강원/제주	(41)	0.0	0.0	7.3	65.9	26.8	100.0	
<b>직업</b>								
전문직	(56)	0.0	1.8	5.4	69.6	23.2	100.0	24.630
관리직	(19)	0.0	0.0	10.5	84.2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4.8	2.4	81.0	11.9	100.0	
사무직	(84)	1.2	2.4	7.1	70.2	19.0	100.0	
판매직	(217)	0.0	2.3	5.1	69.1	23.5	100.0	
서비스직	(254)	0.4	3.9	3.9	65.7	26.0	100.0	
생산직	(24)	0.0	4.2	0.0	70.8	25.0	100.0	
농어민	(32)	0.0	6.3	6.3	59.4	28.1	100.0	
미취업	(277)	0.0	5.1	9.0	55.6	30.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0.0	4.2	2.4	57.7	35.7	100.0	14.49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0.5	3.3	7.1	62.6	26.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0	4.6	7.9	68.5	19.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0	5.4	3.8	68.3	22.6	100.0	
500만원 이상	(250)	0.4	1.6	7.6	66.4	24.0	100.0	
모름/무응답	(3)	0.0	0.0	0.0	10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0.8	5.1	8.1	66.9	19.1	100.0	9.835
중도	(418)	0.0	3.1	5.7	58.9	32.3	100.0	
보수	(351)	0.0	3.4	4.8	71.5	20.2	100.0	

[문26]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성 해 림	리 설 주	고 영 희	김 주 애	모 름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0.9</b>	<b>81.3</b>	<b>1.1</b>	<b>0.1</b>	<b>16.6</b>	<b>100.0</b>	
<b>성별</b>								
남자	(499)	0.6	84.0	1.0	0.2	14.2	100.0	2.245
여자	(506)	1.2	78.7	1.2	0.0	19.0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71.0	2.3	0.0	26.1	100.0	11.849
만30세-만39세	(183)	0.0	89.1	1.6	0.0	9.3	100.0	
만40세-만49세	(211)	1.4	87.2	0.5	0.0	10.9	100.0	
만50세-만59세	(199)	1.5	86.9	0.5	0.0	11.1	100.0	
만60세 이상	(236)	0.8	72.9	0.8	0.4	25.0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6	69.5	0.0	0.6	29.3	100.0	10.627
고졸 이하	(432)	0.9	81.5	0.7	0.0	16.9	100.0	
대졸 이상	(406)	1.0	86.0	2.0	0.0	11.1	100.0	
<b>지역</b>								
서울	(202)	0.5	86.1	1.5	0.0	11.9	100.0	18.241
인천/경기	(298)	0.7	81.5	1.3	0.0	16.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89.6	0.9	0.9	7.5	100.0	
광주/전라	(101)	1.0	71.3	0.0	0.0	27.7	100.0	
대구/경북	(102)	2.9	67.6	2.0	0.0	27.5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6	83.2	0.6	0.0	15.5	100.0	
강원/제주	(41)	0.0	85.4	0.0	0.0	14.6	100.0	
<b>직업</b>								
전문직	(56)	0.0	87.5	3.6	0.0	8.9	100.0	55.912***
관리직	(19)	0.0	10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92.9	0.0	0.0	7.1	100.0	
사무직	(84)	2.4	86.9	1.2	0.0	9.5	100.0	
판매직	(217)	2.3	82.9	0.5	0.0	14.3	100.0	
서비스직	(254)	0.0	81.9	0.8	0.0	17.3	100.0	
생산직	(24)	0.0	87.5	0.0	0.0	12.5	100.0	
농어민	(32)	0.0	62.5	0.0	3.1	34.4	100.0	
미취업	(277)	0.7	75.1	1.8	0.0	22.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2	69.6	0.6	0.6	28.0	100.0	10.833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1	81.9	0.5	0.0	16.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9	82.4	2.3	0.0	14.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5	86.6	0.5	0.0	12.4	100.0	
500만원 이상	(250)	0.8	83.6	1.2	0.0	14.4	100.0	
모름/무응답	(3)	0.0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0.4	86.4	1.3	0.0	11.9	100.0	3.164
중도	(418)	1.2	78.9	1.0	0.0	18.9	100.0	
보수	(351)	0.9	80.6	1.1	0.3	17.1	100.0	



[문27-1]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Base=통일 찬성함	사례수 (명)	남북한 간의 전쟁위 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때문 에	국제 사회에 더 큰 발 휘 할 수 있기 때문 에	남북 분 단 에 따 른 경 제 적 부 담 을 덜 수 있 기 때 문 에	북 한 의 개 선 위 해 주 인 권 을 위 해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736)</b>	<b>31.9</b>	<b>28.8</b>	<b>19.7</b>	<b>17.3</b>	<b>2.3</b>	<b>100.0</b>	
<b>성별</b>								
남자	(375)	34.4	26.9	19.5	16.3	2.9	100.0	4.132
여자	(361)	29.4	30.7	19.9	18.3	1.7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06)	31.1	22.6	24.5	16.0	5.7	100.0	55.263***
만30세-만39세	(117)	44.4	17.1	19.7	17.9	0.9	100.0	
만40세-만49세	(173)	26.6	24.9	24.9	20.2	3.5	100.0	
만50세-만59세	(163)	30.1	31.3	23.9	13.5	1.2	100.0	
만60세 이상	(177)	31.1	41.8	7.9	18.1	1.1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25)	32.8	43.2	7.2	16.8	0.0	100.0	33.380***
고졸 이하	(303)	29.4	30.7	20.5	16.8	2.6	100.0	
대졸 이상	(308)	34.1	21.1	24.0	17.9	2.9	100.0	
<b>지역</b>								
서울	(151)	37.1	25.2	19.2	17.9	0.7	100.0	49.997**
인천/경기	(219)	24.7	36.1	20.5	14.2	4.6	100.0	
대전/충청/세종	(79)	27.8	29.1	16.5	25.3	1.3	100.0	
광주/전라	(83)	39.8	22.9	21.7	15.7	0.0	100.0	
대구/경북	(67)	41.8	32.8	11.9	9.0	4.5	100.0	
부산/울산/경남	(107)	30.8	17.8	24.3	26.2	0.9	100.0	
강원/제주	(30)	30.0	40.0	20.0	6.7	3.3	100.0	
<b>직업</b>								
전문직	(44)	31.8	29.5	22.7	13.6	2.3	100.0	43.878
관리직	(15)	26.7	26.7	20.0	20.0	6.7	100.0	
반전문, 기술직	(31)	35.5	16.1	35.5	6.5	6.5	100.0	
사무직	(58)	32.8	22.4	10.3	29.3	5.2	100.0	
판매직	(156)	34.6	32.1	17.9	14.1	1.3	100.0	
서비스직	(193)	29.0	29.5	21.8	18.7	1.0	100.0	
생산직	(18)	38.9	11.1	27.8	22.2	0.0	100.0	
농어민	(24)	8.3	50.0	16.7	16.7	8.3	100.0	
미취업	(197)	34.5	28.4	18.3	16.8	2.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19)	23.5	43.7	16.0	15.1	1.7	100.0	27.843*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37.0	27.4	18.5	14.4	2.7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150)	33.3	24.7	21.3	19.3	1.3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39)	25.2	25.2	25.9	21.6	2.2	100.0	
500만원 이상	(179)	38.0	25.7	17.3	16.2	2.8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0.0	0.0	33.3	100.0	
<b>이념</b>								
진보	(185)	31.4	25.4	26.5	13.5	3.2	100.0	10.297
중도	(295)	31.9	30.2	18.3	17.6	2.0	100.0	
보수	(256)	32.4	29.7	16.4	19.5	2.0	100.0	

[문27-2]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Base=통일 반대함	사례수 (명)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북한 체제 차이를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간의 제와 다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 대해 동질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남북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 주변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89)</b>	<b>52.9</b>	<b>33.9</b>	<b>11.1</b>	<b>2.1</b>	<b>100.0</b>			
<b>성별</b>									
남자	(93)	60.2	30.1	8.6	1.1	100.0		4.584	
여자	(96)	45.8	37.5	13.5	3.1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50)	52.0	30.0	16.0	2.0	100.0		6.338	
만30세-만39세	(50)	54.0	38.0	8.0	0.0	100.0			
만40세-만49세	(24)	54.2	29.2	12.5	4.2	100.0			
만50세-만59세	(24)	58.3	25.0	12.5	4.2	100.0			
만60세 이상	(41)	48.8	41.5	7.3	2.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33)	54.5	36.4	6.1	3.0	100.0		3.908	
고졸 이하	(86)	55.8	27.9	14.0	2.3	100.0			
대졸 이상	(70)	48.6	40.0	10.0	1.4	100.0			
<b>지역</b>									
서울	(29)	41.4	44.8	10.3	3.4	100.0		21.435	
인천/경기	(60)	46.7	35.0	16.7	1.7	100.0			
대전/충청/세종	(19)	52.6	26.3	21.1	0.0	100.0			
광주/전라	(14)	50.0	50.0	0.0	0.0	100.0			
대구/경북	(30)	60.0	33.3	6.7	0.0	100.0			
부산/울산/경남	(32)	71.9	15.6	6.3	6.3	100.0			
강원/제주	(5)	40.0	60.0	0.0	0.0	100.0			
<b>직업</b>									
전문직	(8)	25.0	62.5	12.5	0.0	100.0		28.321	
관리직	(3)	10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8)	75.0	25.0	0.0	0.0	100.0			
사무직	(17)	58.8	29.4	5.9	5.9	100.0			
판매직	(42)	64.3	26.2	9.5	0.0	100.0			
서비스직	(43)	41.9	46.5	7.0	4.7	100.0			
생산직	(3)	33.3	66.7	0.0	0.0	100.0			
농어민	(5)	100.0	0.0	0.0	0.0	100.0			
미취업	(60)	46.7	31.7	20.0	1.7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36)	47.2	36.1	13.9	2.8	100.0		6.612	
200만원-300만원 미만	(30)	46.7	40.0	10.0	3.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41)	48.8	39.0	12.2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36)	63.9	27.8	8.3	0.0	100.0			
500만원 이상	(46)	56.5	28.3	10.9	4.3	100.0			
<b>이념</b>									
진보	(40)	47.5	40.0	12.5	0.0	100.0		10.297	
중도	(83)	60.2	26.5	9.6	3.6	100.0			
보수	(66)	47.0	39.4	12.1	1.5	100.0			
보수	(256)	32.4	29.7	16.4	19.5	2.0			

[문28]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측에 더 이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	남북 모두에 손해이다	남한에는 이득이지만 북한에는 손해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46.0</b>	<b>42.9</b>	<b>7.3</b>	<b>3.9</b>	<b>100.0</b>	
<b>성별</b>							
남자	(499)	43.3	47.9	5.4	3.4	100.0	12.611**
여자	(506)	48.6	37.9	9.1	4.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51.7	36.4	11.4	0.6	100.0	30.860**
만30세-만39세	(183)	47.0	37.2	10.4	5.5	100.0	
만40세-만49세	(211)	39.3	49.8	5.2	5.7	100.0	
만50세-만59세	(199)	41.7	49.2	5.5	3.5	100.0	
만60세 이상	(236)	50.4	40.7	5.1	3.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50.9	37.7	7.2	4.2	100.0	3.228
고졸 이하	(432)	46.5	42.8	6.9	3.7	100.0	
대졸 이상	(406)	43.3	45.1	7.6	3.9	100.0	
<b>지역</b>							
서울	(202)	46.0	43.1	8.9	2.0	100.0	40.921**
인천/경기	(298)	47.0	43.3	8.1	1.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49.1	37.7	3.8	9.4	100.0	
광주/전라	(101)	53.5	42.6	4.0	0.0	100.0	
대구/경북	(102)	45.1	43.1	7.8	3.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0.0	45.2	5.8	9.0	100.0	
강원/제주	(41)	36.6	43.9	14.6	4.9	100.0	
<b>직업</b>							
전문직	(56)	46.4	42.9	7.1	3.6	100.0	40.906*
관리직	(19)	47.4	47.4	5.3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3.8	57.1	14.3	4.8	100.0	
사무직	(84)	45.2	42.9	8.3	3.6	100.0	
판매직	(217)	47.9	42.9	6.5	2.8	100.0	
서비스직	(254)	45.7	45.3	7.1	2.0	100.0	
생산직	(24)	50.0	29.2	8.3	12.5	100.0	
농어민	(32)	37.5	40.6	3.1	18.8	100.0	
미취업	(277)	48.7	39.7	7.2	4.3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8	36.9	8.3	6.0	100.0	17.666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48.4	45.1	3.3	3.3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4.0	43.5	6.9	5.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0.3	47.8	8.1	3.8	100.0	
500만원 이상	(250)	48.0	41.2	9.2	1.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2.8	47.0	7.6	2.5	100.0	6.288
중도	(418)	48.6	40.7	7.4	3.3	100.0	
보수	(351)	45.0	42.7	6.8	5.4	100.0	

[문29] 귀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많이 알고 있다	약간 알고 있다	①+②	거의 모름	전혀 모름	③+④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6.5</b>	<b>28.3</b>	<b>34.7</b>	<b>42.5</b>	<b>22.8</b>	<b>65.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9.6	31.5	41.1	38.7	20.2	58.9	100.0	25.026***
	여자	(506)	3.4	25.1	28.5	46.2	25.3	71.5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7	19.3	21.0	43.2	35.8	79.0	100.0	47.832***
	만30세-만39세	(183)	4.9	27.9	32.8	42.6	24.6	67.2	100.0	
	만40세-만49세	(211)	4.3	29.9	34.1	43.1	22.7	65.9	100.0	
	만50세-만59세	(199)	8.0	34.2	42.2	41.2	16.6	57.8	100.0	
	만60세 이상	(236)	11.9	28.8	40.7	42.4	16.9	59.3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7.2	23.4	30.5	46.7	22.8	69.5	100.0	7.612
	고졸 이하	(432)	6.9	26.2	33.1	44.2	22.7	66.9	100.0	
	대졸 이상	(406)	5.7	32.5	38.2	38.9	22.9	61.8	100.0	
<b>지역</b>	서울	(202)	9.9	36.6	46.5	41.1	12.4	53.5	100.0	94.255***
	인천/경기	(298)	7.4	29.5	36.9	39.6	23.5	63.1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7	34.0	39.6	35.8	24.5	60.4	100.0	
	광주/전라	(101)	2.0	16.8	18.8	40.6	40.6	81.2	100.0	
	대구/경북	(102)	9.8	37.3	47.1	27.5	25.5	52.9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3	14.2	15.5	59.4	25.2	84.5	100.0	
	강원/제주	(41)	7.3	22.0	29.3	65.9	4.9	70.7	100.0	
<b>직업</b>	전문직	(56)	10.7	37.5	48.2	32.1	19.6	51.8	100.0	41.579*
	관리직	(19)	26.3	31.6	57.9	36.8	5.3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1.9	33.3	45.2	35.7	19.0	54.8	100.0	
	사무직	(84)	3.6	34.5	38.1	41.7	20.2	61.9	100.0	
	판매직	(217)	4.6	31.3	35.9	38.2	25.8	64.1	100.0	
	서비스직	(254)	5.9	27.2	33.1	45.7	21.3	66.9	100.0	
	생산직	(24)	4.2	25.0	29.2	54.2	16.7	70.8	100.0	
	농어민	(32)	15.6	28.1	43.8	37.5	18.8	56.3	100.0	
	미취업	(277)	5.4	22.4	27.8	46.2	26.0	72.2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1.3	23.8	35.1	39.3	25.6	64.9	100.0	22.649*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8.2	30.2	38.5	44.0	17.6	61.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4.6	29.6	34.3	44.9	20.8	65.7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3.2	30.1	33.3	37.6	29.0	66.7	100.0	
	500만원 이상	(250)	5.2	27.2	32.4	45.6	22.0	67.6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10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4.7	31.4	36.0	36.9	27.1	64.0	100.0	22.046**
	중도	(418)	5.3	24.2	29.4	45.0	25.6	70.6	100.0	
	보수	(351)	9.1	31.1	40.2	43.3	16.5	59.8	100.0	

[문30]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 매우 안정 적이다	② 대체 로 안정 적이다	①+ ②	③ 보 통 이다	④ 대체 로 불 안 정 이다	⑤ 매우 불 안 정 하다	④+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0</b>	<b>13.5</b>	<b>14.5</b>	<b>35.7</b>	<b>42.0</b>	<b>7.8</b>	<b>49.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6	16.0	17.6	33.1	42.1	7.2	49.3	100.0	10.601*
여자	(506)	0.4	11.1	11.5	38.3	41.9	8.3	5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0.6	11.4	11.9	34.7	42.0	11.4	53.4	100.0	24.151
만30세-만39세	(183)	1.1	8.7	9.8	32.8	49.7	7.7	57.4	100.0	
만40세-만49세	(211)	0.5	12.8	13.3	38.4	42.7	5.7	48.3	100.0	
만50세-만59세	(199)	0.5	20.1	20.6	35.7	37.2	6.5	43.7	100.0	
만60세 이상	(236)	2.1	14.0	16.1	36.4	39.4	8.1	47.5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0.6	12.6	13.2	34.1	43.7	9.0	52.7	100.0	3.833
고졸 이하	(432)	0.7	12.7	13.4	37.7	41.2	7.6	48.8	100.0	
대졸 이상	(406)	1.5	14.8	16.3	34.2	42.1	7.4	49.5	100.0	
<b>지역</b>										
서울	(202)	1.5	16.3	17.8	35.6	38.1	8.4	46.5	100.0	57.302***
인천/경기	(298)	1.7	13.8	15.4	31.2	45.3	8.1	53.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0.9	16.0	17.0	26.4	48.1	8.5	56.6	100.0	
광주/전라	(101)	0.0	9.9	9.9	28.7	44.6	16.8	61.4	100.0	
대구/경북	(102)	0.0	8.8	8.8	40.2	49.0	2.0	51.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0	14.2	14.2	52.3	29.0	4.5	33.5	100.0	
강원/제주	(41)	2.4	9.8	12.2	36.6	46.3	4.9	51.2	100.0	
<b>직업</b>										
전문직	(56)	1.8	14.3	16.1	32.1	46.4	5.4	51.8	100.0	43.737
관리직	(19)	5.3	21.1	26.3	31.6	36.8	5.3	42.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0.0	19.0	19.0	33.3	38.1	9.5	47.6	100.0	
사무직	(84)	1.2	16.7	17.9	23.8	53.6	4.8	58.3	100.0	
판매직	(217)	0.9	14.7	15.7	37.8	41.5	5.1	46.5	100.0	
서비스직	(254)	0.0	14.2	14.2	39.8	37.4	8.7	46.1	100.0	
생산직	(24)	0.0	12.5	12.5	16.7	66.7	4.2	70.8	100.0	
농어민	(32)	0.0	18.8	18.8	46.9	31.3	3.1	34.4	100.0	
미취업	(277)	1.8	9.0	10.8	35.7	42.2	11.2	53.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8	9.5	11.3	29.2	45.8	13.7	59.5	100.0	30.81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6	17.6	19.2	28.6	45.6	6.6	52.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0.5	12.0	12.5	38.9	43.1	5.6	48.6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0.5	11.3	11.8	40.9	41.4	5.9	47.3	100.0	
500만원 이상	(250)	0.4	16.4	16.8	38.4	36.8	8.0	44.8	100.0	
모름/무응답	(3)	33.3	0.0	33.3	66.7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0.8	11.0	11.9	31.8	46.6	9.7	56.4	100.0	17.030*
중도	(418)	0.7	13.6	14.4	41.6	38.5	5.5	44.0	100.0	
보수	(351)	1.4	15.1	16.5	31.3	43.0	9.1	52.1	100.0	

[문31-1] 귀하께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위 : %)

1) 경제협력이 복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약간 그렇다	①+②	(3)보통이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계	X <sup>2</sup> -tes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체 <input type="checkbox"/>	<b>(1,005)</b>	<b>6.1</b>	<b>28.5</b>	<b>34.5</b>	<b>32.1</b>	<b>27.6</b>	<b>5.8</b>	<b>33.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8.4	29.9	38.3	28.7	25.7	7.4	33.1	100.0	19.372***
여자	(506)	3.8	27.1	30.8	35.6	29.4	4.2	33.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8	24.4	27.3	36.4	27.8	8.5	36.4	100.0	25.646
만30세-만39세	(183)	9.3	29.5	38.8	32.2	25.1	3.8	29.0	100.0	
만40세-만49세	(211)	9.5	28.0	37.4	33.6	25.6	3.3	28.9	100.0	
만50세-만59세	(199)	6.0	29.1	35.2	28.1	30.7	6.0	36.7	100.0	
만60세 이상	(236)	3.0	30.5	33.5	30.9	28.4	7.2	35.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3.0	25.7	28.7	35.3	30.5	5.4	35.9	100.0	7.082
고졸 이하	(432)	6.0	27.5	33.6	32.9	27.3	6.3	33.6	100.0	
대졸 이상	(406)	7.4	30.5	37.9	30.0	26.6	5.4	32.0	100.0	
<b>지역</b>										
서울	(202)	1.5	29.2	30.7	30.2	32.7	6.4	39.1	100.0	63.761***
인천/경기	(298)	6.4	28.2	34.6	27.2	28.9	9.4	38.3	100.0	
대전/충청/세종	(106)	6.6	18.9	25.5	31.1	34.9	8.5	43.4	100.0	
광주/전라	(101)	11.9	22.8	34.7	35.6	25.7	4.0	29.7	100.0	
대구/경북	(102)	7.8	28.4	36.3	32.4	29.4	2.0	31.4	100.0	
부산/울산/경남	(155)	6.5	35.5	41.9	42.6	14.8	0.6	15.5	100.0	
강원/제주	(41)	4.9	39.0	43.9	31.7	22.0	2.4	24.4	100.0	
<b>직업</b>										
전문직	(56)	14.3	32.1	46.4	23.2	25.0	5.4	30.4	100.0	56.802**
관리직	(19)	21.1	26.3	47.4	15.8	31.6	5.3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19.0	26.2	31.0	31.0	11.9	42.9	100.0	
사무직	(84)	6.0	25.0	31.0	36.9	28.6	3.6	32.1	100.0	
판매직	(217)	6.0	27.2	33.2	32.7	29.0	5.1	34.1	100.0	
서비스직	(254)	6.7	22.8	29.5	33.1	29.1	8.3	37.4	100.0	
생산직	(24)	4.2	50.0	54.2	20.8	25.0	0.0	25.0	100.0	
농어민	(32)	12.5	46.9	59.4	15.6	25.0	0.0	25.0	100.0	
미취업	(277)	2.2	32.5	34.7	35.4	24.9	5.1	3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6.0	31.0	36.9	26.8	26.8	9.5	36.3	100.0	23.23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1	28.6	35.7	26.9	33.0	4.4	37.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0	31.5	37.5	36.6	23.1	2.8	25.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	23.1	28.0	39.2	26.9	5.9	32.8	100.0	
500만원 이상	(250)	6.4	27.6	34.0	30.8	28.8	6.4	35.2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0.2	29.7	39.8	28.4	28.4	3.4	31.8	100.0	19.805*
중도	(418)	5.3	27.0	32.3	36.8	24.9	6.0	30.9	100.0	
보수	(351)	4.3	29.3	33.6	29.1	30.2	7.1	37.3	100.0	

[문31-2] 귀하께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위 : %)

2) 경제협력이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례수 (명)	(1)매우 그렇다	(2)약간 그렇다	①+②	(3)보통이다	(4)별로 그렇지 않다	(5)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계	X <sup>2</sup> -test
■ 전체 ■		(1,005)	6.5	29.3	35.7	34.4	25.6	4.3	29.9	100.0	
성별	남자	(499)	8.8	32.1	40.9	30.7	23.6	4.8	28.5	100.0	17.311**
	여자	(506)	4.2	26.5	30.6	38.1	27.5	3.8	31.2	100.0	
연령	만19세-만29세	(176)	1.7	26.7	28.4	39.8	25.6	6.3	31.8	100.0	22.606
	만30세-만39세	(183)	9.3	26.8	36.1	35.5	24.0	4.4	28.4	100.0	
	만40세-만49세	(211)	9.5	29.4	38.9	32.7	25.1	3.3	28.4	100.0	
	만50세-만59세	(199)	7.0	30.7	37.7	31.7	28.6	2.0	30.7	100.0	
	만60세 이상	(236)	4.7	31.8	36.4	33.5	24.6	5.5	30.1	100.0	
학력	중졸 이하	(167)	3.0	32.3	35.3	31.7	28.1	4.8	32.9	100.0	12.070
	고졸 이하	(432)	6.3	26.9	33.1	38.9	23.8	4.2	28.0	100.0	
	대졸 이상	(406)	8.1	30.5	38.7	30.8	26.4	4.2	30.5	100.0	
지역	서울	(202)	5.0	32.7	37.6	26.2	31.7	4.5	36.1	100.0	69.955***
	인천/경기	(298)	7.4	26.5	33.9	30.9	30.2	5.0	35.2	100.0	
	대전/충청/세종	(106)	3.8	23.6	27.4	28.3	34.0	10.4	44.3	100.0	
	광주/전라	(101)	12.9	25.7	38.6	40.6	18.8	2.0	20.8	100.0	
	대구/경북	(102)	8.8	29.4	38.2	42.2	17.6	2.0	19.6	100.0	
	부산/울산/경남	(155)	3.2	32.3	35.5	46.5	16.1	1.9	18.1	100.0	
강원/제주	(41)	4.9	43.9	48.8	36.6	12.2	2.4	14.6	100.0		
직업	전문직	(56)	10.7	26.8	37.5	42.9	17.9	1.8	19.6	100.0	60.556**
	관리직	(19)	15.8	36.8	52.6	10.5	26.3	10.5	36.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7.1	31.0	38.1	28.6	21.4	11.9	33.3	100.0	
	사무직	(84)	7.1	23.8	31.0	28.6	34.5	6.0	40.5	100.0	
	판매직	(217)	6.5	32.3	38.7	30.9	27.6	2.8	30.4	100.0	
	서비스직	(254)	7.9	22.0	29.9	41.3	22.0	6.7	28.7	100.0	
	생산직	(24)	8.3	33.3	41.7	33.3	25.0	0.0	25.0	100.0	
	농어민	(32)	15.6	34.4	50.0	28.1	21.9	0.0	21.9	100.0	
	미취업	(277)	2.2	33.9	36.1	34.3	27.1	2.5	29.6	100.0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168)	7.1	33.3	40.5	27.4	25.0	7.1	32.1	100.0	19.49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7.1	30.2	37.4	30.8	26.4	5.5	31.9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6.9	31.9	38.9	34.7	24.5	1.9	26.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8	25.8	30.6	37.6	29.0	2.7	31.7	100.0	
	500만원 이상	(250)	6.4	25.6	32.0	39.6	24.0	4.4	28.4	100.0	
	모름/무응답	(3)	0.0	66.7	66.7	0.0	0.0	33.3	33.3	100.0	
이념	진보	(236)	10.6	28.4	39.0	32.6	25.8	2.5	28.4	100.0	14.063
	중도	(418)	6.0	28.0	34.0	37.1	24.2	4.8	28.9	100.0	
	보수	(351)	4.3	31.3	35.6	32.5	27.1	4.8	31.9	100.0	

[문32-1]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

1)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사례수 (명)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① + ②	(3) 중간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④ + 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2.0</b>	<b>26.5</b>	<b>38.5</b>	<b>29.2</b>	<b>19.8</b>	<b>12.5</b>	<b>32.3</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4.0	26.3	40.3	27.7	18.0	14.0	32.1	100.0	7.351
여자	(506)	10.1	26.7	36.8	30.6	21.5	11.1	32.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8.5	31.3	39.8	35.8	15.3	9.1	24.4	100.0	29.391*
만30세-만39세	(183)	12.6	28.4	41.0	27.3	20.2	11.5	31.7	100.0	
만40세-만49세	(211)	17.5	25.6	43.1	28.9	18.0	10.0	28.0	100.0	
만50세-만59세	(199)	11.6	21.6	33.2	29.6	24.6	12.6	37.2	100.0	
만60세 이상	(236)	9.7	26.3	36.0	25.4	20.3	18.2	38.6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8.4	28.7	37.1	28.1	17.4	17.4	34.7	100.0	11.340
고졸 이하	(432)	11.6	24.3	35.9	29.6	22.5	12.0	34.5	100.0	
대졸 이상	(406)	14.0	27.8	41.9	29.1	18.0	11.1	29.1	100.0	
<b>지역</b>										
서울	(202)	8.9	25.2	34.2	28.2	22.8	14.9	37.6	100.0	88.344***
인천/경기	(298)	14.8	22.1	36.9	26.5	20.1	16.4	36.6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6.0	23.6	39.6	32.1	16.0	12.3	28.3	100.0	
광주/전라	(101)	21.8	30.7	52.5	32.7	8.9	5.9	14.9	100.0	
대구/경북	(102)	11.8	19.6	31.4	20.6	31.4	16.7	48.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0.6	34.8	35.5	38.1	19.4	7.1	26.5	100.0	
강원/제주	(41)	17.1	46.3	63.4	24.4	12.2	0.0	12.2	100.0	
<b>직업</b>										
전문직	(56)	16.1	26.8	42.9	19.6	19.6	17.9	37.5	100.0	40.697
관리직	(19)	21.1	10.5	31.6	42.1	15.8	10.5	26.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9.5	26.2	35.7	33.3	11.9	19.0	31.0	100.0	
사무직	(84)	9.5	25.0	34.5	39.3	13.1	13.1	26.2	100.0	
판매직	(217)	16.1	26.7	42.9	26.7	22.6	7.8	30.4	100.0	
서비스직	(254)	12.2	28.7	40.9	24.0	19.3	15.7	35.0	100.0	
생산직	(24)	8.3	16.7	25.0	37.5	20.8	16.7	37.5	100.0	
농어민	(32)	18.8	21.9	40.6	37.5	15.6	6.3	21.9	100.0	
미취업	(277)	7.9	27.1	35.0	31.4	22.0	11.6	33.6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3.1	22.6	35.7	25.6	19.0	19.6	38.7	100.0	17.508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4.3	26.9	41.2	25.3	21.4	12.1	33.5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0.2	24.5	34.7	32.4	22.2	10.6	32.9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2.4	29.0	41.4	28.5	18.3	11.8	30.1	100.0	
500만원 이상	(250)	11.2	28.4	39.6	32.4	18.0	10.0	28.0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0.0	33.3	33.3	66.7	100.0	
<b>이념</b>										
진보	(236)	19.1	30.1	49.2	24.2	18.6	8.1	26.7	100.0	48.000***
중도	(418)	12.2	21.8	34.0	36.6	16.7	12.7	29.4	100.0	
보수	(351)	7.1	29.6	36.8	23.6	24.2	15.4	39.6	100.0	

[문32-2]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

2)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사례수 (명)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① + ②	(3) 중간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④ + 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4.8</b>	<b>36.2</b>	<b>51.0</b>	<b>30.1</b>	<b>14.9</b>	<b>3.9</b>	<b>18.8</b>	<b>100.0</b>	
<b>성별</b>										
남자	(499)	15.8	32.9	48.7	29.3	17.0	5.0	22.0	100.0	10.224*
여자	(506)	13.8	39.5	53.4	31.0	12.8	2.8	15.6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1.9	35.8	47.7	36.9	13.1	2.3	15.3	100.0	19.411
만30세-만39세	(183)	12.0	37.2	49.2	29.0	18.0	3.8	21.9	100.0	
만40세-만49세	(211)	17.5	37.4	55.0	25.6	16.6	2.8	19.4	100.0	
만50세-만59세	(199)	16.1	31.2	47.2	29.6	17.1	6.0	23.1	100.0	
만60세 이상	(236)	15.7	39.0	54.7	30.5	10.6	4.2	14.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3.8	33.5	47.3	35.3	12.6	4.8	17.4	100.0	10.212
고졸 이하	(432)	16.2	38.0	54.2	29.9	13.4	2.5	16.0	100.0	
대졸 이상	(406)	13.8	35.5	49.3	28.3	17.5	4.9	22.4	100.0	
<b>지역</b>										
서울	(202)	10.4	34.7	45.0	25.7	24.8	4.5	29.2	100.0	121.169***
인천/경기	(298)	17.4	41.3	58.7	22.8	12.8	5.7	18.5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31.1	46.2	39.6	11.3	2.8	14.2	100.0	
광주/전라	(101)	23.8	28.7	52.5	38.6	5.0	4.0	8.9	100.0	
대구/경북	(102)	5.9	12.7	18.6	48.0	28.4	4.9	33.3	100.0	
부산/울산/경남	(155)	12.9	51.6	64.5	27.1	7.7	0.6	8.4	100.0	
강원/제주	(41)	24.4	39.0	63.4	26.8	9.8	0.0	9.8	100.0	
<b>직업</b>										
전문직	(56)	17.9	26.8	44.6	30.4	14.3	10.7	25.0	100.0	48.429*
관리직	(19)	26.3	31.6	57.9	21.1	10.5	10.5	21.1	100.0	
반전문, 기술직	(42)	19.0	19.0	38.1	26.2	26.2	9.5	35.7	100.0	
사무직	(84)	13.1	45.2	58.3	22.6	16.7	2.4	19.0	100.0	
판매직	(217)	18.9	35.0	53.9	29.0	14.3	2.8	17.1	100.0	
서비스직	(254)	13.8	35.8	49.6	30.3	14.6	5.5	20.1	100.0	
생산직	(24)	4.2	37.5	41.7	33.3	25.0	0.0	25.0	100.0	
농어민	(32)	9.4	43.8	53.1	37.5	6.3	3.1	9.4	100.0	
미취업	(277)	12.6	38.6	51.3	33.2	14.1	1.4	15.5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6.7	36.9	53.6	32.7	11.9	1.8	13.7	100.0	19.261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8.1	36.3	54.4	24.2	15.9	5.5	21.4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0.6	39.4	50.0	31.5	13.9	4.6	18.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5.6	36.6	52.2	29.6	17.2	1.1	18.3	100.0	
500만원 이상	(250)	14.4	32.8	47.2	32.0	15.6	5.2	20.8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33.3	0.0	33.3	33.3	100.0	
<b>이념</b>										
진보	(236)	16.9	39.8	56.8	27.1	12.7	3.4	16.1	100.0	28.098***
중도	(418)	14.6	38.8	53.3	33.3	10.5	2.9	13.4	100.0	
보수	(351)	13.7	30.8	44.4	28.5	21.7	5.4	27.1	100.0	

[문32-3]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

3)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사례수 (명)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① + ②	(3) 중간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④ + ⑤	모름/ 무응답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20.8</b>	<b>42.9</b>	<b>63.7</b>	<b>29.7</b>	<b>5.6</b>	<b>0.9</b>	<b>6.5</b>	<b>0.2</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3.8	41.7	65.5	27.3	6.0	1.0	7.0	0.2	100.0	7.163
여자	(506)	17.8	44.1	61.9	32.0	5.1	0.8	5.9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21.6	43.8	65.3	29.5	4.5	0.6	5.1	0.0	100.0	10.466
만30세-만39세	(183)	18.6	41.0	59.6	32.8	6.6	1.1	7.7	0.0	100.0	
만40세-만49세	(211)	23.7	41.2	64.9	27.5	6.2	0.9	7.1	0.5	100.0	
만50세-만59세	(199)	19.6	48.7	68.3	24.6	6.5	0.5	7.0	0.0	100.0	
만60세 이상	(236)	20.3	40.3	60.6	33.5	4.2	1.3	5.5	0.4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4.4	40.7	55.1	38.9	4.8	1.2	6.0	0.0	100.0	11.888
고졸 이하	(432)	21.8	43.3	65.0	28.2	5.8	0.5	6.3	0.5	100.0	
대졸 이상	(406)	22.4	43.3	65.8	27.3	5.7	1.2	6.9	0.0	100.0	
<b>지역</b>											
서울	(202)	16.3	52.5	68.8	28.2	3.0	0.0	3.0	0.0	100.0	97.362***
인천/경기	(298)	25.8	41.6	67.4	28.5	2.3	1.0	3.4	0.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7.9	37.7	55.7	32.1	11.3	0.9	12.3	0.0	100.0	
광주/전라	(101)	17.8	37.6	55.4	37.6	5.9	1.0	6.9	0.0	100.0	
대구/경북	(102)	11.8	26.5	38.2	41.2	16.7	3.9	20.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7.1	51.6	78.7	16.8	4.5	0.0	4.5	0.0	100.0	
강원/제주	(41)	19.5	39.0	58.5	39.0	2.4	0.0	2.4	0.0	100.0	
<b>직업</b>											
전문직	(56)	35.7	35.7	71.4	23.2	5.4	0.0	5.4	0.0	100.0	53.565**
관리직	(19)	21.1	47.4	68.4	31.6	0.0	0.0	0.0	0.0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3.3	23.8	57.1	33.3	4.8	4.8	9.5	0.0	100.0	
사무직	(84)	21.4	35.7	57.1	36.9	2.4	3.6	6.0	0.0	100.0	
판매직	(217)	18.4	48.8	67.3	24.0	7.4	0.9	8.3	0.5	100.0	
서비스직	(254)	21.7	43.7	65.4	29.5	5.1	0.0	5.1	0.0	100.0	
생산직	(24)	29.2	29.2	58.3	33.3	8.3	0.0	8.3	0.0	100.0	
농어민	(32)	9.4	62.5	71.9	25.0	3.1	0.0	3.1	0.0	100.0	
미취업	(277)	17.3	42.6	59.9	32.9	6.1	0.7	6.9	0.4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17.9	44.0	61.9	31.0	5.4	1.8	7.1	0.0	100.0	13.7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20.3	39.6	59.9	33.0	5.5	0.5	6.0	1.1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9.9	44.9	64.8	28.7	6.0	0.5	6.5	0.0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7	47.3	64.0	28.0	7.0	1.1	8.1	0.0	100.0	
500만원 이상	(250)	26.8	39.2	66.0	28.8	4.4	0.8	5.2	0.0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100.0	0.0	0.0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23.7	44.5	68.2	24.2	6.8	0.8	7.6	0.0	100.0	11.719
중도	(418)	18.4	43.1	61.5	33.7	3.8	0.7	4.5	0.2	100.0	
보수	(351)	21.7	41.6	63.2	28.5	6.8	1.1	8.0	0.3	100.0	

[문32-4]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단위 : %)

4)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사례수 (명)	(1) 매우 찬성	(2) 약간 찬성	① + ②	(3) 중간	(4) 약간 반대	(5) 매우 반대	④ + ⑤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19.6</b>	<b>37.6</b>	<b>57.2</b>	<b>34.1</b>	<b>5.8</b>	<b>2.9</b>	<b>8.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22.6	36.7	59.3	31.7	5.2	3.8	9.0	100.0	10.141*
여자	(506)	16.6	38.5	55.1	36.6	6.3	2.0	8.3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13.6	37.5	51.1	42.6	5.7	0.6	6.3	100.0	36.802**
만30세-만39세	(183)	17.5	39.3	56.8	32.8	7.7	2.7	10.4	100.0	
만40세-만49세	(211)	19.4	33.6	53.1	34.1	5.2	7.6	12.8	100.0	
만50세-만59세	(199)	24.6	37.2	61.8	31.7	5.5	1.0	6.5	100.0	
만60세 이상	(236)	21.6	40.3	61.9	30.9	5.1	2.1	7.2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16.8	41.9	58.7	34.7	4.8	1.8	6.6	100.0	25.369**
고졸 이하	(432)	22.9	38.4	61.3	33.8	3.2	1.6	4.9	100.0	
대졸 이상	(406)	17.2	35.0	52.2	34.2	8.9	4.7	13.5	100.0	
<b>지역</b>										
서울	(202)	17.8	41.6	59.4	33.7	5.4	1.5	6.9	100.0	60.836***
인천/경기	(298)	24.2	40.3	64.4	29.2	4.4	2.0	6.4	100.0	
대전/충청/세종	(106)	15.1	29.2	44.3	40.6	7.5	7.5	15.1	100.0	
광주/전라	(101)	15.8	32.7	48.5	39.6	6.9	5.0	11.9	100.0	
대구/경북	(102)	12.7	26.5	39.2	46.1	8.8	5.9	14.7	100.0	
부산/울산/경남	(155)	25.8	43.9	69.7	24.5	5.8	0.0	5.8	100.0	
강원/제주	(41)	9.8	36.6	46.3	48.8	2.4	2.4	4.9	100.0	
<b>직업</b>										
전문직	(56)	33.9	23.2	57.1	26.8	10.7	5.4	16.1	100.0	67.861***
관리직	(19)	26.3	31.6	57.9	26.3	0.0	15.8	15.8	100.0	
반전문, 기술직	(42)	23.8	38.1	61.9	33.3	0.0	4.8	4.8	100.0	
사무직	(84)	16.7	39.3	56.0	36.9	4.8	2.4	7.1	100.0	
판매직	(217)	19.8	33.6	53.5	36.4	6.5	3.7	10.1	100.0	
서비스직	(254)	21.7	42.5	64.2	30.7	3.1	2.0	5.1	100.0	
생산직	(24)	33.3	29.2	62.5	29.2	8.3	0.0	8.3	100.0	
농어민	(32)	12.5	40.6	53.1	31.3	3.1	12.5	15.6	100.0	
미취업	(277)	14.1	39.4	53.4	37.5	8.3	0.7	9.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20.2	41.1	61.3	30.4	4.8	3.6	8.3	100.0	11.052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19.8	34.1	53.8	37.9	4.9	3.3	8.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17.6	39.4	56.9	35.6	4.6	2.8	7.4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16.7	40.3	57.0	33.3	8.1	1.6	9.7	100.0	
500만원 이상	(250)	22.8	34.4	57.2	33.2	6.4	3.2	9.6	100.0	
모름/무응답	(3)	33.3	33.3	66.7	33.3	0.0	0.0	0.0	100.0	
<b>이념</b>										
진보	(236)	15.3	33.9	49.2	35.2	8.9	6.8	15.7	100.0	42.075***
중도	(418)	19.4	34.2	53.6	39.5	4.5	2.4	6.9	100.0	
보수	(351)	22.8	44.2	67.0	27.1	5.1	0.9	6.0	100.0	

[문33]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 귀하께서 보다 많은 세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부담 하고 싶지 않다	연 1만원 미만	연 1만원 ~ 10만원 이하	연 11만원 ~ 20만원 이하	연 21만원 ~ 50만원 이하	연 51만원 ~ 100만원 이하	연 101 만원 이 상	계	X <sup>2</sup> -test
<b>□ 전체 □</b>	<b>(1,005)</b>	<b>40.3</b>	<b>20.9</b>	<b>29.4</b>	<b>5.2</b>	<b>2.3</b>	<b>1.3</b>	<b>0.7</b>	<b>100.0</b>	
<b>성별</b>										
남자	(499)	34.9	18.4	32.1	8.0	3.4	2.0	1.2	100.0	40.992***
여자	(506)	45.7	23.3	26.7	2.4	1.2	0.6	0.2	100.0	
<b>연령</b>										
만19세-만29세	(176)	46.0	13.6	28.4	6.3	3.4	2.3	0.0	100.0	50.760**
만30세-만39세	(183)	48.1	17.5	23.5	4.9	4.4	0.0	1.6	100.0	
만40세-만49세	(211)	35.1	23.2	30.3	6.2	2.4	1.9	0.9	100.0	
만50세-만59세	(199)	33.7	20.6	36.7	6.0	0.5	2.5	0.0	100.0	
만60세 이상	(236)	40.3	27.1	27.5	3.0	1.3	0.0	0.8	100.0	
<b>학력</b>										
중졸 이하	(167)	43.7	30.5	23.4	1.2	0.0	0.6	0.6	100.0	33.177***
고졸 이하	(432)	41.4	20.8	28.9	5.1	1.9	0.9	0.9	100.0	
대졸 이상	(406)	37.7	17.0	32.3	6.9	3.7	2.0	0.5	100.0	
<b>지역</b>										
서울	(202)	40.1	15.3	35.1	5.0	2.5	1.5	0.5	100.0	47.147
인천/경기	(298)	30.5	23.8	33.9	5.4	3.0	2.7	0.7	100.0	
대전/충청/세종	(106)	52.8	19.8	17.9	5.7	1.9	0.9	0.9	100.0	
광주/전라	(101)	45.5	21.8	26.7	3.0	2.0	0.0	1.0	100.0	
대구/경북	(102)	47.1	19.6	24.5	5.9	2.0	0.0	1.0	100.0	
부산/울산/경남	(155)	43.2	25.2	25.2	4.5	1.3	0.6	0.0	100.0	
강원/제주	(41)	39.0	14.6	31.7	9.8	2.4	0.0	2.4	100.0	
<b>직업</b>										
전문직	(56)	32.1	21.4	26.8	8.9	8.9	1.8	0.0	100.0	81.717**
관리직	(19)	21.1	10.5	26.3	15.8	10.5	10.5	5.3	100.0	
반전문, 기술직	(42)	31.0	16.7	38.1	7.1	0.0	4.8	2.4	100.0	
사무직	(84)	40.5	19.0	31.0	3.6	4.8	0.0	1.2	100.0	
판매직	(217)	40.6	18.9	31.8	4.1	1.4	1.8	1.4	100.0	
서비스직	(254)	39.8	22.4	30.7	4.7	1.2	0.8	0.4	100.0	
생산직	(24)	45.8	12.5	29.2	4.2	8.3	0.0	0.0	100.0	
농어민	(32)	34.4	31.3	25.0	9.4	0.0	0.0	0.0	100.0	
미취업	(277)	45.1	22.4	25.6	4.7	1.4	0.7	0.0	100.0	
<b>가구소득</b>										
200만원 미만	(168)	48.8	25.0	19.6	6.5	0.0	0.0	0.0	100.0	60.5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82)	30.8	20.3	39.6	6.0	0.5	0.5	2.2	100.0	
300만원-400만원 미만	(216)	39.4	23.6	31.0	2.3	1.9	1.4	0.5	10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86)	43.5	17.7	28.0	5.4	2.2	2.7	0.5	100.0	
500만원 이상	(250)	40.4	18.4	28.0	6.0	5.6	1.2	0.4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33.3	0.0	0.0	33.3	0.0	100.0	
<b>이념</b>										
진보	(236)	32.2	19.1	33.9	8.9	3.4	1.3	1.3	100.0	20.905
중도	(418)	43.5	20.3	28.2	4.3	2.2	1.0	0.5	100.0	
보수	(351)	41.9	22.8	27.6	3.7	1.7	1.7	0.6	100.0	



ID				
----	--	--	--	--

### 3. 설문지

####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_\_\_\_\_입니다.

저희는 통일연구원의 의뢰로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통일 및 북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받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주관기관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Hankook Research
- 문의처 :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1부 유승아 대리 ☎ 02-3014-1051

이름		연락처	- -
성별	① 남    ② 여	나이	만 _____세 ☞ 만 18세 미만 조사 중단
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시도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동부/읍면부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동부 (~ 동)    ③ 중소도시 읍면부 (~ 읍, ~ 면)		
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동안
면접원 성명		검증결과	

## 통일국가의 정체성

문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②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③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 ④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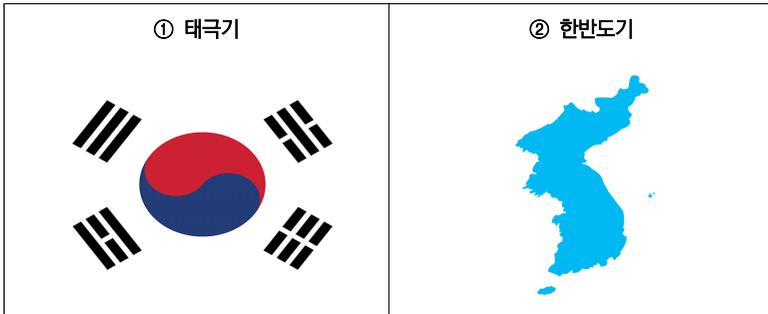
문2. 통일이 된다면 다음 중 어떠한 정치제도가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 ①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중심제
- ② 국무총리(수상) 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의원내각제
- ③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고 국무총리가 정부행정을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
- ④ 모름

문3. 남북한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일 민족 국가 복원
- ② 자유민주주의 이념 수호
- ③ 자본주의 경제체제 유지
- ④ 남북한 주민의 복지와 인권의 증진
- ⑤ 평화와 공존의 가치
- ⑥ 기타( )

문4.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의 국기(國旗)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태극기
- ② 올림픽 등에서 남북한 단일팀 깃발로 사용했던 한반도기
- ③ 새로운 국기 신설

문5.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통일국가는 한민족만의 단일민족국가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3) 통일국가는 한민족의 혈통적 단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민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4)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6) 통일국가에서는 재벌들의 경제 독점을 막아야한다	①	②	③	④
7) 통일국가 정부는 예산을 아끼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9)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0) 통일 이후 자방자치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1) 통일국가에서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이념까지도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3)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4) 통일국가에서는 소수 집단(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에 대한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5) 통일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16) 통일 후 이전 북한 공산주의의 잔재는 말끔히 청산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7) 통일 이후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8) 북한 주민들이 원한다면 북한의 제도나 규범의 일부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시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19) 통일 이후 북한의 역사나 북한 교과서의 내용도 각급 학교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통일 이후에 상당기간 동안 남북한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감수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통일 이후 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남한 주민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7. 통일 이후 다음의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내용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상당기간 유예해야 한다	통일 후에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1) 남북 간 자유 방문	①	②	③	④
2) 자유로운 거주 이전	①	②	③	④
3) 남북 간 동시 선거	①	②	③	④
4) 남한 주둔 주한미군 철수	①	②	③	④
5) 북한의 당, 국가, 군대 해산	①	②	③	④

문8. 통일 이후 다음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자격이나 경력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격이나 경력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재교육 과정을 거쳐 인정해야 한다	자격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1) 교사	①	②	③
2) 대학교수	①	②	③
3) 의사	①	②	③
4) 군인	①	②	③
5) 공무원	①	②	③
6) 법률인	①	②	③

문9.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중요함	약간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①	②	③	④
2)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①	②	③	④
3)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	①	②	③	④
4)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①	②	③	④
5) 통일한국의 행동을 가지는 것	①	②	③	④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①	②	③	④
7)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①	②	③	④

문10. 다음 사항들이 통일 후 통일국가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위협이다	약간 위협이다	별로 위협이 아니다	전혀 위협이 아니다
1) 중국의 강대국화	①	②	③	④
2) 일본의 군사대국화	①	②	③	④
3) 미국의 일방주의	①	②	③	④
4) 국제테러	①	②	③	④

문11. 통일한국이 다음의 나라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나라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자적 외교정책의 추진을 지지하면 0, 이 나라와 좀 더 긴밀한 협력 이 필요하다고 보신다면 10으로, 만약 중도의 입장이시라면 5를 기준으로 0과 10 사이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섭 없는 독자적 외교정책 추진 <----- 중도 ----->										
	0	1	2	3	4	5	6	7	8	9	10
1) 미국											
2) 중국											
3) 일본											
4) 러시아											

## 🔍 국가정체성의 사회적 기반

문12. 다음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주시요.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한국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이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다른 한국 사람들과 잘 맞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훌륭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한국에 대해 강한 애착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다른 한국 사람들은 내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누군가 한국을 비판하면 개인적 모욕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12) 한국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13. 귀하가 속한 다음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조직이나 집단	매우 소속감이 강하다	약간 소속감이 있다	별로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다	전혀 소속감을 갖고 있지 않다
1) 남한 국민	①	②	③	④
2) 한민족	①	②	③	④
3) 아시아인	①	②	③	④
4) 세계인	①	②	③	④

문14. 다음 각 집단이 우리 민족의 구성원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집단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볼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다
1) 탈북자	①	②	③	④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	①	②	③	④
3) 국내 거주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4)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5)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①	②	③	④
6) 조선족	①	②	③	④
7) 북한 주민	①	②	③	④

문15.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다수의 정서에 반하더라도 소수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 다수가 찬성하는 의견을 소수의 사람이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일반대중보다 소수의 지도자가 다스릴 때 사회가 잘된다.	①	②	③	④
5)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①	②	③	④

문16.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공공의 이익이라면 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사회복지를 위해 나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사회에 피해가 되더라도 내 직업에 이익이 된다면 협조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넘어갈 것 같다	①	②	③	④
5) 뇌물을 주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뇌물을 줄 것 같다	①	②	③	④
6)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안전한 시설이라도 우리 지역의 집값을 떨어뜨린다면 반대할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정부는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8) 한국의 정치권은 다양한 집단들의 갈등을 제대로 대변하고,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9) 한국 사회는 계층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는 사회다	①	②	③	④
10) 한국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11) 우리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12)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13) 한국의 언론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14) 한국은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15) 한국의 대기업들은 경제적 이윤추구 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7. 다음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장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자녀는 부모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2) 아내는 남편의 뜻에 따르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3) 조직이 잘되려면 지나치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4) 강력범죄자의 신상과 얼굴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5) 포르노 등 음란물의 판매/유통을 성인들에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확인되지 않은 소수 종교들이 자유롭게 포교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7)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 우월하다	①	②	③	④
8) 자기 자녀가 국적을 바꾼 사람은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9)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원래 한국인이었다 하더라도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문18. 다음의 각각의 영역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역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	전혀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1) 개인의 생계 유지	①	②	③	④
2) 주택 제공	①	②	③	④
3) 대학교육 비용	①	②	③	④
4) 청년 일자리 제공	①	②	③	④
5) 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부양	①	②	③	④

문19. 귀하께서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6.25전쟁
- ② 울진, 삼척 무장공비 남파사건
- ③ 7.4 남북공동선언
- ④ KAL기 폭파사건
- ⑤ 아웅산 테러사건
- ⑥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 남북간 단일팀 참가
- ⑦ 남북한의 UN 동시가입
- ⑧ 1991년 남북기본 합의서 체결
- ⑨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 ⑩ 천안함 폭침사건
- ⑪ 연평도 포격사건
- ⑫ 남북 이산가족 상봉
- ⑬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및 1차 남북정상회담
- ⑭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및 2차 남북정상회담
- ⑮ 기타 (                      )

문20.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의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고 계십니까?

미디어	거의 매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전혀 사용하지 않음
1) 신문	①	②	③	④
2) TV 공중파 채널(KBS, MBC, SBS 등)	①	②	③	④
3) TV 중편 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①	②	③	④
4) 인터넷	①	②	③	④
5) 라디오	①	②	③	④
6) 모바일 핸드폰	①	②	③	④

##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문21. 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많다
- ② 약간 관심이 있다
- ③ 별로 관심이 없다
- ④ 전혀 관심이 없다

문2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0점, '매우 동의한다'가 10점입니다.

내용	전혀 동의 안함 <----- 중도 -----> 매우 동의함										
	0	1	2	3	4	5	6	7	8	9	10
1) 지원대상											
2) 적대대상											
3) 협력대상											
4) 경계대상											

문23. 다음은 북한 주민에 대해 어떤 감정을 어느 정도로 느끼시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A)의견과 (B)의견 중 귀하의 생각과 가까운 쪽에 표시해주시시오.

(A)의견	A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A의견에 가깝다	둘 다 아니다	B의견에 가깝다	B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B)의견
불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친절하다
게으르다	①	②	③	④	⑤	근면하다
공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온화하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타인을 배려한다
폐쇄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개방적이다
신뢰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신뢰할 수 있다

문24. 현재 북한은 물품의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보기 가운데 북한의 시장을 부르는 이름은 무엇인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통장    ② 지역장    ③ 장마당    ④ 마당장    ⑤ 모름

문25. 북한의 대표적인 신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 자주신문    ② 통일신문    ③ 아리랑신문    ④ 노동신문    ⑤ 모름

문26. 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부인 이름은 무엇입니까?

- ① 성혜림    ② 리설주    ③ 고영희    ④ 김주애    ⑤ 모름

문27. 귀하께서는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가급적 빨리 통일을 해야 한다    → 문27-1  
②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 문27-1  
③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문27-2  
④ 절대 통일이 되면 안 된다    → 문27-2  
⑤ 통일에 관심이 없다    → 문28

문27-1.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② 남북 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③ 남북한 간의 전쟁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④ 국제 사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⑤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 응답 후 문28로 이동

문27-2.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북한주민에 대해 동질감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②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③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사회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④ 통일을 하려면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28.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측에 더 이득이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북한에는 이득이지만 남한에는 손해다  
② 남한에는 이득이지만 북한에는 손해다  
③ 남북 모두에 이득이다  
④ 남북 모두에 손해이다

문29. 귀하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① 많이 알고 있다
- ② 약간 알고 있다
- ③ 거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문30. 현재 한국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정적이다
- ② 대체로 안정적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불안정하다
- ⑤ 매우 불안정하다

문31. 귀하께서는 남북한 간 경제협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경제협력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협력이 남한과 북한의 이질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32. 귀하께서는 다음의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중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개성공단 사업은 재개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④
2) 대북 전단 살포는 정부가 막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④
3)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④
4) 정부는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④

문33. 통일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위해 귀하께서 보다 많은 세금을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1년에 얼마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부담하고 싶지 않다
- ② 연 1만원 미만
- ③ 연 1만원 ~ 10만원 이하
- ④ 연 11만원 ~ 20만원 이하
- ⑤ 연 21만원 ~ 50만원 이하
- ⑥ 연 51만원 ~ 100만원 이하
- ⑦ 연 101만원 이상

## 응답자 특성

문34. 매우 진보를 0, 중도를 5, 매우 보수를 10이라고 할 때, 자신의 이념성향이 어디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0에서 10 사이의 숫자로 답해 주십시오.

매우 진보	←—————	중도	—————→	매우 보수
①-----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35. 귀하가 주로 성장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 ⑯ 제주 | ⑰ 북한 | ⑱ 해외 |      |      |

문36. 한국사회를 10개의 층으로 나눈다면, 현재 귀하의 가정은 다음의 각 측면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면 0점 쪽으로, '높다'면 10점 쪽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	낮다(아래) ←—————	중간	—————→	높다(위)		
1) 월 소득수준	①—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⑩
2) 갖고 있는 재산	①—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⑩
3) 문화수준 (교육이나 교양수준)	①—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⑩
4) 사회적 지위 (가장의 직업)	①—①	②—③	④—⑤	⑥—⑦	⑧—⑨	⑩

문37.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니까? **복기카드**

- |       |       |                |
|-------|-------|----------------|
| ① 전문직 | ② 관리직 | ③ 반(半) 전문, 기술직 |
| ④ 사무직 | ⑤ 판매직 | ⑥ 서비스직         |
| ⑦ 생산직 | ⑧ 농어민 | ⑨ 미취업          |

문38.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             |               |            |
|-------------|---------------|------------|
| ① 무학        | ② 초등(국민)학교    | ③ 중학교      |
| ④ 고등학교      | ⑤ 전문대학(2·3년제) | ⑥ 대학교(4년제) |
| ⑦ 대학원(석사과정) | ⑧ 대학원(박사과정)   |            |

문39. 현재 다음 각각의 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비슷하다	약간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1) 가정 경제 상황	①	②	③	④	⑤
2) 국가 경제 상황	①	②	③	④	⑤

문40.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귀댁에서 함께 살고 계신 가족들의 한 달 소득을 모두 합하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249만원
- ③ 250-299만원
- ④ 300-349만원
- ⑤ 350-399만원
- ⑥ 400-449만원
- ⑦ 450-499만원
- ⑧ 500-549만원
- ⑨ 550-599만원
- ⑩ 600-649만원
- ⑪ 650-699만원
- ⑫ 700-749만원
- ⑬ 750-799만원
- ⑭ 800-849만원
- ⑮ 850만원 이상

문41. 귀 가구의 자산 총액(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회원권, 귀금속 등)은 얼마 가량입니까?

- ① 3,000만원 미만
- ② 3,000-5,000만원 미만
- ③ 5,000-7,000만원 미만
- ④ 7,000-1억 미만
- ⑤ 1억-2억 미만
- ⑥ 2억-3억 미만
- ⑦ 3억-5억 미만
- ⑧ 5억-7억 미만
- ⑨ 7억-10억 미만
- ⑩ 10억 이상

문42. 귀하께서는 올해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투표하셨습니까?

- ① 투표했다 → **문43**
- ②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이번 선거에서는 못했다 → **문45**
- ③ 투표하지 않았다 → **문45**
- ④ 투표권이 없었다 → **문46**

문43. 귀하께서는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선택하셨습니까?

- ① 새누리당
- ② 더불어민주당
- ③ 국민의당
- ④ 정의당
- ⑤ 기타정당
- ⑥ 지역구 후보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았다

문44. 귀하께서는 올해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하셨습니다?

- ① 새누리당      ② 더불어민주당      ③ 국민의당
- ④ 정의당      ⑤ 기타정당      ⑥ 비례대표 정당에 대해서는 투표하지 않았다

문45. 귀하께서는 지난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셨습니다?

- ① 박근혜      ② 문재인      ③ 다른 후보
- ④ 투표하지 않았다      ⑤ 투표권이 없었다

문46.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 중 귀하께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 ① 새누리당      ② 더불어민주당      ③ 국민의당
- ④ 정의당      ⑤ 기타정당      ⑥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

## 〈보기카드〉 직업분류

<p><b>【전문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li> <li>• 약사</li> <li>• 변호사·판사·검사·회계사</li> <li>• 대학교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예술가</li> <li>• 언론인·방송인</li> <li>• 종교인</li> <li>• 기타 전문직</li> </ul>
<p><b>【관리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체 사장(5인 이상 고용)</li> <li>• 대기업·은행 간부(부장 이상)</li> <li>• 경찰(경정 이상)</li> <li>• 기타 관리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단체 간부(부장 이상)</li> <li>• 군인(영관급 이상)</li> <li>• 고급공무원(4급 서기관 이상)</li> </ul>
<p><b>【반(半)전문·기술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학원강사</li> <li>• 간호사</li> <li>• 건축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원</li> <li>• 엔지니어</li> <li>• 기타 기술직</li> </ul>
<p><b>【사무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관리직 회사원(차장, 과장)</li> <li>• 일반사무직 회사원(계장, 대리이하)</li> <li>• 중간관리직 은행원(차장, 과장)</li> <li>• 일반사무직 은행원(대리, 행원)</li> <li>• 기타 사무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공무원(5급 사무관 이하)</li> <li>• 전화교환수·집배원</li> <li>• 군경(위관 이하·경감 이하)</li> <li>• 사회단체 직원(과장급 이하)</li> </ul>
<p><b>【판매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소매 상점주인(5인 미만 고용)</li> <li>• 백화점·대규모 유통업체 판매직원</li> <li>• 소규모 상점 점원</li> <li>• 기타 판매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중개인</li> <li>• 행사·노점상</li> <li>• 외판원</li> </ul>
<p><b>【서비스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여관 등의 주인(5인 미만 고용)</li> <li>• 음식점·여관 등의 종업원</li> <li>• 이·미용실·세탁소 주인(5인 미만 고용)</li> <li>• 기타 서비스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부·파출부</li> <li>• 수위·경비원</li> <li>• 이·미용실·세탁소 종업원</li> </ul>
<p><b>【생산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 감독(주임, 반장)</li> <li>• 공장근로자(숙련공, 기능공)</li> <li>• 공장근로자(반숙련공)</li> <li>• 공장근로자(견습공, 비숙련공)</li> <li>• 기타 생산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운전사(자동차, 중장비)</li> <li>• 개인택시·화물차 운전자</li> <li>• 광원</li> <li>• 막노동자·단순노무자</li> </ul>
<p><b>【농어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농(2정보 = 6·000평 이상)</li> <li>• 중농(1 ~ 2정보 = 3·000 ~ 5·999평)</li> <li>• 소농(0.5 ~ 1정보 = 1·500 ~ 2·999평)</li> <li>• 빈농·소작농(0.5정보 = 1·500평 미만)</li> <li>• 기타 농어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낙농업자</li> <li>• 선주</li> <li>• 어부·수산·양식업자</li> <li>• 농업노동자·품일꾼</li> </ul>
<p><b>【미취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li> <li>• 주부</li> <li>• 의무복무 군인(사병·전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직(실업자)</li> <li>• 정년퇴직·연금생활자</li> <li>• 기타</li> </ul>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아래의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일과 북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응답해주신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문에 참여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신 연락처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인은 위의 조사 목적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_\_\_\_\_ (서 명)

## 부록 2. 북한이탈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과 통일문제 인식조사

### 1. 조사 개요

#### 가. 조사목적

통일국가 정체성 연구는 남북한주민을 다 포괄해야 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설문문항 중 일부를 선택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나. 조사방법

- (1) 조사의 모집단은 20살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300명
- (2) 조사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
-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랜덤조사가 어려우므로 눈덩이표집과 할당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으며 훈련이 된 조사원들이 종이설문지를 이용하여 대면면접조사를 실시

#### 다. 조사내용

- (1) 통일국가의 정치체제
- (2) 통일국가 비전
- (3) 통일국가 국민의 자격
- (4) 대외정체성
- (5) 통일속도
- (6) 통일의 필요성

## 라.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수	%
		300	100
성별	남성	150	50
	여성	150	50
연령대	20대	44	14.7
	30대	64	21.4
	40대	98	32.8
	50대	61	20.4
	60대 이상	32	10.7
남한 체류기간대	5년 이하	91	30.3
	6~10년 이상	80	26.7
	11년 이상	129	43
탈북후 해외체류기간대	1년 이하	155	52
	2년	33	11.1
	3년	23	7.7
	4년 이상	87	29.2
북한 거주지역	국경지역	240	80
	내륙지역	60	2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3.7
	고졸	178	59.3
	전문학교 졸업	53	17.7
당원여부	대재 이상	58	19.3
	당원이다	79	26.3
탈북이유	당원이 아니다	221	73.7
	신변의 위협	88	30.2
	경제적 이유	108	37.1
	가족 상봉	22	7.6
직장	삶의 기회 추구	73	25.1
	공식일	114	43.7
	이중일	66	25.3
	비공식일	81	31
남한연계여부	친척과 교류	79	26.7
	친척과 비교류	22	7.4
	무연고	195	65.9
북한정치계층	상층	22	7.4
	중층	147	49.7
	하층	127	42.9
북한경제계층	상층	17	5.7
	중층	169	57.1
	하층	110	37.2
남한계층	상층	2	0.7
	중층	111	37.5
	하층	183	61.8
정치성향	진보	86	28.9
	중도	116	38.9
	보수	96	32.2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39.7
	만족	181	60.3

## 2. 조사결과 집계표

[문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각각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공식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남한식도 북한식도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계	
▣ 전체 ▣	300	41.3	0.7	33	25	100	
성별	남성	150	47.3	0.7	27.3	24.7	100
	여성	150	35.3	0.7	38.7	25.3	100
연령대	20대	44	40.9	2.3	27.3	29.5	100
	30대	64	45.3	0	25	29.7	100
	40대	98	41.8	1	33.7	23.5	100
	50대	61	37.7	0	39.3	23	100
	60대 이상	32	40.6	0	40.6	18.8	100
남한체류기간대	5년 이하	91	53.8	0	30.8	15.4	100
	6~10년 이하	80	40	1.3	27.5	31.3	100
탈북후 해외체류기간대	11년 이상	129	33.3	0.8	38	27.9	100
	1년 이하	155	47.7	0.6	32.9	18.7	100
북한거주지역	2년	33	27.3	3	27.3	42.4	100
	3년	23	43.5	0	34.8	21.7	100
	4년 이상	87	34.5	0	35.6	29.9	100
탈북이유	국경지역	240	42.5	0.8	33.3	23.3	100
	내륙지역	60	36.7	0	31.7	31.7	10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18.2	0	18.2	63.6	100
	고졸	178	39.9	0.6	35.4	24.2	100
	전문학교 졸	53	41.5	1.9	39.6	17	100
당원여부	대재 이상	58	50	0	22.4	27.6	100
	당원이다	79	44.3	0	27.8	27.8	100
탈북이유	당원이 아니다	221	40.3	0.9	34.8	24	100
	신변의 위협	88	46.6	0	30.7	22.7	100
	경제적 이유	108	38.9	0.9	36.1	24.1	100
	가족 상봉	22	31.8	0	36.4	31.8	100
직장	삶의 기회 추구	73	41.1	1.4	28.8	28.8	100
	공식일	114	42.1	0.9	26.3	30.7	100
	이중일	66	45.5	0	31.8	22.7	100
남한연계여부	비공식일	81	40.7	1.2	42	16	100
	친척과 교류	79	32.9	1.3	41.8	24.1	100
	친척과 비교류	22	50	0	31.8	18.2	100
북한정치계층	무연고	195	43.1	0.5	29.7	26.7	100
	상층	22	31.8	0	40.9	27.3	100
	중층	147	41.5	0.7	28.6	29.3	100
북한경제계층	하층	127	44.1	0.8	34.6	20.5	100
	상층	17	29.4	0	52.9	17.6	100
	중층	169	39.1	1.2	29.6	30.2	100
남한계층	하층	110	48.2	0	32.7	19.1	100
	상층	2	50	0	50	0	100
	중층	111	44.1	0.9	30.6	24.3	100
정치성향	하층	183	40.4	0.5	32.8	26.2	100
	진보	86	37.2	0	36	26.7	100
	중도	116	39.7	0.9	37.1	22.4	100
경제적 만족도	보수	96	46.9	1	26	26	100
	불만족	119	42	0	28.6	29.4	100
	만족	181	40.9	1.1	35.9	22.1	100

[문2-1]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가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5.3</b>	<b>18</b>	<b>50.3</b>	<b>26.3</b>	<b>23.3</b>	<b>76.7</b>	<b>100</b>	<b>2.98</b>	<b>65.9</b>
성별	남성	150	7.3	16	44.7	32	23.3	76.7	100	3.01	67.1
	여성	150	3.3	20	56	20.7	23.3	76.7	100	2.94	64.7
연령대	20대	44	2.3	13.6	54.5	29.5	15.9	84.1	100	3.11	70.5
	30대	64	1.6	20.3	51.6	26.6	21.9	78.1	100	3.03	67.7
	40대	98	3.1	15.3	56.1	25.5	18.4	81.6	100	3.04	68
	50대	61	9.8	9.8	52.5	27.9	19.7	80.3	100	2.98	66.1
	60대 이상	32	15.6	43.8	18.8	21.9	59.4	40.6	100	2.47	49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14.3	53.8	29.7	16.5	83.5	100	3.11	70.3
	6~10년 이하	80	10	17.5	52.5	20	27.5	72.5	100	2.83	60.8
	11년 이상	129	4.7	20.9	46.5	27.9	25.6	74.4	100	2.98	65.9
탈북 후 해외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4.5	21.3	45.2	29	25.8	74.2	100	2.99	66.2
	2년	33	6.1	15.2	54.5	24.2	21.2	78.8	100	2.97	65.7
	3년	23	8.7	26.1	52.2	13	34.8	65.2	100	2.7	56.5
	4년 이상	87	5.7	11.5	57.5	25.3	17.2	82.8	100	3.02	67.4
북한거주지역	국경지역	240	5	18.8	52.1	24.2	23.8	76.3	100	2.95	65.1
	내륙지역	60	6.7	15	43.3	35	21.7	78.3	100	3.07	68.9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0	36.4	63.6	0	100	100	3.64	87.9
	고졸	178	4.5	18	54.5	23	22.5	77.5	100	2.96	65.4
	전문학교 졸	53	5.7	26.4	45.3	22.6	32.1	67.9	100	2.85	61.6
	대재 이상	58	8.6	13.8	44.8	32.8	22.4	77.6	100	3.02	67.2
당원여부	당원이다	79	10.1	20.3	39.2	30.4	30.4	69.6	100	2.9	63.3
	당원이 아니다	221	3.6	17.2	54.3	24.9	20.8	79.2	100	3	66.8
탈북유류	신변의 위협	88	5.7	22.7	45.5	26.1	28.4	71.6	100	2.92	64
	경제적 이유	108	5.6	17.6	50	26.9	23.1	76.9	100	2.98	66.1
	가족 상봉	22	9.1	18.2	45.5	27.3	27.3	72.7	100	2.91	63.6
	삶의 기회 추구	73	4.1	12.3	58.9	24.7	16.4	83.6	100	3.04	68
직장	공식일	114	6.1	23.7	50	20.2	29.8	70.2	100	2.84	61.4
	이중일	66	6.1	12.1	47	34.8	18.2	81.8	100	3.11	70.2
	비공식일	81	4.9	18.5	50.6	25.9	23.5	76.5	100	2.98	65.8
남한계여부	친척과 교류	79	3.8	24.1	45.6	26.6	27.8	72.2	100	2.95	65
	친척과 비교류	22	4.5	22.7	36.4	36.4	27.3	72.7	100	3.05	68.2
	무연고	195	6.2	15.4	53.3	25.1	21.5	78.5	100	2.97	65.8
북정계층	상층	22	4.5	13.6	36.4	45.5	18.2	81.8	100	3.23	74.2
	중층	147	5.4	19	54.4	21.1	24.5	75.5	100	2.91	63.7
	하층	127	5.5	17.3	48	29.1	22.8	77.2	100	3.01	66.9
북한계층	상층	17	5.9	17.6	35.3	41.2	23.5	76.5	100	3.12	70.6
	중층	169	3.6	20.1	51.5	24.9	23.7	76.3	100	2.98	65.9
	하층	110	8.2	14.5	50.9	26.4	22.7	77.3	100	2.95	65.2
남한계층	상층	2	50	0	0	50	50	50	100	2.5	50
	중층	111	5.4	14.4	53.2	27	19.8	80.2	100	3.02	67.3
	하층	183	4.9	20.2	49.2	25.7	25.1	74.9	100	2.96	65.2
정치성향	진보	86	7	15.1	46.5	31.4	22.1	77.9	100	3.02	67.4
	중도	116	4.3	22.4	52.6	20.7	26.7	73.3	100	2.9	63.2
	보수	96	5.2	15.6	50	29.2	20.8	79.2	100	3.03	67.7
경제적도	불만족	119	6.7	21.8	52.9	18.5	28.6	71.4	100	2.83	61.1
	만족	181	4.4	15.5	48.6	31.5	19.9	80.1	100	3.07	69.1

[문2-2]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2.7</b>	<b>9.7</b>	<b>48.3</b>	<b>39.3</b>	<b>12.3</b>	<b>87.7</b>	<b>100</b>	<b>3.24</b>	<b>74.8</b>	
성별	남성	150	2	10.7	48	39.3	12.7	87.3	100	3.25	74.9
	여성	150	3.3	8.7	48.7	39.3	12	88	100	3.24	74.7
연령대	20대	44	2.3	11.4	54.5	31.8	13.6	86.4	100	3.16	72
	30대	64	1.6	3.1	51.6	43.8	4.7	95.3	100	3.38	79.2
	40대	98	4.1	12.2	45.9	37.8	16.3	83.7	100	3.17	72.5
	50대	61	1.6	6.6	47.5	44.3	8.2	91.8	100	3.34	78.1
	60대 이상	32	3.1	18.8	40.6	37.5	21.9	78.1	100	3.13	70.8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5.5	50.5	41.8	7.7	92.3	100	3.32	77.3
	6~10년 이하	80	0	8.8	55	36.3	8.8	91.3	100	3.28	75.8
	11년 이상	129	4.7	13.2	42.6	39.5	17.8	82.2	100	3.17	72.4
탈북 후 해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1.9	8.4	51.6	38.1	10.3	89.7	100	3.26	75.3
	2년	33	3	6.1	42.4	48.5	9.1	90.9	100	3.36	78.8
	3년	23	4.3	13	47.8	34.8	17.4	82.6	100	3.13	71
	4년 이상	87	3.4	12.6	44.8	39.1	16.1	83.9	100	3.2	73.2
북·한 지역	국경지역	240	2.1	7.9	50.8	39.2	10	90	100	3.27	75.7
	내륙지역	60	5	16.7	38.3	40	21.7	78.3	100	3.13	71.1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18.2	27.3	54.5	18.2	81.8	100	3.36	78.8
	고졸	178	1.7	7.3	53.9	37.1	9	91	100	3.26	75.5
	전문학교 졸	53	5.7	7.5	45.3	41.5	13.2	86.8	100	3.23	74.2
	대재 이상	58	3.4	17.2	37.9	41.4	20.7	79.3	100	3.17	72.4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5.1	10.1	51.9	32.9	15.2	84.8	100	3.13	70.9
	당원이 아니다	221	1.8	9.5	47.1	41.6	11.3	88.7	100	3.29	76.2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2.3	13.6	47.7	36.4	15.9	84.1	100	3.18	72.7
	경제적 이유	108	3.7	5.6	48.1	42.6	9.3	90.7	100	3.3	76.5
	가족 상봉	22	4.5	18.2	54.5	22.7	22.7	77.3	100	2.95	65.2
	삶의 기회 추구	73	0	8.2	50.7	41.1	8.2	91.8	100	3.33	77.6
직장	공식일	114	3.5	13.2	44.7	38.6	16.7	83.3	100	3.18	72.8
	이중일	66	4.5	10.6	45.5	39.4	15.2	84.8	100	3.2	73.2
	비공식일	81	1.2	6.2	58	34.6	7.4	92.6	100	3.26	75.3
남·한 계부	친척과 교류	79	5.1	10.1	48.1	36.7	15.2	84.8	100	3.16	72.2
	친척과 비교류	22	4.5	0	50	45.5	4.5	95.5	100	3.36	78.8
	무연고	195	1.5	10.3	48.7	39.5	11.8	88.2	100	3.26	75.4
북정계층	상층	22	9.1	4.5	54.5	31.8	13.6	86.4	100	3.09	69.7
	중층	147	1.4	10.9	52.4	35.4	12.2	87.8	100	3.22	73.9
	하층	127	2.4	9.4	43.3	44.9	11.8	88.2	100	3.31	76.9
북한계층	상층	17	11.8	17.6	29.4	41.2	29.4	70.6	100	3	66.7
	중층	169	1.2	11.8	52.7	34.3	13	87	100	3.2	73.4
	하층	110	2.7	5.5	45.5	46.4	8.2	91.8	100	3.35	78.5
남·한 계중	상층	2	0	0	50	50	0	100	100	3.5	83.3
	중층	111	1.8	12.6	47.7	37.8	14.4	85.6	100	3.22	73.9
	하층	183	2.7	8.2	49.2	39.9	10.9	89.1	100	3.26	75.4
정치성향	진보	86	0	8.1	41.9	50	8.1	91.9	100	3.42	80.6
	중도	116	3.4	6.9	56	33.6	10.3	89.7	100	3.2	73.3
	보수	96	4.2	14.6	44.8	36.5	18.8	81.3	100	3.14	71.2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0.8	10.1	50.4	38.7	10.9	89.1	100	3.27	75.6
	만족	181	3.9	9.4	47	39.8	13.3	86.7	100	3.23	74.2

[문2-3]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2.7</b>	<b>22.3</b>	<b>45.3</b>	<b>29.7</b>	<b>25</b>	<b>75</b>	<b>100</b>	<b>3.02</b>	<b>67.3</b>	
성별	남성	150	2.7	19.3	40	38	22	78	100	3.13	71.1
	여성	150	2.7	25.3	50.7	21.3	28	72	100	2.91	63.6
연령대	20대	44	2.3	22.7	52.3	22.7	25	75	100	2.95	65.2
	30대	64	3.1	29.7	39.1	28.1	32.8	67.2	100	2.92	64.1
	40대	98	3.1	24.5	42.9	29.6	27.6	72.4	100	2.99	66.3
	50대	61	0	16.4	47.5	36.1	16.4	83.6	100	3.2	73.2
	60대 이상	32	6.3	9.4	53.1	31.3	15.6	84.4	100	3.09	69.8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17.6	45.1	35.2	19.8	80.2	100	3.13	71.1
	6~10년 이하	80	2.5	20	47.5	30	22.5	77.5	100	3.05	68.3
	11년 이상	129	3.1	27.1	44.2	25.6	30.2	69.8	100	2.92	64.1
탈북 후 해외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3.9	18.7	43.9	33.5	22.6	77.4	100	3.07	69
	2년	33	3	24.2	45.5	27.3	27.3	72.7	100	2.97	65.7
	3년	23	4.3	21.7	52.2	21.7	26.1	73.9	100	2.91	63.8
	4년 이상	87	0	27.6	46	26.4	27.6	72.4	100	2.99	66.3
북·한지역	국경지역	240	1.7	23.3	47.9	27.1	25	75	100	3	66.8
	내륙지역	60	6.7	18.3	35	40	25	75	100	3.08	69.4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36.4	36.4	27.3	36.4	63.6	100	2.91	63.6
	고졸	178	2.2	25.8	43.3	28.7	28.1	71.9	100	2.98	66.1
	전문학교 졸	53	3.8	17	50.9	28.3	20.8	79.2	100	3.04	67.9
	대재 이상	58	3.4	13.8	48.3	34.5	17.2	82.8	100	3.14	71.3
당원여부	당원이다	79	3.8	19	43	34.2	22.8	77.2	100	3.08	69.2
	당원이 아니다	221	2.3	23.5	46.2	28.1	25.8	74.2	100	3	66.7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3.4	21.6	39.8	35.2	25	75	100	3.07	68.9
	경제적 이유	108	0.9	28.7	50	20.4	29.6	70.4	100	2.9	63.3
	가족 상봉	22	4.5	9.1	50	36.4	13.6	86.4	100	3.18	72.7
	삶의 기회 추구	73	2.7	19.2	42.5	35.6	21.9	78.1	100	3.11	70.3
직장	공식일	114	2.6	17.5	49.1	30.7	20.2	79.8	100	3.08	69.3
	이종일	66	1.5	15.2	50	33.3	16.7	83.3	100	3.15	71.7
	비공식일	81	4.9	25.9	38.3	30.9	30.9	69.1	100	2.95	65
남·한계여부	친척과 교류	79	5.1	19	45.6	30.4	24.1	75.9	100	3.01	67.1
	친척과 비교류	22	0	13.6	40.9	45.5	13.6	86.4	100	3.32	77.3
	무연고	195	2.1	25.1	45.1	27.7	27.2	72.8	100	2.98	66.2
북·한계층	상층	22	9.1	22.7	45.5	22.7	31.8	68.2	100	2.82	60.6
	중층	147	1.4	22.4	46.9	29.3	23.8	76.2	100	3.04	68
	하층	127	2.4	21.3	44.9	31.5	23.6	76.4	100	3.06	68.5
북·한계층	상층	17	11.8	17.6	29.4	41.2	29.4	70.6	100	3	66.7
	중층	169	0.6	21.9	45	32.5	22.5	77.5	100	3.09	69.8
	하층	110	3.6	22.7	50	23.6	26.4	73.6	100	2.94	64.5
남·한계층	상층	2	50	0	50	0	50	50	100	2	33.3
	중층	111	1.8	29.7	41.4	27	31.5	68.5	100	2.94	64.6
	하층	183	2.2	17.5	48.6	31.7	19.7	80.3	100	3.1	69.9
정치성향	진보	86	1.2	27.9	44.2	26.7	29.1	70.9	100	2.97	65.5
	중도	116	3.4	26.7	46.6	23.3	30.2	69.8	100	2.9	63.2
	보수	96	3.1	12.5	43.8	40.6	15.6	84.4	100	3.22	74
경제적도	불만족	119	3.4	24.4	44.5	27.7	27.7	72.3	100	2.97	65.5
	만족	181	2.2	21	45.9	30.9	23.2	76.8	100	3.06	68.5

[문2-4]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5.3</b>	<b>24</b>	<b>27.7</b>	<b>43</b>	<b>29.3</b>	<b>70.7</b>	<b>100</b>	<b>3.08</b>	<b>69.4</b>	
성별	남성	150	4	19.3	26	50.7	23.3	76.7	100	3.23	74.4
	여성	150	6.7	28.7	29.3	35.3	35.3	64.7	100	2.93	64.4
연령대	20대	44	4.5	27.3	29.5	38.6	31.8	68.2	100	3.02	67.4
	30대	64	9.4	29.7	28.1	32.8	39.1	60.9	100	2.84	61.5
	40대	98	6.1	23.5	24.5	45.9	29.6	70.4	100	3.1	70.1
	50대	61	1.6	19.7	26.2	52.5	21.3	78.7	100	3.3	76.5
	60대 이상	32	3.1	18.8	34.4	43.8	21.9	78.1	100	3.19	72.9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18.7	28.6	50.5	20.9	79.1	100	3.27	75.8
	6~10년 이하	80	7.5	22.5	28.8	41.3	30	70	100	3.04	67.9
	11년 이상	129	6.2	28.7	26.4	38.8	34.9	65.1	100	2.98	65.9
탈북 후 해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5.8	19.4	32.3	42.6	25.2	74.8	100	3.12	70.5
	2년	33	0	30.3	24.2	45.5	30.3	69.7	100	3.15	71.7
	3년	23	0	30.4	34.8	34.8	30.4	69.6	100	3.04	68.1
	4년 이상	87	8	27.6	19.5	44.8	35.6	64.4	100	3.01	67
북·한 지역	국경지역	240	4.2	24.2	28.3	43.3	28.3	71.7	100	3.11	70.3
	내륙지역	60	10	23.3	25	41.7	33.3	66.7	100	2.98	66.1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45.5	9.1	45.5	45.5	54.5	100	3	66.7
	고졸	178	6.2	23.6	29.8	40.4	29.8	70.2	100	3.04	68.2
	전문학교 졸	53	3.8	20.8	30.2	45.3	24.5	75.5	100	3.17	72.3
	대재 이상	58	5.2	24.1	22.4	48.3	29.3	70.7	100	3.14	71.3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2.5	20.3	26.6	50.6	22.8	77.2	100	3.25	75.1
	당원이 아니다	221	6.3	25.3	28.1	40.3	31.7	68.3	100	3.02	67.4
탈북 유무	신변의 위협	88	4.5	21.6	27.3	46.6	26.1	73.9	100	3.16	72
	경제적 이유	108	5.6	23.1	25	46.3	28.7	71.3	100	3.12	70.7
	가족 상봉	22	9.1	31.8	36.4	22.7	40.9	59.1	100	2.73	57.6
	삶의 기회 추구	73	5.5	23.3	28.8	42.5	28.8	71.2	100	3.08	69.4
직장	공식일	114	3.5	20.2	27.2	49.1	23.7	76.3	100	3.22	74
	이중일	66	6.1	21.2	24.2	48.5	27.3	72.7	100	3.15	71.7
	비공식일	81	6.2	23.5	33.3	37	29.6	70.4	100	3.01	67.1
남·한 연계 여부	친척과 교류	79	3.8	15.2	36.7	44.3	19	81	100	3.22	73.8
	친척과 비교류	22	4.5	36.4	18.2	40.9	40.9	59.1	100	2.95	65.2
	무연고	195	5.6	26.7	24.6	43.1	32.3	67.7	100	3.05	68.4
북·한 계층	상층	22	0	13.6	18.2	68.2	13.6	86.4	100	3.55	84.8
	중층	147	5.4	22.4	31.3	40.8	27.9	72.1	100	3.07	69.2
	하층	127	5.5	28.3	25.2	40.9	33.9	66.1	100	3.02	67.2
북·한 계층	상층	17	0	23.5	29.4	47.1	23.5	76.5	100	3.24	74.5
	중층	169	5.3	25.4	27.8	41.4	30.8	69.2	100	3.05	68.4
	하층	110	5.5	22.7	27.3	44.5	28.2	71.8	100	3.11	70.3
남·한 계층	상층	2	0	50	50	0	50	50	100	2.5	50
	중층	111	4.5	35.1	21.6	38.7	39.6	60.4	100	2.95	64.9
	하층	183	5.5	17.5	31.1	45.9	23	77	100	3.17	72.5
정치 성향	진보	86	5.8	26.7	23.3	44.2	32.6	67.4	100	3.06	68.6
	중도	116	8.6	22.4	31.9	37.1	31	69	100	2.97	65.8
	보수	96	1	24	26	49	25	75	100	3.23	74.3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6.7	28.6	25.2	39.5	35.3	64.7	100	2.97	65.8
	만족	181	4.4	21	29.3	45.3	25.4	74.6	100	3.15	71.8

[문2-5]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14.7</b>	<b>34.7</b>	<b>35</b>	<b>15.7</b>	<b>49.3</b>	<b>50.7</b>	<b>100</b>	<b>2.52</b>	<b>50.6</b>	
성별	남성	150	16.7	30.7	33.3	19.3	47.3	52.7	100	2.55	51.8
	여성	150	12.7	38.7	36.7	12	51.3	48.7	100	2.48	49.3
연령대	20대	44	18.2	34.1	36.4	11.4	52.3	47.7	100	2.41	47
	30대	64	21.9	34.4	31.3	12.5	56.3	43.8	100	2.34	44.8
	40대	98	14.3	42.9	28.6	14.3	57.1	42.9	100	2.43	47.6
	50대	61	4.9	31.1	42.6	21.3	36.1	63.9	100	2.8	60.1
	60대 이상	32	15.6	18.8	43.8	21.9	34.4	65.6	100	2.72	57.3
남한류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19.8	33	35.2	12.1	52.7	47.3	100	2.4	46.5
	6~10년 이하	80	16.3	37.5	32.5	13.8	53.8	46.3	100	2.44	47.9
	11년 이상	129	10.1	34.1	36.4	19.4	44.2	55.8	100	2.65	55
탈북 후 해외류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16.8	32.9	33.5	16.8	49.7	50.3	100	2.5	50.1
	2년	33	12.1	39.4	36.4	12.1	51.5	48.5	100	2.48	49.5
	3년	23	4.3	17.4	60.9	17.4	21.7	78.3	100	2.91	63.8
	4년 이상	87	13.8	41.4	29.9	14.9	55.2	44.8	100	2.46	48.7
북한거주지역	국경지역	240	14.2	34.6	35.8	15.4	48.8	51.3	100	2.53	50.8
	내륙지역	60	16.7	35	31.7	16.7	51.7	48.3	100	2.48	49.4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36.4	36.4	27.3	0	72.7	27.3	100	1.91	30.3
	고졸	178	10.7	35.4	38.2	15.7	46.1	53.9	100	2.59	53
	전문학교 졸	53	15.1	37.7	24.5	22.6	52.8	47.2	100	2.55	51.6
	대재 이상	58	22.4	29.3	36.2	12.1	51.7	48.3	100	2.38	46
당원부	당원이다	79	15.2	27.8	34.2	22.8	43	57	100	2.65	54.9
	당원이 아니다	221	14.5	37.1	35.3	13.1	51.6	48.4	100	2.47	49
탈이 북유	신변의 위협	88	14.8	36.4	35.2	13.6	51.1	48.9	100	2.48	49.2
	경제적 이유	108	13.9	33.3	32.4	20.4	47.2	52.8	100	2.59	53.1
	가족 상봉	22	9.1	40.9	31.8	18.2	50	50	100	2.59	53
	삶의 기회 추구	73	16.4	32.9	41.1	9.6	49.3	50.7	100	2.44	47.9
직장	공식일	114	17.5	34.2	35.1	13.2	51.8	48.2	100	2.44	48
	이중일	66	13.6	33.3	36.4	16.7	47	53	100	2.56	52
	비공식일	81	12.3	34.6	33.3	19.8	46.9	53.1	100	2.6	53.5
남한계여부	친척과 교류	79	19	30.4	36.7	13.9	49.4	50.6	100	2.46	48.5
	친척과 비교류	22	22.7	27.3	27.3	22.7	50	50	100	2.5	50
	무연고	195	11.8	37.4	35.4	15.4	49.2	50.8	100	2.54	51.5
북정계층	상층	22	9.1	36.4	36.4	18.2	45.5	54.5	100	2.64	54.5
	중층	147	17	32.7	37.4	12.9	49.7	50.3	100	2.46	48.8
	하층	127	13.4	35.4	32.3	18.9	48.8	51.2	100	2.57	52.2
북한계층	상층	17	17.6	23.5	35.3	23.5	41.2	58.8	100	2.65	54.9
	중층	169	14.8	34.3	36.1	14.8	49.1	50.9	100	2.51	50.3
	하층	110	14.5	35.5	33.6	16.4	50	50	100	2.52	50.6
남한계층	상층	2	0	0	100	0	0	100	100	3	66.7
	중층	111	11.7	36	38.7	13.5	47.7	52.3	100	2.54	51.4
	하층	183	16.9	33.3	32.2	17.5	50.3	49.7	100	2.5	50.1
정치향	진보	86	18.6	36	33.7	11.6	54.7	45.3	100	2.38	46.1
	중도	116	12.1	37.1	37.9	12.9	49.1	50.9	100	2.52	50.6
	보수	96	14.6	31.3	31.3	22.9	45.8	54.2	100	2.63	54.2
경제적만족도	불만족	119	15.1	38.7	32.8	13.4	53.8	46.2	100	2.45	48.2
	만족	181	14.4	32	36.5	17.1	46.4	53.6	100	2.56	52.1

[문2-6]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b>	<b>300</b>	<b>11</b>	<b>33.7</b>	<b>38.3</b>	<b>17</b>	<b>44.7</b>	<b>55.3</b>	<b>100</b>	<b>2.61</b>	<b>53.8</b>	
성별	남성	150	6.7	32.7	40.7	20	39.3	60.7	100	2.74	58
	여성	150	15.3	34.7	36	14	50	50	100	2.49	49.6
연령대	20대	44	9.1	36.4	45.5	9.1	45.5	54.5	100	2.55	51.5
	30대	64	15.6	39.1	29.7	15.6	54.7	45.3	100	2.45	48.4
	40대	98	13.3	34.7	37.8	14.3	48	52	100	2.53	51
	50대	61	6.6	31.1	42.6	19.7	37.7	62.3	100	2.75	58.5
	60대 이상	32	6.3	18.8	40.6	34.4	25	75	100	3.03	67.7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11	33	40.7	15.4	44	56	100	2.6	53.5
	6~10년 이하	80	8.8	33.8	41.3	16.3	42.5	57.5	100	2.65	55
	11년 이상	129	12.4	34.1	34.9	18.6	46.5	53.5	100	2.6	53.2
탈북 후 해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7.1	35.5	41.9	15.5	42.6	57.4	100	2.66	55.3
	2년	33	12.1	27.3	48.5	12.1	39.4	60.6	100	2.61	53.5
	3년	23	8.7	34.8	34.8	21.7	43.5	56.5	100	2.7	56.5
	4년 이상	87	17.2	33.3	28.7	20.7	50.6	49.4	100	2.53	51
북·한 지역	국경지역	240	10	32.9	40.8	16.3	42.9	57.1	100	2.63	54.4
	내륙지역	60	15	36.7	28.3	20	51.7	48.3	100	2.53	51.1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36.4	9.1	36.4	18.2	45.5	54.5	100	2.36	45.5
	고졸	178	8.4	37.1	38.8	15.7	45.5	54.5	100	2.62	53.9
	전문학교 졸	53	7.5	20.8	54.7	17	28.3	71.7	100	2.81	60.4
	대재 이상	58	17.2	39.7	22.4	20.7	56.9	43.1	100	2.47	48.9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8.9	29.1	38	24.1	38	62	100	2.77	59.1
	당원이 아니다	221	11.8	35.3	38.5	14.5	47.1	52.9	100	2.56	51.9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13.6	30.7	39.8	15.9	44.3	55.7	100	2.58	52.7
	경제적 이유	108	10.2	32.4	39.8	17.6	42.6	57.4	100	2.65	54.9
	가족 상봉	22	9.1	45.5	31.8	13.6	54.5	45.5	100	2.5	50
	삶의 기회 추구	73	8.2	35.6	38.4	17.8	43.8	56.2	100	2.66	55.3
직장	공식일	114	11.4	33.3	35.1	20.2	44.7	55.3	100	2.64	54.7
	이중일	66	10.6	37.9	36.4	15.2	48.5	51.5	100	2.56	52
	비공식일	81	8.6	29.6	44.4	17.3	38.3	61.7	100	2.7	56.8
남·한 연계부	친척과 교류	79	8.9	44.3	38	8.9	53.2	46.8	100	2.47	48.9
	친척과 비교류	22	9.1	27.3	40.9	22.7	36.4	63.6	100	2.77	59.1
	무연고	195	12.3	30.3	38.5	19	42.6	57.4	100	2.64	54.7
북·한 계층	상층	22	9.1	36.4	31.8	22.7	45.5	54.5	100	2.68	56.1
	중층	147	12.9	31.3	38.1	17.7	44.2	55.8	100	2.61	53.5
	하층	127	9.4	36.2	39.4	15	45.7	54.3	100	2.6	53.3
북·한 계층	상층	17	17.6	41.2	23.5	17.6	58.8	41.2	100	2.41	47.1
	중층	169	11.8	33.1	37.3	17.8	45	55	100	2.61	53.6
	하층	110	9.1	33.6	41.8	15.5	42.7	57.3	100	2.64	54.5
남·한 계층	상층	2	0	0	50	50	0	100	100	3.5	83.3
	중층	111	9.9	34.2	36	19.8	44.1	55.9	100	2.66	55.3
	하층	183	12	33.9	39.3	14.8	45.9	54.1	100	2.57	52.3
정치 성향	진보	86	8.1	34.9	39.5	17.4	43	57	100	2.66	55.4
	중도	116	13.8	39.7	31.9	14.7	53.4	46.6	100	2.47	49.1
	보수	96	10.4	25	44.8	19.8	35.4	64.6	100	2.74	58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10.9	37.8	37.8	13.4	48.7	51.3	100	2.54	51.3
	만족	181	11	30.9	38.7	19.3	42	58	100	2.66	55.4

[문2-7]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 전체 □		300	3	19	39.7	38.3	22	78	100	3.13	71.1
성별	남성	150	3.3	18	33.3	45.3	21.3	78.7	100	3.21	73.6
	여성	150	2.7	20	46	31.3	22.7	77.3	100	3.06	68.7
연령대	20대	44	2.3	11.4	45.5	40.9	13.6	86.4	100	3.25	75
	30대	64	3.1	26.6	40.6	29.7	29.7	70.3	100	2.97	65.6
	40대	98	5.1	16.3	44.9	33.7	21.4	78.6	100	3.07	69
	50대	61	1.6	24.6	26.2	47.5	26.2	73.8	100	3.2	73.2
	60대 이상	32	0	12.5	40.6	46.9	12.5	87.5	100	3.34	78.1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3.3	17.6	34.1	45.1	20.9	79.1	100	3.21	73.6
	6~10년 이하	80	1.3	23.8	43.8	31.3	25	75	100	3.05	68.3
	11년 이상	129	3.9	17.1	41.1	38	20.9	79.1	100	3.13	71.1
탈북 후 해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1.9	18.1	35.5	44.5	20	80	100	3.23	74.2
	2년	33	0	24.2	48.5	27.3	24.2	75.8	100	3.03	67.7
	3년	23	4.3	13	39.1	43.5	17.4	82.6	100	3.22	73.9
	4년 이상	87	5.7	19.5	43.7	31	25.3	74.7	100	3	66.7
북·한 지역	국경지역	240	2.9	21.7	38.3	37.1	24.6	75.4	100	3.1	69.9
	내륙지역	60	3.3	8.3	45	43.3	11.7	88.3	100	3.28	76.1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9.1	54.5	36.4	9.1	90.9	100	3.27	75.8
	고졸	178	2.2	19.7	41.6	36.5	21.9	78.1	100	3.12	70.8
	전문학교 졸	53	5.7	22.6	32.1	39.6	28.3	71.7	100	3.06	68.6
	대재 이상	58	3.4	15.5	37.9	43.1	19	81	100	3.21	73.6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2.5	21.5	34.2	41.8	24.1	75.9	100	3.15	71.7
	당원이 아니다	221	3.2	18.1	41.6	37.1	21.3	78.7	100	3.13	70.9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3.4	22.7	31.8	42	26.1	73.9	100	3.13	70.8
	경제적 이유	108	2.8	16.7	47.2	33.3	19.4	80.6	100	3.11	70.4
	가족 상봉	22	0	22.7	54.5	22.7	22.7	77.3	100	3	66.7
	삶의 기회 추구	73	4.1	16.4	31.5	47.9	20.5	79.5	100	3.23	74.4
직장	공식일	114	3.5	17.5	40.4	38.6	21.1	78.9	100	3.14	71.3
	이종일	66	3	19.7	34.8	42.4	22.7	77.3	100	3.17	72.2
	비공식일	81	2.5	23.5	37	37	25.9	74.1	100	3.09	69.5
남·한 계 여부	친척과 교류	79	0	22.8	41.8	35.4	22.8	77.2	100	3.13	70.9
	친척과 비교류	22	4.5	18.2	22.7	54.5	22.7	77.3	100	3.27	75.8
	무연고	195	4.1	17.4	40.5	37.9	21.5	78.5	100	3.12	70.8
북·한 계 계층	상층	22	4.5	18.2	40.9	36.4	22.7	77.3	100	3.09	69.7
	중층	147	4.1	14.3	46.3	35.4	18.4	81.6	100	3.13	71
	하층	127	1.6	24.4	30.7	43.3	26	74	100	3.16	71.9
북·한 계 계층	상층	17	0	17.6	29.4	52.9	17.6	82.4	100	3.35	78.4
	중층	169	4.7	14.2	41.4	39.6	18.9	81.1	100	3.16	72
	하층	110	0.9	26.4	37.3	35.5	27.3	72.7	100	3.07	69.1
남·한 계 계층	상층	2	0	50	0	50	50	50	100	3	66.7
	중층	111	5.4	18	46.8	29.7	23.4	76.6	100	3.01	67
	하층	183	1.6	19.1	35	44.3	20.8	79.2	100	3.22	74
정치 성향	진보	86	2.3	17.4	41.9	38.4	19.8	80.2	100	3.16	72.1
	중도	116	3.4	18.1	42.2	36.2	21.6	78.4	100	3.11	70.4
	보수	96	3.1	21.9	35.4	39.6	25	75	100	3.11	70.5
경제 적 추도	불만족	119	2.5	16	44.5	37	18.5	81.5	100	3.16	72
	만족	181	3.3	21	36.5	39.2	24.3	75.7	100	3.12	70.5

[문3-1]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10.7</b>	<b>26.3</b>	<b>31</b>	<b>32</b>	<b>37</b>	<b>63</b>	<b>100</b>	<b>2.84</b>	<b>61.4</b>	
성별	남성	150	10.7	24	30	35.3	34.7	65.3	100	2.9	63.3
	여성	150	10.7	28.7	32	28.7	39.3	60.7	100	2.79	59.6
연령대	20대	44	4.5	22.7	36.4	36.4	27.3	72.7	100	3.05	68.2
	30대	64	12.5	28.1	32.8	26.6	40.6	59.4	100	2.73	57.8
	40대	98	7.1	26.5	32.7	33.7	33.7	66.3	100	2.93	64.3
	50대	61	13.1	31.1	27.9	27.9	44.3	55.7	100	2.7	56.8
	60대 이상	32	21.9	18.8	18.8	40.6	40.6	59.4	100	2.78	59.4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8.8	18.7	28.6	44	27.5	72.5	100	3.08	69.2
	6~10년 이하	80	8.8	26.3	33.8	31.3	35	65	100	2.88	62.5
	11년 이상	129	13.2	31.8	31	24	45	55	100	2.66	55.3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10.3	24.5	27.7	37.4	34.8	65.2	100	2.92	64.1
	2년	33	12.1	30.3	39.4	18.2	42.4	57.6	100	2.64	54.5
	3년	23	8.7	21.7	34.8	34.8	30.4	69.6	100	2.96	65.2
	4년 이상	87	11.5	28.7	32.2	27.6	40.2	59.8	100	2.76	58.6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9.6	27.9	30.8	31.7	37.5	62.5	100	2.85	61.5
	내륙지역	60	15	20	31.7	33.3	35	65	100	2.83	61.1
	인민학교 이하	11	0	36.4	36.4	27.3	36.4	63.6	100	2.91	63.6
학력	고졸	178	7.9	26.4	33.1	32.6	34.3	65.7	100	2.9	63.5
	전문학교 졸	53	9.4	22.6	34	34	32.1	67.9	100	2.92	64.2
	대재 이상	58	22.4	27.6	20.7	29.3	50	50	100	2.57	52.3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16.5	25.3	26.6	31.6	41.8	58.2	100	2.73	57.8
	당원이 아니다	221	8.6	26.7	32.6	32.1	35.3	64.7	100	2.88	62.7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14.8	27.3	23.9	34.1	42	58	100	2.77	59.1
	경제적 이유	108	10.2	25.9	34.3	29.6	36.1	63.9	100	2.83	61.1
	가족 상봉	22	13.6	36.4	27.3	22.7	50	50	100	2.59	53
	삶의 기회 추구	73	6.8	21.9	38.4	32.9	28.8	71.2	100	2.97	65.8
직장	공식일	114	17.5	20.2	32.5	29.8	37.7	62.3	100	2.75	58.2
	이종일	66	7.6	30.3	27.3	34.8	37.9	62.1	100	2.89	63.1
	비공식일	81	6.2	25.9	30.9	37	32.1	67.9	100	2.99	66.3
남한 근무	친척과 교류	79	10.1	25.3	26.6	38	35.4	64.6	100	2.92	64.1
	친척과 비교류	22	9.1	18.2	22.7	50	27.3	72.7	100	3.14	71.2
	무연고	195	10.8	27.7	33.3	28.2	38.5	61.5	100	2.79	59.7
북한 계층	상층	22	9.1	22.7	27.3	40.9	31.8	68.2	100	3	66.7
	중층	147	13.6	27.2	32	27.2	40.8	59.2	100	2.73	57.6
	하층	127	7.9	26	29.9	36.2	33.9	66.1	100	2.94	64.8
북한 계층	상층	17	17.6	29.4	5.9	47.1	47.1	52.9	100	2.82	60.8
	중층	169	12.4	25.4	34.3	27.8	37.9	62.1	100	2.78	59.2
	하층	110	7.3	27.3	29.1	36.4	34.5	65.5	100	2.95	64.8
남한 계층	상층	2	0	50	0	50	50	50	100	3	66.7
	중층	111	14.4	28.8	34.2	22.5	43.2	56.8	100	2.65	55
	하층	183	8.7	24.6	29	37.7	33.3	66.7	100	2.96	65.2
정치향	진보	86	10.5	23.3	37.2	29.1	33.7	66.3	100	2.85	61.6
	중도	116	7.8	30.2	31.9	30.2	37.9	62.1	100	2.84	61.5
	보수	96	14.6	25	24	36.5	39.6	60.4	100	2.82	60.8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9.2	23.5	35.3	31.9	32.8	67.2	100	2.9	63.3
	만족	181	11.6	28.2	28.2	32	39.8	60.2	100	2.81	60.2

[문3-2]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3.3</b>	<b>21</b>	<b>30</b>	<b>45.7</b>	<b>24.3</b>	<b>75.7</b>	<b>100</b>	<b>3.18</b>	<b>72.7</b>	
성별	남성	150	2.7	17.3	37.3	42.7	20	80	100	3.2	73.3
	여성	150	4	24.7	22.7	48.7	28.7	71.3	100	3.16	72
연령대	20대	44	0	15.9	47.7	36.4	15.9	84.1	100	3.2	73.5
	30대	64	1.6	23.4	35.9	39.1	25	75	100	3.13	70.8
	40대	98	3.1	25.5	25.5	45.9	28.6	71.4	100	3.14	71.4
	50대	61	4.9	14.8	27.9	52.5	19.7	80.3	100	3.28	76
	60대 이상	32	9.4	21.9	9.4	59.4	31.3	68.8	100	3.19	72.9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9.9	35.2	52.7	12.1	87.9	100	3.38	79.5
	6~10년 이하	80	2.5	22.5	27.5	47.5	25	75	100	3.2	73.3
	11년 이상	129	4.7	27.9	27.9	39.5	32.6	67.4	100	3.02	67.4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3.9	14.8	34.8	46.5	18.7	81.3	100	3.24	74.6
	2년	33	0	21.2	33.3	45.5	21.2	78.8	100	3.24	74.7
	3년	23	4.3	26.1	21.7	47.8	30.4	69.6	100	3.13	71
	4년 이상	87	3.4	29.9	21.8	44.8	33.3	66.7	100	3.08	69.3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3.3	20.4	31.7	44.6	23.8	76.3	100	3.18	72.5
	내륙지역	60	3.3	23.3	23.3	50	26.7	73.3	100	3.2	73.3
	인민학교 이하	11	0	36.4	45.5	18.2	36.4	63.6	100	2.82	60.6
학력	고졸	178	1.7	20.8	31.5	46.1	22.5	77.5	100	3.22	74
	전문학교 졸	53	3.8	17	26.4	52.8	20.8	79.2	100	3.28	76.1
	대재 이상	58	8.6	22.4	25.9	43.1	31	69	100	3.03	67.8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8.9	17.7	34.2	39.2	26.6	73.4	100	3.04	67.9
	당원이 아니다	221	1.4	22.2	28.5	48	23.5	76.5	100	3.23	74.4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3.4	21.6	28.4	46.6	25	75	100	3.18	72.7
	경제적 이유	108	3.7	22.2	32.4	41.7	25.9	74.1	100	3.12	70.7
	가족 상봉	22	4.5	27.3	27.3	40.9	31.8	68.2	100	3.05	68.2
	삶의 기회 추구	73	2.7	15.1	30.1	52.1	17.8	82.2	100	3.32	77.2
직장	공식일	114	4.4	24.6	28.1	43	28.9	71.1	100	3.1	69.9
	이종일	66	3	13.6	24.2	59.1	16.7	83.3	100	3.39	79.8
	비공식일	81	3.7	14.8	37	44.4	18.5	81.5	100	3.22	74.1
남연 여부	친척과 교류	79	1.3	20.3	30.4	48.1	21.5	78.5	100	3.25	75.1
	친척과 비교류	22	0	18.2	27.3	54.5	18.2	81.8	100	3.36	78.8
	무연고	195	4.6	21.5	29.7	44.1	26.2	73.8	100	3.13	71.1
북정계층	상층	22	4.5	22.7	18.2	54.5	27.3	72.7	100	3.23	74.2
	중층	147	3.4	22.4	26.5	47.6	25.9	74.1	100	3.18	72.8
	하층	127	3.1	18.1	36.2	42.5	21.3	78.7	100	3.18	72.7
북경계층	상층	17	5.9	29.4	11.8	52.9	35.3	64.7	100	3.12	70.6
	중층	169	3.6	20.7	29	46.7	24.3	75.7	100	3.19	73
	하층	110	2.7	19.1	34.5	43.6	21.8	78.2	100	3.19	73
남경계층	상층	2	0	50	0	50	50	100	3	66.7	
	중층	111	4.5	29.7	29.7	36	34.2	65.8	100	2.97	65.8
	하층	183	2.7	14.8	30.6	51.9	17.5	82.5	100	3.32	77.2
정치향	진보	86	2.3	19.8	31.4	46.5	22.1	77.9	100	3.22	74
	중도	116	2.6	24.1	26.7	46.6	26.7	73.3	100	3.17	72.4
	보수	96	5.2	18.8	32.3	43.8	24	76	100	3.15	71.5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3.4	20.2	33.6	42.9	23.5	76.5	100	3.16	72
	만족	181	3.3	21.5	27.6	47.5	24.9	75.1	100	3.19	73.1

[문3-3]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4.3</b>	<b>19.3</b>	<b>30.7</b>	<b>45.7</b>	<b>23.7</b>	<b>76.3</b>	<b>100</b>	<b>3.18</b>	<b>72.6</b>	
성별	남성	150	2	18	31.3	48.7	20	80	100	3.27	75.6
	여성	150	6.7	20.7	30	42.7	27.3	72.7	100	3.09	69.6
연령대	20대	44	2.3	18.2	31.8	47.7	20.5	79.5	100	3.25	75
	30대	64	3.1	23.4	26.6	46.9	26.6	73.4	100	3.17	72.4
	40대	98	3.1	19.4	32.7	44.9	22.4	77.6	100	3.19	73.1
	50대	61	6.6	16.4	29.5	47.5	23	77	100	3.18	72.7
	60대 이상	32	9.4	18.8	31.3	40.6	28.1	71.9	100	3.03	67.7
남 한 체 류 기 간 대	5년 이하	91	3.3	9.9	28.6	58.2	13.2	86.8	100	3.42	80.6
	6~10년 이하	80	2.5	15	33.8	48.8	17.5	82.5	100	3.29	76.3
	11년 이상	129	6.2	28.7	30.2	34.9	34.9	65.1	100	2.94	64.6
탈북후 해류 체류 기 간 대	1년 이하	155	5.8	12.3	32.3	49.7	18.1	81.9	100	3.26	75.3
	2년	33	0	18.2	51.5	30.3	18.2	81.8	100	3.12	70.7
	3년	23	4.3	26.1	34.8	34.8	30.4	69.6	100	3	66.7
	4년 이상	87	3.4	28.7	19.5	48.3	32.2	67.8	100	3.13	70.9
북한거 주지 역	국경지역	240	2.9	20.4	30.4	46.3	23.3	76.7	100	3.2	73.3
	내륙지역	60	10	15	31.7	43.3	25	75	100	3.08	69.4
	인민학교 이하	11	9.1	54.5	9.1	27.3	63.6	36.4	100	2.55	51.5
학력	고졸	178	1.7	19.1	31.5	47.8	20.8	79.2	100	3.25	75.1
	전문학교 졸	53	7.5	11.3	34	47.2	18.9	81.1	100	3.21	73.6
	대재 이상	58	8.6	20.7	29.3	41.4	29.3	70.7	100	3.03	67.8
당원여부	당원이다	79	5.1	15.2	34.2	45.6	20.3	79.7	100	3.2	73.4
	당원이 아니다	221	4.1	20.8	29.4	45.7	24.9	75.1	100	3.17	72.2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6.8	18.2	34.1	40.9	25	75	100	3.09	69.7
	경제적 이유	108	0.9	24.1	31.5	43.5	25	75	100	3.18	72.5
	가족 상봉	22	9.1	18.2	18.2	54.5	27.3	72.7	100	3.18	72.7
	삶의 기회 추구	73	4.1	15.1	30.1	50.7	19.2	80.8	100	3.27	75.8
직장	공식일	114	5.3	18.4	30.7	45.6	23.7	76.3	100	3.17	72.2
	이종일	66	3	19.7	24.2	53	22.7	77.3	100	3.27	75.8
	비공식일	81	2.5	12.3	40.7	44.4	14.8	85.2	100	3.27	75.7
남 연 여 부	친척과 교류	79	2.5	13.9	32.9	50.6	16.5	83.5	100	3.32	77.2
	친척과 비교류	22	4.5	9.1	31.8	54.5	13.6	86.4	100	3.36	78.8
	무연고	195	5.1	22.6	29.2	43.1	27.7	72.3	100	3.1	70.1
북 정 계 층	상층	22	9.1	13.6	22.7	54.5	22.7	77.3	100	3.23	74.2
	중층	147	4.8	19	32	44.2	23.8	76.2	100	3.16	71.9
	하층	127	2.4	21.3	30.7	45.7	23.6	76.4	100	3.2	73.2
북 한 계 층	상층	17	5.9	17.6	29.4	47.1	23.5	76.5	100	3.18	72.5
	중층	169	5.3	19.5	28.4	46.7	24.9	75.1	100	3.17	72.2
	하층	110	1.8	20	34.5	43.6	21.8	78.2	100	3.2	73.3
남 한 계 층	상층	2	0	50	0	50	50	100	3	66.7	
	중층	111	4.5	22.5	35.1	37.8	27	73	100	3.06	68.8
	하층	183	3.8	17.5	28.4	50.3	21.3	78.7	100	3.25	75
정 치 성 향	진보	86	3.5	23.3	23.3	50	26.7	73.3	100	3.2	73.3
	중도	116	5.2	18.1	28.4	48.3	23.3	76.7	100	3.2	73.3
	보수	96	4.2	17.7	39.6	38.5	21.9	78.1	100	3.13	70.8
경 제 적 만 족 도	불만족	119	3.4	18.5	35.3	42.9	21.8	78.2	100	3.18	72.5
	만족	181	5	19.9	27.6	47.5	24.9	75.1	100	3.18	72.6

[문3-4]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통일한국의 정치체제와 법률을 따르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1</b>	<b>7</b>	<b>40.3</b>	<b>51.7</b>	<b>8</b>	<b>92</b>	<b>100</b>	<b>3.43</b>	<b>80.9</b>
성별	남성	150	0	4.7	38.7	56.7	4.7	95.3	100	3.52	84
	여성	150	2	9.3	42	46.7	11.3	88.7	100	3.33	77.8
연령대	20대	44	0	4.5	47.7	47.7	4.5	95.5	100	3.43	81.1
	30대	64	1.6	0	51.6	46.9	1.6	98.4	100	3.44	81.3
	40대	98	1	10.2	38.8	50	11.2	88.8	100	3.38	79.3
	50대	61	0	11.5	31.1	57.4	11.5	88.5	100	3.46	82
	60대 이상	32	3.1	6.3	28.1	62.5	9.4	90.6	100	3.5	83.3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2.2	42.9	52.7	4.4	95.6	100	3.46	82.1
	6~10년 이하	80	0	6.3	42.5	51.3	6.3	93.8	100	3.45	81.7
	11년 이상	129	0.8	10.9	37.2	51.2	11.6	88.4	100	3.39	79.6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0.6	7.1	41.3	51	7.7	92.3	100	3.43	80.9
	2년	33	0	3	33.3	63.6	3	97	100	3.61	86.9
	3년	23	0	8.7	30.4	60.9	8.7	91.3	100	3.52	84.1
	4년 이상	87	2.3	8	42.5	47.1	10.3	89.7	100	3.34	78.2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1.3	6.3	44.6	47.9	7.5	92.5	100	3.39	79.7
	내륙지역	60	0	10	23.3	66.7	10	90	100	3.57	85.6
	인민학교 이하	11	0	0	54.5	45.5	0	100	100	3.45	81.8
학력	고졸	178	1.1	6.2	44.4	48.3	7.3	92.7	100	3.4	80
	전문학교 졸	53	1.9	11.3	32.1	54.7	13.2	86.8	100	3.4	79.9
	대재 이상	58	0	6.9	32.8	60.3	6.9	93.1	100	3.53	84.5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1.3	7.6	38	53.2	8.9	91.1	100	3.43	81
	당원이 아니다	221	0.9	6.8	41.2	51.1	7.7	92.3	100	3.43	80.8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1.1	4.5	37.5	56.8	5.7	94.3	100	3.5	83.3
	경제적 이유	108	0	8.3	44.4	47.2	8.3	91.7	100	3.39	79.6
	가족 상봉	22	4.5	13.6	36.4	45.5	18.2	81.8	100	3.23	74.2
	삶의 기회 추구	73	1.4	6.8	38.4	53.4	8.2	91.8	100	3.44	81.3
직장	공식일	114	0	7.9	37.7	54.4	7.9	92.1	100	3.46	82.2
	이종일	66	1.5	10.6	27.3	60.6	12.1	87.9	100	3.47	82.3
	비공식일	81	2.5	2.5	48.1	46.9	4.9	95.1	100	3.4	79.8
남한 근무	친척과 교류	79	0	2.5	45.6	51.9	2.5	97.5	100	3.49	83.1
	친척과 비교류	22	0	4.5	18.2	77.3	4.5	95.5	100	3.73	90.9
	무연고	195	1	9.2	40.5	49.2	10.3	89.7	100	3.38	79.3
북한 계층	상층	22	9.1	9.1	27.3	54.5	18.2	81.8	100	3.27	75.8
	중층	147	0.7	4.8	40.8	53.7	5.4	94.6	100	3.48	82.5
	하층	127	0	8.7	41.7	49.6	8.7	91.3	100	3.41	80.3
북한 경제층	상층	17	5.9	5.9	17.6	70.6	11.8	88.2	100	3.53	84.3
	중층	169	1.2	7.1	39.1	52.7	8.3	91.7	100	3.43	81.1
	하층	110	0	6.4	45.5	48.2	6.4	93.6	100	3.42	80.6
남한 계층	상층	2	50	0	0	50	50	50	100	2.5	50
	중층	111	0.9	5.4	40.5	53.2	6.3	93.7	100	3.46	82
	하층	183	0.5	7.7	40.4	51.4	8.2	91.8	100	3.43	80.9
정치향	진보	86	0	3.5	43	53.5	3.5	96.5	100	3.5	83.3
	중도	116	1.7	9.5	46.6	42.2	11.2	88.8	100	3.29	76.4
	보수	96	1	7.3	29.2	62.5	8.3	91.7	100	3.53	84.4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0.8	4.2	47.1	47.9	5	95	100	3.42	80.7
	만족	181	1.1	8.8	35.9	54.1	9.9	90.1	100	3.43	81

[문3-5]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한민족의 열통을 가지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2.7</b>	<b>12</b>	<b>19.3</b>	<b>66</b>	<b>14.7</b>	<b>85.3</b>	<b>100</b>	<b>3.49</b>	<b>82.9</b>	
성별	남성	150	3.3	10	18.7	68	13.3	86.7	100	3.51	83.8
	여성	150	2	14	20	64	16	84	100	3.46	82
연령대	20대	44	4.5	13.6	22.7	59.1	18.2	81.8	100	3.36	78.8
	30대	64	4.7	12.5	21.9	60.9	17.2	82.8	100	3.39	79.7
	40대	98	2	14.3	16.3	67.3	16.3	83.7	100	3.49	83
	50대	61	1.6	11.5	16.4	70.5	13.1	86.9	100	3.56	85.2
	60대 이상	32	0	3.1	21.9	75	3.1	96.9	100	3.72	90.6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1.1	6.6	15.4	76.9	7.7	92.3	100	3.68	89.4
	6~10년 이하	80	0	6.3	21.3	72.5	6.3	93.8	100	3.66	88.8
	11년 이상	129	5.4	19.4	20.9	54.3	24.8	75.2	100	3.24	74.7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2.6	11	18.7	67.7	13.5	86.5	100	3.52	83.9
	2년	33	3	15.2	21.2	60.6	18.2	81.8	100	3.39	79.8
	3년	23	0	8.7	13	78.3	8.7	91.3	100	3.7	89.9
	4년 이상	87	3.4	12.6	20.7	63.2	16.1	83.9	100	3.44	81.2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1.7	12.1	19.2	67.1	13.8	86.3	100	3.52	83.9
	내륙지역	60	6.7	11.7	20	61.7	18.3	81.7	100	3.37	78.9
	인민학교 이하	11	18.2	36.4	18.2	27.3	54.5	45.5	100	2.55	51.5
학력	고졸	178	2.2	9.6	20.8	67.4	11.8	88.2	100	3.53	84.5
	전문학교 졸	53	0	17	11.3	71.7	17	83	100	3.55	84.9
	대재 이상	58	3.4	10.3	22.4	63.8	13.8	86.2	100	3.47	82.2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2.5	10.1	20.3	67.1	12.7	87.3	100	3.52	84
	당원이 아니다	221	2.7	12.7	19	65.6	15.4	84.6	100	3.48	82.5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3.4	11.4	14.8	70.5	14.8	85.2	100	3.52	84.1
	경제적 이유	108	1.9	13	20.4	64.8	14.8	85.2	100	3.48	82.7
	가족 상봉	22	4.5	13.6	27.3	54.5	18.2	81.8	100	3.32	77.3
	삶의 기회 추구	73	1.4	9.6	23.3	65.8	11	89	100	3.53	84.5
직장	공식일	114	2.6	7	21.1	69.3	9.6	90.4	100	3.57	85.7
	이종일	66	3	13.6	15.2	68.2	16.7	83.3	100	3.48	82.8
	비공식일	81	0	11.1	19.8	69.1	11.1	88.9	100	3.58	86
남연 여부	친척과 교류	79	2.5	11.4	13.9	72.2	13.9	86.1	100	3.56	85.2
	친척과 비교류	22	0	4.5	13.6	81.8	4.5	95.5	100	3.77	92.4
	무연고	195	3.1	13.3	22.1	61.5	16.4	83.6	100	3.42	80.7
북정계층	상층	22	4.5	0	13.6	81.8	4.5	95.5	100	3.73	90.9
	중층	147	2.7	10.9	21.8	64.6	13.6	86.4	100	3.48	82.8
	하층	127	2.4	15	18.1	64.6	17.3	82.7	100	3.45	81.6
북경계층	상층	17	5.9	11.8	0	82.4	17.6	82.4	100	3.59	86.3
	중층	169	3	10.1	20.1	66.9	13	87	100	3.51	83.6
	하층	110	1.8	14.5	21.8	61.8	16.4	83.6	100	3.44	81.2
남경계층	상층	2	0	0	0	100	0	100	100	4	100
	중층	111	3.6	12.6	26.1	57.7	16.2	83.8	100	3.38	79.3
	하층	183	2.2	11.5	15.8	70.5	13.7	86.3	100	3.55	84.9
정치향	진보	86	2.3	8.1	16.3	73.3	10.5	89.5	100	3.6	86.8
	중도	116	2.6	13.8	19	64.7	16.4	83.6	100	3.46	81.9
	보수	96	3.1	13.5	22.9	60.4	16.7	83.3	100	3.41	80.2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3.4	14.3	21.8	60.5	17.6	82.4	100	3.39	79.8
	만족	181	2.2	10.5	17.7	69.6	12.7	87.3	100	3.55	84.9

[문3-6]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2</b>	<b>9.3</b>	<b>20.3</b>	<b>68.3</b>	<b>11.3</b>	<b>88.7</b>	<b>100</b>	<b>3.55</b>	<b>85</b>	
성별	남성	150	2.7	6	20.7	70.7	8.7	91.3	100	3.59	86.4
	여성	150	1.3	12.7	20	66	14	86	100	3.51	83.6
연령대	20대	44	4.5	4.5	25	65.9	9.1	90.9	100	3.52	84.1
	30대	64	3.1	10.9	18.8	67.2	14.1	85.9	100	3.5	83.3
	40대	98	1	11.2	19.4	68.4	12.2	87.8	100	3.55	85
	50대	61	1.6	11.5	23	63.9	13.1	86.9	100	3.49	83.1
	60대 이상	32	0	3.1	15.6	81.3	3.1	96.9	100	3.78	92.7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2	6.6	18.7	72.5	8.8	91.2	100	3.62	87.2
	6~10년 이하	80	0	10	18.8	71.3	10	90	100	3.61	87.1
	11년 이상	129	3.1	10.9	22.5	63.6	14	86	100	3.47	82.2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3.2	9	21.9	65.8	12.3	87.7	100	3.5	83.4
	2년	33	0	6.1	15.2	78.8	6.1	93.9	100	3.73	90.9
	3년	23	0	13	13	73.9	13	87	100	3.61	87
	4년 이상	87	0	10.3	20.7	69	10.3	89.7	100	3.59	86.2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1.7	10.4	19.6	68.3	12.1	87.9	100	3.55	84.9
	내륙지역	60	3.3	5	23.3	68.3	8.3	91.7	100	3.57	85.6
	인민학교 이하	11	9.1	27.3	36.4	27.3	36.4	63.6	100	2.82	60.6
학력	고졸	178	1.7	7.3	20.2	70.8	9	91	100	3.6	86.7
	전문학교 졸	53	0	17	15.1	67.9	17	83	100	3.51	83.6
	대재 이상	58	3.4	5.2	22.4	69	8.6	91.4	100	3.57	85.6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2.5	7.6	20.3	69.6	10.1	89.9	100	3.57	85.7
	당원이 아니다	221	1.8	10	20.4	67.9	11.8	88.2	100	3.54	84.8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2.3	8	15.9	73.9	10.2	89.8	100	3.61	87.1
	경제적 이유	108	1.9	9.3	24.1	64.8	11.1	88.9	100	3.52	84
	가족 상봉	22	0	9.1	27.3	63.6	9.1	90.9	100	3.55	84.8
	삶의 기회 추구	73	1.4	11	20.5	67.1	12.3	87.7	100	3.53	84.5
직장	공식일	114	1.8	7.9	17.5	72.8	9.6	90.4	100	3.61	87.1
	이종일	66	3	10.6	19.7	66.7	13.6	86.4	100	3.5	83.3
	비공식일	81	1.2	7.4	19.8	71.6	8.6	91.4	100	3.62	87.2
남한 근무	친척과 교류	79	2.5	7.6	17.7	72.2	10.1	89.9	100	3.59	86.5
	친척과 비교류	22	0	0	18.2	81.8	0	100	100	3.82	93.9
	무연고	195	2.1	11.3	21.5	65.1	13.3	86.7	100	3.5	83.2
북한 계층	상층	22	0	9.1	9.1	81.8	9.1	90.9	100	3.73	90.9
	중층	147	2	10.2	22.4	65.3	12.2	87.8	100	3.51	83.7
	하층	127	2.4	7.1	19.7	70.9	9.4	90.6	100	3.59	86.4
북한 경제	상층	17	5.9	5.9	5.9	82.4	11.8	88.2	100	3.65	88.2
	중층	169	1.8	11.2	20.1	66.9	13	87	100	3.52	84
	하층	110	1.8	5.5	22.7	70	7.3	92.7	100	3.61	87
남한 계층	상층	2	0	0	0	100	0	100	100	4	100
	중층	111	1.8	12.6	19.8	65.8	14.4	85.6	100	3.5	83.2
	하층	183	2.2	6.6	20.8	70.5	8.7	91.3	100	3.6	86.5
정치향	진보	86	2.3	7	22.1	68.6	9.3	90.7	100	3.57	85.7
	중도	116	0.9	11.2	21.6	66.4	12.1	87.9	100	3.53	84.5
	보수	96	3.1	9.4	16.7	70.8	12.5	87.5	100	3.55	85.1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2.5	12.6	21.8	63	15.1	84.9	100	3.45	81.8
	만족	181	1.7	7.2	19.3	71.8	8.8	91.2	100	3.61	87.1

[문3-7]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통일국가의 이해하고 전통과 따르는 것	연사를 관습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0.7</b>	<b>8</b>	<b>28.3</b>	<b>62.7</b>	<b>0.3</b>	<b>8.7</b>	<b>91</b>	<b>0.3</b>	<b>100</b>
성별	남성	150	1.3	6	28	64.7	0	7.3	92.7	0	100
	여성	150	0	10	28.7	60.7	0.7	10	89.3	0.7	100
연령대	20대	44	0	13.6	27.3	56.8	2.3	13.6	84.1	2.3	100
	30대	64	1.6	9.4	32.8	56.3	0	10.9	89.1	0	100
	40대	98	0	9.2	28.6	62.2	0	9.2	90.8	0	100
	50대	61	0	3.3	27.9	68.9	0	3.3	96.7	0	100
	60대 이상	32	3.1	3.1	21.9	71.9	0	6.3	93.8	0	100
남한 체류 기간대	5년 이하	91	0	5.5	27.5	65.9	1.1	5.5	93.4	1.1	100
	6~10년 이하	80	0	11.3	17.5	71.3	0	11.3	88.8	0	100
	11년 이상	129	1.6	7.8	35.7	55	0	9.3	90.7	0	100
탈북 후 해외 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0	7.7	27.1	65.2	0	7.7	92.3	0	100
	2년	33	0	3	33.3	63.6	0	3	97	0	100
	3년	23	0	8.7	43.5	47.8	0	8.7	91.3	0	100
	4년 이상	87	2.3	9.2	24.1	63.2	1.1	11.5	87.4	1.1	100
북한 거주 지역	국경지역	240	0.8	9.2	28.8	60.8	0.4	10	89.6	0.4	100
	내륙지역	60	0	3.3	26.7	70	0	3.3	96.7	0	100
	인민학교 이하	11	0	27.3	45.5	18.2	9.1	27.3	63.6	9.1	100
학력	고졸	178	0.6	9.6	29.2	60.7	0	10.1	89.9	0	100
	전문학교 졸	53	0	5.7	22.6	71.7	0	5.7	94.3	0	100
	대재 이상	58	1.7	1.7	27.6	69	0	3.4	96.6	0	100
당원 여부	당원이다	79	1.3	2.5	26.6	69.6	0	3.8	96.2	0	100
	당원이 아니다	221	0.5	10	29	60.2	0.5	10.4	89.1	0.5	100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1.1	6.8	19.3	72.7	0	8	92	0	100
	경제적 이유	108	0.9	9.3	34.3	55.6	0	10.2	89.8	0	100
	가족 상봉	22	0	13.6	22.7	63.6	0	13.6	86.4	0	100
	삶의 기회 추구	73	0	6.8	28.8	63	1.4	6.8	91.8	1.4	100
직장	공식일	114	1.8	7.9	25.4	64.9	0	9.6	90.4	0	100
	이종일	66	0	12.1	25.8	62.1	0	12.1	87.9	0	100
	비공식일	81	0	2.5	27.2	69.1	1.2	2.5	96.3	1.2	100
남한 근무	친척과 교류	79	0	7.6	22.8	69.6	0	7.6	92.4	0	100
	친척과 비교류	22	4.5	4.5	22.7	68.2	0	9.1	90.9	0	100
	무연고	195	0.5	8.7	30.8	59.5	0.5	9.2	90.3	0.5	100
북한 계층	상층	22	0	4.5	9.1	86.4	0	4.5	95.5	0	100
	중층	147	0.7	6.1	32	60.5	0.7	6.8	92.5	0.7	100
	하층	127	0.8	10.2	26.8	62.2	0	11	89	0	100
북한 계층	상층	17	0	5.9	29.4	64.7	0	5.9	94.1	0	100
	중층	169	0.6	5.9	27.8	65.1	0.6	6.5	92.9	0.6	100
	하층	110	0.9	10.9	28.2	60	0	11.8	88.2	0	100
남한 계층	상층	2	0	0	50	50	0	0	100	0	100
	중층	111	0.9	6.3	34.2	57.7	0.9	7.2	91.9	0.9	100
	하층	183	0.5	8.7	24	66.7	0	9.3	90.7	0	100
정치향	진보	86	1.2	7	30.2	61.6	0	8.1	91.9	0	100
	중도	116	0	12.9	24.1	62.1	0.9	12.9	86.2	0.9	100
	보수	96	1	3.1	32.3	63.5	0	4.2	95.8	0	100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0	12.6	31.9	55.5	0	12.6	87.4	0	100
	만족	181	1.1	5	26	67.4	0.6	6.1	93.4	0.6	100

[문4-1]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1) 북한인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18.7</b>	<b>32.7</b>	<b>33.3</b>	<b>15</b>	<b>0.3</b>	<b>51.3</b>	<b>48.3</b>	<b>0.3</b>	<b>100</b>	
성별	남성	150	19.3	33.3	31.3	15.3	0.7	52.7	46.7	0.7	100
	여성	150	18	32	35.3	14.7	0	50	50	0	100
연령대	20대	44	15.9	31.8	31.8	20.5	0	47.7	52.3	0	100
	30대	64	15.6	32.8	40.6	10.9	0	48.4	51.6	0	100
	40대	98	17.3	34.7	33.7	14.3	0	52	48	0	100
	50대	61	27.9	27.9	24.6	18	1.6	55.7	42.6	1.6	100
	60대 이상	32	12.5	37.5	37.5	12.5	0	50	50	0	100
남한류 기간대	5년 이하	91	23.1	36.3	25.3	15.4	0	59.3	40.7	0	100
	6~10년 이하	80	21.3	27.5	41.3	10	0	48.8	51.3	0	100
	11년 이상	129	14	33.3	34.1	17.8	0.8	47.3	51.9	0.8	100
탈북 후 해이류 기간대	1년 이하	155	22.6	33.5	27.7	15.5	0.6	56.1	43.2	0.6	100
	2년	33	9.1	42.4	30.3	18.2	0	51.5	48.5	0	100
	3년	23	17.4	30.4	39.1	13	0	47.8	52.2	0	100
	4년 이상	87	14.9	27.6	43.7	13.8	0	42.5	57.5	0	100
북한거 주지역	국경지역	240	20.8	32.5	32.1	14.6	0	53.3	46.7	0	100
	내륙지역	60	10	33.3	38.3	16.7	1.7	43.3	55	1.7	10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9.1	27.3	27.3	36.4	0	36.4	63.6	0	100
	고졸	178	14.6	34.8	36	14	0.6	49.4	50	0.6	100
	전문학교 졸	53	28.3	30.2	28.3	13.2	0	58.5	41.5	0	100
	대재 이상	58	24.1	29.3	31	15.5	0	53.4	46.6	0	100
당원부	당원이다	79	20.3	32.9	31.6	15.2	0	53.2	46.8	0	100
	당원이 아니다	221	18.1	32.6	33.9	14.9	0.5	50.7	48.9	0.5	100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21.6	28.4	31.8	18.2	0	50	50	0	100
	경제적 이유	108	17.6	27.8	38.9	15.7	0	45.4	54.6	0	100
	가족 상봉	22	13.6	45.5	22.7	18.2	0	59.1	40.9	0	100
	삶의 기회 추구	73	17.8	41.1	31.5	8.2	1.4	58.9	39.7	1.4	100
직장	공식일	114	20.2	32.5	33.3	14	0	52.6	47.4	0	100
	이종일	66	19.7	25.8	42.4	12.1	0	45.5	54.5	0	100
	비공식일	81	18.5	38.3	24.7	17.3	1.2	56.8	42	1.2	100
남한계 여부	친척과 교류	79	19	38	21.5	21.5	0	57	43	0	100
	친척과 비교류	22	22.7	13.6	40.9	22.7	0	36.4	63.6	0	100
	무연고	195	18.5	33.3	36.9	10.8	0.5	51.8	47.7	0.5	100
북한계 계층	상층	22	45.5	22.7	13.6	18.2	0	68.2	31.8	0	100
	중층	147	17	34	36.1	12.9	0	51	49	0	100
	하층	127	16.5	32.3	34.6	15.7	0.8	48.8	50.4	0.8	100
북한계 계층	상층	17	17.6	29.4	29.4	23.5	0	47.1	52.9	0	100
	중층	169	22.5	32	31.4	14.2	0	54.4	45.6	0	100
	하층	110	13.6	33.6	38.2	13.6	0.9	47.3	51.8	0.9	100
남한계 계층	상층	2	0	50	50	0	0	50	50	0	100
	중층	111	22.5	36	27.9	13.5	0	58.6	41.4	0	100
	하층	183	16.9	30.1	37.2	15.3	0.5	47	52.5	0.5	100
정치 성향	진보	86	20.9	30.2	36	12.8	0	51.2	48.8	0	100
	중도	116	19.8	36.2	30.2	12.9	0.9	56	43.1	0.9	100
	보수	96	15.6	31.3	33.3	19.8	0	46.9	53.1	0	100
경제적 만족도	불만족	119	19.3	30.3	35.3	15.1	0	49.6	50.4	0	100
	만족	181	18.2	34.3	32	14.9	0.6	52.5	47	0.6	100

[문4-2]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2) 남한 국민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총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3.3</b>	<b>23</b>	<b>40.3</b>	<b>33.3</b>	<b>26.3</b>	<b>73.7</b>	<b>100</b>	<b>3.04</b>	<b>67.9</b>	
성별	남성	150	2	24.7	40.7	32.7	26.7	73.3	100	3.04	68
	여성	150	4.7	21.3	40	34	26	74	100	3.03	67.8
연령대	20대	44	2.3	9.1	50	38.6	11.4	88.6	100	3.25	75
	30대	64	1.6	20.3	43.8	34.4	21.9	78.1	100	3.11	70.3
	40대	98	3.1	22.4	39.8	34.7	25.5	74.5	100	3.06	68.7
	50대	61	4.9	32.8	32.8	29.5	37.7	62.3	100	2.87	62.3
	60대 이상	32	6.3	28.1	37.5	28.1	34.4	65.6	100	2.88	62.5
남 하 류 기 간 대	5년 이하	91	4.4	22	40.7	33	26.4	73.6	100	3.02	67.4
	6~10년 이하	80	0	20	40	40	20	80	100	3.2	73.3
	11년 이상	129	4.7	25.6	40.3	29.5	30.2	69.8	100	2.95	64.9
탈북 후 해이류 기 간 대	1년 이하	155	3.2	24.5	36.1	36.1	27.7	72.3	100	3.05	68.4
	2년	33	3	15.2	48.5	33.3	18.2	81.8	100	3.12	70.7
	3년	23	0	17.4	43.5	39.1	17.4	82.6	100	3.22	73.9
	4년 이상	87	4.6	25.3	43.7	26.4	29.9	70.1	100	2.92	64
북 주 지 역	국경지역	240	2.5	22.9	42.5	32.1	25.4	74.6	100	3.04	68.1
	내륙지역	60	6.7	23.3	31.7	38.3	30	70	100	3.02	67.2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18.2	36.4	45.5	18.2	81.8	100	3.27	75.8
	고졸	178	3.4	24.2	43.8	28.7	27.5	72.5	100	2.98	65.9
	전문학교 졸	53	5.7	22.6	34	37.7	28.3	71.7	100	3.04	67.9
	대재 이상	58	1.7	20.7	36.2	41.4	22.4	77.6	100	3.17	72.4
당 원 여 부	당원이다	79	5.1	29.1	38	27.8	34.2	65.8	100	2.89	62.9
	당원이 아니다	221	2.7	20.8	41.2	35.3	23.5	76.5	100	3.09	69.7
탈북 이 유	신변의 위협	88	4.5	26.1	37.5	31.8	30.7	69.3	100	2.97	65.5
	경제적 이유	108	3.7	21.3	41.7	33.3	25	75	100	3.05	68.2
	가족 상봉	22	4.5	31.8	40.9	22.7	36.4	63.6	100	2.82	60.6
	삶의 기회 추구	73	1.4	17.8	43.8	37	19.2	80.8	100	3.16	72.1
직장	공식일	114	6.1	25.4	31.6	36.8	31.6	68.4	100	2.99	66.4
	이중일	66	4.5	19.7	34.8	40.9	24.2	75.8	100	3.12	70.7
	비공식일	81	0	23.5	51.9	24.7	23.5	76.5	100	3.01	67.1
남 한 연 계 여 부	친척과 교류	79	3.8	27.8	34.2	34.2	31.6	68.4	100	2.99	66.2
	친척과 비교류	22	0	27.3	22.7	50	27.3	72.7	100	3.23	74.2
	무연고	195	3.6	20	45.1	31.3	23.6	76.4	100	3.04	68
북 정 계 층	상층	22	4.5	13.6	36.4	45.5	18.2	81.8	100	3.23	74.2
	중층	147	4.8	20.4	46.3	28.6	25.2	74.8	100	2.99	66.2
	하층	127	1.6	26.8	35.4	36.2	28.3	71.7	100	3.06	68.8
북 한 계 층	상층	17	5.9	11.8	23.5	58.8	17.6	82.4	100	3.35	78.4
	중층	169	4.1	22.5	40.8	32.5	26.6	73.4	100	3.02	67.3
	하층	110	1.8	24.5	43.6	30	26.4	73.6	100	3.02	67.3
남 한 계 층	상층	2	0	50	50	0	50	50	100	2.5	50
	중층	111	5.4	23.4	37.8	33.3	28.8	71.2	100	2.99	66.4
	하층	183	2.2	21.9	42.6	33.3	24	76	100	3.07	69
정 치 성 향	진보	86	3.5	19.8	41.9	34.9	23.3	76.7	100	3.08	69.4
	중도	116	2.6	29.3	41.4	26.7	31.9	68.1	100	2.92	64.1
	보수	96	4.2	18.8	37.5	39.6	22.9	77.1	100	3.13	70.8
경 제 적 만 족 도	불만족	119	3.4	26.9	37.8	31.9	30.3	69.7	100	2.98	66.1
	만족	181	3.3	20.4	42	34.3	23.8	76.2	100	3.07	69.1

[문4-3]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3) 한민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4.3</b>	<b>11</b>	<b>20.3</b>	<b>64</b>	<b>0.3</b>	<b>15.3</b>	<b>84.3</b>	<b>0.3</b>	<b>100</b>	
성별	남성	150	3.3	9.3	18.7	68	0.7	12.7	86.7	0.7	100
	여성	150	5.3	12.7	22	60	0	18	82	0	100
연령대	20대	44	4.5	9.1	27.3	59.1	0	13.6	86.4	0	100
	30대	64	3.1	9.4	21.9	65.6	0	12.5	87.5	0	100
	40대	98	4.1	12.2	19.4	64.3	0	16.3	83.7	0	100
	50대	61	3.3	13.1	19.7	62.3	1.6	16.4	82	1.6	100
	60대 이상	32	9.4	9.4	12.5	68.8	0	18.8	81.3	0	100
남 하 류 기 간 대	5년 이하	91	7.7	4.4	14.3	73.6	0	12.1	87.9	0	100
	6~10년 이하	80	0	12.5	22.5	65	0	12.5	87.5	0	100
	11년 이상	129	4.7	14.7	23.3	56.6	0.8	19.4	79.8	0.8	100
탈북 후 해외류 체류 기 간 대	1년 이하	155	4.5	7.7	20	67.1	0.6	12.3	87.1	0.6	100
	2년	33	0	12.1	21.2	66.7	0	12.1	87.9	0	100
	3년	23	4.3	8.7	34.8	52.2	0	13	87	0	100
	4년 이상	87	5.7	17.2	14.9	62.1	0	23	77	0	100
북 한 거 주 지 역	국경지역	240	5	10.4	22.5	62.1	0	15.4	84.6	0	100
	내륙지역	60	1.7	13.3	11.7	71.7	1.7	15	83.3	1.7	10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18.2	36.4	45.5	0	18.2	81.8	0	100
	고졸	178	4.5	11.8	21.3	61.8	0.6	16.3	83.1	0.6	100
	전문학교 졸	53	7.5	9.4	18.9	64.2	0	17	83	0	100
	대재 이상	58	1.7	8.6	15.5	74.1	0	10.3	89.7	0	100
당 원 여 부	당원이다	79	3.8	8.9	10.1	77.2	0	12.7	87.3	0	100
	당원이 아니다	221	4.5	11.8	24	59.3	0.5	16.3	83.3	0.5	100
탈북 이 유	신변의 위협	88	6.8	13.6	14.8	64.8	0	20.5	79.5	0	100
	경제적 이유	108	3.7	12	20.4	63.9	0	15.7	84.3	0	100
	가족 상봉	22	4.5	9.1	31.8	54.5	0	13.6	86.4	0	100
	삶의 기회 추구	73	2.7	6.8	20.5	68.5	1.4	9.6	89	1.4	100
직장	공식일	114	3.5	14	15.8	66.7	0	17.5	82.5	0	100
	이종일	66	4.5	12.1	15.2	68.2	0	16.7	83.3	0	100
	비공식일	81	6.2	8.6	22.2	61.7	1.2	14.8	84	1.2	100
남 한 연 계 여 부	친척과 교류	79	5.1	6.3	21.5	67.1	0	11.4	88.6	0	100
	친척과 비교류	22	0	13.6	13.6	72.7	0	13.6	86.4	0	100
	무연고	195	4.1	12.8	21	61.5	0.5	16.9	82.6	0.5	100
북 정 계 층	상층	22	4.5	4.5	13.6	77.3	0	9.1	90.9	0	100
	중층	147	4.8	10.9	17	67.3	0	15.6	84.4	0	100
	하층	127	3.9	12.6	24.4	58.3	0.8	16.5	82.7	0.8	100
북 한 계 층	상층	17	5.9	11.8	11.8	70.6	0	17.6	82.4	0	100
	중층	169	4.1	10.1	18.3	67.5	0	14.2	85.8	0	100
	하층	110	4.5	12.7	23.6	58.2	0.9	17.3	81.8	0.9	100
남 한 계 층	상층	2	50	0	0	50	0	50	50	0	100
	중층	111	2.7	13.5	18.9	64.9	0	16.2	83.8	0	100
	하층	183	4.9	9.8	20.8	63.9	0.5	14.8	84.7	0.5	100
정 치 성 향	진보	86	5.8	11.6	23.3	59.3	0	17.4	82.6	0	100
	중도	116	3.4	15.5	20.7	59.5	0.9	19	80.2	0.9	100
	보수	96	4.2	5.2	17.7	72.9	0	9.4	90.6	0	100
경 제 적 만 족 도	불만족	119	2.5	16	20.2	61.3	0	18.5	81.5	0	100
	만족	181	5.5	7.7	20.4	65.7	0.6	13.3	86.2	0.6	100

[문4-4]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4) 아시아인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21</b>	<b>29.7</b>	<b>21</b>	<b>28</b>	<b>0.3</b>	<b>50.7</b>	<b>49</b>	<b>0.3</b>	<b>100</b>	
성별	남성	150	17.3	30.7	24.7	26.7	0.7	48	51.3	0.7	100
	여성	150	24.7	28.7	17.3	29.3	0	53.3	46.7	0	100
연령대	20대	44	20.5	25	20.5	34.1	0	45.5	54.5	0	100
	30대	64	15.6	32.8	21.9	29.7	0	48.4	51.6	0	100
	40대	98	20.4	33.7	21.4	24.5	0	54.1	45.9	0	100
	50대	61	23	31.1	19.7	24.6	1.6	54.1	44.3	1.6	100
	60대 이상	32	31.3	12.5	21.9	34.4	0	43.8	56.3	0	100
남 하 체 류 기 간 대	5년 이하	91	30.8	23.1	19.8	26.4	0	53.8	46.2	0	100
	6~10년 이하	80	15	31.3	18.8	35	0	46.3	53.8	0	100
	11년 이상	129	17.8	33.3	23.3	24.8	0.8	51.2	48.1	0.8	100
탈 북 후 해 이 체 류 기 간 대	1년 이하	155	20.6	29	19.4	30.3	0.6	49.7	49.7	0.6	100
	2년	33	30.3	33.3	18.2	18.2	0	63.6	36.4	0	100
	3년	23	17.4	30.4	17.4	34.8	0	47.8	52.2	0	100
	4년 이상	87	19.5	29.9	25.3	25.3	0	49.4	50.6	0	100
북 주 지 역	국경지역	240	22.5	26.7	24.2	26.7	0	49.2	50.8	0	100
	내륙지역	60	15	41.7	8.3	33.3	1.7	56.7	41.7	1.7	100
학 력	인민학교 이하	11	0	27.3	18.2	54.5	0	27.3	72.7	0	100
	고졸	178	24.2	27	25.3	23	0.6	51.1	48.3	0.6	100
	전문학교 졸	53	15.1	35.8	15.1	34	0	50.9	49.1	0	100
	대재 이상	58	20.7	32.8	13.8	32.8	0	53.4	46.6	0	100
당 원 여 부	당원이다	79	22.8	31.6	20.3	25.3	0	54.4	45.6	0	100
	당원이 아니다	221	20.4	29	21.3	29	0.5	49.3	50.2	0.5	100
탈 북 이 유	신변의 위협	88	17	35.2	18.2	29.5	0	52.3	47.7	0	100
	경제적 이유	108	24.1	24.1	26.9	25	0	48.1	51.9	0	100
	가족 상봉	22	27.3	31.8	18.2	22.7	0	59.1	40.9	0	100
	삶의 기회 추구	73	20.5	28.8	16.4	32.9	1.4	49.3	49.3	1.4	100
직 장	공식일	114	17.5	32.5	19.3	30.7	0	50	50	0	100
	이중일	66	24.2	25.8	22.7	27.3	0	50	50	0	100
	비공식일	81	27.2	24.7	21	25.9	1.2	51.9	46.9	1.2	100
남 하 체 류 여 부	친척과 교류	79	25.3	20.3	16.5	38	0	45.6	54.4	0	100
	친척과 비교류	22	13.6	27.3	13.6	45.5	0	40.9	59.1	0	100
	무연고	195	19.5	33.8	24.1	22.1	0.5	53.3	46.2	0.5	100
북 정 계 층	상층	22	18.2	22.7	22.7	36.4	0	40.9	59.1	0	100
	중층	147	20.4	33.3	17.7	28.6	0	53.7	46.3	0	100
	하층	127	22.8	25.2	25.2	26	0.8	48	51.2	0.8	100
북 하 계 층	상층	17	23.5	35.3	0	41.2	0	58.8	41.2	0	100
	중층	169	19.5	30.8	19.5	30.2	0	50.3	49.7	0	100
	하층	110	23.6	25.5	27.3	22.7	0.9	49.1	50	0.9	100
남 하 계 층	상층	2	100	0	0	0	0	100	0	0	100
	중층	111	22.5	36	16.2	25.2	0	58.6	41.4	0	100
	하층	183	19.7	25.1	24.6	30.1	0.5	44.8	54.6	0.5	100
정 치 성 향	진보	86	22.1	23.3	22.1	32.6	0	45.3	54.7	0	100
	중도	116	22.4	30.2	19.8	26.7	0.9	52.6	46.6	0.9	100
	보수	96	18.8	35.4	20.8	25	0	54.2	45.8	0	100
경 제 만 족 도	불만족	119	21	31.1	21	26.9	0	52.1	47.9	0	100
	만족	181	21	28.7	21	28.7	0.6	49.7	49.7	0.6	100

[문4-5]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5) 세계인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계	4점 평균	100점 평균	
						그렇지 않다	그렇다				
<b>▣ 전체 ▣</b>	<b>300</b>	<b>30.7</b>	<b>30.7</b>	<b>18.3</b>	<b>20</b>	<b>0.3</b>	<b>61.3</b>	<b>38.3</b>	<b>0.3</b>	<b>100</b>	
성별	남성	150	30	30	18.7	20.7	0.7	60	39.3	0.7	100
	여성	150	31.3	31.3	18	19.3	0	62.7	37.3	0	100
연령대	20대	44	27.3	25	20.5	27.3	0	52.3	47.7	0	100
	30대	64	21.9	31.3	26.6	20.3	0	53.1	46.9	0	100
	40대	98	35.7	31.6	15.3	17.3	0	67.3	32.7	0	100
	50대	61	34.4	37.7	13.1	13.1	1.6	72.1	26.2	1.6	100
	60대 이상	32	31.3	18.8	18.8	31.3	0	50	50	0	100
남 하루 체유 기간대	5년 이하	91	41.8	28.6	15.4	14.3	0	70.3	29.7	0	100
	6~10년 이하	80	27.5	27.5	23.8	21.3	0	55	45	0	100
	11년 이상	129	24.8	34.1	17.1	23.3	0.8	58.9	40.3	0.8	100
탈북 후 해유 체유 기간대	1년 이하	155	31	36.8	14.8	16.8	0.6	67.7	31.6	0.6	100
	2년	33	42.4	18.2	24.2	15.2	0	60.6	39.4	0	100
	3년	23	26.1	26.1	17.4	30.4	0	52.2	47.8	0	100
	4년 이상	87	27.6	25.3	23	24.1	0	52.9	47.1	0	100
북 주 지역	국경지역	240	34.6	28.3	19.6	17.5	0	62.9	37.1	0	100
	내륙지역	60	15	40	13.3	30	1.7	55	43.3	1.7	100
학력	인민학교 이하	11	0	36.4	0	63.6	0	36.4	63.6	0	100
	고졸	178	30.9	31.5	21.9	15.2	0.6	62.4	37.1	0.6	100
	전문학교 졸	53	37.7	34	9.4	18.9	0	71.7	28.3	0	100
	대재 이상	58	29.3	24.1	19	27.6	0	53.4	46.6	0	100
당 원 부	당원이다	79	40.5	29.1	15.2	15.2	0	69.6	30.4	0	100
	당원이 아니다	221	27.1	31.2	19.5	21.7	0.5	58.4	41.2	0.5	100
탈북 이유	신변의 위협	88	29.5	39.8	14.8	15.9	0	69.3	30.7	0	100
	경제적 이유	108	31.5	23.1	22.2	23.1	0	54.6	45.4	0	100
	가족 상봉	22	27.3	27.3	22.7	22.7	0	54.5	45.5	0	100
	삶의 기회 추구	73	32.9	28.8	16.4	20.5	1.4	61.6	37	1.4	100
직장	공식일	114	33.3	29.8	15.8	21.1	0	63.2	36.8	0	100
	이종일	66	21.2	33.3	24.2	21.2	0	54.5	45.5	0	100
	비공식일	81	40.7	29.6	17.3	11.1	1.2	70.4	28.4	1.2	100
남 한 연 계 부	친척과 교류	79	31.6	27.8	16.5	24.1	0	59.5	40.5	0	100
	친척과 비교류	22	27.3	31.8	9.1	31.8	0	59.1	40.9	0	100
	무연고	195	31.3	30.3	20.5	17.4	0.5	61.5	37.9	0.5	100
북 정 계 층	상층	22	22.7	36.4	13.6	27.3	0	59.1	40.9	0	100
	중층	147	31.3	32.7	17	19	0	63.9	36.1	0	100
	하층	127	31.5	27.6	20.5	19.7	0.8	59.1	40.2	0.8	100
북 한 계 층	상층	17	23.5	41.2	5.9	29.4	0	64.7	35.3	0	100
	중층	169	31.4	32	17.8	18.9	0	63.3	36.7	0	100
	하층	110	30.9	27.3	20.9	20	0.9	58.2	40.9	0.9	100
남 한 계 층	상층	2	50	50	0	0	0	100	0	0	100
	중층	111	30.6	33.3	18.9	17.1	0	64	36	0	100
	하층	183	30.6	29	18	21.9	0.5	59.6	39.9	0.5	100
정 치 성 향	진보	86	26.7	30.2	20.9	22.1	0	57	43	0	100
	중도	116	31.9	31	18.1	18.1	0.9	62.9	36.2	0.9	100
	보수	96	33.3	31.3	16.7	18.8	0	64.6	35.4	0	100
경 제 적 만 족 도	불만족	119	30.3	32.8	20.2	16.8	0	63	37	0	100
	만족	181	30.9	29.3	17.1	22.1	0.6	60.2	39.2	0.6	100



## 통일 의식

문1.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 어떻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2) 북한식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 3) 각각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으로 통일해야 한다
- 4) 남한식도 북한식도 아닌 제3의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문2. 통일이 된다면, 통일국가는 어떤 나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된 다음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항 목	응답칸
1) 통일국가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다문화사회가 되어야 한다	
2) 통일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통일국가는 자유롭게 경쟁이 보장되는 철저한 자본주의 체제가 되어야 한다	
4) 통일국가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하나의 중앙 정부만을 가져야 한다	
5) 통일 이후 기존의 남북한의 정치 및 사회제도를 그대로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통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7) 통일국가에서는 집회나 선전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문3. 통일 이후, 진정한 통일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귀하는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2	3	4

항 목	응답칸
1) 통일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2) 통일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	
3) 생애 대부분을 통일한국에서 사는 것	
4) 통일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5) 한민족의 혈통을 가지는 것	
6)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7) 통일국가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	

문4. 선생님은 속한 아래 조직이나 집단에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

보기	전혀 소속감 없음	별로 소속감 없음	약간 소속감 있음	매우 소속감 있음
	1	2	3	4

항 목	응답칸
1) 북한인	
2) 남한 국민	
2) 한민족	
3) 아시아인	
4) 세계인	

문5. 선생님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1) 같은 민족이니까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
| 3) 남북 간에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 4)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

문6. 통일시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를 골라 주십시오.

- |                     |                    |
|---------------------|--------------------|
| 1)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 2) 속도조절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
| 3) 가능한 한 빨리 통일해야 한다 |                    |

## 인적 사항

문7. 선생님의 출생년도는?

(                    )년도

문8. 북한에서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북한 거주지: \_\_\_\_\_ 도       도시 / 농촌    도시인 경우는 \_\_\_\_\_

문9. 선생님은 북한을 언제 떠나셨습니까?

(                    )년    (            )월

문10.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언제 도착하셨습니까?

(                    )년    (            )월

문11. 선생님이 북한을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1. 북한당국의 탄압을 받아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2.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식량난 등)
3. 남한 혹은 제 3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4. 북한사회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5. 기타(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_\_\_\_\_ )

문12. 북한에 계실 때 선생님의 직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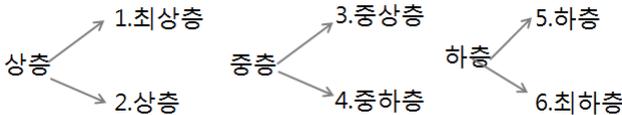
- |                          |                              |
|--------------------------|------------------------------|
| 1. 노동자(일반노동자/작업반장)       | 7. 지식인(교원, 의사, 예술가, 체육, 연구원) |
| 2. 농민(농장원, 선전원, 작업반장)    | 8. 기술자(기업소 간부)               |
| 3. 사무원, 판매원(봉사)          | 9. 장사                        |
| 4. 관리직(국가, 당기관 간부, 행정간부) | 10. 하루벌이                     |
| 5. 군인, 보위부 등             | 11. 기타_____                  |
| 6. 학생                    | (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

문13. 북한에서 선생님의 주된 직장생활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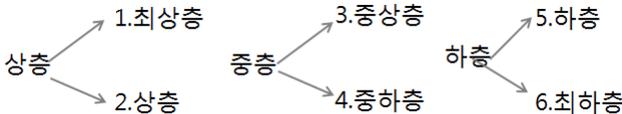
-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어느 정도 배급도 받았다.
- 직장을 매일같이 다녔고 배급과 직위에서 생기는 부수입이 있었다.
- 직장을 다녔지만, 생기는 게 없어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병행해야 했다.
- 직장에는 적만 두고 8.3비를 내고 다른 경제활동(장사, 경작 등)을 했다(8.3노동자).
- 소속 직장 없이 개인 장사를 했다.
- 기타\_\_\_\_\_ (기타는 조사원이 직접 기입하세요.)

문14. 북한에 살 때 선생님과 가족의 정치신분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보기카드 제시하고 설명해주세요



문15. 북한에 살 때 선생님의 경제적 계층은 아래 보기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1. 선생님은 북한에 계실 때 남한에 있는 사람들과 연계가 있었습니까?

- ① 남한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었다.
- ② 남한에 가족 친척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연계는 없었다.
- ③ 연계가 전혀 없었다.

문22. 남한에서 선생님의 현재 소득은 얼마입니까?

- 1. 50만원 미만
- 2. 50~ 99만원
- 3. 100만원~ 149만원
- 4. 150~ 199만원
- 5. 200~ 249만원
- 6. 250~ 299만원
- 7. 300~ 349만원
- 8. 350만원 이상
- 9. 소득이 없음

문23. 선생님은 자신을 진보 혹은 보수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10점 사이 점수를 주세요.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4-01 제1차 KINU 통일포럼: 「드레스덴 구상」과 ‘행복한 통일’	통일연구원
2014-02 제2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보유 및 대남정책	통일연구원
2014-03 제3차 KINU 통일포럼: 북일 스톡홀름 합의와 동북아정세	통일연구원
2014-04 제4차 KINU 통일포럼: 통일준비를 위한 과제와 전략	통일연구원
2014-05 제5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연구원
2014-06 제6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	통일연구원
2015-01 제7차 KINU 통일포럼: 동북아 국제질서 전환기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와 통일·외교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15-03 제9차 KINU 통일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업그레이드 전략 - 8·25남북합의 평가와 박근혜정부 후반기 대북·통일정책 방향 -	통일연구원
2015-04 제10차 KINU 통일포럼: 통일담론 3.0과 북한 변화 전략	통일연구원
2015-05 제11차 KINU 통일포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 평가와 전망	통일연구원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통일정세분석)

### 통일정세분석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박형중 외
2014-02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결과 분석과 전망	박영자 외
2014-03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문

### 통일나침반

2015-01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연구센터 신년사 분석팀
2015-02 최근 2년 간 미·일·중·러 4개국 정상외교 분석 및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김진하 외
2015-03 북한인권정책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한동호, 도경욱
2015-04 북한 외화벌이 추세와 전망	김석진
2015-05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이애리아, 이창호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 통일플러스

2015-01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5-02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5-03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2015-04 KINU 통일 플러스 Vol.1 No. 4 (겨울호)	통일연구원
2016-01 KINU 통일 + Vol.2 No. 1 (봄호)	통일연구원
2016-02 KINU 통일 + Vol.2 No. 2 (여름호)	통일연구원
2016-03 KINU 통일 + Vol.2 No. 3 (가을호)	통일연구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5	도경욱 외	19,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5</i>	도경욱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욱 외	18,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i>	도경욱 외	22,500원

## 연구보고서

### 2014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수, 도경욱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2014-13 한반도에 있어서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김수암 외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종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김명기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김규륜 외	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1)	조정아 외	7,000원
2014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IV(2)	조정아 외	22,000원
2014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허문영 외	12,000원
2014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박종철 외	11,000원
2014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DMZ 평화생태적 이용방안	손기웅 외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	----------

### ■ Study Series ■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2015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5-01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김갑식 외	9,000원
2015-02	북한의 시장화와 사회적 모빌리티: 공간구조·도시정치·계층변화	홍민	13,000원
2015-03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교육과정·교과서	조정아 외	13,500원
2015-04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박종철 외	16,500원
2015-05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현승수 외	8,000원
2015-06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박영자 외	10,500원
2015-08	인권개선을 위한 기술협력	한동호 외	6,500원
2015-09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과 대북정책: 사례와 적용	이기현 외	7,500원
2015-10	한반도 중장기 정세 변동 및 정책 도전 관련 요인의 식별(2015~2030)박형중 외		16,500원
2015	‘그린 데탕트’ 실천전략: 환경공동체 및 경제공동체 동시 형성방안	손기웅 외	10,500원
2015	2015년 통일에측시계	홍석훈 외	10,000원
2015	남북한 통합과 북한의 수용력: 제도 및 인식 측면	김수암 외	15,500원
2015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0,000원
2015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통일과정의 시사점	이규창 외	8,000원
2015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김진하 외	9,000원
2015	통일 이후 국가정체성 형성방안: 이론과 사례연구 중심	박종철 외	10,000원
2015	통일 이후 사회보장제도 분리 운영방안: 경제적 및 법적 분석	김석진 외	8,000원
2015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정치·사회·경제분야	조한범 외	11,500원
2015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역할: 주변 4국과 G20	조한범 외	14,000원
2015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전병곤 외	10,000원
2015	길림성의 대북경제협력 실태 분석: 대북투자를 중심으로	배종렬 외	13,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5-01	전환기 쿠바와 북한 비교: 정책적 함의	박영자 외
---------	-----------------------	-------

### ■ Study Series ■

2015-01	Tasks and Implementing Strategies of the “Trust-Building” Policy	Park, Young-Ho
2015-02	The Growth of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Kim, Suk-Jin
2015-03	The Experiences of Crossing Boundaries and Reconstruc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dentities	Cho, Jeong-ah et al.
2015-04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r o f f e t r

KINU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tudies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 연구총서 ■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운 외	14,000원
---------	-------------------------	-------	---------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정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재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에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3,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7,000원

### ■ 정책연구시리즈 ■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	--------------------------------------	----------

### ■ Study Series ■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

201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4~2015	6,000원
201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5~2016	8,000원

## 논문

---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1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2 (201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4, No. 3 (201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 기타

---

2014 복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이후 통합방안(4/5년차)

#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